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15-01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문화예술운동

민주장정 100년

전라남도 JeollaNamdo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음악운동

정 유 하

민주장정 100년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 07

Ⅱ. 사회운동과 노래들 ····· 11

1. 동학이 남긴 노래 ····· 11
 1) 민요 ····· 12
 2) 새 노래 ····· 15

2. 1950년대부터 1960년까지의 노래 ····· 16
 1) 월북 작곡가의 노래 ····· 16
 2) 가곡 ····· 18
 3) 대중가요 ····· 19
 4) 운동가요 ····· 22

3. 1970년대의 운동권 노래 ····· 25
 1) 복음성가류의 노래 ····· 27
 2) 새롭게 작곡된 가곡들 ····· 29
 3) 대중가요 ····· 31
 4) 김민기의 노래 ····· 31
  (1) 박기순의 장례식과 김민기의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 32
  (2) 1980년 3월 마당극 「돼지풀이」와 양희은의 〈금관의 예수〉 ··· 32
 5)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과 당시 불렸던 노래 ····· 33

Ⅲ. 음악운동 ····· 35

1.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전개된 음악운동과 작품 ····· 35
 1) 1980년 봄 학원자주화투쟁기간 동안 불렀던 노래 ····· 36
 2) 5·18민주화운동기간 동안 불렀던 노래 ····· 37
 3) 1980년 노래굿 「공장의 불빛」 광주공연 ····· 39
 4) 1981년 겨울의 노래공연과 〈검은 리본 달았지〉 ····· 40
 5) 〈님을 위한 행진곡〉과 노래극 「넋풀이」 ····· 41
  (1)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 41
  (2) 노래극「넋풀이」 제작배경과 대본 ····· 43
  (3) 〈임을 위한 행진곡〉의 보급과 사회적 기능 ····· 47
  (4)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화 ····· 50
  (5) 〈임을 위한 행진곡〉의 운명 ····· 52
 6) 1980년대 오월운동과 〈오월의 노래2〉 ····· 53

7) 광주지역의 문화패 결성 …… 56
(1) 일과놀이 …… 57
(2) 민중문화연구회 …… 57
(3) 80년대 복음성가운동과 문성인, 정세현 그리고 범능 …… 59
(4) 정세현과 노래패 '친구' …… 60
(5) 정세현과 '우리소리연구회' …… 64
(6) 광주민중문화협의회 …… 65
(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부 음악분과 …… 67
(8) 각 대학별 노래패 결성과 활동 …… 67

2. 1989년부터 그 이후 음악운동 …… 73
1) 광주의 음악운동: 5·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 …… 73
(1)거리음악제의 탄생 …… 73
(2)거리음악제의 성장 …… 74
(3)거리음악제의 변화와 의의 …… 78
2) 거리음악제에서 대규모 공연으로 …… 81
(1) 가요에서 록(Rock)음악, 서양 클래식 음악, 국제적인 음악으로… 81
(2) 지역 가수들에서 중앙의 가수로 …… 82
(3) 공연장소의 변화 …… 82
3) 개별적인 노래운동과 새로운 음악단체의 등장 …… 82
(1) 박종화의 노래운동 …… 82
(2) 남대협과 대학노래패 …… 85
(3)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 …… 86
(4) 광주의 노동자 노래패 결성 …… 94
(5) 그 외의 노래운동단체 …… 109
(6) 광주를 찾는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과 '일어서라 합창단'·· 116
(7)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지회의 활동 …… 119
4) 5·18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음악회들 …… 124
5) 오월창작가요제와 그 의미 …… 135

3. 전남지역의 음악운동 …… 140
1) 1980년대 목포 문화패와 음악운동의 출발…… 140
(1) 목포의 문화패와 노래모임 '아침' …… 140
(2) 대학 노래패 결성 …… 141
(3) 대학 노래패의 활동 …… 141
(4) 목포의 첫 대규모 노래운동 "선생님 힘내세요" …… 142
2) 갯돌의 노래패 '아침'에서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의
노래패 '어울림'으로 …… 144

3) 목포 노래패 '어울림'의 음악운동 ····· 144
(1) 5월항쟁기념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위하여 ····· 144
(2) 초청공연: 정태춘·박은옥, 노래를찾는사람들 ····· 146
(3) 통일을 기원하며 ····· 147
(4) 뮤지컬을 시도하다 ····· 147
(5) 소극장 노래운동 ····· 148
4)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목포지부 음악위원회 ····· 149
5) 새로운 노래패들 ····· 150
(1)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과 즐거운 노래 '소풍' ····· 150
(2) 목포 밴드 '국도1호선' ····· 152
(3) 전남 전교조 노래패 ····· 152
(4) 전남 농민 문화운동과 노래패 ····· 159

Ⅳ. 나가는 말 ····· 166

〈참고문헌〉 ····· 169

I. 들어가는 말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노래는 기존의 노래가 재해석되어 민중가요화 되어 사용될 수도 있고 창작될 수도 있다. 때로는 잘 알려진 기존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 상황에 적절한 용어 혹은 단어만을 바꾸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해학이 넘치는 노래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2008년부터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를 해온 밀양 주민들은 오랜 기간 집회와 시위, 궐기대회를 진행하면서 일약 운동권이 되었고 이제는 문화시위를 전개한다. 2014년 1월 25일에 열린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2차 밀양 희망버스 문화제'에서 '밀양할머니 합창단'이 불러 환호를 받은 노래는 가수 오승근이 불러 일반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의 개사곡이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고령화 사회가 된 이 시대에 노인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는 신나는 노래다. 그런데 이 노래가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중단 시위현장에서는 데모노래가 되어버렸다. 도시에서 세련됨의 반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아줌마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 뽀골뽀골 파마머리를 한 할머니들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한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데모하기 딱 좋은 나인데~" 한국전력공사에게도, 밀양 주민들에게도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이쯤 되면 시위도 재미있고 신나는 문화의 장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은 운동권이 되었을까?

과거의 운동권은 주로 이지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가에서 포섭과 교육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사회운동권을 하겠다고 결단한 후에는 어느 기간 동안, 혹은 일생동안 전업(full-time)운동가 되었다면 지금은 불합리한 사회현장의 곳곳에서 불합리와 불이익을 경험한 자들이 나이와 학벌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행사하며 자연스럽게 비전업(part-time)운동권이 되어간다. 밀양송전탑 건설중단을 외치는 할머니들이 사회과학을 공부했겠는가, 투사가 되길 원했겠는가? 그냥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뿐인데 어느새 운동가의 한 종류인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를 하면

서 운동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권익을 내어놓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배들의 치열했던 대의에서의 민주화운동이 맺은 결실의 덕이다.

음악운동은 사회운동과정에서 발생되었다. 사회운동은 사회에 변화 혹은 개량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을 집단적으로 지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제도권의 의지와 사회의 의지가 다를 때, 비제도적 방식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과 그 변혁가운데 함께하는 예술가들은 현장에서 운동집단에 필요한 작품을 생산한다. 작품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알리기도 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무관심한 사회구성원을 자극하여 동참하게 함으로써 집단을 형성하도록 돕기도 하며 운동의 현장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한다. 사건 혹은 운동의 현장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한다. 이러한 작품은 운동의 상징적 표상이 되어 또 다른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며 새로운 운동집단 통합에 기여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군가 〈라 마르세유〉도 그 좋은 예이다. 1792년 프랑스의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혁명에 위기감을 느낀 주변 왕정국가인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간섭하려들었다. 결국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의 동부를 침략하자 프랑스가 이에 맞서 선전포고를 한다. 프랑스 공병대 중대장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루제 드 릴은 스트라스부르의 숙소에서 아침이면 라인강을 건너 적진을 향해 떠날 군대를 위해 "라인군대의 노래" 를 만들었다. 후에 마르세유 의용군이 튈르리 궁을 습격하기 위해 파리에 입성할 때 이 노래를 부르던 것이 계기가 되어 〈라 마르세유〉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 이 노래는 혁명의 상징이 되어 혁명이 진행되었던 유럽대륙 곳곳에서 불리다가 1879년 마침내 프랑스의 국가가 되었다. 〈라 마르세유〉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시민혁명의 이상을 상기시키고 있다.

예부터 광주 · 전남지역은 의향으로 불리어 왔고 20세기에 들어서도 한반도에서 있었던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뒷짐 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있었던 5 · 18민중항쟁과 5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사회운동이었다. 여기에서 5월운동이란 1980년의 5 · 18민중항쟁이 실패로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노래는 운동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민중가요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다. 5월운동 이전에도 민주화를 위한 시위 혹은 데모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으나 그 노래들의 장르를 가르는 용어가 없었고 시위나 집회에서 불려 졌기 때문에 일명 '데모송' 이라는 별명 정도로 구별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80년대 5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투쟁과정을 통하여 데모송이라 불리는 노래는 소위 데모의 현장에서 이전보다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기 시작했고, 집단에게 필요한 정서를 고양시키며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운동성을 강하게 표출했다. 민중가요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도 이 무렵이다. 5월운동을 통해 광주에서 생산된 민중가요의 대표적인 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5 · 18민중항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지만 학생들의 시위에서 불리던 노래가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교육운동, 농민운동 등 모든 분야의 사회운동현장에서 전국적으로 불리면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다. 5월운동이 진행되는 광주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5·18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애국가〉를 대신해 민중의례의 노래로서 불렀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넘어 홍콩, 말레시아,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

위의 두 노래처럼 특별한 환경에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노래들이 가끔 강한 운동성을 갖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민중가요는 1980년 초반부터 5월운동의 전개와 함께 기존의 노래가 재해석되어 선택되기도 하고 목적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노래들은 그 운동성을 인정받아 음악운동이라는 용어도 탄생하게 되었다. 농업국가로서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던 농민운동, 1987년의 6월항쟁과 함께 등장한 노동운동,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육운동,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함께 성큼, 큰 걸음으로 달렸던 통일운동에서 생산된 많은 민중가요들이 음악운동에서 사용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이 지역의 각 분야별 운동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노래들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했던 노래패와 구체적으로 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민중가요생산에 참여한 노래꾼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의 음악운동에 사용된 노래들의 경향을 정리하는 것이다. 시기는 동학혁명으로부터 현시기까지로 '민주장정 100년 지역사회운동연구' 과제의 모든 시기를 포함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음악이 운동이라는 용어와 함께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나 그 이전에도 민중들이 의도를 가지고 불러온 노래들이 있었고, 이 노래들이 어떤 의미에서라도 영향을 미쳐왔던 것도 사실이므로 모든 시기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약한 기록과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탓하며 연구자에게 추적되는 한에서 정리할 것이다.

음악운동의 정리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 이유로 첫째는 음악운동에 사용된 노래의 선택과 생산과정이 시기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동학혁명의 시기는 자연발생적인 민요의 성격을 갖는다.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노래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동학운동의 과정을 지켜보는 민중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이고 어떤 노래는 동참을 선동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작사자와 작곡자도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가끔은 발견되나 어떤 노래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1960~70년대에 불렀던 노래들 중에는 시기와 사안에 따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작된 노래가 선택되기도 하고 전혀 운동성이 없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의 속한 이들이 불렀다는 이유로 운동권의 노래로 치부되는 노래들도 있다.[1] 1980년을 전후하여 노래가 사회운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는 기존의 노래가 새삼스럽게 재해석되어 불리기 시작했다. 또 음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운동에 투입되었고 노래들이 목적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노래운동을 위해 노래패들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순수하게 음악으로 사회운동을 이끌어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부터를 음악운동이라고 설정한다. 이와 같이 시기에 따라 음악운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

1) 운동권에 속한 인사들은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타인들과 다름을 은연중에 표현하기도 했다. 〈부용산〉이나 가곡 〈명태〉 같은 노래이다.

로 이 글의 초반에서는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선택되어 불렸던 노래들을 조사하고 그 노래의 창작 배경이나 작곡의 의도, 선택의 이유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음악운동이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시기로서 문화운동이 시작되고 이와 함께 노래패가 만들어지던 시기이다. 음악운동기간에 어떻게 노래패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운동성 혹은 영향력이 있었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음악운동이 전개된다. 광주의 전문 노래꾼들이 음악제를 열어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면서 학생노래패의 성격을 넘어선 노래를 위한 '연합전문집단' 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보급할 노래를 선택하고 노래에 몸짓(율동)을 첨가하여 전국단위로 노래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리될 것이다.

시기별로 다른 접근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음악의 속성 때문이다. 시각적인 결과물이 남는 미술과는 다르게 시간예술인 음악은 자주 흔적 없이 허공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불완전하나마 현장의 녹화나 녹음, 악보, 기록, 그리고 기억 등을 통해서이다. 불행하게도 테크놀로지의 덕을 보지 못했던 시대의 음악은 불완전한 구전을 통해서만 남아있고, 지금으로부터 3~40년 전의 사건은 희미한 기억과 망각을 낳아 '불렀었던 것 같다', '그랬을 것이다' 혹은 '잘 모르겠다.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라는 말로만 남아있다. 공안정국 하에서 가끔은 모르는 것이 상책이라는 암묵적 사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지우기도 하고, 때로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활동의 자료들을 버렸다는 구술도 있었다. 결국 수집한 정보의 불완전성때문에 일관적인 전개가 어려웠다.

이 연구결과물은 이 연구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시간스펙트럼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 말고도 앞서 언급한대로 '~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잘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 것' 이라는 수많은 증언들 때문이다. 부족한 이 결과물이 읽히게 되면 남기고 싶은 음악운동의 순간들의 제보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음악운동을 전개했던 광주전남의 각 대학노래패의 활동상, 그리고 각 지역의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노래패들과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도 실직의 위험을 무릎 쓰고 활동했던 수많은 노동자노래패 활동의 자세한 정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II. 사회운동과 노래들

1. 동학이 남긴 노래

곡창지대인 전라도는 오랫동안 수탈의 대상이었고 농민들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려 왔다. 19세기 말 일본과의 교역과정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전라도의 농민들은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다. 이 무렵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은 반침략적 민족의식과 반봉건적 평등사상을 표방하면서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으로 최제우가 처형되자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했고 정부는 강경탄압책으로, 동학측은 더 강력한 실력행사로 맞서게 되었다.[2] 그러다 1893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지친 농민들은 억울한 사정을 군수에게 진정하기로 하고 동학접주 전봉준을 장두로 삼아 조병갑에게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동학접주들이 모여 봉기를 약속하고 고부군아를 습격해 불법으로 수탈한 수세미를 되찾아 농민에게 돌려주고 동학군은 해산되었다. 정부에 보고된 이 사건은 조병갑의 죄상이 알려져 고부군수는 파면되고 사태는 수습되었으나 사후처리를 맡은 안핵사 이용태는 동학교도의 봉기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동학을 탄압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동학과 관계없는 전북과 충남지역의 농민들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는 등, 이용태가 악행을 행하게 되자 동학군들은 격분하여 2차로 봉기하게 되었다. 전남에서의 동학군(혹은 농민군)의 봉기는 강진, 병영, 장성, 나주, 구례, 장흥, 해남, 무안, 함평, 곡성, 능주 등 거의 전 지역을 망라했다. 전국으로 번진 동학교도들의 봉기를 진압하는데 정부는 청과 일본 등 외세를 끌어들였다. 결국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훈련된 일본군이 진압에 투입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고부봉기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수많은 동학교의 접주들은 관군에게 잡혀 교수형을 받았다. 농민들의 지지와 후원속에서도 결국 실패로 끝난 동학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시선들이 남긴 노래들이 민요가 되었다. 동학을 소재로 한 민요에는 〈파랑

2) 무등역사연구회, 「광주 · 전남의 역사」, 무등역사연구회총서 1, 210-211쪽.

새요(謠)〉, 〈녹두새(요)〉, 〈가보세(요)〉, 〈개남(아)요〉, 〈봉준(아)요〉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파랑새요〉는 여러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노래들은 민요로 부르기도 했지만 민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합창곡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가사만 빌어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다.

1) 민요

〈파랑새요〉는 100여년이 지난 민요인 탓으로 당시 실제로 부르던 노래의 가사나 선율이 잘 보존되어 내려왔다고 볼 수는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적 가능한 노래들을 살펴보면 봉기한 교도들을 고무하는 노래라고 해석되는 노래도 있고, 동학운동 가담을 숙고하라거나 경거를 경고, 해산 종용, 혹은 패배를 예언한 노래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에 관하여 민요학자 임동권은 "그 원인으로는 아마 원칙적인 공감은 느끼면서도 국제정세란 대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승산이 없는 거사에 자중하고 관망하여 선뜻 나서지 않은 것 같다" [3]고 해석했다. 이는 동학이 실패로 끝났고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흐른 후 남겨진 민요를 수집, 조사한 탓으로도 생각된다. 동학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주판의 동학관련 민요와 무안, 그리고 몇 지역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4]

제목 (지역)	파랑새요(전국)	파랑새요(무안)	파랑새요(홍성)
가사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중략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은 새야 아버지의 넋새보오 엄마죽은 넋새외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수[5] 울고간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네굽을랑 엇다두고 朝鮮굽에 나왔느냐 솔잎댓잎이 파릇파릇하길래 夏節인줄만 알고 왔드니 백설이 휘날린다.

3) 임동권, 「韓國民謠硏究」, 국어국문학양서 12, 서울: 二友出版社, 168쪽.
4) 임동권, 위의 책, 159-167쪽.
5) 창포장수는 무안의 창포만을 중심으로 활약한 대접주 배상옥장군을 지칭한 것이다.

제목 (지역)	파랑새요(정읍)	녹두새요(전주)	가보세요(고양)
가사	새야새야 파랑새야 전주고부 녹두새야 어서바삐 날아가거라 대잎솔잎 푸르다고 봄철인줄 알지마라 백설이 흩날리면 먹을것 없어	웃녘새는 우로가고 아랫녘새는 아래로 가고 전주고부 녹두새야 두룸박 딱딱 우여 윗논에는 차나락심고 아랫논에는 매나락 심어 울오라비 장개갈 때 찰떡치고 메떡칠 때 네가 다까먹나 우여	가보세 가보세 (甲午歲 甲午歲) 을미적 을미적 乙未 병신(丙申)되면 못간다
제목 (지역)	상옥요(무안)	봉준요	개남요
가사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군대 어디두고 쑥국새(사형대) 밑에서 잠 드느뇨	봉준아 봉준아 전봉준아 양에야 양철을 짊어지고 놀미 갱갱이[6] 패전했네	개남아 개남아 진개남아 수많은 군사 어데다 두고 전주야 숲에는 유시했노

위의 노래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민요는 표의 첫 간에 제시된 〈파랑새요〉이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파랑새는 푸른색 군복을 입었던 관군, 혹은 일본군이나 1894년 6월 5일 아산만에 상륙한 청나라 군인을 말하고 녹두는 고부지방의 접주, 전봉준을 말한다. 전봉준 장군이 몸이 왜소하여 녹두로 불렸다고 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파랑새가 전봉준이라는 것인데 성씨인 全을 파자하여 八王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것이 변형되어 파랑새라고 했다는 것이다. 청포장수는 백성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 청포장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었다. 청포장수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접주인 '배상옥장군'이라는 것이다. 배상옥장군은 무안의 창포만 일대에서 활약했는데 그의 세력은 정읍의 손화중[7] 포와 맞먹고, 전봉준이나 김개남[8]의 세력

6) 놀미(놀뫼)는 지금의 논산이며 갱갱이는 지금의 강경이다.
7) 손화중은 전봉준, 김개남과 동학농민전쟁의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8) 김개남(본관은 강진)은 전라북도 정읍출신으로 1893년 10월 동학군의 재봉기 때는 1만의 병력을 동원해 출전할 정도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과 비슷하거나 더 컸다고 한다. 무안향토사연구소의 백창석 소장의 해석에 따르면 '전봉준의 세력이 무너지면 창포만 지역에서 활동하던 배상옥 장군이 절망에 빠진다' 는 것이다. 실제로 전봉준은 우금치전투에서 패했고 그 후로 배상옥은 해남에서 잡혀 처형당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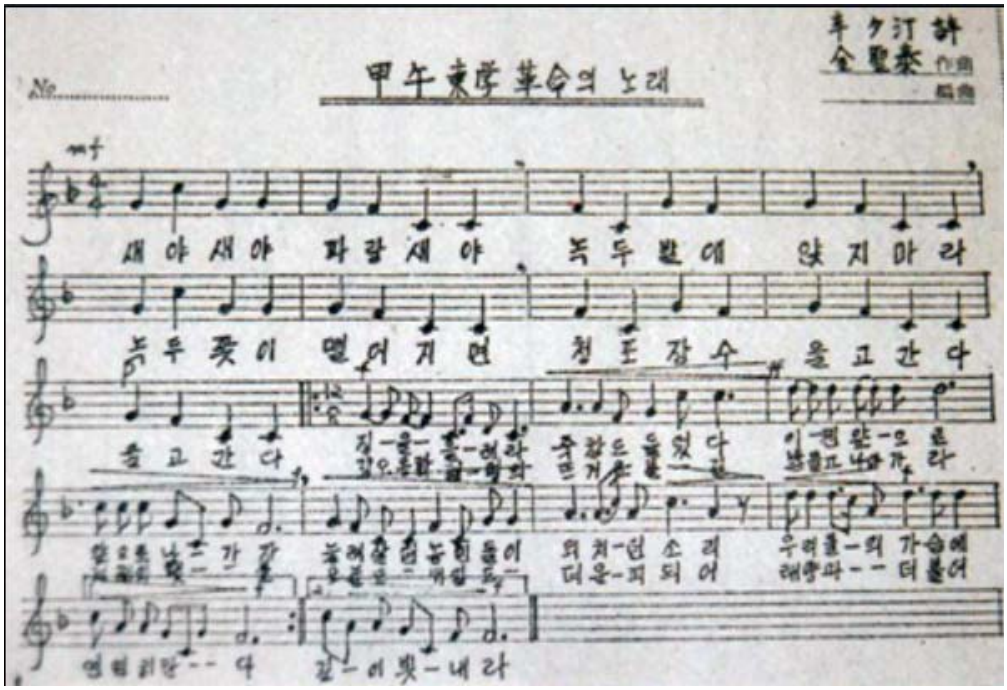
동학관련 민요가 대부분의 가사가 거사를 후회하는 민요인데 반하여 〈가보세요〉에 관하여는 다른 해석도 제기된다. 이은상은 '이는 동학란이 갑오년에 얼른 성공을 못하고 을미년을 지나 병신년에 다다르면 동학란은 필경 실패에 귀할 것을 말한 것으로 ' 가보세 을미적 병신되면 ' 운운은 다 갑오, 을미, 병신과 그 음이 같음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민요 채집자 변인기는 '갑오(甲午) 을미(乙未) 병신(丙申)의 은의이니 동학란을 선동한 것이라' 고 주를 달았다.[10] 혁명을 격려하고 있는 민요라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민요 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여러 민요들이 각 지역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다.[11]

9) 2007년 3월 12일 MBC 뉴스에서 새로운 해석을 전했다.
10) 재인용(驚山文選, 562쪽), 위의 책, 161쪽.
11) 강원도 원주지방에서 내려오는 〈파랑새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팝죽팝죽 잘 논다만 녹두꽃을 떨구고서 청포장수 부지깽이 맛이 좋다 어서가라. http://blog.daum.net/cloudship1004/11679582

2) 새 노래

동학을 소재로 한 새로운 노래들이 창작되었다. 1963년 정읍군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우기로 하면서 가사는 신석정시인에게 그리고 작곡은 서울대 음악과 교수인 김성태에게 위촉하였다. 김성태는 전국에서 불리던 〈파랑새〉를 인용하여 〈갑오동학혁명의 노래〉작곡하였다. 다음은 이 노래의 악보이다.

〈악보 1. 갑오동학혁명의 노래〉


甲午東學革命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울고간다 (짐을 울어라)
(구슬픈 울음)
(이별의)
(이별의)
(이별의

또 다른 노래 〈파랑새요〉는 2002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30만 농민대항쟁 '우리쌀지키기 전국농민대회' 를 위해 윤민석이 작곡한 노래이다. '우리쌀지키기 전국농민대회' 는 'WTO 쌀수입 개방' 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이 '우리 쌀 사수' 와 '식량주권' 의 기치를 내걸고 총궐기하는 자리였다.[13] 이 대회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전대협 진군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등의 민중가요를 작곡했던 송앤라이프 대표 윤민석이 민요 〈파랑새요〉의 가사에 새로운 선율을 붙여 발표했다.

2.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노래

1960년대에 소위 운동권에 속했다는 인사들을 만나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고 물으면 모두 '그때는 데모할 때에 딱히 부를 만한 노래도 없었고 별로 부르지도 않았어' 라고 대답했다. 아마도 1980년대와 90년대 왕성했던 노래운동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말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생각에 잠기면 서서히 나오는 노래제목들이 있다. 〈해방가〉, 〈정의가〉, 〈선구자〉, 〈탄아탄아〉, 〈바람이 분다〉, 〈보리밭〉, 〈스텐카라친〉, 〈농민가〉, 〈부용산〉, 〈사노라면〉 등이다. 마땅히 부를만한 노래들이 없었던 그 시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던 애국적인 노래들과 고단한 삶에 위로를 던져주는 노래들이 운동권학생들과 인사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것 같다. 새로 의미를 부여하여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를 통해 운동가요로 사용했다. 술집에 모였을 때는 당시 유행하던 팝송을 자주 불렀다. 김상윤(전남대 68학번)은 그런 노래들 가운데 동료들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국문과 재학생 윤보현이 번역한 존 덴버(John Denver)의 〈컨트리 로드(Take Me Home Country Road)〉와 사이먼 & 가펑클(Simon & Garfunkel)의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를 기억한다. 〈부용산〉도 60년대 학번의 선배들이 a많이 불렀던 애창곡이었다. 어떤 이는 시위하다 잡혀 들어간 감옥에서 장기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배웠다고 하고[14] 또 다른 이는 서울에서 내려온 운동권 학생에게 배웠다고 한다.[15] 다음은 왜 이러한 노래들이 운동권역에서 불리게 되었는지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의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월북 작곡가의 노래

1950년대의 대표적인 노래 〈부용산〉은 어떤 사회정치적 운동과 상관없이 태어난 노래다. 그럼에도

13) OhmyNews, "새야 새야 파랑새야", 2002.11.13., 문성.
14) 2014년 4월 28일 김상윤 인터뷰.
15) 2014년 7월 14일 송정민(67 · 68학번) 인터뷰, 일고 선배인 주영길(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불구하고 호남지역 조선인민유격대원, 일명 '빨치산' 들이 즐겨 불렸다는 이유와 작곡가 안성현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으나 운동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불려온 노래이다. 지금이야 좋은 세상이 되어서 목포에서는 이 노래가 목포에서 작곡되었다고 목포의 노래라고, 나주에서는 '남평출신의 안성현이 작곡했다' 해서 나주의 노래라고, 그리고 벌교에서는 '가사를 쓴 시인 박기동이 벌교출신이며 부용산이 벌교에 있는 산' 이기 때문에 벌교의 노래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탄생배경에 관하여는 이 노래가 죽은 동생을 추모해서 쓴 '제망매가' 라는 설과 절명한 애제자를 위한 '애도의 노래' 였다는 두가지 설이 있다.

시인 박기동은 여수 돌산에서 태어나 일본 간사이(關西)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1943년 귀국해 벌교의 남초등학교, 벌교상업중학교, 항도여중, 광주고등학교 등지에서 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1947년에는 순천사범학교로 전근했다. 이 해에 시집갔던 큰 누이동생 박영애가 순천 도립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죽었다. 30세의 박기동은 벌교의 부용산에 누이동생을 눕혀놓고 돌아와 순천에서 '부용산' 이라는 시를 썼다. 작곡가 안성현은 나주시 남평에서 가야금 산조의 명인 안기옥의 아들로 태어나 함경남도 함흥에서 성장했다. 일본 도쿄 동방음악대학 성악부를 졸업하고 목포와 광주에서 중학교와 사범학교 음악교사생활을 했다. 1948년 박기동은 목포의 항도여중으로 초빙되어 그 곳의 음악교사 안성현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항도여중 3학년에 김정희라는 학생이 경성사범에서 전학해 와 있었는데 문예방면에 소질이 뛰어난 천재소녀였다. 이 해에 김정희가 폐결핵으로 죽었고 박기동은 장지까지 따라나섰다. 얼마 뒤 안성현은 박기동의 시 '부용산' 에 곡을 붙여 왔고 노래를 잘하던 상급반 학생 배금순이 〈부용산〉을 불렀다. 이 노래는 순식간에 전남일대로 유행해 나갔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던가? 인기있는 총각이었던 박기동에 관하여 "박선생님이 정희의 무덤에 가서 울었단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 노래가 애제자곡설을 가지게 되었다.[16]

부용산은 사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애절한 제망매가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리산 빨치산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빨치산들에게는 피어나지 못한 붉은 장미가 당시 피워보지 못한 '사상의 꿈' 같았을지 모르겠다. 이 노래는 1950년대 이후 줄곧 호남권에서 운동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로 구전으로 전해져오면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1997년 안치환은 구전으로만 내려져오던 〈부용산〉을 자신의 음반에 실었다. 그 후로 1998년 박기동의 제자였던 김효자 교수가 노래 악보 원본을 제보했고, 덕분에 정확한 노래가 알려졌다. 1998년 5월 29일 목포에서 '부용산' 음악회를 개최한 이래로 1999년에는 벌교 부용산에 노래 기념비와 기념 누각이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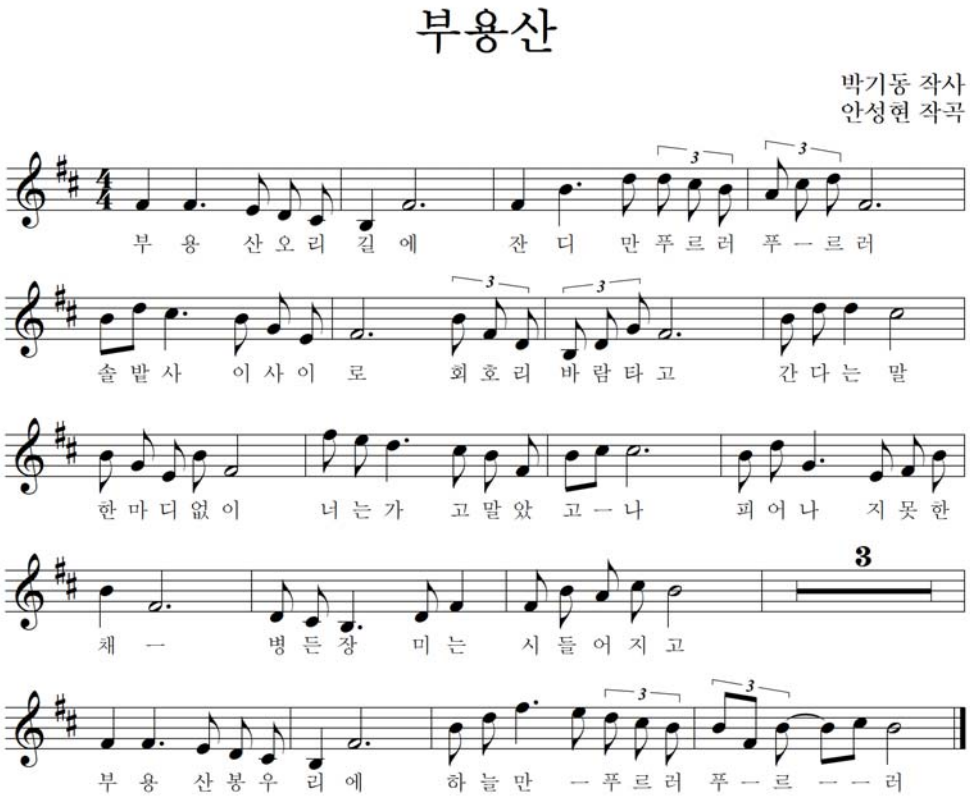
〈부용산〉이 빨치산들의 애창곡이라는 사실과 월북작곡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시달림을 당한 박기동은 76세의 나이에 홀홀 단신으로 호주로 이민을 떠났다. 2003년 86세가 된 그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으나 2004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

16) http://blog.naver.com/yulexa/70144835844에서 재인용, 김효자(경기대 교수)의 글.

1950~60년대에 빨치산들이 많이 불렀다고는 하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 대학을 다녔던 선배들이 지금도 〈부용산〉을 술자리에서 부르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겨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좌절감과 허탈함을 담은 시를 서정적 단조(나단조)곡으로 담아내 비장함이 넘치는 이 노래의 정서가 60년대로부터 80년대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공안정국하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던 청년들의 심정과 매우 흡사해 오랫동안 불러왔던 것 같다. 〈부용산〉은 이렇게 저항가요가 되었다.

〈악보 2, 부용산〉



2) 가곡

김상윤은 친구 송정민(전남대 67학번)이 '일송정'을 잘 불렀다고 얘기한다. 일송정은 〈선구자〉를 말한다. 송정민은 이 노래를 본래의 가사로 부르기도 했지만 시기별 사안에 따라 가사를 바꿔 불렀다고 한다.[17] 〈선구자〉는 조두남이 1933년 중국 용정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독립군이 가져다 준

시에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윤해영의 시였다. 지금은 조두남의 친일행적이 드러나 노래의 감동이 좀 사라진듯하나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운동권들에게는 본인의 애국심을 확인하고 대중을 향해서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던 운동가요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노래였다. 필자에게도 1980년 5월 전남대학교 내에서 학원자율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때에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남아있다. 다음은 개사해서 불렀던 〈선구자〉의 가사이다.

1절: 무등산 아침 해가 용봉골에 비칠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고이 간직 하였네
자유를 찾겠노라 칼을 갈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을 키우나.
2절: 무등산 아침 해가 금남로에 비칠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고이 간직 하였네
민주를 찾겠노라 칼을 갈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을 키우나.

애국적인 노래도, 운동을 위한 노래도 아니지만 60년대 후반의 운동권역에서 많이 불렀다는 노래로 〈보리밭〉이 있다. 박화목 작사, 윤용하 작곡의 〈보리밭〉은 50년대를 전후로 청소년기를 농촌에서 보낸 기성세대에게는 많은 향수를 전해주는 모양이다. 작곡가 윤용하는 이 노래를 한국전쟁으로 시달리는 우리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위로해주기위해서 1951년에 작곡했고 1953년에 발표했다. 1971년에 대중가수 문정선이 이 노래를 불러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거의 모든 국민이 아는 노래가 되었다. 1972년 이탈리아 가수 밀바가 한국을 방문해 공연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이 노래를 시원하게 열창하여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3) 대중가요

6.3세대라고 불리는 60년대 초·중반 학번의 선배들은 당시 특별한 운동가요가 없었기 때문에 노가바를 통해서, 혹은 가사에 의미를 재부여하면서 기존의 대중가요도 많이 불렀었다. 6·3항쟁 혹은 6·3시위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일으킨 운동을 말한다. 박 전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에서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평화선까지 일본에게 양보한다. 어업단체들은 '평화선 사수대회'를 개최하고 야당은 '평화선 양보하는 한일회담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일회담조기타결' 방침을 밀고나가자

17) 송정민, 2014.7.14., 정용화의 인터뷰, 2014.07.07.

당시 야당의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와 전국의 대학생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한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투쟁을 강경하게 억누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비밀협상을 진행시켜 결국 1965년 6월 22일에는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64년의 한일협상반대와 65년의 협정비준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홍길, 박석무, 전홍준, 홍갑기, 정동년, 박종희, 김창호, 민강수, 안청수, 김재홍, 김영우, 정성훼, 안일근, 송종호, 서병수 등이었다.

이 무렵 서울대에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시체로 규정한 김지하의 조사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가 울려퍼졌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문화운동의 장을 여는 순간이었다. 김지하는 이후로 문화운동의 1세대로 불리는 임진택, 김민기, 장선우, 이애주, 이상우, 채희완 등과 운동의 현장에 탈춤, 마당극, 창작판소리, 저항가요를 자리 잡게 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문화운동의 분위기는 광주에도 전달되었다. 1964년 6월 4일에서 5일까지의 시위로 338명이 연행되었고 대부분은 6월 중에 석방되었으나 8명은 구속 입건되었다. 이중 6명이 전남대생이었는데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사석에서 현미가 불렀던 〈보고 싶은 얼굴〉을 많이 불렀다고 한다.

이양현(광주일고 44회, 69학번)은 남인수가 불렀던 대중가요 〈가거라 삼팔선〉을 전라도 사투리로 개사한 일명 〈게비어 송〉을 자주 불렀다. 후배들을 통해 전달된 이 노래는 19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필자도 선배들이 부르던 장면과 함께 기억에 남아있다. 〈가거라 삼팔선〉은 1947년 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의 노래로 남인수가 불렀다. 1945년에 맞은 해방의 기쁨도 잠깐, 강요된 분단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아픔을 남겼다. 이러한 현실과 감정이 고스란히 실린 이 노래는 월남한 사람들은 물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애창했고 한국전쟁 중에 종군하는 외신 기자들도 전선에서 함께 부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1948년 9월 김일성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가거라 삼팔선〉은 전면 금지되었다. 남한에서도 가사가 문제가 되어 가사의 끝부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헤맨다"가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탄한다"로 바뀌면서 금지는 면했다. 〈가거라 삼팔선〉은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중가요집에 실려 있을 정도로 운동권역에서 많이 불렀다. 〈가거라 삼팔선〉의 가사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게비어송〉의 가사는 전라도 사투리로 바뀌면서 해학이 넘친다.

〈가거라 삼팔선〉

아아~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아아~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땅을 가고 오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쫓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헤맨다(탄한다)

〈게비어송〉[18]

아아~ 산이 맥힌게 못오시는 게비어
아아~ 물이 맥힌게 못오시는 게비어
다같은 고향땅을 왔다갔다 헐것인디
남북이 가로나 맥힌게 못오시는 게비어
밤마다 너조까 볼라고
꿈마다 너조까 볼라고
삼팔선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여러번 허는 게비어

또 다른 대중가요로는 김상윤(68학번)과 송정민(67학번)이 자주 불렀다고 기억하는 〈사노라면〉이 있다.[19] 운동권이 아니라도 고단한 세월을 살았던 기성세대라면 술잔과 함께 감상에 빠져 실낱같은 희망을 실어 부르는 노래가 이 〈사노라면〉일 것이다. 워낙 모든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불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작자미상으로 남아있었고 대학교 선후배들 사이에서 구전으로만 전해져왔었다. 60년대 학번이 불렀던 노래가 80년대 학번의 후배까지 구전만으로 전해져왔으니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이다. 그러다 2004년 가요평론가 박성서가 소장한 음반의 공개와 함께 노래의 베일이 벗겨졌다.[20] 1966년 쟈니리의 독집앨범 "쟈니리 가요앨범" 의 1면 세 번째에 수록되어 발표된 이 노래의 제목은 본래 〈내일은 해가 뜬다〉로 김문응이 가사를 쓰고 길옥윤이 작곡했다. 이 노래가 지속적으로 불리면서도 그 정체가 모호해진 것은 1967년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테지" 라는 가사가 '현실 부정적' 이라는 이유로 방송 금지곡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디어를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 노래가 운동권에서 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구전으로 전해졌고 1980년대 초반, 노래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 운동가요집에 이 노래가 구전가요로 기록되었다. 노래의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노라면〉은 80년대에는 순수한 민중가요로 알려졌고 지금도 집회와 시위의 장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이다.

---

18) 정용화 인터뷰, 2014.07.07.
19) 김상윤과의 인터뷰, 2014. 4. 28., 송정민과의 인터뷰, 2014.7.14.
20) 위키백과 '내일은 해가 뜬다', http://ko.wikipedia.org/wiki/, 스포츠한국 '사노라면' 원작자 찾았다. 2004.9.19

이 외에도 운동권 사석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로 〈황성옛터〉, 〈백치 아다다〉, 〈폰새〉, 〈예성강〉, 〈불나비〉 등이 있다. 1966년에 발표되어 남북분단의 아픔을 노래했던 〈예성강〉은 1980년대 광주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노가바'로 다시 태어났다.

4) 운동가요

앞서 설명한 한일외교반대에 참여했던 이홍길, 박석무, 전홍준 등 6·3세대들이 불렀던 노래로 대중가요 외에 처음부터 사회운동을 의도한 노래들이 있었다. 박태원이 가사를 쓰고 김성태가 작곡한 해방가요 〈해방가〉[21]와 김성훈과 농사단 회원들이 가사를 썼다고 하는 〈농민가〉가 여기에 속하는 오래이다.

1960년 4·19혁명이후 자유의 바람이 불어 닥친 대학가에는 생기가 돌았고 학도호국단대신 학생회가 조직되었다, '농촌계몽운동' 바람이 불었고 대학마다 학기말 시험이 끝나면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돕는 농촌봉사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서울대학교의 동아리 '농사단', '향토개척단', '새생활운동반' 등이 있었다. '농사단'의 회원이었던 전 농림부장관 김성훈은 무안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 시절, 농촌 청소년 계몽단체인 4-H클럽을 조직해 농촌 청소년 조직활동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4-H클럽 회원들과 리트머스 시험지로 동네토양을 검사해 밭 생산력을 높이는 일을 했을 정도로 실제로 농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농민운동단체 '한얼'과 '농사단'에서 활동했었다. 1960년대 초에 탄생한 〈농민가〉는 김성훈과 '농사단' 회원들이 함께 가사를 썼던 농사단의 단가였다.[22]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순 토종 민중가요이면서 많이 불리는 이 노래는 전국에 보급되어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항상 부르는 노래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농민운동의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최근 FTA와 쌀 전면개방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농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민가〉를 부르고 있다. 2014년 4월 13일 모악산에서 열렸던 김제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영농발대식,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쌀 전면 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대회', 7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주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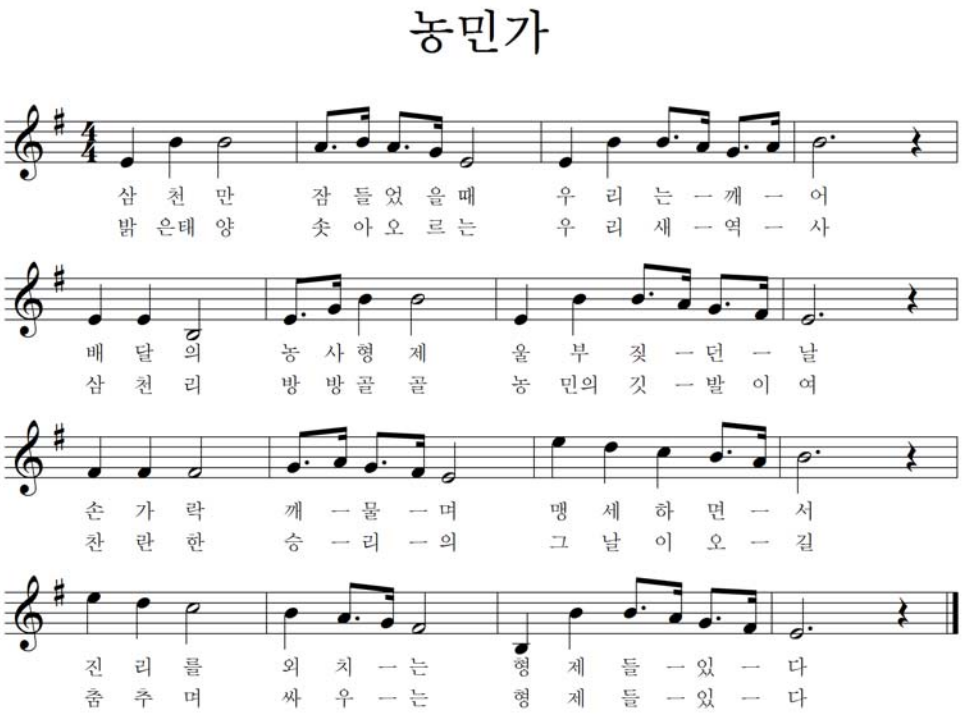
---

21) 〈해방가〉 1절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깊더니 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튼다
동포여 자리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태평양까지
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린다
어둠아 물러가라 현해탄 건너 눈물아 한숨아 너희도 함께
동포여 두 손 모아 만세 부르자
광박한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 아 해방의, 해방의 깃발 날린다.

22) 주간동아, "농업, 농촌, 농민이 살아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기사, 2012.08.06. 다수의 농민 운동가들이 김성훈과 농사단 회원들이 함께 작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나상기, 문경식 등)

부산경남 농민가족 체육대회, 9월 18일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열린 '쌀 시장 개방 반대 집회', 11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한중FTA저지 쌀전면개방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 등 농민과 관련된 모든 집회에서는 지금도 〈농민가〉가 제창되고 있다. 다음은 〈농민가〉의 악보이다.

〈악보 3. 농민가〉



박태원이 작사하고 김성태가 작곡한 〈해방가〉는 1946년에 〈독립행진곡〉으로 발표되었다. 1946년 2월, 해방의 감격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국민음악연구회가 편집하고 발행한 「해방기념 애국가집」에 수록되어있다.[23] 1960년 4·19혁명시기 때에도 불렸으며 이후로 학생들의 시위현장에 자주 등장했던 노래인데 1990년대 중반까지 구전되면서 대학생들에게 민중가요로 남은 노래이다. 특히 1972년 김민기가 서울대 문리대의 진입생(교양과정부를 마치고 분과로 진입한 학생을 지칭)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연행되고 음반이 수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는 이 당시에도 대학생들 사이에 구전되고 있었음과 이 노래가 데모노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노래가 이 지역에서도 많이 불렀다고 한다.

2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2213.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선경식(광주일고 42회, 67학번)의 애창곡은 〈바람이 분다〉였다.[24] 〈바람이 분다〉는 한일수교를 반대하던 60년대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고 구전되어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던 후배들에게 전승되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던 열강,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의 대사관이 불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나라들의 취향을 비하하는 것이 노래의 가사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노래라서 여러 종류의 가사가 존재한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번 모두 다른 가사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다른 가사 모두 해학이 넘친다.

〈바람이 분다〉[25]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현해탄(2. 태평양, 3. 상하이(황해, 또는 서해바다), 4. 연해주)에서 불어온다
쪽발이(2. 양키놈, 3. 짱꼴라, 4. 로스께) 대사관에 불이 붙었다
잘탄다 잘탄다 신난다 신난다
불은 붙어도 물이 있어도 안끈다
랄라라라 랄랄라 랄라라라 랄랄라
소방대원은 휘발류 뿌린다(소방대원은 구경만 한다)
잘탄다 잘탄다 신난다 신난다.
쪽발이는 게다짝만 짝짝 끈는다
(2. 양키놈은 츄잉검만 쫙쫙 씹는다(혹은 양키놈은 엉덩짝만 돌린다)
3. 짱꼴라는 비단옷만 홱홱 돌린다
4. 로스께는 시계줄만 돌린다)

또 4절의 다른 버전으로는 "동빙고에서 불어온다. 동빙고 오적촌에 불이 붙었다... 오적놈(도적놈)은 골프채만 돌린다." 이다. 4절은 1970년에 김지하의 시 〈오적〉이 발표된 뒤 가사가 대체되었거나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26]

러시아 민요 〈스텐카 라친〉도 많이 불렀던 노래이다. 1668년에서 1670년 봄까지 계속되었던 러시아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노래이다. 농민반란군의 지도자, 스텐카 라친도 사랑하는 페르시아에서 납치한 아름다운 공주를 두고 동료들의 단결이 흐트러지자 이를 막기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보는 앞

24) 정용화 인터뷰, 2014.07.07.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래는 멀리멀리」, 2006, 300쪽.
26) 김지하의 담시 〈오적〉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들을 오적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부정부패와 초호화판의 방탕한 생활을 통렬하게 풍자한 시이다. 이 작품이 실린 『사상계』는 폐간되고 작가와 편집인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에서 공주를 볼가강의 굽이치는 물결 속으로 던져 버린다는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이 후로 러시아 민중의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으며 그를 기리는 많은 민요가 만들어졌다. 〈스텐카 라친〉은 혁명을 바라는 투사들이라면 개인의 사랑조차도 희생해야 함을 노래한다. 선율과 가사에 러시아대륙의 굵은 정서가 배어있어 영웅적 기개와 함께 서정이 느껴진다. 자신의 정신무장을 위해, 후배들의 결단을 위해, 그리고 동시에 비극적 낭만에 끌려 불렀으리라. 동시에 운동권으로서 느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을 일면 뿌듯해하며 불렀을 비장한 노래이다.[27] 60년대와 70년대에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인사들이 운동가요를 얘기할 때 늘 매우 감동적인 노래라고 소개했다. 당시로서는 선택받은 대학생들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개한 체 사회운동에 투신한 자신들의 처지를 〈스텐카 라친〉을 부르며 확인했을 것이다. 큰 자부심까지 담아서 불렀을 노래이다.

또 다른 노래, 〈탄아 탄아〉는 대표적인 노가바이다. 〈파랑새요〉의 선율에도 불렀다는 기록도 있으나 일제시대에 불렀던 창가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의 선율로 주로 부른 것 같다. 1959년 이승만대통령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1960년에 그는 다시 4선 대통령을 목표로 출마하게 되고 3 · 15부정선거 및 부정개표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특히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에 참여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이 최루탄을 눈에 맞아 사망한 뒤 시체가 바다에 유기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모른다고 발뺌하자 오히려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었고 결국 4 · 19혁명이 터졌다. 시위를 잠재우기위한 최루탄의 사용과 거짓발표가 오히려 시위를 더욱 키웠고, 덕분에 최루탄은 부도덕한 정권을 상징하는 대상이 되었다. 〈탄아 탄아〉는 살인무기가 된 최루탄, 그리고 부도덕한 정권을 두고 하는 노래이다. 가사는 시인 김지하가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가사들이 있는 것은 그 뒤로도 시기에 맞는 가사들이 계속 덧붙여졌기 때문일 것이다.[28]

3. 1970년대의 운동권 노래

1970년대는 5 · 16군사정변으로 세워진 군사정권인 제3공화국에서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전제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제4공화국으로 넘어가 유신체제에 반발하는 운동의 시기이다.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헌법 53조에 규정되어있던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1호가 선포되었다. 헌법을

---

27) 〈스텐카 라친〉 가사
1. 넘쳐 넘쳐 흐르는 볼가 강물위에 스텐카라친 배위에서 노래 소리 들린다
2. 페르샤의 영화의 꿈 다시 찾는 공주의 웃음 띠운 그 입술에 노래 소리 들린다.
3. 동 코샤크 무리에서 일어나는 아우성 교만할 손 공주로다 우리들은 주린다.
4. 흐느끼는 파도소리 넘치어 떠밀리고 잊지 못할 주검들이 달빛 되어 떠돈다.
5. 다시 못 올 그 옛날로 볼가강은 흐르고 꿈을 깨친 스텐카 라친 장하도다 그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래는 멀리멀리」 상, 404쪽.

28) 다른 가사로는 "탄아 탄아 최루탄아 팔군으로 돌아가라"와 "법아 법아 반공법아..." 등이 있다.

초월한 긴급조치를 통해 정권은 학생운동을 더욱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섰다. 학생들은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분리되었고 운동권 학생들은 당시의 체제를 거부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적에 맞추어 인생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문화프레임에 자신을 맞추어갔다. 이 지역출신으로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도 여러 경로로 '후진국사회문제연구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의 학생사회개발단(기독학생회), '한국문화연구회' 등의 써클에 합류하거나 새롭게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반유신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광주에서도 이러한 투쟁들이 지속되었다. 1972년 12월 9일에는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유인물 '함성'을 전남대학교와 광주 시내에 배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1973년 3월 중순에는 이강의 주도로 제작된 유인물이 광주에서 서울의 김남주에게 우송되는 과정에 경찰에 의해 수거되는 '고발' 지 사건이 있었다. 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제2차 인혁당사건이 역사에 남았다. 특히 민청학련은 '전국적 거사'를 목표하여 중앙의 조직원들은 각 지역의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학생들도 적극 가담하였다. 이어 1978년에는 전남대학에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이 일어났다.

쿠데타로 이룩한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노래를 불렀다.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60년대와 마찬가지로 술과 노래가 동반되었다. 70년대 후반의 운동권 학생들의 노래들은 1960년대 대학에 입학한 선배들의 노래들을 조금 넘어선다. 60년대에는 앞서 나열한 노래들 즉 〈사노라면〉, 〈부용산〉, 〈선구자〉, 〈보리밭〉, 〈예성강〉, 〈농민가〉, 〈스텐카라친〉, 〈해방가〉, 〈탄아 탄아〉 등을 불렀다면 70년대 후반의 학생들이 선호하고 불렀던 노래는 앞서 선배들이 불렀던 노래와 더불어 미국의 반전운동의 영향으로 세상에 나왔던 노래들과 흑인인권운동에서 사용되었던 복음성가류의 노래가 더해진다. 삼엄해진 정세를 피해 운동권학생들이 개신교와 카토릭 등의 종교기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활동을 전개한 결과 중 하나이다.

일부 운동권 학생들은 이미 고교시절 소속된 독서클럽에서 노래를 배우기도 했고 대학생이 된 새내기 운동권 학생들은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혹은 캠퍼스 잔디에 앉아 부르는 노래를 따라 배웠다.[29] 전남대 독서클럽 '잔디'의 후배들은 선배 조현종(75), 이항규(75), 최용수(75) 등의 선배들에게 〈사노라면〉, 〈아다다〉, 〈진달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을 배웠고 〈진주난봉가〉는 탈춤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30] 또 기존의 대중가요와는 다르게 다가온 김민기의 노래와 새로 해석된 대중음악이 포함되어 있었다. 복음성가류로는 〈흔들리지 않게〉, 〈우리 승리하리라〉, 〈가라, 모세〉, 〈오, 자유〉(흑인영가), 〈미칠것 같은 이 세상〉, 〈우리의 믿음 치솟아〉, 〈보람된 생활〉, 〈이 세계 절반은 나〉 등이 있다. 〈스텐카라친〉, 〈정의가〉, 〈해방가〉등 선배들로 부터 배운 노래들과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 〈아침이슬〉, 〈금관의 예수〉, 대중음악 〈아다다〉, 〈예성강〉, 〈날이 갈수록〉,

29) 정용화, 문승훈과의 인터뷰, 2014.07.15.
30) 전용호와 인터뷰 2014.07.15.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등도 있다. 아일랜드에서 반전노래였다가 미국에서 군가로 바뀐 〈홀라송〉은 대학가에서 매우 호전적인 노래로 바뀌었으며 최고의 데모송이 되었다. 김민기의 노래는 새롭게 해석되어 불렸고 필요에 따라 가사가 바뀌면서 각종 시위의 현장에서 불려졌다. 1978년에 완성된 김민기의 노래굿 「공장의 불빛」 테이프가 한국도시산업선교회의 후원으로 제작 · 배포되었는데 당시 운동권에 속한 대학생들은 이 테이프에 담긴 노래들을 열심히 듣고 따라했다고 증언한다. 특히 대표적인 노래 〈야근〉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부르는 노동운동가요 중 하나이다.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g in the Wind)〉, 〈소낙비(A Hard Rain' s Gonna Fall)〉 등의 외국 노래도 포함되어있다.

아직은 앞장서서 노래를 담당하고 지도하던 음악운동의 리더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시위에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의 데모 주동자가 앞장서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해나갔다. 다음은 1970년대 후반 광주에서 부르던 운동가요와 사건, 그리고 노래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이다.

1) 복음성가류의 노래

민청학련의 주역 이철이 '더욱이 학생들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와 박정권은 일대 공방전을 방불케 했다' 고 진술한 것처럼 1970년대의 학생운동은 기독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2014)[31] 중앙에서는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서울제일교회(박형규 목사 시무), 새문안교회 대학생부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 지역 학생들도 YMCA, YWCA, EYC(Ecumenical Youth Christian, 기독청년협의회) 등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을 전개한다. 진보적인 기독청년단체인 EYC가 펴낸 복음성가곡집「젊은 예수」, 「노래하는 예수」에는 기존의 번안곡과 저항가요화된 복음성가, 새롭게 창작된 가요가 꽤 들어있었다. 이런 종류의 책에 실려 있었던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있었던 흑인인권운동에서 불렸던 복음성가들이 쉽게 학생운동권으로 스며들었고 당시 미국청년문화 속에 번져있었던 반전노래도 운동권학생들의 레파토리가 되었다. 당시 복음성가집에는 〈우리 승리하리라〉, 〈오, 자유〉, 〈흔들리지않게〉, 〈우리믿음 치솟아〉, 〈보람된 생활〉, 〈이 세계 절반은 나〉, 〈가라 모세〉,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혼자 소리로는〉, 〈황색 예수(이건봉)〉, 〈고백(고승하)〉, 〈자랑스런 노동자〉, 〈여공일기〉, 〈편드시는 주님〉, 〈저 놀부 두 손에 떡 들고(김용수목사)〉, 〈살아온 이야기〉,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노동의 새벽〉 등이 실려 있다. 1970년대 복음성가들을 부르고 후배들에게 가르쳤던 이들로는 최철(전남대 72학번), 장석웅(74학번), 이세천(74학번), 박병기(74학번), 조봉훈(73학번), 박현옥(74학번), 이택(76학번) 등이 있다. 이들은 1978년까지는 지하써클처럼 모임을 유지해오다가 1978년 고희

31) 이철, 민청학련 40주년 심포지엄 책자 「다시 민주주의를 묻는다」, 2014.04.03., 28쪽.

숙, 김정희, 김경희, 박유순 등이 전남대학교에 'Bible and Music'으로 등록하면서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저항가요화된 복음성가들은 순수 기독교적인 복음성가였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면서 개사되거나, 원곡과 많이 변해버린 노래들도 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사회운동적 인 노래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승리하리라〉[32]는 흑인 목사 찰스 A. 틴들리(Charles Albert Tindley, 1851-1933)가 작곡한 순수한 복음성가인 〈I' ll overcome someday〉였다. 그러던 것이 1940년대 초 흑인직물공원들이 노동쟁의의 과정에서 불려졌다. 다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계속되었던 미국의 공민권운동(African-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에서 참여자들이 이 노래를 주제가처럼 불렀다. 특히 '인종차별철폐'와 '일과 자유를 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행되었던 1963년의 워싱턴 대행진후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시 마틴 루터 킹목사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이 끝난 후 저항음악가수들, 밥 딜런, 존 바에즈, 그룹 피터 폴 앤 메리, 해리 벨라폰테, 마할리아 잭슨이 뒤를 이어 공연을 시작했는데 존 바에즈가 〈We Shall Overcome〉을 부르자 그 곳에 운집해있던 20만 여명의 군중이 함께 따라했다고 한다. 〈I' ll overcome someday〉가 〈We Shall Overcome〉으로 변해버렸다. 미국 저항가수 피트 시거와 존 바에즈가 부르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에 유행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운동권역에서 대표적인 저항의 노래가 되었다.

시위의 현장에서 빠지지 않았던 〈훌라송〉[33]은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복음성가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노래이다.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율동했던 기억이 있다.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그러나 이 노래는 동요처럼 즐거운 내용의 노래가 아닌 긴 역사와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노래이다. 19세기 초반, 대영제국은 동인도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인을 전쟁터로 보내 싸우게 했다. 이 노래는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팔과 다리가 잘려 돌아온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겠다며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는 느린 템포의 〈Johnny I hardly Knew Ye〉이다. 아일랜드인의 영국을 향한 저항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미국으로 건너가 남북전쟁당시 북군의 군가로 개작되어 불려졌다.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으로 변한 이 노래는 슬픔의 표현은 사라지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원곡의 후루 후루(Hurroo, hurroo)는 후라 후라(Hurrah, Hurrah)로 바뀌었고 템포도 행진곡의 속도로 맞추어졌다. 후라 후라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훌라 훌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훌라송〉은 미국 북군 군가가 수입되어 들어온 것이다. 빠른 속도로 부르는 〈훌라송〉은 학내투쟁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모으고 투쟁심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운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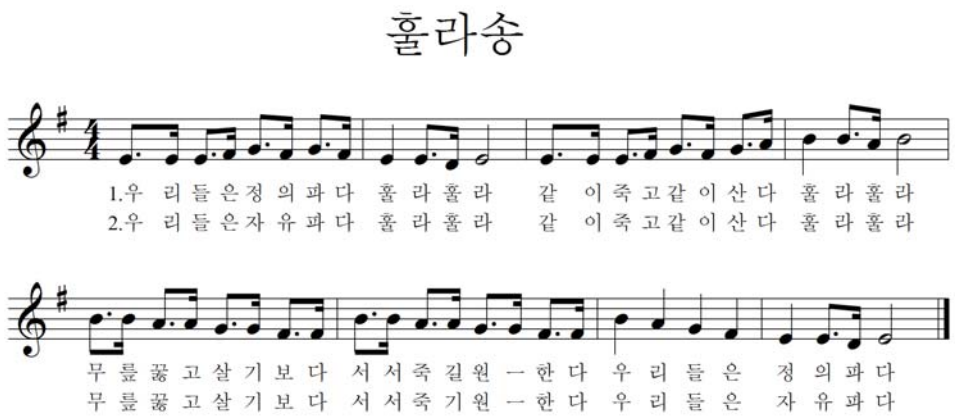
---

32)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우리승리 하리라. 우리 승리 하리, 그날에 오오 참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33) 훌라송의 가사
우리들은 자유파다 훌라훌라,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훌라훌라,
무릎꿇고 살기보다 서서죽기 원하노라, 우리들은 자유파다.

요는 당시의 사안에 따라 가사를 바꾸거나 중요한 단어를 바꾸어 부르는데 이 노래도 자주 단어를 바꾸어 불렀다. 1970년대에는 주로 '우리들은 정의파다 훌라훌라',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좋다'라는 가사를 많이 썼기때문에 제목을 〈정의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가〉노래와 혼동해 부르기도 한다. 〈훌라송〉은 86년 이후 노동운동 때 다시 가사가 바뀌어 불렸다. 매우 열린 형식의 노래이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받았던 많은 고난의 역사가 가사가 되어 탄생한 복음성가들과 흑인들이 미국에 붙들려가 노예로 살면서 갈구했던 자유에 대한 소망이 담긴 흑인영가들, 예수를 민중해방운동가로 바라보는 기독교파가 복음성가를 재해석하여 부르면서 많은 기독교의 노래들이 운동가요로 편입되었다. 〈가라, 모세〉, 〈오, 자유〉(흑인영가) 등이 그러한 노래들이다. 그 외에도 〈흔들리지 않게〉,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우리의 믿음 치솟아〉, 〈보람된 생활〉, 〈이 세계 절반은 나〉 등의 노래들이 있다.

〈악보 4, 훌라송〉



2) 새롭게 작곡된 가곡들

70년대는 아직 민중가요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전으로 기존의 노래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여 부르면 운동가요가 되는 시대였다. 특별히 4 · 19를 떠올리게 하는 4월에 많이 불렸던 노래들이 있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34]와 〈진달래〉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일제 강점기 저항시인

3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가사
1.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 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듯 정처 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2, 3절 생략)

이상화가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담은 시이다. 1976년 교사들의 극단 '상황'의 연극 주제가로 음악교사인 변규백이 이 시에 곡을 붙였다. 연극은 잊혀 졌으나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대학생들이 저항가요로 많이 불렀고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음반에 실었다. 또 다른 4월의 노래 〈진달래〉는 여류시인 이영도[35]의 시에 4·19당시 음악교사였던 한태근 목사가 1973년에 선율을 붙였다. 작곡가 한태근은 '4·19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제자들이 생각나 이 노래라도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36] 군사독재시절에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무서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고 4월이면 끊임없이 불리다가 1980년 때까지 운동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이다.

이 외에도 70년대부터 꾸준히 불러온 노래에 해학과 애환이 동시에 담긴 〈명태〉라는 가곡이 있다. 한국의 외교관이자 작곡가인 변훈이 대학 재학 중 6·25를 맞아 피난지인 대구에서 시인 양명문에게서 시를 받아 작곡하였다. 세상살이의 애환을 가난한 시인의 술안주가 되어버린 명태에 빗대어 노래한다. 시인과 작곡가가 이 노래를 통해서 전쟁 중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자신들의 애환을 노래한 것처럼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운동권 학생들도 이를 통해 자신들의 답답함을 노래했다.[37] 불규칙한 현대시를 따라 작곡되었기 때문에 마치 한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변화무쌍한 노래이다. 어떤 운동권 인사가 학생시절 〈명태〉를 멋드러지게 부르는 것을 본 여학생은 '〈명태〉와 같은 낭만적인 노래를 부르는 그가 너무 멋있어 보여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만큼 운동권 학생들의 애창곡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이다.

---

35) 임지연, 「여성문학연구」 통권23호, "이영도 문학의 공적 욕망 구조", 2010: 여류시인 '이영도는 서정적 자연물을 통해 4·19라는 정치적 사건을 고양된 정치의식과 고결한 민주주의로 표현한 시인'이다. (임지연, 2010)
〈진달래〉 가사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爛漫)히 멧등마다,
그 날 스러져 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恨)이 터지듯 여울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연연(戀戀)히 꿈도 설워라,
물이 드는 이 산하(山河).

36) 경향신문, 2005년 4월 19일. 한태근 목사는 1960년 4·19 당시 균명고(현 환일고)음악교사였다. 〈진달래〉는 부제로 〈다시 4·19날에〉를 달고 있다.

37) 박영정(전남대 79학번) 인터뷰, 2013.08.07. 이재의(전남대 75) 인터뷰, 2014.07.26. 문승훈 인터뷰
〈명태〉 가사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 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 꼬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어진 어부의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한 후
에지푸트 왕처럼 미이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쐬주를 마실 때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짜악 짝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은 남아 있으리라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3) 대중가요

서슬 시퍼런 긴급조치시대에 무력감과 반항심은 문학과 영화, 가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등 당시의 대중문화 곳곳에서 나타났다. 1970년대 중후반 시위에 가담했던 친구들이 감옥에 잡혀가거나 군대로 끌려가고, 휴교령이 내린 쓸쓸한 학교에 남은 대학생들은 상실감, 좌절, 불안을 겪으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럴 즈음에 최인호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바보들의 행진" 은 당시 젊은이들의 그러한 정서를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제음악이 된 〈날이 갈수록〉은 당시의 캠퍼스에서 사라져버린 친구들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을 표현하는 노래였다. 박건이 불렀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심금을 건들었다. 1970년대 초반 교련반대, 삼선개헌 반대, 유신독재 반대 등의 사안으로 대학로는 최루탄이 자욱했었다. 친구들은 시위에 가담했다가 하나, 둘 잡혀가버렸는데 대학로의 마로니에는 아직도 피고 있을 것이라는 허무함을 노래한다.[38]

4) 김민기의 노래

1969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도비두' 라는 듀엣을 결성하여 노래활동을 시작한 김민기는 기존의 노래와는 다른 시각의 노래들을 만들어낸다. 고뇌하는 지식인이 바라보는 세상을 표현하는 노래들은 순식간에 대학생들의 인기노래가 되었다. 1970년에 초등학교 동창인 양희은을 통해 재발표한 〈아침이슬〉, 1973년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에 포함된 〈금관의 예수〉, 군복무시절 상관의 제대를 기념했던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 1977년 군제대후 잠시 취업했던 공장 공원들의 합동결혼식 축가로 사용되었던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동일방직 노조문제를 다룬 노래굿 「공장의 불빛」에 실린 〈야근〉 등은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저항가요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과 교류가 있었던 그가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에피소드를 남겼고 그만큼 그의 노래는 이 지역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

38) 필자에게는 어렸을 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 하나에 불과한 노래인데 7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인 듯하다. 여러 인사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1절 가사
루루 루루 루루루 루루루 루루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속에 봄비가 흘러 내리듯
임자잃은 술잔에 어리는 그 얼굴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 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잎이 지던날~ 아~~
루루 루루 루루루 루루루 루루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1) 박기순의 장례식과 김민기의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박기순은 1978년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으로 '교육지표시위사건'으로 강제 휴학을 당한 뒤 들불야학 창설에 힘을 쏟았다. 박기순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오빠 박형선과 그리고 민청학련 조직의 호남책임자격이었던 윤한봉의 동생인 올케 윤경자, 그리고 오빠의 친구들인 윤한봉, 남민전 사건으로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남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노동운동에 뜻을 모은 박기순, 신영일, 나상진, 이경옥, 임낙평 등은 7월에 광천공단에서 가까운 광천 천주교회의 교리실 한 간을 빌어 '들불야학'을 시작한다.[39] 이들은 야학의 운영뿐만 아니라 후에 합류한 김영철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운동을 펼쳤다. 그녀는 같은 해 10월에는 광천공단 내의 '동신강건사'에 노동자로 입사했다.[40] 서울의 안정적인 직장을 떨쳐버리고 광주로 돌아온 윤상원을 강권하여 들불야학에 끌어들인 이도 박기순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다시 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하던 박기순은 12월 25일 성탄절 휴일에도 학당에 지필 난로의 땔감을 구하기 위해 동료들과 광주소년원 부근의 야산에서 솔방울을 주으러 다녔다. 당일 11시에 학당을 나온 박기순은 오랜만에 방문한 오빠 집(주월동)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음을 맞았다.

27일 녹두서점을 방문한 김민기와 김영동이 김상윤으로부터 박기순의 죽음소식을 듣고 전대병원 영안실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김민기는 후에 〈상록수〉로 알려진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을 조가로 불러 참석한 많은 조문객의 가슴을 적셨다.[41] 이 후로 이 노래는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데모노래가 되었다.

(2) 1980년 3월 마당극 「돼지풀이」와 양희은의 〈금관의 예수〉

70년대 말을 전후해서 농촌 곳곳에서 크게 물의를 빚은 돼지값 폭락은 농업축산정책의 고질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1979년 '돼지값 폭락'에 관한 수많은 기사가 신문지상에서 거론되었다. "돼지값 暴落을 막아야 한다. 養畜農家의 所得增大策 시급",[42] "돼지값 폭락: 키우는 것보다 값을 보장해줘야 한다."[43] "홍성지방 폭락 돼지값-새끼 죽여버려"[44]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

39) 윤상원, 배환중, 전용호, 김연중, 박용준, 박관현, 김영철, 박효선 등은 후에 참여하거나 대기강학으로 함께한다.
40) 박호재 · 임낙평, 윤상원 평전, 2007. 144쪽.
41) 김상윤과 인터뷰(2014.04.28.)
박기순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노래〈상록수〉를 듣고 박기순의 장례식을 위해 작곡된 노래로 알고 있고 많은 기사에 그렇게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노래는 1977년 김민기가 잠시 취업해있었던 부평의 한 봉제공장 동료들의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작곡한 노래이고 1978년 양희은에 의해서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란 제목으로 음반에 발표된 노래였다.
김민기가 참석하여 〈상록수〉를 부른 인연으로 지금도 박기순의 추모행사에서는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한겨레신문, 2013.12.12.)
42) 매일경제신문, 1979년 11월 13일 화요일 2면 사설.
43) 경향신문,1979.08.27. 2면.

회, 경제적 문제를 소재로 한 마당극이 「돼지풀이」이다. 「함평고구마」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남대 연극반과 민속문화연구회 일원들은 극회 '광대'를 조직하고 창립기념공연으로 곧바로 새로운 창작마당굿을 준비해 1980년 3월 15일 광주 YMCA 무진관(체육관)에서 공연에 들어갔다. 이 공연에 앞서 양희은,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김영동의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다. '현대문화연구소'[45]의 지원과 함께 주최측은 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였고 덕분에 2천여 명의 학생과 농민이 중심이 된 관중이 모여들었다. 광주에 마당극과 탈춤을 전수해주었던 채희환도 관람하였고 임진택, 김민기. 장선우(현 영화감독)도 함께 관람하였다.

특별 프로그램 초청가수 양희은의 초청은 사람들을 모으는 원동력이 되었다. 노래패 '메아리', 김영동의 무대에 이어 양희은의 공연이 이어졌다. 드디어 기다리던 양희은이 노래를 부르는데 야유와 항의가 날아들었다. 김민기 작곡의 〈주여 이제는 여기에(금관의 예수)〉를 부르는데 가사가 틀렸다는 것이다. 양희은이 김지하의 연극 '금관의 예수'에서 불렀던 원래의 가사가 아니라 반공노래로 둔갑해 레코드에 실린 가사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북한 사람들"로 둔갑을 했고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아니라 "오 주여 이제는 저곳에(북한)"라고 부른 것이다. 광주의 학생들은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이 땅의 가난과 어두움을 지적하는 노래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46] 결국 양희은은 마당극 뒤풀이 자리에서 노래 가사에 대한 사과를 했고 원래의 가사로 다시 불렀다고 한다.[47]

5)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과 당시 불렀던 노래

1970년대 후반에는 장기집권에 따른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특히 대학가에 정부의 감시와 탄압은 매우 노골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 5월 7일에 있었던 이화여대에서의 학도호국단 간부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9일의 반유신 시위, 6월 12일에 있었던 서울대의 「학원민주선언」, 6월 26일 세종로 네거리에서의 반정부 시위 등 크고 작은 시위들이 대학교내외에서 진행되었다. 제도권 내에서도 반유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해직교수협의회 대표인 연세대 성내운와 서울대 안병직, 전남대 송기숙, 서울대 백낙청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유신체제의 정신적 이정표 역할

---

44) 동아일보, 1979년 11월 28일, 7면

45) 윤한봉이 1979년 설립한 연구소.

46) 지금 〈금관의 예수〉로 알려져 있는 노래는 김민기의 음반 3집에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금관의 예수〉 가사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3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3 여기에 우리와 함께

47) 박병기(74학번, 철학박사)와 인터뷰, 2014.08.04.

을 하던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적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국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성내운 교수는 6월 27일 전남대학교의 송기숙을 포함한 11인의 교수들 이름으로 「우리들의 교육지표」 선언문을 AP통신, 아사히 등 해외 언론사에 보내 일명 '교육지표사건'이 터졌다. 이 성명에 가담한 교수 11명은 모두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교수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시위를 진행하면서 저항가요를 부르거나, 일반학생들에게 이러한 노래를 가르치면서 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선동했다.

교육지표사건 이틀 후 6월 29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대규모 교내시위를 도모했다. 당시도 일반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격려하는데 사용된 수단은 유인물과 노래였다. 당시 전남대학교는 기말고사기간이었고 중앙도서관에는 학생들이 모여 시험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미 긴급소집되어 시위를 벌릴 계획을 세웠던 주모자들은 도서관으로 침투해 도서관 문을 걸어 닫았다. 문승훈(당시 국사교육과 학생)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박몽구(시인)는 책상위로 올라가서 공부 중이던 학생들에게 '교육지표사건'과 교수연행소식을 알려주면서 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했다. 유인물을 낭독하고 구호제창하다 지친 박몽구가 내려오면 문승훈이 바통을 받아 노래로 시위를 지속시켰다. 그가 노래를 선창하면 학생들이 따라 불렀고, 일반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운동가요는 새롭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해나갔다. 당시 도서관에는 주동자 노준현(당시 공대2년)이 숨어있었고 박몽구와 문승훈, 그리고 신영일(당시 국사교육과 학생) 등이 중앙도서관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고 한다.[48]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이 위에서 언급한 〈홀라송〉, 〈농민가〉, 〈아침이슬〉, 〈흔들리지 않게〉 등이었다. 이런 노래들은 수동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된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동참해야하는가를 각인시키는 교육의 효과가 있다.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을 숨겨두고 시위를 주동하는 학생들에게도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다. 결국 그날의 농성은 경찰이 도서관을 습격하여 100명의 학생들을 연행해감으로서 막을 내렸다.

48) 문승훈과 인터뷰, 당시 국사교육과 재학생, 광주일고출신 운동가. 그는 이러한 활동의 영향으로 교사발령을 거부당했다.

III. 음악운동

1.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전개된 음악운동과 작품

1980년 이전의 사회운동에서는 음악운동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1978년의 교육지표사건 직후 있었던 도서관 점거투쟁현장에서처럼 운동권학생들은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노래를 앞장서 부르며 일반학생들의 동참을 유도하면서 데모를 주도하기도 했고, 또 운동권의 선후배가 모여 있는 학내 잔디밭이나 술집에서 저항가요나 자신들만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음악운동이라 부를만한 단계는 아니었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번안곡, 민요, 복음성가, 대중가요 등을 재해석하여 부르거나 노래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시위하는 정도였다.

음악운동의 싹은 사회운동과는 관계없는 곳에서 트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여러 대학에서 만들어졌던 노래동아리[49]에서는 당시 대중음악의 무분별한 향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지식인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노래 부르기, 혹은 새롭게 의미 부여된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대중가요 성향의 취미 써클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50] 그러나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 이 후, 광주에서는 5월을 소재로 한 노래와 민주화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생산되었고 불려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1981년 11월에 발표된 김종률의 〈검은 리본 달았지〉가 최초의 오월노래일 것이다. 그리고 광주, 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동참이 이루어졌다.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1981년 9월 26일 정기공연에서 문승현이 작곡한 〈오월의 노래〉가 발표되었다. 취미활동에 가까웠던 동아리가 사회문제를 노래에 담고 저항을 의도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노래동아리들은 음악을 통한 사회운동으로 방향을 틀었고 각 대학에서는 새로운 노래패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

49) 서울대의 '메아리'(1977)와 이화여대의 '한소리'(1978) 등이 발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50) 노래패 꽃다지 후원회원지 「꽃사람」 수록글(1999.08-2000.03), 우리시대의 노래, 12쪽, 재인용

학교를 졸업한 패원들은 다시 사회노래패들을 조직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84년 한동헌, 김창남, 문승현, 김제섭, 조경옥 등 10여명의 대학노래패 초창기 세대 멤버들이 김민기의 도움을 받아 음반을 낼 때 '노래를찾는사람들' 이 구성되었고, 연세대의 노래패 '울림터' 에서 활동했던 안치환이 문승현과 김광석 등과 함께했던 민중문화운동연합노래반 '새벽' 을 조직하고 후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의 멤버가 되어 활동하면서 민중가요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1987년의 6월항쟁과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이러한 노래들의 사회적 요구가 사회노래패의 활동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기존의 대중가요와는 다름을 인식했고 이들 노래를 민중가요라고 명명했다. 5·18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음악장르인 민중가요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문음악인들에게도 창작음악의 주체성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우리가 향유해야할 음악이 우리 민족의 음악이라야 한다는 깨달음을 갖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자성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한 많은 음악인들이 음악단체를 조직하고 작품을 창작하며 발표하였다.[51] 이러한 방향의 움직임을 음악운동이라고 한다.

5·18민중항쟁 이후 광주에서 창작되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 민중가요도 다수 탄생되었다. 여기에서는 80년 5·18 직전 학내·외에서 불렀던 노래들로부터 87년까지 전개된 음악운동을 살펴본다.

1) 1980년 봄 학원자주화투쟁기간 동안 불렀던 노래

1979년 10·26사태 후 서울의 봄과 함께 전국대학은 학원자율화의 물결을 타면서 전남대학교에서도 병영집체 훈련 거부, 어용교수퇴진을 외치며 농성이 진행되었다. 4월 후반까지 지속된 농성은 어용교수들이 퇴진해야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된다는 인식하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는 반정부투쟁으로 유도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의 농성은 비상계엄 해제와 전두환 퇴진으로 이어져 5월 초까지 수많은 단대별 집회, 그리고 이어서 도서관 앞으로 모두 집결하는 큰 규모의 집회로 이어졌다. 이 때 학생들의 마음을 모았던 노래들이 〈훌라송〉, 〈흔들리지 않게〉,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 〈상록수〉 등 이었다. 대학 캠퍼스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1980년 전남대학교 교정도 날마다 목청 높여 〈투사의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과 꿋꿋하게 도서관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존했다. 79년의 10·26사태와 12·12사태를 겪은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소망하는 꿈과 좌절이 교차하면서 부글거리고 있었다. 임계점에 다다른 용광로 같은 나라에 사는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시선과 집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항상 도서관의 지정석을 차지하고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서관 앞 광장으로 불러 나오게 하는 노래가 〈훌라송〉이었다. "민주학생, 동참하

51)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373-374쪽.

라, 동참하라!" 는 구호는 〈훌라송〉가사가 되어 "민주학생 동참하라 좋다, 좋다" 라고 불리기도 했다.

1980년 4월과 5월 학내에서 불렀던 노래는 운동권내에서 이미 많이 불렀던 위의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으나 5월 14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가두진출과 도청 앞 집회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학내에서 시위대를 모으거나 시위 중에 대부분 앞서 언급한 운동가요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운동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필자(79학번)도 친구의 이끌림으로 참여하게 된 시위에서 시위대가 부르는 노래를 몇 번 듣고 나서 함께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형편이 달랐다. 새로이 가르칠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순간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위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아는 노래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 학생들의 시국성토와 결의,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름 없는 일반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각종 제안과 건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요, 동요, 그리고 애국가를 불렀다.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선구자〉 등이다. 홍난파의 〈봉선화〉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향한 울분을 토로한 가곡도 포함되었다. 모든 노래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수 있는 노래들이었다. 5월 16일 야간 횃불시가행진 때에도 〈정의파(훌라송)〉, 〈투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었다.[52]

2) 5 · 18민주화운동기간 동안 불렀던 노래

앞서 나열한 노래들 중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전에 가장 많이 불렀다는 〈아침이슬〉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 1980년 5월 16일은 민주화대성회대신에 마침 5 · 16이기도 해서 '화형식' 과 '횃불시위' 를 하자는 의견에 따라 시위대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광주시내 거리를 행진 하다가 도청으로 다시 모이기로 약속이 되었다. 김상윤이 포함된 한 그룹이 구시청에서 산수오거리를 향한 언덕배기를 횃불을 들고 〈아침이슬〉을 부르며 행진하고 있었다. 김상윤은 이때의 느낌을 '너무 아름답고 장중하게 들렸으며 처연하게 느껴졌다' 고 표현한다. 바로 그 순간 당시의 학생회장 박관현이 거꾸로 내려오더니 김상윤에게 "형님, 막 눈물 날라고 합니다" 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80년 5월 횃불행진을 하고 있는 현장은 거친 광야였을 것이고 민주화를 위해 행진하고 있는 모두는 '태양은 묘지위에 붉게 타오르고.....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라는 노랫말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점진적으로 상행하는 선율과 횃불, 그리고 될 것만 같았던 '민주화' , 모두가 어울러져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었고 전남대와 조선대 캠퍼스에 공수특전단이 진주했다. 학내의 학생들은 공수특전단의 급습을 받아 체포, 구금되기도 했고 운 좋게 도망가

52)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8쪽

학교를 빠져나오기도 했다. 휴교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학생부의 예상대로 18일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를 예상한 학생들은 약속한 대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무장한 공수대원들의 제지에 우물쭈물하던 다수의 학생들은 다리위에 앉아 시위하는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자 점차 용기를 내어 200~300여명의 학생들이 '계엄해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가라', '휴교령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동참하였다. 노래는 학생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고, 두려움을 아내는 도구가 되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구가 되었다. 대치중이던 공수부대 책임자가 앞으로 나와서 "만약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해산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하자 학생들은 더욱 크게 노래를 불렀다.[53] 물론 공수대원들은 갑자기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과 함께 학생들을 향해 돌격하여 곤봉으로 후려갈겼고 학생들은 피를 쏟으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노래는 방어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된 투쟁은 공수대원들이 공격하면 분산되었다가 소수의 시위대가 모이고 전위대가 노래를 부르며 앞장서면 흩어졌던 군중들이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시위대열에 합세하는 방법으로 가두투쟁이 지속되었다. 〈농민가〉, 〈투사의 노래〉와 〈훌라송〉은 저항의 노래이자 신호가 되었다. 지산동 파출소 앞에서 불타는 파출소의 집기를 둘러싸고 부르는 〈애국가〉는 공적 의례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자하는 투쟁의 노래였고 진심어린 나라사랑의 표현이었다. 학생들의 시위는 공수부대의 무차별 공격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시민항쟁으로 발전했고, 시민들의 항쟁은 공수부대의 살상과 만행에 대항하다 결국 무장투쟁으로 발전해갔다. 항쟁 4일째에는 시민군이 등장하여 도청의 계엄군을 격퇴시키고 마침내 도청을 점령할 수 있었다. 5월 21일 수요일, 분수대 주변에 고인 핏물은 심각했던 전투를 알려주는 증거였고 금남로에 울려퍼졌던 〈아리랑〉은 또 다른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건져 올린 가슴 아픈 승리의 노래였다.

22일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는 목숨을 잃은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과 애국가로 시작되었고 대회를 마친 고등학생 10여명은 숨진 학우들의 시체가 담긴 관 위에 대형 태극기를 덮고 운구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주위의 둘러섰던 시민들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울었다.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까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 것이다.

항쟁기간동안 사용된 투쟁가로 군가 〈진짜사나이〉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있다. 시민군이 트럭 혹은 버스를 타고 시가행진을 하거나 시 외곽으로 이동할 때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지적 연대감을 나누었다. 정부의 군인들이 겨누는 총과 대립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군가를 부르며 저항하는 이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하다. 딱히 부를 투쟁가가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군가를 그대로 부를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의 가사가 '노가바' 되어 투사회보에 실렸다.[54]

---

53)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36쪽.
54) 김선출(2001), 92-93쪽

3) 1980년 노래굿 「공장의 불빛」 광주공연

1980년 겨울에 '백제야학'에서는 졸업작품으로 김민기의 노래굿 「공장의 불빛」을 공연했다. 이 작품은 최초의 마당극 운동조직이라 할 '한두레'의 공연으로 기획되어 1978년 겨울에 완성되었고 이듬해 2월 채희완의 연출로 서울의 제일교회에서 공연되었다.[55] 「공장의 불빛」은 1978년의 동일방직의 노사분규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과 애환, 삶에의 열망과 투쟁의 과정을 노래극으로 재현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주인공이고 사장 이하 관리자층과 깡패들이 등장한다. 한국도시산업선교회의 후원으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여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이화여대 방송반 '스튜디오', 서울대 '메아리', 이화여대 '한소리', 경동교회 '빛바람 중창단' 등 학생들과 강근식, 배수연, 조원익 등이 참여하여 송창식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담요로 창문을 가린 채 녹음 테이프 한쪽 면에는 노래와 반주를 녹음하고 뒷면은 반주만 녹음하였다. 이 테이프를 다시 원주 가톨릭 센터 스튜디오에서 편집하여 2,000개의 비합법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하였다. 이 테이프가 광주의 운동권 학생들의 손에도 들어왔다. 그들은 이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며 새로운 저항가요인 〈야근〉, 〈사계〉, 〈이 세상 어딘가에〉 등의 노래를 익혔다.

1979년 광주에서 '사랑의 학교'(야학)를 운영하던 강학들은 야학의 목적을 두고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국 사랑의 학교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중요하다 하여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검정고시합격을 중요시 여긴 '사랑의 교실'과 같은 목적이지만 현실적인 노동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백제야학'으로 분리되었다. 김종률과 당시 전남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들은 전자에 해당하여 야학을 '사랑의 교실'로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박용성, 손남승, 최문수 등은 후자로 '백제야학'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갔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중요시하는 백제야학에서 노래굿 「공장의 불빛」을 졸업작품으로 공연하게된 것이다. 손남승의 연출·감독으로 진행된 이 노래굿은 보급된 카세트 테이프의 반주에 맞추어 공연되었고 작곡가 김민기가 내려와 관람하고 최고의 공연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공연의 질적인 면을 칭찬했다기보다는 야학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해내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을 피력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 공연이 1980년 5월을 겪은 후 겨울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다.

그 곡들 중에서도 〈야근〉은 이 후 운동권에서 매우 중요한 레파토리가 되었으며 노동운동에 큰 영

---

1. 이 땅에 민주를 수호코자 일어선 사람들
   시민들은 단결하여 다같이 투쟁하자
   피에 맺힌 민주사회 언제 오려나
   강철같이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자
2. 부모 형제를 지키고자 일어선 시민들
   학생들과 시민들은 다같이 투쟁한다
   피에 　힌 전두환놈 언제 죽이나
   강철같이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자

55) 이덕기, "노래굿〈공장의 불빛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2집, 211쪽.

향을 끼친 노래가 되었다.[56] 그리고 이 노래굿 「공장의 불빛」 은 민중가요사와 노래극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4) 1981년 겨울의 노래공연과 〈검은 리본 달았지〉[57]

1981년의 광주는 처절한 패배로 무너져 내린 후 무력해져 있었고 패배의식, 죽음, 두려움, 부채의식 등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갈등의 심리통과 육신적 진통을 동시에 앓고 있었다. 3월 3일에는 이러한 진통을 안겨준 책임자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패배한 광주는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웅크려 안고 억울한 침묵 속에 잠겨있었다.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당한 가운데 어떤 모임도 자유롭지 않았을 이 시기에 노래공연이 열렸다. 1981년 11월에 열린 "김종률 작곡 발표회" 이다.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이던 강진 출신 김종률은 정권수(전남대 수학과 4학년), 박미희(조선대 병설간호전문대 2학년)와 1979년 MBC대학가요제에 참가하여 〈영랑과 강진〉이라는 노래로 은상을 받았고 1980년 광주 전일방송국 대학가요제에서 〈소나기〉로 대상을 수상한 작곡가겸 학생가수였다.[58] 또 앞서 언급한대로 노동자들의 상급학교진학을 도움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야학 '사랑의 교실' 의 강학으로 봉사하는 온건한 학생이었다. 작곡발표회는 대학선배인 이훈우가 기획하고 서울에서 김민기가 내려와 무대감독을 맡아주었으며 후에 광주 MBC PD가 된 오창규(오정묵)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지금은 사라진 남도예술회관(상무관과 구 전남도청 별관 사이)에서 개최되었으며 10여곡의 노래가 발표되었다.

이 공연의 마지막 무대에서 홍성담이 제작한 5월 항쟁과정을 담은 슬라이드가 배경으로 〈검은 리본 달았지〉가 연주되었다.[59] 이 연주회의 기획팀은 5 · 18희생자 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피해자 등을

---

56) 야근(김민기 글/곡)1. 서방님의 손가락은 여섯 개래요 시퍼런 절단기에 뚝뚝 잘려서 한 개에 오만원씩 이십만원을 술퍼먹고 돌아오니 빈털터리래, 야ㄴ야ㄴ야ㄴ야ㄴ야ㄴ야ㄴ야ㄴ, 2. 울고 짜고 해봐야 소용있나요 막노동판에라도 나가봐야죠 불쌍한 언니는 어떡하나요? 오늘도 철야명단 올렸겠지요. 3. 돈 벌어 대는 것도 좋긴하지만 무슨 통 뼈깡다구로 맨날 철야유? 누구는 하고 싶어 하느냐면서 힘없어 하는 말이 폐병삼기래
그거야 특별한 경우겠죠 병걸려 있으니까 그런거죠 삼년만 지내보면 알게될거다 귀머거리 폐병쟁이 누구누군지 야ㄴ야ㄴ야ㄴ야ㄴ야ㄴ야ㄴ야ㄴ
일하기 싫으면 관두래지 뭣하러 공순이는 되었담 누구는 좋아서 되었나 가난한 집에서 난 죄지 우~우~우~우~우~우~우~우~
그거야 순전히 댁사정이죠 공연히 남들 핑계 대지말아요 묵묵히 참으면서 일만 하세요 윗분들이 잘알아서 해줄거예요 야! 세상물정하나도 모르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뜨기
사장님네 강아지는 감기걸려서 포니타고 병원까지 가신다는데 우리들은 타이밍약 사다먹고요 시다신세 면할날만 기다리누나
월급봉투 누런 봉투 빈 봉투 구멍가게 지나갈 땐 돌아가지 내일이면 선거날 노동조합 만드는 날 우쭐우쭐 들먹들먹 신바람나네 날만 새봐라 선거날 노동조합 만드는 날 세워 세워 세워 세워!
지가 무슨 여대생이나 된것같네 바보가 아니면은 돌은 애야 이 옷을 만들면은 누가 입나요 사장님 사모님이 사서입나요 코쟁이 노랑머리 사서입나요 우리들은 작업복만 어울린대요 만들어도 입어봐도 못입네 빛깔좋은 개살구 개살구
57) 「오창규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 1988.12.25. 전용호, 임영희, 이훈우 인터뷰(2014.08)
58) 김종률은 현재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2015년)으로 일하고 있다.
59) 〈검은 리본 달았지〉 가사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했다. 집회가 억압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들이 함께 모였고 아픈 상처를 들어내며 죽어간 영령들의 억울함과 떠나보낸 아픔, 그리고 폭도로 몰려 고개를 들 수 없는 억울함 등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한 노래를 들은 것이다. 이 연주회에 참여한 5 · 18관련자들, 시민들과 학생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용감하고 무모한 기획이었으나 크나큰 위로의 순간이었다. 이 작곡발표회 공연기획에 참여했던 이훈우, 오창규, 김종률, 김민기 등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과 마치고 난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으나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진술한다.[60] 아픔을 어루만지는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이 의아한 시기였다. 이 공연은 5 · 18민주화운동 이후 5월을 직접적으로 주제로 다룬 최초의 공연 혹은 최초의 저항음악회로 기록되었다.

5) 〈님을 위한 행진곡〉과 노래극 「넋풀이」

(1)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인간은 진실이 담긴 예술작품에서 감동을 느껴질 수 있다. 거짓, 과장, 꾸밈이 있는 예술은 허영으로 들떠있다. 반면에 진실을 담은 예술은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오월운동이 승리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는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달려갈 길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는 사명을 일깨워주는 노래들이 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러한 노래들 중 하나이다. 이 노래에는 민중을 향한 진한 사랑과 간절한 유언이 담겨져 있어 지금도 살아남은 자들을 격려하며 가야할 방향을 지시한다. 이 노래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윤상원과 박기순이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노동운동을 하면서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윤상원은 31세의 나이로 계엄군의 총알을 복부에 맞고 세상을 떠났다.[61] 그는 5 · 18민중항쟁기간에 들불야학 팀과 투사회보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알리는 유일한 언론의 역할을 맡았고 항쟁지도부를 규합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7일 계엄군의 진압을 앞두고 그는 어린 고등학생들이 귀가할 것을 설득했다.

나는 오늘 검은 리본 달았지 × 2 당신은 하얀수의 입었지만 나는 오늘 검은 리본 달았지
나는 오늘 슬픈 눈물 흘렸지 × 2 당신은 눈을 감고 떠났지만 나는 오늘 슬픈 눈물 흘렸지
아아 이젠 어떤 시를 만드나? 아아 나는 무슨 노랠 부르나?
아 이젠 무얼 위해 사나? 아 누굴 사랑해야 하나?
나는 오늘 슬픈 눈물 흘렸지 × 2 당신은 눈을 감고 떠났지만 나는 오늘 슬픈 눈물 흘렸지
아아 이젠 어떤 시를 만드나? 아아 나는 무슨 노랠 부르나?
아 이젠 무얼 위해 사나? 아 누굴 사랑해야 하나?

60) 오창규와 인터뷰, 2014.8.13. 「오창규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 1988.12.25.

61) 윤상원(1950. 8. 19–1980. 5. 27)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주택은행 봉천동지점의 행원으로 근무하다 낙향해 광천동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면서 들불야학의 강학으로 활동하다가 5 · 18을 맞았다.

"고등학생들은 나가라. 우리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생들 몇이 시무룩한 모습으로 대열을 빠져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을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해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62)

그는 정확하게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죽음을 무릎 쓴 그와 시민군들의 의지가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해져 5·18민중항쟁은 지난한 5월운동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박기순(1957-1978)은 1978년 6월 '교육지표사건'으로 강제휴학 당한 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광천공단내의 노동자들을 위해 '들불야학'을 창립해 운영하면서 자신도 광천공단 내 '동신강건사'에 취업하여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윤상원이 서울의 주택은행을 그만두고 광주로 돌아와 위장취업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을 때, 그를 설득하여 들불야학에 합류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기순은 1978년 12월 26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김민기가 방문하여 〈저들에 푸르른 솔잎이 되어〉를 불러주었고, 소설가 황석영이 조사를 하고, 문병란 시인이 조시를 읊어주었다.63) 열악한 시대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한 체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두 사람은 학생운동의 선후배였고 의기투합한 동지였다. 윤상원은 박기순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날 일기에 그녀를 향한 추모의 시를 남겼다.

이 두 사람의 영혼을 묶어주는 영혼결혼식이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5·18묘지에서 거행되었다. 두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주변 지인들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 결혼식이었다. 신랑측에서 초빙한 장성 임곡 출신 무녀가 굿을 한바탕 벌여서 두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고 주례인 문병란 시인이 준비한 시를 낭송하여 두 사람의 영혼이 그날부터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64) 이 영혼결혼식은 민중가요사에 영원히 남을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탄생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

62) 박호재·임낙평, 『윤상원 평전』, (풀빛, 2007), 406-407쪽.
63) 같은 책, 160-162쪽.
64) 전용호, "영혼결혼식과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이야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2006, 109쪽.

(2) 노래극「넋풀이」제작배경과 대본

1970년대 후반, 해남에 머물면서 광주, 전남의 청년들에게 문화운동의 씨를 뿌리며 그 계기를 마련해주던 황석영은 1981년에는 운암동 2층 양옥에서 살고 있었다. 해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곳은 문화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1982년 3월 어느 날, 그의 집에 전용호[65]와 김종률이 모여 노래극「넋풀이」에 관한 계획이 세워졌다. '올해 5월을 그냥 이대로 넘길 수 없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황석영의 푸념과 저항의 의지, 그리고 문화운동가들의 동의가 5월운동의 에너지를 공급했던 명곡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곧바로 음악극을 창작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구상과 노랫말은 황석영이 백기완, 김준태, 문병란 등 시인의 시를 골라 노랫말 형태로 만들고 김종률은 그 가사를 바탕으로 작곡을, 전용호는 노래 부를 가수 물색과 연락하는 일을 맡았다. 노래극의 주제는 죽은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전제로 한 넋풀이' 였다. 노래극은 광주 운암동 황석영의 자택 2층에서 공연하기로 했고, 참여자들은 기타, 장구, 북, 꽹과리, 징, 그리고 시내에서 빌려온 외제 녹음기 등을 준비하여 모여들었다. 연주소리가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담요로 거실 유리창을 모두 막고 각자 파트를 연습한 후 총 리허설을 거쳐 녹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제작된 음악극「넋풀이」는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 작업에 함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황석영(소설가), 김종률, 전용호(뮤지컬 화려한 휴가 제작자), 오정묵(전 MBC PD, 오창규), 임영희(사회운동가), 임희숙(여수여중교장), 윤만식(광주민예총 회장, 탈춤반), 김은경(익산중앙교회 목사), 노래 부르기 위해 영문도 모르고 참석한 전남대 음악과 여학생1명, 녹음기를 빌려온 민청학련 출신 이훈우(전 한겨레신문재직), 5월 항쟁으로 구속되었다가 군대에 끌려간 후 마침 휴가 나온 김선출(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팀장, 탈춤반) 외 에도 구경 차 참석한 사람을 포함하여 십 수 명이 작업에 참여하였다.[66]

이렇게 태어난 노래극「넋풀이」의 녹음 테이프는 1982년 기독청년협의회(EYC) 명의로 2,000개가 제작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1983년에는 YWCA 전국대회에서 광주YWCA 회원들이 놀이패 '신명' 의 대표인 윤만식의 연출로 공연하였고, 1984년에는 놀이패 '신명' 에 의해 YMCA 민주교사협의회의 초청으로 경기도 의정부 다락원에서 공연하였다. 노래극「넋풀이」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노래 7곡과 무녀의 초혼굿 사설, 영혼결혼식 당시 주례사 대신 낭송되었던 문병란 시인의 시,「부활의 노래」가 담겨져 있다.

---

65) 전용호(78학번)는 전남대 경제학과 재학 중 1978년부터 2년 동안 들불야학과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탈춤반)에서 활동하였다. 현재는 메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일촌공동체, 광주·전남본부 대표/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제작하여 공연하고 있다.

66) 앞의 책, 110-111쪽.

노래극「넋풀이」의 대본

1. 서곡–〈젊은 넋의 노래〉
(음향–바람소리, 흐느끼는 울음소리)
음 사람들은 잊지 못하네 / 음 맑아오던 마지막 새벽하늘
음 우리들은 잊지 못하네 /음 거리마다 울리던 그 목소리
젊은 넋은 애달프고 안타까워도 / 남과 북이 하나 되듯
둘이서 하나 되어 합쳐지소서

2. 〈무등산 자장가〉
(피리소리 배경에 어머니 대사)
아이고 이놈아. 니가 천둥인지 지둥인지 그런 큰일에 죽었으니 이 에미는 누구 믿고 사끄나.
살아생전에 학교도 못 갈치고 그놈의 공장에 나가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장개도 못 가고 죽었으니 그것이 이 에미의 피맺힌 한이다. 하지만 니 혼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생이 몹쓸 짓을 한 일도 없을텐께 이 에미는 슬프면서도 마음이 놓여. 오냐, 마른하늘을 보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 먼저 가신 느그 아부지한테도 떳떳해야. 인자 느그 친구들이 한 날 한 시에 죽은 느그들 영혼을 쩜매준다니께 두 넋이 하나 되어서 저그 무등산 너머로 훨훨 날라가거라.....

우리 아가 우리 아가 / 엄니 엄니 불러 봐라
떡도 사서 물려주고 / 엿도 사서 물려주마
둥기둥기 무등산아 날아가는 저 구름아
구름 밑에 신선인가 일어나서 걸어 봐라

3. 〈회상〉
('회상 전주곡 배경음악으로 여자 음성으로 독백)
언니는 학교를 그만 두셨어요. 학교에 다니기가 부끄러워 못 견디겠다고 늘 그랬어요.

교문이 보이는 야산에 올라 / 실없는 웃음만 흘리는 마음
허황한 책장마다 거짓만 가득 / 어깨를 구부린 친구들 모습
모두들 떠나버린 교정에 서서 / 도서관 흐릿한 불빛을 보며
차디찬 돌담 벽은 너무도 높아 / 사방은 캄캄한 어둠뿐이네

4. 〈에루아 에루얼싸〉

(남)형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 공장에 기계소리 가운데서 형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 우리 언니는 진달래꽃입니다.

(남) 형님은 재속의 불씨입니다.

(여) 삭막하고 캄캄한 이 도시를

(남) 언젠가는 눈부시게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앞서서 끌어주고 에루아 에루얼싸

뒤에서 밀어주고 에루아 에루얼싸

우리 모두 힘 합하여 에루아 에루얼싸

이 어둠을 밝혀보세 에루아 에루얼싸

에루아 에루얼싸 에루아 에루얼싸

에루아 에루얼싸 에루아 에루얼싸

(굿거리 장단에 맞춰 징소리 자지러지게 울린다)

5. 무당 초혼굿 마당

무당: 어 히 어히 좋다.

(굿거리 한 장단 울리고 시나위로 다섯 장단 울리다 사설) 어허 가는구나. 훌쩍 떠나가는구나. 한도 많은 세상 모두 두고 넋만 가냐–넋이야 넋이로다.

(시나위 여덟 장단 계속되다 사설) 쉬어가게, 쉬어가게, 천지 같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갈 제, 술렁이는 거품이면 홀로 가는 위치로다. 어–허

(시나위 다섯 장단 정도 계속되다 사설) 서러워라 서러워라, 하룻밤 울고 가는 두견새가 바로 너로구나. 아–하 넋이야, 넋이로다 –

(무당 구음 없어지고 장단 서서히 작아진다)

6. 〈부활의 노래〉(문병란 시)

(징소리 3번 울리고 남자 구음소리에 맞추어 시낭송)

돌아오는구나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의 꽃다운 혼, 못다 한 사랑, 못다 한 꿈을 안고

넘어 생명의 노래로 정녕 그대들은 돌아오는구나.(북장단)
야학에서 강의하듯 공장에서 일하듯
어여쁘디 어여쁜 그대들의 혼이 돌아오는구나.(북장단)
하나는 고향집 양지밭에 피어 있는
수수한 장다리꽃, 순결한 빛깔로 활활 타오르고
하나는 빛깔 고운 호랑나비, 그보다 더 어여쁜 노랑나비, 흰나비
두 날개 펴 춤추듯 맨살에 고운 혼으로 만나는구나.(북장단)
그리움에 눈물 자욱한 이슬 머금고
물오르는 개버드나무 망울 끝, 여린 봉오리 벙글어지는 봄의 아픔 속으로
우니는 듯 꾸이는 듯 손목잡고 정답게 흔드는 듯
이승에서 못 닿은 마음 이승에서 못다 한 사랑
오늘은 영원 속에서 만나는구나.(북장단)
억겁의 죽음을 넘어 억겁의 삶 속으로 고요히 돌아오는 순결한 혼들이여
거친 들판에 한줄기 풀잎으로 완강한 참나무의 꿋꿋한 기상으로
죽음을 넘어 돌아오는 혼이여 머나먼 주소에서 찾아온 생명의 넋이여!
(징소리)

7. 〈못오시나〉
산이 막혀 못 오시나 물이 막혀 못 오시나
산 막혀도 굽이굽이 물 막혀도 철썩철썩
울고 덮인 무덤 열고 메워지노니
넘쳐나는 물보라에 가슴 뛰노니
산이 막혀 못 오시나 물이 막혀 못 오시나
지금부터 우리들이 채워 가리라
지금부터 우리들이 우리의 그리움
기다림도 서글픔도 작별하러 떠나가네

8. 〈격려가〉
(대사–윤상원) 살아남은 분들이 너무 풀이 죽었어.
(대사–박기순) 그래요. 우리 격려해주어요.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부터는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단다
슬퍼하지 말아라 먼 훗날에도
절망하지 말아라 먼 훗날에도
강물이 흘러가는 새 울던 아득한 예날부터
하늘 아래 남아 있는 사람의 사람다움을

9. 〈님을 위한 행진곡〉
(대사–윤상원 · 박기순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땅 북녘땅이 합쳐지소서

1.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
2.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3) 〈임을 위한 행진곡〉의 보급과 사회적 기능

노래극 「넋풀이」는 전국의 대학, 노동현장으로 신속하게 보급되었다. 지금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알려진 노래는 처음 제목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엇다. 보급과정에서 '님'은 '임'으로 바뀌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테이프가 보급되던 해인 1982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사한 대학인의 노래 순위에서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으며, 1983년 전국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은 이 노래를 그해 가장 많이 부른 저항가요로 선정했다.[67] 특히 광주에서 오월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모제를 비롯한 각종 집회와 시위의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애국가를 대신하여, 또는 애국가와 함께 부르면서 투쟁의 의지를 곧추세우고 오월정신을 다시금 가다듬곤 했었다. 1997년에 5월 18일이

67) 「오창규 오픈 스튜디오」(프로그램), 1988년 12월 15일 YMCA 무진관, 빛고을 기획실 제작 · 기획.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주관아래 기념식이 진행되기 시작한 후에도 기념공연순서나 헌화와 분향 시간에, 혹은 합창 순서에 연주하거나 불렀다. 5·18의례에서는 이 노래가 3월 1일에 부르는 3·1절 노래와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부르는 광복절 노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곡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광주의 5월운동의 현장을 넘어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교육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 모든 투쟁의 현장에서도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3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부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음악인류학자 메리암(Alan P. Merriam, 1923~1980)의 음악기능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가치, 그리고 장수의 이유를 정리하고자 한다. 메리암은 음악이 사회와 문화, 심지어 문명의 정도에 상관없이 ① 정서 표현의 기능, ② 심미적 향수의 기능, ③ 오락의 기능, ④ 전달의 기능(커뮤니케이션의 수단), ⑤ 상징적 표상의 기능, ⑥ 육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 ⑦ 사회규범에의 적합을 강화하는 기능, ⑧ 사회제도와 종교의례를 성립시키는 기능, ⑨ 문화의 존속과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능, ⑩ 사회의 통일에 공헌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68]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첫째,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억압의 정치사속에서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정서 혹은 감정이 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 가사는 본래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의 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시는 놀라울 정도로 윤상원이 도청에서의 마지막 날, 고등학생들을 내보내며 부탁한 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져 있다. 매우 구체적으로 항쟁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산자로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뒤를 따르라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죽음과 패배로 끝을 맺은 80년 5월의 항쟁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선율은 당시의 정서인 비장함, 패배감, 자괴감이 단조의 조성으로 나타나고 느린 속도와 리듬은 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행진곡이나 가요보다 노래의 음역이 매우 넓은 편이어서 부르기는 쉽지 않으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극적이다. 항쟁과정에서 죽음을 앞에 둔 자가 느꼈을 감정이나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느끼고 있을 정서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

둘째, 그 어떤 노래보다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의미의 전달기능이 뛰어났고 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 격한 싸움을 치렀던, 항쟁에서 죽어간 모든 자들이 격전지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에게 계속 투쟁해 줄 것을 호소한다. 오월운동을 주도하는 남은 자들은 모든 투쟁의 현장에서 이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계속투쟁의 결단을 서로에게 요구한다.

셋째, 이 노래는 다양한 상징적 표상의 기능을 한다. 여타 음악의 특징 중 하나가 추상성이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상징은 노래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명약관화하다. 광주민주화항쟁에서 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죽어간, 노동운동가이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시민군이었던 윤상원과 '교육지표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당한 뒤 위장취업한 노동자이면서 야학의

68) Merriam, Alan P.(이기우 역), 음악인류학 II, 서울: 한국문화사, 2001, 359-372.

강학이었던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모델로 만들어진 음악극에서 두 사람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계속투쟁을 호소한다.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5월민주화항쟁 때문에 태어난 노래이지만 두 사람이 그 이전에 전개했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교육운동, 문화운동[69], 그리고 가사의 주인 백기완의 통일운동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노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활동과 노래생산의 배경까지 더하여 복합적 상징성을 띄면서 여러 투쟁의 장에서 사용될 수 있었고 실제로 끊임없이 불려졌다. 설혹 노래의 배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백기완의 시는 한반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넷째, 사회규범에의 적합을 강화하는 기능을 잘 수행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새마을노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전국민의 사고를 통제했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통일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어떻게 투쟁해야할 것인지를 지시한다. 가사를 통해 운동권 규범에의 적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 노래는 사회제도와 종교 의례를 성립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이론에도 부합된다. 오월운동기간 동안 추모제, 궐기대회, 기소촉구국민대회, 위령제, 결의대회, 기념식, 마당놀이, 각종 시위현장 등에서 애국가를 대신하여 민중애국가로 지속적으로 불려졌다. 각각의 모임에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서 이 의례를 진행하는 사회의 일원임을 서로 확인한다. 이 노래를 부름으로서 모임의 의식적인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역할도 감당한다.

여섯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문화를 존속시키고 운동권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노래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 이념과 관심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다.

일곱째, 음악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이론에도 부합된다. 본래 행진곡은 2/4 혹은 4/4박자로 걷기에 적절한 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진곡을 춤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음악극에서 장례행렬과 함께 불렀던 노래로 느린 속도와 단조의 비장한 곡이었으나 8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시위에서는 늘 빠른 속도로 노래했다. 빠른 4/4박자로 부르는 이 곡은 가사의 비장함에 더해 씩씩한 행진곡이 되면서 손사위를 동반한다. 음악에 대한 반응은 문화적 관습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음악에 다른 신체적 반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두 같이 손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래는 시위의 현장에서 주로 불려진 만큼 그러한 장소에 함께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같은 손사위와 함께 노래한다. 2004년 5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17대 국회의원들도 주먹을 힘차게 휘저으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사가 있다.[70]

이 노래의 특징이기도 한 부점 붙은 리듬이 느리게 불려질 때는 비장함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빠르게 불려질 때는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행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

69) 윤상원은 전남대학교 재학시절 연극반으로 활동했었다.
70) 동아일보, 2004.5.31. 머니투데이, 2004.5.31.

마지막으로 메리암의 사회적 기능과는 관계가 없으나 노래의 사용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이 그 효용성을 높이면서 장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노래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을 짊어지고 행진할 때 불려졌던 만가(輓歌)이다. 그러므로 처음 작곡될 당시의 이 노래는 느린 속도의 노래였다. 5·18기념식의 '분향과 헌화' 시에는 기악만으로 매우 느리게 연주한다. 반면에 기념공연순서에서는 합창단이 보통빠르기로 부른다. 시위의 현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손사위와 함께 노래한다. 어떤 속도의 연주든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이 노래의 또 하나의 특징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메리암이 말하는 음악의 기능들 중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연주방식에 따른 효용성까지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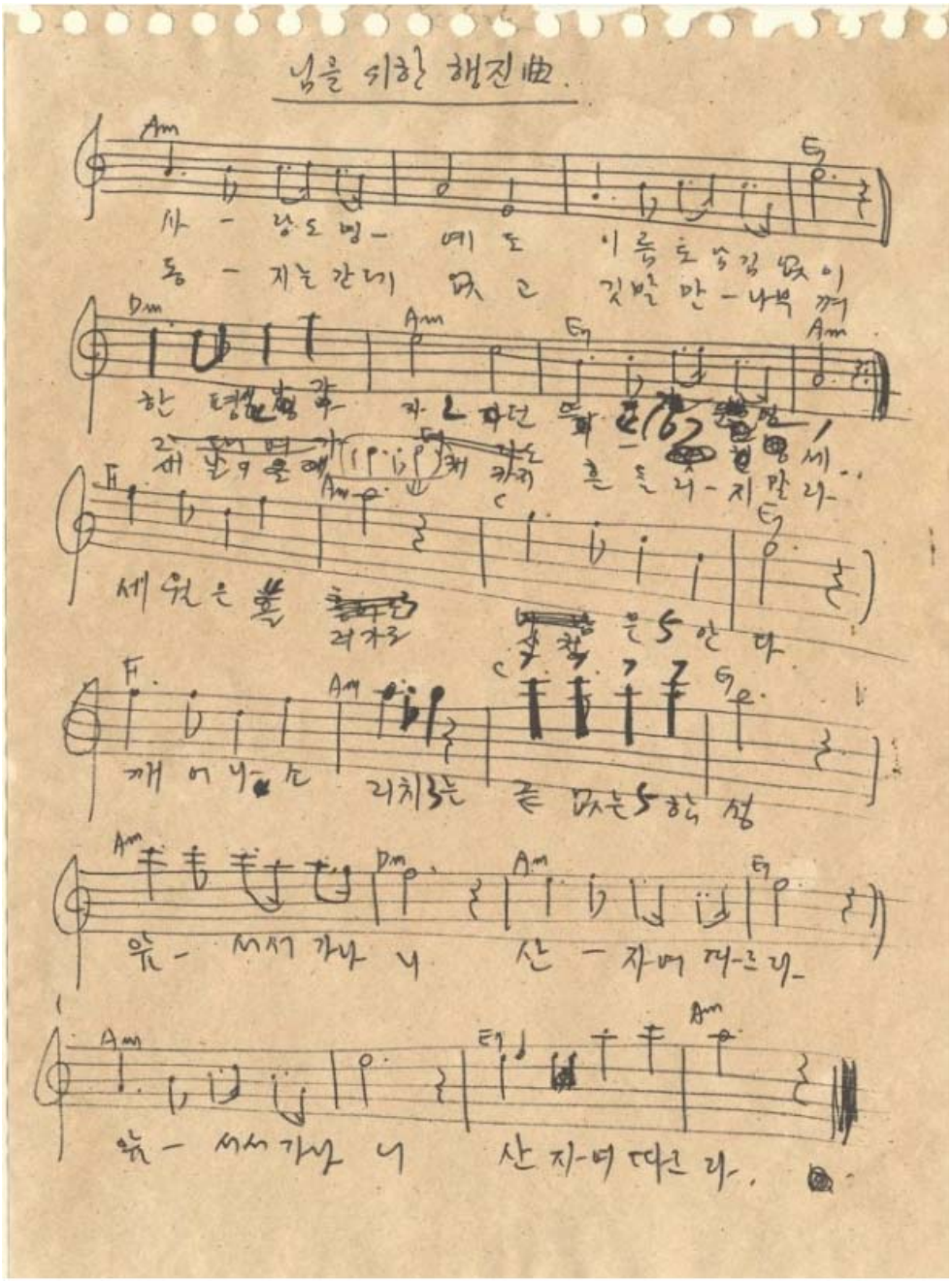
(4)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화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내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1989년 한겨레신문에는 '동아시아에서 불리는 임을 휘한 행진곡' 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홍콩에서는 〈사랑의 행진곡〉, 대만에서는 〈노동투쟁가〉로 번안되었다.[71] 태국에서는 솜욧 프룩사카셈숙이 태국어 버전의 '연대의 노래(Solidarity)' 로 번안하여 태국 노동운동의 대표곡이 되었다. 2006년 태국 노동운동가들이 태국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72] 2012년 1월 1일, 중국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 마을 피촌에서 농민공 밴드 '신노동자예술단' 이 새해맞이 행사 무대에 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가사는 중국 농민공들의 현실에 맞게 바뀌어 있었다. "우리의 지혜와 두 손으로 거리와 다리와 고층건물을 건설했네.... 우리 행복과 권리는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지, 노동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노동자는 가장 영광스럽다네." 피촌의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음악교사출신의 노동운동가 쑨형(39)이 열창했다. 그는 "한국 노동운동과 관련된 책과 자료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에 문화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 했다.[73] 이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등지에서 불리고 있음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우타고에' 합창단 동경지부, 최근에 만들어진 '일어서라' 합창단의 단원들은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무대에서, 그리고 뒷풀이 장소에서 주먹쥐고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한다. 광주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모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

71) 경향신문, '아침이슬 머금고 남행열차 탄 동백아가씨를 왜 불러', 2014.05.02.
72) 경향신문, '태국서 임을 위한 행진곡 울려 퍼지다', 2006.09.15.
73) 한겨레, '깨어나는 중국농민공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다', 2012.01.02.

〈악보 5, 님을 위한 행진곡〉74)



74) 김종률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작곡자가 보내준 원본 악보의 복사본, 2003.

(5) 〈임을 위한 행진곡〉의 운명

세계적인 민중가요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앞서 기록한대로 2004년에는 청와대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그 운명도 흔들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광주 5·18민중항쟁의 공식 추모곡 공모를 2006년과 2009년에 추진한 바 있고, 2012년 말 기념곡 제작 명목으로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해 새로운 기념곡 제정을 추진하였다.[75] 2010년에는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아타령 연주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2013년 5월 2일 광주를 방문했던 국가보훈처장은 이 노래를 33주년 기념식에서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에 광주 5 · 18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했고 2013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을 신청해 즉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국회에서는 2013년 6월 27일 이 노래를 5·18 민중항쟁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도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는데 힘을 보탰고 김무성 의원은 "5·18기념식에서 오랫동안 불려왔던 노래를 왜 중단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 주제가로 선정해 유가족과 광주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고 말하기도 했다.[76]

2013년 기념식에는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불가하게 되자 이 행사의 주인공인 5 · 18 유족과 부상자, 구속자들이 기념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기념식장이 아닌 망월동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 를 열었다.

2014년 4월 1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승춘 보훈처장이 출석하여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개별 법률에 규정된 25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라고 밝히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같은 날, 광주광역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4월 14~15일 전국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보훈처장의 의견과 많이 달랐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59.8%는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2.3%였다.[77]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 기념곡 지정이 광주시민들의 의견만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국 2014년에도 파행을 겪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창이 아닌 합창단을 불러 합창하기로 결정한

75) 뉴스천지, 광주시 '임을 위한 행진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13.05.10.
76) 한겨레, '새누리도 '임을 위한 행진곡' 지키기에 힘 보태, 2013.05.08.
77) 경향신문, 5 · 18단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없는 기념식 불참, 2014.05.07.

것이다. 제창과 합창은 연행방식의 차이로 제창은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노래하는 방식이고 합창은 합창단들만 노래를 부르는 공연의 형태를 말한다.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5월운동기간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항상 애국가를 대신하여 제창되어져왔고, 이 노래에 관한한 이러한 방식에 익숙한 광주시민들에게는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5·18당사들이 빠진 2014년 34주년의 기념식에는 국가보훈처가 지역별로 구성한 240명의 연합합창단의 〈오월의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합창단의 구성원 중에는 합창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혹은 갑작스럽게 연락받고 5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합류한 자리 채우는 단원들이 섞여있었다. 더구나 일부 학생단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하는 바람에 입조차 열지 못했다고 한다.[78]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광주에 새로운 사회운동을 전개하게 만드는 처사가 되었다.

이제는 세계의 곳곳에서 부르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의 탄생지인 광주에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광주시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목청을 높여 이 노래를 부르며 시정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6) 80년대 오월 운동과 〈오월의 노래2〉

80년대 오월운동에서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만큼이나 많이 부른 노래가 〈오월의 노래 2〉이다.[79] 가사가 오월항쟁에 일어났던 일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서 적나라한 표현이 노래 부르는 이로 하여금 쉽게 오월에 대한 기억을 불러온다. 저항가요는 앞서 설명한대로 기존의 대중가요에서 선택되고 재해석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새롭게 창작되어지기도 하며, 〈오월의 노래 2〉처럼 번안곡이 '노래가사바꾸기(노가바)'를 통해 민중가요가 되기도 한다.[80]

본래 〈오월의 노래 2〉의 선율은 프랑스 샹송으로 루시엥 모리스를 추모하여 미셸 뽈라레프(Michel Polareff)가 1971년 작사, 작곡한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Qui a tué Garnd Maman?)〉이다. 지역이 개발되면서 할머니가 소중하게 가꾸었던 아름다운 정원의 나무, 꽃, 새들이 사라졌고, 그 정원 속에서 찾을 수 있었던 여유와 상념의 시간 또한 사라졌기 때문에 상심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다. 1971년 박인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목받지는 못

78) 데일리안, 경향신문, 충청일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일당 5만원에 입만 빠금, 2014.05.18.

79) 〈오월의 노래 1〉은 문승현 작사, 작곡으로 1981년 9월 26일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정기공연에서 발표되었다. 노래는 1984년에 발매된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수록되어 있다.

80) 〈오월의 노래 2〉 가사

1.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후렴: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2.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3.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랴 후렴
4. 대머리야 쪽발이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피, 피!

했었다. 그러나 노가바를 통해서 오월을 형상화하는 노래로 탈바꿈되어 오월을 기억시키고 투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반정부,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5월운동의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투쟁가가 되었다.

번안가요였던 이 노래는 노가바의 대표곡이 되었다. 노래라는 매체를 통해 '오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노가바'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980년 초 적당한 저항가요의 부재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되었다.[81] 또 다른 종류의 '노가바'는 대학생들의 풍자의 재미를 만끽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에 알고 있는 노래에 가사의 몇 부분만을 바꾸어 노래 본래의 의미와 새로운 의미사이의 부조화로 인한 충돌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노래장난이다.[82] 〈오월의 노래2〉는 전자의 경우, '오월운동'에 필요한 투쟁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래의 필요성에 의해 생긴 '노가바'이다.

〈오월의 노래 2〉도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어떤 빠르기와 어떤 매체로 연주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정서에 큰 차이가 있다. 항쟁의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불려 질 때는 투쟁에의 치열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면서 투쟁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격렬한 운동가이다. 하지만 추모제에서 제례의 헌주음악으로 사용되거나 기념식의 분향 및 헌화순서에서 기악으로 느리게 연주되어질 때에는 가사가 주는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면서 잔혹함, 희생과 비장함의 정서가 더 깊어진다. 이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민중의례에 많이 쓰이면서 의례음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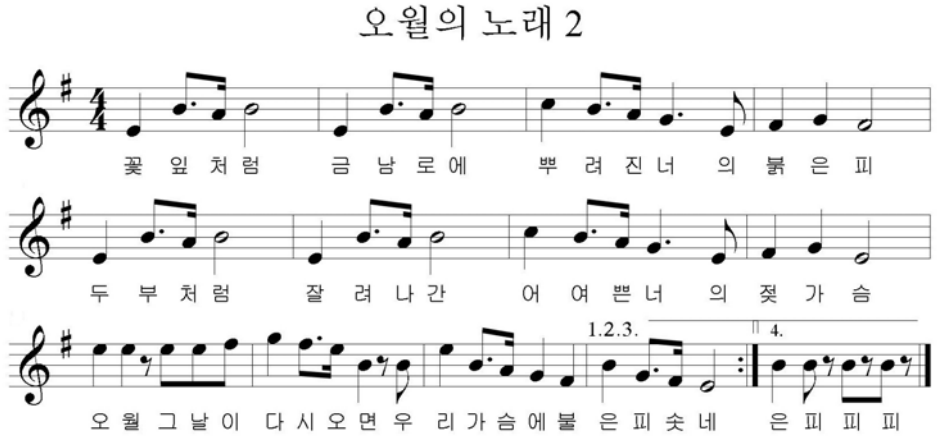
〈오월의 노래 2〉는 원래의 노래로부터 달라진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원곡은 16마디인 두 도막형식인데 〈오월의 노래 2〉에서는 전달해야하는 내용만을 전하기위해서 작은 세도막형식인 12마디로 축소되어있다. 리듬도 원곡은 장식적이며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드러운 리듬(♬♪)인데 〈오월의 노래 2〉에서는 일명 깡총리듬(♫♫)으로 바뀌었다. 또 악구의 끝부분 즉, 제4마디, 제8마디, 제12마디의 선율이 각각 다르게 불려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 네 마디(9-12)는 리듬과 선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원곡이 민중가요로 바뀌면서 당김음이 포함된 부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단한 리듬과 선율로 바뀌었다. 또 원곡의 마지막 네 마디(13-16)는 바로 앞 네 마디(9-12)와 거의 비슷한 선율로 가사없이 "라라~~"로 서정적인 부드러움을 주고 있는데 〈오월의 노래 2〉에서는 마지막 네 마디를 후렴으로 한번 부르고 나머지 네 마디는 생략해버렸다. 가장 큰 변화는 4절의 마지막 마디일 것이다. 3절 까지는 마지막 마디를 '붉은 피 솟네'의 하행선율로 마무리하는데, 4절에 가서는 '붉은 피,피,피!' 하고 피를 세 번 외치면서 격렬하게 끝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피'를 외치면서 치열

81) 1980년대 초반에는 '노가바' 노래를 모아 책자로 만들만큼 유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81년 3월경부터 허병섭 목사(이동철이 쓴 소설 「꼬방동네 사람들」의 실제 주인공)는 '노가바' 소책자 「노동과 노래」를 복사, 배포한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노가바'를 모은 소책자를 만들었다는 죄로 인기부에 연행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던 '저작권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가 만든 책자에는 이미자의 노래 〈울어라 열풍아〉의 가사가 '못견디게 잠이 와도 자지 못하고, 오는 잠을 깨워가며 일하는 신세/ 사장님이 알아주랴, 사모님이 알아주랴/ 돌아라 미싱아, 밤이 새도록...' 등과 같은 노동노래 60여곡이 실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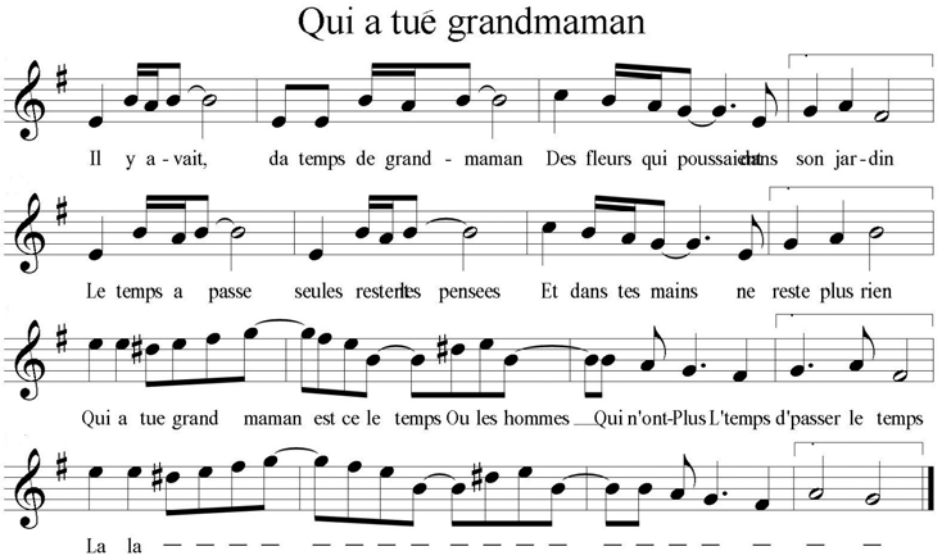
82) 『우리시대의 노래』 1, 민맥, 2000.

한 투쟁을 결단하는 것이다. 다음은 〈오월의 노래 2〉와 샹송 〈Qui a tué Grand Maman?[83]〉의 악보이다.

〈악보 6. 오월의 노래2〉



〈악보7, 오월의 노래2의 원곡, 샹송 Qui a tué Grand Maman〉



노가바를 통해서 다시 부르게 된 노래가 〈예성강〉이다. 이 노래는 1966년 KBS 실화극장 드라마 주제곡으로 김강섭이 작곡하고 김상국이 노래했던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노래였다. 6 · 25때 우리의 멸악산 유격대의 활동을 그린 드라마였다. 앞서 1960년대에서도 운동권역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이나 1980년대 초반에 또다시 이 지역에서 부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과 함께 민주화를 열망했으나

83) ★로 표시된 부분은 "오월의 노래"에서 달라졌다.

5 · 18민중항쟁이 아닌 '사태' 라는 오명을 쓰고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은 좌절하게 되었고 진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다. 그 정서가 당시에 불렀던 민중가요에 나타난다. 노래들은 단조 서정가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비극을 다른 드라마 주제가 〈예성강〉의 내용이나 단조로 작곡된 서정가요가 당시의 경향에 잘 부합되는 노래였기 때문에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 같다. 특히 노래패 친구가 노가바 〈예성강〉을 앨범 '임을 위한 행진곡' 에 포함시켜 발매했고 광주의 노래꾼들에 의해 많이 불려졌다.[84] 다음은 원곡의 가사와 광주의 5 · 18을 주제로 한 '노가바' 가사이다.

원곡의 가사: 예성강 모진 바람 강물도 흐느낄 때 말없이 사라져간 여기 이 사람들
말하라 강물아 너는 알리라 하늘 보고 울부진 그들의 유언을
멸악산 먹구름이 초생달 가리 울 때 웃으며 사라져간 여기 이 사람들
말하라 산이여 너는 알리라 누굴 위해 사라진 젊은 넋들이야

개사된 가사: 예성강 푸른 물에 물새가 울면 말하라 강물이여 여기 젊은 이 사람들
말하라 강물이여 너만은 알리라 겨레위해 쓰러져간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
무등산 높은 봉에 바람이 불면 말하라 금남로여 여기 젊은 이 사람들
말하라 금남로여 너만은 알리라 자유위해 쓰러져간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
말하라 금남로여 너만은 알리라 민주위해 쓰러져간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
통일 위해 쓰러져간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

5월 운동동안 또 하나의 노가바 〈아기는 울다 지쳐〉가 있다. 〈섬집 아기〉라는 동요의 가사를 바꾸어 불렀던 노래로 1985년 광문협에서 제작 발매한 「광주여 오월이여」 에 실려 있다.[85] 5월항쟁 당시 10일간의 한 장면을 묘사한 노래이다.

7) 광주지역의 문화패 결성[86]

광주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노래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해마다 망월묘지에서 거행되는 위령제

84) 김원중과 인터뷰, 2014.03.19.
85) http://plsong.com/bbs. 민중가요를 정리하여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현재는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와 구 사이트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plsong에서는 들을 수 없고 과거에 만들어진 사이트에 mp3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mms://220.95.230.198/plsong/KwangMunHyeb/Kwangjuyeo/06.wma
86) 김선출의 「오월의 문화예술」을 참고하였고 많은 부분은 당시 문화운동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여 첨삭하였다. 2013.08.07.,박영정과 인터뷰.

혹은 추모제는 정권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추모사와 추모시를 낭독하고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항상 애국가를 대신해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 2〉가 불려졌다. 사회운동에 미치는 문화(마당극, 풍물, 탈춤, 노래, 그림, 판화, 문학, 무용 등)의 힘을 실감한 운동에 가담했던 청년들은 문화운동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문화단체들을 정리한다.

(1) 일과놀이

1983년 조직된 '일과놀이'가 그 중 하나이다. 강신석, 송기숙, 윤영규, 황석영, 문병란이 공동대표로 참가하고 총무간사에 전용호, 김선출, 이춘희가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과 문화라는 것이 변증법적으로 순환하는 세계를 이상적 세계로 간주하고 '일과 놀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결국 다섯 개의 분과(문학: 김형수, 연극: 박효선, 미술: 홍성담, 마당극: 윤만식, 출판: 최열)로 조직해 운영해 나갔다. '일과놀이'는 전남여고 뒤편에 있는 다산독서실 지하에 소극장을 마련했고, 이 소극장에서 풍물학교를 열어 풍물연수, 탈춤전수, 시민미술학교 운영, 독립영화상영 등 아마추어 문화보급센터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소극장은 공연장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여러 가지 공연을 강행함으로써 공연법 저촉에 걸려 벌금을 물기도 했다.[87] 80년대 노래운동의 큰 획을 긋는 문성인(정세현)도 일과놀이를 통해 광주에 소개되어진다.

(2) 민중문화연구회

1984년 4월 광주민중문화연구회(민문연)가 조직되었다. '일과놀이'와 문학팀(5월시동인)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조직명을 갖게 된 것이다. 민중문화연구회는 창립대회 "광주민중문화큰잔치"를 유동의 YWCA에서 행사를 갖고 광주시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에 자리를 잡는다. 연구회는 잡지 「광주문화」를 발간(1984/1985)했는데 이 창간호에 훗날 광주에서 노래운동의 중심이 되는 문성인(정세현)의 〈승리의 노래(광주출정가)〉가 실렸다. 이 노래는 오월운동과 학생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민중가요가 되었다.[88]

'광주민중문화연구회(민문연)'에서는 1985년 5월을 맞이하면서 기념되는 기획물을 계획했다. 5·18을 기억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노래극 「광주여, 5월이여」를 테이프에 담아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기획에 참여한 이들은 정세현, 고규태, 김경주 등이다. 80년 5월 16일에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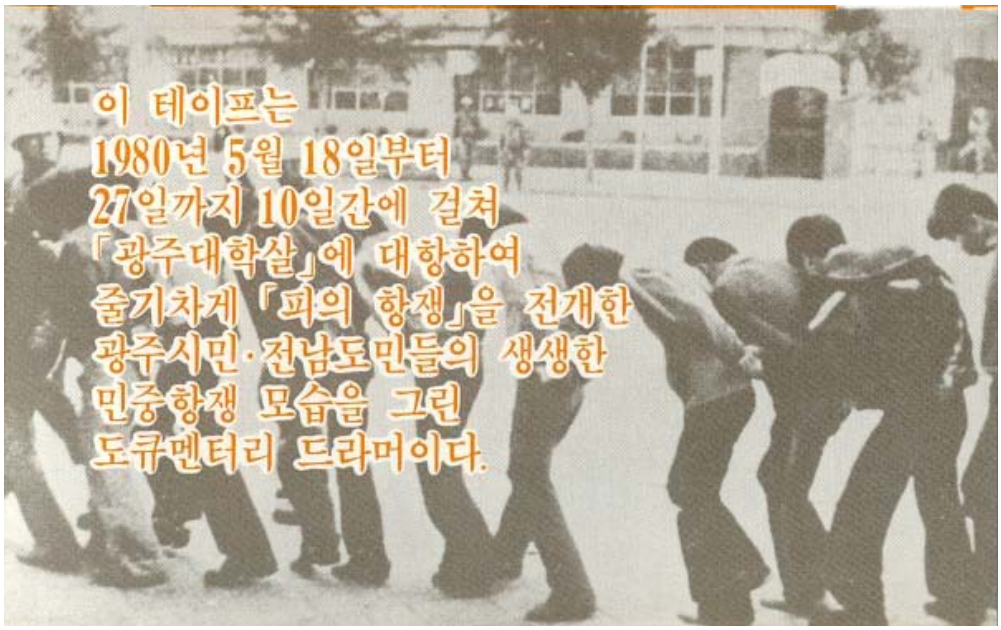
87) 2013.8.7., 박영정과의 인터뷰, 2013.11.6., 전용호와의 인터뷰.

88) 광주출정가(고규태 글/정세현 곡)는 처음 작곡되어 발표할 당시는 〈승리의 노래〉로, 후에는 〈광주출전가〉로, 시간이 흐르면서는 〈광주출정가〉로 제목이 바뀌었다. 필자의 글에서 자주 바뀌는 제목은 이러한 변천사 때문이다. 작곡가의 이름도 본명은 문성인이나 후에는 정세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고 불가에 출가한 후에는 법명 범능을 사용하였다.

민족성회에서의 박관현 연설, 박관현 어머니의 곡소리 등 실제 음원자료를 구해 배경 음향으로 사용하였고, 음악극의 중심배경음악으로는 80년 당시 가장 많이 불렀던 〈훌라송〉을 사용하였다. 김경주의 화실과 유동 YWCA 7층의 CBS 스튜디오 등의 장소를 전전하며 제작한 이 테이프는 유료로 배포되었고 민문연의 재정을 보충해주는 재원이 되기도 했다. 다음은 1985년 1월에 광주민중문화연구회의 이름으로 발매한 "광주여, 5월이여" 의 트랙내용이다. 당시의 삼엄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 이 테이프의 제작과 배포는 매우 용기가 필요한 과업이었을 것이다.

1. 광주항쟁현장녹음(총소리와 5월 16일에 있었던 박관현 열사의 육성연설)
2. 오월의 노래를 배경으로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낭송
3. 테이프 제작 배경(80년 5월의 한국사회 상황개관)
4. 사이렌과 계엄군 진입을 상징하는 군화의 행진소리와 5월 정국과 독재상황보고
5. 광주의 5월 18일, 19일 일지와 시민들의 회상 증언(구타의 광경을 목격한 전여고 1학년 학생, 여고생시체를 목격한 남성, 공용터미널에서 있었던 총격전 목격한 남성 증언 등)
6. 편지낭송(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아기는 울다 지쳐(섬집아기의 노가바)
7. TBC 텔레비젼 뉴스 광주사태에 관한 왜곡된 뉴스(녹음) - 항쟁일지(5월 18일 – 21일까지)
8. 시민군 도청탈환(5월 22일) -〉 광주출정가
9. 항쟁일지(5.22~26): 목사, 신부, 학생, 교사, 민주인사 등 5 · 18사태 수습대책위원회결성, 청소, 상가열기, 범시민궐기대회, 헌혈,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선언문 낭독 등에 관한 일지 —〉 〈광주출정가〉
10. 도청 앞 제5차에 걸친 시민궐기대회 상황재현(5월25일)
11. 〈혁명광주〉연주
12. 계엄군 도청진격과 최후항전(5월 27일) 그리고 가두방송
13. 도청 사수대 일지와 한 청년의 마지막 연설
14. 도청의 마지막 싸움에서 산화한 열사들(사망자 명단 발표) – 곡소리 – 광주시민 장송곡 〈고이 잠드소서〉
15. 시낭송 – 부활의 노래
16. 〈죽창가〉
17. 〈전진하는 5월〉

〈사진 1,「광주여, 5월이여」 테이프 자켓〉



이외에도 민문연에서는 1985년에는 70년대부터 85년 당시까지 광주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담은 노래책『동트는 산하』를 발행했다. 또 1987년에는 1980년 5월 유일한 언론의 구실을 했던 투사회보를 새롭게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3) 80년대 복음성가운동과 문성인, 정세현 그리고 범능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의 기독교 복음성가 노래운동이 1980년대 광주전남에서도 계속되었다. 서울 한신대 학생으로 화순읍 교회에서 청년전도사로 봉사활동을 하던 채일손(현재 강진 성전교회 목사)은 복음성가 전파 외에도 직접 노래를 작곡하여 청년들에게 가르쳤다. 화순읍교회에서 청년회활동을 하던 노래 잘하는 문성인(정세현)은 채일손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곤 했다. 화순에서 기독교청년회(기청) 활동을 하던 문성인의 노래실력을 당시 기청 전남연합의 총무간사로 일하던 전용호가 보고 광주의 문화패들에게 소개했고 문성인을 '일과놀이' 의 풍물연수에 참가시키면서 그는 광주의 운동권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1982년부터 기청 광주연합회(회장 전용호)는 행사 때마다 문성인을 무대에 올려 채일손의 〈십자가〉와 〈서시〉를 부르게 하거나 문성인과 함께 채일손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당시 기청활동을 감시하던 사찰당국은 '방위' 로 군복무 중이었던 문성인을 잡아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협박 후 풀어주기도 했다. 군복무를 마친 문성인은

1983년 '갈릴리 문화선교단'(임영희, 조경자, 문성인)활동에 참여하여 창작곡과 기존의 복음성가곡을 모아 앨범제작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독교 복음성가 노래운동을 전개했다. 1984년에는 아시아자동차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민문연 주최 '광주민중문화큰자치'에 참여, 공연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기독교 단체에 머물렀던 활동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남아서 복음성가운동을 계속하였다. 1991년 장빈, 백창우, 고상미, 전희안, 주현신, 류형선, 장서영 등 기독노래운동 활동가들이 엮어내고 자문위원으로 문익환, 장기천, 조화순, 노동은, 이건용 등이 참여한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를 주축으로 기독교노래운동의 방향이 다시 세워졌다. 문성인도 광주 활동가들의 요구로 기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문성인은 본격적인 음악운동을 위해 1985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피리전공)에 입학했다. 전남대 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신입생환영회에서 문성인은 노래모임 '새벽'에서 발표한 〈이 산하에(1984)〉[89]를 노래하고 고규태는 시를 낭송하였다. 이들은 이 후로 고규태는 작사하고 문성인은 작곡하는 공동작업을 통해 수많은 곡을 만들고 보급했다.[90] 문성인은 대학에 들어오자 곧 전남대 중앙노래패 '횃소리'를 조직하여 노래운동을 본격화한다. 앞서 언급한 테이프 '광주여 오월이여'에 수록된 노래 〈광주출전가〉와 〈혁명광주〉 두 곡이 모두 문성인의 작품이다. 또 학외에서는 선배 박영정이 지어준 정세현을 예명으로 가지고 활동을 지속한다.

(4) 정세현과 노래패 '친구'

1987년에는 사회 노래패 '친구'가 정세현의 주도로 창단되었다.[91] 그들은 창단 목적을 첫 공연의 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다.

외세문화(팝송이나 디스코 등)에 만연되어 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해가는 우리문화현실을 반성하고 이 땅에 자주적인 민족·민중문화건설을 위해, 민중의 피와 땀이 살아 숨쉬는 진실한 노래들을 만들

89) 〈이 산하에〉는 1984년 문승현이 작사·작곡한 노래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1989)에 실렸다. 동학과 3월 만세운동 등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몸 바친 선배들을 노래하며 민주화운동의 헌신을 다짐하는 노래이다.
1절: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우금치 마루에 흐르던 소리 없는 통곡이어든 불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해도 굽이치는 저 강물 위에 아침 햇살 춤춘다 해도 나는 눈부시지 않아라.
후렴: 폭정의, 폭정의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살아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에 살아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이 산하에

90) 고규태와 정세현(문성인)이 함께 공동 작업한 노래: 〈혁명광주〉, 〈광주출전가(광주출정가)〉, 〈봄날의 코스모스〉, 〈묶인 몸 묶인 세월〉, 〈순이소식〉, 〈통일을 이루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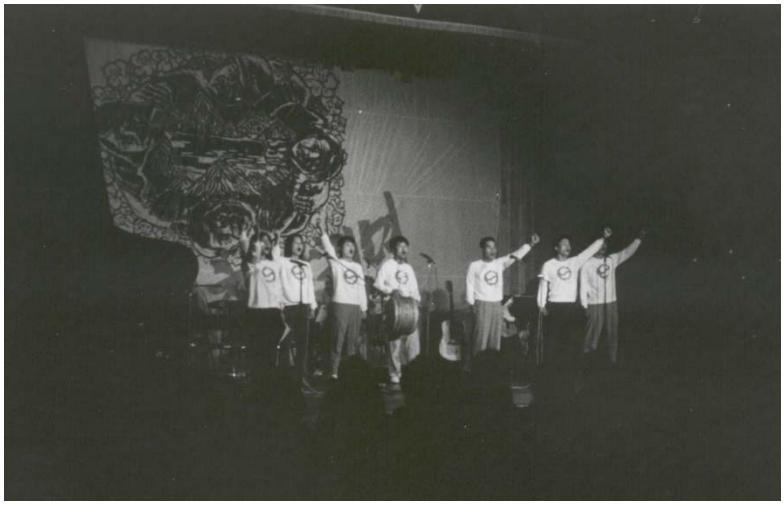
91) 여러 기록에 노래패 친구는 1987년에 창단되었다고 기록되어있으나 민중문화연구회의 이름으로 이미 노래패 친구는 앨범 「의연한 산하」를 1986년에 발매했다. 이 앨범에 실린 노래는 다음과 같다. 전면: 1. 이 산하에, 2. 타는 진달래, 3. 내일이 온다, 4. 의연한 산하, 5. 찢어진 깃폭, 6. 친구 2, 7. 민주(햇살), 8. 그날이 오면, 9. 어머니, 뒷면: 1. 부활하는 산하, 2. 사월 그 가슴으로, 3. 예성강, 4. 친구 4, 5. 철창안의 봄, 6. 죽창의 노래, 7. 광주시민항쟁가, 8. 타는 목마름으로, 9. 민족해방가

고 부르고 보급하여 육천만 동포를 한 친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래운동 모임입니다.

송기숙교수는 공연의 격려사를 통해서 "총칼과 군화발의 독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칼에 찔리고 총에 머리통이 날아가는 아픔과 원한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꽃잎처럼 금남로에 쓰러진' 동지들의 그 죽은 시체나마 트럭에 실려 어디로 갔는지 목메어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노래운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당시 창단단원은 정세현(작곡, 노래), 배은경(노래), 류진주(신디, 햇소리 단원)로 출발했다. 첫 번째 창단공연인 민중노래 발표회 '타는 목마름으로' 를 위해서 김종섭(기타, 보컬), 이병채(현 음악교사, 기타와 노래), 김영학(기타 및 기획)이 보강되었다. 이 후 전영규(기타), 주화주(노래) 등이 합류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정세현에게 예명을 지어준 박영정과 맨 처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오창규[92]는 80년대 광주에서 벌어지는 많은 민중문화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획하거나 홍보하는 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노래패 '친구' 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노래패 친구의 두 번째 발표회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은 1988년 제주 4 · 3항쟁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4월에 열렸다. 또 모금을 통해 공동출자로 민중문화, 민족예술을 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울 '예술극장 한마당' 의 개관(8월 15일)에 참여해 새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10월 15일과 16일에는 제3회 노래발표회 '통일기 휘날리며' 를 광주 YMCA 1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통일기원 〈비나리〉로 시작되었고 연희양식에 담아 표현하는 입체적 연출로 꾸며졌다.[93]

〈사진 2, 노래패 친구, 제3회 노래발표회 '통일기 휘날리며' 공연모습〉[94]



92) 박영정은 2013년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오창규는 광주MBC PD를 역임했다.
93) 한겨레신문, "광주 노래패 '친구' 발표회 15.16일 '통일기 휘날리며' ", 1988.10.15.
94) 노래패 친구의 단원이었던 전영규가 사진을 제공해주었다.

1989년에 가졌던 네 번째 공연은 '전진하는 오월'이라는 부제를 달고 5월 노래극을 공연했다. 노래패 친구를 포함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출연진은 〈광주출정가〉,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광야에서〉, 〈벗이여 해방이 온다〉, 〈그날이 오면〉, 〈전진하는 오월〉등 5월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불렀다.[95] 이들은 자신들의 노래운동의 목적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밝힌다: 시대상황의 질곡 속에서 우리의 것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서구화된 문화적 환경이 우리 민족의 건강한 정서를 해치고 있어 이의 회복이 시급하다. 민중들의 삶속에서 우러나와 함께하는 노래, 민족의 가슴속에 하나 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보급해 민족성원 모두를 한 친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노래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96]

노래패 '친구'는 본인들이 개최하는 공연 외에도 지역의 행사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초청공연을 소화해야 했다. 6월항쟁이 시작된 이래로 민주화운동의 확산, 그리고 민중가요의 보급과 대중화의 영향으로 지역 노래패 '친구'와 같은 노래일꾼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각 기업의 음악동아리나 군단위지역의 노래동아리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노래패 친구는 노래강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대학의 초청공연,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초청공연', 1989년의 광주교협 기획공연 등도 이들이 참여한 공연은 셀 수없이 많다.

정세현은 노래패 '친구'가 결성되기 이전에도 노래 보급차원에서 노래테이프를 만들고 있었으나 '친구'를 결성한 후 노래테이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테이프는 비합법 테이프로 당시 광주의 유일한 녹음실인 '소리모아 Studio'에서 작업되었다.[97] 이 노래 테이프는 사회과학서적을 다루는 서점 등에서 많이 팔려나갔으며 이 수익으로 노래패 '친구'는 운영되었다. 정세현 혹은 노래패 '친구'가 제작한 테이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손」[98], 「타는 목마름으로」,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통일기 휘날리며」, 「의연한 산하」,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여 오월이여」, 「넋풀이」, 「십자가」 등이다.

이들이 밝힌 것처럼 '친구'는 전국 다수의 노래패와 다른 독특한 색체를 가지고 활동했다. 일반 노래패의 창작노래들이 서양음악의 일색(서양 클래식음악, 행진곡, 러시아 민요조 등)을 띄고 있을 때

---

95) 〈전진하는 오월〉은 고규태가 작사하고 김경주와 박태홍이 작곡한 이 지역의 작품이다. 1절 가사
1절: 저기 오네 젊은 넋들 들판 가로질러/밝은 노래 해방노래 높이 부르며
투쟁의 깃발 들고 힘차게 달려오네/눈부신 무진주 들판 가로질러
동트는 꽃 새벽 무쇠나팔 소리 따라/진달래 붉은 가슴 여기 달려오네
물러서지 않으리 사슬 끊고 전진하는/오월 오늘은 물러서지 않으리
2절: 앞서 가네 오월 형제 사선 끝내 뚫고/불을 뿜는 짐승 총칼 맞서 싸우며
민주의 횃불 들고 물밀 듯 달려오네/피 맺힌 금남로 사선 끝내 뚫고
캄캄한 한밤중 진군하는 함성따라/시민군 넋과 함께 여기 달려오네
물러서지 않으리 사슬 끊고 전진하는/오월 오늘은 물러서지 않으리
96) 광주매일, 1989.05.08.
97) '소리모아' 스튜디오는 광주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박문옥이 운영하는 녹음실이었다.
98) 「어머니의 손」은 문성인이 기독교 문화선교단 '갈릴리' 시절에 만들었던 Tape이다.

'친구'는 정서기반을 우리민족의 것으로 삼으면서 활동했다. 그들이 부르는 창작곡은 상당부분 오음음계로 작곡된 창작민요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창법 또한 다른 노래패들이 지향하는 벨칸토창법이나 대중가요 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육성 대신 내지르는 창법을 사용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요나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창법과 비슷한 것으로 정제되지 않은 소리로 노래한다거나 계면조의 가락을 읊조리고 있는 것 같은 창법을 구사했다.[99] 공연에 자주 등장하는 장구나 북, 피리의 등장도 일반 민중가요와는 다른 공연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색체를 띄면서 활동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당시 전국적으로 일었던 민족음악에 대한 관심이 이 노래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논문 "5·18과 음악운동"을 쓴 노동은은 '5·18 민주항쟁은 분단이후 한국음악의 정체성을 민족음악으로 확인시키고 음악운동으로 발전시킨 한국현대음악사의 최대분수령이었다'라고 기술했다. 그 운동의 한 일환으로 1984년 창립된 '민요연구회'(회장 신경림)와 1984년의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송기숙 등 11인의 실행위원), 1988년의 '민족음악연구회'(회장 이건용) 등을 들 수 있다.[100]

둘째는 노래패 '친구'의 리더인 정세현의 영향이 지대했다. 정세현이 전남대학교 국악과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귀중함과 당위성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지역이 주는 강한 정서(남도판소리)로부터 오는 창법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된다. 노래패 '친구'의 개성적인 색체를 드러내는 노래로는 정세현이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작곡한 〈떠나간다〉, 〈순이 소식〉, 〈꽃아 꽃아〉, 〈통일은 언제일까〉, 〈우리 님은〉, 〈꿈은 아닐레라〉, 〈일어서는 사람들〉[101] 등이 있다.

그러한 색체를 가지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리더 정세현은 갈등에 빠졌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초청공연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색체와는 다른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결국 정세현은 3년의 활동을 뒤로하고 1989년 대학졸업과 함께 탈퇴하였다.

정세현이 탈퇴한 노래패 '친구'는 '관중(혹은 대중)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라는 기치아래 대중사업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7월 1~8일까지 민족음악강좌를 열었다. 1일: 이건용교수의 '한국음악의 상황과 반성', 2일: 노동은교수의 '우리나라 근·현대 음악사', 3일: 김창남 문화평론가의 '대중음악의 정치경제학', 4일: 민예총 사무처장 판소리꾼 '창작판소리의 이해', 7일:문호근 오페라 연출가 '노래공연의 양식과 연출', 8일: 김광복교수 '민족음악의 이해' 등이 전남대 정문 앞의 민들레 소극장에서 진행되었다.[102] 광주의 음악운동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던 노래패 '친구'는 5년간의 활동을 접고 1992년 해체

---

99) 전영규 인터뷰, 2013.
100) 노동은, "5·18과 음악운동",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2004, 355쪽.
101)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의 대본은 김정희, 작곡은 정세현이 맡아 창작되었다. 〈꽃아꽃아〉와 〈일어서는 사람들〉은 이 마당극에 나오는 노래로 국악풍으로 작곡되었다.
102) 한겨레신문, "광주노래패 '친구' 민족음악강좌", 1992.06.26.

되었다.

노래패 '친구' 가 발매한 제8집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노래는 다음과 같다: 1. 님을 위한 행진곡, 2. 민족해방가2, 3. 통일은 언제일까, 4. 통일을 위해, 5. 새, 6. 민주 아 너를 부르마, 7. 우리 님은, 8. 함께 가자 우리, 9. 동지, 10. 통일은 언제일까. 11, 광주출정가, 12. 꿈은 아닐레라, 13, 친구에게, 14. 들불, 15. 시다의 꿈, 16. 일어서는 사람들, 17. 수병의 노래, 18. 반전반핵가, 19. 꿈은 아닐레라(경음악), 20. 우리 님은(경음악)

〈사진 3, 노래패 '친구' 의 광주교협 기획공연모습〉



(5) 정세현과 '우리소리연구회'

노래패 '친구' 를 탈퇴한 정세현은 1989년 진도에서 활동하는 인간문화재 51호인 조공례 선생을 찾아가 민요를 사사받고 1990년 광주로 돌아와 '우리소리 연구회' 를 창단하여 활동을 재개한다. 그는 노래패 '친구' 에서 겪었던 음악적 갈등을 이 단체를 통하여 해소하면서 새로운 노래들을 발표한다. 우리소리연구회의 이름으로 정세현은 다시 우리음악의 정체성을 갖는 노래를 모으거나 새로 창작하여 음반을 발매한다. 우리노래 I 「꽃아꽃아」, II 「그대 가는가」, III 「봄날의 코스모스」 IV. 「언젠가 봄날에」 등이 그것이다. 테이프에 담긴 노래는 다음과 같다.

앨범	Ⅰ. 꽃아꽃아	Ⅱ. 그대 가는가	Ⅲ. 봄날의 코스모스	Ⅳ. 언젠가 봄날에
1	통일은 언제일까	우리것 찾아가세	봄날의 코스모스	언젠가 봄날에
2	꽃아꽃아	서울로 보내는 편지	통일의 기도	내님
3	떠나간다	하나 됨의 꿈	꽃등들어 님 오시면	꽃이여 바람이여
4	인생이란	그대 가는가	진달래 노래	내 사랑 한반도
5	꿈은 아닐레라	우리 것 찾아가세	통일이여 오라	언젠가 봄날에(경음악)
6	통일을 이루자	순이 소식	묶인 몸 묶인 세월	생명의 꽃씨
7	어머니의 손	생일노래	우리가 바라는 세상	지구를 내 손으로
8	우리 님은	요즘 세상살이	음악시간	조선의 봄
9	새벽길	통일의 나라로 가자	진달래꽃	민아민아
10		광주출정가	통일의 기도	갈까부다
11		서울로 보내는 편지		가을(연주곡)

정세현은 우리소리연구회 이전 이미 민족적인 작품을 쓰기도 했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하는 모든 음악들 모두가 민족적이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때 발표된 음악에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가야금, 피리, 해금, 거문고, 아쟁, 장고, 양금 등 더 많은 국악기들이 사용된다. 1990년과 91년에는 일본 사가현 주최 '아시안 들노래 페스티벌'에 우리소리연구회 대표로 참가하였다.

(6) 광주민중문화협의회

1988년은 노태우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왔던 시기이다. 광주의 경우 금지하거나 묵인해왔던 5월행사를 공식적으로 허가했고 정부는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공식사과를 하면서 기념사업에 관한 관심도 천명했던 유화기였다. 이런 시기인 1988년 1월 14일 여러 예술장르와 현장 소집단들이 총 동원되어 종합문화예술단체인 광주민중문화협의회(광문협)가 창립되었다. 유신정권, 80년 5월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광주문화예술인들의 고민, 반미의식과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 문화식민지에 대한 반성, 소외계층의 삶에 대한 관심이 민중문화운동으로 진행되었고 각 장르간의 결합이 종합문예운동조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소속된 소집단과 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문화패 일꾼마당

직접 생산자로서 노동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노동자 등의 모임으로 생산자들을 위한 문화를 발굴, 개발, 보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전한 삶과 함께 하는 노동문화단체이다. 노동문화 상담과 각종 문화교육 선전사업을 수행하며 노조문화부 활동의 조직화 지원 및 노동자 문화활동을 조직화한다. 풍물, 노래, 놀이, 그림강습 및 지원활동, 도서자료실 등을 운영했다.

② 농민문화패 황토바람

기층민중의 생산문화를 창출키 위해 1988년 2월 창립되었고 농활에 참가해 각 지역과 대학 문화패를 결집하여 농촌문화활동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마당극 공연과 풍물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③ 놀이패 신명

민중의 주체적 생존과 참된 민중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문화의 민주화와 공동체적 정서함양, 통일문화의 달성을 위해 연행활동을 했다.

④ 극단 토박이

창작극 운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건강한 민중주체의 민족문화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활동을 전개했다.

⑤ 노래패 친구

1987년 창단된 노래패 친구는 서구화된 문화현실로부터 건강한 민족정서를 회복하고 민주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운동 모임이다. 1988년 노래패 친구는 광문협에 소속되어 활동을 전개한다.

⑥ 사진패 사실

80년대 이후 문화운동의 새로운 장르로서 영상 문화운동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흐름에 맞춰 탄생했다. 민중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담아낼 수 있는 사진문화 건설을 목표로 각 투쟁현장과 민중생활 현장을 진실하게 담아내는데 진력했다.

⑦ 미술패 시각매체연구회

1986년 전문기능매체 소조로 출발, 자기중심적, 사대주의적 예술관을 지양하며 한반도 민족·민중운동의 내용을 충실히 담보함과 동시에 외세의 억압구조 하에서 상실된 민족의 전투적 정서를 회복하는데 주력했다.

⑧ 문학패 청년문학회

1988년 1월에 창립된 단체로 대중생활 속에 널려있는 문학예술의 원초적 정서를 생동적으로 표현하며, 일상적 생활현장과 역사적 현실을 형상화하여 대중들의 공감대 속에서 새날의 여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문예작업자들의 모임이다.

(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부 음악분과

분단 이후 최초의 진보적 예술인 대중조직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1988년 12월23일에 서울 명동 YWCA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등 9개의 분과로 출범했다. 그러나 광주민중문화협의회는 이에 앞선 1월에 출범하여 광주만의 당면 과제들에 집중하면서 문화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었다. 1993년은 광주의 문화예술운동에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고 곧바로 이어진 역사바로세우기와 5·13특별담화로 5·18기념사업이 광주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자 문화예술진영은 크게 고무되었고 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부를 창립하여 발전적 변화를 시도했다.

현재 민예총 광주지부는 국악, 노래, 무예, 문학, 미술, 연행, 영상 등의 분과를 두고 5·18기념행사를 기념재단과 여러 5월 단체와 연대해 문화예술행사를 전담해오고 있다. 자세한 활동은 2.-3)-(6)(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지회(광주 민예총)의 활동에 정리하였다.

(8) 각 대학별 노래패 결성과 활동

① 전남대학교 중앙 노래패 '횃소리'

1985년 문성인(정세현)을 중심으로 류진주, 고경애, 양지철 등이 전남대 중앙 노래패 '횃소리'를 조직하였고 이 후 '횃소리'는 총학생회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문성인은 이후로 정세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사회는 학생들과 재야의 인사들이 모임을 갖게 되면 집시법위반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잡혀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많은 노래패 단원들이 별명 혹은 예명으로 활동했다. 추적가능한 횃소리의 회원은 86학번으로 박종주, 콩새, 슬기, 해조, 87학번으로는 혜성, 88학번으로는 혜영, 백두, 한라, 수빈, 나주, 89학번으로는 노해, 쪼다, 뽕, 규철, 부남(류의남), 밤톨, 둘리, 형주 등이 있다. 이들은 노래패 횃소리에 입단하여 노래와 기타, 키보드, 작곡 등의 음악공부는 물론 현대사, 철학, 경제, 사회학 등 일종의 사상교육과 산행을 통한 극기훈련을 받기도 했다.

학생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1989년에는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남대협) 출범식 때 앞장서서 공연하였고, 임수경의 방북에 맞추어 중앙에 올라가 전국에서 모여든 각 대학의 노래패들과 공연하거나 통일노래한마당에 참가하기도 했다.

분신정국이라고 불리는 1991년은 11명의 열사들이 분신 혹은 타살로 삶을 마감했던 시기였다. 명지대의 강경대는 백골단의 쇠파이프와 전경들의 군홧발에 맞아 숨졌으며, 전남대학교 박승희열사는 전남대에서 4월 29일 '강경대 추모, 노태우 퇴진 결의대회' 도중 "노태우 타도" 등을 외치고 분

신을 시도했다. 안동대의 김영균은 5월 1일 '고 강경대열사추모 및 광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안대인결의대회'에서 '공안통치 분쇄, 노태우정권 타도'를 최치며 분신했다. 이외에도 경원대의 천세용,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전민련의 사회부장 김기설 등 여러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분신과 의문사는 1991년 5월 광주를 더욱 의기로 가득 찬 도시가 되게 했다. 노래패 횃소리의 단원들은 5월 18일 교내에서 진행되는 집회 및 투쟁에 합류하여 집회에서는 노래를 선창하거나 민중가요를 가르쳤고, 연주가 필요하면 신디사이저를 연주하고 구호가 필요하면 구호를 외쳤다. 저녁에는 광주시내로 진출해 시내 전역을 헤집고 다니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돌멩이를 던지거나 도망 다녔고 배고프면 시민들이 주는 김밥을 먹고 다시 치열한 투쟁에 가담했다. 밤새도록 데모대와 함께하던 단원들은 동아리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고 5월 19일 박승희열사가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운암대첩이라고 알려진 5월 19일의 강경대열사의 운구맞이에도 횃소리 단원들은 달려가 투쟁에 뛰어들었다.

8월에 들어서 노래패 횃소리 단원들은 제4회 전국대학생통일노래한마당에 참가하였다. 제2차 범민족대회가 서울, 동경, 판문점 등에서 분산 개최되면서 북측본부의 주관아래 제1회 '청년학생통일대축전'과 맞물려 추진되었는데 남대협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전남대의 중앙노래패 '횃소리' 결성 이후 각 단과대학에서도 노래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회과학대학 '한울림', 자연과학대 노래패 '숨은노래찾기', 공과대학 '새벽울림', 사범대 '소리꾼'[103] 등이다. 이들은 많은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지만 직접 민중가요를 창작하기도 했다. 끝없이 바뀌는 시국과 통일, 민주화, 분신, 반미 등의 이슈를 담을 새로운 노래들이 필요했고 노래패원들은 '창작교실'을 열어 선배가 후배에게 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가면서 노래를 만들고 자신들의 노래로 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정세현이나 박종화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창작곡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공동으로 창작에 임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곡을 남기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만들어진 노래들로는 '횃소리'의 이름으로 〈그곳인들 바람불지 않겠나〉, 〈어머니께〉, 〈영원하라 민족전대여〉, 〈사랑일기〉, 〈통일 조국 찬가〉, '소리꾼'의 이름으로 〈그래, 희망으로〉, 〈코스모스 길따라〉 '숨은노래찾기'의 〈우리 모두 통일로〉, 〈나의 조국〉, 〈소망〉, '한울림'의 〈내 사람아〉, 〈통일아리랑〉, 소리서리의 〈자주+평화 · · · =통일〉, '새벽울림'의 〈통일진군〉, 〈꿈이 아니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생일선물(승희에게)〉, 〈함께해요〉 등이 노래책에 실려 있다. 이처럼 많은 창작곡이 단체의 이름 혹은 무명으로 발표되었다.

1997년에 횃소리는 앨범「노래하는 청춘 횃소리 1」을 발매했다. 앨범에 실린 노래는 다음과 같다.

1. 영원하라 민족전대여!(횃소리 글/곡)
2. 녹두꽃 2
3. 어머님께(횃소리 글/곡)

103) 사범대 노래패 '소리꾼'은 2009년 3월 28일에 창립 20주년 기념공연을 열었다.

4. 다시 부활하는 산
5. 태평천하
6. 사랑일기(91 '통선대원 글)
7. 되돌려 주리라
8. 함께해요
9. 사랑은(김남주 시/햇소리 곡)
10. 연방제 통일가
11. 우리는 간다(문익환 글)
12. 입영통지서
13. 해방의 나라로
14. 쉼 없이 걸어온 길

지금(2014)은 '햇소리' 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각 단과대학의 노래패도 '전남대학교 노래패 연합' 이 만들어져 각 노래패들이 함께, 또 따로 공연을 펼쳐나가고 있다.[104]

② 조선대학교 노래패 '함성'

1985년 전남대학교의 노래패 햇소리는 문성인(예명 정세현)을 중심으로 창단되어 노래운동이 본격화되었으나 다른 대학에서는 별 조짐이 없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노래운동을 전개하던 사회노래패 '친구' 에서는 가끔 결원이 생길 때 빈자리를 채워줄 인적자원이 필요했다. 수년 동안은 전남대 노래패 햇소리 출신들로 결원을 채웠다. 그러다 노래패 '친구' 의 단원으로 조선대학교 출신 김영학과 전영규는 조선대학교에도 노래패를 조직해야한다고 합의하고 조선대학교 내의 노래패 창단을 서둘렀다. 두 사람은 1988년 당시 인문대학에서 문화부장의 맡아 활동하던 추말숙(85학번, 영문학과, 조선대 탈패 비나리단원)을 불러 조선대 노래패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서광석(86. 영문과, 노래), 김미리(노래), 이근철(국문과, 노래) 등을 모아 노래패 '함성' 을 조직했다. 이들은 창단한 해에 제1회 전국통일노래한마당에서 〈통일의 나라로 가자〉(정세현곡)로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3회 통일노래 한마당에서도 〈다시 살아 만나리〉로 참가하여 백두상을 받는 쾌거를 얻었다.

활동했던 함성 단원은 다음과 같다: 한주상(85), 추말숙, 한누리, 이근철(87), 치산(87), 호수(88), 몽심(88), 이슬(89, 장세레나), 여명(89), 갠침(89), 외침이(89), 똑이, 소하, 동자 김선구(91)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함성의 최근의 노래공연으로는 2012년 6월6일, 1.8극장에서 있었던 '1.8정신계승공연' 이 있다. "열사의 뜻이다! 우리의 손으로 민주총장, 민주이사 쟁취하자!" 라는 구호아

104)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2728020

래 진행된 공연이었다. 조선대학교에서의 1.8정신은 1988년에 있었던 1월 8일 학내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이야기 한다. 호남지역 민중들에 의해 설립된 조선대학교를 사유화하고자했던 박철웅 총장과 그 일가에 항거하여 1987년 9월 17일부터 1988년 1월 8일까지 일어난 투쟁으로 학생, 교수,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박철웅 총장 퇴진 및 민립대학 환원 투쟁' 으로 학부모까지 가세하여 113일간의 장기농성 끝에 1988년 1월 8일 새벽 4시 학내에 공권력 투입으로 막을 내린 사건이다. 강제진압 과정에서 2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1명이 투신하였으며 45명이 구속되었다. 조선대학교는 학원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월 8일을 학교 공식기념일로 제정해 2007년부터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013년에도 1.8항쟁 25주년 기념식을 8일 오전 10시 서석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노래패 함성이 기념공연에 참여했다.

〈사진 4, 1 · 8항쟁 25주년 노래패 함성 기념공연〉



③ 광주교육대학교 노래패 '에루얼싸'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노래패 '에루얼싸' 가 1988년 조직되어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5 · 18민중항쟁, 부정부패, 통일운동, 교육개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세상을 향해 노래했다. 1995년의 정기공연 "친구야, 너의 눈물은" 에서 이들은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임용고시에 대한 부

담으로 인하여 공동체적인 삶보다는 개인의 일에만 매달리는 이기주의적인 삶, 교육의 모순 속에서 겪는 갈등 등을 호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을 딛고 하나 되는 몸짓으로 5 · 18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보자고 노래했다. 〈친구야, 너의 눈물은〉, 〈맏사내 인생〉, 〈4학년〉, 〈쓰레기 신한국〉, 〈알게뭐야〉, 〈여기에〉, 〈청년의 기상〉,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등이 공연의 내용이다.

1996년 정기공연의 주제는 통일로 "가자! 철마야"를 캐치 프레이즈로 삼았다. 10돌을 기념하는 정기공연으로 훨씬 성숙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졌다.

1부: 상처 〈한총련 진군가〉, 〈꽃다지2〉, 〈친구에게〉
2부: 방황 〈알게뭐야〉, 〈불행아〉, 〈다시 일어서는 그대〉
3부: 반성 〈새세대 청춘송가〉, 〈청년시대〉, 게스트인 선배들 노래
4부: 다시 서라 〈일어서라 동지여〉,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동지〉

1998년은 IMF라는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에루얼싸는 이를 또 다른 식민지 상황이라 평하며 고통스런 시기에도 자신들의 노래로 희망을 담아내자는 기획의도로 정기공연을 진행했다.

1부: 안녕하세요? 노래패 에루얼싸입니다. 〈노래만큼 좋은 세상〉, 〈내 사람아〉, 〈우리는 통일꽃〉, 〈바로 그 한 사람이〉
2부: 요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은....〈동물의 왕국〉, 〈꽃다지3〉, 〈장미빛 인생〉, 〈수물을 헤치며〉
3부: 문예패와 함께하는 마당 / 한반도 찬조 공연
4부: 우리의 노래에 담긴 희망은..... 〈세상을 바꾸자〉, 〈새로운 선택〉,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찬바람이 일어도 해방의 꽃은 피리라〉, 〈햇살 같은 노래가 되자〉

1999년의 정기공연은 광주교육대학교 율동패 '여하리'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되었다. 지난시간에는 '초등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웠고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돌아다보며,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공연 "그대 청년이여!"에 참여한 패원들은 유순, 김효선, 정선주, 범준영, 안기섭, 김혁민, 윤병일, 신인영, 김세영, 양지연이었고, 서준호(드럼), 장충길(기타), 김정은(베이스), 윤선윤(신디)은 기악을 맡아 연주했다. 1999년의 공연은 많은 율동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통일꽃〉, 〈열사가 전사에게〉, 〈우리는 청춘〉, 〈청년시대〉, 〈동지〉 등에 율동을 함께 한 것이다. 또 서총련[105]의 노래단 '조국과 청춘'[106]이 초대되어 합동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

105) 서총련은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을 말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서총련, 강총련, 경인총련, 충청총련, 남총련, 전북총련, 대경총련, 부경총련 등 지역별 총학생회 연합이 있었다.

2000년의 정기공연은 '이제 통일이다!'가 주제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을 향한 노력은 6·15남북정상회담을 갖게 했고 그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마침내 1985년 이후 16년 만에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의 꿈을 갖게 했고 노래패 '에루얼싸'도 통일을 앞당기고픈 그들의 소망을 노래로 표현했다. 제1부: 우리는 청년, 2부: 분단조국과 청년의 삶, 3부: 조선은 하나다라는 부제아래 〈이제 통일이다〉, 〈벽을 허물고 만나요〉, 〈대륙에 설레는 꽃바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조선은 하나다〉 등 주제가 뚜렷한 노래들을 모아 공연했다. 탈패 '아리랑 한사위'와 '남누리 북누리'가 찬조 출연했다.

2001년의 정기공연은 교육이 주제가 되어 '예비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제목아래 진행되었다. 이전의 공연들과 비교해볼 때 교육대학교 학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의 공연이었다. 그러나 4부에서는 여전히 통일세상을 기다리는 노래 〈에헤라 통일이야-통일태풍-우리나라〉를 메들리로 연주했다.

2002년은 미군 장갑차에 중학생이었던 신효순과 심미선이 압사당한 해였다. 전국민이 분노했고 반미감정이 극에 달했다. 에루얼싸의 공연은 이 시기의 감정을 담아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이 캐치프레이즈가 되었다. 통일, 효순이와 미선이, 반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등이 공연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양키들은 모른다〉, 〈다시 살아 꽃으로〉, 〈원한가〉 등은 효순이와 미선이에게 바치는 노래였고 〈6·15 아리랑〉, 〈아리랑 꽃바람〉,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 되면〉은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였다. 〈푸른 나이, 청년〉, 〈사노라면〉, 〈언덕길〉, 〈새로운 시작을 향해〉는 미래를 향한 기대를 고대하는 노래였다. 노래패 에루얼싸는 2015년 현재까지 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활발한 활동은 없는 것 같다.[107]

106) '조국과 청춘'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소속단체로 1992년 결성되었다가 1993년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서총련(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노래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1998년 6집까지 민중가요를 발표하면서 활동을 전개했으나 운동권의 위기로 인해 한총련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들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07) 추적가능한 노래패원들은 다음과 같다: 4기-김승중, 김창영, 이유리, 김영희, 정숙희, 조승필, 5기-이현철, 정영희, 김홍철, 6기-박용성, 이정석, 김주희, 7기-김주희, 김순주, 장충길, 8기-김정은, 백진, 최얼, 신창재, 9기-이혜진, 이수남, 위혜진, 이지은, 박희영, 위혜인, 박준모, 김아리, 최수형, 윤지은, 김세영, 최은영, 10기-유순, 김효선, 김재형, 이원재, 김동률, 김진희, 정선주, 11기-윤선윤, 범준영, 나인국, 백진, 12기-윤병일, 이하나, 정근미, 신인영, 김세영, 양지연, 14기-정효준, 박미라, 김아리, 15기-김달님, 천은정, 16기-최순영, 17기-김정, 20기-조용섭, 양진호, 25기-김준

2. 1989년부터 그 이후의 음악운동

1) 광주의 음악운동 : 5 · 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

(1) 거리음악제의 탄생

1989년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무더기로 해직되던 해였으며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의 방북, 문익환 목사와 서경원 의원이 방북하여 구속되고 전국민중미술인연합의 홍성담과 백은일 등은 평양축전에 민족해방운동사를 그린 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보낸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중인 시기였다. 이런 와중에 지친 5 · 18피해자 가족들과 5월 항쟁에서 살아남은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쟁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단결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했던 요소 중 하나는 5월 노래들이었다. 비합법적 집회형태의 추모제에 참여한 이들은 〈오월의 노래 2〉를 부르면서 5월민중항쟁의 현장을 떠올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숙지하며 결단하곤 했다. 5 · 18의 진상규명은 먼 이야기였고, 유가족, 부상자, 피해자는 광주사태를 일으킨 폭도로 간주했다. 광주는 이러한 불명예를 벗고자 추모제에서, 대학교정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지쳐가는 시민들을 일어서게 하고 힘을 단결시키는 것, 저항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노래'의 몫이었다. '5월' 관련 집회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가질 수도 없었던 시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무서웠던 시기에 노래는 용감하게 광주의 거리로 나왔다.

1989년 5월 주말 오후 6시정도가 되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원중은 충장로의 뒷골목, 구학생회관 처마아래에서 오월 영령들의 넋을 달래고 점차 잊혀져가는 그 날의 역사를 되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회관 골목은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았던 거리였다. 지인들의 후원으로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기타하나에 의지하며 노래하던 그에게 당시 가톨릭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의 간사였던 김양래가 이 '노래 부르기'를 양지로 가지고 나갈 것을 권유했다. 김원중은 또 다른 정평위 간사 홍세현에게 이 행사를 금남로의 가톨릭 센터 로비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홍세현에게 이 제의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정권과 사회 분위기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1989년 6월에 제안을 받은 홍세현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게 한 후 다음해인 1990년 정의평화위원회 총회에 안건으로 올렸고 위원회는 이 행사에 관해 논의했다. 처음으로 일반평신도가 포함된 위원회[108]에서는 이 연주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108) 정의평화위원회는 본래 신부들로 구성되었었으나 평신도로서 시민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윤장현이 위원으로 합류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홍세현 구술.

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의 상황과 행사의 내용과 규모를 생각해보았을 때 정평위의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며 관대한 것이었다. 후에는 축소되었지만 1990년 5월의 첫 행사는 항쟁이 시작되는 18일부터 도청이 함락되는 27일까지를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10일간 진행키로 했다. 광주정평위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장비와 준비물을 마련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였고[109] 출연진들이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주관자가 되기로 했다. 금남로2가에 있는 광주가톨릭센터 정문 계단을 연주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장소는 정권으로부터 노래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기관의 힘을 빌리는 의미에서 정해진 장소이다. 이 무대의 뒤편은 센터의 건물로서 폐쇄적이나, 앞은 거리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다. 제1회의 오월거리굿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1회 5 · 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
시간: 1990년 5월 18–27일(10일간)
장소: 광주 금남로 2가 가톨릭센터 정문앞
주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출연: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년연합회 놀이패 '흙(대표 김양균)'의 길놀이
고재성(전교조 해직교사, 사회)
소리모아(박문옥, 박태홍, 최준호), 김원중, 홍승완[110]
광주전남민족문학협의회, 우리소리연구회(정세현, 이세길, 홍세현, 정건호),
노래패 소리

(2) 거리음악제의 성장

이렇게 시작한 오월거리굿은 주로 이 지역의 가수들을 중심으로 10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5월항쟁기간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정한 10일간의 공연은 이 지역의 한정된 노래꾼들의 출연만으로는 매우 버거운 일이었으며 가톨릭 센터의 입장에서도 현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 결국 10일간의 행사를 3일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1992년 제3회 추모 오월거리굿부터는 3일간만 공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했던 노래꾼들과 주관자들은 이 행사의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1992년부터는 전국의 민중가수들과 노래패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행사에 참여했던 몇몇 민중가수들의 입소문 때문이었는지 행사의 요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타지역의

109) 음향기, 현수막 등에 드는 비용이다.
110) 홍승완(당시 광주경양초등학교 4학년)은 민중화가 홍성담의 아들로 평양축전에 민족해방운동사 슬라이드를 보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1989년 8월 3일 구속된 아버지를 위해 안기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한겨레신문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아버지석방운동을 하고 있었다.

민중가수들이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요청도 있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외부의 노래꾼들이 광주에 와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행사 주관자들의 의도가 있는 결정이기도 했다. 외부자들이 와서 노래하는 것이 먼저는 광주시민들을 위로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노래꾼들이 이 지역의 현실을 경험하고 돌아가 각 지역에서 증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다음 사진에 있는 1992년의 추모거리굿의 프랑카드에는 외부에서 초청된 노래패와 민중가수들의 이름이 실려 있다.

〈사진 5, 1992년의 추모거리굿, 보도에 앉아 거리굿을 구경하고 있는 청중들〉



제3회 5 · 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에는 류금신, 소리모아, 김원중, 정세현, 노래패 친구, 노래패 소리[111], 꽃다지, 노래마을[112], 김영남, 김대완 등이 출연했다.

세계화를 향한 행사의 목표는 1994년에 이루어졌다. 제5회 추모거리굿에서는 필리핀 시인이며 민중가수인 Jesus Manual Santiago를 초청하여 함께 공연하였다.

111) 노래패 소리는 광주 천주교에 소속된 노래패이다.
112) 노래전문단체 '노래마을'은 민중가수겸 작곡가 백창우가 대표로 있는 단체이다. 그는 80년대 김민기로 불리기도 한다.

〈사진 6, 필리핀 민중가수 산티야고의 공연모습〉



이처럼 오월거리굿이 전국화와 세계화를 꽤하면서 광주의 일꾼들에게는 져야할 짐도 생겼다. 정평위에는 타지의 가수와 노래패들의 교통비등의 실비는 지원해주었으나 그들의 숙식은 광주의 노래꾼들이 지역별 가수들을 나눠서 해결해야 했다. 또 출연료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끝나면 광주의 노래꾼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품앗이 공연을 하면서 갚아나가야 했다. 노래운동을 향한 이 지역 가수들의 여러 면에 걸친 노고와 희생도 5월의 불명예를 벗는데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처음 거리음악회를 기획할 때는 뜻을 같이한 몇 사람이 모여 시작되었으나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하게 되자 이를 위한 조직적인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광주지역노래모임(광노모)' 113)이 조직되었다. 1993년부터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지역노래모임이 주관하는 공동행사가 되었다. 다음은 몇 차례의 오월거리굿을 정리한 것이다.

113) 광주지역노래모임의 회원은 박문옥, 김원중, 정세현(범능스님), 가톨릭 청년놀이패 〈흙〉, 노래패 〈소리〉, 김원중 등이다.

제4회 5 · 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

시간: 1993년 5월 19-21일(3일간)

장소: 광주 금남로 2가 가톨릭센터 정문 앞

주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지역노래모임

죽음, 해방, 평화 등 각 주제에 맞춰 진행됨

19일(죽음): 무자비한 살상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넋을 기리는 날

출연: 놀이패 ‘흙’, 김원중, 윤진철(판소리), 전남대합창단, 노래패 ‘소리’, 소리타래(대구)

20일(해방): 폭력을 물리치고 획득한 광주시민의 해방공동체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해방의 날

출연: 정세현, 노동자노래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섬하나 산하나(제주)

21일(평화): 광주의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역사 속에 민족의 보편적 정서로 이를 간 직하는 평화의 날

출연: 놀이패 ‘흙’, 소리모아, 노래패 ‘소리’, 소리새벽(마산), 노래마을(성남)

제6회 오월의 노래

일시: 1995년 5월 19-5월 20일 오후 7시~10시

장소: 광주가톨릭센타앞거리

주최: 5 · 18행사위원회

주관: 5 · 18행사위원회 문예분과(광주지역노래모임협의회)

후원: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출연: 김정식, 김원중, 안치환, 김광석, 노래를찾는사람들, 노래마을, 희망새 노래패 소리, 대구 소리타래, 노동자노래연대, 광주가톨릭풍물패 ‘흙’, 빛고을노래패 ‘사람들’, 그 외 광주지역의 문예일꾼들

제8회 5 · 18민중항쟁 제18주년 추모거리음악제 “오월의 노래”

일시: 1998.5.19.-20

장소: 카토릭 센타 앞 야외무대

주최: 5·18민중항쟁 제18주년 기념 행사위원회

주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지회 노래분과

출연: 안치환/노래마을/꽃다지/소리모아/박종화/류금신/김영남/김원중/윤진철/김현성/윤민석/혜화동 푸른섬/가토릭청년연합 노래패 ‘소리’ 외 빛고을 청년연대/가토릭청년연합 풍물패 ‘흙’ /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그 외 민중가요 노래일꾼들

제11회 추모거리음악제 “민중가요 100선”

일시: 2000년 5월 13–20일(17, 18일 제외)

장소: 망월동 5 · 18묘지 특설무대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주최: 한국민족예술총연합 광주시지회 음악분과

출연:

13일: 장사익, 광주아름나라, 김원중, 배경희, 박문옥, 백창우, 이수진, 서기상, 꽃다지

14일: 안치환, 오지총, 우리나라, 김현성, 유종화, 박창근, 소리타래, 노래로크는나무

15일: 류영대, 이지상, 전경옥, 박종화, 희망새

16일: 윤미진, 홍순관, 김영남, 프리다칼로, 노래마을,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19일: 손병휘, 정용주, 김가영, 윤정희, 새벽노래, 손현숙, 조국과 청춘

20일: 김원중, 전국아름나라, 정용주, 류영대, 노래를 사랑하는 빛고을 청년연대, 안도현, 김용택, 유종화씨 등 민중가요 작사가들이 출연하여 광주정신을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마련

제12회 거리음악회 “오월의 노래”

일시: 2001년 5월 24일 ~ 25일 19:00–21:00

장소: 가톨릭센터 앞 특설무대

주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지회 음악분과

출연: 박종화, 류영대, 광노협(강필승 외), 박문옥, 정용주, 노래패 청춘의도시(류의남 외)[114]

(3) 거리음악제의 변화와 의의

거리음악제가 해를 거듭하여 진행되자 타지 노래패들의 출연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당시 불렀던 노래의 주제들은 반전, 반미, 통일, 민주화, 자주 등이 주를 이루었다. 가객들은 〈들어라, 양키야〉[115], 〈반전, 반핵가〉[116], 〈내 사랑 한반도〉[117],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2〉, 〈죽창

114) 5·18재단 기념행사위원회 행사평가자료, 18주년–30주년.

115) 〈들어야 양키야〉: (가사) 라랄라라 ~~ 찢기운 반도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진달래 칼날을 세워
여기 이렇게 굳센 가슴팍으로 그대들 앞에 섰다 순결로 씻은 조국반도 머리맡으로 침략의 불을 지른자 보라 치욕의 피로 맺은 복수로 그대들 앞에 섰다 보라 여기 이 반도를 폭압의 사슬 끊은 곳
한 외침으로 명하니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

116) 〈반전, 반핵가〉는 1986년에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의 창립회원인 박치음(예명)이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가사) 반전 반핵 양키 고 홈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할키고 간 상처에 성조기만 나부껴 민족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섰다 이땅의 양심들아 어깨 걸고 나가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해방의 함성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반전 반핵 양키 고 홈

117) 〈내 사랑 한반도〉: 박치음 글, 곡. (가사) 끈질기게도 피어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척박하여도 피어라 핵무기의 그늘

가〉[118], 〈광주출정가〉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저항의 노래들을 불렀고 당시에 유행하던 서정적인 〈타는 목마름으로〉, 〈오월의 노래1〉, 〈솔아 푸른 솔아〉 등의 민중가요를 부르기도 했다. 특히 노가바의 경향은 계속되어 〈예성강〉, 〈아다다〉, 〈투사의 노래〉, 〈**는 짭새땅〉 등을 많이 불렀다.

거리음악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칭에 변화가 있었다. 1990년 제1회 5·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은 1992년에 '추모거리굿'으로 95, 96, 2000년에는 '추모거리음악제'로, 1997년에는 '거리음악제'로 바뀌었다. 처음부터 "굿"이라는 단어가 주최측이었던 가톨릭 정평위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행사의 주최자들인 가객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묵인해주었다. 민중가수들의 시대상황적 인지가 행사의 타이틀을 결정하게하고 변경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광주의 오월이 언제까지나 과거의 아픔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향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굿' 대신 '거리음악제'로 변경했다고 한다.

〈사진 7, 제5회 추모거리굿〉



아래도 눈물겹게도 피어라 압록에서 섬진까지 억울하여도 피어라 양키의 군화발 밑에도 허리잘린 상처에도 피어나라 사랑아 내사랑 사랑 사랑 한반도 내사랑 한반도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할 되고말 내고향은 한반도 내 사랑 사랑 사랑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통일염원 반백년 피어나라 사랑아 내 사랑 사랑 사랑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할 되고 말 내 고향은 한반도 내 사랑 사랑 사랑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내 사랑 사랑 사랑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118) 〈죽창가〉는 김남주의 시 '노래'에 오월판화가로 알려진 동신대 교수 김경주가 작곡한 곡으로 매우 서정적인 노래이다. 김경주는 이 외에도 고규태의 시에 박태홍과 함께 〈전진하는 오월〉을 작곡하기도 했다.
〈죽창가〉 가사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하네(하략)

1995년 광주 정평위는 그 책무를 다하고 후원의 자리로 물러앉았고 5·18행사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행사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소속 문예분과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는 기념행사위원회와 민예총 광주지부 노래분과회원들이 주최가 되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장소와 행사의 타이틀도 '거리음악회'라는 완화된 제목아래 구도청 건너편 아시아나 빌딩 앞에 특설무대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전국의 노래패에 속해 광주를 방문했던 민중가수들이 노래패로부터 독립하여 성공한 대중가수로서 활동하면서 광주를 방문하여 오월 축제를 축하해주었다.

1990년 5·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이 시작될 때에는 오월항쟁의 연장선상에서 투쟁과 운동의 장이었던 것이 96년에는 오월영령추모 "거리음악제",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거리음악제 "오월의 노래"로 공연을 지속해오면서 오월의 아픔을 나누고 오월의 정신을 알리는 음악운동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특히 2000년 기념행사에서는 망월동 묘역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민중가요 100선'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민중가수들과 시인, 민중가요 작사가들이 출연하여 광주정신을 공유하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아쉬운 것은 망월동이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남로의 가톨릭센터 로비나 도청 앞 광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역화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러 참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이 거리음악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열린 장소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5월 18-19일, 금남로 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열네 번째 공연, 거리음악제 '오월의 노래(오월거리굿)'를 마지막으로 거기음악제는 막을 내렸다. 오월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오월음악의 세계화를 목표로 더 큰 음악제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한 해를 건너뛰고 2004년 광주의 노래꾼들은 국제인권음악제를 목표로 한 음악제인 "The People"을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외국가수로는 몽고의 국민가수 '네르구이'만 초청되어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서울의 정상급 민중가수들과 광주지역의 민중가수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미래에 오월음악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음악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거리음악제는 5월운동기간동안 노래운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었다. 이 행사의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행사들이 실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열린 공간에서 민주, 평화, 통일, 자유를 외친 최초의 공공연한 문화운동이었다. 둘째, 타지역의 민중가수들을 불러 공연함으로써 안으로는 오월항쟁의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광주시민을 위로하는 공연이었으나 밖으로는 광주의 상황을 알리는, 광주문제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행사였다. 셋째, 민중가요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노래운동이었다. 타지역의 민중가수들이 이 공연을 통해 힘을 얻고 자신의 지역과 중앙무대에 진출해 국내에 민중가요가 확산되고 양성적으로 대중화되는데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넷째, 민중가요가 꾸준히 창작되고 공연되는 기회를 제공한 창조적 공간이었다. 이 무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곡을 노래했다. 다섯째, 행사의 타이

틀은 '오월' 로 출발했으나 오월을 넘어서 통일, 교육(전교조), 노동, 음악의 주체성 찾기(민족적 음악) 등의 광범한 운동이 펼쳐졌으며 풍물놀이가 사전행사로 진행되고 노래와 노래사이 시가 읽혀지며 선언문이 낭독되는 등 다양한 문화운동의 장이 열렸었다.

2) 거리음악제에서 대규모 공연으로

거리음악제는 5월의 중요한 행사로서 2002년까지 지속되었다. 다행스럽게도 5·18이 공식 국가기념일이 되고 국가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다수의 다른 음악행사들이 기획되고 공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행사들은 점차 운동성은 사라지고 축제의 분위기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5월을 겪은 광주사람으로서 책무감에서 시작한 거리음악제는 초반에는 두려움 반, 사명감 반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5·18의 진상이 규명되고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노래공연은 점차 대규모행사로 기획되어가는 분위기였고 축제화 되어갔다. 대형화된 행사를 위해서 대형 공연장 혹은 야외광장이 필요하게 되고, 대규모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관객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필요했다. 이를 위해 호객의 수단으로서 청중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인기대중가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광주의 오월행사에 인기가수들의 초청은 점차 필수사항이 되어갔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광주의 음악운동은 공연장소의 변화, 다양한 장르로의 변화, 출연진의 변화라는 결과를 남겼다.

(1) 가요에서 록(Rock)음악, 서양 클래식 음악, 국제적인 음악으로

2000년 5월 27일 오후 6시 전남대학교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천년의 빛 5 · 18-평화, 인권, 통일의 세상으로" 라는 주제로 5 · 18민중항쟁 20주년 폐막행사 "Rock 2000 페스티발"[119]이 개최되었다.[120] 5·18민중항쟁기념재단(이사장 김동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수 배철수의 사회로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과 락의 황제 김경호, 라이브의 여왕 이은미, 락그룹 블랙홀, 델리스파이스, 크라잉넛, 8·15밴드(대구), 스틸(광주) 등이 출연해 5 · 18관련 곡들을 편곡해 불렀다.

서양클래식음악회로는 5·18 20주년 기념음악회 "광주여 영원히" 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과 망월동 5·18묘지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또 민중가수 박종화가 자신의 민중가요를 바탕으로 작곡한 관현악 "오월에서 통일로" 의 공연과 국제음악제 "Human Voice" 도 망월동 묘지 특설무대에서 있었다. 야외특설무대설치가 많은 비용이 드는데 2000년 20주년 행사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특설무대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마당극제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었고 무예극 "칼노래 칼춤" 이 19일에서 21일까지 같은 무대에서 공연되었다. 거리음악제도 13일부터 16일,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 이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다.

---

119) 총감독 김용남
120) 무등일보, 5월 정신 'Rock' 으로 승화, 2000.05.26.

(2) 지역 가수들에서 중앙의 가수로

1980년 5 · 18민중항쟁이 광주사태라고 불리며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었던 동안, 그리고 오월운동을 전개하면서 운동현장에 앞장서서 노래 불렀던 지역의 가수들은 민중항쟁이 그 누명을 벗고 지원받으면서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게 되자 중요한 무대에서 차츰 밀려나기 시작했다. 앞서 나열한 대로 중앙의 유명 록음악 가수들이 내려와 각종 대규모 공연에서 중심이 되었다. 이들이 광주의 민중항쟁을 이해하고 동참하였을지는 의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전혀 광주의 사정을 몰랐던 대중음악인들로 하여금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번은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이 행사를 위해서, 광주를 위하여 선곡하게 하고, 광주시민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초청공연을 위해서 지원받았던 많은 예산이 대부분 지출되었고, 결국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어려웠던 시기에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릎 쓴 지역의 노래일꾼들은 지원을 받게 되자 한쪽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었다. 앞으로라도 5월 행사에서 또는 대규모의 예산이 집행되는 음악행사에서 중앙의 연예인을 섭외하더라도 지역의 가수들도 고르게 섭외하여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배려가 과거 희생을 무릎쓴 음악운동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3) 공연장소의 변화

처음 거리음악회는 불특정 다수의 청중을 위해서 기획되었고 금남로 거리를 지나는 행인을 겨냥한 공연이었다. 후에는 망월동 5·18묘역에서도 개최되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한 열린 공간에서의 공연이었다. 소규모의 거리음악회에서부터 시작한 음악운동은 대규모 공연이 기획되기 시작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야외공연의 경우 그곳은 대학의 운동장이나 5·18자유공원 등 다소 지역적으로 치우쳐있고 폐쇄적인 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연장을 빌어 공연할 경우는 더욱 폐쇄적이 되었다. 남도예술회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소극장과 대극장 등 일반시민들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닫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음악공연은 점차 운동성을 잃고 민중가요까지도 예술음악의 공연처럼 대중과 거리를 둔 차별화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3) 개별적인 노래운동과 새로운 음악단체의 등장

(1) 박종화의 노래운동

노래운동에 뛰어든 노래꾼이 누군들 평범하겠는가마는 그들 중에서도 도드라지는 캐릭터 한사람이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국을 휩쓴 민중가요인 것처럼 또다시 전국의 운동권학생들과 천만 노동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이 지역 출신 운동가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지리산2〉, 〈파랑새〉, 〈바쳐야한다〉, 〈10만학도 진군가(남대협진군가)〉, 〈투쟁의 한길로〉 등 전국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을 작곡한 박종화이다. 그는 본래 노래패 출신도 아니고 음악을 공부한 이도 아니다.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해 당시의 이 지역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랬던 것처럼 학내투쟁에 가담하다 붙잡혀가서 방면되곤 하던 운동권 학생이었다. 그는 어떻게 민중음악의 싱어송 라이터가 되었을까?

1982년 박종화는 전남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였다. 고등학생시절에 5·18을 겪은 그는 데모를 작정하고 탈춤반을 찾아 들어가 사회과학을 학습하였고 그 곳에서 인생관과 세계관을 다진다. 신입생인 그는 5월에 5·18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위한 가두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붙잡혀 서부경찰서에서 15일 정도를 보낸 후 방면되었다. 그 해 10월에 박관현이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다 절명하게 되자 박종화는 '박관현의 관 사수투쟁'에 다시 참여하였다. 그는 당시 1970년대 후반에 불렀던 노래들, 〈흔들리지 않게〉, 〈훌라송〉, 〈투사의 노래〉, 〈기지촌〉,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며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1987년 병역의 의무를 마친 그는 복학하여 6월항쟁의 대열에 뛰어든다. 복학생으로 이루어진 〈인권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특히 〈예비역협의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예비역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단체회가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전남대의 각 단과대학에서 불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자신도 작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다. 1987년 대선 때는 남대협의 활동으로 광주시 동구 공정선거 감시단 단장을 맡아 대선투쟁을 진행시키기도 했다.

박종화가 적극적으로 민중가요를 작곡하게 된 것은 학생운동의 경험과 수감생활 때문이다. 1988년에 "5월학살원흉미제및전두환·노태우처단을위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부위원장이 된 그는 여러 가지 시위에 참여했다. 그 중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통일운동보장/남북청년학생교류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전대협 5투위에 가담하여 서울 세종로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점거투쟁을 진행하다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운동투쟁의 현장에서 '본인은 무엇을 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다보며 이 단상들을 시(詩)로 남겼다. 그러다 다양한 투쟁에서 현장마다의 적절한 노래부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되었다. 외부의 지인들에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반입을 부탁하여 독학에 들어갔다. 종이도, 볼펜도 없는 감옥에서 연필을 대신할 수 있는 뾰족한 물건과 종이를 대신하는 우유팩 등에 닥치는 대로 노래를 적어나갔다. 익숙하지 않은 오선기보법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기보법을 동원하여 감옥에서 7개월 동안 200여 곡을 만들어 악보로 남겼다. 출소 후 캠퍼스로 돌아갔으나 제적상태인 그가 머무를 곳은 없었다. 학교를 떠나며 기념으로 감옥에서 만들었던 노래 중 25곡을 선택해 테이프로 제작하고 동료, 후배들에게 선물했다. 이 테이프에 본인의

경험과 고뇌, 단상을 담았던 〈파랑새〉, 〈여성전사〉, 〈분노〉, 〈나의 사랑 한별을 우러러 보네〉 등이 실려 있었다.[121]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는지 이들 노래는 광주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전국의 운동권역 학생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민중가요 앨범에 실렸다. 박종화 본인의 앨범 외에도 소리타래의 "일어서는 민주정부", 대학노래패의 "통일의 한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룹의 "자, 우리 손을 잡자1", 노래마을의 "우리의 노래"라는 앨범에 실려 있다.

박종화는 첫 테이프에 실린 노래들이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불리게 되자 1989년 두 번째 앨범 "고난의 행군"과 세 번째 앨범 "바쳐야 한다"를 연이어 제작했다. "고난의 행군"[122]은 주로 항일투쟁사를 소재로 한 가사를 사용했는데 이 앨범에는 〈출정전야〉, 〈백두〉, 〈조국의 별〉, 〈붉은 맹세〉, 〈피의 능선에서〉, 〈통일전선가〉, 〈혁명의 바람〉, 〈깃발가〉, 〈투쟁의 바다〉, 〈최후 결전〉, 〈별〉, 〈결사전의 노래〉, 〈식민의 봄〉, 〈조국해방군〉, 〈북만주 간 님〉, 〈조국은 하나다〉, 〈고난의 행군〉, 〈투쟁의 바다〉가 실려 있다. 그는 두 번째 앨범 "고난의 행군"이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또다시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된다. 1989년은 수많은 정치사회적 사건이 많았던 해였다. 5월 광주에서는 조선대학교 학생 이철규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6월에는 중국에서 텐안먼 사건이 일어났다. 7월에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열리자 임수경이 남한의 대표로 참가하였다.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인되었고 8월에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의 변사체가 거문도에서 발견되었고 11월에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러므로 북한 지도자 김일성이 주도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앨범 "고난의 행군"은 정치적으로 예민했던 당시 정권으로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90년의 구속과 수감생활이 너무 억울했던 그는 1999년 노래 〈고난의 행군〉을 주제로 하는 관현악작품을 창작, 발표함으로서 그 억울함을 해소했다. 다시 독학을 통해 관현악법을 익혀 작곡했으며 1999년 「청춘으로 일어서는 오월」을 광주의 전남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공연을 펼쳤다. 2000년에는 광주민예총 음악분과의 주관으로 관현악곡 「오월에서 통일로」를 안산시 교향악단과 전남 심포니오케스트라, 노래극단 희망새, 노래패 청춘의 도시, 소낙비, 음악예술사람 외 개인들의 합주로 다시 무대에 올렸다.

세번째 앨범 "바쳐야한다"에 대표적인 곡 〈바쳐야한다〉는 전국을 강타했으며 앨범 "갈길은 간

---

121) 이 테이프의 앨범명은 "분노"로 이 외에도 〈어머님께〉, 〈목소리〉, 〈해방의 그 이름〉, 〈통일의 노래〉, 〈첫눈이 내리는 그날〉, 〈나의 사랑〉, 〈동지〉, 〈감옥이란〉, 〈전사에게〉, 〈옥중편지〉, 〈새전진가(89전남대총학생회가)〉, 〈민들레〉, 〈최후진술-분노입니다-분노는 계속 됩니다〉, 〈지리산〉 등이 실려 있다.

122) '고난의 행군'은 본래 항일빨치산의 역사적인 행군으로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100여일간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중국 지린 성 몽현현 남패자에서 압록강 연안 국경지대인 장백현 북대정자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열한 전투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 가슴을 넘는 눈길과 식량난' 속에서 일본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감행한 행군이다. 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어떠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는 낙관주의 정신,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정의된다. 항일무장투쟁을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은 중요한 역사적 기억이 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1g3611n0

다" 에 실려 있는 노래 〈투쟁의 한길로〉도 현장에서 많이 불리고 있는 노래다.[123] 그는 현재까지 18개의 앨범을 발표했다고 한다.

(2) 남대협과 대학 노래패

1987년 6월 항쟁이 고조되고 경찰의 최루탄에 이한열이 희생되자 장례식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모며 전국대학생조직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서대협 의장이 된 이인영의 주도로 8월 19일 충남대학에서 전국 95개 대학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조국의 평화통일, 민중연대, 학원자주화, 백만 학도의 통일단결 등을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전대협은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발족되기까지 1988년에는 8 ·15남북학생회담을 시도했고 1989년에는 임수경(林秀卿)을 평양축전 참가시켰고, 1990년 8 ·15범민족대회 추진하는 등의 학생운동에 앞장서 활동을 펼쳤다. 광주에서는 전대협 산하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남대협)의 활동지원을 위해 전남대 노래패 횃소리, 조선대의 함성 등이 동원되었다. 1990년에는 3월 29일에는 전남대에서 남대협(대표 송갑석, 전남대 무역학과4)소속 19개 대학 학생 3천여명이 남대협 4기 출범식을 가졌다. 노래패 횃소리와 함성은 〈광주출정가〉, 〈임을 위한 행진곡〉, 〈남대협진군가〉, 〈농민가〉 등을 불렀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이 노래들 중 세곡이 이 지역 노래꾼들, 정세현, 김종률, 박종화가 작곡한 것이다.

전대협 제4기 출범식도 전남대학교에서 거행되었다. 5 · 18추모 관련하여 광주의 5월은 삼엄하다. 출범당일인 5월 19일에는 정권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해당역 전에 급정거시켜 내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대협소속의 전국 학생들 4만여 명이 전남대에 모여 전대협 제4기 출범식에 참가했다.[124] 다음 사진은 전대협 제4기 출범식에서 노래하던 연합노래패들의 사진이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노래패들은 〈전대협진군가〉를 부르며 마음을 모았다.[125]

---

123) 가사는 본래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이광웅시인의 시 〈목숨을 걸고〉와 상당부분 비슷하다. 이광웅 시인은 일명 오송회사건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어 6년간 옥살이를 했던 시인이다.

〈바쳐야한다〉 가사

1.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바쳐라 사랑은 그럴 때 아름다워라
술 마시고 싶을 때 한번쯤은 목숨을 내걸고 마셔 보거라
전선에서 맺어진 동지가 있다면 바쳐야한다 죽는 날까지 아낌없이 바쳐라
번쩍이는 칼자루 움켜쥐고 나서라 전사여 그날을 위해 이 한 목숨 걸고 나서라
2. 구차한 목숨으로 사랑을 못해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아라
두려움에 떨며는 술도 못마셔 그렇게 먹은 술에 내가 죽는다
붉은 맹세 붉은 피로 맺어진 동지여 죽어도 온다 그날은 온다
민족의 해방이여 반짝이는 칼날 움켜쥐고 지켜라 전사여 우리의 깃발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

124) 이 과정에서 성남 대유공업전문대학교 학생 신장호는 광주로 가던 중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장성에서 열차에서 뛰어내린 후 일어나지 못하고 운명했다. 그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핵심간부들에 대한 구속·수배 등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씩 거행되는 전대협 발족식은 해마다 규모가 커져 1992년에는 6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사진 8, 1990년 전남대에서 열린 전대협 출범식에서 노래하고 있는 연합노래패 〉



(3)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126]

1993년 4월에는 전대협의 뒤를 이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결성되었다. 한총련은 9개의 지역총학생회조직으로 편성되었으며 광주전남의 조직명은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이다. 한동안 한총련에는 서총련의 '조국과 청춘', 경기남부총련의 '천리마', 부경총련의 '좋은친구'라는 노래단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남총련의 노래단은 부재중이었다. 1996년 광주전남지역 노래학생연합의 산하단체로 노래창작단이 있었다. 노래창작단은 1996년 여름 남총련 노래단으로 그 소속을 정하고 '한반도'라는 이름으로 정식출범하게 된다.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의 탄생이다. 한반도에 함께하는 노래꾼들은 이전에 각 대학에서 활동했던 노래패출신들이었다. 그러나 대학

125) 전대협진군가(윤민석곡/글): 일어섰다 우리 청년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아래 강철같은 우리의 대오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아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길로.

126) 노래단 한반도 이민경(97, 조선대 함성출신), 윤형호(98, 전남대 공대 새벽울림출신)의 구술을 바탕으로 정리

내의 노래패 활동과 남총련 노래단의 활동은 그 무게가 다른 것이었다. 노래단 한반도에 합류하기위해서는 투신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다. 그들은 학생이었으나 학생동아리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한반도는 '전문집단' 이라는 수식용어로 다른 노래패와 경계를 가르며, 입단하게되면 철학, 가치관 등에 대한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단원을 선택하였다.

노래단 한반도를 위해서 초기에는 자민, 이돈범, 이씬(이정석), 김화영, 정자민, 최인기, 이승권, 김양진, 강형원, 윤원재 등이 활동했고, 2000년 이후에는 천기백(이민경), 박애경, 조하나, 선보영, 김근호, 정영은, 이한음, 임두리, 노순열, 한무석 등이 있다. 2004년 무렵 활동단원으로는 서필, 윤형호, 박훈, 신유경, 주선미, 이정희, 서지현, 자꾸, 마지막 활동 단원들로는 이진우, 박상희 등이 있다.

한반도는 한총련과 남총련의 집회를 위한 공연은 물론 광주전남지역의 노동, 농민, 학생들의 운동현장요청은 물론 전국단위의 요청에 부응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노래창작단으로 출발한 한반도는 공연과 함께 창작에도 힘썼다. 1년에 100회를 훨씬 넘는 다양한 현장초청공연에 적절한 노래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는 없었으나 당시의 한총련과 남총련이 전개하는 활동과 주요사안에 맞는 노래를 창작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노래보급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반도가 제작한 음반은 다음과 같다.

1집 한반도(그곳인들 바람 불지 않겠나, 1998)[127]

1. 뛴다 2. 나무처럼 우리 젊음도 3. 보초를 서며 4. 찬바람 일어도 해방의 꽃은 피리라 5. 동지를 위하여 6. 통일 아리랑 7.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8. 내 사람아 9. 투쟁이 아름다워지리 10. 그곳인들 바람 불지 않겠나

2집 조국(그대 바로 우리들, 1999)

1. 조국 사랑의 마음 2.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3. 길 벗, 4. 희망 앞으로 5. 청년 왈츠 6. 조선 청년 7. 해방전사 8. 흔들리며 피는 꽃 9. 말로만 10. 그대! 바로 우리들

3집 항전-성조기의 쉰한번째 별이기를 거부한다(새길, 2000)

1. 성조기의 쉰한번째 별이기를 거부한다 2. 이길 앞에서 3. 잊지 않으리 4. 청년 김양무 5. 작은 별의 세상살이 6.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어라 7. 반미 항전가 8. 깃발 9. 새길2, 10. 그날이 오면4 11. 통일장터 12. 남총련찬가

대륙에 설레는 꽃바다(2000)

한반도 녹음: A1. 대륙에 설레는 꽃바다 A2. 다시 만나요 A3. 결사전 앞으로 A4. 나는 알았네

127) 첫 제목은 한반도가 처음 정한 제목이고 괄호안의 제목은 발매를 위한 음반의 현재 제목이다.

북한노래: A5. 귓속말 B1. 반갑습니다. B2. 새봄을 노래하네 B3. 즐거운 방목길 B4. 아직은 말못해 B5. 단풍잎 붉게 타네 B6. 사랑 사랑 내 사랑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는 승리자의 약속 "청춘을 빛내어 가자"(2001)
1. 승리자의 노래 2. 날자 3. 청춘을 빛내어 가자 4.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5. 공동선언 이행가 6. 연방조국에 영광 있으리라 7. 달려라! 달려라! 8. 전사의 생

4집 우리 촛불이 되어요 세상 바꾸는 수천의 반딧불이 되어요(2002)
한총련 진군가 2. 새물 3. 진정 그럴 수 있었으면 4. 한총련을 자유케하라 5. 함께 있는 우리 6. 라면 7. 우리 손을 잡아 봅시다 8. 언제나 우리는 함께 9. 반미항전가2 10. 가렴 11. 오만한 미국 12. 미제 원수에게 13. 청년들이 만납시다. 14. 하나의 핏줄 15. 우리 촛불이 되어요

인터넷 음반(2004)
1. 우리들의 것 2. 가로등 아래서 3. 언제까지나 4. 제국을 위하여 5. 안돼안돼 6. 청년의 노래 7. 공동선언 기치아래 8. 미국은 없어 9. 조선민족 이름으로 10. 하나된 세상 향해

5집 이제우리(2008)
보이네 2. 우리에게 중요한 것 3. 이제 우리 4. 전사의 유언(고 김준배열사 추모곡) 5. 침략을 멈춰라 6. 넌 꿈이 뭐야 7. 어쩌란 말입니까 8. 사람으로 살기위해[128] 9.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10. 희망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제작된 음반을 보면 노래단 한반도의 운동방향과 당시 사회에서 문제되었던 사안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1998년에 제작된 1집에서부터 노래단 한반도의 중심된 운동방향은 통일에 있다. 1번 트랙의 〈뛴다〉의 2절 가사에 그 방향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너와 내가 맺은 투쟁의 약속 조국 통일의 약속 결코 전설속의 이야기는 아니야 더러운 국가보안법 끝장내고 칠천만 땀방울 큰 바다를 이룰 때 진정한 자주의 통일은 올거야 뛰어 뛰어가자 서로의 어깨를 걸고 우리의 꿈 가득한 저 백두산으로. 2000년에 제작된 3집 "항전-성조기의 쉰 한번째 별이기를 거부한다"[129]를

128) 5집 8. 사람으로 살기위해(자꾸 글/곡):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살기위해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 그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 갇혀 기계와 같이 살아가지마 우린 누구나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린 어떤 누구와도 함께 더불어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야 해

129) 3집 1. 성조기의 쉰 한번째 별이기를 거부한다: 외세의 수탈에 맞서 죽창으로 지켜 온 역사
암흑의 일제 시대 피로써 지킨 항일의 역사 그 누가 짓밟을 수 있는가 그 누가 빼앗을건가
나의 생명 보다 귀중한 자주 없인 살 수가 없다 칠천 만 겨레의 염원 전민특위 자랑찬 깃발을 세워 성조기의 쉰 한번째 별이기를 거부한다

통해서는 당시의 반미감정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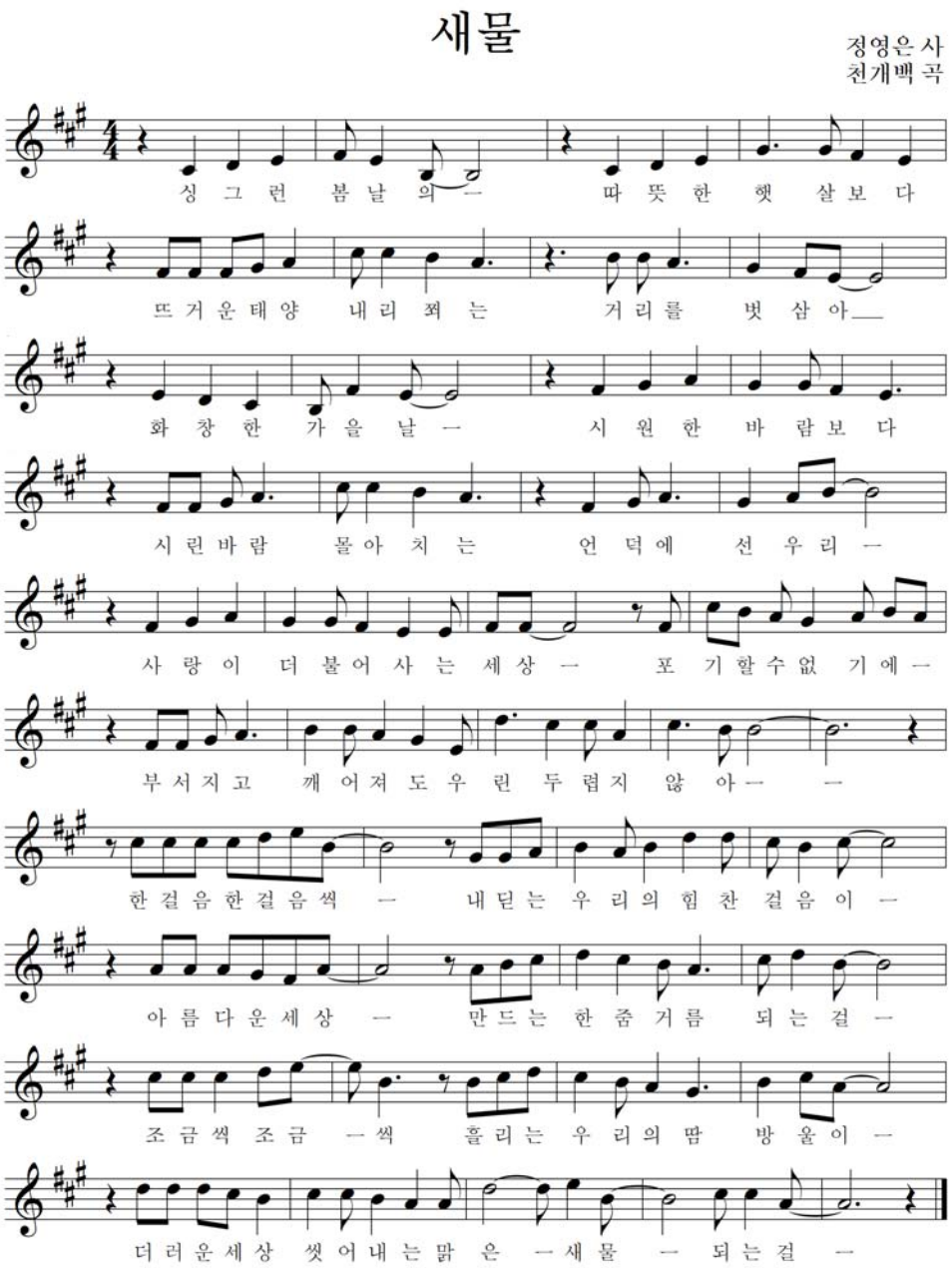
2002년에 제작된 제4집 "우리 촛불이 되어요 세상 바꾸는 수천의 반딧불이 되어요" 에 실린 〈가렴〉[130], 〈오만한 미국〉, 〈우리 촛불이 되어요〉[131]는 2002년 6월 12일 양주에서 일어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나온 노래들이다. 두 여중생이 미군의 전술평가훈련 중이던 장갑차에 압사 당했으나 미군측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반미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성의없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사죄로 더욱 국민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결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사죄하기에 이르렀고 효순과 미선의 부모님들이 용서와 화해의 뜻을 밝히고 사고 현장에 추모비가 건립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또 하나의 곡 〈새물〉[132]은 한총련의 전국 보급곡으로 결정되어 전국의 학생들이 율동에 맞추어 노래하는 인기곡이 되었다. 이민경이 천기백이라는 예명으로 작사하고 정영은이 작곡했다. 2008년의 한총련 대학 보급곡 〈희망은 그렇게 시작되죠〉도 노래단 한반도에서 생산되었다.

130) 10. 가렴(임두리 글/곡): 높이 날아올라 세상을 노래하고프던 넌 발밑부터 짓이기는 장갑차에 비명만을 남기고 부신 햇살을 담아 세상을 그리고파 했던 넌 터져버린 살갗으로 핏자욱만을 남기고 말았구나 가렴 훨훨 날아 가렴 다신 울 수 없는 이 땅 멀리 가렴 나 어린 꿈도 피지 못 할 땅이라 멀리 멀리 가렴 가렴 미련두지 말고 떠나렴 용서마저도 구걸해야 하는 이 땅 부디 미군없는 세상 전에는 다신 오지 말렴

131) 4집 15. 우리 촛불이 되어요(이정석 글/곡): 우리 촛불이 되어요 세상 바꾸는 수천의 반딧불이 되어요(반복) 죽어간 어린 넋들이 우릴 보고 있죠 부끄런 나라를 살아온 우릴 보고 있죠 수만의 촛불을 켜요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함성을 질러보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꺼트리지 말고 가야죠 우리 힘을 내요 광야를 태우고 번져갈 들불이 되야죠 자주론 나라를 위해 평화의 세상을 향해 우리 힘을 합쳐나가요 통일의 저 큰 바다로 우리 횃불이 되어요 하나된 우리 민족의 내일 밝힐 횃불이 되어요

132) 4집에는 한총련소속 전국대학의 2007년 보급곡으로 결정된 새물이 실렸다.

〈악보 8, 2003년 한총련 전국 보급곡, 한반도의 새물〉



5집 이제우리에 실린 〈전사의 유언〉은 광주대 김준배 열사 추모곡이다. 김준배는 19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광주대학교 금융학과 학생이었다. 그는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체포를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를 기도하다 지면으로부터 3~4m 되는 위

치에서 추락하였다. 화단위로 떨어진 김준배를 경찰이 몽둥이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발로 심하게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준배는 다음날 심장파열로 사망했다.[133]

이들이 제작한 음반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음반은 2000년에 제작한 음반 "대륙에 설레는 꽃바다" 이다. 3곡의 노래단 한반도의 노래를 제외한 모든 노래가 북한의 노래로 북한의 음원을 그대로 실어 발매하였다. 이런 음반이 가능했던 것은 6·15공동선언으로 통일문제가 공공연해지면서 이러한 일이 묵인되었던 까닭이다.

이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로는 매년 3월이나 4월에 개최되는 남총련출범식과 5·18 행사 후 5월 말경에 열리는 한총련의 출범식이 있다. 학외로 진출하려는 남총련과 한총련을 막으려는 백골단과 수배된 학생대표들을 체포하려는 경찰들의 감시 속에서 진행되는 출범식은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졌다. 한반도는 노래로 앞장서 이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8월이면 중앙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를 위해 상경하여 전국의 지역총련의 노래단들과 함께 공연한다. 2000년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부의장 김양무가 세상을 떠나면서 김양무열사투쟁과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활동이 있었다.

2001년 5 · 18행사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19일 부터 20일까지 조선대학교 1 · 8극장에서 5 · 18정신계승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문화제가 열렸다. 5 · 18의 진정한 정신을 간직하고 청년학생으로서 자주 · 민주 · 통일을 위해 살아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래단 한반도는 각 대학 율동패, 풍물패와 함께 문예공연을 펼쳤다. 5월 20일 민주주의 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에서 진행한 518민중항쟁 제21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에서는 한라중공업 노래패와 노래단 '청춘의도시', 문예단 '일터', 민족의노래 '우리나라'[134]와 함께 문예공연을 펼쳤다.

2002년에는 효순미선사건으로 반미감정이 팽배해지면서 반미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가렴〉이 효순미선을 향한 노래라면 〈우리 촛불이 되어요〉, 〈오만한 미국〉, 〈반미항전가2〉, 〈미제 원수에게〉는 직접적인 반미의 노래이다. 2002년 5월 3일에는 10기 한총련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의장과 함께 '한국 대학생 5월축전 전야제' 에 참석하여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노래극단 '희망새' 등과 함께 5월축전을 축하하였다.

2003년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노래운동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노래단 혹은 노래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래단 한반도는 남총련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되는 사회운동의 수요

---

133) 오마이뉴스, 2002.07.09., 손병관기자
5집 이제우리 4: 전사의 유언(자꾸 작사/작곡): 그 해 가을 아픔과 분노 여기 두고 떠나가리니 내 못 다한 사랑과 투쟁 그대 몫이라오 그 해 가을 내 모든 괴로움 여기 두고 떠나가리니 내 못 다한 오늘의 삶을 동지여 부탁하오 그대 분노없는 그 손으로 내 무덤가에 술을 따르지 마오 그대 실천없는 두 다리로 더 이상 날 찾지 마시라 동지여 우린 싸워야만 해 해방의 날을 찾아야해 우린 기필코 승리 하리니 그대 신념 잃지 마시라.

134) 민족의노래 '우리나라' 는 가극단 금강, '혜화동푸른섬',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등에서 활동해오던 이들이 모여 1999년에 발족한 전문 노래단이다. 진보적인 음악의 대중화를 추구하며 활동하는 민중가요 노래패이다. 대표곡으로는 2001년 남북민족통일 대축전 공식주제곡으로 사용되었던 〈경의선타고〉외 수많은 곡들이 있다.

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한총련의 행사에서도 주도적으로 활약했다. 또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초청되어 수많은 공연에 응하는 명실상부한 전문단체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 해에 활동을 보면 제1회 광주전남 대학생 오월한마당에 참가대학의 노래패들과 함께 "우리는 통일조국을 열망한다"는 내용의 공연을 펼쳤고 6월 15일에는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가 개최한 "고 신효순, 심미선 1주기 추모 및 6·15공동선언 3돌 기념 청년학생 통일무대"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쳤다. 이라크파병방침철회 · 반미반전 · 평화수호 천막농성 지원거리공연(전남대후문), 미국반대 · 전쟁반대 · 이라크전투병 파병반대 거리음악회(충장로우체국앞) 등 수많은 공연을 소화했으며 북한을 방문해 북녘유적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사진 9, 고 신효순, 심미선 1주기 추모 및 6 · 15공동선언 3돌 기념 청년학생 통일무대〉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의 공연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2004년에도 남총련 출범식으로 부터 시작해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거리공연, 5 · 18 정신계승 국민대회, 혜원상생한마당, 오월전국노동자대회 및 노동자문화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리공연, 전남대 거리공연, 조선대학교 대동제 공연, 5 · 18 24주기 청년학생 반미결의 문화행사 등에 참여했다.

2004~5년에는 남북 대학생 교류가 많이 있었다. 남북 대학생 통일상봉, 금강산 대학생 8·15 평화한마당,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통일기원 해맞이, 32개 대학 5,100여명의 대학생의 금강산모꼬지

(답사여행), 금강산 통일새내기 배움터 등이 진행되었다. 노래단 한반도는 2005년 남총련 출범식 공연을 시작으로 남총련 개강투쟁 선포식에 참여하였다. 5월 24일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의 남측대표로 참가하여 단독공연은 물론 북측 학생들과 합동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대학생 운동본부 결성식, 순천대 대동제 공연, 부산교대 대동제, "미군철수원년 조국통일 원년을 위한 미국싫어! 통일좋아" 거리공연,

2009년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정두열사 추모제(3/8) 카리졸브 전쟁훈련 반대 거리공연(3/10, 12, 13, 17),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식(3/12, 13), 로케트 해고자 문제를 위한 촛불문화제(3/10, 13), 으라차차 광주전남대학생 대회(4/2), 현대차판매 노조 수련회 공연(4/17, 5/13), 노동산재보험개선집회(4/22), 도청원형보존을 위한 1차시민결의대회(4/25), 로케트 해고자 복직투쟁 600일(4/25), 김대중 전대통령 광주전남시도민 추모제 공연(8/22) 광주전남지역대학생연합(이하 광전대련)과 남총련 공동주최로 열리는 〈통일문화제〉의 한 일환으로 열리는 "10·4선언 2주년 기념 통일문화제 대학생 웅변대회" (10/10)에서 광주전남진보연대 문예위원회와 남총련 노래패 한반도가 합동 공연을 펼쳤다. 이처럼 이들은 한총련과 남총련의 회합 이외에도 지역의 노동, 농민, 반전, 통일 등 여러 분야의 운동현장에 초청되어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문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노래단 한반도는 박상희, 이진우를 영입해 활동하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그 활동을 접었다.

〈사진 10,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 10주년 기념공연〉



(4) 광주의 노동자 노래패 결성

① 전국노동조합창립과 꽃다지

1987년 6월항쟁은 민주화운동이자 노동자대투쟁이었다. 이후로 전국적인 민주노동조합운동이 확산되었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진행되면서 이러한 노동운동의 열기를 바탕으로 지역의 개별노동조합의 설립이 급증하였으며 1988년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조합들은 '전국노조협의회' 조직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89년 12월 19일 '전국노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 를 결성하고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창립대회 직후 130여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연행되었고, 해체되던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노동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자 당시의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1988년 자연스럽게 구로지역의 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자노래단' 과 '삶의 노래 예울림' 등 노래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1992년 3월 1일에 통합하여 노래패 '꽃다지' 로 창립되어 지금까지 노동가요를 창작, 보급하는 문화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꽃다지는 〈민들레처럼〉, 〈바위처럼〉, 〈전화카드 한장〉,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같은 노래들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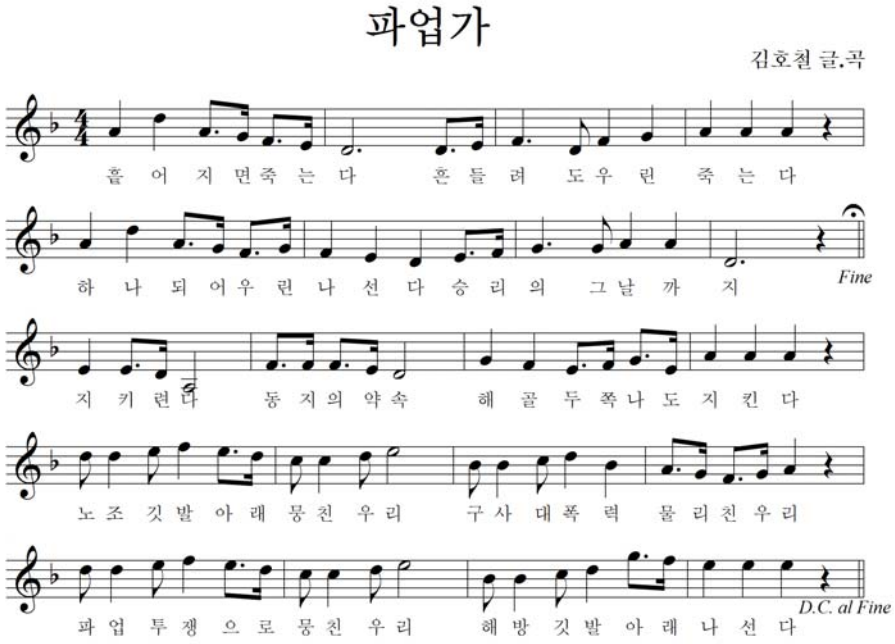
② 광주지역의 사업체별 노동자 노래패의 성립(1990)

이 지역에서는 2년 뒤인 1990년에야 노래패 조직의 태동을 보인다. 학생운동권에서 독자적으로 노래운동을 전개하던 박종화는 이 지역에 이미 조직되어있는 노동자문학패 '글맥' 과 노동자 마당극패 '일꾼마당' 의 도움을 받아 각 현장에서 노래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을 모아 1990년 11월에 집체극 「다시 서는 노동자」를 공연하였다. 이 공연에 참여했던 노래꾼들은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장별로 노래패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시아자동차, 로케트전기, 대우전자, 금성알프스 등의 사업장에 노래패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동의 현장에서 각 사업장별 노래패의 활동이 쉽지 않음을 깨닫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자 1991년에는 '광주노동자노래패연대회의' 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광주의 노동자노래운동은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서울차체의 노래패와 대우 Carrier 노래패 등이 만들어지고 합류하면서 힘을 더했다. 느슨한 연합체였던 '광주노동자노래패연대회의' 는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 로, 다시 '광주노동자노래패연합' 으로 강화되어 지금은 개별사업장별 활동보다는 형편에 따라 팀원들을 차출하여 공연하는 '노래패연합' 차원의 지원공연을 하고 있다. 1990년 후반에 출발한 노동자노래운동이었지만 1991년 말 노동자노래패 송년회에는 130여명의 노래패원들이 모일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1992년에는 '광주노동자노래패연합' 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노래극 「다시 서는 노동자」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리는 성과를 낳았다. 지금은 이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지원하면서 노동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0년 11월 6일에 만들어진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자동차) 노래패 '새벽빛'의 경우 패장 이재득을 중심으로 이채훈, 윤일식, 이강원, 최영석, 박영재, 김병영, 박오열 등이 창단 단원으로 출발했다. '새벽빛'이 만들어진 직후인 1991년부터 이들의 활동은 연초에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갱신투쟁시에 노래보급사업을 전개하고, 5월이면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관련한 시위에 합류하여 연대공연활동을 하거나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8월이면 통일행사에 참여했다.

1996년 신한국당은 12월 26일 새벽 6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오세응 국회 부의장 사회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모두 11개 법안을 7분 만에 전격 '날치기' 통과시켰다.[135] 노동에 관련한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복수노조문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에 항의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실행했다. 광주의 노동자들은 투쟁지도부를 임동성당에 차리고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노래패들은 주요거리에서 노동법 날치기에 대한 부당함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연하면서 선봉대의 역할을 다 해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이 열심히 불렀던 노래들은 〈파업가〉, 〈총액임금분쇄가〉, 〈노동악법철폐가〉 등이었다. 2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총파업을 전개한 결과 1997년 3월 8일 협상을 이루고 일단락되었다.

〈악보 9. 파업가〉



135) 한겨레, "노동법 날치기 처리", 1996.12.27.

1997년 기아자동차의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사활의 미래를 점치기 어려웠을 무렵 노동자들은 '기아자동차의 공기업화' 를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집회와 문화공연을 펼쳤다. 그 해 여름철에 노래패 '새벽빛' 은 노래패협의회와 합류하여 집체극 「아빠 힘내세요」를 준비하여 전남대학교 후문, 선제회관, 운남동 아파트 밀집촌 등 조합원들이 많이 사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네 차례 정도 공연을 펼쳤다. 결국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했고 노동자들은 살아남았다. 2009년 5월 10일에는 대한통운 고 박종태열사[136]의 추모대회에 참가하여 노래로 화물연대에 그 힘을 보탰다.

노래패 '새벽빛' 은 현재(2014년) 조영송이 패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고 박오열, 김홍국, 최경근, 김영두, 김창현, 백은택, 윤성윤, 정병훈, 주현오, 양우주가 활동하고 있다. 연습은 근무시간의 다르므로 A조와 B조로 나누어 A조는 오전 두 시간을 조퇴하고 B조는 두 시간 먼저 출근하여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 10분까지 모여 진행하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 지원공연이 필요할 때면 '광주노동자노래패연합' 의 단위로 모여 연습하고 공연에 임한다.

1991년 이후로 광주사회보험 노조 노래패 '무등' , 현대자동차 판매본부 노래패 '굳은의리' , 금호타이어 곡성지부 노래패 '전사들' , 광주지부 노래패 '터' , 기아자동차 판매 노래패 '신나라' , 사회보험노조 노래패 '무등' 등이 창단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보훈병원의 '노을소리' , 캐리어의 '해방꾼' ,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전사' , ATK의 '엠코 코리아' 등의 노래패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③ 노동자노래패 지원을 위한 노래패 '공단외각' (1993)

노동자노래패가 만들어질 수 있게 단초를 제공했던 박종화가 1990년 노래창작집이 국가보안법에 걸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노동자노래패를 위한 도우미들이 필요했다. 결국 대학노래패출신들로 노래패 '공단외각' 이 구성되고 그들이 노동자노래패들의 노래운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광주노동자노래패연대회의' 가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 로 변화, 보강되면서 협의회에 '공단외각' 도 가입하였다. 이들은 실제로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음악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공단외각의 단원들은 주로 대학노래패출신으로서 음악적으로 이미 경험이 있거나 훈련된 단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초창기에는 강평근, 서광석, 정현숙(몽심이), 고재헌, 차소연 등이 활동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연에 나서기보다는 각 사업장의 노래패들에게 기타, 드럼,

136) 박종태는 대한통운 25톤 트럭운전기사로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이다.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운송료 30원 인상' 이라는 구두 합의 이행을 촉구하다 계약 해지된 78명의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투쟁을 이끌었는데 어떤 진전도 없이 장기화되자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코자했다. 그는 "나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최소한 화물연대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 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 '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버렸다.

신디 등의 기능을 전수해주거나 노래를 가르쳐주는 일, 노동자노래패에 갑작스러운 공연요청이 들어올 때에는 공연의 내용을 정하고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해준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공연에서는 전체 공연을 기획하거나 연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MR대신에 실제 반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악반주를 맡아 지원하기도 한다. 초창기 단원 서광석은 조선대학교 노래패 함성출신이며 2005년에 '공단외각'에 입단한 조인호는 목포대학교 노래패 '울림소리' 단원이었다. 조인호는 공단외각에 입단하여 노래창작교실의 강사와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판매본부 노동자노래패 '굳은 의리', 사회보험노조 노래패 '무등', 금호타이어 노래패 '터'의 단원들에게 기타와 노래를 강습했거나 하고 있다.

이들의 도움으로 점차 성장하는 노동자 노래패들은 1994년에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 차원으로 노래극 「우리들의 사랑법」을 YWCA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④ 공무원노동조합 노래패 '희망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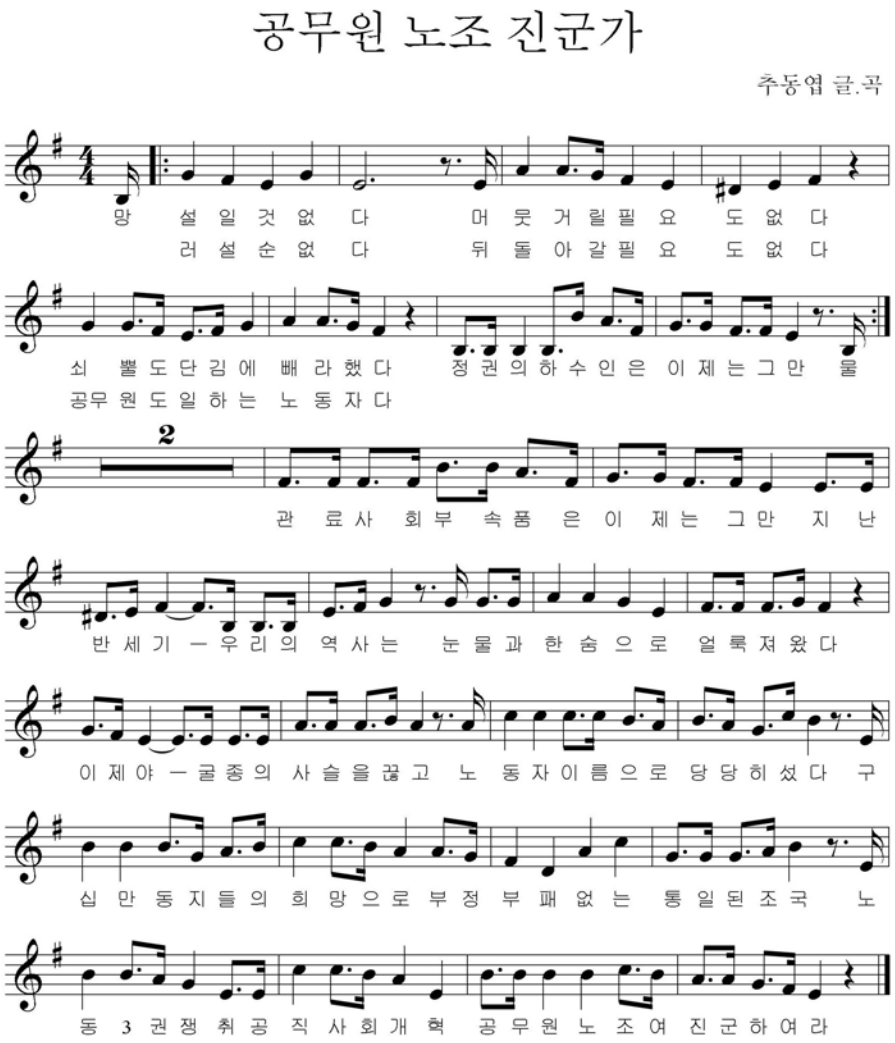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산업체 노동조합의 결성보다는 훨씬 늦은 2002년 3월 23일 출범했다. 처음에는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많은 탄압을 받았으나 2004년 12월 24일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부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일부 산하기구가 합법단체로 바뀌었다. 2003년 10월 첫 번째 주 수요일에 백형준, 김주업, 신희경, 박성수 등이 첫모임을 갖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광주본부 노래패 '희망1동'을 결성했다. 후로 최준민, 김한춘, 김혜련 등이 합류했고 지금은 김창수를 패장으로 백형준, 진강필, 허경원, 한공주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광주북구청, 서구청, 동구청, 광산구청,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청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첫 무대는 2004년 두암동에서 있었던 8·15통일축제의 공연이었는데 〈통일의 꽃을 피워요〉, 〈우리는 하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인선타고〉 등 통일관련 노래를 불렀다. 연이어 10월 10일에 큰 규모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엄청난 탄압과 방해 속에서 이루어졌던 '전국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및 문예공연'(서울)이었다. 이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해달라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를 위한 집회였고, 이러한 요구가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에 있을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집회였다. 본래 서울대학교에서 갖기로 한 행사였으나 원천봉쇄를 당했고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면서 집결하라는 연락을 기다렸다. '건국대학교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희망1동'은 건대를 향했다. 8시부터 진행예정이던 행사는 경찰의 방해로 밤 0시 50분경에 시작되었고 새벽 2시 30분경에 끝났다. 13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경찰병력에 막혀 5개 팀은 입장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희망1동'은 담을 타고 넘어가 준비한 〈동지가〉를 불렀고 '노동3권보장', '전간부결사투쟁 총파업투쟁승리' 등을 외치면서 공연은 진행되었다. 결국 '문예경

연대회' 와 '간부교류대회' 는 성사되었고, 2004년 11월에 총파업을 결행했다. 결과는 4천여 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4백여 명이 해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불완전하나마 공무원노조 특별법이라는 노동조합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2009년도 후반에는 법외노조로 남아 현재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또 다른 지원행사로는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개악 및 강제퇴출' 저지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되었던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여 서울 여의도에서 문선활동을 주도했었다. 5만 여명의 대규모 집회에서 〈반격〉, 〈사랑 2〉, 〈동지가〉, 〈공무원노조진군가〉 등을 불렀다.

〈악보 10, 공무원노조진군가〉



2008년 7월 12일에는 '구조조정 저지! 연금개악 반대! 공공행정 민영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를 주제로 광주전남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가 광주역 광장에서 2,500여명의 공무원을 비롯한 철도, 의료, 보건, 교육 등 각 부문의 노동자가 함께 모여 사회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곡성 공무원노조 율동패의 율동공연과 광노문연의 연합 노래패의 노래공연에 이어 공무원노조의 광주전남연합 노래패(희망1동+희망충전)의 공연이 있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초창기에는 각 지역별로 노래패들이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지역의 노래패들이 해체되었다. '희망1동' 의 경우도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일례로 2005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순천지부의 노동조합탄압에 항의하는 농성장에 지원공연에 나섰다가 재판에 회부되었다. 본래 순천지부의 조합원이 약 1,200명 정도로 출발했으나 당시 순천시장이 공무원노조를 향해 엄청난 탄압을 가하게되자 마지막 11명이 남게 되었다.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 천막치고 농성하던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민주노총 전남본부차원에서 순천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순천역 광장에서 진행했다. 그 집회는 합법적이었으며 연대요청이 주말이어서 이에 응한 노래패 '희망1동' 은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라〉와 〈공무원 노동자의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재판을 거쳐 공무원법의 '단체행동금지위반' 과 '품위손상' 을 이유로 '2백만원' 의 벌금형과 '선고유예' 에 처해졌다.[137] 이처럼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활동탄압보다 더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이와 같은 탄압으로 현재(구술 당시, 2014년 8월)는 전국에 광주광역시의 '희망1동' 과 강원도 동해시 공무원노조 노래패 '동해와 바다' 만 남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2013년의 활동이다.

> 공무원노조 전국회의 공연(04.07), 공무원노조 광주총회공연(04.21), 시청출범식공연(04.25), (4.3추모제 합동공연(04.30), 민주노총결의대회공연(05.21), 장흥군 지부 출범식공연(5.28),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공연(서울, 06.01), 경기도낙하산인사반대집회공연(경기도청앞, 06.26), 무안지부 출범식공연(06.28), 동해시지부출범식공연(07.08), 공무원분과위 공연(07.13), 교육청노조 규탄대회공연(07.23), 순천지부 출범식공연(07.24), 고 이향재 동지 추모제 및 발인(08.31), 호남민주열사 추모문화제(11.01),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공연(12.11)[138]

위의 공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희망1동' 의 활동은 광주광역시라는 지역을 넘어서 매우 광범위하다. 다른 지역의 노래패 해체로 인해 '희망1동' 의 공연수요가 더해졌고 각 패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사기와 의욕의 결과이기도 하다.

---

137) 2005년 검사출신이었던 순천시장 노관규는 순천지부 1,200명 노동조합원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11명이 남을 때까지 탄압했다.(2014.08.13. 박오열 외 4인 구술)

138) 노래패 '희망1동' 패장 김창수가 제공한 자료, 2014.04.13.

⑤ 광주노동자노래패연합체 결성

광주노동계에서는 1990년 4개의 노동자노래패가 만들어졌고 1991년 '광주노동자노래패연대회의'를 구성했다. 1992년 5월 23일에 '광주노동자노래패연대회의'는 노동자문학패 '글맥', '노동자풍물패협의회', 극패 '일꾼마당'의 합작으로 5월 열사들의 부활을 기원하는 공연을 펼쳤다. 그러나 더욱 강력한 조직력의 필요로 '연대회의'는 1993년에 서울차체의 노래패와 '공단외곽'을 추가하여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로 발전시켰다. 각 노래패들이 모두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활동하는 까닭에 사업장별 노래패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노래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이 강화된 노래패협의회는 그 활동의 범위도 넓어졌고 더욱 활발해졌다. 노동문제를 넘어서 시기별로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⑥ 노동자노래패의 활동범위

노동자노래패의 주된 활동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약칭 임단협), 노래보급사업, 가두투쟁(가투) 등의 활동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점차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문제해결의 문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현실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가면서 노동자노래패의 활동은 남북의 분단문제, 계급모순, 정치적 모순의 문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매년 1~2월에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지부, 지회별로 열린다. 3~4월에는 각 노동조합이 보조를 맞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춘투(춘계투쟁)가 있다. 대체로 이때는 〈파업가〉, 〈단결투쟁가〉, 〈또 다시 앞으로〉, 〈철의 노동자〉 등을 부른다. 5월이 되면 5·18진상규명문제해결투쟁에 합류하고 8월이면 통일문제투쟁에 연대공연을 진행한다.[139]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는 해마다 각 대학교(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송원대, 동강대, 서영대 등)의 대동제에 초대되어 노학연대(노동자학생연대)로 공연을 펼친다. 일례로 1996년에는 서영대학에 초대되어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집체극 「후대를 위하여」를 공연했다. 지금은 많은 공연을 노래패협의회 혹은 광노문연 노래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월 기념행사에서 부를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찾아가는 오월 공연'을 기획하여 영광, 광양, 순천, 화순, 장흥 등 시군단위들 찾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다음은 2013년 '노래패 협의회'가 참여한 활동내용이다.

노래패협의회 수련회(03.09), 대한통운 결의대회(03.23), 박종태 추모문화제(04.28), 노동절 합동공

139) 파업가(김호철 글/곡). 단결투쟁가(백무산 시, 김호철 곡), 또 다시 앞으로(김호철 글/곡), 철의 노동자(안치환 글/곡)

연(05.01), 5월창작가요제 예선 축가(05.04),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축가(05.11), 찾아가는 오월공연(05.16), 5·18전야제, 노동자대회 공연(05.17), 민주열사묘역공연(05.18), 민주택시집회공연(05.20), 찾아가는 오월공연(05.20), 시국관련집회공연(07.19), 여수산단특별법 제정축구 집회공연(09.14), 전교조 결의대회공연(10.24), 전국노동자대회(11.09), 대불공단 노동자 문화제 공연(11.13), 가스민영화 저지 집회공연(11.20), 인권문화영화제공연(11.24), 518문화예술한마당 공연(12.17), 이남종열사노제공연(01.04/14)[140]

⑦ 광주전교노 노래패[141] '징검다리'와 '점심시간'

1992년무렵 전교조 광주지부에서 간사로 일하던 윤준서는 노래모임 '누렁소'를 꾸려 전교조의 행사에 가끔 문선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단원이 정해져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었던 것은 아니었고 필요에 따라 노래꾼들을 모아 연습하고 공연에 임하는 열린 조직이었다. 그렇게 느슨하게 운영되던 전교조 광주지부의 노래모임은 1999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리더 윤준서가 영암 도포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활동이 멈춰졌다.

2003년 겨울, 광주지역의 전교조 운동에 있어 장기적인 전망을 고민하던 청년교사 23명이모여 '청년교사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전교조 활동가 양산과 전교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문화패를 조직하게 되었다. 영상패, 연극패, 율동패 등등 기존 문화패들의 활동이 미미하거나 개별적 활동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청년교사모임에서 이들 문화패를 적극 지원하고 개입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그동안 전교조 광주지부에 없었던 노래패 "징검다리"이다. 이후, '청년교사모임'이 지부와의 갈등 속에 해체되면서 노래패는 전교조지부에 신규 편입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창립단원으로는 정승오(살레시오여고), 송현철(은혜학교), 이현아(선광학교), 임선아(광주전자공고)이며 이후 손용섭(2004), 김도영(2005), 박순자(2005)가 합류해 활동을 전개했다. 일주일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 전교조 강당에 모여 연습했다.

이들은 전교조 광주지부의 강연과 지부, 지회 참교육실천대회, 신규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여서는 주로 교육을 주제로 한 노래로 공연을 펼쳤고, 전교조 거리투쟁과 각종 연대 단체투쟁에서는 투쟁가를 중심으로, 지역통일축전에 참여할 때는 통일노래를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연을 펼쳤다. 연대단체투쟁은 주로 광노문연의 노래패 연합(공무원노조, 일반노조, 기아차노조, 전교조의 노래패)의 이름으로 함께 공연하였다.

이들 노래패들이 불렀던 노래는 〈교원노조가〉, 〈단결투쟁가〉, 〈반격〉,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등 서정 민중가요와 투쟁가 그리고 참교육 노래모음 앨범 2집 "노래하나 햇볕한줌"에 실린 교육과 관련한 노래들이다. "노래하나 햇볕한줌"은 전교조 문화국에서 1990년에 발매한 앨범으로 교육을

140) 노래패 '희망1동' 패장 김창수가 제공한 자료, 2014.04.13.
141) 안재철, 정승오(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교사) 인터뷰, 2014.09.12.

주제로 한 노래들이 주를 이루지만 일반 민중가요도 포함하고 있다.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학교 가는 길〉, 〈그리운 방학〉, 〈엄마구름 애기구름〉, 〈제발 제발〉, 〈꿈이 더 필요한 세상2〉, 〈참교육의 함성으로〉, 〈사랑해요 선생님〉, 〈장작불〉, 〈그날이 오면〉, 〈광야에서〉, 〈생일노래〉, 〈어머님 말씀〉, 〈무궁화〉, 〈가보고 싶어〉,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하나 햇볕 한줌〉, 〈그렇지요〉 등의 노래이다.

'징검다리' 의 활동은 2006년의 공연과 행사를 살펴보면 짐작해볼 수 있다. 2006년 2월 17일 전남 공고 시청각실에서 있었던 전교조 중등신규교사 학급운영 연수에 '징검다리' 가 찾아가 〈교사는 노동자다〉와 〈우리가 희망이다〉를 불렀다. 5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는 〈오월의 노래2〉등 두 곡을 노래했다. 5월 17일에는 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있었던 5 · 18전야제에 참석하여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오월의 노래2〉를 불렀다. 5월 27일에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희망이다〉, 〈세상을 바꾸자〉, 〈다 바쳐 치열하게〉를 노래했다. 6월 11일 풍암지구 생활체육공원에서 있었던 6 · 15기념 찾아가는 콘서트, 6월 12일 6 · 15기념 교사문화 한마당, 6월 13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서구 통일축전 2부 등 연 3일간 〈하나 되어 대행진〉,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다 바쳐 치열하게〉를 불렀다. 이처럼 교육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참여하면서 교육, 5월, 민주화, 통일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학교업무의 부담을 안고 지원 없는 활동이 힘에 부친 '징검다리' 는 패원들의 열정으로만 유지하다가 활동가 양산이라는 초기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더구나 신규 패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2007년 해체되었다.

2년여 정도 전교조 광주지부에는 노래패가 없었다. 그러다 전교조 문선활동에 노래패의 필요성을 절감한 교사들이 2009년 다시 만든 노래패가 '점심시간' 이다. 안재철(금호중), 정성화(교육연수원), 조강인(선우학교), 강후남(빛고을고), 이미호(퇴직) 등 5인으로 구성된 노래패는 다시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 연습하고 있다. 가끔 전문 노래밴드나 노래패를 초청해 연수의 기회를 갖는데, 2010년 2월에는 광주의 상식이 밴드를 불러 함께 연수를 진행했다. '징검다리' 나 '점심시간' 모두 자체창작활동은 어려웠고 전국단위의 연대모임에서 연합적으로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점심시간' 이 참여하여 공연한 활동내용이다.

로케트 해고자 복직을 위한 18번째 촛불문화제(2009.04.19.), '민생회복 민주수호 이명박 퇴진 광주전남 시국대회' (2009.07.18., 〈교사는 노동자다〉, 〈미친 교육 OUT〉공연), 광주전남시국대회 (2009.07.18.,〈웃기는 MB의 나라〉, 〈미친 교육 OUT〉공연), 전남대병원지부 조정신청결의대회 (2010.06.29.), 87회 무등산풍경소리 "사람을 노래하다" (2010.11.20., 뮤지컬 공연), "MB특권경쟁교육철폐! 업무경감! 8천 조직 확대! 지부창립 22주년 기념 광주교사결의대회" (2011.06.25.), 광주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출범식(2011.09.27.), '2011 장애인식개선 희망 콘서

트’(2011.11.18.),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고익종)의 “참교육실천대회”(2011.12.17.), 전교조지키기 16차 촛불대회(2013.10.13.),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행사(2013.12.11.)

〈사진 11, 광주전남 시국대회(2009.07.18.)에 참여한 전교조 노래패 ‘점심시간’ 공연모습〉



⑧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일명 광노문연)과 각 문화패의 활동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매체연합, 광노문연)은 1993년 창립되었다. 노동자들의 문예운동이 현장 밖의 몇몇 전문적 예술단체로부터 강습을 받아 진행, 유지되거나 각각의 현장에서 고립되어 진행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노동자 문화패들의 연대운동, 연합운동을 지향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광노문연의 준비위원회는 ‘민족문화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문예운동이며, 노동자문예운동은 집단적 힘으로 표출되는 대중주체문예운동[142]이라는 것’, ‘창작실천을 기본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강력한 대중문예운동을 전개하는 책임을 맡아가야 한다는 것’, ‘매체연합조직은 각 매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 영역은 인정하되 그것이 고립 분산되어 존재

142) 대중주체문예운동이란:
1. 문예의 말단 소비자, 소외된 자로부터 문예의 생산자, 창조자, 향유자가 되는 것
2. 보다 많은 사람들이(대중) 문예의 소비자, 소외자로부터 창조자, 향유자가 되는 것
3. 문예에 대하여 처음으로 접하고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창조자, 향유자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이나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1, 2, 3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것을 대중주체문예운동이라고 한다.
다음카페 광노문연, http://cafe.daum.net/gnmy/R4J/1061.

하기보다는 통일단결의 공간 속에서 자리잡아 나아갈 때 총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을 기본 강령으로 삼자고 창립정신을 표명했다.[143] 광노문연은 창립된 지 30년 이상이 되어 그 활동은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의 창립정신대로 각 매체가 연합하여 큰 힘을 발휘했고 개별 사업장의 각 매체가 할 수 없는 많은 노동운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은 풍물패, 율동패, 노래패, 문학회, 영상패, 극패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동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노동문제에만 천착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회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연히 광노문연도 사회운동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문예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선언을 겪으면서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 결과 광노문연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활동은 노동뿐만 아니라 5·18과 통일을 아우른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노문연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어왔다. 다음은 2003년에 있었던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오월전국노동자문화제이다.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오월전국노동자문화제
일시: 2003년 5월 18일 11:00~13:00
장소: 도청 앞 본무대

1부: 항쟁이여!! 오월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 신명나는 판굿; 대동판굿(광주노동자소리패 소릿바람, 광주노동자풍물패협의회)
- 환영사: 광노문연 최지용 의장
- 농민노래패공연: 나주여성농민회 노래패 논두렁밭두렁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삼수 본부장 격려사
-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연설
- 초청공연: 민중 록밴드 바람

2부: 신자유주의 저지!! 미국반대!! 반전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라 노동자여!!
- 전국현장문화패공연(풍물, 율동, 노래, 극, 문학 등)
  여수지역 노동자문예연합 공연/울산지역 미포조선노조 노래패 공연, 울산지역 연합노동자 문화패/목포지역 노동자문화연대 공연
- 광노문연 기획공연: 금호타이어 곡성지부 노래패,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 전국현장문예패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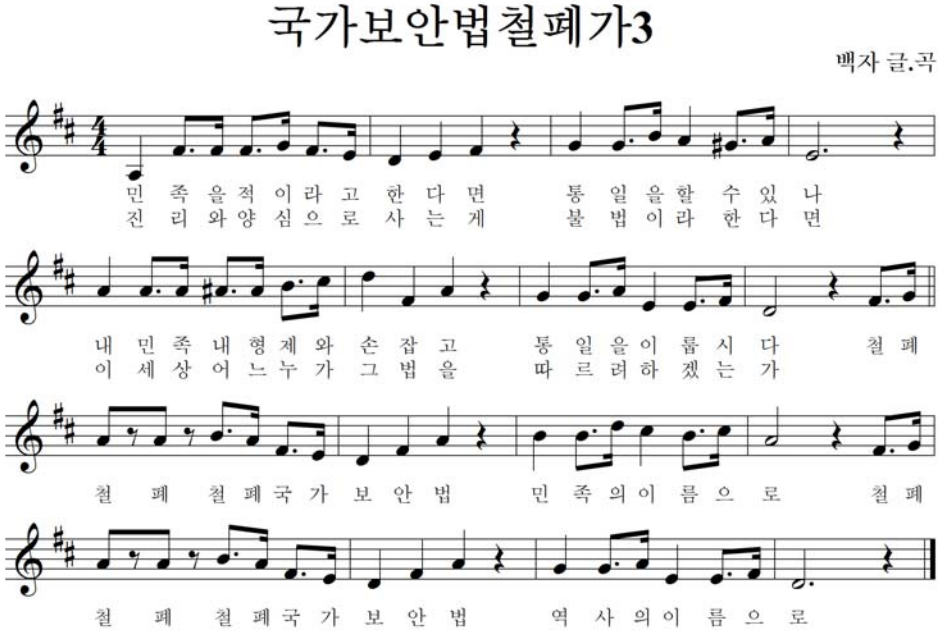
143) 광노문연, http://cafe.daum.net/gnmy/R4J/1061.

경기지역 노동자문화패연합 공연/인천지역 노동자문화선봉대 공연/충남지역 노동자 문화선봉대 공연/광주지역 노동자문예운동연합 공연

– 초청공연: 노동가수 지민주 동지[144]

5월이 지나고 6 · 15공동성명과 8 · 15를 기념하며 6월부터 8월까지는 통일 관련된 문화제를 열어 통일노래를 부르고 전태열 열사가 죽었던 11월이 되면 노동관련 현황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에서 노동관련 노래를 주로 부른다. 지금까지 광노문연 노래패에서 활동했던 박오열은 90년도 초반의 5월에는 〈꽃아 꽃아〉, 〈끝내 살리라〉, 〈광주여 무등산이여〉, 〈광주출정가〉, 〈뿌리내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한다. 또 5 · 18을 조명하면 자연스럽게 반미에 대한 노래도 떠오른다. 〈들어라 양키야〉, 〈반미반전가〉 등을 많이 불렀고 2002년 이후에 반미의 노래 〈Fucking USA〉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월에서 통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맞게 오월에는 꼭 통일을 주제로 하는 노래 하나씩은 넣어 불렀다고 기억한다. 박종화의 〈바쳐야한다〉는 항상 부르는 노래였고 〈투쟁의 한길로〉, 〈여성전사〉도 많이 부른 투쟁가이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8월이면 빼지 않고 불렀던 〈국가보안법철폐가3〉인데 국가보안법이 남북통일을 막는 법이라는 인식에서라고 설명한다.[145] 다음은 〈국가보안법철폐가3〉 악보이다.

〈악보 11, 국가보안법철폐가3〉



144) 5·18재단 기념행사위원회 행사평가자료, 2003.
145) 박오열 구술, 2014.8.13.

2005년 8월, 통일과 관련하여 광노문연이 참여한 행사는 7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있었던 "8·15특별사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제"이다. 이날의 주제는 한총련 관련자로 구속돼 수감 중인 전남대 출신 두 양심수 민기채(30, 2007년 9월만기), 윤영일(29, 2007년 4월 만기)군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바라는 것이었다. 문화제는 2004년 여의도를 달궜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끝장단식'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뒤이어 '광노문연 노래패'가 무대에 등장했다. 이들은 '한총련 관련자들 뿐 아니라 작년 파업으로 구속된 LG칼텍스정유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과 함께 공연을 펼쳤다.[146] 전남대 율동패 연합의 문예공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11월이 되면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그 해 가장 핵심이 되는 현황들을 모두 모아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이때에는 앞서 불렀던 〈바쳐야한다〉, 〈투쟁의 한길로〉를 비롯해 노동운동가의 대가 김호철이 작곡한 〈총액임금철폐가〉, 〈파업가〉, 〈단결투쟁가〉, 〈민주노총가〉 등을 주로 부른다. 1997년의 IMF를 겪고 난 후 많은 일자리가 비정규직화 되어가면서 서정적인 〈전화카드 한장〉[147]이 노동자들을 위로했고 〈비정규직철폐연대가〉등의 노래로 투쟁을 전개했다.

광노문연은 각 장르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전개했다. 2006년에 실시한 노동자 문예교실 포스터를 보면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서 노래, 율동, 풍물, 영상, 악기(드럼, 기타, 하모니카) 등의 강좌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문화운동은 이처럼 광노문연과 같은 연합단체의 후원이 있었기에 지속가능했다.

---

146) 민중의 소리, "광주에서 울려퍼진 '양심수 전원석방' 목소리", 2005.08.09.

147) 노동자노래패 '꽃다지'의 대표곡 〈전화카드 한 장(조민하 글/곡)〉가사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땐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네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네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줄 것이 있노라고

〈사진 12, 광노문연의 2006년 노동자문예교실〉



2009년 4월 30일 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1지회장 박종태 추모집회에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고 박종태열사 정신계승! 대한통운 규탄대회' 가 열렸다. 이때에도 광노문연 소속 공단외관 노래패가 나서 노래공연을 펼쳤다. 특히 박종태 열사가 좋아했다는 말 '한 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아! 민주정부〉를 열창했다. 금호타이어 노래패 '터' 와 민중가수 박준[148]의 공연도 함께 있었다.

148) 민중가수 박준은 주로 노동운동가요를 많이 부르는 가수이다. 노동가요를 가장 많이 작곡한 김호철이 작곡한 노래를 주로 부른다.

〈사진 13, 2009년 5월 1일 제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광주전남 노동자 대회 공연장면〉



2009년 8월에 금호타이어가 733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하고 광주, 곡성, 평택 공장 3곳을 폐쇄를 단행하자 이에 항의해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광주역광장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광노문연 율동패 '화살'의 율동, 금호타이어 곡성지회 '터'와 노래패 '공단외곽'의 합동문예공연이 있었다. 또 지원에 나선 한국쓰리엠지회 율동패가 〈불나비〉, 〈내일의 노래〉에 맞춰 율동을 전개했다.[149] 광노문연의 노래패가 참여했던 집회와 공연의 현장을 다 정리할 수는 없으나 추적 가능한 공연은 다음과 같다:

5 · 18 민중항쟁 정신계승 21주년 전국순례단 한마당 및 전국노동자 문화제(2001.05.19., 조선대 대운동장), 광산구 작은음악회(2002.07.27., 민주노동당 광산지구당 운남신가분회와 광노문연 주관), 로켓트 해고자복직투쟁 공연(2008.01.18.), 5 · 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오월전국노동자문화제(2003.05.18. 도청앞 특설무대), 5 · 18민중항쟁 31주년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2011.05.16.), 6 · 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2006.06.15., 조선대 1 · 8노천극장), 광노문연 노래패 반주단 공연(2006.12.16.), 오감분출1번지(2007.05.16., 2008.05.24.), 전남대병원지부 조정신청결의대회(2010.06.29.)

149) 아고라, "이명박식 정리 해고 제2의 쌍차를 부른다", 2009.08.28.

⑧ 노래패가 조직되지 않은 노조원들의 노동운동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체와 공기업 곳곳에서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전개하지만 문화패를 만들 여력이 없는 노조가 더 많다. 그렇더라도 이미 문화운동 혹은 노래운동이 자리 잡은 이 시대에는 노래를 운동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하나의 경우가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의 무기계약직을 위한 투쟁이 있다. 5개 구청에 근무하는 상용직(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들은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에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초대 위원장인 나용엽(광산구청소속)을 중심으로 임금투쟁, 단체협약교섭 등의 투쟁을 진행할 때면 투쟁과정의 절반이 민중가요를 부르는 것이라고 진술한다.[150] 〈파업가〉, 〈연대투쟁가〉, 〈단결투쟁가〉, 〈동지가〉, 〈공공연맹가〉, 〈또다시 앞으로〉, 〈불나비〉, 〈민주노총가〉 등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2003년 6월 20일경 단체협약교섭에 들어간 노조는 30회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전 파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파업가〉를 제창했다. 7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노조원들은 나주시장[151]의 강경대응으로 조합원들이 해고되자 7월말 파업을 중지하고 재협상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은 진전이 없이 11월에 재파업에 들어갔으나 지친 조합원들의 의기소침한 태도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나용엽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갔다. 나위원장의 단식으로 다시 힘을 모은 조합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투쟁을 지속했고, 그 노래소리는 단식하는 위원장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회상한다. 나용엽은 노래가 단결과 교육의 수단이며 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평가한다.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은 꾸준한 노조활동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위치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5) 그 외의 노래운동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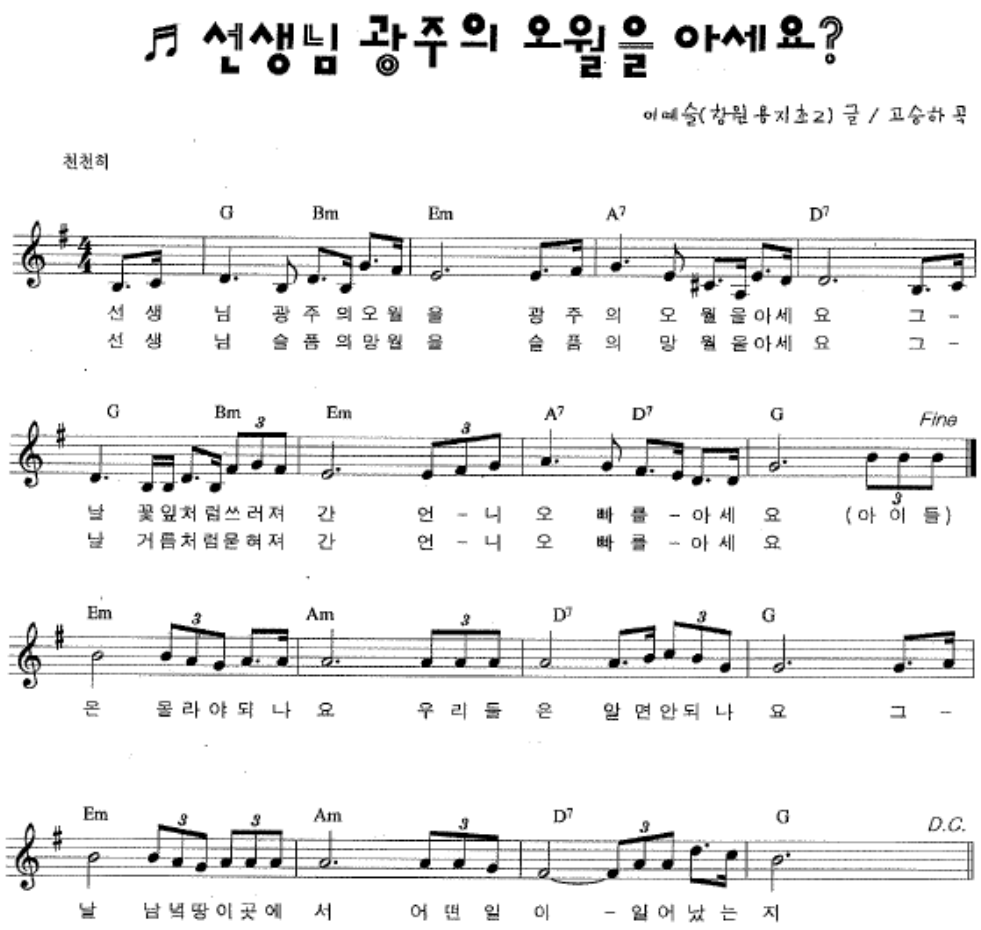
① '아름나라' 어린이 노래운동

2004년 5월 18일 제24주년 5·18민중항쟁의 기념식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면서 광주시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지만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서 5월을 노래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소속 아름나라 어린이 예술단이 〈선생님, 광주의 5월을 아세요〉, 〈금남로〉라는 두곡의 노래로 이 날을 기념한 것이다. 〈선생님, 광주의 5월을 아세요〉의 가사는 창원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이예슬이 썼고 아름나라 단장 고승하가 곡을

150) 나용엽 인터뷰, 2014.08.06.
151) 당시 나주시장은 신정훈이었다.

붙였다. 가사의 성숙한 어휘로 보았을 때 아마도 어른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간 듯하다. 하지만 어린이의 해맑은 목소리로 광주의 오월을 노래할 때 기념식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흐르는 눈물을 찍어내기 바빴다. 어린이가 보고 느꼈던 5월은 다음과 같았다.

〈악보 12, 선생님 광주의 오월을 아세요?〉[152]



1989년 10월 경남의 도시 마산에서 시작된 '아름나라 어린이 예술단'의 활동은 창원, 진해, 김해, 사천, 남해,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으로 뻗어 나갔고 광주에도 싹을 내렸다. 1998년 12월 5일 어린이 신문 '굴렁쇠'와 참교육학부모회가 경남 아름나라를 초청하여 광주교육대학교 강당에서 노래공연을 가졌고, 공연을 관람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움직여 1999년 초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152) 고승하, 「아름나라 노래세상」, 지식산업사, 96쪽.

회' 광주지부에 '아름나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광주의 아름나라는 다시 서구 아름나라, 북구 아름나라, 전원어린이집 아름나라 등 3개 단위지부에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153]

아름나라의 주요활동은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쓴 글 혹은 시에 곡을 붙여 자신들이 노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즐길 줄 아는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자는 어린이 문화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단체에 소속한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글로 쓰는 연습을 한다. 또 자신들이 쓴 글로 가사삼아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강령은 어린이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가정과 사회를 정직하게 표현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이 어린이 노래운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정과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두는 것이다. 아름나라 단원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여러 문화운동의 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광주에서는 가장 큰 문화운동의 장이 된 5·18 기념행사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1999년에 조직된 광주 '아름나라'는 "광주민중항쟁19주년 열 번째 거리공연"의 무대에서 전국어린이노래단 '아름나라'의 이름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2001년에는 김준태의 시에 노래를 붙인 동요 〈금남로〉를 '아름나라' 어린이 예술단이 부르면서 제21주년 전야제문을 열렸다. 〈금남로〉외에도 아이들이 추구하는 맑고 깨끗한 세상을 기원하는 〈사람 사는 나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통일조롱박〉 등 총 3곡을 불렀다. 이 외에도 2000년에는 제11회 추모거리음악제 "민중가요 100선", 11월 1~4일 전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제1회 광주인권문화제, 12월 10일에 있었던 천주교 광주정평위 제2회 인권문화제에도 참여하여 '어린이가 꿈꾸는 나라'를 노래로 알렸다. 2002년에도 5·18민중항쟁 22주년 거리음악제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놀이패 신명의 창단 20주년 축하행사에 참여하였다. 7월 24일 북구 서산동민 한마당, 8월 '무등산 풍경소리', 운남동 풍영정2공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도 등장했었다. 2003년에는 지리산에서 열린 지리산평화결사대회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생각하는 평화를 노래하고 5월 25일 제23회 기념 항쟁 마당극제에 참가했다. 2004년에는 수능시험 부정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었을 때 전교조 광주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수능반대, 대학서열화 폐지를 외치는 곳에 함께하여 노래를 불렀다. 2006년 6월 17일에는 구도청 앞 민주의 종 공원에서 북녘어린이 돕기 '아름다운 장터'가 열리는 곳에서 아름나라 예술단의 마술공연이 있었다. 2007년 4월 11일 무등산 자락에서 있었던 '풍경소리'[154]에도 출연하여 순수하게 자라고 있는 아름나라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08년 2월 21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에

153) 광주일보, '새싹들이 노래한 "금남로"', 2001.05.18.

154)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이 주최하지만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등의 많은 사회, 문화단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해가는 시민음악회이다. 광주일보, "50회 맞는 '무등산 풍경소리'", 2007.04.11.

참여하여 〈안돼요, 싫어요〉 등의 성폭력예방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2012년 '무등산 풍경소리' 100회 기념공연에도 첫 무대를 꾸몄다.

다음은 아름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승하가 지은 동요 〈부메랑이 되어〉이다.

부메랑이 되어[155]

고승하 글, 곡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약한 친구를 못살게 굴지마라
매 맞는 친굴보고
못본 척 하지마라
잠든 척 하지마라
부메랑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너에게 돌아온다
부메랑이 되어

엄마 난닝구[156]

배한권 시(경북 경산초6), 고승하 곡

작은 누나가 엄마보고
엄마 난닝구가 다 떨어졌다 한개 사이소한다
엄마는 옷입으마 안보인다고 떨어졌는 것 그대로 입는다
난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대지비만하게 뚫려있다. 뚫려져 있다.
아부지는 그걸보고 엄마 난닝구를 쭉쭉 짰다.
엄마는 와이카노한다
엄마는 너무 째모 걸레도 몬한다
두 번은 더 입을 수 있을낀데

155) 고승하, 81쪽.
156) 고승하, 114쪽.

발[157]

박세중 시(서산초, 광주어린이 신문 글마당에서), 고승하 곡

1. 고린내 나는 내 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발
나는 발을 잘 보호해야지, 발톱도 잘라줘야지
2.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게 도와주는 발
나는 발을 잘 씻어줘야지 귀여운 나의 발

〈부메랑〉은 학교에서 일고 있는 일명 '왕따' 문화를 배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노래이다. 〈엄마 난닝구〉는 엄마의 '지리리 궁상맞은' 절약을 보고 만든 노래이다. 어린이의 눈에도 그런 모습은 안타까운 것이다. 〈발〉은 광주 어린이가 쓴 노래로 눈길을 받지 못하는 신체를 새삼 들여다보고 감사하며 관리를 잘 하겠다는 순수한 노래로 '청결'을 마음에 품고 한 노래이다. 아마도 엄마에게 발 씻지 않는다고 몇 차례 혼나고 난 후 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썼을 것이다. 어린이가 썼지만 청결을 교육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들의 가사만 봐도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정, 건강한 어린이 정신세계 등 어린이 예술단 아름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아름나라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함께한다. 처음 시작이 될 때도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자녀들과 시작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매우 천진난만하고 어린이의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내어 어른들에게 알려준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에 해당되는 어린이단원들이 현재 참여하는 여러 운동의 현장을 찾을 때, 정말 자신들의 의지도 고려되어지고 있는지, 자신들이 참가하고 있는 공연이나 운동의 의미는 알고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매우 바람직한 어린이 음악운동이기는 하지만 '아름나라' 음악운동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 합창단이 자발적인 음악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② 노래를 사랑하는 빛고을 청년연대 노래단 '청춘의 도시'

1999년 4월에 창립된 '청춘의 도시'는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소속의 노래단이다. 남총련소속의 '한반도'가 학생들의 전문노래단이라면 '청춘의 도시'는 학교 밖 청년들의 전문노래단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일하며 조직하고, 투쟁하며 노래하는 청년노래단'이라고 소개한다. 광주, 전남지역 청년들의 연대기구인 민족통일 광주전남 청년연대의 소속조직으로 '노래를 사랑하는 빛고을 청년연대'에서 만든 노래단이다. 학생시절 '햇소리', '함성' 등의 대학노래패 소속이었거나 가톨

157) 고승하, 72쪽.

릭 청년회 노래패 '소리', 겨레사랑 청년회 노래마당 '푸른소리', 혹은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 등에서 활동하던 단원들이 청년이 되어 전문적인 노래운동을 전개하고자 만들었다. 단위노래패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다. 노래단 '청춘의 도시'는 공연, 연행은 물론 창작까지 범위를 넓혔다. 발족할 때에는 1기로 김현성, 고금주, 류의남, 박철민, 박현정, 양정화, 장이슬(장세레나)로 시작을 했고 후에 류영미, 정양욱, 신희경, 오영도, 이정희, 천기백(이민경), 이시은, 기춘희, 신유경 등이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목표가 전문적 노래운동이었다는 것은 이 단원들의 활동을 추적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전남대 중앙노래패 햇소리 출신으로 류의남(89학번), 기춘희(96학번)가 있다. 신희경의 경우는 전남대 자연과학대 노래패로 활동하다가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에 합류하여 활동하면서 '청춘의 도시'에 입단했다. 천기백 또한 조선대 노래패 '함성' 출신으로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에 입단하여 활동하면서 전국 보급곡 〈새물〉을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다. 양정화는 겨레사랑청년회의 '노래를 사랑하는 빛고을 청년연대' 회원으로서 '청춘의 도시'에 1기로 입단했다. 이와 같이 이들은 노래단 '청춘의 도시' 이전에 광주에서 이미 음악운동에 참여했던 전문노래꾼들이거나 노래창작편곡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당연히 이들의 활동은 공연 외에도 창작과 편곡은 물론, 전문가로서 아마추어 노래패들의 수련회에도 참여하여 지도하거나 그들의 공연을 지원했다. 그들의 활동지향점은 공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담겨야 진정한 민중가요'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를 바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청춘의 도시'가 창단되었던 1999년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정책의 영향으로 통일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2000년 12월 16일 푸른마음 소극장에서 열린 창작곡 발표회의 작품들이나 2001년에 발매한 앨범에 실린 노래는 당시의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그리고 이 노래단의 지향점이 알려준다. 창작곡으로는 〈청년출정가〉, 〈일심단결가(박종화곡)〉, 〈널 위한 마음(박종화곡)〉 등이 있었고 북한에서 들어온 노래도 공연에 포함시켰다. 2001년에 발매한 첫 앨범에 실린 노래들이다.

〈농민의 노래〉, 〈전남빨치산의 노래〉[158], 〈청년진달래〉, 〈통일세대로 살아보자〉, 〈유언〉, 〈내사는 세상〉, 〈강〉, 〈달려가네〉, 〈오직한길〉, 〈신념의 강자에게 영광 드리리〉[159] 〈민중연대 투쟁가〉, 〈아 연방통일조국〉, 〈그런 만큼〉[160] 〈한청 진군가〉[161]

---

158) 〈농민의 노래〉와 〈전남빨치산의 노래〉는 50년대 전라도 지역을 근거지로 반미항전을 했던 빨치산들이 불렀던 노래이다.

159) 〈오직한길〉, 〈신념의 강자에게 영광 드리리〉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자세를 반추해보는 청년의 다짐을 담은 노래이다.

160) 〈민중연대 투쟁가〉, 〈아 연방통일조국〉, 〈그런 만큼〉는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고 굳건한 연대투쟁으로 민주세상 통일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호소하는 노래들이다.

161) 〈한청 진군가〉는 자주민주 통일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청년의 기상을 노래한 곡으로 올해 출범한 한청 진군가 공모에 당선된 곡이다.

노래단 ‘청춘의 도시’가 참가한 집회나 문예공연은 다음과 같다.[162]

민노당과 광노문연이 주관하는 작은음악회에 출연(2002.07, 광주 ‘아름나라’와 함께 운남동 풍영정 2공원 야외무대), 첨단지구 쌍암공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일대축전에 축하노래공연(2002.08.18.), “주권회복 시도민 행동의 날” 공연(2002.12.31.), 민주노총 광주지부에서 개최하는 5·10 반미반전평화투쟁(“신자유주의 반대!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노동자·시민 통일한마당”, 2003.05.10., 여수 노동자문예패연합 율동패 ‘한백’, 광노문연 노래/율동패들과 공연), 5·18 국민대회의 문예공연(2003.05.18., 도청 앞 광장, 나주여성농민회 노래패 논두렁밭두렁,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 춤패 ‘출’, 박준 등과 공연), 전교조 광주지부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촛불문화제(2003.10.08., 충장로에서 어린이 노래단 ‘아름나라’와 함께 참가하여 공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집회(2004.03.12., 〈다시 떠나는 날〉, 〈한민자 블루스〉, 〈일어나라 일어나〉를 연주, 청소년 댄스팀 ‘천지’의 노래와 율동, 범능스님의 〈푸른 학으로〉, 〈의연한 산아〉 연주), 인권평화 콘서트 “The People” 광주여, 평화의 노래여!(2004.10.08.), 5·18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오월전국노동자대회 및 노동자 문화제(2004.05.15.),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3차 집중투쟁과 문화제(2005.04.18.), 거리공연 “오월의 노래, 평화의 노래”(2007.05.19.), “4.9 희망을 찍어요” 투표독려공연(2008.04.06.), 현대차판매 노조 수련회(2009.04.17.),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북한영화음악콘서트(2008.06.13.), 119주년 노동절 광주전남 노동자대회 참가(2009.05.01.), 대한통운 박종태 열사 2차 추모대회(2009.05.10.), 민생회복 민주수호 이명박퇴진 광주전남시국대회(2009.07.18.),

2007년에는 ‘청춘의 도시’ 1.5집 앨범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노래음반은 일반적으로 10여곡이 넘게 포함되는데 6곡의 노래를 실을 수밖에 없어 1.5집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2007년은 노무현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며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이슈가 되던 해이다. ‘신정아’ 파문이 일면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며, 외국인 100만 시대, 혹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기였다. 2년 이상 비정규직에 고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계약기간만료 전 고용자들의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법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했고, FTA가 체결되면 한국 경제가 미국에 종속 될 것이라는 논리로 FTA체결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의 사회문제를 ‘청춘의 도시’는 앨범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젊은 세대가 평소 생활하면서 부를 수 있는 밝고 신나는 노래와 함께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미국에 대한 문제, 통일, 주한미군 문제 등을 소재로 삼았다. 한총련 보급곡 〈새물〉을 작곡했던 천기백이 작곡한 타이틀곡 〈길〉은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을 뛰어넘고 땀방울을 흘리며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 가자’

162) 이들이 참가한 공연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서는 추적가능한 집회, 공연만을 기록한다.

라는 내용이다.[163] 앨범에 실린 노래는 〈길〉 외에도 〈믿어요〉, 〈됐거든 나가버려〉, 〈다짐〉, 〈전진 앞으로〉, 〈보고 싶었어요〉가 실려 있다.

2009년 4월 30일에는 옛 도청을 철거하겠다는 공권력에 항의하며 '도청의 원형보존'을 위한 청년문화제 "오월의 노래"를 개최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중가요 〈광주출정가〉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5·18유족회, 부상자회 등 5월단체 소속 농성자들과 남청회원들, 광주전남 아고라 회원들과 로케트 해고자들이 함께 했으며 광주청년 봉사모임 '깍지'에서 준비한 주먹밥 나누기'로 시작하여 푸른청년회의 공연, 남청 풍물패, 남청 율동패 등과 연합 문예공연을 펼쳤다. 이처럼 남청노래단 '청춘의 도시'는 실천하는 민중가수들로서 노래와 운동이 필요한 현장에는 언제든 달려가 시민과 노동자, 다양한 이슈의 농성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노래운동을 펼쳤다.

(6) 광주를 찾는 일본 '우타고에(うたごえ, 歌聲) 합창단'과 '일어서라(いろそら) 합창단'

1999년 5월 17일 전야제에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이 출연하여 〈아침이슬〉을 부르며 광주와의 연대를 표명했다.[164] 이 후로 이들은 지금까지 16년째 광주를 방문하여 5월을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일본 '우타고에' 운동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평화운동을 지속하여온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운동이다. 1948년 2월 10일 세키 아키코의 지도 아래 '우타고에' 중앙합창단의 창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70년과 1972년에 오키나와 반환의 국민적 바람을 주제로 한 가극 「오키나와」는 전국 60개의 무대에 올려 졌고, 80년대에는 반핵,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재 '우타고에' 운동은 평화를 넘어 여성, 장애자, 복지, 청소년, 노동자, 시민운동 등 여러 분야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전쟁 포기 헌법 9조 지키기'를 호소해오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합창제전은 1200개 지역 우타고에 합창단 가운데 평균 400여개팀, 2만 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행사이다.

1999년부터 몇몇 합창단원들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광주를 방문하여 5·18민중항쟁 전야제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인천의 문화재단과 교류를 시작해 지금은 인천평화창작가요제 등에 참여하면서 노래를 통한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

163) 〈길〉 가사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길 희망을 향해 이 길을 걸어가
봄날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련을 헤치는 다부짐으로
때로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며 새 길을 만들고
붉은 태양에 뜨거워진 우리를 본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의 바램을 한 걸음 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땀방울 뿌리며 한 걸음 더
희망 한가득 품에 안고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험난한 길 바로 우리의 길이다.

164) 한겨레신문, "종일 흐느낀 '5·18'", 1999.05.19.

현재는 5 · 18민중항쟁 전야제 외에도 광주지역의 여러 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2년 5월 15일에는 우타고에 합창단이 광주 신광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특별 공연을 갖기도 했다. 그들은 〈우리들의 실크로드〉, 〈히로시마〉, 〈No Pasaran〉 등 일본노래를 공연하고 신광중학생들은 근로정신대 문제를 담은 노래 〈파이팅 용기를 내고〉를 불렀다. 특히 야마가미 시게노리가 1999년 처음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5 · 18민중항쟁의 사실을 전해 듣고 작곡한 〈아이고, 광주!〉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연했다. 야마가미 시게노리는 히로시마에서 살고 있는 철도공무원으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피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반전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단원이다. 그가 광주를 오기위해서는 6시간이 걸리는 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그리고 인천을 거쳐 광주까지 19시간이 소요되지만 해마다 찾고 있다.

이렇게 맺어진 우타고에와 광주의 인연은 뮤지컬 「화려한 휴가」로 더욱 공고히 맺어지게 되었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의 공연은 광주를 찾아와 5 · 18기념과 공연을 해오던 동경 우타고에 합창단 단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었다. 마침내 2013년 5월 31일과 6월 1일에 동경 티아라 고토 공연장에서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공연되었다. 이 뮤지컬 팀을 초청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왔던 우타고에 합창단 단원들과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보고 한국의 민중가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경의 시민들이 새롭게 모여 또 하나의 합창단을 조직했다. 합창단의 이름도 처음부터 한국말로 지었다. 한류열풍의 덕도 보았을 것이다. '일어서라합창단(いろそら合唱團)'이다. 이들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5월 19일에는 민예총 광주지부와 5 · 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2014 국제교류음악회를 기획해 일어서라 합창단[165], 광산구립합창단, 그리고 민중가수 주하주, 정용주 등이 함께하는 국제교류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마지막 순서에는 출연진 모두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국말로 합창하는 무대를 가졌다.[166] 12월 24일에는 일어서라 합창단과의 교류차원에서 광산구립합창단이 동경을 방문하여 일어서라합창단이 주가 되어 개최한 JAL 부당해고 철회 문화공연에 참여하였다. 광주를 방문하는 우타고에 합창단원들은 계속되는 광주의 방문을 통해 한국의 민중가요를 익힐 뿐만 아니라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기도 한다.

---

165) 프로그램에도 우타고에 합창단이라고 나갔으나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いろそろ合唱團'이었다.
166) 시민의 소리,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하나 된 '한국과 일본', 시민의 소리, 2014.05.22.

〈사진 14, 뮤지컬 「화려한 휴가」의 일본공연 포스터〉



〈사진 15, 임을 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는 우타고에 합창단과 광산구립합창단〉[167]



(6)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의 활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 민예총)은 1988년 12월 23일 고은, 백낙청, 이건용, 임진택 등이 1987년 6월항쟁이후 확산된 민주화운동에 부응하여 민족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운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주로 진보적인 예술인들이 참여하였다. 1993년 사단법인화를 추진하였고 1994년부터 조직이 각 지역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광주에는 1994년 9월 30일 광주시지회가 창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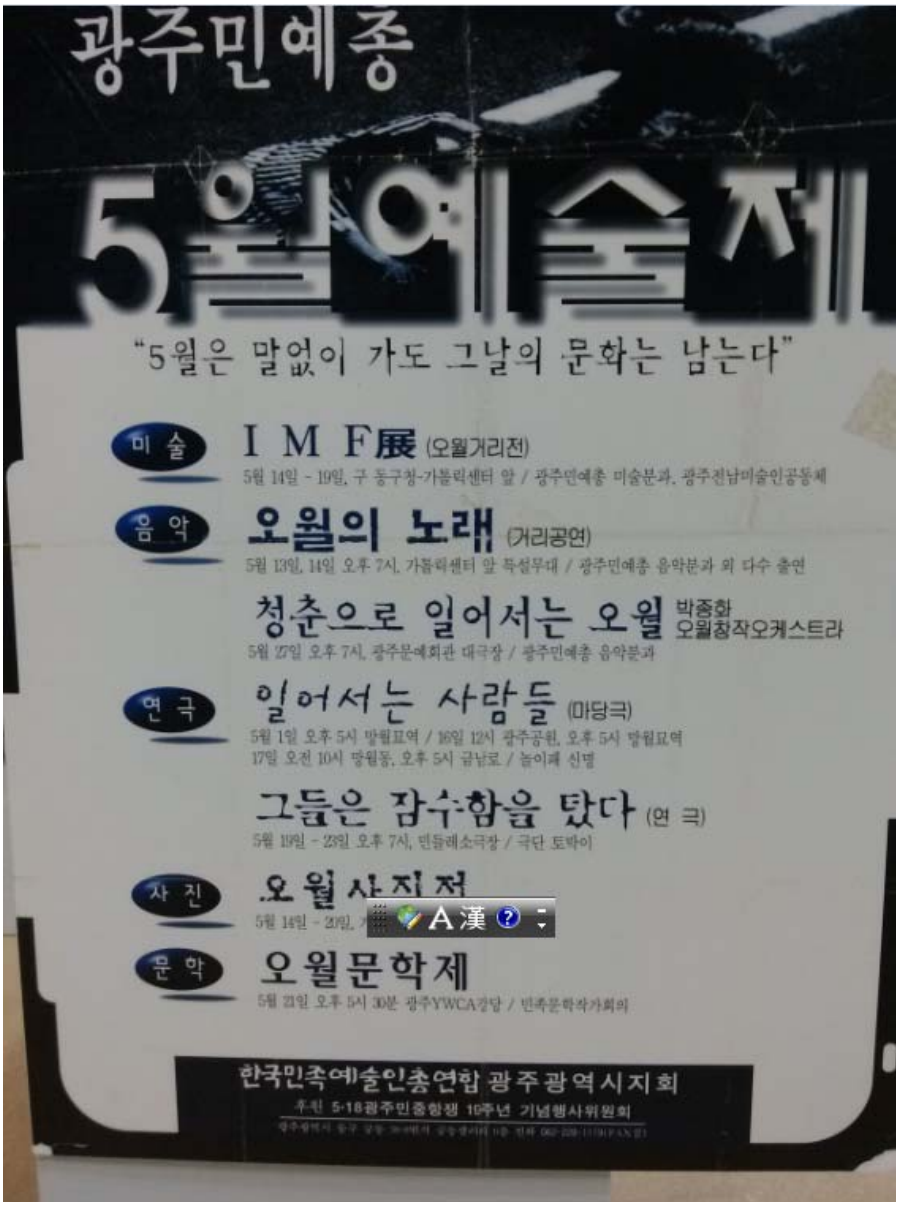
1998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의 주최로 제4회 광주문화예술큰잔치를 열었다. 3부로 구성하여 제1부는 얼쑤, 택견, 경당이 공연했고 제2부는 놀이패 '신명' 이 "천년의 꿈" 을 무대에 올렸다. 제3부가 노래공연으로 "희망을 위하여" 라는 주제아래 박문옥이 리더인 소리모아팀과 박종화, 김원중이 출연하였다.

1999년에는 민예총 광주지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해이다. "5월 예술제" 를 개최하여 미술분과에서는 IMF전, 음악분과에서는 '오월의 노래' 라는 주제로 거리공연과 박종화의 창작관현악작품 「청춘으로 일어서는 오월」 공연, 연극분과에서는 마당극「일어서는 사람들」, 사진분과에서는

167) 시민의 소리, "임을 위한 행진곡' 으로 하나 된 '한국과 일본' ", 2014.05.22.

‘오월사진전’, 문학분과에서는 ‘오월문학제’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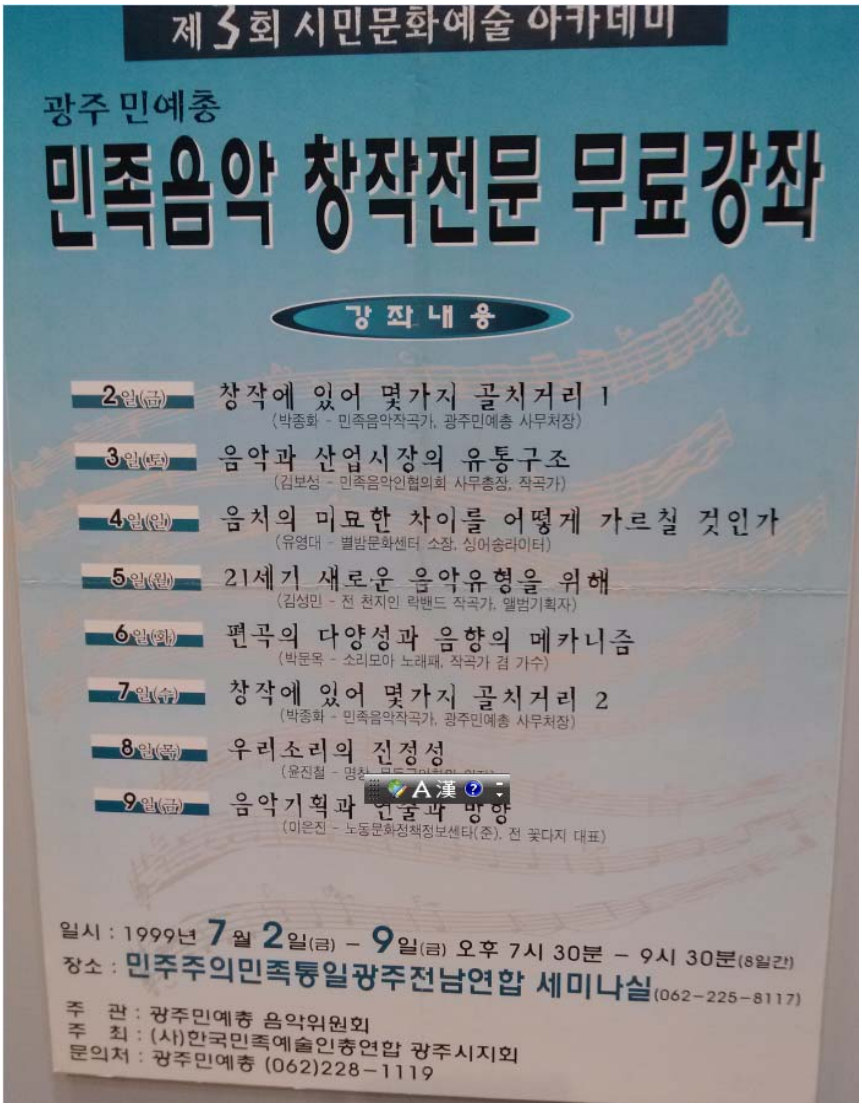
〈사진 16, 1999년 민예총 광주지회 ‘5월예술제’ 포스터〉



한국민예총의 활동으로 문예아카데미가 있다. 이 활동은 상설예술강좌로 자리잡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활동을 모델삼아 민예총 광주지회도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를 열었다. 1999년의 경우 음악

위원회는 7월 2일부터 9일까지 제3회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민족음악 창작전문 무료강좌를 실시했다. 노래운동의 현장에서는 항상 시기와 사안에 적절한 노래들이 필요한 반면 노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창작인은 매우 한정되어있었다.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던 광주에서 노래창작의 필요성은 절실했고 이러한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행사로 결론지어졌다. 매우 실질적인 내용의 강좌가 진행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포스터에 실려 있다.

〈사진 17, 민예총 광주지회의 '제3회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포스터〉



이 프로그램에 강사는 박종화, 김보성, 유영대, 김성민, 박문옥, 윤진철, 이은진으로 광주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민중가수들과 민중가요 작곡가, 그리고 판소리명창이었다. 그들은 실제 공연이나 앨범을 기획하는 현장의 사람들로서의 경험과 음악을 전혀 몰랐던 사람으로서 작곡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눴다, 그 강연에 수강생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창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마지막까지 열띤 강좌가 되었다.[168] 이러한 프로그램은 파급효과가 있었다. 이 후로 크고 작은 창작아카데미가 열렸고 노래패에 속했던 노래꾼 혹은 연주인들이 실제로 민중가요를 창작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0년은 5·18이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국 민예총은 더 나아가 '5·18 20주년 기념 5월문화예술제'를 전국 순회공연 및 전시를 기획했다. 5월 3일부터 울산을 시작으로 대구, 속초문예회관 대강당, 대전역 광장, 원주 치악예술관 야외무대, 청주상당공원, 인천의 인하대학교 오남소강당, 춘천의 공지천 야외음악당, 수원의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과 올림픽 기념관 소공연장, 안산의 올림픽기념관 등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5·18 20돌 광주사진전, 신명, 토박이 등 연극공연, 희망새, 꽃다지, 노래마을, 김원중 등의 노래공연, 풍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169] 가장 빛나는 행사로는 민예총과 함께 한국민족음악인협회와 서울시 교향악단이 함께 주관하여 '5·18 20주기 기념 음악제'를 개최하였는데 광주의 5·18을 음악으로 가장먼저 형상화한 윤이상의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를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5월 19일)과 광주 망월동 신묘역 특설무대(5월 20일)에서 연주한 것이다. 강준일의 만가-상여 나가는 소리와 비니야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D단조 Op. 22도 함께 연주되었다.

또 하나의 큰 행사로는 국제음악제 'Human Voice'가 있었다. 국내가수 21명, 국외가수 91명, 스텝과 통역 12명 등 총 121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광주에 국한된 광주민중항쟁의 행사가 전국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인권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는 음악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광주의 5·18민중항쟁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꿈꾸던 광주시민들의 소원이 결국 기념행사위원회와 민예총의 도움으로 20주년을 기점으로 실현되었다.[170] 국내에서는 안치환과 자유(6인), 이정열, 홍순관, 장윤미, 김원중, 박문옥, 프로젝트그룹 '삶·뜻·소리(10인)'가 출연했고 국외에서는 일본 우타고에(노래소리, 타카하시 마사시, 고바야시 히카루, 야마다 히로끼 등 86명), 누에바 칸시온(새로운 노래운동), 델포르 솜브라(아르헨티나), 가비노 파로마레스(멕시코), 카르미나 카나비노(페루), 나우엘 소베라네(멕시코), 그리고 라몬 산체(멕시코)가 출연했다. 국제음악제 Human Voice는 세계 각국에서 평화와 민주, 인권 등을 주제로 활동 중인 음악인들과 국내의 대표적인 민중가수들이 함께 한 최초의 공연으로서, 특히 국내에서는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남미의 노래운동 '누에바 칸시온'의 여러 가수들과 전후 50여 년간 반전, 평화의 메시지를 외쳐 온 일본의 '우타고에' 합창단이 함께 5·18의

168) 박종화 인터뷰, 2015.01.16.
169) 동아일보, "5·18 20돌기념 5월문화예술제 10개도시서 꽃피다", 2000.05.08.
170) 한겨레, "'광주' 10돌 예술제 열어", 민예총은 10년 전에도 '광주' 10돌 예술제를 기획한 적이 있었다. 1990.03.18.

의미를 기리는 뜻깊은 무대였다.[171]

민예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사로는 '2000 민족예술인한마당' 이 있다. 전국의 민족예술인들을 초청하여 5·18과 민족민중문화예술의 관계를 되짚고 장르간의 연대를 통해 민족문화예술을 확대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풍물패연합, 민족무예경당, 택견, 광주아름나라, 부산아름나라, 놀이패 신명, 놀이패 한두레, 풍물굿패 살판, 희망새, 김원중, 박문옥, 김가영, 류영대, 차소연 등 총 100여 명이 출연하여 공연을 펼쳤고 '2000 민족예술인 선언' 을 발표하였다.

망월동에서 개최된 '거리음악회' 와 관현악 '오월에서 통일로' 의 공연도 민예총 광주지부 음악분과에서 진행되었다.[172]

민예총 광주지회와 한국민족음악인협회에서는 5·18의 20주년을 맞는 2000년을 기념하여 '2000 님을 위한 행진곡' 을 기획하였다. 이는 타 지역에 5·18과 그 문화를 알리고자 특별히 전국순회공연으로 구상한 것이다. 광주의 노래일꾼들이 서울을 비롯해 대구, 수원, 안산, 울산, 원주, 인천, 청주, 춘천 등 10여개 도시에서 각 지역의 노래일꾼 혹은 노래패들과 협동하여 풍물판, 마당극, 민중가요, 록, 아름나라공연, 사진전시회, 연극,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18일 동안 개최하였다. 기다리는 행사가 아니라 찾아가는 행사로서 '광주의 오월' 을 전국에 알리려는 의도였다. 서울공연의 경우 17일 오후 7시 반에 광화문 앞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렸다. 동학농민전쟁, 4·3제주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 등 한국 근현대 민중항쟁사를 시와 노래, 영상, 춤 등으로 형상화하였다. 장사익, 정태춘, 이정열, 김영동과 세종문화회관 국악팀 등이 출연했다.[173]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민예총 풍물굿분과의 풍물굿패 '매구 소리광대' , 박창근, 김원중, 노래패 소리타래, 노래패 봉우리가 출연했다. 그 외에도 속초, 수원, 안산, 울산, 원주, 인천, 청주, 춘천 등지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그러나 행사의 의도와 규모에 비해 각 지역에 홍보가 불충분해 관객들을 많이 모으지 못해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주최하는 광주의 문화일꾼들에게는 광주의 5·18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174]

민예총 광주지회 음악위원회는 2006년 12월 18일에 "삶의 노래는 어딨나요?" 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기획·공연했다. 주로 광주에서 활동하는 민중가수들로 김원중, 류영대, 박문옥, 박종화, 임형선, 정용주, 주하주, 노래패 청춘의 도시, 프롤로그가 출연했고 초대손님(우정출연)으로 1980년대 광주의 민중가요계의 중심이었던 범능스님(정세현)과 '사람과 사람' , 안치환, 허브앙상블, 한반도 등이 함께했다.

---

171) 5·18민중항쟁 제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행사결과보고서, 2,000.

172) 거리음악회에 관련하여서는 1) 광주의 음악운동 : 5·18민중항쟁추모 "오월거리굿" 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고 관현악연주는 박종화의 노래운동부분에서 설명되었다.

173) 동아일보, "5·18기념 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광화문서 열려" , 2000.05.16.

174) 5·18민중항쟁 제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20주년 행사결과보고서, 2000.

민예총 광주지회에 설립되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단체가 하나의 조직 아래 모임으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도 있었고 전문적인 아카데미를 열기도 하고 중앙 문화패와의 교류도 많아졌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었다. 한국민예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로 편입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종 음악행사가 큰 조직 안으로 편입되면서 광주의 음악운동은 시들해진 듯 느껴진다. 아마도 조직의 보호를 받고 예산의 지원으로 오히려 운동성이 약화된 것 같다. 그 예로 거리음악제를 들 수 있다. 거리음악제는 가토릭 정평위와 광노모의 주관으로 진행되던 광주에서 가장 씩씩한 노래운동이었다. 그러다 민예총 광주지회로 그 주최가 바뀌었고 잠깐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더 큰 규모의 음악제로 자리를 내어주었고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이후로도 거리음악제와 비슷한 연주회는 민예총과 관련 없이 계속 만들어졌다 사라져갔다. 이는 열린공간의 거리음악제가 아직도 광주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마도 광주의 역사를 기억해야하는 한, 민주화와 항쟁의 도시로서 그 정체성을 보여줘야 하는 한, 문화중심도시로서, 앞으로도 '거리음악제'와 같은 운동성을 담보한 열린공간의 공연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5·18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음악회들

1989년 예술교양지 「객석」은 5월호에서 '광주항쟁, 한국예술사에 어떻게 수용되었나'라는 테마로 집중기획을 마련했다. 연구자들의 결론은 광주를 다룬 전문 음악인들의 작품은 매우 적은편이며 순수주의 의식으로 인해 창작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오월을 표현한 음악으로는 윤이상의 관현악곡 〈광주여 영원히〉외에 작곡가 이만방(숙명여대 교수)의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와 두 사람의 타악기주자를 위한 〈고백(85년 발표)〉, 그리고 앞으로 언급할 김광복의 국악곡을 꼽았다.[175] 이렇게 본다면 '거대한 주제' 대비 매우 저조한 작품생산인 셈이다. 그러니 1980년대에 5월을 주제로 하는 음악회 역시 많을 리가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광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광주의 5월을 주제로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을 조금 흘려보낸 뒤, 80년대 후반부터는 5월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 후로 광주에서 발표된 서양예술가곡으로 이민수의 〈이 오월에(이금자 시, 1981/1989)〉, 한만섭의 〈5·18애가(1992)〉, 윤대근의 〈망월동 연가(이지엽 시, 1994)〉, 김진선의 〈오월이 오면(윤영훈 시, 1998)〉, 김성훈의 〈신부머리에 고깔 쓰듯(김종 시, 1999)〉, 이은나의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김종 시, 1999)〉, 나은하의 〈그대의 하늘길(양성우 시, 2001)〉등이 있다. 관현악작품으로 정유하의 「Gwangju Uprising」이 있는데, 이는 작곡가가 겪은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을 미국에서 작곡해 광주에서 발표한 것이다. 1999년에 발표한 오페라로

175) 경향신문, 「光州」다룬 藝術작품 質·量 "빈곤"」, 1989.05.18.

김선철의 「무등둥둥」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5·18민중항쟁 직후 탄압시기로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있기까지(1980년 5월-1993년 5월) 5월 기념사업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민간단체주도로 전개되었다. 특별히 1989년은 5·18민중항쟁을 민간단체중심이나마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중요한 해였다. 한계레신문은 「광주항쟁 9돌 첫 공식 '오월제'」라는 제목으로 5월행사를 크게 다루었다. 앞서 밝힌 대로 김원중이 용감하게 충장로의 뒷골목에서 5월을 노래했고, 광주의 전남도청 부근 남도예술회관에서 '5월 음악제'가 열렸다. 김남주시인이 자작시 〈학살2〉를 낭송하는 동안 비장한 배경음악이 흘렀고 무대에 드리워진 스크린에는 5월 항쟁 당시의 자료사진들이 비춰지는 용감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나종영시인의 〈무등산〉이 낭독되었다. 판소리 마당사(祠) 〈무등진혼천비제막사 광여승가〉, 태평소 살풀이 공연과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고 김광복(전남대 국악과 교수)작·편곡의 「민중진혼을 위한 관현악」이 있었다.[176] 「민중진혼을 위한 관현악」은 80년 5월 세상을 떠난 넋을 달래고 산자를 위로하기 위한 음악으로 진도씻김굿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전남국악관현악단과 국악합창단, 그리고 두 독창자들에 의해 연주되었다.

1990년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음악, 연극, 미술, 문학행사를 한데 묶어 「5월항쟁 10주년 기념 민족예술 큰마당」을 개최해 광주의 5·18을 예술로 승화시켜주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투쟁위주로 전개되어온 5월행사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겠다는 기획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노래공연 「다시 서는 봄」, 미술전시회 「광주여 5월이여」, 문학과 노래의 밤 「민족의 문학 민중의 노래」, 연극 「점아점아 콩점아」, 창작판소리 「5월광주」 등의 행사이다. 특히 노래공연 「다시서는 봄」은 5일 이리(원광대 문화체육관), 6일 대구(경북대 대강당), 12일 부산(수산대 운동장), 13일 대전(한남대)에서 각각 열렸고 노래를찾는사람들, 예울림, 정태춘, 안치환 등이 출연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진 노래를 불렀다. 임진택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첫 번째 창작판소리 〈오월광주〉를 서울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2일부터 5일까지 4일에 걸쳐 공연하였다.[177]

1990년은 아직 공식적으로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이 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5월항쟁의 대규모 문화적 행사는 큰 용기가 필요한 전격적인 문화운동인 것이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에서는 이 문화공연을 크게 다루었다. 다음은 동아일보에 게재된 「5월항쟁10주년 기념 민족예술 큰마당」에 관한 신문기사이다.

---

176) 경향신문, 「光州國樂」 5·18 音樂祭, 1989.05.13. 동아일보, 광주항쟁 진혼음악제, 1989.05.13. 한겨레신문 "부끄러움 딛고 선 분노의 축제", 1989.05.16.

177) 경향신문, '오월光州' 예술로 기린다, 1990.05.01. 임진택은 소리꾼이면서 마당극 연출가이다.

〈사진 18, 1990년 5월15일에 동아일보, 「5월항쟁10주년 기념 민족예술 큰마당」〉



「光州의 魂」 예술로 피어난다

「時代의 고뇌」 歷史性확장 노력

5·18 10돌

80년5월 金準泰의 詩 抗爭다룬 첫 작품 기록

詩選集 7년만에 햇빛…장편소설 아직 안나와

「統一」과 연계 大衆속으로

民族춤 정립…형식은 허술

집단創作으로 현실 조명

민족문제 제기 「노래운동」 계기

不協和音으로 민주 독재 對比

尹伊桑씨 「光州여…」 李萬芳교수 「告白」

5월에 있었던 거리공연 외에도 1990년 11월 1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지역 청년연합회 소속 노래패 '소리'가 오후 2시, 5시 30분 두 차례에 결쳐 광주 학생회관에서 정기공연을 자졌다.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아래 분단과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노래 15곡이 불렸다.[178]

1991년 5월 광주 YMCA 체육관에서는 제4회 민족극한마당이 17일간 하루에 두 차례씩 공연을 펼쳤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민주연합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서울의 현장', '아리랑', '한두레', 부산의 '일터' 등 많은 민족극 단체들이 참가했다. 1990년에 서울에서 공연된 임진택의 창작판소리 〈5월光州〉도 무대에 올랐다.[179] 이 창작판소리는 후에 광주의 대표적인 소리꾼 윤진철이 전수하여 많은 공연을 소화했다. 그 중에는 임진택과 함께

178) 한겨레신문, 1990, 11, 10
179) 동아일보, '「5월광주」 예술로 되살린다', 1991.05.16.

합동공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5월光州〉의 윤진철류를 만들어 지금은 독자적인 공연을 갖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음악단체 '새마당'이 「서울의 봄」이라는 제목아래 심포지엄과 음악회를 열어 5·18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음악과 사회」로 노동은(목원대교수), 이철웅(경북대교수)이 음악과 사회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17일에는 정부기(중앙대)의 현악 4중주와 박창수의 〈진혼곡 2〉[180]가 발표되었다.

해외에서는 유럽에서 더 잘 알려진 윤이상이 1980년 5·18민중항쟁의 소식을 듣고 독일 쾰른의 WDR 라디오 방송국의 위촉으로 작곡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Exemplum, memoriam Kwangju)가 1981년 5월 8일 WDR 라디오 방송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그러나 1994년 9월 8일에야 예음문화재단의 주최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되었고 광주에서는 9월 13일-14일에 진행된 '윤이상음악제'에서 연주되었다. 작곡 후 14년만의 일이었다.

1994년에는 소리꾼 임진택이 다시 광주를 방문하여 창작판소리 「오월 광주」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이틀에 걸쳐 공연했다.

1995년 5월 21일 개최된 '5월 음악회'에서는 안치환과 송창식, 이선희, 지양길(광주대 교수), 광주 MBC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하여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광야에서〉, 〈오월의 햇살〉, 〈아름다운 강산〉,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민중·민족적인 노래로 광주의 5월을 기념했다.

1996년 KBS「열린 음악회」가 5·18민중항쟁 16주년과 조선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있었다. 이는 5·18기념재단(이사장 조비오 신부)의 요청이 크게 작용했다. 5·18기념재단은 열린 음악회 유치 요청서에서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5·18민주화운동이 진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 같다.....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열린 음악회를 광주에서 개최, 5·18기념행사를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181] 그러나 5월 14일 10만 여명이 조선대 운동장을 꽉 메우고 진행된 열린음악회는 대국민방영을 통해서 광주시민에게 깊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한마음이 된 참석자들의 노래 〈5월의 햇살〉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잘라내 버렸다. 더구나 초대인사로 5·18기념재단 이사장 조비오 신부의 광주정신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많은 부분 잘라버린 것이다.[182] 이 행사를 위해서 5·18민중항쟁 제16주년 기념행사위원회(위원장 강신석 목사)와 조선대는 각각 5백만원과 4천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한국방송공사에 지원했다고 한다.[183] 이때까지도 '광주의 5·18을 전국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였던 모양이다.

1997년에는 누리문화재단에서 제17주년 기념공연으로 '전월선·정태춘 통일음악회'를 개최했다. 전월선은 재일교포로 평양과 서울, 일본 등을 오가며 통일을 노래하는 정상급 오페라 프리마돈나

---

180) 박창수의 진혼곡2는 피아노 퍼포먼스로 80년 당시 민주화를 부르짖다 좌절된 '서울의 봄'을 형상화하고 있다.
181) 매일경제, "KBS 「열린음악회」 5월 광주 공연 추진", 1996.03.19.
182) 조비오 신부는 광주정신을 묻는 질문에 "518의 민족적 비극을 통해 민주화가 앞당겨졌고 역사 발전이 이뤄졌다. 이제는 온 국민이 광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버리고 화합해 광주정신이 통일성취에 밑거름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183) 한겨레신문, "알맹이 빠진 518기념음악회", 1996.05.21.

이다. 전월선은 〈하바네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등을 연주했고 정태춘과 함께 〈아침이슬〉, 〈고려산천 내 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등 민중과 민족을 떠올리는 사회성 짙은 노래를 불었다.

1990년대는 저항가요의 대안으로 록(Rock)이 등장한 시대이다. 그 결과 5·18민중항쟁의 기념행사에도 록이 상륙했다. 1998년 5월 16일에는 5·18민중항쟁 18주년 기념행사로 록페스티벌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개최했다. 당시에 인기 록가수들인 강산에, 김경호, 리아, 윤도현, 김종서 등이 출연해 젊은이들을 불러들였다. 2000년 5월 27일에는 5·18 20주년 기념행사의 폐막제 '록 2000', 2001년 8월 15일에는 5·18 'Rock 2001 페스티벌'이 연달아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Rock이라는 장르에서도 5월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작곡되고 연주되어 새로운 세대에 오월을 전하는 고무적인 현상이 되기도 했지만[184] 5월 행사로서의 록 페스티벌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메시지보다는 젊은이들의 자기발산에 충실한 음악무대가 되었고, 특히 2001년의 페스티벌에서는 '오월정신'과는 관계없는 국내 곡들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퇴폐적인 노래들이 계속 연주되면서 5월을 무색하게 했다. 5월을 기념하는 행사의 성공을 위해 집객효과가 있는 가수들을 부름으로 해서 많은 관중의 동원에는 성공했으나 행사의 내용은 점차 그 정신과 멀어져가는 현상들이 생긴 것이다.

1999년 빛소리 오페라단, 광주광역시, KBS광주방송국, 광주일보사의 공동주최로 5·18민중항쟁 19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무등둥둥」이 공연되었다. 시인 조태일과 김준태의 대본에 김선철이 작곡한 「무등둥둥」은 1980년의 5·18민중항쟁을 재현하고 '오월에서 통일'로 결론을 맺는 기념비적인 오월주제 창작품이다. '무등둥둥'이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무등의 의미에 북소리처럼 널리 퍼져가라는 '둥둥'의 의성어를 합성한 것이다. 1980년 5월 임신 8개월의 최미애씨가 남편을 마중 나갔다 목숨을 잃은 사건을 토대로 작품은 전개된다. 오페라「무등둥둥」은 2000년과 2001년까지 서울과 광주에서 네 차례 공연되었고, 2010년에 다시 30주년기념으로 (사)강숙자오페라라인이 14회 정기연주회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다시 무대에 올랐다.

2000년에는 5·18민중항쟁 20돌을 맞아 대대적인 음악행사들이 있었다. 전국순회공연 '2000 임을 위한 행진곡'[185], 망월동 거리음악회, '통일음악회', 5·18 20주년 기념음악회 '광주여 영원히', 국제음악제 'Human Voice', 관현악 '오월에서 통일로'가 그것들이다.

'통일음악회'는 5·18민중항쟁 제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주관으로 광주를 벗어나 임진각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의 주제는 '평화와 인권'이었다. 두개의 영상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 "민중의 메아리 5·18 그리고 2000"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를 향해 투쟁했던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현대사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세미-다큐멘터리이다. 또 하나의 영상 "5·18과 분단의 역사적인

184) 블랙홀의 〈마지막 편지〉, 천지인의 〈학살〉, 최소리의 〈5월〉 등이 있다.
185) '2000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 '오월에서 통일로'은 민예총 광주지부의 활동에 관한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했다.

상처와 아픔" 은 오월항쟁과 분단의 역사적인 상처와 아픔을 재조명하고 민족적인 화합의 극치인 통일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힘겨운 노력을 담아 상영하였다. 기성세대 가수들과 신세대 가수들[186],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 대화합 무대를 연출하였다.

광주지역 소리꾼 윤진철도 2000년에 임진택의 창작판소리 「오월광주」를 임진택과 함께 4일간 번갈아가면서 공연하였다.

2001년에는 5 · 18기념문화관이 개관했다. 문화센터는 민주홀, 대동홀, 리셉션홀로 구성되었다. 대연장으로 802석을 갖춘 민주홀은 주로 공연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2층 발코니형 공간이고 285석을 갖춘 대동홀은 소규모 공연과 강연회, 국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5 · 18기념문화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공연이 5월 12일 민주홀에서 있었다. 민중가요와 국악인의 공연이었다. 윤진철의 판소리공연, 안치환과 자유, 박문옥, 김원중이 〈희망은 있다〉, 〈목련이 진들〉, 〈오월의 노래 1〉,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민중가요를 불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오월과 관련된 음악회가 단순히 5월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월의 정신적 유산인 평화, 인권, 나눔 등을 주제로 연주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정서적으로 조금 편안해지고 5 · 18정신에 진전이 있는 문화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2002년에는 22주년 기념행사로서 부상자회 회원의 자녀 2인을 포함한 한양대동문 가야금 연주단의 초청연주회가 있었다. 가야금 산조, 병창, 가야금 3중주곡, 독주곡, 2중주곡 등과 〈오월의 노래 2〉,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했다. 5 · 18기념재단에서 주관하고 KBS광주방송총국에서 후원한 2002년 11월 29일에 있었던 '시와 노래가 있는 5 · 18음악회' 는 광주와 5월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시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연주회였다. 시인 김용택, 안도현이 출연하여 시를 낭송하고 유익종, 김원중, 백창우, 김현성, 이수진이 시인의 시에 붙인 노래들을 불렀다. 이와 같이 시와 노래가 하나가되는 연주회를 '포엠 콘서트' 라 하는데 일방적인 노래 혹은 악기의 연주가 아닌, 시에 대한 시인의 설명과 광주와의 인연, 시와 노래의 만남, 노래에 대한 설명들이 함께해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편안한 연주회였다.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도 2003년 이래로 꾸준히 5월음악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2003년 5월 10일에 있었던 '오월음악회' 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마련을 위한 연주회였다. 수익금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로 제공되었다. 섭섭한 것은 공연의 내용이 5월정신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선곡이었다. 2004년 5월 4일에는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이었고, 2005년에는 아시아 지진 피해지역지원을 위한 공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은 제3세계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을 개최해 스리랑카, 인도의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스리랑카 대학생, 캄보디아 고아원, 중국 학생, 인도고아원 등을 지원하는데 수익금을 사용했다. 2010년에는 난민보호 기금마련을 위해서, 2011년에는 일본 지진피해복구 기금마련을 위한 5월음악회를 개최했다. 2014년에는 특별한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

186) 임창정, 이선희, 조영남, 샤크라, 인순이, 백지영, 정태춘, 박은옥, 조영수, 현대음악 트리오, 유태평양, 6인 코러스 합창단, 34인조 오케스트라, 어린이 메신저 등이 출연하였다.

제12회 오월음악회의 주제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나라 사랑' 을 주제로 한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러시아 등 세계 10개국의 민중가요와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작품을 연주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Robert Grotjohn(국제교류센터 이사)과 신경구(전 전남대 영문과 교수)가 협력해 영어로 번역해 중창곡과 합창곡으로 편곡해 무대에 선보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시민군노래였다가 국가가 된 〈라 마르세예즈〉, 호주의 역사와 다문화적 전통을 담고 있는 〈I am Australian〉, 미국 노예해방주의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진곡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등 민중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세계 각곡의 음악이 소개되었다.[187] 참으로 의미있는 오월음악회였다.

서양음악작곡가들의 사회참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7회 광주작곡가회 정기작곡발표회는 조금 이색적이다. 5·18민중항쟁 23주년 기념으로 "김남주[188] 시에 의한 현악4중주와 인성을 위하여" 라는 부제를 단 작곡발표회에 광주작곡가회 회원인 안만석, 김선철, 최영철, 이진우, 신동민, 윤대근이 작품을 발표했다. 작곡가 안만석은 신디사이저와 인성을 위하여 작곡한 〈철창에 기대어〉를 발표했고 현악사중주와 인성을 위한 작품은 김선철의 〈학살〉, 최영철의 〈자유〉, 이진우의 〈편지〉, 신동민의 〈권력의 담〉, 윤대근의 〈이 세상에〉가 연주되었다.

2004년 12월 3일 5·18송년음악회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는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음악회였다. 시인 고재종과 흙피리를 부는 정인봉, 이정열과 손병휘, 한영애가 출연한 이 음악회는 직접적인 5월을 노래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5월정신을 새겨보고 느껴보는 의미의 음악회였다.

5·18 기념음악회는 이 지역 민중가수들의 활약이 크다. 오월정신을 고수하고 계승하려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순수한 오월운동의 활동가로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5·18의 진상이 알려지고 5월 18일이 국가 기념일이 되면서 기념행사들은 그 순수성과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5·18기념행사위원회에서 행사를 대형화 시키면서 행사의 성공을 위해 중앙의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들을 초대하여 5월과 관련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사의도와 관련 없는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그 의미는 흐려지고 경비는 많이 소요되는 경우를 본다. 어려웠던 시절, 그 누구도 5월을 입에 담기 어려워하던 시절, 이 지역의 민중가수들은 뒷덜미가 잡아당기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도 광주의 정신을 담아 진상규명과 광주의 명예복권을 노래했다. 이제 5월을 기념하는 것이 양성화되고 지원받게 되니 광주의 노래꾼들을 뒷전에 두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다.

2005년에는 제1회 5·18청소년문화제(RED FASTA)에서는 락(Rock)을 통한 5월 저항정신계승과

187) 광주국제교류센터, http://www.gic.or.kr/portal/board.php?bo_table=center_news&wr_id.

188) 김남주는 1946년 전남 해남출신으로 전남대 영문과출신이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하던중 1988년 12월 가석방조치로 출소하였다. 그는 문학을 위한 시를 썼다기보다는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시를 썼던 치열한 사회운동가겸 시인이었다. 1984년의 첫시집 「진혼가」로부터 연이은 시집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사랑의 무기」, 「솔직히 말하자」를 출간했다. 그는 1994년 2월 13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청소년 해방감을 목적으로 'RED' 락페스티발이 열렸다. 5·18청소년문화제 'RED FASTA'는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오월을 기억할 수 있도록 5·18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며 청소년들이 숨겨두었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동아리공연, 놀이, 체험, 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축제를 통해 함께 나눔과 공감 그리고 소통을 금남로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표출하는 청소년거리문화축제이다.[189]제1회 5·18청소년문화제(RED FASTA)의 락페스티발에는 DOPE, STEY.C, 락타이거즈, MC스나이퍼[190], 크라잉넛[191] 등이 참가하여 학교와 부모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찌들려있는 청소년들의 답답한 마음을 날려주었다.

(사)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광주지회)에서도 오월문화제의 일부로서 음악공연을 준비했다. 전통연희위원회(굿패마루, 아리랑, 풍물천지, 굴림 외)에서는 터닦음굿과 비나리, 사물놀이, 모듬북을 공연했고 전통악위원회(내벗소리민족예술단)는 국악관현악 〈통일은 언제일까〉와 〈꽃아꽃아〉 외 4곡을 연주했다. 김광철 외 3인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고명숙과 광주아름나라는 노래를 공연했다. 강강술래 등의 대동놀이는 모두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전주에서는 5·18민중항쟁 25주년 기념 및 이세종 열사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이세종 열사는 1980년 당시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학생으로서 전남·북 대학연합체 '호남대학총연합회' 연락책임자였다. 5월 17일에도 대학 내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전북대학교로 들이닥친 공수부대원들에게 쫓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폭행을 당해 숨졌다. 오랫동안 광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5·18희생자에서 제외되었다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첫 5·18희생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했다.[192] 덕진공원 야외극장 특설무대에서 '열린음악회'의 주제는 "우리 함께 기억해요 그날의 외침을"이었다. '열린음악회'는 제 사회단체와 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원중이 출연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오감도 사물놀이 등이 펼쳐졌다.[193]

2006년에는 대규모 음악제가 마련되었다. 제26주년 제2회 "광주오월 음악제"는 부대행사로 2006 광주오월음악제 '다시 금남로에 서면'으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도청 앞 민주의 종각 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었다. 내심 거리음악제의 부활을 염두에 둔 행사로 보인다. 본행사는 5월 1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는데 5·18기념재단, 광주민예총, 광주MBC, 광주CBS로 구성된 2006광주오월음악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유명가수를 초청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인 것과 방송사와 함께 주관함으로써 생방송과 재방송을 통해 다수의

189) http://cafe.daum.net/redfesta
190) 힙합 가수, 〈글루미선데이〉, 〈BK러브〉 등의 히트곡이 있다.
191) 크라잉넛은 1998년 〈말달리자〉로 잘 알려진 펑크밴드이다.
192) 전북일보, "5·18민중항쟁 25주년 기념 및 이세종 열사 추모음악회", 2014.05.18.
193) 5·18민중항재 제25주년 기념행사 결과보고자료집, 2005.

시청자들 향해서도 5월정신을 전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5 · 18의 아픔을 전하려는 의도가 프로그램에 잘 나타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월광장에서 본 통일세상(줄타기공연)–우천으로 취소
- 소리와 영상으로 만나는 오월, 그리고 통일(안숙선,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 힙합의 자유, 오월의 자유(바비킴)
- 상처의 시대, 치유의 음악(한대구, 이상은)
- 함께 나누는 오월의 주먹밥
- 퓨전국악의 감동무대(김용우의 나의 오월이야기)
- 심수봉이 부르는 오월노래(심수봉)
- 다시 금남로에 서면(순이네 담벼락)
- 함께 나누는 오월의 노래(안치환과 자유)

2007년 5월에는 '광주전남대학생 오월한마당'에서 각 대학별 경연대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대학의 참여를 끌어내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경연대회는 음악을 포함해서 각 장르의 대학동아리 공연과 창작문예물이 섞여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광주교육대학교 새내기, 전남대 락 동아리, 보건대 댄스팀, 방송통신대학교 율동, 목포대 민중가요 노래패, 광주교육대학교 아카펠라, 광주전남 댄스 연합 동아리 UCDA, 전남과학대 태권도, 광주여자대학교 율동 등이 그날의 프로그램이었다. 박성환 밴드[194]와 노래단 한반도의 초청 공연도 있었다.

제4회째를 맞는 5·18청소년문화제 Red Festa에서는 청소년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 운영하게 함으로써 5월 정신의 내면화를 지향하며 점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해나갔다. 오월을 알리는 오월마당, 인권이 있음을 알리고 찾으려는 인권마당, 소통 · 평등 · 관용 · 조화를 주제로 한 평화마당, 나눔마당, 오월을 느끼도록 마련된 상황재현극, 그리고 '오(五)! 락(樂)페스티발'로 구성되었다. 락 페스티발에 초청된 락커들은 MC스나이퍼, 바비킴, 배치기[195], 노브레인[196], 에이브릿지, 슈퍼키드, 펄스데이, 레이지본 등이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KBS에서 주관하여 녹화방송으로 방영되어 락 페스티발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2007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으로 '2007 난장·人·FREE'가 있다. 이 행사는 고립되고 분산적

194) 박성환 밴드는 2002년 5인조로 결성된 포크락 밴드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음악으로 삶을 노래하는 밴드이다.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안톤오노의 김동성에 대한 헐리우드 액션과 미군 탱크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반미감정을 노래한 〈Fucking U.S.A〉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금강산 평화콘서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18 전야제 등에 참가해 공연했다.

195) 힙합가수, 〈반갑습니다〉, 〈동상이몽〉 등 다수의 히트곡이 있다.

196) 락밴드, 노홍철과 함께 노래한 〈더위 먹은 갈매기〉, 〈넌 네게 반했어〉 등의 히트곡이 있다.

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소강상태에 있는 5·18관련 연행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문예공간의 필요성을 감지한 5·18기념재단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 연행예술과 관련한 문화예술의 마당을 연 것이다. 명칭 '2007 난장·人·FREE'에 관하여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몸짓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행사였으나 24일은 폭우로 야외에서 계획된 공연은 취소되었다. 극단 토박이의 "청실홍실", 박선욱 돋음 무용단의 "하늘짓", '이름없는극단'의 "잊혀 질 때까지", 극단 허방의 잔혹단막극 "노래",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 민족춤패 너울의 "통일마당춤극 귀향"이 공연되었고 음악은 주하주가 출연하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외 여러 곡의 민중가요를 불렀다. 주하주 외에도 민중가요밴드 사람과 사람, 노래단 한반도, 강형원, 별음자리표 등이 출연하였다. 2007년 새롭게 만들어진 대규모 행사인 난장의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명: 2007 난장·人·FREE
일시: 2007년 5월 24일(목)–26일(일)
장소: 5·18기념공원 및 문화관
주회: (재)5 · 18기념재단
주관: 5·18공연준비위원회
주제: 5월 산책(김지하 시인 시 제목)
대상: 광주시민(상무지구 중심) 및 타 지역 방문객
사업성격: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예술한마당[197]

2007년 부산에서 있었던 5·18 27주년 부산행사위원회에서는 기념식, 5·18수업사례발표회_ 현대사 전국교사연수, 찾아가는 5·18문화체험 외에도 '박문옥 노래 30년 부산콘서트'와 마당극단

초청공연으로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연이 있었다. 광주의 대표적인 민중가수인 박문옥은 이날 〈꽃잎 인연〉, 〈봄비〉, 〈사랑은 강물처럼〉, 〈양철매미〉, 〈누가 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할 것인가?〉 등의 노래를 불렀다. 초대가수 이재성의 〈촛불잔치〉, 〈내일로 가는 마차〉와 명창 윤진철의 축하공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좋은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호남의 지역적 거리감 때문인지 시민의 참여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198]

2008년의 '난장·人·FREE'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주제는 "차별을 넘어"로 정해졌고 특히 창무회의 무용 「차별을 넘어」가 주제를 강조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23일 금요일에 진행된 음악행사에는 해령, 윈디캣, 연영석, 레모니마카로니, 고구려밴드[199]가 출연했으며 25일 일요일에

197) 5·18민중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 결과보고서, 2007, 146쪽.
198) 위의 책, 186쪽.

는 장승일[200]의 퍼포먼스가 있었다.[201]

제5회 5·18청소년문화제 Red Festa도 어김없이 개최되었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 참여주관단체가 50여개에 달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졌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오월, 인권, 평화, 나눔 등의 마당을 체험하면서 좋은 문화를 정립해 가고 있었다. Red Festa의 락페스티발에는 PLP, 럭스, 순이네담벼락, 허클베리핀[202], 오부라더스, 윈디씨티, 다이나믹듀오 등 유명 그룹이 출연하여 청소년들의 음악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사진 19, 5·18청소년 문화제 Red Festa〉



199) – '해령' 은 걸그룹 베스티의 멤버이다.
– '윈디캣' 은 2000년 광주에서 결성된 인디밴드이다. 락과 메탈락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만들어진 밴드라서인지 그들의 노래는 병들어 있는 사회를 고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소외받은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공존〉, 〈별의 노래〉 등이 있다.
– 연영석은 문화노동자라고 불리는 노동가수다. 1993년에 '문화예술생산자연합' 을 세우면서 노동문화활동을 시작했고 그 연합회원인 락밴드 '메이데이' 에 노랫말을 써주면서 음악을 시작했다. 앨범 '돼지 다이어트' , '공장' , '숨' 을 냈다.
– '고구려 밴드' 는 한국의 정신적 모태가 되는 '아리랑' 을 중심으로 록뮤직을 하는 밴드이다.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음악을 하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국가적 행사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 장승일은 광주 YMCA에서 77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요들러이다. 요들 외에도 다양한 악기 즉 톱, 아코디언, 알프-혼, 핸드하모니카, 기타, 피아노, 카우벨 등의 악기들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201) 5·18민중항쟁 제28주년기념행사 결과보고서, 2008.

202) '허클베리핀' 은 1998년에 결성되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목록에 1집 "18일의 수요일" 과 3집 "올랭피오의 별" 이 올라가있고 2008년에 제4집 "환상, 나의 환멸" 로 제5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음반상을 수상한 유명 록 밴드이다.

5 · 18청소년문화제 Red Festa는 이 후로도 청소년관련 주관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소년들의 관심으로 5월행사에서 자리를 잡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Red Festa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락 페스티발이 2010년부터 사라졌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지역과 비교해볼 때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의 문화와 접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락 페스티발을 통해 접했던 젊은 락 스타들,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 그리고 중앙의 젊은 대중음악인들이 5월을 즈음해서 내려와 5월의 열기를 접하였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매우 섭섭하다.

과거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애인들도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사회문제를 가지고 토크 콘서트나 노래공연을 열기도 한다. 2012년 '개념찬 콘서트 바람'이 그러한 공연 중 하나이다. 2030들의 4.11총선 투표독려를 목적으로 시작한 전국투어인 공연은 3월 23일 김해를 시작으로 해 부산, 대구, 서울 등을 거쳐 4월 초까지 마감되었고, 5월 19일 광주에서 시작되는 콘서트는 민주주의 축제 콘서트이다. 이들은 광주를 찾아와 금남로에서 5월을 기념하고 동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3주기를 추모하는 공연으로 기획했다. 19일 토요일 에 열린 공연은 김제동과 윤도현 밴드(YB), 김C-뜨거운 감자, 옥상달빛이 공연에 임해 5월의 금남로를 위로해주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5 · 18민중항쟁 기념음악회들이 1989년을 기점으로 공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멈칫거리는 몸짓과 마음으로 시작되었으나 5 · 18민중항쟁의 진실이 규명되고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차 대담한 기획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외적으로 화려하고 활발해졌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5월정신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것은 사실이다. 씩씩했던 거리음악제는 더 발전적인 대규모의 국제음악제를 기대하면서 그 문을 내렸으나 국제음악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민중가수들은 광주와 5월을 노래하는 그 자리를 내어 놓고는 힘을 잃었다. 이를 안타까워하던 광주의 노래꾼들은 다시 뭉쳐 5월정신을 노래할 새로운 무대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오월창작가요제"이다.

5) 오월창작가요제와 그 의미

① 오월창작가요제의 내용

2010년 5월 21일 제1회 오월창작가요제 '청'이 광주광역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광주의 노래일꾼인 박문옥과 그의 뜻을 지지하는 광주지역 가수와 음악인, 원로예술인, 지역사회의 원로들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행사였다.

5 · 18민중항쟁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한 사회 ·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워낙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긴 투쟁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건은 예술의 각 분야에서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띈 작품을 추구하면서 민족예술이라는 용어를 상용하기에 이르렀다. 서양음악분야에서도 무조건적인 서양식 창작음악에서 주체적인 음악을 추구하게 되었고

서양음악에도 전통음악의 요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5월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강력한 동력의 역할을 한 노래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민중가요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후로 기존의 몇 노래들이 민중가요가 되고 노래굿 「넋풀이」에 마지막 노래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전국을 강타하는 민중가요가 되었다. 이 후로 수많은 민중가요들이 탄생했고 어떤 노래들은 대중음악처럼 전국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1997년 5·18민중항쟁의 기념이 국가의 공식적 기념식이 되면서 5월운동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주의 5월운동은 승리로 자리매김을 했으나 해가 갈수록 5월정신은 희미해져가고 5월을 주제로 한 민중가요도 그 용도를 잃어갔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광주의 노래일꾼들은 2010년 5·18민중항쟁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서 5월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민중가요의 부활을 꿈꾸면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주최와 오월창작가요제 조직위원회의 주관, 그리고 광주 KBS의 후원으로 제1회 오월창작가요제를 열게 되었다.[203] 본래 금남로 5·18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도청 옆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로 장소는 상무지구의 시청광장으로 옮겨졌다. 광주의 5월행사들이 전국화를 지향하지만 자주 좌절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 행사는 명실공이 전국행사가 되었다. 전국에서 431곡의 지원이 있었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그 연령층이 다양했다. 1차예선과 2차예선을 거쳐 열개 팀이 최종경합을 벌였다.

〈사진 20, 제1회 오월창작가요제 '청' 포스터〉



203) OhmyNews, "5·18 30주년 맞아 '오월창작가요제' 열린다", 2010.03.29.

다음은 본선에 진출한 곡들이다.

1. 나 대학나온 사람이야 —— 워킹푸어
2. 내일을 위한 행진곡 —— 보이스홀릭
3. 인생은 짧고 권력은 길다 —— 일요일의 패배자
4. 쩐의 전쟁 —— 최광한
5. 빛의 전설 —— 크로스 팬던트
6. 임을 위한 행진곡 —— 상식이밴드
7. 길고양이 —— Bard
8. 내 노래는 —— 조종정
9. 외사위(참좋다)
10. 세상이 아름다워(포 브라더스)[204]

주로 젊은이들의 노래들이 예선을 통과했고 연주는 밴드가 주를 이뤘다. 노래들은 5·18을 직접 묘사하는 새로운 버전의 〈임을 위한 행진곡〉[205]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 오월정신을 가지고 불합리한 사회를 고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내일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나 대학나온 사람이야〉, 〈쩐의 전쟁〉, 〈인생은 짧고 권력은 길다〉와 같은 사회의 불합리한 면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길고양이는〉 재즈의 화성과 리듬을 전격 채용한 노래이다. 〈내 노래는〉은 사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노래 〈내일을 위한 행진곡〉이 대상을 받았다.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 한해를 건너뛰고 제2회는 2012년에 개최되었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423곡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2차 예선을 거쳐 청소년부 5팀, 일반부 5팀을 따로 선발하여 진행했다. 다음은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곡의 노래이다: 1. 봄내음(어머밴드-대전), 2. 꿈의 동산(김은경), 3. 마요봐요(ASSAIN), 4. 오월의 파랑새(위키드 보이즈), 5. 소나기(REMAINs), 6. 너의 멈출 수 없는 말들(다브다), 7. JUST Do It(리얼리티), 8. 당신을 찾습니다(나비맛), 9. 거울향기(피콕그린), 10. 망월(서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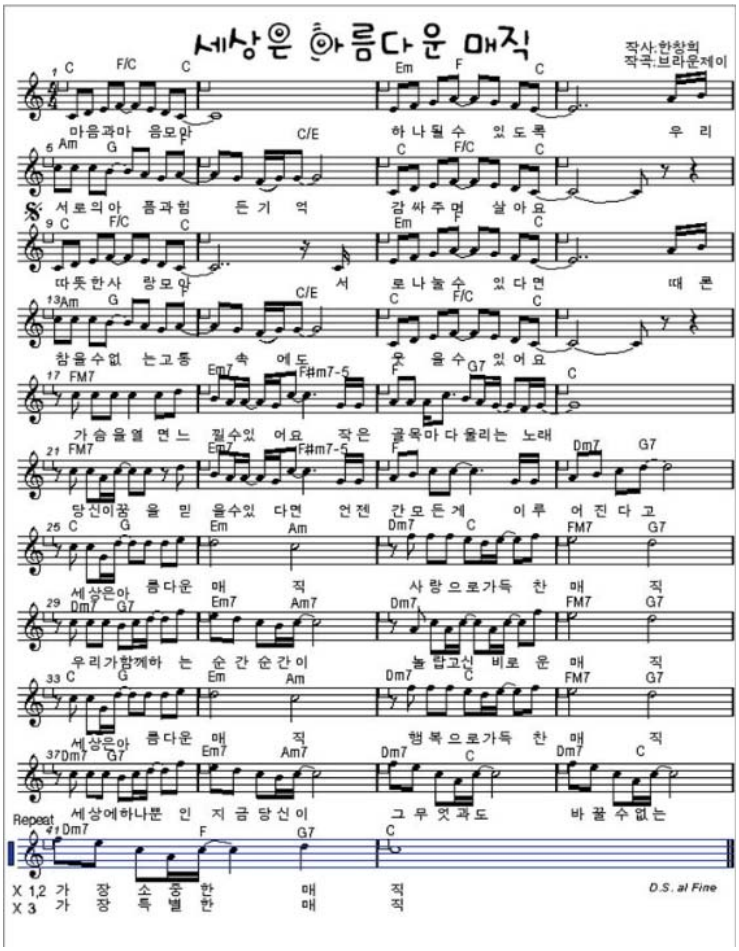
〈봄내음〉은 광주의 희망을 노래하는 듯한 봄노래로 희망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위로의 노래다. 〈꿈의 동산〉은 가창력이 뛰어난 참가자에 의해 불렸으나 메시지전달이 불분명한 노래. 〈마요봐요〉는 밝은 노래, 〈오월의 파랑새〉 위키보이스-광주의 슬픈 역사를 직접 랩과 노래 표현, 〈소나기〉 4인 락밴드, 서울에서 내려온 〈너의 멈출 수 없는 말들〉 다브다 - 〈Just Do It〉 리얼리티 - 아카펠라 4중창 네 꿈을 열정을 희망을 이루라는 노래 붐박스 연주, 〈당신을 찾습니다〉 나비맛-서민들의 생활, 광주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거울향기〉 피콕그린, 〈망월〉 서다희 대상은 서다희의 〈망월〉이 차지했

204) 제1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제작 음반, 2010.
205) 이 노래는 김종률이 작곡한 서정적인 노래스타일이 아닌 힙합과 랩이 주를 이루는 젊은 감각의 노래이며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있다.

다. 대회명이 '오월창작가요제'이고 광주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참가자들과 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미쳐 1980년에 있었던 5·18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양이다.

제3회에는 327곡이 접수되었고 5월 11일 전남대학교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4000여명의 시민 앞에서 열렸다. 대상은 On The Spot이 부른 〈영자야〉가 차지했다. 금상은 13살 초등생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 T.O.P.의 〈세상은 아름다운 매직〉, 은상에는 어느새의 〈도룡뇽〉, 동상에는 A Trio의 〈소녀의 노래〉가 수상했다. 초대가수로는 영화 "26년"[206]의 1호 투자자인 가수 이승환이 "26년" 주제곡 〈꽃〉을 참가자들과 함께 부르며 감동을 전했다.

〈악보 13, 제3회 오월창작가요제 입상곡, 세상은 아름다운 매직〉



206) 광주의 5·18민중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강풀의 웹툰 "26년"을 영화한 것이다. 내용은 1980년 518민중항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당시 군인으로 518진압에 나섰던 사람이 함께 전두환전대통령 암살을 기획했으나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군인이 당시에 한 멤버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 있든지 피해자의 입장의 입장에 있든지 모두 과거의 희생자이며 각자는 모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4회에는 총 576곡(445팀)의 창작곡이 접수되었다. 참가자들은 중학생부터 70대까지 넓은 연령층이 참여하여 이상적인 참여도를 보여준다. 제4회 오월창작가요제는 2014년 6월21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본래 5월 10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참사로 행사가 미뤄졌다. 대상은 '한줌의 소리' 팀이 부른 〈평화의 먼길〉이 수상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더 나은 세상과 사람을 향한 노래로 활동하는 노래모임이라고 한다. 전혀 흥분됨이 없는 조용한 목소리와 화성으로 함께 손을 잡고 헛된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가자는 내용을 노래했다. 금상은 경기지역에서 참가한 슬로우시티가 부른 〈웃기지마~!〉가 차지했는데 국악(태평소, 꽹가리)과 록 사운드로 신명나게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은상은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현실을 애절하게 노래한 '중식이(서울)' 의 〈선데이서울〉, 동상은 '삼촌밴드(광주)' 가 부른 〈언능 오니라〉가 수상했다. 제4회에는 전국에서 576곡의 참가가 있었고 1, 2차 예선을 거쳐 10개팀이 최종결선을 치렀다. 본선무대에는 광주와 대구 시민합창단 200 여명이 〈님을 위한 행진곡〉과 〈우정의 노래〉를, 3회 대상을 차지했던 On The Spot이 대상곡 〈영자야〉를 불러 제4회 오월창작가요제를 축하해주었다.

② 오월창작가요제와 그 의미

오월창작가요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1980년의 5월의 정신을 노래로 재현하여 전국에 그리고 후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음악행사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80년 5월을 겪은 광주시민을 위로하며 5·18항쟁의 진상을 알리고자 매년 5월에 진행되었던 거리음악제의 발전된 후속행사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월창작가요제" 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가능하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이 과거 거리음악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광주의 민중가수들이기 때문이다. 박문옥, 김원중, 박종화, 정용주가 그들이다. 물론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직, 간접적으로 도왔던 지역원로들의 힘도 컸다.

1980년대 초반에 창작되기 시작한 민중가요는 처음에는 민주화, 통일, 노동운동 등을 주제로 수없이 창작되었고 어느 정도는 대중가요처럼 인기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행되기도 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학생들의 학생운동과 교육운동을 통해서, 90년대 후반에는 햇빛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통일운동에서 많은 노래들이 생산되었으나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다. 물론 여러분야의 사회운동현장에서 지금도 적은 양이나마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80~90년대의 〈아침이슬〉,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같이 전국적인 확산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월창작가요제의 존재는 그 의미가 크다. 매회 전국에서 지원하는 곡이 300~500여곡에 달하고 있다. 지원곡들은 참가자들이 광주의 오월창작가요제라는 것에 의미를 의식한 탓인지 사회운동적 성격을 띤 작품들이 대다수이다. 5월을 직접 노래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비판하기도 한다. 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긍정적으로 노래하기도 한다. 개인의 감정과

경험대신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노래한다. 이 가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적어도 한번은 사회를 생각하고 5월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5월의 전국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는 청소년들도 잊어가는 5월을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 가요제에 참가하기 위해 공부하게 되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본선에 오르는 노래들은 수상곡과 함께 축제를 통해 다수의 청중에게 전달되며 CD로 제작되어지고 지역방송이나마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 어떤 노래는 합창곡으로 편곡되어 타지역에서 연주되는 것도 목격했다. 주춤해진 민중가요의 창작이 이 무대를 위해서 격려되어지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 과거 80년대와 90년대의 노래운동과는 다른 시각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표현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문화운동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새로운 세대의 눈과 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 전남지역의 음악운동[207]

1) 1980년대 목포 문화패와 음악운동의 출발

(1) 목포의 문화패와 노래모임 '아침'

1980년 5월 현장에서 광주의 극회 광대의 단원들이 80년 5월에 군중집회에서 궐기대회의 사회를 보거나 투사회보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지켜본 목포의 젊은 청년들은 목포에서도 이러한 조직과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전남대 연극반 출신의 김빌립(당시 목포 문태고 교사)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극회 '민예'가 조직되었다. 1981년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천용식을 중심으로 탈패 '마파람'이 창립되었고 목포전문대의 놀이패 '한마당'까지 창립되면서 1980년대 초반은 목포에 놀이패들이 결성되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 삼엄한 감시와 억압으로 광주의 문화패가 엄동설한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목포는 문화패들이 만들어지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후로 이들 단체들은 사회문화운동이 전무했던 목포에 문화운동의 싹을 튀었고 문화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내었다.

1985년 3월 26일 '민예'와 '마파람', '한마당'의 출신들은 학교를 졸업한 뒤 '전위적인 직업정신을 바탕으로 운동적 삶을 살아야한다는 대동적 결의'로 사람들을 규합하여 놀이패 '갯돌'을 창립하였다.[208] 갯돌은 탈 공방, 강습사업, 대동놀이 공연 등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1988년 전국의 운동의 흐름과 갯돌의 미래 운동방향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뜻을 달리한 몇 단원

207) 목포의 문화운동과 음악운동은 최응재와의 구술(2013.9.17.)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08) 갯돌 30년 문화운동 3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갯돌 30 문화운동』, 김정희 구술.

을 중심으로 1988년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이 창단되면서 두 단체는 각자의 길을 걸어 나갔다. 1989년에는 놀이패 갯돌 내에 노래모임 '아침'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들이 각자의 길을 가다가 노래모임 아침을 포함한 문화패 갯돌과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이 통합되면서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을 구성했고 다시 1990년 6월에 노래패 어울림이 따로 구성되었다. 노래패 어울림에는 양혁철, 최연담, 최영재, 최현태(보컬), 주옥진, 홍귀숙, 최연희, 김현, 허설(보컬), 최정일 등이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2) 대학 노래패 결성

1980년대 후반, 6월항쟁의 영향을 받은 여러 지역대학에서도 노래패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1988년 2월에 창단된 목포대학교의 노래패 '울림소리'는 처음부터 노래운동을 지향하여, 다시 말해 민중가요를 통해서 운동권의 활동을 지원할 목표로 창단되었다. 1987년 6월 집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학교 밖으로 내쳐진 목포대학교 국문학과 학생 최응재는 1987년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다시 '노태우대통령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운동에 뛰어들어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다. 지역에 머물 수 없어 서울로 도피한 그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공연 "문수의 하루"에 참석하여 대중들과의 소통에 노래가 유익한 매체가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학에 복귀하게 되면 노래패를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한 최응재는 수배가 해제되어 목포에 돌아오자 대학의 선후배에게 노래패를 제안했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노래패 '울림소리'가 조직되었다. 노래패 '울림소리'는 최응재를 중심으로 홍귀숙, 오미영, 한경란, 오치중, 강소영, 주옥진 등이 창단단원이다.[209]

1988년 후반에는 목포전문대학에서는 노래패 'ㅎ、ㄴ'이 조직되었고 순천대학교에서는 노래패 '황토마루'가 만들어졌다.

(3) 대학 노래패의 활동

1980년 5·18민중항쟁이 폭도들의 폭동으로 간주되고 '광주사태'라는 오명으로 불리면서 오월운동이 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젊은 청년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줄줄이 목숨을 바쳤다. 1980년 김의기로부터 시작한 분신 혹은 투신은 1980년대에 계속되었다. 목포에서도 1986년 6월 6일,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 사무차장인 강상철이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화운동 탄압중지'와 '5·18진상규명', '직선제 개헌 단행'을 촉구하면서 분신해 1986년 6월 26일 운명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1988년 2월에 창단된 노래패 '울림소리'는 6월에 목포전문대학 강당에서 작은 추모공연을 열었다. 목포전문대학은 강상철 열사가 재학했던 학교이기도 하다.

9월에는 목포대학교의 총학생회 문화부장, 탈패, 풍물패 대표, 그리고 노래패 대표들이 모여 목

209) 최응재 구술, 목포대학교 96학번 조인호는 2000년에 '울림소리'에 입단하였고 2005년부터는 광주의 노동운동 노래패들을 돕는 '공단외곽'에 합류해 돕고 있다.

포대학교 대동제에서 공연할 집체극 「예속에서 자주로, 빛나는 저 통일로」를 구성하여 무대에 올렸다. 15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공연이었다. 이때는 전남지역에 노래패가 많지 않았을 때라 지역대학의 수많은 축제에 초대되어 공연하였고, 이들의 공연에 자극이 된 타 대학의 학생들은 각 대학에 노래패들 조직하게 되었다. 울림소리는 집체극을 마치고 순천대학교 대동제에 초대되어 공연했고 이후로 순천대에 노래패 '황토마루' 가 만들어졌다.

'울림소리' 가 창단되던 1988년 전후의 사회적 관심은 88올림픽과 남북의 UN 동시가입이라는 대외적 문제와 통일운동이라는 운동권내적인 문제에 있었다. 당연히 전국은 수많은 통일집회들이 있었고 울림소리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지의 통일집회의 노래공연에 참여했다. 또 창단 첫 해에 조선대 노래패 함성처럼 제1회 전국통일노래한마당 예선에 참가하였다. 울림소리는 2013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목포대학교 중앙노래패가 만들어진 이후 단과대별로 노래패가 만들어졌다. 인문대의 노래패 '천지' 가 그 예이다. 목포 간호전문대(목포가톨릭대학)에는 1985년에 창단된 문화패 '선소리' 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노래패라기보다는 이름그대로 문화패로서 풍물, 탈춤과 함께 노래까지 하던 종합문화패였다.

(4) 목포의 첫 대규모 노래운동 "선생님 힘내세요"

1989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해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교조 결성을 방해하고 결성 후에는 심하게 탄압했다. '전교조 탈퇴 시 처벌을 완화해준다' 는 발표에 이어 '조합원 전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자 12,610명의 전교조 가입교사 중 11,145명이 탈퇴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1,465명의 교사는 결국 해직되었다. 광주·전남, 300여명의 교사들이 연행되자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거나 시험을 거부하는 등 전교조 지지 농성 등이 목포를 비롯한 전남권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면에 직면한 문화패들은 해직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다. 갯돌의 노래모임 '아침', 목포대학교 노래패 '울림소리', 목포전문대학 노래패 'ㅎ、ㄴ', 그리고 간호전문대 문화패 '선소리' 는 9월 2일 목포전문대학 강당에서 해직교사를 위한 모금노래공연 "선생님 힘내세요" 를 펼쳤다.[210] 대학당국은 사전에 공연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장

---

210) "선생님 힘내세요" 는 첫 번째 전교조 노래 앨범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에 실린 노래 〈선생님 힘내세요〉에서 얻은 타이틀이다.
〈선생님 힘내세요〉의 가사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수학공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일등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란 것을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우린 배우렵니다.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우리 선생님
(나레이션: 다른 반은 예쁜 꽃을 심는데 왜 우리 반은 시시하게 콩을 심나요?
나는 너희들이 모두 물만 먹고 자라는 콩나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콩나물 교실에서 늘 북적대며 공부하니까 말이예요?

의 철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담당자들은 자리를 피해버렸으나 학생들이 쇠톱과 쇠파이프를 가져와 철문을 열고 공연을 강행했다. 이 공연에서는 해직교사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해직교사들이 무대에 올라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연장은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이 공연의 연출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군입대문제로 고향(목포)에 내려와 있던 양혁철이 맡았다. 이 후로 양혁철은 목포의 문화운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운동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211]

〈사진 21, 1989년 해직교사를 위한 모금노래공연 포스터〉



그것보다는 말이지 아 콩을 심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데
너희들 자라는 모습은 마치 콩나물처럼 연약하게만 느껴져.
난 너희들이 콩나무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
하지만 콩을 쑥쑥 키우려면 귀찮은 일들이 많을텐데)
선생님 아아 힘내세요

211) 양혁철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나 휴학하고 목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패 '갯돌'의 단원모집공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목포 문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 후 연출을 전공하여 '라이어', '룸넘버 13' 등 많은 작품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무대에 올리는 전문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2) 갯돌의 노래패 '아침'에서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의 노래패 '어울림'으로

목포에 있는 대학(목포대, 목포전문대, 간호대)의 탈패, 노래패의 일원들이 졸업하면서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에 합류해 연구회는 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게 되었고 출신대학의 놀이패들과 함께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은 해산절차를 거쳐 1990년 문화패 '갯돌'과 통합하고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이라는 단체로 총집결하게 된다.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목문연)은 명칭처럼 연합단체로서 극패 갯돌, 노래패 어울림, 미술패 대반동이 소속되었다. 결국 목문연의 노래패 어울림은 우리문화연구회의 어울림에 소속되었던 가객들, 놀이패 갯돌의 아침에 소속된 가객들, 그리고 대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졸업생들이 모여 조직되었다. 모임은 주 2회 정도 가졌고 투쟁 현장이나 집회, 파업현장에서 요청이 오면 상시적으로 연습하여 투입되곤 했다.

3) 노래패 '어울림'의 음악운동

(1) 5월항쟁기념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위하여

노래패 어울림은 창단 후 곧 5월 항쟁 10주년기념 노래극「다시 오월에」를 준비했다. 이 공연은 목문연 노래패 어울림의 이름으로 갖는 최초의 공연으로 상황극과 춤은 극패 갯돌의 도움을 받았고 옛 중앙시장 터에 있었던 목포 시민회관에서 1990년 5월 26일에 열렸다. 5·18항쟁을 광주만의 항쟁으로 보지 않고 목포와 함께 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포스터에는 광주·목포항쟁10주년기념노래극공연이라는 설명이 있다. 노래는 최연담, 양혁철, 최기창, 김현, 이미희, 박의성, 안오일, 조영랑, 홍귀숙, 명희순, 김부영이 맡았고 최응재와 강균원(객원)의 기타와 김미경의 신디사이저 반주로 진행되었다. 목문연에 소속된 문화단체 모두가 협동해 만들어낸 합동공연이었다.

〈사진 22, 1990년 광주·목포항쟁10주년기념 노래극「다시 오월에」공연 포스터〉



교원노조의 탄압이 계속되자 노래패 어울림은 다시 교원노조를 위하여 공연할 것을 다짐하고 정기공연으로 1990년 9월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다. "선생님 힘내세요"가 해직교사들을 위한 노래패들의 공연이었다면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는 해직교사들과 무대에서 함께하는 공연이었다. 당시 목문연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활동을 하면서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하면 전교조 집회와 회원 수련회 등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마침내 해직교사들과 목문연이 함께하는 공연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 를 기획한 것이다.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린 이 공연을 위해 해직교사들과 노래패는 목문연 사무실과 전교조의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연습했다.[212]

1991년 5월이 오자 어울림은 5월항쟁 1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시 오월에 2" 를 준비했다. 목포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은 경찰들의 원천봉쇄로 불가능해지자 목포 시민회관 앞 노천에 두 대의 트럭을 이용해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했다. 백골단의 몽둥이와 전투경찰의 최루탄 방해를 두려워하며 진행했던 음악운동의 현장이었다.[213]

〈사진 23, 1991년 5월항쟁 11주년 기념행사 〈다시 오월에2〉, 트럭무대에서〉



212) 두 대의 기타(최응재와 게스트 기타리스트 황금산)와 신디사이저(홍귀숙)의 반주로 진행되었다. 공연은 슬라이드를 활용한 영상을 곁들여 진행되었다.

213) 노래패 어울림의 공연이야기. http://blog.daum.net/hangil66/8672603

(2) 초청공연: 정태춘 · 박은옥, 노래를찾는사람들

문화운동에 몸담았던 대학 동아리 출신들은 졸업 후 일명 투신조라는 별칭아래 목문연으로 뭉친 갯돌, 어울림, 대반동에 합류하여 예술운동에 몸을 담았다. 대학 동아리출신들의 참여는 목문연의 활동이 목대의 마파람, 한아랑, 울림소리들과의 합동공연으로 이어져 더욱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운동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이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되었다. 1992년 목문연은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당시 통키타 가수에서 민중가수진영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있던 정태춘·박은옥 초청하여 노래패 어울림의 합동공연 "아 영산강" 이라는 타이틀의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정태춘, 박은옥은 〈촛불〉, 〈시인의 마을〉, 〈북한강에서〉 등과 같은 서정성있는 노래로 인기를 누리고 있던 가수였으나 '애매한 생각들이 격동기를 살면서 정리되고 구체화' 되었다는 나름의 논리로 1980년대 후반 민중가요진영으로 옮겨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다. 그들은 전국운동현장에서 초청하면 기꺼이 달려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었다.

〈사진 24, 1992년 정태춘 · 박은옥 초청 "아 영산강" 공연현장〉



목문연은 회원들의 군입대와 취업, 복학 등으로 위축된 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목포연합회(기청)에서 활동 중인 가창력있는 회원을 영입하고 광주 노래모임 '꼬두메' 에서 활동 중인 허설을 객원으로 부르는 등 노래진영을 보강하여 1992년 9월 목포 KBS 스포츠홀에서 정태춘 · 박은옥의 공연에 앞서 20~30분의 사전공연을 펼쳤다. 처음으로 진행한 대규모 공연기획으

로 손재오, 송원천, 최현, 최현태, 최연담, 홍귀숙, 김선희, 허설, 김현, 장은경 등은 노래를 담당했고 박혁, 최귀숙, 홍귀숙, 주성호는 드럼, 베이스, 신디사이저로 반주를 맡았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하면서 목문연의 운영비는 물론 자신감까지 덤으로 얻었다.

정태춘박은옥 초청공연의 성공에 힘입어 1993년 5월에도 목문연은 초청기획공연을 계획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공식음반 발매와 활동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래를찾는사람들(노찾사)'을 초청하기로 한 것이다. 장소대관, 홍보비, 기획비, 출연료, 음향과 무대장비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공연이라 위험한 시도였으나 수천석의 좌석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3) 통일을 기원하며

1993년 10월 30일 목포시민회관에서는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라는 공연이 무대에 올려졌다. 1992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고 사회는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1993년 당시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양심을 거역하는 전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여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심수에 관한 이야기였다. 노래패 어울림은 한국전쟁의 비극이 낳은 분단과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을 조명하고 이것이 온 겨레의 아픔이요 비극임을 일깨우고, 이러한 문제는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자 노래극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노래는 명현, 최정일, 최연담, 최연희, 홍귀숙, 허설이 맡았고 반주는 박혁(드럼), 최귀숙(신디사이저), 주옥진(기타)이 담당했다. 장기수의 생을 담은 〈빨치산의 밤〉, 〈갈길은 간다〉등의 노래와 〈통일이 그리워〉, 〈조국과 청춘〉 등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들을 주로 불렀다.

노래패 어울림은 목포대학교 10월에 열리는 대동제의 초청에 응하여 공연하기도 했다.

(4) 뮤지컬을 시도하다

목포에서 문화운동의 질을 높여주었던 양혁철이 대학졸업 후 러시아와 영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무대공연 연출을 공부하고 돌아온 그는 어울림과 갯돌을 향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공연을 제안했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군인과 베트남여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작곡자 미셸 쇤베르크의 작품으로 철저히 서양인의 시각에서 그려낸 작품이긴 하지만 전쟁의 비극을 그려낸 작품이다. 어울림과 갯돌은 1994년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갯돌마당 소극장에서 뮤지컬 「KIM」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올렸다. 주인공 킴의 역할은 허설, 김현이 맡았고 크리스는 송원천, 명현이 캐스팅되었다. 이외에도 최연희, 홍귀숙, 문재길, 최정일 문관수, 임철, 주옥진, 김갑렬, 원정국, 최경숙, 김선미, 강수정등 갯돌회원과 객원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6월에는 완도군 초청으로 완도군민회관에서도 뮤지컬 「KIM」을 공연했다.

(5) 소극장 노래운동

노래패 어울림이 1993년까지는 큰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 배치되어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는 큰 무대중심의 공연을 해왔다면 1994년을 기점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공연중심의 노래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소극장 갯돌마당은 1991년 시청 앞 110석의 소극장을 운영하다가 1993년 소방서 앞의 150석 규모의 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4년 12월 17~18일의 "작은 시작" 이라는 제목의 공연은 좁은 공간에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새로운 시도의 공연이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많은 사회운동의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노래의 선곡도 투쟁가요보다는 서정적인 노래들이 선택되었다. 노래패는 〈겨울나라에 연 하나 띄우자〉, 〈꽃뫼〉, 〈나이 서른에 우린〉, 〈넌 할 수 있어(강산에)〉 등을 불렀고 〈눈오는 밤(조하문)〉과 같은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노래는 최정일, 윤성현, 홍귀숙, 최연희, 허설이 맡았고 기타에 박혁, 주성호, 신디사이저는 최귀숙, 베이스기타는 박경태, 드럼은 최왕호가 맡았다.

소극장 공연 "작은 시작" 이 좋은 호응을 얻자 1995년 5월 13~14일에도 소극장 갯돌마당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래 그런거겠지〉, 〈귀례이야기〉, 〈불행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 큰 걸음으로〉 등 비교적 서정적인 노래들이 무대에 올려졌고 항상 기타, 드럼 등 반주를 담당했던 박혁이 연출을 맡았다. 과거 단순한 무대연출을 벗어나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동원해 무대와 관객의 간격을 좁히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만큼 운동성은 떨어지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문화적 공연이었다.

1995년 5월 13~14일에는 정기공연 "우리 큰 걸음으로" 가 있었고 11월14~15/18~19일까지 삶을 노래하는 어울림 가을 콘서트 "노래 그리고 삶" 이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타이틀을 수식하는 용어만 보더라도 더욱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공연이었다. 1996년에는 노래패 어울림의 두 공연 "사랑의 풀씨가 되어" 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푸른하늘이 열릴까" 가 있었다.

〈사진 25, 1994년 12월의 “작은 시작” 공연모습〉



4)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목포지부 음악위원회

1993년에 창립된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전남지회에는 목포, 여수, 영광, 진도, 고흥, 해남 등의 6개 지부가 있고 미술, 연희, 문학, 음악, 국악, 무용, 사진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전통문화까지 9개의 장르로 나뉘어져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33년 12월 18-19일에 KBS 스포츠 홀에서 민예총 목포지부의 주최로 정철호의 창작판소리음악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가 이틀간 개최되었다.[214] 정철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로서 전남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는 소리꾼이다. 그는 이 외에도 다수의 열사가를 창작하기도 했다. 그의 창작판소리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는 5·18광주항쟁을 기념하는 작품이었다.

민예총은 각 지역의 노래패 참여를 유도하였고 목포의 노래패도 목포지부 음악위원회로 그 소속을 옮겨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취업과 결혼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그나마 2000년대 초반 민예총 목포지부 음악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사실상 음악활동이 중단되었다.[215]

노래패 어울림의 최근 공연은 2011년 7월 21일 갯돌마당 소극장에서 갯돌30년 문화운동 30년 기

214) 정철호가 작곡한 열사가로는 “안중근 열사가,” “이준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 등이 있다.
215) 갯돌30 문화운동, 최응재 구술, 186-187쪽.

념행사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추억의 민중가요 콘서트 "어울림, 다시 부를 노래"가 열렸다. 최현태의 사회로 문을 연 공연에서는 과거의 활동했던 많은 단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동지〉, 〈그날이 오면〉, 〈백두산〉 등을 부르며 과거를 회상하고 갯돌 30주년을 기념했다.

전남 민예총은 2014년 6월 1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있었던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행사였다. 이에 문화예술계에서는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박재동(한예종 교수, 만화가)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과 전국의 문화예술계 대표들, 풍물패, 노래패, 미술패,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지방의 각 노래꾼, 창작인 등이 모여 "대통령이 불법이다. 전교조는 합법이다"를 외쳤다.

5) 새로운 노래패들

(1)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과 즐거운 노래 '소풍'

1990년 목포와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 특히 조선업체와 조선업체의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하는 밴드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몇몇 노래꾼들이 노래밴드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1995년부터 노래밴드는 출발했다. 초창기에 함께했던 멤버들로는 임종학(기타), 정인석(드럼), 최영미(보컬), 김종민(보컬), 김영민(베이스), 최지영(신디), 전란희(신디) 등이 있다. 그러나 결혼이나 생업의 문제로 활동을 멈추거나 활동내용에 있어서 인디 록(Indi. Rock)으로 갈 것인가, 노동현장가요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로 몇몇 단원들이 교체되고 새롭게 김승진, 김철홍, 이화 등이 새로 입단했다. 김승진은 목포전문대 노래패 ㅎ、ㄴ 출신이고 이화는 목포대 울림소리 출신으로 이미 노래운동을 경험했던 자들이었고 김철홍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가요 전문노래단체인 '꽃다지'의 오디션에 참가할 정도로 노래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였다. 결국 현장노동자출신이나 병원간호사 등 노동현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이들로 노래밴드는 꾸려졌다.

1997년에는 노동자노래 기획단 '바람꽃'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했고 1998년 창립공연을 열었다. 2001년 12월 15일 목포 사랑방소극장에서 "희망"이라는 주제로 2회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완전철폐'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고 '뉘엿한 석양녘 공장 문을 나서 조촐한 밥상을 마주하는 평온한 저녁을 가질 수는 없는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세상을 노래하라!', '당신의 내일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문구들이 보인다. '이 땅 일천 삼백만 노동자들 중 60%를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과 교훈을 바탕으로.....비정규직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김철홍 대표는

공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공연에 참여한 단원은 김인석, 김철홍, 박민성, 강성호, 서동원, 이화, 김승진, 김향미이다. 게스트 출연자는 허성욱, 김현숙, 조광, 김선우가 있고 쇠, 장고연주에는 '신바람' 의 박명기 등이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깃발가〉, 〈세상을 멈춰라〉, 〈약속은 지킨다〉, 〈노동탄압분쇄가〉, 〈공단길〉, 〈생각까지 처벌하겠어〉, 〈희망을 위하여〉, 〈꽃다지2〉, 〈다시 떠나는 날〉, 〈노래만큼 좋은 세상〉, 〈희망의 노래〉, 〈불나비〉, 〈바위처럼〉, 〈청계천8가〉, 〈동해바다〉, 〈희망〉, 〈평온한 저녁을 위하여〉, 〈이곳은〉, 〈파도 앞에서〉, 〈그대와 함께 가는 길〉, 〈쳐라!〉, 〈세상을 바꾸자!〉, 〈가자! 노동해방〉[216]

위의 노래 중에서 〈쳐라〉는 바람꽃 작사, 작곡으로 자체 생산한 노래이다.[217] 〈그대와 함께 가는 길〉은 김현주의 글에 바람꽃에서 작곡하였다. 노동가요의 대부 김호철의 〈약속은 지킨다〉, 폴란드영화 '철의 사나이' 주제가 번안곡〈가자 노동해방〉 등 대부분의 노래가 노동투쟁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다.

이 공연의 내용처럼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 은 노동자 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했다. 2002년 보워터 한라제지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를 해직시켰을 때도 이들은 트럭과 박스를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 오랫동안 공연으로 해직노동자들의 재고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7년에는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 창립 10주년의 기념행사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가졌다.

200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노래운동이 쇠퇴하고 대중음악과 민중음악 진영의 경계가 무너지자 '바람꽃' 은 지향점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나섰다. 출발점은 민중가요의 한계였다. 음악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르는 노래들이 민중가요의 틀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진보적 성향의 대중가요이기를 바란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래를 자체생산하자는 전업적 활동을 목표로 삼고 전문성을 추구하기로 했다.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 은 2008년 김승진을 대표로 즐거운 노래 "소풍" 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허성욱과 김진관을 영입하여 새롭게 출발하였다. 지금(2014년)은 정기공연, 거리공연, 초청공연, 집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꾸준히 음반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

216)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 공연 프로그램, 2001.12.15.

217) 쳐라(바람꽃 글/가락):

이 세상 누구보다 불행했던 과거를 지닌 자, 노동자 믿을 것은 오직 몸뚱아리 뿐이다
이 세상 누구보다 환멸스런 현실을 사는 자 노동자 가진 것은 오직 피멍뿐이다
이 세상 줄 것은 없다 쳐라 줄 것은 없다 쳐라
내놓을 것은 사슬에 감겨 터져 오르는 피와 살
대를 이어 내린 노동하는 자의 울분밖엔 없다
쳐라, 쳐라, 대를 이어 내린 노동하는 자의 울분밖에 없다
쳐라, 쳐라, 이 고통 이 분노 치 떨리는 현실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는 노동자의 대의와 운명을 위해, 운명을 위해, 운명을 위해
쳐라, 쳐라, 쳐라

(2) 목포 밴드 '국도1호선'

2011년 6월 김나리(전교조교사), 이중식(타워크레인 기사), 김주재(비정규직 용접노동자), 송원천(특수고용직 운송노동자) 4명이 밴드구성을 결의하고 1년 동안의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 6월 22일 밴드 '국도1호선'의 창립콘서트를 가졌다. 이들은 '문화공간 국도1호선'이라는 공연장을 마련하여 매월 1회의 정기공연 "목포 1935"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들은 밴드설립목적을 "음악하는 밴드나 개인 공연자가 대우받는 공연문화를 목포에 확립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신만의 공연문화풍토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의 내용은 '삶과 노동' 그리고 '사람'이다. 2013년 10월 26일에는 김남주시인의 문학제에 참가해 국도1호선이 그의 시에 선율을 붙인 노래를 불렀다. 2013년 10월 10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대도시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집회가 열렸다. 목포에서도 평화광장에서 '국도1호선' 밴드와 해남 송지초 학생 노래패 '예말이요'의 공연이 있었다. 2013년 7월 12일 민주노총 전남본부 상반기 간부일꾼 전진대회(나주 배 테마파크)에 참석 축하공연을 펼쳤다. 2013년 12월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철도파업 지지! 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교사 결의대회"에 5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노래패 '국도1호선'의 공연이 있었다. 이들은 공연에 앞서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요!", "허벌나게 안녕 못하지요?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온 국민이 안녕할 수 있는, 승리하는 투쟁을 해 봅시다"라는 청중과 노래패의 대화 후 공연에 들어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철도,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민주노총 불법 침탈 관련자 파면,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표적 기소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특권경쟁교육 중단 등을 촉구했다.

위에 기술한 것처럼 밴드 '국도1호선'의 구성원은 교사와 노동자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주로 노동문제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사가 속해있는 밴드로서 전교조 집회에도 참여하여 그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사실 전교조도 노동조합이니 같은 맥락의 활동이기는 하다.

(3) 전남 전교조 노래패

① 전남 전교조의 여러 노래패와 음악활동

교사들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1960년, 이승만 정부 시절 일어난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다 4·19혁명 직후 4월 29일 대구에서 60명의 교사가 모여 처음으로 중등교원노조가 세워졌고, 이어 7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교조)가 결성되었다.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금의 전교조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한국교조는 강제 해산되었고, 제3공화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시켰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초·중·고 평교사들이 모여 다시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결성했다. 1989년에는 전교협을 모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월 28일 창립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듬해 1,465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교조의 비합법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게 만들었다.

앞의 (4) 목포의 첫 대규모 노래운동 "선생님 힘내세요"에서 밝힌 것처럼 광주·전남의 대학 문예패들은 해직교사들을 지지하는 공연을 펼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대부분의 분야별 문예운동의 발전과 비슷하게 먼저 풍물패를 만들어 풍물공연을 하다가 점차 노래패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전남은 지역적으로 넓게 펼쳐져있는 관계로 다수의 노래패와 '국악모임'들이 있다. 목포지회의 노래패 '해우소'를 비롯하여 영암지회의 밴드 '못갖춘마디', 순천중등지회의 '연향 그룹사운드', 여수지회 '등대(지기)', 완도지회의 '바다새', 해남지회 밴드 '스쿨밴드', 순천 초등지회 노래패 '파 ' 등이 만들어졌다.

전남에서는 특히 전통문화연구와 연수, 전통문화공연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전남교사국악연구회와 전남교육문화연구회 '솟터'가 있다. 이 두 단체는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두 단체에 속한 교사들이 대부분 전교조에 속해있어 전교조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다. 전교조 전남지부 공식행사의 문화행사는 거의 두 단체, 전남교사국악연구회, 전남교육문화연구회 '솟터'와 영암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노래패 '못갖춘마디'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전교조에 속한 교사들의 정서를 이끌어갔다. 전남교사국악연구회와 전남교육문화연구회 '솟터'의 목적은 먼저 연구회의 교사들이 국악을 습득하여 스스로 즐기고, 더 나아가 이를 일반 교사들에게 연수시킴으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자는 것이었다. 또 교육현장에서 보다 쉽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구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전남교사국악연구회는 악기와 민요를 중심으로 교사연수를 진행했고, '솟터'는 주로 풍물과 문화현장탐사 및 보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남교사국악연구회가 활동을 멈추면서 지금은 '솟터'가 모든 활동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전교조에는 두개의 중요한 강령인 '전교조강령'과 '참교육실천강령'이 있다. 두 번째의 '참교육실천강령'은 전교조 교육정신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해마다 지역별로 열리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는 전교조의 교육정신이 어떻게 발휘되고 실천,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문화운동도 이 참실교육실천보고대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3년 전남지부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역사분과 발표회는 11월 29일 순천제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전남 각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문화분과 공연과 분과별 실천보고대회가 있었다. 문화분과 공연마당은 전교조에서 전개하고 있는 문화운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프로그램은 전교조 노래패들과 국악연구회 혹은 개별적으로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공연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판소리 '수궁가' 중 한 대목을 부른 '솟터' 소속의 이병채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서양성악을 전공했으나 5월운동의 기간 동안 노래패 '친구'로 활동했고 지금

은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명창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이매방류 살풀이를 춘 이경옥도 서양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이나 한국전통무용과 대금을 연주했다. 5·18로 비롯된 음악운동에서 음악인들의 '우리 음악의 뿌리를 찾고 인식하며 향유하고자' 했던 의식적인 활동의 영향을 이곳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2003년 전남지부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역사분과 발표회에서 있었던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2004년 12월에 있었던 전남지부 참교육실천보고대회의 프로그램이다. 이 문화분과 공연은 전교조 전남지부의 문화운동 방향과 그 내용을 잘 보여준다.

"2003년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문화분과 공연마당"

* 해우소 공연 (목표지회 노래패)
* 못갖춘마디 공연(영암지회 밴드)
* 연향그룹사운드 소모임 발표회 (순천중등지회)
* 대금산조 '원장현류' (차명오, 신승태, 김용철, 김신규, 이철호, 김문, 이경옥, 고성자, 이성문, 문재식)
* 살풀이 '이매방류' (춤–이경옥, 대금–차명오, 장구–김용철, 꽹과리–박경도, 징–신승태, 북–김문)
*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광주 · 전남교육문화연구회 솟터 소속: 이병채)
* 한춤 (광주 · 전남교육문화연구회 솟터 소속: 문영숙)
* 한여름밤의 꿈 (극본 : 공동창작/출연: 유복남, 김종남, 김나영, 김종명, 정은경, 김경숙, 박영숙/ 조명: 남준길/ 음향: 맹형숙/ 남도교사극연구회)

"2004년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문화분과 공연마당"

* 대금산조 이중주 '소쇄원' (전남국악연구회 신승태 장성 약수중, 고성자 여수 무선중)
* 현무(강은주 목포연동초, 김정매 여수여중)
* 고성오광대 ('솟터' 김용철 영암 낭주중, 이장렬 금성고, 이동철 광주 무진중, 조미령 강진 작천중)
* 수궁가(이병채 해남 화산중)
* 선비춤(문영숙 영산포여중)
* 연향그룹사운드 〈사랑하게 되면〉, 〈쓸쓸한 연가〉(유진이 순천 연향중, 김창국 구례중, 장은주 광양중동중, 양용은 순천 연향중)
* 광양지회율동패 '어리버리'의 〈휘파람〉(김남규 광양중, 장옥란 광양 중동중, 위보환 광양여중, 주미라 광양실고, 위정희 광양 진상종고, 유정란 광양중)
* 연극공연 '사랑의 회초리' (남도교사극연구회 김종명 장흥중, 유복남 광양 다압중, 김경숙, 맹형숙 벌교중, 남준길 순천기계공고, 장미영, 안성숙 장흥고, 서명자 삼호서중, 김라영)

* 창작 판소리 “ ‘논개”(전남국악연구회 차명오 곡성 목사동중, 신승태 장성 약수중, 고성자 여수 무선중, 이경옥 화순고, 박경도 영광고, 김신규 순천 신흥초, 이철호, 이성문 순천 선혜학교, 김선중 녹동초, 김봉선 반남초, 송은영 강진 중앙초, 최경호 금성고)
* 여수 초등지회 노래패(조승필 여도초, 김홍철 봉산초 양지분교장, 범준영 여수 구봉초, 최얼 여수 남산초, 김미행 여수 구봉초, 송민정 여수 봉산초, 윤병일 여수 봉산초, 박재민)
* ‘못갖춘마디’ 노래공연 〈연〉, 〈여행을 떠나요〉(윤준서 해남여중, 조원국 시종중, 김두영 완도여중, 박상훈)
* 노래패, 율동패 합동 공연(못갖춘마디, 여수초등지회노래패 ‘등대지기’, 연향그룹사운드, 광양율동패 ‘어리버리’, 지부 문선대 ‘소원성취’ 전효녀, 서현정, 최은지, 양정인 등)[218]

영암지회의 ‘못갖춘마디’는 광주지부에서 간사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하나마 노래모임 ‘누렁소’를 만들어 전교조 집회에 문선활동을 했던 윤준서 선생님이 영암으로 발령을 받은 후 같은 지역의 교사, 조원국(시종중), 김두영(도포중)과 함께 조직한 밴드이다. ‘못갖춘마디’는 후에 일반인 두 사람을 영입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위의 공연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7080의 노래로 교사들을 위로했고 〈광야에서〉와 같이 사회현장에서 부르던 노래와 교육을 주제로 한 노래 등을 부르며 10여년 정도 밴드를 운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의 이동으로 해체되었다.

2004년 해남으로 전근한 윤준서는 2005년 3월 해남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양하승, 양은선, 박선하, 한재길, 문동현, 김세라, 김양우)과 해남지회 중등소속 밴드 ‘스쿨밴드’를 결성했다. 그들은 결성 후 곧장 공연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중고등학교들의 축제에 참가하여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대중문화의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도 좋은 활동이었다. 10년에 가까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스쿨밴드도 교사들의 전근, 결혼 등의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금은 윤준서, 양은선, 두 사람만 남아 ‘이우제’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거나 때로는 각자 솔로로 음악운동을 지속하고 있다.[219] 다음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스쿨밴드’가 활동한 내용이다.

2005 – ‘스쿨밴드’ 결성(3. 31), 해남 화산중학교 축제 공연(7.18), 해남 두륜중학교 축제 공연(7.21), ‘전교조 전남지부 대동한마당’ 공연(8.05), 해남 황산중학교 축제공연(10.27), 해남중학교 축제 공연(10.28), 해남 ‘청소년 어울마당’ 공연(11.05), 장흥 회덕중학교 축제 공연(11.08), ‘장애우와 함께하는 시와 노래의 밤’ 공연(12.13), 해남 ‘산이중학교’ 축제 공연(12.21)

---

218) 전남참교육실천대회 홍보자료, http://cafe.daum.net/neonewmeeting/
219) 양은선, 윤준서 인터뷰, 2015.03.31.

2006 – ‘전교조 전남지부 일꾼연수’ 공연(2.20), ‘전교조 해남지회 출범식’ 공연(3.23), 해남 ‘송지종합고등학교’ 축제공연(5.11), 해남 ‘5.18 전야제’ 공연(5.17), 해남복지관 ‘청소년 어울마당’ 공연(5.20), 해남 황산실업고등학교 축제 공연(5.26), 광주 ‘6.15 통일축제 교사문화제’ 공연(6.12), 해남 황산중학교 축제 공연(10.31), 해남 산이중학교 축제 공연(10.31), 해남 ‘장애우와 함께하는 날’ 공연(12.08), 해남중학교 축제 공연(12.14), 영암 서호중학교 축제 공연(12.20), 해남 화산중학교 축제 공연(12.27)

2007 –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 ‘문예한마당’ 공연(원주 상지대, 1.15),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 개막식 공연(원주 상지대, 1.16), ‘전교조 전남지부 일꾼연수’ 공연(2. 22)

해남에는 ‘스쿨밴드’ 외에도 직장인 밴드 ‘DINO’, ‘SKY LOCK’, 해남공업고등학교학생들로 구성된 밴드 ‘TOMORROW’가 있어 해남의 문화행사에 함께, 또는 따로 공연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10월 17일에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전남지역 22개 시군을 포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이었다. 식전행사로는 순천지역의 놀이패 ‘두엄자리’와 광주지역의 대학생 풍물패가 합동으로 길놀이가 진행되었고, 여수지역건설노조조합원의 진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배우면서 출범식이 준비되었다. 박금자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의 출범사,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의 격려사,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의 축사,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축사, 장옥기 민주노총전남본부장의 격려사, 홍성봉 전교조 전남지부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출범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자랑스런 노동조합 깃발아래 15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건설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6천여 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굳게 단결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로 달려가자!" 문화공연으로 여수지회 노래패 ‘등대’의 노래와 율동, 전교조 전남본부 율동패 ‘결’의 깃발춤, 노래패 ’ 소리타래 ‘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전교조에서 전개한 음악운동은 독립된 공연을 통해서보다는 주로 참실대회나 전교조 행사에 부대공연으로 참여하면서 전개되었다. 부대행사라고 해서 그 무게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교조의 이상과 교육정신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문선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었다.

② 전교조 노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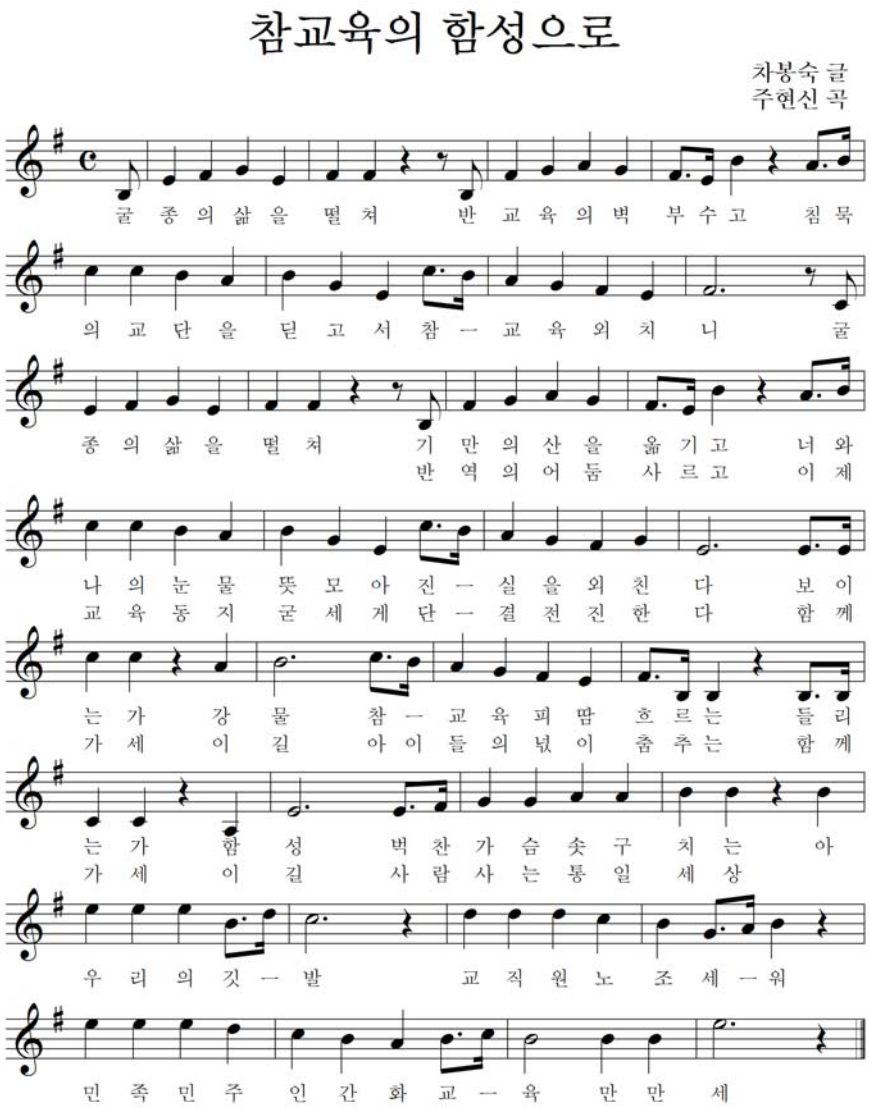
교육운동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의 가사를 바꿔 〈교사의 노래〉로 만들어 불렀고 김호철의 〈노동조합가(1988)〉를 개사한 〈교원노조가〉, 그리고 〈상록수〉를 주로 불렀다. 그러다 전교조 노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노래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참교육의 함성으로〉는 1989년 5월 23~25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전교조 건설특위 문화위원회가 공연한 「참교육의 함성으로」라는 집체극의 주제가로 창작되어 이 후로 전교조의 주제가로 사용되었다. 가사는 서대문중학교 교사였던 차봉숙이 쓰고 구로중학교 윤리교사 주현신[220]이 작곡했다. 첫 부분은 독일에서 문예운동을 전개했던 한스 아이슬러의 노래 〈통일전선의 노래〉에서 차용했다고 작곡자가 밝힌바 있다. 전교조 건설과 사수투쟁을 함께한 작사자와 작곡자는 이를 계기로 결혼했고, 그해 가을에는 부부해직교사가 되었다. 이 후로 전교조 활동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주로 음반 '참교육 노래모음' 시리즈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다. 전교조에서 만들어낸 최초의 '참교육 노래모음' 음반은 1989년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이다. "음악극연출가 문호근씨의 연출과 음악지도, 민중가수 안치환 등의 반주로 학생들이 전교조 음악분과교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해직교사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생계비마련을 위해 제작했다"[221]는 기사의 내용은 당시 갑작스럽게 해직을 당해 생계가 막막했던 해직교사들의 사정을 잘 알려준다. 이 첫 음반에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실었다. 다음은 음반(테이프)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에 실린 노래들이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김진경詩), 〈갈등〉, 〈선생님 힘내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생 액맥이 타령〉, 〈못생긴 내 얼굴〉, 〈겨울나라〉, 〈못 다 핀 꿈을 위하여〉, 〈우리는 친구〉, 〈날개만 있다면〉, 〈개구리 소리〉, 〈아가야 걸어라〉, 〈꿈이 더 필요한 세상〉, 〈해 맑은 웃음을 위하여〉, 〈내릴 수 없는 깃발〉, 〈참교육의 함성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남누리 북누리〉[222]

220) 현재는 호주 멜번 한인교회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221) 한겨레신문, "참교육 노래 테이프 '해맑은 웃음을….'", 1989.11.25.
2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 음악분과,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1989.10.

〈악보 13, 참교육의 함성으로〉



전교조 운동전개에서 사용된 노래들은 일반적인 민중가요 외에도 이처럼 교육을 주제로 교사들이 직접 창작한 노래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첫 음반이 제작된 이후로 1990년에 2집(CD) 「노래하나 햇볕한줌」, 1992년에 3집 「불량제품이 부르는 희망노래」, 그리고 2008년의 4집 「꿈꾸는 교실」과 2009년에는 5집 「미운오리」가 제작, 보급되었다.

2008년에 제작된 4집 음반 「꿈꾸는 교실」의 녹음은 전교조 전국 노래패연합에 의해서였다. 실제 참여한 전교조 지부 노래패는 울산지부 전교조 노래패 '한판', 부산의 '노래만세', 대구의

'해바라기', 여수의 '등대', 충북의 '당찬', 인천의 '파란', 속초의 '다울', 의정부의 '새길', 서울의 '해웃음'의 교사노래모임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과 노래패 '소리타래'가 참여해 만들었으니 가히 전교조 전국 노래패연합이라고 할 만하다.

2009년의 5집 「미운오리」 음반제작에는 광주교사노래모임 '점심시간', 전남교사밴드 '스쿨밴드', 여수교사노래모임 '등대'가 함께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교사노래모임도 함께 했다. 이 음반에는 교사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로 이미 놀이와 행사에 사용되었던 〈우리는 가지요〉, 〈일 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이렇게 비가 내리면〉, 〈화단을 보다가〉, 〈청소년 세상을 날다〉, 〈미운오리〉, 〈장발유죄가〉, 〈내버려둬〉, 〈우리아빠〉, 〈처음의 맘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껍데기는 가라〉, 〈미친교육 OUT〉 등의 노래들이 실렸다.

(4) 전남 농민 문화운동과 노래패

① 해남의 추수감사제와 문화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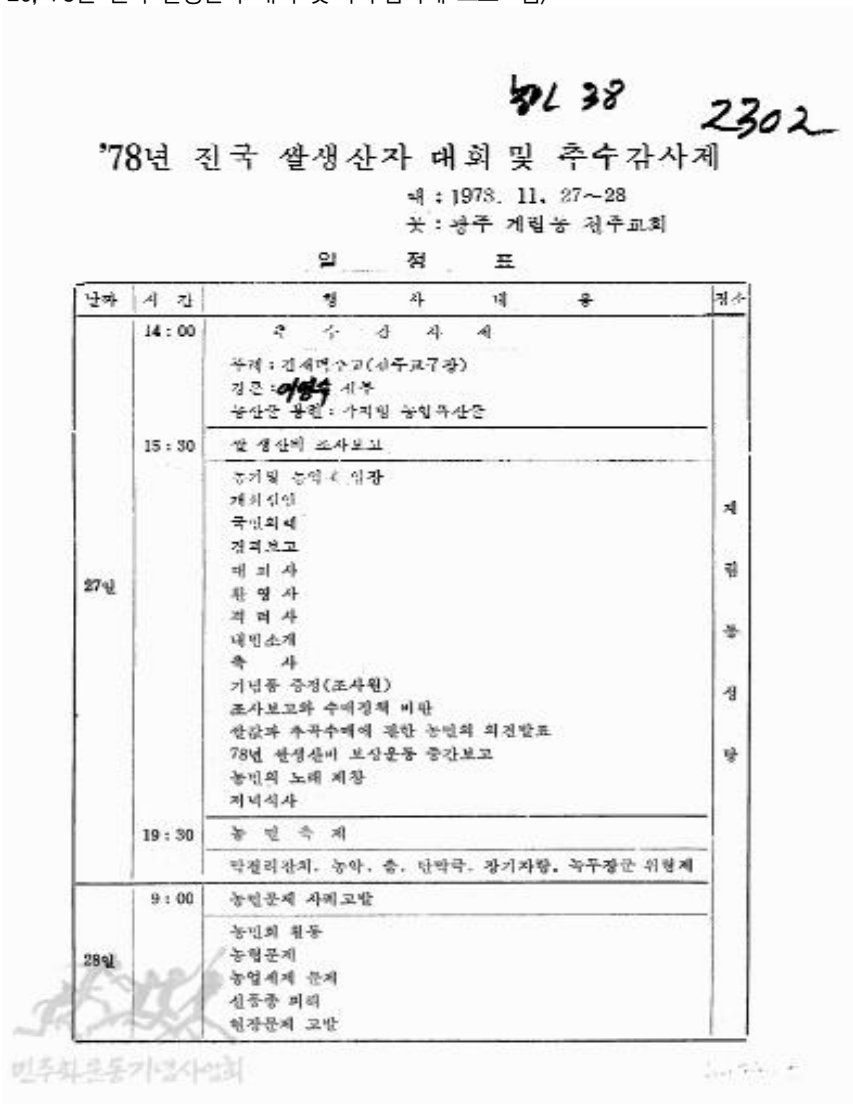
광주·전남에서의 문화운동 시발점은 1977년 늦은 가을, 농민과 함께한 해남의 '추수감사제'이다. 당시 해남에 내려와 「장길산」을 쓰고 있던 황석영과 반공법 위반혐의로 대학에서 제적되어 고향 해남에 내려와 농민운동과 함께 글쓰기를 하던 김남주가 주동이 되어 추수감사제를 열었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놀이패 '한두레'가 마당극을 펼쳤고 소리꾼이 판소리와 민요를 부르며, 시낭송과 깃발, 현수막 등이 등장한 그 자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일기시작한 문화운동의 모형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놀이패 '한두레'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탈춤반 출신이 주축이 된 단체로 이들의 공연을 목격한 지역운동권 학생들이 '아! 이것이다'라고 탄성을 올렸다고 한다.[223] 연이어 1977년 겨울, 광주 YMCA에서 개최한 탈춤강습이 있었고, 강습에 참여한 수료생을 중심으로 탈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Y가면극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Y가면극회'는 방학기간동안 서울 '한두레'팀을 초청하여 그들(채희완, 김봉준, 류인택 등)의 지도로 봉산탈춤의 이론과 실기를 연마했다. 방학이 끝나자 해남추수감사제를 경험하고 탈춤강습을 마친 김선출(전남대 76학번, 회장)과 김윤기(76, 부회장), 김정희(76), 윤만식(73)등이 주축이 되어 전남대학에 대학 탈춤반인 '민속문화연구회'를 등록했다.[224] 광주전남에 문화운동이 싹을 틔운 것이다.

1978년 11월 27일에서 28일, 광주시 계림동 천주교회에서는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가 열렸다. 이 행사를 위해서 가톨릭농민회는 전남대 연극반에 함평고구마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

223) 김선출 인터뷰, 2015.03.09.
224) 그러나 전남대의 '민속문화연구회'는 1978년 6월 19일에 있었던 민주교육지표사건에 회장과 부회장이 연루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박효선은 전남대학교의 연극반과 탈춤반을 모아 공동 창작한 마당극 「함평고구마」를 공연했다. 이 작품은 농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만들어졌고 전라도 마당극의 효시가 되었다. 마당극 「함평고구마」는 크게 성공했고 전라남도 군단위들의 요청으로 몇 차례 재공연을 펼쳤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980년에는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와 연극반 출신이 중심이 되고 조선대 탈반, 전남대 국악반 출신 일부가 모여 마당극운동의 본류를 여는 극회 '광대'가 탄생되었다.[225]

〈사진 26, 78년 전국 쌀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 프로그림〉[226]



'78년 전국 쌀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

때 : 1978. 11. 27~28

곳 : 광주 계림동 천주교회

입 정 표

날짜	시 간	행 사 내 용	참석
27일	14 : 00	추 수 감 사 제	제
		주제 : 감세면수고(천주교구장)	1
		경문 : 이영수 신부	회
		농산물 봉헌 : 사직동 농협목산준	농
	15 : 30	쌀 생산비 조사보고	성
		농기일 농악 (입장	당
		개회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대 회 사	
		환 영 사	
		격 려 사	
		내빈소개	
		축 사	
		기념품 증정(조사원)	
		조사보고와 수매정책 비판	
		생산과 추곡수매에 관한 농민의 의견발표	
		78년 쌀생산비 보상운동 중간보고	
		농민의 노래 제창	
		지덕식사	
	19 : 30	농 민 축 제	
		막걸리잔치, 농악, 춤, 탈박극, 장기자랑, 녹두장군 위령제	
28일	9 : 00	농민문제 사례고발	
		농민회 활동	
		농협문제	
		농업세제 문제	
		신품종 피해	
		현장문제 고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25) 김선출, 17쪽. 김선출은 이 작품을 '마당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김재식(경북대 국문과교수)는 '마당극'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22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db.kdemocracy.or.kr/viewer/viewer.jsp?data_regno=443363

1972년 '한국가톨릭농민회'의 농민운동 전개와 1978년 '전남기독교농민회' 창립은 현대 농민운동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1977년 늦가을, 농민을 위해 그들과 함께 열고 즐겼던 축제와 같은 해남의 추수감사제는 광주전남 문화운동의 맹아가 되었고 198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1976년부터 1978년 4월까지 계속된 '함평군 고구마피해 보상운동'이 승리로 매듭지어지고 이를 기념하려는 요청이 앞서 서술한 문화운동을 위한 준비와 맞아떨어지면서 마당극, 풍물, 노래운동 등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② 농민운동의 노래들

1984년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노래집「농민가락 차차차」를 발간한다. 이 노래집의 성격은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 우리 농민들은 식민주의문화에 물 먹여지고, 도시소비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었으며, 더우기 팝송 등 미국 일본 등의 얄팍한 상업주의 대중가요에 빠져 우리 겨레의 넋을 잃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것 우리의 혼은 농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농촌에서 우리 것을 찾고, 이 바탕위에 우리 것을 창조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에서 본 총연합회는 우리 농민들이 대대로 불러온 노래와 농민교육, 농민축제 때 민요나 대중가요 곡에 맞춰 자연스럽게 불렀던 노래를 더 나아가 이 겨레의 생존을 위해 불러져야할 노래들을 모아 보았습니다.[227]

이 책의 특징은 대부분의 노래가 '노가바'라는 것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노래들은 주로 우리나라 민요와 기존의 대중가요인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든 이슈를 노랫말을 바꾸어놓았다.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 혹은 농민운동에 필요한 노래를 실었다. 노래패 꽃다지 후원회원지인「꽃사람」에 실린 "민중가요의 성립과 전개과정"에 보면 1983년에 대학에서 개사곡의 붐이 일었다가 1980년대 중반에 급격한 퇴조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228] 이는 음악운동이 막 싹을 틔우는 시기인데 현장별로 적절한 노래가 없어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바꿔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노래패의 노래꾼들이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하여 많은 노래를 생산하게 되면서 '노가바'는 시들해졌다. 그러나 농민운동의 경우는 '노가바'가 지속되고 있다. 농민운동에 함께하는 노래패들은 농사짓다 문제가 생기면 나서는 비전문적 노래꾼들이다. 이들은 창작의 역량도 안 갖추어져 있고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농민운동에서는 열린 형식의 민요[229]나 현재 유행하는 대중가요에 필요한 가사를 붙이는 '노가바'가 계속되고 있다. 이

227)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농민가락 차차차」,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1985.
228) 우리시대의 노래 1,

글의 초입에서도 밝힌 대로 밀양 송전탑 제지운동현장의 할머니 노래단이 현재 최고의 대중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노가바하여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가 "내 사랑 밀양~ 송전탑 철거 ~ 데모하기 딱~ 좋은 나인데"로 부르고 있다.

농민노래에서의 조직적인 노가바 탄생은 1979년대 중반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교육에서부터이다. 1974년 크리스챤 아카데미에서는 청년, 여성, 종교인, 빈민,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을 모아 사회교육을 실시했다. 농민교육의 경우, 4박 5일 혹은 2박 3일간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저녁에는 분반토의시간을 갖는다. 이때 농민들 각자가 처한 현실을 노래로 만들어 발표하곤 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단어를 골라가며 농촌의 문제들을 기존의 노래에 실어 만들게 된 것이다. 노래책 제목 「농민가락 차차차」도 신나는 대중가요 〈노래가락 차차차〉를 재미있는 농민가로 바꾼 것이다.[230] 한국기독교농민회와 크리스챤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1970년대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중투쟁교육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이종옥은 고창 삼양사 소작농 투쟁, 충북 음성 고추싸움, 고창 노풍피해보상운동, 무안고추투쟁, 수세투쟁, 농협민주화운동, 여성조합원가입운동, 의료보험투쟁 등의 농민운동에서 70년대 말부터 불렀던 '노가바'의 예와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었다.[231]

1979년 유행했던 조용필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들고양이의 〈마음약해서〉가 운동가요로 노가바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1978년 식량자급이라는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신정권은 통일벼, 유신벼, 노풍 등의 벼농사를 강제로 짓게 했다. 파종을 앞둔 시점에서는 면서기들이 동네를 돌며 집집마다 볍씨 준비현황을 조사, 점검하면서 일반 품종의 볍씨(아끼바리, 밀양 15호)를 못판에 담궈 놓은 경우는 볍씨통을 엎어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한 정책으로 하는 수 없이 병충해와 냉해에는 약하지만 수확량은 많은 '노풍'을 심었던 충남과 전북의 농가는 냉해의 피해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농가들은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농민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뽑기만 뽑아봐라〉와 〈마음약해서〉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선율에 〈뽑~기만 뽑아봐라〉가사가 붙은 노래는 농민들이 노풍대신 아끼바리 등의 모로 모내기를 하면 면서기들이 와서 뽑아 버릴까봐 걱정해 부르는 반항의 노래이다.[232] 그리고 〈마음약해서는〉 할 수없이 노풍을 심

---

229) 열린 형식의 민요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가사를 바꾸어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된 민요를 말한다. 주로 메기고 받는 형식의 민요인데 〈쾌치나칭칭나네〉, 〈강강수월레〉, 〈진도아리랑〉, 〈옹헤야〉 등과 같은 노래를 말한다. 받는 부분은 일정한 가사를 유지하고 메기는 사람이 주로 새로운 가사를 붙인다.

230)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103쪽.
가세 가세 일하러 가세/한데 뭉쳐 일하러 가세
우리 농민 한평생을/멋지게 살아나가세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힘 있는 우리 농민/한데 어울려 일하러 가세 차차차

231) 이종옥 인터뷰, 2014.10.15.

232)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74쪽.
〈뽑기만 뽑아봐라〉
젊은 놈들 떠나버린 쓸쓸한 동네에/골병들고 쪼그라진 늙은이만 남았네
오늘도 뼈 빠지게 모를 심는데/면서기들 와가지고 뭐라고 따대기냐
뽑기만 뽑아봐라 뺨따구가 올라간다.

었다가 피해를 본 농민이 부르는 노래다. 다음은 노풍문제를 다룬 노가바 〈마음약해서〉의 가사이다.

마음약해서 노풍심었네 권장해서 심었네
냉해입으니 쓸쓸하네요 내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피해보상 못받었든가
저렇게도 죽은 나락 평년작이래
오기만 하면 멱살잡겠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나는 너를 잡지 못했네

마음약해서 군수 왔을 때 바른대로 말을 못했네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 내 마음 허전하네요
생각하면 그 얼마나 못났었든가
이렇게도 못살면서 좋아 졌다고
오기만 하면 멱살 잡겠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나는 너를 잡지 못했네[233]

멱살만 잡고 싶었겠는가? 본인의 논에 벼 품종마저 마음대로 심지 못하고 정부에서 강권한 노풍을 심었는데 벼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화풀이마저도 마음약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한탄을 노래에 실었다. 대부분의 가사들이 매우 직설적이다.

1979년 돼지값 파동과 그 뒤로 이어진 양파, 고추파동으로 상처를 깊게 입은 농민들의 심정은 고운봉의 노래 〈선창〉에 가사를 실었다. 무안의 황토길이 가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무안 의 양파파동과 고추파동 때에 만들어진 노래인 듯하다.

울려고 양파 했든가 웃을려고 고추 했든가
무안들 황토길에 왕창 썩는 양파신세
그대와 둘이서 양파를 심든 그날은
지금은 어디로 갔나 부채만 늘어난다.

울려고 마늘 했든가 웃을려고 참깨 했든가
울어본다고 아시 올르랴 농사꾼의 첫 순정
그대와 둘이서 참깨를 심든 그날도

233)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83쪽.

지금은 어디로 갔나 황소야 울어라

울려고 돼지 쳤든가 웃을려고 소 쳤든가
비린 내 나는 도살장에 왕창 썩는 고기냄새
그대와 둘이서 우리를 치던 그날은
지금은 어디로 갔나 돼지야 말해다오.[234]

농민운동에서는 여성농민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1989년 전국여성농민회가 조직되면서는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노가바 〈여자의 일생〉과 〈처녀뱃사공〉이 노가바된 〈처녀농사꾼〉은 여성농민의 환경을 잘 묘사한다. 아음은 〈여자의 일생〉이 노가바된 가사이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허리가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농사일에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뼈 빠지게 일해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보네
비탈진 개간지를 기어가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농민들은 앞서 기술한 메기고 받는 민요 외에도 많은 민요들을 개사하여 불렀다. 〈오동동 타령〉, 〈성주풀이〉, 〈아리랑〉, 〈밀양아리랑〉, 〈한오백년〉, 〈몽금포 타령〉, 〈군밤타령〉,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광복군 닐리리야〉 등 수많은 민요들이 있다.

이렇게 모두 아는 대중가요나 민요를 노가바하여 부르는 것은 농민운동에 있어서 사용되는 노래 부르기가 노래패를 앞장세우는 문화운동보다는 다 같이 공감하는 가사를 다 같이 힘껏 부르는 노래운동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4)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44쪽.

③ 나주의 여성노래패 '논두렁 밭두렁'

전남에는 장흥의 노래패 '희망녘'이나 강진의 노래패 '소리조아'의 농민노래패 활동이 보인다. 하지만 여성노래패 활동이 더욱 눈에 띈다. "노옹사아는 아무나아 지잇나 수지라도 맞아야아 짓지이~~" 태진아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노가바한 노래 〈농사는 아무나 짓나〉를 간들어지게 노래하는 전남지역의 유일한 여성농민노래패 '논두렁밭두렁'은 나주시여성농민회의 소속이다. 2000년부터 시작한 노래패는 현재 강정남, 정은숙, 송향숙, 최중숙, 박공주로 구성되어있다. 전북여성농민노래패 '청보리사랑'은 1994년 창단해 활동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늦게 창단되었으나 '논두렁밭두렁'의 활동도 눈이 부시다. 나주를 넘어,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을 누비며 활동을 펼친다. 더 놀라운 것은 배농사, 젖소키우기,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면서 노래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때때로 3명만 노래하기도 한다. 밭에서 방금 달려온 것처럼 몸빼를 입고 호미를 들고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앞서 소개한 노가바 노래를 주로 부른다. 필요하면 상황극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대본으로 노래극을 공연하기도 한다. 광주전남 통일여성잔치 음악극공연, 5·18 민중항쟁 23주년 국민대회, 광주전남민중대회, 오월전국노동자대회 및 문화제, 우리농업지키기 소비자생산자한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의원대회, 우금티예술제, 광주인권영화제 등 종횡무진하며 달려가 농사와 농업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

Ⅳ. 나가는 말

한국현대사에서 본격적인 음악운동은 1980년 이후 5월운동과 함께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미미하나마 사회운동에 사용되었던 노래가 있었고 혁명이나 항쟁을 기념하는 노래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음악운동연구에서는 이 연구프로젝트의 시간적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노래와 노래운동을 전개한 개인과 조직, 그리고 운동의 현장을 추적해보았다.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부르던 노래와 그 경향을 정리했고 80년대 이후에는 노래운동을 이끌었던 노래일꾼들과 조직노래패, 그리고 사회운동의 현장과 그 곳에서 불렀던 노래 등을 조사했다.

80년대 이전의 사회운동에서는 노래를 운동의 수단으로 크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가〉나 〈해방가〉와 같은 몇 곡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사회운동의 목적으로 작곡된 노래가 많지 않았다. 집회의 현장에서는 주로 선언문을 낭독하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주도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국의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운동권사회에서 부르기 시작한 미국에서 들어온 복음성가, 노가바 대중가요, 사회운동의 내용과 시의가 적절한 드라마 주제가, 팝송이나 번안가요, 러시아민요, 우리나라 민요 그리고 김민기의 노래류를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사석에서 부르면서 노래들이 조금씩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5·18민중항쟁을 겪은 후 진행되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사회운동은 그 주제가 분명한데다 노래운동이 본격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운동현장에 적절한 노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래 부르는 분위기나 방법도 시기에 따라 많이 변했다. 60년대와 70년대는 운동권 인사들이 학교의 캠퍼스나 운동을 논하던 술자리 등에서 자조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면 70년대 후반, 특히 교육지표 사건으로부터는 선동적이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노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면서 직설적이고 선동적인 가사와 가락을 가졌다. 노래에는 손을 휘젓는 행위를 넘어서 율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의 율동은 운동에서의 긴장감을 덜어내는 기제로 작용했고 즐거움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운동의 현장에서는 노래가 투쟁에너지 충전제였고, 동참을 이끌어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리게 해주는 약사발이었다. 노래

운동에 뛰어든 몇 안 되는 노래꾼들은 실천가들만큼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운동에 임했으며 덕분에 구속의 경험까지도 얻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노래꾼들은 보다 효과적인 음악운동을 위해 전남대의 '횃소리'와 조선대의 '함성'과 같은 학내 노래패와 '친구'와 같은 사회 노래패를 조직하여 더욱 전문적인 음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남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은 1988년과 89년에 목포대학교의 '울림소리', 목포전문대학 'ㅎ、ㄴ', 순천대학교의 '황토마루'와 사회노래모임 '아침', '어울림' 등의 노래패가 생겼다.

1984년과 1985년에 발간된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에서 발간한 「농민가락 차차차」가 보여주는 대로 농민운동에 사용된 노래는 주로 노가바가 많았다. 농민운동에서도 노래패의 활동이 보이지만 그보다는 쉬운 대중가요나 민요를 노가바하여 부르는 '다같이 노래부르기'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87년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래의 가사는 현실과 원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따라서 율동도 각이 서면서 그 주장하는 바가 몸짓을 통해서도 표현되었으며 대중들은 무대에 앞장선 전문 율동가들의 시범을 따라 군무를 보여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율동마저도 전문성을 띄게 되자 율동은 점차 노래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마침내 율동패들이 따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활약하기 시작한 아이돌 가수들의 현란한 댄스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전남 목포에서는 노래패들이 모여 1989년 대규모 노래운동 "선생님 힘내세요"와 같은 노래공연을 통해 적극적인 음악운동을 시작한다.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동과 교육의 현장에도 아마추어 노래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0년에 생긴 기아의 노래패 '새벽빛'을 비롯한 노동현장의 많은 노래패들과 전교조 노래패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노동현장의 아마추어 노래패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집단인 '공단외각'이 조직되어 각 노래패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동시에 각 사업체별 노동운동과 문예운동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광주노동자노래패협의회'와 더 넓은 범위의 조직인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이 조직되어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넘어 각 분야의 운동을 지원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운동에서는 남대협(전대협)을 위하여 대학 내의 노래패들이 협조했다면, 남총련(한총련)을 위하여는 전문노래단이 꾸려졌으며 창작곡들이 생산되었다.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묶기 위한 의도로 해마다 보급곡과 그 율동이 채택되어 전국의 학생들이 같은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가되는 독특한 음악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남총련의 노래단 '한반도'는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남총련을 넘어서 한총련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함께 전국적으로는 민중가요의 유통이 위축되었으나 광주에서는 해마다 오월이면 '거리음악제'가 열리면서 오히려 더 씩씩한 음악운동이 전개되었다. 5·18과 관련하여 집회를 실외에서 가질 수 없었을 때 외부적으로는 노래공연이나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저항집회인 거리음악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의 수단이 '노래공연'이었기 때문

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통일 노래가 나왔다. 1993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남지회와 1994년 광주시지회가 설립되면서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유치해 진행할 수 있었으나 운동의 힘은 점차 떨어지고 오히려 대중적 예술로의 방향전환의 경향이 보인다. 전남에서도 전문 음악집단인 노래패 '어울림'과 극패 갯돌, 미술패 대반동이 5월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또 전남의 경우, 양혁철이라는 뛰어난 연출전문가의 존재로 1994년 지역문예인만으로 반전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공연되기도 했다. 목포와 인근 공단을 중심으로 노동자 노래패 혹은 밴드가 결성되었는데 이들도 대학노래패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 넓게 퍼져있는 전남의 각 시군단위에서 전교조 노래패와 밴드가 조직되어 '참교육의 실천'을 노래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문 음악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남총련 노래단 '한반도'와 노래를 사랑하는 빛고을 청년연대 노래단 '청춘의 도시'가 가장 포괄적인 음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학생음악운동에 몸담았던 패원들이 모여 만든 전문집단으로서 지역의 엄청난 공연수요의 소화는 물론 창작노래의 음반의 발매까지 활동이 활발했다. 그러나 이 전문집단까지도 지금은 활동을 접었다.

2010년에 시작된 오월창작가요제는 위축되어가는 민중가요의 맥을 잇고 오월 정신을 음악을 통해 재현하고자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오월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5·18과 그 정신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또 투쟁을 넘어 예술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해마다 태어나고 있다.

비록 이 글이 10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료의 한계와 시간적 제약, 그리고 기억의 한계로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광주전남의 첫 음악운동연구인 만큼 부끄럽지만 세상에 나가야만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으므로 관계자들에게 많이 읽혀 광주전남의 사회운동의 한 분야로서의 음악운동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으면 더 바랄 바가 없겠다.

참고문헌

김선출, 「5월의 문화예술」, 광주: 도서출판 샘물, 2001.
김창남, 「김민기」, 한울, 2004.
김창남 외, 「노래운동론」, 도서출판 공동체, 1986.
김현미, 「1970년대 마당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나간채, 「한국의 5월운동」, 서울: 한울, 2012.
노동은, 「한국민족음악현단계」, 세광음악출판사, 1989.
무등역사연구회, 「광주 · 전남의 역사」, 무등역사연구회총서 1.
박호재 · 임낙평, 「윤상원 평전」, 도서출판 풀빛, 2007.
이영미, 「서태지와 꽃다지」, 한울, 1995.
임동권, 「韓國民謠硏究」 국어국문학양서 12, 서울: 二友出版社.
전용호, 「영혼결혼식과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이야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2006.
전남사회운동협의회편, 황석영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정근식 · 나간채 · 박찬식 외 공저,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한국음악학학회 ·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 2006.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光州五月民衆抗爭史料全集」, 풀빛, 1990.
갯돌 30년 문화운동 3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갯돌 30 문화운동」, 2011.
Merriam, Alan P.(이기우 역), 음악인류학 II, 서울: 한국문화사, 2001.

〈논문〉

김재석, “함평고구마연구”, 「한국연극학」 제34호, 2008.
노동은, “5 · 18과 음악운동”,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2004,
이덕기, “노래굿〈공장의 불빛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2집,
임지연, 「여성문학연구」 통권23호, “이영도 문학의 공적 욕망 구조”, 2010

정유하, “5 · 18의례음악의 변화”,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정유하, “518항쟁의 형상화에 사용된 음악표현양식”, 「음악과 민족」 제26호, 민족음악학회, 2003.

〈악보자료〉

김선철. 「무등둥둥」, 광주: 도서출판 CDR, 2011.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해방의 코스모스」 네번째, 2000.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해방의 코스모스」 여섯번째, 2002.
Yun, Isang. EXEMPLUM in memoriam Kwangju, Berlin: Bote & Bock, 198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래는 멀리멀리 1977~1986」 상, 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우리시대의 노래」 1, 2. 서울: 민맥, 2000.
고승하, 「아름나라 노래세상」, 지식산업사, 2004.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농민가락 차차차」,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1985.

〈미디어 자료〉

Yun, Isang. My Land, My People!, CD, Berlin: Bote & Bock.
윤이상. EXEMPLUM in memoriam Kwangju, 서울: GENUIN MUSIC PRODUCTIONS, 2003.
김선철. “무등둥둥”, 비디오, KBS 2.
“십자가”, 광문협 친구.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광문협 친구.
“의연한 산하”, 광문협 친구.
우리노래 I 「꽃아꽃아」, 우리소리연구회.
우리노래 II 「그대 가는가」, 우리소리연구회.
우리노래 III 「봄날의 코스모스」, 우리소리연구회.
우리노래 IV. 「언젠가 봄날에」, 우리소리연구회.
“화려한 휴가”, 메이엔터테인먼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 음악분과,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1989.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 음악분과, “노래하나 햇볕한줌”, 199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국 음악분과, “불량제품들이 부르는 희망노래”, 1992.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제작 음반, 2010, 2012, 2013, 2014.

〈보고서 자료〉

5 · 18재단 기념행사위원회 행사평가자료, 18주년-34주년.
민청학련 40주년 심포지엄 책자 「다시 민주주의를 묻는다」, 2014.04.03.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34주년 기념식, 2012.06.27.
박영정, 「질문으로 구성해 본 극회 ‘광대’ 이야기」,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평화』, 2010.5.18
2007년 5 · 18민중항쟁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 2007.

〈신문 · 잡지 · 인터넷뉴스 자료〉

광주일보, ‘새싹들이 노래한 “금남로” ’, 2001.05.18.
광주일보, “50회 맞는 ‘무등산 풍경소리’ ”, 2007.04.11.
동아일보, ‘「5월광주」 예술로 되살린다’, 1991.05.16.
동아일보, “5 · 18 20돌기념 5월문화예술제 10개도시서 꽃피다”, 2000.05.08.
동아일보, “5 · 18기념 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광화문서 열려”, 2000.05.16.
동아일보, 2004.5.31. 머니투데이, 2004.5.31.
무등일보, 5월 정신 ‘Rock’으로 승화, 2000.05.26.
경향신문, ‘오월光州’ 예술로 기린다, 1990.05.01.
경향신문, 「光州」다룬 藝術작품 質 · 量 “빈곤”」, 1989.05.18.
경향신문, 「光州國樂」 5 · 18 音樂祭, 1989.05.13.
경향신문, 5 · 18단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없는 기념식 불참, 2014.05.07.
경향신문 ‘태국서 임을 위한 행진곡 울려 퍼지다’, 2006.09.15.
경향신문, ‘아침이슬 머금고 남행열차 탄 동백아가씨를 왜 불러’, 2014.05.02.
경향신문, 충청일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일당 5만원에 입만 빠금, 2014.05.18.

민중의 소리, “광주에서 울려퍼진 ‘양심수 전원석방’ 목소리”, 2005.08.09.
스포츠한국, ‘사노라면’ 원작자 찾았다. 2004.9.19.
전북일보, “5·18민중항쟁 25주년 기념 및 이세종 열사 추모음악회”, 2014.05.18.
주간동아, “농업, 농촌, 농민이 살아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기사, 2012.08.06.
충청일보,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일당 5만원에 입만 빠금, 2014.05.18.
한겨레신문, “광주노래패 ‘친구’ 민족음악강좌”, 1992.06.26.
한겨레, “ ‘광주’ 10돌 예술제 열어”, 민예총은 10년 전에도 ‘광주’ 10돌 예술제를 기획한 적이 있었다. 1990.03.18.
한겨레신문, “참교육 노래 테이프 ‘해맑은 웃음을....’ ”, 1989.11.25.
한겨레신문, “종일 흐느낀 ‘5·18’ ”, 1999.05.19.
한겨레신문, “알맹이 빠진 518기념음악회”, 1996.05.21.
한겨레, ‘깨어나는 중국농민공들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다’, 2012.01.02.
한겨레, “노동법 날치기 처리”, 1996.12.27.
한겨레신문, “광주 천주교 노래패 ‘소리’ 분단·광주항쟁 소재 공연, 1990.11.10.
한겨레신문, “광주 노래패 ‘친구’ 발표회 15.16일 ‘통일기 휘날리며’ ”, 1988.10.15.
한겨레, ‘새누리도 ‘임을 위한 행진곡’ 지키기에 힘 보태, 2013.05.08.
뉴스천지, 광주시 ‘임을 위한 행진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13.05.10.
시민의 소리,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하나 된 ‘한국과 일본’ ”, 2014.05.22.
아고라, “이명박식 정리 해고 제2의 쌍차를 부른다”, 2009.08.28.
OhmyNews, “5·18 30주년 맞아 ‘오월창작가요제’ 열린다”, 2010.03.29.
OhmyNews, “새야 새야 파랑새야", 2002.11.13.
전라도닷컴, “노옹사아는 아무나아 지잇나~”-나주여성농민노래패 ‘논두렁밭두렁, 2002.11.13.
데일리안,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단....일당 5만원에 입만 빠금, 2014.05.18.
제1회 5·18청소년문화제(RED FASTA), http://cafe.daum.net/redfesta
전남참교육실천대회 홍보자료, http://cafe.daum.net/neonewmeeting/
노래패 어울림의 공연이야기. http://blog.daum.net/hangil66/8672603
오월창작가요제, http://www.maymusicfesta.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db.kdemocracy.or.kr/viewer/viewer.jsp?data_regno=443363
음악감상(민중가요), http://plsong.com/xe/music
광주노동자문예운동총연합, http://cafe.daum.net/gnmy
광주국제교류센터, http://www.gic.or.kr/portal/board.php?bo_table=center_news&wr_id.

〈프로그램〉

희망.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 공연 프로그램, 2001년 12월 15일, 사랑방 소극장
「오창규 오픈 스튜디오」(프로그램), 1988년 12월 15일 YMCA 무진관, 빛고을 기획실 제작 · 기획.
오월의 시-서시 프로그램, 2001년 5월 18일~21일, 5 · 18기념공원
5 · 18민중항쟁 창작오페라 "무등둥둥", 1999년, 2000년 공연프로그램
5 · 18민중항쟁 23주년 기념 김남주시에 의한 현악4중주와 인성을 위하여, 2003년 5월 28일, 광주 5 · 18기념문화관 대동홀.
연작회 작곡발표회, 1989년 9월 1일, 광주시민회관 연주홀.
시와 노래가 있는 5 · 18 음악회, 2002년 11월 29일, 5 · 18기념문화관 민주홀.
오월음악회, 2003년 5월 10일, 5 · 18기념문화관 민주홀.
박종화 창작관현악 공연 "오월에서 통일로", 2000년 5월 18일, 5 · 18망월묘역 특설무대
시민과함께하는 5 · 18송년음악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2004년 12월 3일, 5 · 18기념문화관 민주홀.

〈구술 및 인터뷰 자료〉

김상윤과 인터뷰 2014년 4월 28일
김원중 · 박문옥 · 홍세현 구술 2012년 12월 4일
김원중 인터뷰, 2014년 3월 19일
김창수 · 박오열 · 백형준 · 조인호 · 최경근 구술 2014년 8월 13일
기춘희 인터뷰 2015년 3월 2일
나용엽 인터뷰, 2014년 8월 6일
류의남·장세레나 구술 2013년 8월 8일
최응재 구술, 2013년 9월 17일,
나용엽 인터뷰, 2014년 8월 6일
문승훈 인터뷰, 2014년 7월 15일
박병기 인터뷰, 2014.08.04.
박영정과의 인터뷰, 2013년 8월 7일
박종화 구술, 2014년 3월 21일, 2015년 1월 12일
배종민 인터뷰, 5012년 3월 21일

송정민 인터뷰, 2014년 7월 14일
안재철 · 정승오 인터뷰, 2014년 9년 12일
양은선 · 윤준서 인터뷰, 2015월 3월 31일
오창규와 인터뷰, 2014년 8월 13일
윤형호 · 이민경 구술, 2013년 1월 6일
이재의 인터뷰, 2014년 7월 26일
이종옥 인터뷰, 2014년 10월 15일
전영규 인터뷰, 2014년 8월
전용호 인터뷰, 2013년 11월 6일, 2014년 7월 15일, 8월 12일
정용화 인터뷰, 2014년 7월 7일
조봉훈 인터뷰, 2014년 7월 10일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미술운동

배 종 민

민주장정 100년

목 차

제1장. 남종화의 전통과 서양화단의 형성(1900~1945) ····· 181

1. 남종화의 전통 ····· 181
2. 서양화단의 형성 ····· 184
3. 목포지역 미술운동 ····· 188

제2장. 해방정국과 민족미술(1945~1948) ····· 192

1. 민족미술의 수립 ····· 192
가. 조선미술건설본부 ····· 193
나. 조선미술가동맹 ····· 195
다. 조선미술동맹 ····· 196
2. 광주지역 미술운동 ····· 198
3. 목포지역 미술운동 ····· 200

제3장. 6·25전쟁과 선전미술(1948~1961) ····· 203

1. 6·25전쟁과 선전미술 ····· 203
2. 민족자주통일협의회와 오지호 ····· 209

제4장. 유신체제와 민족민중미술운동(1962~1979) ····· 213

1. 유신체제와 민중미술운동의 태동 ····· 213
2.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창립 ····· 216

제5장. 5·18광주민중항쟁과 민족민중미술운동(1980~2002) ····· 218

1. 미술소집단의 결성 ····· 218
2. 광자협·시각매체연구회 ····· 221
3. 광주시민미술학교(1983~1992) ····· 228
가. 시민미술학교 개설 ····· 228
나. 시민미술학교에 투영된 5·18항쟁의 기억 ····· 237

1) 농민의 체념과 분노 …… 240
2) 노동자의 전쟁 같은 노동 …… 242
3) 소시민의 소외와 상흔 …… 245
4) 5·18항쟁의 트라우마 …… 248
4.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 254
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립 …… 254
나. 겨울미술학교 …… 257
다. 오월전 …… 259
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해체 …… 268
5. 목포지역 미술운동 …… 271
가. 목포 경제의 쇠락 …… 271
나. 미술패 대반동 …… 271

제6장. 대학미술운동 …… 275

1. 민족민중미술운동과 대학미술패 …… 275
2. 전남대학교 미술패 : 민화반, 판화반, 불나비, 마당, 신바람,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우리미술연구회 판 …… 279
가. 민화반(1981~1984) …… 279
나. 미술패 토말(1981~1984) …… 281
다. 판화반(1985~1986) …… 283
라. 미술패 불나비(1986~1988) …… 284
마. 그림패 마당(1988~1994) …… 286
바. 예술대 미술패 신바람(1988~1994) …… 290
사. 미술교육과 소모임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1990~1994)… 292
아. 우리미술연구회 판(1993~1995) …… 293
자. 전남대학교 미술패의 해산 …… 294
3. 조선대학교 미술패 : 토말, 시각매체연구회, 땅끝, 개땅쇠, 조선미술터 …… 296
가. 토말, 시각매체연구회(1982~1986) …… 296
나. 땅끝(1986~1988) …… 297
다. 개땅쇠(1988~1991) …… 298
라. 조선미술터(1991) …… 299

4. 광주교육대학 미술패 : 솟터(1988~1994) …… 300
5. 호남대학교 미술패 : 민족민중미술패 매(1987~1998)…. 307
6. 서강전문대학 미술패 : 한울타리(1988~?) …… 309
7. 목포대학교 미술패 : 유달산, 돛대(1986~1992) ….. 309
8. 목포과학대학 미술패 : 民, (1990~1991) …… 310
9. 연대활동의 강화(1989~1992) …… 310
가. 미술선전방식의 변화 …… 310
나. 전남대학교학내미술운동연합 …… 312
다.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 315

제1장. 남종화의 전통과 서양 화단의 형성(1900~1945)

1. 남종화의 전통

20세기 초, 우리 전통회화가 처한 상황은 심각했다. 도화서가 폐지되고,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중앙 화단의 재생산 구조가 붕괴하였다.[1] 서울의 경성서화미술원(京城書畵美術院), 조선서화미술원(朝鮮書畵美術院), 평양의 기성서화미술회(箕城書畵美術會,1914), 대구의 교남서화연구회(嶠南書畵硏究會, 1922) 등이 설립되지만, 역부족일뿐더러 대부분 경제력을 갖춘 친일세력의 후원에 기대고 있었다. 서화협회(書畵協會)가 "조선 미술의 침쇠함을 개탄하여 전조선의 서화가를 망라하고 신구 서화의 발전과 동서 미술의 연구와 향학 후진의 교육"[2]을 걸고 발족했지만(1918),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서화협회의 특별 회원과 명예 회원 중에는 애국계몽운동계열의 지식인도 많았지만, 후원인단에 이완용 등 친일세력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3]

1922년부터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선전)는 우리 미술의 전통을 단절하고 치명적으로 훼손했다. 조선총독부(이하 총독부)가 후원하는 유일한 관설 공모전이란 독점적 지위를 누린 선전은, 전시회를 통한 등단이 어렵던 미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전의 입선 여부가 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작가의 입신양명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선전은 '조선화' 대신 동양화' 를 공모전의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심사위원은 일본인, 특히 동경미술학교의 교수가 독점했다.[4] 작가의 출품 자격도 제한했다. 특히 총독부가 작품이 치안풍교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출품 자

1) 김성희,「1920년대 한국 전통 화단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근대한국미술논총』, 학고재, 1992, 245~249쪽)
2)「서화협회 규칙」,『서화협회 회보』제1호, 1921 ; 최열,『한국근대미술의 역사 1800~1945』, 열화당, 1998, 106쪽에서 재인용.
3) 조정육,「근대 미술사에서 서화협회의 성과와 한계」,『근대한국미술논총』, 학고재, 1992, 186~187쪽)
4) 홍성미,「동경미술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 : 1909~1945년 서양화과 졸업생을 중심으로」,명지대 박사논문, 2014, 54~64쪽 ; 홍선표,『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136쪽.

체가 불가능했다.[5] 조선인이 선전에 입선하려면, 총독부의 지침 하에 일본인 심사위원의 취향을 묵수하며,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유리된 그림을 그려야했다.[6] 조선인 화가들은 이 모든 제약을 감내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인 화가가 선전 입선의 총 65%를 차지했다.[7]

1944년까지 선전은 총 23회에 개최되었다. 총독부는 선전을 활용하여 일본 미술을 효율적으로 조선에 이식했다.[8] 특히, 일본의 신남화풍과 채색인물화 양식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일본 화풍이 우리 미술을 잠식해갔다. 총독부는 선전 입선을 미끼로 우리 화가를 통제하고 화단을 장악했으며, 식민통치에 활용하였다. 시나브로 조선인 화가는 청맹과니가 되었고, 그들의 작품은 언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일제가 전시비상체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반도총후미술전(半島銃後美術展)〉(1942)에 참여한 부일 작가 대부분이 선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선전의 식민지적 본질을 명백하게 보여준다.[9]

한편, 전남 지역은 허련(許鍊, 1809~1892)이 뿌리 내린 남종화의 본향이었다. 회화적 역량이 출중한 화가 층이 두터웠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전남 지역 작가가 선전에 다수 입선할 수 있었던 예술적 토양이기도 했다.[10] 그러하여 전남의 화단은, 일본화의 유입에 맞설 전통미술의 근거지이면서, 동시에 선전 입선에 매몰되어 일본 화풍에 물들 수 있는 이중성이 병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남도화단의 양대 산맥인 허백련(許百鍊)과 허건(許楗)의 행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듯 근대 남도 회화는 허백련에서 시작한다. 허백련은 진도 운림산방(雲林山房)의 허형(許瀅)에게 처음 그림을 배웠다. 그러나 본격적인 畫業은 1917년 일본에서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1874~1945]의 문하생이 되면서부터였다. 고무로 스이운은 일본 문부성 미술전람회(이하 문전)초기부터 官展에서 활약했으며, 1921년 일본남화원(日本南畵院)을 결성하여 남화진흥운동(南畵振興運動)을 펼친 일본 근대 남화의 핵심적인 인물이다.[11] 특히 그는 선전 동양화부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허백련, 변관식(卞寬植), 정운면(鄭雲勉) 등을 사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묵 화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1920년 귀국한 허백련은 목포 공회당에서 귀국 전시회를 열었으며, 1922년 제1회 선전 동양화부에서 1등이 없는 2등에 입상하며 중앙 화단에 등단한 후, 제6회 선전까지 계속 작품을 출품하였다.[12] 요컨대, 허백련은 남종화의 토양에서 그림을 시작했지만, 일본 남화를 배우면서 전문 화가로

---

5) 조선미술전람회 규정 제11조 좌에 게한 자는 출품키 부득함. 1.제작 후 5년 이상을 경한 자. 2.본회에 진열한 일이 있는 자. 3. 치안풍교에 유해한다 인한 자.(「미술전람회규정」, 『동아일보』,1921.12.)

6) 윤범모, 「한국근대유화의 전개 양상」, 『근대를 보는 눈』, 국립현대미술관, 1997,19쪽.

7) 정호진, 「조선미술전람회 제도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05, 한국미술사학회, 1995, 35쪽.

8) 선전은 한반도에 거주한 일본인 화가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내재해있었다.(이중희, 「조선미술전람회 창설에 대하여」, 『한국근대미술사학』 3, 청년사, 1996, 102~104쪽.)

9)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175쪽 ; 윤범모, 앞의 논문, 37쪽.

10)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196쪽.

11) 황빛나, 「小室翠雲의 남화진흥론과 산수화풍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2003, 1쪽.

12) 제6회 선전 참여를 끝으로 허백련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허백련이 선전에 출품한 것은 근대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였으나, 이후 출품을 단절한 것은 선전이 조선 회화를 배제하고 일본 미술을 이식하는 역기능적 모습을 간파하고, 했기 때문이고, 귀향하여 남종화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귀를 감행한 것이다' 는 견해가 있지만,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강원, 「동아시아 탈근대성과 의재 허백련의 활동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조선대 석사논문,2007, 39쪽)

입신한 것이다.

1938년 허백련은 광주에 정착, 연진회(鍊眞會)를 발족했다. 변관식과 김은호가 찬조회원이 되고, 정회원으로 구철우, 정상호, 정운면, 김동곤, 최한영, 허행면 등 서화가와 이원보, 이범재, 민병기 등 고급 관리, 독립투사 양백아, 광주의 거부 최정숙 등 36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13] 회원 구성을 보면, 대다수가 미술가였지만, 참사관, 군수, 경찰, 독립투사, 지역 유지까지 이질적인 회원도 많았다. 허백련은 '남종화 운동'을 추구하고자, 변관식과 '조선 남화원' 건립의 뜻을 교감한 후, 연진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그런데 연진회를 설립한 목적이 '일본 남화원'을 세워 '남화 대중화 운동'을 전개한 스승 고무로 스이운의 행적과 매우 흡사하다. 연진회(1938~1944)는 전통 남종화의 진흥과 더불어 일본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에 저항했다고 한다.[15] 해방 후 연진회는 지역 미술계를 활성화하고 남종화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허백련은 보수적 화풍을 고수했고, 연진회는 지역 화단의 보수화를 초래했다고 비판받는다.[16] 다시 말해서, 고무로 스이운은 허백련의 생애를 걸쳐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17]

허건(1908~1987) 역시 운림산방 출신 전통 화가이다.[18] 그는 평생을 진도와 목포를 근거지로 그림을 그렸으며, 허백련과 더불어 남도화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19] 1930년 제9회 선전에 처음 입선하며 등단했고, 1944년까지 매해 거르지 않고 출품하여 입선했다. 특히 마지막 선전에선 총독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일본의 대동남종원전, 문전에서도 입상 경력이 있다. 해방 이후엔 목포에 '남화연구원(南畵硏究院, 1946)'을 열어 후진 교육에 힘썼다. 국전초대작가로 참여했고, 1960년부터

---

13) 강원, 「동아시아 탈근대성과 의재 허백련의 활동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조선대 석사논문,2007, 44쪽 ;김은영,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의 남종화 부흥운동 연구」,전남대 석사논문,2000,32쪽.

14) 강원, 「동아시아 탈근대성과 의재 허백련의 활동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조선대 석사논문,2007, 43쪽. 한편, 변관식도 고무로 스이운의 제자였으며, 특히 고무로 스이운의 사생과 적묵법을 사용한 사실주의적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15) 김은영, 앞 논문, 33쪽.

16) 김은영, 위 논문, 54쪽. 한편, 연진회의 성격을 남종화 운동의 전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운동 및 전국적 확산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술인 회원은 여전히 선전 입선을 추구했고, 또한 회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강원, 「동아시아 탈근대성과 의재 허백련의 활동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 조선대 석사논문,2007)

17) 허백련은 일본 남화원을 설립하여 쇠퇴했던 일본 남화를 일약 부흥시킨 고무로 스이운 같은 대가와 사제관계였다. 그가 변관식과 함께 조선 남화원 건립을 도모하면서 연진회를 설립했다는 사실은, 허백련이 고무로 스이운에게 받은 감화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허백련이 평생 동안 보수적 화풍을 고수하면 남종화 진흥에 힘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싶다. 앞서 '한반도가 미소의 냉전의 각축장이 되면서, 시나브로 식민 잔재의 청산은 공허해졌고,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잘못이지만, 일본의 근대적 요소가 조선의 후진적 봉건성을 제거한 점은 수긍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억측이 친일파로부터 횡행하면서, 19세기 말 개화된 근대국가로서 일본의 표상이 재부상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국의 추이가 이렇다면, 미건 창립과정에서 배제된 김은호, 김인승, 심형구처럼 악질적인 친일부역미술인이 아니라면, 굳이 선전 경력 및 일본 화풍을 부정할 이유는 경감된다. 허백련처럼 탁월한 스승을 둔 경우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18) 허건은 1908년 미산 허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초년기에 허형에게 그림을 배웠다. 이하 허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이태호, 「진도 허문과 남농 허건의 산수화」, 『탄생 100주년 기념 남농 허건』, 광주시립미술관,2008, 84~88쪽).

19) 허건의 문하생으로 조방원, 김정현, 김명제, 정서진, 신영복, 곽남배, 이옥성, 허문, 박용구, 하철경 등 쟁쟁한 화가들이 많다.

1970년까지 허백련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이처럼 화가로서 허건의 생애는 공모전의 역사와 함께 했다. 특히 선전에 매진하던 초기엔 일본 화풍의 영향이 뚜렷했다. 그렇지만 그는 해방 후 일본 화풍의 채색 산수를 극복하였다. 특유의 독필(禿筆)과 빠른 붓질로 남도의 산하를 개성 있게 그려내면서, 운림산방의 가풍(家風)을 회복하고, 현장 사생을 통해 개성을 갖춘 남농화풍(南農畵風)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20]

2. 서양화단의 형성

19세기까지 조선에서 서양화는 왕실과 상류계층에서나 접한 예외적 미술이었다. 중국도 옛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서양화를 낮게 평가했다. 반면, 일본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서양 미술을 받아들였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유일하게 체계적인 서양미술교육제도를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21] 전문적인 서양화를 배우려면 일본 유학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중국 근대 미술의 유명 화가는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운 유학생 출신이 대부분이다.[22] 우리 근대 서양화단도 거의 일본 유학생 출신이거나, 일본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 미술계에 일본의 서양 미술이 수용되면서 유화가 약진했다. 미술 지망생이 서울이 아닌 동경으로 몰리고, 전통 수묵화보다 서양화를 더 선호했으며, 허백련처럼 전통 회화 지망생조차 일본 유학을 선택하기 시작했다.[23] 미술 공모전에서 서화협회전보다 선전, 선전보다 일본의 문전 입선이 더 높게 평가되었고, 동양화부보다 서양화부의 공모가 훨씬 치열했다. 따라서 동경 유학생 출신 미술인들이 진보적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것이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작가 의식과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선전은 편파적인 심사와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술 권력을 독점했다. 이것은 해방된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문화적 풍토가 아니었다.

조선인이 주로 유학한 미술학교로는 동경미술학교, 가와바타화학교[川端畵學校], 데이코쿠 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다이헤이요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 무사시노미술학교[武藏野美術大學校] 등이 대표적이다.[24] 그중에서 동경미술학교는 관립학교로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학교였기에, 선망의 대상이었다. 해방 전까지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은 총 78명이고, 그중 63명이 졸업했다. 특히 1924년부터 1929년까지 입학생이 가장 많았다.(33명). 이 기간에 일본 문부성이 「외국학생특별입학규정

---

20)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196쪽.
21) 홍성미, 「동경미술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 : 1909~1945년 서양화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논문, 2014, 1쪽.
22) 윤범모, 「한국근대유화의 전개 양상」, 『근대를 보는 눈』, 국립현대미술관, 1997,10~12쪽.
23)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194쪽.
24) 홍성미, 「동경미술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 : 1909~1945년 서양화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명지대 박사논문, 2014, 1쪽.

세칙」의 대상자를 조선과 대만 학생에게 확대 준용하면서, 조선인 입시생은 일본인과 경쟁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5] 김용준, 오지호, 박근호, 이마동, 길진섭 등이 이때 입학했다.[26]

동경미술학교 입학생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안도 16명, 서울 14명, 경상도 12명, 경기 8명, 전라도 7명, 충청도 6명, 황해도 5명, 개성 4명, 함경도 3명, 강원도 1명, 미상 1명 순이다. 평안도가 가장 많고 서울, 영남, 경기, 호남이 그 뒤를 잇는다. 우리 지역에선 김홍식, 오지호, 박근호, 김두제가 동경미술학교에 다녔다. 다른 미술학교 유학생까지 포함하면 일본 유학생이 30여 명에 달한다. 〈표 1〉 이는 타 지역에 견주어 많은 편에 속한다.[27]

〈표 1〉 전남 출신 일본유학생

활동지역	화가	출신	일본 유학 미술학교	해방 후 활동
광주	오지호(1905~82)	화순	川端畵學校(1925) 동경미술학교 (1926~31)	휘문고보(22),조선미술건설본부,조선미술동맹,광주미술연구회(48),광주미술연구회(48),조선대(49~60),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전람회(47)
	배동신(1920~2008)	광주	川端畵學校(39~40)	나주 금천
	강용운(1921~2006)	화순	帝國美術學校(39~)	전남여고(47),광주사범(49)
	양수아(1920~72)	보성	川端畵學校(1939)	만주신문 기자(43),목포사범(47),광주사범(56),양화연구소(53),빨치산(51)
	김보현	창녕	太平洋美術學校	조선대(49),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전람회(47)
	손동(1924~91)	광주	川端畵學校(1941~42)	숭일중(47),광양중(48~52),순천사범(55~56),전남여중고(56~60),광주사범(60~63),광주교대(63~89),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전람회(47)
	천경자(1924~)	고흥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1941~43)	전남여고(46),조선대(49),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전람회(47),종군화가단(51)
	신재호(1920~)	고흥	川端畵學校	광주고(55~56), 서울 이거
	김인규(1922~72)	장성	太平洋美術學校(~45)	영암중(46),조대부중(51),목포중(60),강진중(65)
여수	김홍식(1897~1964)	여수	川端畵學校 동경미술학교(~28)	경성고보(1919) 여수청년회관건립참여(30)
	박근호(1902~)	여수	동경미술학교(27~32)	배재고, 녹향회(31)
해남	김두제(1908~55)	해남	동경미술학교(29~33)	

25) 입학규정의 개정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서화협회전에 맞서 공모전 방식의 선전을 개설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동경미술학교는 선전 심사위원을 독점하고 근대화단을 주도했다. (홍성미, 위 논문, 78쪽).

26) 이 시기에 입학한 학생은 신용우를 제외하곤 모두 가와바타 화학교 출신이다. 당시 이 학교에서 동경미술학교 교수 후지시마가 서양화를 가르치고 있었다.

27) 홍성미, 앞 논문, 65~89쪽

활동 지역	화가	출신	일본 유학 미술학교	해방 후 활동
목포	백홍기(1920~67)	목포	太平洋美術學校(~38)	
	김환기(1913~74)	신안	일본대학 미술학부	서울대(46~49)
	백영수(1922~)	수원	大阪美術學校(~39)	
	김수호(1926~90)	목포	川端畵學校(40~)	목포문화동맹미술부(45),목포미술원(46) 목포고,문태고 교사
	문원(재덕) (1918~50)	목포	帝國美術學校(30년대)	목포문태중(41~44), 조선프로레타리아미술동맹목포지부(45),녹영회(46),목포미술원(46),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중앙위원(47),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전람회(47)
	김동수	목포	太平洋美術學校(40~)	목포미술원(46),녹영회(48), 박영수 누드비판
	고화흠(1923~99)	구례	綠陰社畵學校 (40~)	
	윤재우 (1917~2005)	강진	大阪美術學校(40~44)	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전람회(47), 서울
	천병근(1928~87)	군위	동경미술학교(1945~47)	목포공립중(47),목포영흥중고(1948),경복고(1955)
	박승구(1919~75)	수원	帝國美術學校(~39) 동경미술학교(~45)	보성전문(37),목포미술동맹(45) 백범 흉상
	김정현(1915~76)	영암	川端畵學校(46)	목포여중(47), 서울상경(50)
	양인옥 (1926~2000)	제주	大阪美術學校	목포교대, 호남대
	문동식(1919~76)	영암	太平洋美術學校(~42)	영암중(46),조대부중(51),목포중(60),강진중(65)

광주 출신 일본 유학생은 배동신과 손동이다. 모두 가와바타 화학교에 다녔다. 오지호(동경미술학교)와 강용운(데이코쿠미술학교)은 화순 출신이다. 고흥 출신으로 천경자(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와 신재호(가와바타화학교)가 있다. 김홍식과 박근호는 여수출신으로 모두 동경미술학교에 다녔다. 영암 출신에는 김정현(가와바타화학교)과 문동식(다이헤이요미술학교)가 있다. 목포와 신안 출신은 가장 많은 총 5명이다. 백홍기와 김동수가 다이헤이요미술학교, 김환기가 일본대학, 김수호가 가와바타화학교, 문원이 데이코쿠미술학교에 각각 다녔다. 그밖에 김인규(장성, 다이헤이요미술학교), 양수아(보성, 가와바타화학교), 김두제(해남, 동경미술학교), 고화흠(구례, 녹음사학교), 윤재우(강진, 오사카미술학교)가 일본 유학생 출신 서양화가였다.

전남 출신 일본 유학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목포와 여수(고흥 포함) 등 항구를 낀 지역에서 유학생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귀국 후 활동 지역도 목포가 가장 활발했는데, 심지어 다른 지역 출신 – 보성의 양수아, 제주 출신 양인옥, 수원 출신인 백영수와 박승구, 군위 출신 천병근 – 까지 목포에서

활동하였다. 그 이유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목포와 여수 지역이 항구 도시였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해 보인다. 19세기 이후 인천, 부산, 원산, 목포, 군산, 마산 등 개항장은 일본 세력의 침략 교두보이면서 동시에 일본 문화의 유입 통로이기도 하였다. 개항장은 내륙의 전통 도시보다 토착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유동 인구는 훨씬 다양했다. 도시의 경제적 여건도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외래문화의 수용에도 더 개방적이었다. 요컨대, 목포를 비롯한 개항 도시는 일본 유학생을 배출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1920년대 일본 유학생은 사비 유학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양반 가문 출신으로 지주나 상업자본가 출신으로[28] 서양 문물에 익숙한 분위기에서 성장했다.[29] 오지호, 김홍식, 문원의 가계도 대지주였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되었다. 각 나라는 전도유망한 청년을 일본 유학생으로 파견하여 부국강병의 동량으로 삼고자 했다. 대한제국 역시 관비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한 바 있고,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은 신구국운동의 하나로 일본 유학을 독려하기까지 하면서, 1907년 무렵 사비 유학생이 7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1920년대부터 총독부의 통치전략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며, '수재교육의 이름으로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는 방침을 세우고[30] 유학 제도를 개편하면서, 일본 유학생이 급증하였다.[31]

일본 정부는 미술을 근대 국가의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용했다. 일본에 〈제국미술원전〉, 조선에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공모전을 개설하여, 국가가 미술에 권위를 부여하고, 국가의 선영이라는 목표 아래 미술시장을 활성화한 이유다.[32] 총독부도 학교의 미술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조선의 미술교육은 일본 학교의 미술 교재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미술 교사도 대부분 일본인이었다.[33] 지방유지 출신으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미술 교사(대부분이 일본인)의 권유나 미술부 활동이 계기가 되어 사비로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조선 학생의 일본 유학 형태였다. 예컨대, 양수아는 일본인 교장의 권유에 고무되어 일본 유학을 떠났다. 오지호는 서울에서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유학을 결심했다. 김홍식, 문원 등 대부분이 유사한 경로를 거치면서 유학했다. 그러하여 가와바타화학교 등 조선인이 주로 입학한 미술학교가 등장했고, 동경미술학교에서 후지시마 타케치, 오카다 사부로스케, 와다 에이사쿠 등 조선인이 선호하는 교수가 생기는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수록, 일본이 조선에 서양 미술을 이식하고 조선 지식인에게 일본 유학을 장려한 것이, 조선 문화의 식민지적 변용을 통한 고도의 통치전략의 일환이라는 제국주의적 본질은

---

28) 이지원, 앞 책, 123쪽.
29) 홍성미, 앞 논문 32쪽.
30)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67~168쪽 ; 홍성미, 앞 논문, 70쪽에서 재인용.
31) 1910년대 약 500~700명이던 일본 유학생이 1920년대부터 급증하여 1930년대 중반에 3천~5천여 명, 1938년에 1만 여명, 1942년에 약 3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김성학, 「일제 강점기 해외 유학생 집단의 교육연구활동과 서구교육학 도입」, 『교육학 연구』 34, 한국교육학회, 1996, 1쪽 ; 홍성미, 앞 논문, 71쪽에서 재인용)
32) 홍성미, 앞 논문, 32쪽.
33) 이중희, 「한국 근대 미술교육의 전개」, 『조형 21』, 서울대학교, 1998, 83쪽 ; 홍성미, 앞 논문, 168쪽에서 재인용.

은폐되었다.[34]

전남 출신 일본 유학생은 귀국 후 광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오지호, 배동신, 강용운, 양수아, 손동, 천경자, 신재호, 김인규 등이 광주에 정착했다. 목포에는 백홍기, 백영수, 김수호, 문원, 김동수, 고화흠, 윤재우, 천병근, 박승구, 김정현, 양인옥, 문동식이 활동하였다. 그밖에 김두제는 해남에서, 김홍식과 박근호는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활동 지역과 무관하게 이들 대부분은 전업화가가 아닌 교직과 작업을 병행하였다. 목포가 근거지였던 양수아, 양인옥이 광주로 옮긴 것도 직장의 전직 때문이었다. 유학생들이 귀국 후 교직에 종사한 것은 전국적인 추세였다. 그러하여 이들에 의해 양성된 제자들에 의해 지역 화단이 구축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리하면, 일본인 미술교사에게 일본식 교육과정으로 처음 미술을 접하고, 경제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은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인 지도교수로부터 이론 및 실기를 훈련받고, 귀국 후 교직에서 일본의 미술교육 방식을 답습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이들에 의해 지역 화단이 형성되는 재생산 구조가 곧 우리 근대 미술사였다. 해방 이후 친일 미술 행적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청산이 간과된 배경이 이러했다.

3. 목포지역 미술운동

19세기 말, 목포는 만호진과 유달 봉수가 설치된 작은 포구였다. 그러나 1897년 개항을 계기로 목포는 서남해안의 상공업 중심지로 성장하며 근대 도시로 발전해갔다. 당시 일본은 군사적 요충지, 호남평야의 쌀과 면화의 집산지, 다도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닌 어항, 일본 공산품 수출의 교두보로서 목포에 주목하고, 개항을 압박하였다. 개항과 함께 부산, 인천 등에서 조선인 상인층과 노동자를 비롯한 일본인과 중국인이 목포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통감부시기를 거치면서 일본인의 유입이 특히 두드러졌다. 1987년부터 1910년까지 목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3.4%였다. 한국인 증가율은 8%에 그친 반면, 일본인은 무려 24.3%에 달했다. 그러하여 개항 초 206명으로 시작된 일본 이민자는 1910년엔 3,494명에 이르렀다. 특히 야마구치 현과 나가사키 현 출신이 많았다.[35]

일본인의 이주는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이들은 일본인 상업회의소 등 각종 단체를 설립하여 목포 상권을 장악해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사관, 경찰서, 법원, 상가, 제일은행, 동양척식회사 목포지점, 동본원사, 목포심상고등소학교 등 근대식 건물과 격자형 도로망을 갖춘 일본인을 위한 신도심을 조성하였다.[36] 목포 지역은 근대성을 표상하는 신도심의 일본인 거주지와 낙후된 전근대적 조선인 거주지로 분리되었다.[37] 상권을 둘러싼 민족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조선인 지주와 상인층은 일

34) 이지원, 앞 책, 151쪽.
35) 德間一芽,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 석사논문, 2010, 13쪽.
36) 김주관, 「개항장 공간의 조직과 근대성의 표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1호, 2006, 145~147쪽.
37) 김주관, 위 논문, 153쪽.

본의 식민지배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본 확대를 도모하였다. 1935년에 목포는 전국 6대 도시로 성장했다. 1945년 해방 직전, 목포 전체 인구 8만 명 중 약 1만 명이 일본인이었다. 신의주로 이어진 1번국도, 부산까지 연결된 2번 국도의 기점이 모두 목포였고, 호남선의 종점도 목포였다. 이렇듯 목포의 팽창은 식민 수탈의 근거지이자 근대 도시의 형성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면서 이루어졌다.

개항장 목포가 서남 해안지역의 상공업 중심지로 팽창하자, 외지에서 다양한 계층이 임금노동자로 유입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지주 및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수탈하는데 서로 이견이 없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1926년에 목포가 전국 무역량 6위를 차지한 이면엔 식민지 경제수탈체제가 작동했다. 타 지역보다 목포에서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했던 이유다. 1920년대 전반 전남에는 다양한 노동단체가 조직되었는데, 목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노동쟁의 역시 목포가 중심이었다. 1898년부터 1903년까지 수차에 걸친 부두노동조합 파업, 1926년 조선제유공장 노동자 집단파업, 1935년 삼화고무여공 파업이 대표적이다. 목포 지역은 농민운동도 대단히 선구적이었다. 1913년 하의도 소작쟁의를 비롯한 암태도(1924), 도초도(1925), 자은도(1926), 지도(1927)에서 강력한 소작쟁의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1920년대부터 일제는 '문화정치'로 식민통치방식을 전환하면서 언론 출판 교육 문화 시설을 확대하였다. 조선 문화를 식민지적으로 변용하면서 조선 지식인의 친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민지배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근대성으로 포장된 일본 문화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이식되었다. 특히 연극과 활동사진이 근대적인 대중계몽 수단으로 부상했다. 목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도 1호선이 지나는 무안통에서 선창으로 연결되는 오거리를 중심으로 극장 등 대중문화시설이 들어섰다.[38] 1904년에 '목포좌(木浦座)'를 시작으로, '상반좌(常盤座, 1908)', '희락관(喜樂館)', '목포극장'(1926), '평화관(平和館, 1927)', '목포청년회관', '언덕길 다방' 등이 그것이다.

1920년대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진영은 대중 강연, 야학 등의 교육 및 계몽활동을 펼치며 일제의 문화정치에 저항했다. 특히 노동 · 청년단체의 활동이 활발했다. 목포에서는 1920년에 창립된 목포청년회의 소인극단이 제주와 전남 일대를 순회하며 신파 소인극을 인기리에 공연했고, 활동사진 순회상영도 함께 했다.[39] 청년운동은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청총 결성에 전남의 청년 단체 24곳이 참가했다. 청총은 청년 대중에게 민중적 계급의식을 고무하고 청년의 계급적 대단결을 목표했다.[40] 당시 청년 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었다.[41] 1920년대 중반 전남에는 23개 군 지역 중에서 16곳에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전남 남서부 지역에서는 서울청년회 계열의 전남해방운동자동맹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동부 지역은 화요회 계열

38)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1호, 115~122쪽.
39) 『동아일보』, 1922. 7. 19. ; 7. 20.
40) 이하 청년회 설명은, 이기훈, 「1920년대 전남의 민족운동」, 『민주장정 100년, 지역사회운동사연구 3차년도 연구결과 중간보고회』, 2014. 8. 22, 121쪽.
41) 이지원, 앞 책, 179쪽.

이 장악했다. 광주는 두 세력의 경합지역이었다. 목포에서는 1925년에 김영식, 배치문, 서병인, 조극환, 오도근, 박제민의 주도로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전위동맹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청년 운동을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주도했다. 1926년 목포 조선제유공장 동맹파업을 조직 · 후원한 것도 그들이었다.

1920년대에 목포는 사회 · 경제 ·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 이에 조응하여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선구적이었고, 사회주의 및 청년단체의 활동력이 왕성했으며, 운동 세력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컸다.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이 목포에 대두한 자양분이 되었다. 1928년 12월 5일,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목포지부'가 설립된 것이다.

1928년 12월 5일 오후 7시 20분 목포청년동맹회관에서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 설립 대회가 열렸다. 1925년 8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이 염군사계와 파스큐라계의 합동으로 결성된 지 2년, 1927년 9월 순전히 볼세비키적 의식을 가진 자만을 중심으로 제1차 방향전환이 있은 지 1년 뒤였다. 이날 설립대회는 사실상 8개월 전인 4월 1일 개최코자 했었던 것이나 소위 목포운동 분규 사건으로 인하여 카프맹원들의 검거와 투옥이 있었던 터라 이들의 만기 출옥에 따라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목포청년동맹회관에서의 설립 준비위원회의를 거친 결과였다.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 준비위원회 회의는 고등계 주임 이하 다수의 경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학현의 사회와 박용운의 진행 아래 규약 초안 작성, 부원모집, 경비, 부서 작정 등에 관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선임된 진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무부 : 정학현, 선전부 : 정적파, 송호, 박응신, 외무부 : 박용운, 김상만, 오성덕, 임태호

목포지부의 설립 배경은 이러하다. 1923년 9월, 김복진과 안석주가 주도해서 '파스큐라(PASKYULA)'를 조직했다. 파스큐라라는 낯선 이름은 동인들 – 박영희, 안석영, 김형원, 이익상, 김복진, 김기진, 연학년 – 의 영문 성명을 조합한 조어다. 이들은 '사회현실의 불합리성을 타파하는 인생을 위한 예술 건설'을 결성 목적으로 내세워, 신경향파(사회주의) 문학을 추구하며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파스큐라는 1925년 8월에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으로 개칭한 후, 무산계급문화운동단체인 '염군사(焰群社)'와 통합하였다. 염군사는 1922년에 조직된 최초의 사회주의 예술단체이다. 염군사란 단체명은, '불을 댕기는 사람들'이란 의미로서, 문학을 혁명의 불꽃과 같은 도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1927년 9월, 김복진의 주도로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은 대중적 사회집단으로 단체 성격을 전환하면서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약칭 KARF, 카프)을 발족하였다.[42] 즉, '염군사(1922) → 파

42) 1930년 8월부터 볼세비키화된 예술가 조직으로 2차 방향전환을 하면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의 에스페

스큐라(1923) →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1925) →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1927)’로 사회주의 문예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위 기사는 1927년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의 목포지부 설립대회를 취재한 것이다. 아쉽게도 언급된 정학현 외 임원진의 행적 및 지부의 활동 내력은 미상이다. 하지만 목포에 지부를 설치한 것은 신간회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주지하듯, 1927년부터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좌파의 통일전선인 신간회가 출범하였다. 전남에서는 23개 부군 가운데 14곳에 지부가 설치되었다. 목포, 장흥, 강진, 완도 지회가 합동하여 목포구가 되고, 함평, 장성, 송정, 나주 지회가 송정구, 광주, 강진, 담양, 영광이 광주구를 형성하였다. 신간회 목포 지회는 김면수가 회장을 맡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균형을 이루었다. 목포지회는 소작쟁의나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는 등 선구적인 활동을 펼쳤다.

란토어 명칭의 약자인 ‘KAPF’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카프는 노선투쟁 및 일경의 대검거로 조직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1935년 4월에 해산하였다. 이후 해방과 함께 카프의 계급미술운동은 다시 등장한다.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168, 199쪽)

제2장. 해방정국과 민족미술(1945~1948)

1. 민족미술의 수립

8·15해방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제로부터 민족 해방이다. 단절된 역사의 회복이다. 기형화된 사회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다.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이다.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핵심 강령으로 식민 잔재 청산과 독립 국가 건설을 채택한 것은 지당했다. 미술계의 해방 정국 인식도 마찬가지여서, 친일 미술 청산과 민족 미술 건설을 표리관계로 여겼다. 조선미술건설본부(朝鮮美術建設本部)[43](이하 미건)가 김은호(金殷鎬) 김기창(金基昶) 김인승(金仁承) 등 중견 화가를 회원에서 배제했는데, 이들은 과거 단광회(丹光會)[44] 회원을 포함한 노골적인 친일부역화가였다. 1945년에 발표된 수많은 미술 평론도 예외 없이 친일 화단과 화풍을 청산해서 민족 미술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주축인 미·소의 한반도 점령으로 사태는 급변했다. 이들은 점령 지역에 자국 체제를 배타적으로 이식했다. 누가 주둔했느냐에 따라 남과 북의 체제가 사실상 결정되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인가, 또 다른 점령인가? 양쪽 모두 민주국가 수립을 이구동성으로 확언하는 가운데, 자유와 자주, 민주와 민족의 허울을 쓴 냉전 논리가 유령처럼 횡행했다. 해방 정국이 미 · 소 점령의 격랑에 휘말려갔고, 한반도는 급속하게 냉전의 대리 전장화해갔다. 어떤 체제가 한반도에 수립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냉전의 향배가 좌우되었기에, 상대 진영보다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체제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 국가 수립 주도권 장악의 관건이 되었다. 그러하여 숨죽이던 친일파 세력이 다

---

43) 해방 사흘째 朝鮮美術建設本部가 창설되었다. 중앙위원장에 고희동, 서기장에 정현웅을 필두로, 동양화부(위원장 노수현), 서양화부(위원장 김주경), 조각부(위원장 김두일), 아동미술부(위원장 이병규), 공예 및 도안부(위원장 이순석), 선전미술대(대장 길진섭)를 두었다. 우리 지역에선 허백련이 동양화부, 오지호가 서양화부 중앙위원에 선임되었고, 김정현, 김환기, 문재덕, 박승구, 정운면, 허민, 허건, 허백련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44) 1943년 2월에 결성. 임응구, 김인승, 김만형, 손응성, 심형구, 박영선 이봉상과 일본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는데, 〈조선 징병제 실시〉라는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등 일제의 전시체제협력에 앞장섰다.(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1800~1945』, 열화당, 1998, 522쪽) 단광회는 징병제 실시를 광영의 제도라며 이 제도를 기념하고 나라에 봉공코자 그림을 그렸다.(「징병제실시기념」, 『매일신보』.1943.6.16. ; 윤범모, 「한국근대유화의 전개 양상」, 『근대를 보는 눈』, 국립현대미술관, 1997,39쪽에서 재인용.)

시 발호할 수 있는 정국이 조성되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친일파는 곧 친미파로 변신했다. 친일파가 청산의 대상에서 남쪽 정부 수립의 우익이 되면서, 시나브로 식민 잔재의 청산은 공허해져 갔다. 친일파는 미군정을 지지하면서, 식민 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좌익의 이념 공세로 매도했다. 19세기 말, 일본을 근대적 선진 국가, 조선을 봉건적 후진 국가로 재단하면서, 개화된 근대 국가로서 일본의 이미지가 재부상했고, 부일배들은 그들의 반민족 행위를 호도하였다.

미·소체제 대결의 양상은 미술계에도 벌어졌다. 박문원(朴文遠)은 「조선 미술의 당면과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민족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조국 소비에트, 러시아의 미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다.[45] 미건 위원장으로 추대된 고희동(高羲東)은 미술 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승만 주도하의 비상국민회의에 참석하였다.[46] 잠복한 친일 미술가마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채필보국(彩筆報國)의 일념」, 「사변(事變)과 미술」을 발표하며 내선일체(內鮮一體)에 매진한 구본웅(具本雄)은 「해방과 우리의 미술건설」이란 글을 통해 자신의 일제부역행위를 일견 반성하면서도,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의 포스터나 그리지 말자' 라며 친일 잔재 청산 요구에 딴죽을 걸었다.[47] 심지어 일제의 징병제를 찬양한 단광회 출신 김만형(金晩炯), 박영선(朴泳善)까지 한마디씩 내뱉고[48], 대표적 부일 작가였던 김기창은 '조선의 미술계가 일제 시대의 제국주의 정책의 폭악한 유린을 통하여 갖은 탄압을 받았으며, 이제 대중의 고통과 요구를 체감하고 파지(把持)한 뒤 생산된 미술만이 대중화할 수 있다' 는 계몽의 글을 태연하게 발표하였다.[49] 그들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보면 후안무치한 태도였다.

해방 이후 식민 잔재 청산을 통한 민족국가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적색 국가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수립이라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훼손되고 말았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해방과 점령이라는 모순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해방의 환희는 덧없이 사라졌다. 분단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갔고, 미술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가. 조선미술건설본부(朝鮮美術建設本部)

조선미술건설본부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 이하 문협)에 참여하였다. 문

---

45) 박문원, 「조선 미술의 당면과제」, 『인민』, 1945.12 ; 최열,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열화당, 2006, 70쪽에서 재인용.

46)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증보판, 돌베개, 1994, 105쪽.

47) 구본웅, 「해방과 우리의 미술 건설」, 『한국의 근대미술』 1호, 한국근대미술연구소,1975.11 ; 최열, 위의 책 67쪽에서 재인용.

48) 김만형은 '조선의 독특한 정신과 미를 현대적인 표현 방법으로써 구상화 시키는 것이 해방 이후 화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고,(김만형, 「양화단의 지향」, 『신문예』, 1945.12.) 박영선은 '예술의 위대성은 작가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정치와 무관한 순미술운동' 을 제기했다.(박영선, 「정치와 미술」, 『경향신문』, 1947.9.4.)

49) 김기창, 「미술운동과 대중화 문제」, 『경향신문』, 1946.12.5.

협은 '조선 문화의 해방! 조선 문화의 건설! 문화전선의 통일!'을 주창하며 1945년 8월 18일에 설립된 협의체다. 미건 외에 조선문화건설본부(朝鮮文學建設本部), 조선음악건설본부(朝鮮音樂建設本部), 조선연극건설본부(朝鮮演劇建設本部), 조선영화건설본부(朝鮮映畵建設本部)가 산하 단체로 참여하였다. 미건의 회장은 임화(林和), 서기장은 김남천(金南天)이었다. 한편, 미건 창립 과정에 김은호 심형구(沈亨求) 등이 배제된 것이 노골적 친일 행위 때문임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50] 그런데도 미건은 회원 배제 이유와 그 명단을 공식화하지 않았다.[51] 오히려 일제 부역의 범주를 협소화하면서 미술인을 결집하고자 했다.[52] 이것은 '일제의 야만적이고 기만적인 문화정책의 잔재를 소탕한다'는 문협의 기본 방책과도 어긋난 것이다. 결국 미건의 친일 잔재 청산은 시늉이었다. 오히려 대다수 친일 미술인이, 미건에서 배제되지 않음으로써 친일의 굴레를 슬쩍 벗어날 수 있었다.

문협과 미건의 창립과정은 식민 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적 요구가 미 · 소의 분할 점령으로 급변하여, 좌 · 우 세력의 대결 양상으로 변질되던 정세의 변화를 보여준다. 해방 후 사흘 만에 문협이 결성되고 그 산하에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단체가 가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된다.[53] 약 한 달 후에 결성된 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이 '일체 반동적 미술을 배격한다.'는 강령을 내걸고[54], 상급 기구인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일체 반동적 예술의 철저한 배격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해야 할 임무를 가졌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문협과 미건에 대립각을 세운 이유였다.[55]

창립 직후, 미건의 활동은 연합군 진주에 따른 시각선전물 제작에 집중되었다. 선전미술대를 조직하여 2개월 동안 연합군 환영행사관련 선전물 –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원수의 초상화, 국기, 플래카드, 포스터, 표어 등 – 제작에 매진하였다. 그 해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경운궁 석조전에서 열린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이하 해방기념미전)도 연합군 진주를 환영하려는 의도에서 미건이 기획한 것이다. 모두 97명의 작가가 총132점을 출품했는데, 유료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한다.[56] 이쾌대는 해방기념미전에 대하여, '해방기념미전이 기일이 촉박하여 대부분 구작을 출품했지만 부득이한 일이었고, 미·소 양군이 오래 머물러 있을 줄은 기대하지도 않았으므로 불원간 돌아갈 외인에게 우리들의 미술품을 보여주자는 초과도적 청산적 전람회였다.'[57]라고 긍정

50) 김은호, 심형구, 김인승, 김경승, 이상범, 윤효중, 배운성, 송정훈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51)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서기국, 「문화 활동의 기본적 일반방책에 관하여」, 『문화전선』 창간호, 1945.11.
52) 오지호가 '조선미술건설본부는 그 때의 정세 하에서 가능한 한 친일파를 제외한 조선의 전 미술인을 망라하고 문화전선의 일환으로서 미술 분야의 통일 당면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회고했다. (오지호, 「해방 이후 미술계 총관」, 『신문학』, 1946.11. ;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80쪽에서 재인용.)
53) 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1945.9.15),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1945.9.30.),조선미술가협회(1945.11.30), 조선미술동맹(1945.10.30.), 조선문화협회(1945.9.8.), 조선서화동연회(1945.9), 단구미술원(1945.9), 조선산업미술가협회(1945.12.27.)의 설립도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54) 일기자, 「푸로예술진영의 재건」, 『인민』, 1946.12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82쪽에서 재인용.
55)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예술운동』, 1945.12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82쪽에서 재인용.
56) 「해방미술전」, 『자유신문』, 1945.10.20.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90쪽에서 재인용.
57) 이쾌대, 「해방기념과 조형예술동맹전」, 『조형예술』 1, 조선조형예술동맹, 1946

적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해방을 기념한 기획전에 일제 강점기의 작품을 태연하게 출품한 행위는, 미건의 성격과 한계를 선명히 보여준다. 해방기념미전 이외에도, 경주박물관에서 〈미군진주환영기념 미술전〉(10.1~10), 서울 YMCA에서 〈러시아혁명기념 사진 만화전〉(11.7~9), 종로 네거리에서 〈반파쇼 가두전람회〉(12.8) 등 좌 · 우 진영의 전시회가 앞 다투어 열렸다. 결국, '해방인가, 점령인가?' 라는 고비에서, 식민 청산보다 냉전 체제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좌 · 우 갈등이 격화될수록 미건의 해체 또한 자명했다. 1945년 11월 20일, '정치에의 절대불간섭과 엄정중립' 을 표방한 '조선미술가협회(朝鮮美術家協會)' (위원장 고희동, 이상 미협)가 결성되면서[58] 미건은 공식 해산되었다.

나. 조선미술가동맹(朝鮮美術家同盟)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최대 5년의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미협은 "우리들은 오직 조선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미술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최고의 노력과 투쟁을 할 것과 신탁통치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을 성명하는 바이다." 라는 신탁통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59] 그리고 고희동은 미협 대표 자격으로 이승만 계열의 비상국민회의 집회에 참가하여 서무국장에 임명되었다.[60] 이로써 '정치에의 절대불간섭과 엄정중립' 이라는 미협의 창립 명분이 빈말임이 확연해졌다. 이에 김주경, 오지호, 이인성(李仁星), 박영선이 미협을 탈퇴했다.[61] 그리고 문화전선의 일익으로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 대업에 적극적 참가를 도모하고 새로운 민족문화의 수립을 목적으로' 조선미술가동맹을 결성하였다.(이하 미맹, 1945.2.23.)[62] 김주경이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되고, 이인성은 중앙집행위원, 오지호가 중앙집행위원 및 미술평론부 위원장, 박영선은 회화부 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당황한 미협은 사태 수습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길진섭(吉鎭燮), 김만형, 윤희순(尹喜淳), 정현웅(鄭玄雄), 이쾌대(李快大), 정종여(鄭鍾汝) 등 핵심회원 32명까지 한꺼번에 미협을 탈퇴했다. 이들은 곧장 조선조형예술동맹을 조직했다.(1946.2.28)[63] 나머지 회원도 조선산업미술가협회(朝鮮産業美術家協會,1945.12), 조선조각가협회(朝鮮彫刻家協會,1946.2) 조선상업미술가협회(朝鮮商業美術家協會,1946.3), 조선공예가협회(朝鮮工藝

58)「조선미술가협회」,『중앙신문』, 1945.11.232014년 8월 11일
59)「미술협회도 궐기」,『중앙신문』,1946.1.1
60)「좌우대립과 해방정계는 반탁 찬탁」,『인물계』,1961.12
61) 오지호, 「조선미술계총관」,『신문학』,1946.11
62)「미술가동맹 결성대회」,『서울신문』, 1946.2.22. ; 최열,『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20쪽에서 재인용.
63) 이규일, 「한국 미술의 춘추전국시대에서 민족미술 꽃피우다」,『문화예술』,2003.8, 25~26쪽. 조선조형예술동맹의 위원장은 윤희순, 부위원장 길진섭이 선임되고, 회화부 위원으로 김기창, 김만형, 이쾌대, 정종여, 정연웅, 최재덕, 문원, 이중섭, 박생광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조형예술동맹은 산하에 독립미술협회, 단구미술원, 靑亞會, 조선조각가협회, 조선공예가협회를 두었다.(최열,『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23쪽.)

家協會,1946.3), 단구미술원(丹丘美術院,1945.9)로 이합집산하면서 미협은 거의 해체 지경에 이르렀다. 미맹은 미협 탈퇴 회원과 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의 미술인, 그리고 신진 작가가 결합한 좌 · 우 연합 조직의 형태를 취했다.[64] 강령으로, '1.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청산. 2. 국수주의와 퇴폐예술사의 배격. 3. 민족미술의 신건설. 4. 국제미술과의 제휴, 5. 미술의 인민적 계몽과 후진의 적극적 육성' 을 채택하였다.[65] 요컨대,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국수주의를 배격해서 민족미술을 건설하자는 것이 미맹의 목표였다. 이러한 미맹의 노선은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의 결성(1945.2.15. 약칭 민전)에 영향 받은 것이었다. 당시 민전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조직의 선명성을 높이면서 좌익과 중도파의 연합전선을 도모했는데, 부위원장에 이여성, 중앙위원에 김주경 등 미맹의 핵심 인물이 가담했던 것이다. 이후 미맹은 민전의 선전미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박영선, 이인성은 좌익 주도의 미맹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

다. 조선미술동맹(朝鮮美術同盟)

1946년 11월 10일, 조선예술가동맹과 조선조형예술동맹이 합단하여 조선미술동맹(이하 미동)을 창립하였다. 앞선 8 · 15기념 합동전람회 기간에 맺은 합단 합의가 결실을 거둔 것이다. 윤희순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 이인성, 서기장엔 박영선이 선출되었다.[66] 임원진은 두 단체가 각각 동수로 맡았다. 강령으로 '1. 민주주의 실천에 매진. 2. 제국주의적 봉건적 잔재의 숙청. 3. 국수주의와 퇴폐예술사조의 배격. 4. 민족미술의 신건설. 5. 국제미술과의 제휴. 6. 미술의 인민적 계몽과 후진의 육성' 이 채택되었다.[67] 식민 잔재의 청산이 '제국주의적 봉건적 잔재의 숙청' 으로 애매하게 언급되고, 민족미술의 건설이 민주주의 실천에 우선 순위에서 밀린 점이 주목된다. 조선조형예술동맹의 기관지 『조형예술』을 『미술』로 제호를 변경하여 미동의 기관지로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편집위원에 오지호, 박문원, 정현웅을 선임했다.[68]

미동은 창립 일성으로 전국에 지부를 결성하자고 결의하였다. 1946년 12월 24일 서울지부가 가장 먼저 결성되었다. 위원장 길진섭, 부위원장 박영성 이춘남을 선임하고, 오지호 외 집행위원 13명을 선출했다.[69] 회화부, 조각부를 비롯한 9개 부서를 두었다. 이듬해 6월 18일에 대구미술연구협회를 해소하고 미동 대전지부가 발족했다. 위원장 윤경진, 부위원장 박인채 장점복, 위원은 민영백이었다.

---

64) 오지호, 「조선미술계총관」, 『신문학』,1946.11
65) 「미술」, 『1946년판 조선연감』,예술통신사, 1946
66) 각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조각부 위원장 이성, 동양화부 위원장 김기창, 정종녀, 공예부 위원장 김봉룡, 서양화부 위원장 이쾌대 박영선, 미술평론부 위원장 윤희순, 아동미술부 위원장 정현웅, 미술교육부 위원장 이순종, 무대미술부 위원장 김일영, 선전미술부 위원장 한홍택.(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증보판,돌베개,1994,120쪽)
67) 「조형미동 정식 합동」, 『예술통신』,1946.11.12. ;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24쪽에서 재인용.
68) 「조선미술동맹 발족」, 『자유신문』,1946.11.12. ;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24쪽에서 재인용.
69) 이하 미술동맹의 지부결성은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121~165쪽)을 참고했다.

1946년 12월에는 합단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민족미술의 육성'을 명분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상, 문화단체총연맹상, 조선미술동맹상을 수여했다.[70] 그 결과 미동은 1947년 8월 현재 15개 지부에 회원 2천여 명에 달하는 미술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다.[71]

미동은 조선문화단체총연맹(朝鮮文化團體總聯盟, 이하 문련) 산하 단체로 가입하였다. 문련은 조선문학건설중앙협의회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통합으로 결성되었다.(1946.2.24.) 문련은 결성대회에서 '현 단계의 문화영역의 통일과 각 부문활동의 질서화를 위하여 형성된 협의 기관으로서 현하 모든 문화의 총력을 모아 민주주의 조선 건설에 바치고자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72] 조선학술원 등 13개 학술단체, 미동 등 9개 예술단체, 조선신문기자협회, 조선교육자협회, 조선체육회가 문련의 산하 단체로 가입하였다. 문련이 민전 지지를 표방하자, 우익은 문련을 탈퇴하고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 회장 고희동)를 결성하면서 문련에 맞섰다.(1947.2.12.) 이후 미동의 활동은 대부분 문련의 정책과 연계되었다.

1947년 초부터 좌 · 우익은 무기 휴회된 미 · 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의 재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련과 미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련은 '예술을 인민에게' 라는 표어 아래, '전재 동포를 위한 예술인 종합예술제' (1947.1.8.~15)를 개최했는데, 연극동맹, 영화동맹, 미동 등이 영화상영, 연극공연, 음악연주회 등을 진행했다. 수도경찰청장이 정치 사상성을 빌미로 연극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자, 문련은 '문화옹호 남조선문화예술가총궐기대회' 를 소집 강력하게 항의했다.[73] 미동은 〈전재민 구재금 기금마련 소품전〉을 열었다.[74] 같은 해 1월, 미동을 포함한 10개 문화단체에서 미소공위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는데,[75] '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하여 반탁행위를 한 우익진영을 미소공위 협의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었다.[76] 6월, 문련은 미 군정청 군정장관 러치(Lerch)에게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77] 7월, 미동은 중앙확대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소공위에 대한 민전의 원칙을 검토한 후 미소공위 참가를 정식 결의하였다.[78] 문련과 미동은 '미소공위 소련 대표 스티코프 대장의 발언을 절대 지지하며, 단정 음모를 꾸미는 친일파, 민족반역자, 한민당계열은 미소공위 협의 대상에서 제외'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79]

---

70) 「미동 미술전람회」, 『예술통신』, 1946.12.11., 「조선미맹상 수상」, 『자유신문』, 1946.12.12. ; 이진성, 앞 논문, 74쪽에서 재인용.
71)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증보판, 돌베개, 1994, 126쪽.
72)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21쪽.
73) 「남조선의 현 정세와 문화예술의 위기에 관한 일반보고에 대한 결정서」, 『예술통신』, 1947.2.15. ;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64쪽에서 재인용.
74) 「전재동포를 위한 예술인 총 궐기 주간」, 『예술통신』, 1946.12.26.
75)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 121쪽.
76) 「문학예술가의 단체들」, 『예술통신』, 1947.1.23.
77) 「문화예술단체대표 정치범 석방진정」, 『중앙신문』, 1947.6.5.
78) 「미술동맹 위원장에 길진섭 화백」, 『문화일보』, 1947.6.21.
79) 「문화단체서도 환영」, 『독립신보』, 1947.7.15.

문련은 '미 · 소공위 축하 종합예술제' (이하 종합예술제)를 열고, 문화공작대[80]를 조직하여 지방에 파견하였다. 미동도 문화공작대에 결합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이동미술전〉을 개최했다. 미 · 소공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선전활동을 펼친 것이다. 1947년 6월 30일, 문화공작대 제1진에 결합한 미동은, '지방문화운동을 적극 원조하여 민주주의 문화단체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서 민족문화의 인민적 기초를 닦으며 인민들의 민주적 진출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는 목적을 내세우고 최재덕(崔載德)을 합류시켰다.[81] 최재덕은 미술동맹 부산지부 회원 및 조선사진동맹의 임석순과 함께 이동미술전(1947. 7. 1.~12, 부산 조선신문사 2층)을 개최하였다. 제2진은 미술동맹 대전지부에서 이동미술전(1947. 7. 18.~21, 대전지부 후생관)을 열었는데, 괴한이 전시장에 난입하여 작품 38점을 파괴하였다. 제3진은 윤자선(尹子善)이 강원도에 파견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미상이다. 서울, 마산, 부산, 진주, 청주, 춘천, 대구, 대전을 순회하며 2개월 동안 열린 이동미술전은 미동의 대중 조직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남한에선 해방정국에서 좌파의 맥을 잇는 세력들이 거의 종적을 감추었다.[82] 문련과 미동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조직은 해산되고, 미술운동의 핵심이 대거 월북했다. 반면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조선미술협회는 대한미술협회로 개편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구현하며 미술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2. 광주지역 미술운동

해방과 함께 광주 지역의 미술 운동도 본격화되었다. 1945년 8월, 미건의 동양화부와 서양화부 중앙위원에 허백련과 오지호(이상 광주)가 각각 선임되었다. 오지호는 미맹 서울지부 집행위원 16명 중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김정현(영암), 김환기, 문재덕, 박승구, 진환, 허민, 허건(이상 목포)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1944년 오지호는 창씨개명 등 일제의 시책을 거부하며 함경남도 단천에 일시 피신했다가, 이듬 해 고향 동복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 오지호는 화가로서보다 미술평론가로서 문필을 날렸다. 해방 전에도 그는 동아일보에 「순수회화론」 (1938년)을 10회에 걸쳐 연재했고, 그밖에도 「피카소와 현

80) 문련은 '인민을 위한 문화' , '문화를 인민에게' 라는 구호를 내걸고 문화공작대를 조직했다. 문화공작대의 지방 파견의 목적으로, '첫째, 지방의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둘째, 지방 문화조직의 체계 강화. 셋째, 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의 유대강화' 를 내세웠다. 문화공작대 제1진은 경상남도, 제2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3진 경기도 강원도, 제4진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파견되었는데 1대 평균 30명 내지 35명씩 각각 1개월 동안 각도 면소재지까지 순회하며 민족문화예술의 종합적 행사를 거행하고자 했다.(이진성, 앞 논문, 80쪽) 6월 30일 부산에 파견된 제1진이 부산극장에서 공연 중 반동반탁데모단의 다이너마이트 투탄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대구로 파견된 제3진은 감금과 테러를 당했다.(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164쪽)

81) 이하 이동미술전은 (이진성, 앞 논문, 83~86쪽)을 참고했다.

82)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쟁」,고려대 박사논문, 2002, 1쪽.

대회화」(동아일보,1939년),「현대회화의 근본문제」(동아일보,1940)를 게재한 바 있는 뛰어난 평론가였다. 오지호가 조선미술가동맹 결성식에서「조선혁명의 현 단계와 미술인의 임무」라는 주제의 개회사를 발표하고, 중앙집행위원과 미술평론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다. 해방 이후 오지호의 평론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각종 미술단체의 조직결성을 주도하였다. 예컨대,「조선미술과 일본적 독소」(『예술』,1945. 12),「자연과 예술」(『신세대』창간호,1945. 12)「애조의 예술을 버리자」(『예술』,1946.5),「조선혁명의 현 단계와 미술인의 임무(『신세대』, 1946. 5) 「해방이후의 미술계 총관」(『신문학』,1946. 11) 등의 예술평론이 그것이다. 오지호의 민족예술론과 일제잔재청산방법론은 해방 당시 미술운동을 선도했다.

1947년, 미맹 광주지부가 결성되고 전시회가 열렸다. 조선미술동맹은 1946년 2월 좌파 또는 무소속 성향의 미술인들이 모여 신세대 미술 건설을 기치로 결성한 조선조형예술동맹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미술건설본부를 탈퇴한 조선미술동맹(조선 프로레타리아 미술연맹)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단체다. 위원장은 화가 길진섭이며, 이인성과 오지호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기국장은 박문원, 김만형, 동양화부 위원장 김기창, 정종여, 조각부 위원장 이성, 서양화부 위원장 이쾌대, 박영선, 공예부 위원장 김봉룡, 아동미술부 위원장 정현웅, 미술평론부 위원장 윤희순, 무대미술부 위원장 김일영, 미술교육부 위원장 이순종, 선전미술부 위원장은 한홍택이다.

1947년 광주에서 열린 조선미술동맹광주지부 전람회 팸플릿이 발견되었다. 이 전시회는 조선미술동맹 광주지부가 주최하고 조선문화단체총연합맹 전남지부와 예술신문 전남지사의 후원으로 단기 4,280(1947)년 9월 19일~21일까지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것이다. 문화전문 인터넷신문 문화통(발행인 지형원)이 11월 23일 한국화가 석성 김형수 선생에 입수해 공개한 이 팸플릿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굴된 전시회 팸플릿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가로 16㎝×22㎝ 크기의 등사판 4페이지로 된 이 팸플릿에는 1면에 주최, 주관, 전시일정 등이 기록되어 있고 2면에는 '삼가 알립니다.' 제하의 초대의 글이, 3면에는 참여 작가 및 작품명, 그리고 4면에는 광고가 실려 있다. 2면 초대의 글에서는 " 아직 완전한 자주독립을 못한 혼란기 가운데 시간과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빛나는 우리의 전통을 더한층 빛내기 위해 젊은이들이 정열을 쏟아 화폭에 담았다" 고 쓰고 있다. 3면에 실린 작품 목록에는 서양화가 오지호, 김보현 손동 윤재우 이경모 조목하 문원 등 18명이, 동양화는 허백련 천경자 조복순 김형수 등 5명이, 수채화는 김원룡 박종만 등 6명이 조각은 김수감, 그리고 자수에는 유충희 고명자 김귀호 정 명 등 8명의 명단과 작품명이 실려 있다. 그리고 4면에는 '멕시코 다방 ' ' 신성다방 ' 미술재료상 ' 태양당 '과 ' 동해당 ', 프린트 업체 '청운사' 등 광고가 실려 있는데 이 무렵에는 다방과 액자집 등이 전시회의 주요한 후원자였음을 말해준다. 이 전시회를 주최한 조선미술동맹 광주지부는 조선미술동맹(朝鮮美術同盟)의 지역조직이다.

같은 해에 김보현의 주도로 광주미술연구회가 발족했다. 또한 조선대학교 문예학부에 미술과가 설

립되었다. 백영수, 김보현, 오지호(1948)가 교수로 선임되었고, 윤재우, 지성열, 천경자, 조복순 등이 출강했다.[83] 전남여고 교사들이 黃牛會를 결성하였다. 여수에서는 김홍기와 박근호, 진도에는 김정현과 문동식 등이 작품 활동을 하였다. 1947년의 새교육전람회(현 광주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강용운이 반추상작품을 지역 최초로 출품하였고, 오지호는 1948년 개인전(광주미술연구회 주최, 호남신문사 후원)에서 인상주의적인 색채를 선보여 지역 화단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양수아의 1948년 첫 개인전(미 공보원)은 해방 후 최초의 비구상작품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1948년 오지호, 강용운, 손동 등에 의하여 재결성된 광주미술연구소는 이 지역 최초로 여자모델을 놓고 작업하였다. 그러하여 광주와 목포, 여수에서 지역 화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처럼 해방과 함께 우리 지역은 중앙의 미술 운동과 연계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 지역 화단의 역량이 상당했던 것이다. 첫째, 우리 지역은 남종화의 본산이었다. 둘째, 중앙화단이 아닌 일본으로부터 직접 예술적 자양분을 흡수했다. 근대 호남 출신으로 일본유학 미술학생이 30여 명을 넘었고, 이들은 지방을 뛰어넘는 대단한 위세를 떨쳤다.[84] 셋째, 광주, 목포, 여수를 중심으로 지역 화단이 형성되었고, 특히 목포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넷째, 오지호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의 예술평론은 당대 예술가의 활동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스스로도 해방 이후 우리 미술이 정립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목포지역 미술운동

해방과 함께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목포는 북적거렸다. 1945년에 약 80,000명이던 목포의 인구가 1947년도엔 125,000여 명을 웃돌았다. 본국으로 돌아간 목포 거주 일본인 1만 명을 제외하면, 인구가 55,000여 명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광주와 더불어 전남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에 해당한다.[85] 우선 일제강점기의 징용 · 징병자 다수가 목포로 귀환했다. 만주와 북한에서 유입된 인구도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노동자도 적지 않았다. 전국 각처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목포에 집결한 요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그중에서 개항 이후 목포가 근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식민화와 근대화라는 이중성을 띠며 목포가 도시로 성장했고, 외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인하여 토착 문화에 대한 보수성보다 개방성이 더 강한 도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목포는 각지에서 유입된 미술인의 집결처였다. 김동수, 김수호, 문원, 백홍기 등 목포 출신은

83)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5~1961』,127쪽.
84)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 194~195쪽.
85) 같은 기간, 광주의 인구도 약 69,000명에서 115,0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윤선자, 「해방 후 전남지역으로 귀환한 해외한인의 현황」, 『전남사학』 제22집, 2004.6, 69쪽.)

물론이고, 김정현(영암), 문동식(영암), 양수아(보성), 양인옥(제주), 윤재우(강진), 고화흠(구례), 박승구(수원), 백영수(수원), 천병근(군위), 허건(진도) 등 타 지역 미술인까지 목포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목포중학교, 목포고등학교, 영흥중 · 고등학교, 문태중 · 고등학교, 목포사범학교, 목포교육대학 등에 각각 재직하면서 숱한 제자를 양성하였다.[86] 보성 출신으로 가와바타미술학교에 다닌 양수아는 만주에서 목포로 귀국하여 목포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수원 출신으로 동경미술학교에 다닌 박승구는 목포미술동맹에 참여했다. 제주 출신으로 오사카미술학교에 다닌 양인옥은 목포교대에 자리를 잡았다. 영암출신으로 가와바타미술학교에 다닌 김정현은 목포여중에 근무했다. 또한 이들의 주도로 남화연구원(허건), 목포미술동맹(허건), 목포미술원(문원, 윤재우, 백홍기, 김동수), 녹영회(백영수), 목포미술가협회(허건, 장덕, 강동문, 김수호, 백홍기), 회화연구소(백영수), 십대전(강홍윤, 박석규, 양주탁, 정승주) 등 각종 미술단체가 설립되면서 목포 화단을 형성해갔다.

이처럼 목포는 각처에서 몰려든 예술인으로 미술, 문학, 음악, 영화, 연극 등 예술적 활기가 넘치는 도시의 풍모를 보였다. 해방 직후 각지에서 예술인들이 목포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승구처럼 문원과의 인맥관계로 목포에 유입된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론 도시의 개방성, 경제적 토대, 문화적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술인을 목포로 모여들게 했을 것이다. 특히 목포의 문학적 분위기는 자못 볼만한 것이어서, 해방 이전의 김우진, 김진섭, 이화삼, 홍순태, 박경창, 장병준, 박동화의 문인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는 박화성, 차범석, 천승세, 최하림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미술인과 교류하면서 목포 예단을 풍성하게 했다.

해방 직후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 분위기에 힘입어, 목포는 다른 지역보다 인민위원회가 더 강하고 급진적인 성격을 띠었고,[87] 이러한 도시적 분위기 속에 1945년 9월, 목포문화예술동맹이 결성되었다. 목포문화예술동맹은 산하 부서로 미술부를 두고, 목포미술동맹이 조직되어 미술부를 맡았다. 허건, 김정현, 이종원, 윤재우, 문원, 백홍기, 김동수, 이영원, 양수아 등이 목포미술동맹에 참여했다. 그밖에 녹영회, 목포문화원, 남화연구원, 백영수회화연구소 등의 예술단체도 같은 해에 설립되었다. 목포미술동맹의 전신은 1931년에 결성된 유달사(儒達社)다. 유달사는 매년 2회씩 발표전을 열었고, 청호회(菁湖會)를 개칭했는데, 목포미술동맹이 그 맥을 계승한 것이다. 이듬해 목포미술동맹은 목포미술원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목포미술원은 당시 목포부 하정 2번지에 있었다. 문원(文園)이 목

86) 수원출신으로 오사카 미술학교에 다닌 백영수는 목포에 회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87) 1945년 8월 16일을 전후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이하 목포건준)가 건설되었다. 위원장 이남규를 비롯한 임원진이 추대되었다. 이남규는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출생,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활동, 신사참배 거부로 2년여의 옥고를 겪었다. 부위원장 김백동은 목포 남교동에서 양조장 경영했고 해방 이후 박헌영 직계의 공산주의였다. 부위원장 국순홍은 순창출신 내과 의사였다. 내무국장 및 교통부장 유치오는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구속되었고, 1936년 전남노농협의회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선전부장에는 임영춘이 맡았고, 치안대장 임태오는 운전기사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다. 1945년 9월 중순경 목포건준은 인민위원회로 개편했는데, 인민위원장에는 국순홍이 추대되었다. 김백호, 유치오, 임종근, 임태오, 한종식, 임영춘, 박종호, 김영재, 최규문, 정해룡, 박두재가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다. 인민위원회 산하에 목포청년동맹(위원장 김문수), 목포화학노동조합(위원장 이종수), 목포부녀동맹 등을 두었다. 그러나 10월 18일 목포에 진주한 미군 6사단 제20연대는 11월 14일에 인민위원회의 해체를 명령하면서 격렬한 저항이 전개되었다.

포미술원의 원장을 맡고, 백홍기(白洪基)와 김동수(金洞守)가 총무에 선임되었다. 동양화부, 서양화부, 조각부, 공예부를 두었다. 동양화부 회원으로 허건(許楗), 김정현(金正鉉), 이종원(李鍾元), 서양화부에는 문원, 윤재우(尹在玗), 백홍기, 김동수, 이영완(李永阮), 조각부에는 박승구, 공예부는 문원, 이영례(李英禮)가 활동하였다. 목포미술원은 미술 강습회를 열어, 석고 사생, 남화, 북화, 수채 유화를 가르치고, 목포미술원전을 개최하는 등, 해방 정국의 목포미술운동을 주도했다. 한편, 허백련과 허건은 해방 직후 조선미술건설본부에 참여했다. 정황상 미건을 급조하면서 집행부의 연락을 받고 명단 등재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허백련의 중앙위원 선임은 연륜과 경력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력은 미상이다. 1948년 광주에서 목포문태중학교로 옮긴 양수아는 목포시 호남동 대동병원 2층에 양수아 미술연구소를 개설하였고, 목포미술동맹에서 활동하였다.

제3장. 6 · 25전쟁과 선전미술(1948~1961)

1. 6 · 25전쟁과 선전 미술

1945년 8월 해방은 분단과 동시에 왔다. 민족의 압도적 요구는 통일된 민족독립국가의 수립이었다. 남 · 북이 서로 전쟁을 결행할 적대적 역사도 현실적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미소의 분할 점령과 냉전체제가 강요되면서, 좌 · 우익의 충돌이 점차 격화되었다.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분할 점령에 합의했다. 결정 과정에 한국인은 배제되었다. 그해 12월, 최대 5년의 신탁통치 기간에 한국의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이 강대국 간에 합의됐지만, 이미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에 휘말린 상태였다. 한반도 전역에서 좌 · 우익 간의 사회적 · 경제적 투쟁이 전개되었다.[88] 사람들은 이념에 따라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했다. 1947년부터 이듬해까지 김주경, 김경준, 이여성, 길진섭, 이팔찬, 김일영, 박병수 등 대표적인 좌익 미술가들이 월북했다.

1948년 8월 15일, 서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9월 9일에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해방 3년 만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미 · 소 점령의 경계선이던 38선은 국경선이 되었다. 전쟁은 목전에 다가선 현실이 되었다. 같은 해 4월에 문화인은 남북협상을 성원하는 108인 선언에서, 분단 정부가 수립된다면 '내쟁(內爭) 같은 국제 전쟁이요 외전(外戰) 같은 동족전쟁을 초래할 것'[89]이라고 예견했다. 이듬해 4월, 김구는 '만약 내전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미 · 소 양방에 다 같이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곧 암살당했다.[90] 1948년에 4월에는 제주에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남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10월에는 제주진압명령을 거부한 14연대 병력이 여수와 순천을 일주일 동안 점령하는 여순사건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민중항쟁과 여순사건을 유혈 진압했다. 그리고 두 사건을 반공체제 구축과 정

88) 브루스 커밍스, 김동노 · 이교선 · 이진준 · 한기욱 옮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창비, 2006, 306쪽.
89) 「남북협상을 성원함」(문화인 108인 선언), 1948.4.14., 『새한민보』 1948년 4월 하순호(2권 9호), 14쪽 ; 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81쪽에서 재인용
90) 정병준, 앞 책, 83쪽.

권 강화에 활용하였다. 먼저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공포하였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제4조에 명기된 처벌 대상 –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선교육자협회, 조선민주학생연맹, 전국농민연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문화단체총연맹 – 은 해방 이후 활동한 주요 좌익단체를 망라하였다. 남한의 모든 좌익 세력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것이다.[91] 불과 1년 만에 48,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되었다.[92] 1949년 6월에 결성된 국민보도연맹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대공세'를 빌미로 한 좌익에 대한 교묘한 감시 장치였다.[93] 실제 좌익 여부는 중요치 않았다. 혐의만으로도 충분했다. 1년 만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좌익 혐의자가 30만 여 명에 달했다. 미술인도 좌익 혐의를 받으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김용환, 김만형, 정현웅, 이쾌대, 배운성, 최재덕, 정종녀 등이 연맹원으로 가입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미술동맹을 두고, 연맹 미술인을 동원하여 반공포스터 전시회, 반공결의대회 현수막 제작 등 반공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1948년 11월부터 좌익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산악지대에 은거하며 유격전을 벌였다. 1949년 초 미국 정보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도 남한 유격대의 총인원을 약 3,500~6,000명으로 추정했다.[94] 남한의 좌익 세력은 1950년 봄엔 거의 와해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다. 1949년 9월 30일, 공보고문 올리버(Robert Oliver)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승만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공산당을 토벌하고, 이들을 한만국경으로 몰아넣어 굶겨 죽여야 한다.'고 극언했다.[95] 이승만은 동아시아의 반공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1949년, 미·소 양군이 철수하면서, 38선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가속화되었다. 때론 연대급 병력까지 교전 행위에 동원되면서, 충돌은 '작은 전쟁' 수준까지 고조되었다.[96] 대륙에선 중국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쳤다. 중국 내전에 가담한 한국인 부대가 북한에 귀환하여 인민군의 주력 부대를 형성했다.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 국토가 파괴되고,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 냉전 이데올로기와 동족상잔의 양상이 서로 혼재되면서,[97] 전쟁 양상은 훨씬 더 참혹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6·25전쟁의 초반 전세는 일방적이었다. 사흘 만에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했다. 7월 20일에 대전이 함락되고, 8월 초에는 제주도와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지역을 빼앗겼다.[98] 북한은 점령지역에

---

91) 김당택,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2002, 453쪽.
92) 《서울신문》, 1950. 1. 13.
93) 브루스 커밍스, 앞 책, 314쪽.
94) 브루스 커밍스, 앞 책, 340쪽.
95) 정병준, 앞 책, 246쪽.
96) 정병준, 앞 책, 259쪽.
97) 한국전쟁은 자유 진영이 소련과 중국에 맞서 벌이는 투쟁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무제한적으로 화력을 퍼붓는 미군의 잔인함을 사진에 담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여겨졌다. 그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데올로기이다. (수잔 손탁, 이재원 역,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05, 41쪽)
98)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다. 10월 말에는 압록 강변까지 공세를 펼쳤으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듬 해 1월 4일에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다. 이후 3월 하순부터는 38도선

인민위원회를 재건하고 토지재분배에 착수했다. 서울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서울은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 중에도 약 60명이 서울에 남아 있었고, 상당수 미술인도 마찬가지였다. 인민군은 서울 종로구에 '조선문화예술단체총연맹'(위원장 김남천)을 조직하고[99], 7월에 조선미술동맹(이하 재건미술동맹)을 재건하여 산하 단체로 두었다. 위원장은 박문원, 서기장은 정현웅이었다.[100] 재건미술동맹은 서울에 잔류한 예술가를 소집하여 단체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맹원 미술인과 국민보도연맹소속 미술인을 동원하여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화, 각종 전시 포스터, 선전삐라 등 각종 전쟁선전물을 제작하였다.[101] 그밖에도 서울국립미술제작소(소장 김만형), 서울시 물질문화유물보존회, 인민군 전선 사령부 문화훈련국, 남조선유격대 정치공작대 등 각종 전시미술단체를 점령 지역에 조직하여, 전시 선전물 제작에 동원하였다.

남한도 종군화가단을 결성하여 미술인을 선전활동에 동원했다. 1951년 1월 중순 경 국방부 종군화가단이 조직되었다. 국방부 종군화가단의 모태는 전쟁 직후 국방부 정훈국에 편성된 미술대였다.[102] 종군화가단은 기록화반, 보도선전화반, 만화반을 두고, 선무 작업을 위한 포스터 및 전단을 주로 제작했다. 국방부 종군화가단에 참여한 미술인은 박득순, 이봉상, 이세득, 조병덕, 한홍택, 이완석, 정점식 등 30여 명의 중견 화가와 장운상, 김세중, 서세옥 등 미대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군 본부에서도 1950년 11월에 서울에 작전부 소속 공군미술대를 창설했다. 공군미술대는 초대 대장에 선임된 장발을 비롯하여 정창섭, 정운상, 권영우, 전상범, 이순복, 김병욱, 이영은, 남용우, 구옥희 등이 모두 서울대학교 미대 재학생들이었다.[103] 공군미술대도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했으나 사정은 매우 열악하여 곧 해체되고, 이듬해 3월경 공군 종군화가단으로 재조직되었다. 단장은 이순석이었고, 이상범, 손일봉, 윤중식, 문선호 등이 단원이었다. 해군도 1951년 3월 본부 정훈감실 산하에 해군 종군화가단을 설치했다. 김환기, 윤효중, 이경성, 장욱진, 백영수, 강신석, 임완규, 최영림 등이 참여했다.

한편, 종군화가단과 별도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는 '문총구국대'를 조직하여, 국방부의 협력 하에 전시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김광섭이 대장을 맡고, 이헌구, 서정주, 서정태, 김송, 조지훈, 조영암, 박연희, 박화목, 조흔파, 구상, 오영수, 이신출, 이준, 김재문, 유치환, 김봉룡 등이 대원으로 참여하였다.[104]

일대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99) 김상미, 「한국전쟁과 분단 이미지의 기원과 재생산」,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8, 28쪽.

100) 조선미술동맹의 맹원으로 확인된 작가는 다음과 같다. 이석호, 이쾌대, 배운성, 정종녀, 정온녀, 최재덕, 이순종, 이해성, 장석표, 기웅, 이성, 김진항, 이건영, 방덕천, 김만형, 이팔찬, 이국전, 박승구, 윤자선, 유진명, 현충섭. (박영선, 「적치하 3개월 동안의 고초-김일성 초상화와 부역심사」, 『계간미술』 35호, 1985 가을호 ; 남관, 「미술동맹과 쌀 배급」, 『계간미술』 35호, 1985 가을호 ; 장우성, 『화맥인맥』,중앙일보사, 1982 ; 이구열, 「납북, 월북미술가, 그 역사적 실체」, 『계간미술』 44호, 1987 겨울호;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69쪽에서 재인용)

101)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69쪽.

102) 최태만, 위 논문, 40-50쪽. 이하 국방부 종군화가단에 관한 설명은 최태만의 논문을 주로 참고했다.

103) 최태만, 앞 논문, 55쪽.

104) 최태만, 앞 논문, 43-44쪽.

광주 지역에도 종군화가단이 결성되었다.[105] 1950년 10월 15일에 국군 11사단 20연대가 광주에 진주하고, 11월에 광주전남북계엄사령부 보도과의 육군 문관으로 부임한 서울대 미대 재학생 하인두의 건의로 광주 종군화가단이 결성되었다. 단장은 강용운, 부단장은 천경자가 맡고, 김보현, 김영태, 김인규, 박용실, 정창균, 조복순, 지성렬, 최용갑 등이 단원으로 참여하였다. 1951년 1월, 광주 종군화가단은 백양사 근처에 주둔하던 야전 부대에서 종군 활동을 개시했는데,[106] 당시 그린 현장 스케치와 유화 작품을 모아 광주미국공보원에서 《종군화가단전》을 개최하였다.[107]

이처럼 6· 25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이미지 전쟁이었다.[108] 남한과 북한은 경쟁적으로 미술 단체를 조직하여 미술인을 소집하고, 전시 선전 활동에 동원하였다. 종이폭탄이라 부르던 심리 전단(이하 삐라), 포스터, 초상화 등 숱한 선전 미술품이 한반도 전역에 뿌려졌다. 1950년 6월 28일 하루에 미 극동군사령부(FEC)는 1,200만장의 삐라를 살포했다. 전쟁 개시 6개월 동안 미군이 뿌린 삐라는 1억 2천 2백만 장에 이르렀고, 휴전 성립까지 총 25억 장이 넘는 삐라가 살포되었다.[109] 미군에 제공권을 상실한 인민군과 중국군은 선전 활동을 인력에 의존해야 했으나, 역시 상당한 양의 삐라를 살포했다. 양쪽 진영은 삐라 외에도 만화, 초상화, 전쟁기록화 제작을 통해 이데올로기와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데 활용하였다.

한편, 체제 홍보를 위한 선전 미술 활동은 전쟁 이전부터 있었다. 1945년 말까지 북쪽에선 레닌과 스탈린, 김일성의 초상화가 9만 점이 제작되었고, 이듬해에는 25만 점이 그려졌다.[110] 냉전 대립이 격화하면서, 남·북 모두 선전 미술품 수요가 폭증했다. 반면 미술 인력은 태부족이었다. 하지만 미술인에게 6·25전쟁은 이념 전쟁의 측면보다는 동족상잔의 비극적 성격에 더 가까웠다.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진영에 속했지만, 전쟁 이전까지 미술 단체에 함께 활동한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미술인들은 반동 혹은 부역 혐의를 피하고자 양쪽의 선전 미술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가 보통이었다. 부역 혐의로 체포된 작가가 반공 포스터를 제작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특별한 이념적 지향은 오히려 예외적이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미술동맹을 재건했을 때, 서울의 잔류파 미술인은 맹원 모집을 거부하지 못했다. 기웅, 박문원처럼 자기 이념을 갖고 선전 미술 활동을 주도한 미술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장우성이나 박영선처럼 신변 안전과 식량 배급의 목적으로 가입했거나, 김환기나 이상범처럼 강제로 선전 작업에 동원된 경우였다. 이는 재건미술동맹 출신 미술가들이 1·4후퇴를 전후하여 대

105) 노신영, 「6·25전쟁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2, 31쪽.
106) 노신영, 위 논문, 55쪽.
107) 광주 종군화가단이 광주미국공보원에서 개최한 종군화가단 전시회는 1950년 12월 말경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노신영의 논문(55쪽)에서 김영태가 백양산에 스케치한 시기는 이듬해 1월이므로, 서로 기록이 상충되며, 1951년 봄에 전시회가 열렸다는 기록도 있다.
108) 최태만, 앞 논문, 2쪽.
109) 최태만, 앞 논문 116-121쪽.
110) 노신영, 앞 논문, 37쪽.

부분 종군화가단에서 활동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남쪽의 종군화가단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1951년 여름부터 38도선을 경계로 전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국군이 수복한 지역에선 부역자 심사와 보복이 만연했다. 서울의 잔류파 화가들도 부역심사를 받아야 했다. 심사자는 고희동, 이종우, 이마동, 이순석 등 이른바 도강파였고, 이들은 도상봉, 김환기, 윤효중, 이봉상, 박상옥 등을 부역자로 넘겼다. 따라서 국민보도연맹이나 재건미술동맹과 연루된 미술인들은 종군화가단에 활동함으로써 좌익의 혐의를 벗고 신분 보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환기가 해군 종군화가단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광주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조선대학교 미대 강사였던 김보현과 천경자도 인민군이 점령했을 땐 반동으로 감시받고, 수복이후엔 좌익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이중의 고초를 겪으면서 광주 종군화가단에서 가입했다.

휴전으로 전쟁이 정리되면서, 미술인은 월북 작가, 납북 작가, 월남 작가라는 부류로 구분되었다. 월북 작가는 대략 1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6·25전쟁을 기준으로 월북 작가를 구분할 수 있다.[111] 전남 지역에선 수원출신으로 문원과 함께 목포미술동맹을 주도한 박승구와 목포 출신으로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한 표세종이 월북하였다. 월남 작가로는 이중섭, 최영림, 한묵, 홍종명 등이 유명하다. 한편,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미술인이 있었다. 소위 유격대 미술인과 빨치산 미술인이 그들이다. 이들은 남북 분단의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처럼 만들어졌다. 전자는 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유엔군의 반공선무활동을 전개한 미술인이다. 후자는 남쪽에서 활동한 인민군 소속 미술인이다. 빨치산 미술인으론 오지호와 양수아가 가장 잘 알려진 작가이다.

1950년 7월 23일 인민군 제6사단이 광주와 화순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청, 민애청, 부녀동맹 등 좌익 단체를 조직하였다. 당시 고향 동복에 머물고 있던 오지호는 인민군 정치공작대 참가를 권유받고, 농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지하듯 해방 공간에서 오지호의 위상은 매우 컸다. 동경미술학교 출신으로 1948년 8월 광주에 낙향한 뒤 광주미술연구회를 재결성하고 조선대학교 미술과에 출강하면서 이 지역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있었다. 10월 3일 국군이 광주를 수복하고 동월 15일 국군 제11사단 20연대가 광주에 진주하였다. 국군이 부역자 색출작업에 나서자, 오지호는 모후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남조선유격대 총사령부 모후산부대 공작대 명령으로 '전남지구총사령부 정치부' 에 배속되었다.[112] 오지호는 정치부 출반부원으로서 선전물 제작에 관여했는데, 신문 및 정치포스터, 전투 장면 등을 제작하고, 소년들에게 그림과 논어와 맹자를 가르쳤다고

---

111) 강호, 길진섭, 김경준, 김일영, 김정수, 박경란, 박병수, 조규봉 등이 전쟁 이전 월북 작가들이다. 전쟁 기간에 기웅, 김진항, 리병호, 박문원, 손영기, 허남흔, 김만형, 리건영, 리석호, 리쾌대, 리팔찬, 림군홍, 배운성, 엄도만, 유진명, 윤자선, 정온녀, 정종여, 정현웅, 최재덕, 현충섭, 구본영, 김규동, 김용준, 김종수, 김혜일, 류석연, 리국전, 리성, 박승구, 박용달, 서돈학 등이 대표적이다. 휴전 이후 월북 작가로는 강진석, 김기만, 김장한, 김재홍, 김종렬, 박상락, 송영백, 안상목, 윤룡숙, 윤형렬, 장성민, 장재삭, 정창모, 조준오, 주귀화, 최남택, 최창식, 한명렬, 한상진, 홍종원, 표세종, 김삼곤, 김승희, 리유미, 조양규 등이 있다.

112) 오지호 구술, 설호정 기록, 「그 슬프게 팬 갈대꽃 무리」, 『뿌리깊은 나무』, 1977.11 ; 조은정, 『권력과 미술-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 아카넷, 2009, 149쪽에서 재인용.

한다. 1952년 2월 오지호는 백운산에서 생포되어 광주포로수용소에 갇혔으나, 동년 12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탄원에 힘입어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다. 1952년 조선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고, 이듬해 지산동에 초가집과 목조 작업실을 마련하면서 광주에 정착하였다. 이후 오지호의 문하에서 강길원, 진양욱, 국용현, 황영성, 김흥수, 이상순, 조규일등 이 지역의 중견 화가가 배출되었다.

양수아는 전남 보성출신으로 본명은 양회식이다. 1939년에 가와바다화학교에 입학해서 1941년 졸업까지 입체파와 야수파 등 전위적인 미술 사조를 습득하였다. 1943년 징용을 피해 만주로 가서 일본인이 경영하던 안동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취업하였다. 신문사에서는 양수아의 삽화 실력을 높이 샀다. 양수아는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을 불러 안동중학교에 입학시켰다. 1945년 10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과 농장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간 상태였다. 당시 광주서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가와바타화학교 동창생 배동신의 주선으로 전라남도 문교사회국 학무과에 교사직을 신청했고, 1948년 목포 문태중학교 미술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해 겨울 첫 개인전을 광주의 미공보원에서 열었는데, 해방 후 최초의 비구상작품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48년 제주에서 4 · 3항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도 주둔 경비대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양회천(양수아의 친동생, 당시 이등상사)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1950년 7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양회천은 국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인민군 점령 하에 목포지역 문화예술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0월 2일 국군이 목포를 수복하자 부역자 색출을 피해 양수아는 낙오된 인민군, 좌익세력과 함께 백아산에 입산하여 조선인민유격대 독립 제4지대에 배속되었다.[113] 1951년 가을부터 양수아는 81사단 정치부에서 차출되어 남조선 유격대 정치부 소속의 소설가 이태를 만나 1952년 3월까지 함께 활동하였다.[114] 1953년에 체포되었지만, 탄원서에 힘입어 무죄 방면되었고, 목포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였다. 당시 동료교사로 차범석, 미술부 제자로 김지하와 이석우 등이 있었다. 1956년 강용운의 주선으로 광주사범학교로 자리를 옮겼고, 1961년까지 재직하면서 최종섭, 황영성, 이태길, 이성부, 김종일, 우제길, 최재창 등 지역의 중견화가를 양성하였다. 하지만 무죄 방면에도 불구하고 양수아는 정보원의 감시에 항상 시달렸다.

6 · 25전쟁의 상흔은 미술계에도 선명히 남았다. 해방 후 화단의 최대 현안은 일본 화풍의 일소와 새로운 민족 미술의 수립이었다. 여기엔 친일 작가조차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술계는 부역 작가와 종군 작가, 월북 작가와 월남 작가, 납북 작가와 빨치산 작가로 분류되었고, 서로 외면하고 서로 배제했다.[115] 미술계에도 냉전 체제가 관철된 것이다. 반면, 청산 대상이던 친일부역작가들은 전쟁에 편승하며, 그들의 친일 행적을 세탁할 수 있었다.[116] 심지어 남쪽은 반공 권력에 영합하며, 미술계를 장악하였다.

---

113) 광주시립미술관 · 부국문화재단, 『격동기의 초상-양수아 꿈과 좌절』, 2004, 200쪽.
114) 조은정, 앞 책, 151쪽.
115)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 선전 경험 기록」,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9, 216쪽.
116) 최태만, 앞 논문, 233쪽.

2. 민족자주통일협의회와 오지호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6 · 25전쟁이 끝났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전쟁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해방과 함께 제기된 민족의 과제 – 식민잔재 청산, 민족통일국가 수립, 냉전체제 해소 – 는 난마처럼 얽혀버렸다. 미 · 소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 유지에 이해가 일치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로 민주적 요구를 억압했다. 북진 통일론을 내세워 독재 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117] 동족상잔의 참상은 민족 상호간 적대감을 유산으로 남겼다. 극단적인 흑백 논리가 강요되고 일상화되었다. 전쟁 때 동원한 선전(Propaganda)이미지가 재생산되어 남 · 북의 독재 정권의 재구축에 동원되었다. 청산대상이던 친일부역자들은 이승만 정권에 참여하고 친미 반공의 우산에 몸을 숨기면서 과거를 세탁했다. 해방 이후 좌파의 맥을 잇는 세력들은 거의 종적을 감추었다.[118] 심지어 중도 및 진보적 세력의 민주화 요구조차 반공주의를 내세운 이승만 정권의 억압을 받았다. 빨갱이 콤플렉스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고, 일상은 파편화되었다.

전후 미술인들도 작품을 제작하면서, 무의식적인 자기 검열에 시달렸다. 예술가는 타인의 고통에 누구보다 민감하다. 예술적 이미지로 타인의 고통을 새롭게 승화하는 존재다. 스페인의 작가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는 〈전쟁의 참화〉(Los desastres de la Guerra, 1810)에서 전쟁의 잔인함과 고통을 형상화함으로써, 전쟁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라 참혹한 고통일 뿐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우리에게 6 · 25전쟁은 미증유의 참극이었다. 당시 종군기자가(국내 약 25명, 외국 238명)이 전쟁을 취재했다.[119]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은 사실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판단되고 선전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쟁에서 겪은 작가의 실존적 고뇌를 투명하게 표출하면, 즉각 현실적인 위험을 각오해야 했다. 일부 화가들은 '가족' 이라는 주제로 전쟁의 상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120] 이렇듯 체제이념이 예술을 질곡하자, 1950년대 후반에 미술의 순수성을 내세운 추상표현주의 혹은 앵포르멜 운동이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열광적으로 확산되었다.[121] 반공이데올로기에 질식한 전쟁의 경험이 추상 미술의 형태로 표출한 것이다. 대표적인 앵포르멜 작가 중 한 명이 양수아였다. 당시 그는 빨치산 활동으로 투옥되고, 정권의 감시를 받았다. 양수아가 창작 활동을 지속하려면, 시대와 무관한 예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앵포르멜에 경도되는 방법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1960년 4 · 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붕괴하였다. 혁명을 주도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통한

---

117)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쟁」, 고려대 박사논문, 2001, 22쪽.
118) 엄상윤, 위 논문, 1쪽.
119) 한국 종군기자로는 최계목, 임응식, 이건중, 홍사영, 임윤창, 이명동, 이경모, 박진식, 최경덕, 김정래, 김한용, 이병상, 이형록, 성두경, 임인식 등이 확인된다. (김상미, 「한국전쟁과 분단이미지의 기원과 재생산」,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0, 108쪽.)
120) 노신영, 앞 논문, 74쪽.
121) 최태만, 앞 논문, 218쪽.

철저한 반공과 공산주의 타도를 강조하였다.[122] 5월 3일에 출범한 과도 정부도 확고한 반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진 통일론에 대해서는, '허장성세하는 반공' 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폐기하였다. 과도정부가 북진 통일론을 폐기한 것은 미국 정부의 요구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북진 통일론의 무모함을 경고한 바 있었다. 그리고 4 · 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자, 과도정부로 하여금 북진통일론의 폐기를 공식화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과도정부는 헌법 제13조와 제28조를 개정하고, 국가보안법,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 집회에 관한 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이 제약했던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였다. 혁신 정당의 등장 여건이 조성되고, 진보적 통일 운동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다.

1960년 7 · 29총선을 계기로 통일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민주당은 반공여론을 활용하여 혁신 정당의 통일방안을 용공으로 몰아갔다. 혁신 정당 내부에서도 통일을 둘러싼 이견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했고, 장면 내각이 출범했다. 장면 정권은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결성을 통해 반공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 반면에 통일 정책은 경제 건설의 후순위로 밀려났고, 전담 부서도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0월 중순 경 북쪽 김일성이 남북연방제를 제안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었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 맨스필드가 중립화통한론을 제기하면서, 남쪽 보수 세력은 위기의식에 휩싸였다. 심지어 무력통일론이 재론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혁신 세력들이 맨스필드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통일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럼에도 지식인들은 뚜렷한 통일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휴전 이후 북한의 급선무는 전후복구와 체제정비였다. 강경파가 무력통일론을 견지한 것은 국내정치용이었고, 남북 교류 제안도 대내외적 선전 수단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 남 · 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서[123], 4 · 19혁명을 계기로 북한은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전제로 적극적인 평화통일공세로 전환하였다.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은 남북연방제를 제안하며 남북교류와 남북협상의 공세를 강화했다. 남북연방제는 남북교류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과도적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다가, 남북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북한체제에 의한 단계적 흡수 통일론이었다.[124] 그러나 장면 정권은 북한의 제안을 '공산주의자의 상투적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며[125] 일축하고, 일체의 남북교류와 남북협상을 배격하였다. 한편, 혁신세력은 남북교류와 남북협상에 대해 환영하였다. 혁신세력의 반응은 해방 공간에서 중도파의 남북교류와 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건설론을 계승한 것이다.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상에 관한 방안과 쟁점이 쏟아졌고, 이는 민족자주통일협의회(民族自主統一協議會, 이하 민자통)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

122) 엄상윤, 앞 논문, 22~23쪽. 이하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론에 관련한 내용은 본 논문을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일일이 각주를 달지 않는다.

123) 1954년부터 59년까지 북한의 공업 생산율은 연평균 43%에 달했다. 1960년도에 북한의 공업생산은 1949년의 6.4배를 초과했고, 국민 1인당 GNP에서도 남한보다 1.5배정도 앞서 있었다.

124) 엄상윤, 앞 논문, 142~143쪽.

125) 『민국일보』,1960년 11월 22일 조간 ; 엄상윤, 앞 논문, 146쪽에서 재인용.

민자통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60년 4월 21일 '4월 목요회의'에서다.[126] 이 회의는 민족건양회(民族建陽會)가 주도했는데, 4·19혁명을 '3·4월 민족항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민족세력이 주도하는 통일 없이 4·19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민족자주통일 중앙 및 각 지역 협의회'(가칭)라는 전선체(戰線體)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하여 10월 10일에 민족건양회, 천도교, 사회혁신당, 삼민당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준비위원회'(사무총장 박진(朴震))구성을 완료했다.[127] 준비위원회는 낙원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2월 하순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조직 확대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 시기에 비보수적 정당, 사회단체, 독립운동 원로를 포함한 천여 명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연합전선적 조직체 면모를 갖추었다.[128] 독립운동가 김창숙(민족건양회 의장, 유도회)이 준비위원장에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에 주옥경(천도교), 장건상(혁신당)을 각각 선출하였다. 마침내 1961년 2월 25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1,2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민자통 결성대회가 개최되었다. 13명의 임시집행부를 구성했는데, 의장단에 오지호가 포함되었다.[129] 민자통은 '3·1독립선언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선언하면서, 1.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통일, 2. 민족자주역량의 총집결, 3. 민족자주의 처지에서 국제 우호의 돈독'이라는 3대 강령을 발표하였다.[130]

민자통은 단체 가입 외에 개인 가입도 허용하면서,[131] 최대의 통일운동단체로 부상했다. 결성대회 당시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지역에 도협의회 준비위가 조직되었고, 17개 군협의회 준비위까지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서울특별시 협의회가 조직되고, 시·군·읍·면·리·동협의회, 직장협의회, 해외지부 결성까지 구상하였다. 그 결과 정당관계 1만 명, 사회단체관계 4만 명, 지방협의회 소속 5만 명 등 전체 조직원 수가 10만 여명에 이르렀다. 민자통은 '남·북 간의 서신왕래, 경제교류 촉진, 국제대회 남북혼성선수단 파견' 등 초보적 단계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민자통은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반대운동, 통일촉진궐기대회, 남북학생회담 지지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광주에서는 조국통일촉진강연회(1961. 3. 28)와 학생회담촉진궐기대회(1961. 5. 14)가 열렸는데,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통일, 남북학생회담 방해 말라, 나아가자 통일의 광장으로' 등의 구호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혁신 세력의 통일운동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군부의 데모진압훈련과 군부동원의사를 공공연하게 천명하기도 했다. 반공단

126) 엄상윤, 앞 논문, 196쪽.
127) 『민족일보』,1961년 3월 8일.
128) 이하 설명은 엄상윤, 앞 논문 198~203쪽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별도의 각주는 달지 않는다.
129) 의장단으로, 김창숙, 장건상, 최근우, 김달호, 노정일, 허영백, 정순종, 안경근, 조기하, 주옥경, 조문태, 이원혁, 조윤제, 함석희, 박래원, 김성달, 오지호 등이다.(『민족일보』, 1961년 2월 28일)
130) 『민국일보』, 1961년 1월 16일.
131) 민자통에 참가한 정당 사회단체는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일부, 동학당 일부, 삼민당 일부, 광복동지회 일부, 구국동지회, 민족건양회, 민민청, 통민청, 천도교 일부, 천도교 부녀회, 유도회 일부, 4월학생혁신연맹, 피학살자유가족회, 교원노조 일부, 출판노조 일부, 교수협회 일부, 사회문제연구회, 학사회, 사회과학연구회 등이었다. (『민국일보』, 1961년 2월 26일 석간.)

체들도 혁신세력을 용공세력 혹은 잠재적 공산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보강 등을 주장하며 혁신세력에 대해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가 주도한 군부세력은 진보적 통일론과 통일운동을 '반공국가의 위기'로 규정하고, 5·16군사정변을 일으켜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하였다. 박정희 군부는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철저하게 억압하였다.

한편 민자통 공동의장에 선임된 오지호는 5월 17일에 군부세력에 의해 검거되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오지호와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호남신문 편집국장과 전남도의회 의장, 남도일보 이사장을 역임한 김창선(金昌善, 전남 민자통 의장단 및 선전위원장), 임금택(林錦澤, 전남 민자통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1961년 2월 19일 광주 YMCA에서 열린 전남 민자통 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오지호가 의장단 대표를 맡고, 김창선은 개회사, 임금택은 서기를 담당한 바 있었다. 이듬해 1월 16일에 혁명재판소(재판장 김홍규(金弘圭))는 7년 형, 김창선과 임금택은 5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3월 15일 항소심에서 오지호와 임금택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창선은 기각되었다. 당시 공판에서 오지호는 '기성준이라는 청년이 집에 찾아와 민자통은 국민운동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단체이니 조직에 협력해 달라는 권유를 받아 참여했고, 혁신계통 단체의 행사나 활동이 너무 난잡, 무질서하고 과격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자기 변론을 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 이후 통일에 대한 민족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것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듯, 오지호가 민자통 활동에 참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남북분단의 해결을 염원하는 민족적 요구에 대한 화가로서의 고백적 응답이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제4장. 유신체제와 민족민중미술운동(1962~1979)

1. 민족민중미술운동의 태동

5 · 16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는 18년 동안 독재를 일삼았다. 박정희의 권력기반은 군부와 중앙정보부였다. 1961년에 조직된 중앙정보부는 대북 정책과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정보기관으로 무소불위의 위세를 떨쳤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통제되고 탄압받았다. 살벌한 정보 정치가 만연했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는 유명무실했다. 1968년 재집권한 박정희는, 향토예비군 창설, 대학군사훈련 시행, 국민교육헌장 제정, 주민등록증 발급, 국기에 대한 맹세, 반공 · 안보궐기대회 등 전시동원체제를 조성하며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런데도 1971년 선거에서 겨우 승리하자, 이듬해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정을 중단시켰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으며, 모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력을 집중하고 반대 세력의 비판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보장한 위헌 헌법이었다. 임의관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효 2표를 제외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임된 박정희는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회의원의 1/3 임명권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전면 부정하였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제1호를 공포(1974. 1. 8)하여 민주화 운동을 제압하고자 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행위로 금지되고,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되었다. 같은 해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민중 민족 민주 선언'을 발표하며 전국 시위에 나서려하자,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하여 윤보선, 박형규 등 180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고, 이철, 김지하 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제9호는 가장 악랄했다.(1975. 5. 13) 언론, 출판, 집

회, 시위 등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일체 부정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취급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유신체제의 첨병 노릇을 하였다. 거의 모든 곳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깔렸고,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체포하고 고문했다. 긴급조치의 칼날에서 예술 문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국가 안보와 국민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거짓 명분으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예술 작품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창작의 자유는 극도로 억압되었다. 민중의 현실과 유리된 작품들이 범람했고, 예술의 저항성은 질식하였다.

유신체제가 강화되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회색 지식인들이 양산되었다. 미술계에도 순수미술의 허울을 쓴 작가들이 대학과 화랑, 국전에서 기득권을 거래했다. 반면에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기득권 밖으로 추방된 해직교수, 해직교사, 해직언론인, 해직노동자, 종교인, 대학생들은 각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중 운동에 투신하였다. 특히 문학운동은 1960년대부터 선구적이었다. 4 · 19혁명 이후 이른바 순수 · 참여문학논쟁이 치열했다. 참여문학론은 작가는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의 성찰과 비판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사실적으로 작품에 투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최인훈은 소설『광장』(1961)에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파헤쳤다. 남정현은『분지』(1965)에서 미군에 성폭행 당한 여성을 등장시켜, 친미반공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반공법 위반혐의로 체포되는 필화사건에 휘말렸다. 시인 김수영은 4 · 19혁명 이후,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며, 모든 살아있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불온한 것' 이라며 작가의 사회 참여와 문학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다. 참여문학론은 젊은 미술인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1969년을 전후로 김지하, 김윤수, 오숙희, 염무웅, 이성부, 안인학 등이 폰트라(Pontra-Poem on Trash)라는 시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에 의해 1969년 서울대 미대생인 오윤, 임세택, 오경환, 강명희가 참여한 '현실동인' 의 결성이 추동된 것이다.[132] 현실동인은 미술의 현실 지향을 선언한 선구적인 미술동인이었다. 현실동인은 18세기 조선의 속화와 민화를 계승하고, 멕시코 벽화 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비판적 리얼리즘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방해와 학교 및 가족의 만류로 첫 전시회가 무산되면서 동인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술계에 하이퍼리얼리즘, 쉬르리얼리즘, 신즉물주의, 신구상주의, 신표현주의, 네오리얼리즘, 미니멀리즘 등 온갖 서구미술양식이 국제주의라는 간판으로 무비판적으로 밀려왔다. 획일적이고 도식적이고 열등한 번안 미술이 미술대학과 화랑을 장악하였다. 현실과 유리된 정체불명의 작품이 순수예술이란 명분으로 행세하였다. 무엇보다 미술인 스스로 시대의 의미를 묻고, 삶의 다양한 국면을 작품에 투영하려는 작가 의식이 부재했다. 60년대와 마찬가지로 70년대 문학운동은 미술운동에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백낙청, 김현, 김윤수, 원동석, 성완경, 최민, 임영방 등 비평가들은,『창작과 비평』,『문학과 지성』,『다리』 등 정기 간행물을 무대로, 분단 체제와 민족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하우저와 루카치,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문예이론 등이 번역되어

132) 채효영,「1980년대 민중미술 연구-문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논문, 2008, 67~68쪽.

출판되었다. 또한 이들은 미술 비평을 통해 미술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은 현실과 괴리된 미술계를 비판했다. 성완경은 미술의 민주화와 소통의 회복을 요구했다. 원동석은 '미술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미술의 존재 이유는 이웃들의 고통과 비애, 기쁨과 갈망을 보는 자가 보여줌으로써 이웃에 대한 우정을 표현하는 것 'ㅇ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술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계층과 그 계층으로부터 스스로를 자기 소외시키는 예술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족의 실체는 민중이며, 문화의 주체자도 민중임을 강조하고 미술은 민중의 현실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면서, '민중미술' 의 개념을 제기하였다.[133] 김윤수는 '민족미술론' 을 펼쳤다.[134] 그의 주장은, 우리 미술이 주체적 시각에서 추구되지 않았으며, 일제 강점기 미술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135] 참된 예술은 언제나 구체적인 생의 진실과 자유 그리고 휴머니즘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폭력이라고 그는 단언했다.[136] 그러하여 김윤수는, '미술은 민족의 현실에 터 잡고, 또한 그 현실을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는 민족미술론을 제기했다. 70년대 민족민중문학의 이론적 성과가 '민족민중미술운동' 의 이론적 토대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미술비평가의 이론 작업과 별도로, 30대의 젊은 작가 사이에 현실주의 미술론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70년대에 미술대학을 다녔고, 민족문학론에 깊은 영향을 받은 차세대 작가들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림쟁이' 가 아니라, '시대의식을 갖춘 작가' 가 되기를 열망했다.[137] 순수미술이란 명분으로 삶과 무관한 작품을 제작하고 싶지 않았다. 상업주의에 물든 전시장 풍토를 비판했다. 예컨대, 오윤, 신학철, 홍성담, 노원희, 임옥상, 이종구 등은 농촌과 도시변두리, 노동자와 서민의 일상에 주목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억압과 인간 소외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렇다고 조직적인 미술운동단계까지 진척된 것은 아니고, 개별 작가의 의식 각성 수준이었다. 미술운동의 성격을 지닌 소모임들이 결성된 것은 70년대 말부터였다.

1979년 12월 6일, 원동석, 손장섭, 오윤 등 작가와 평론가가 결합한 소모임이 서울에 결성되었다.[138] ' '기존미술이 고답적인 관념의 유희를 고집함으로써 현실을 소외시키고 진실을 외면했다. 이젠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연대하여 시대와 현실을 발언하겠다.'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139] 미

---

133) 원동석,「민족주의와 예술의 이념」,『원광문화』, 1975, 이영철,「80년대 민족 · 민중미술의 전개와 현실주의」,『가나아트』11 · 12, 통권10호, 1989, 82쪽에서 재인용.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 22~24쪽.

134) 김윤수, 「한국 근대미술—그 비판적 서설」,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ᄒᆞᆫ겨레, 1988, 31~34쪽.

135) 김윤수, 앞 책, 31쪽에서 재인용.

136) 김윤수,「폭력과 예술」,『다리』,1972.2 ; 최열, 앞 책, 162쪽에서 재인용.

137) 현실과 발언, 『현실과 발언—1980년대의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열화당, 1994, 183쪽.

138) 현실과 발언 모임 발기인 일동, 「현실과 발언 창립취지문」, 1979.12, 창립발기인 12명은 원동석, 최민, 성완경, 윤범모(이상 평론가), 손장섭, 김정인, 주재환, 김정헌, 오수환, 김정수, 김용태, 오윤(이상 작가)이었다. (현실과 발언2편집위원회,『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1990, 590쪽)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창립회원은 총 16명으로서, 성완경, 원동석, 윤범모, 최민(이상 평론가), 김건희, 김용태, 김정헌, 노원희, 민정기, 백수남, 손장섭, 신경호, 심정수, 오윤, 임옥상, 주재환(이상 작가)가 그들이다. (같은 책, 590쪽)

139) 성완경,「미술제도의 반성과 그룹운동의 새로운 이념」, 동인지 『그림과 말』, 1982, 90쪽 ; 민족미술협의회 편,『한

술이란 진실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미술가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문한 후, 작가로서 이웃과 연대하고 시대의 현실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고자 '현실과 발언'(이하 현발)을 결성한다고 선언했다.[140] 그러나 1980년 5·18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정권은 민중미술운동을 삼엄하게 감시하고 탄압했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은 당국의 압력으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동산방으로 전시 장소를 옮겨야 했다.[141] 1982년부터 문공부에서는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른바 불온작가에 대한 협박과 회유, 작품압류와 전시취소 등의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142] 80년대 전반기 동안 민중미술의 성격을 띤 작가의 작품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탄압 정국이 계속되었다.[143]

2.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창립

1979년 9월,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1980~1984, 이하 광자협)가 창립되었다.[144] 민중미술운동 단체로선 가장 빠른 결성이었다. 광자협은 '미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창립 취지문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참담하게 눌려있다. 작가는 시대 모순의 발견자이자 양심으로, 작품은 인간사회 비리의 증언이자 도전장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145] 당시 창립 회원은, 홍성담, 최익균(최열) 등 총 8명으로, 대부분 조선대학교 미대출신이었다.

광자협의 창립은 미술계의 권위주의적 풍토, 고답적인 대학미술교육, 심미주의 일변도의 미학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1978년 홍성담은 폐결핵 치료를 위해 요양하던 한산촌에서 학생운동가 윤한봉을 만났다고 한다.[146] 당시 윤한봉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후 당국으로부터 지역 학생운동의 지도부로 지목되어 항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었다. 1978년은 윤한봉이 함평고구마사건, 들불야학 설립, 전국농민쌀생산자대회(광주 계림동 성당)등에 결합하던 시기다. 1979년 2월 홍성담은 조선대학교

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흔겨레, 1988, 200쪽에서 재인용.

140) 성완경, 앞 책, 90쪽 ; 민족미술협의회 편,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흔겨레, 1988, 200쪽에서 재인용.

141) 현실과 발언2 편집위원회, 『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1990, 594쪽.

142) 홍선웅, 「핍박의 굴레 속에 성장한 민족-민주-통일의식—80년대 미술탄압사례를 중심으로」, 『가나아트』 11·12호, 가나아트, 1989, 102~109쪽.

143) 1980년 10월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은 당국의 압력으로 문예진흥원미술회관에서 동산방으로 전시장소를 옮겨야 했다(현실과 발언2 편집위원회, 『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1990, 594쪽) 1982년부터 문공부에서는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른바 불온작가—임옥상, 신경호, 홍성담 등—에 대한 협박과 회유, 작품압류와 전시취소 등의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했다(홍선웅, 「핍박의 굴레 속에 성장한 민족-민주-통일의식—80년대 미술탄압사례를 중심으로」, 『가나아트』 11·12호, 가나아트, 1989, 102~109쪽)

144)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조직사—상편」, 『미술운동』제6호, 1990.11, 98쪽. 광자협에 대한 사실 관계는 위자료에서 근거했음을 밝히고, 일일이 각주를 붙이지 않는다.

145)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제1선언문(요지)」, 1980.7.1

146) 『미술운동』제6호에 '민주화운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명을 적지하지는 않았다. 웹 사이트에선 홍성담이 윤한봉을 만난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현대문화연구소〉[147]와 관계를 맺으면서 미대 후배들과 함께 학습써클을 조직하였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하우저, 1974) 『한국현대회화사』(김윤수, 1975), 『힘의 예술』, 『현대 아메리카 미술의 조류』(바우어, 1959) 등이 주된 학습 교재였다. 서구 리얼리즘 미술, 멕시코의 벽화운동,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을 통해 현실주의 미술에 대한 안목을 높였다. 또한 『창작과 비평』에 게재된 민중문학의 이론과 사회경제적 관점을 수용하고, 민족미술유산에 관한 학습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광자협은 창립에 앞서 1년 정도 공동학습과 합평회, 노동현장 답사를 통해 현실주의 미술을 지향하였다. 광자협은 창작에서 생활과 노동 현장을 중시했고, 격렬한 형상 방법을 채택하였다. 어둡고 칙칙한 뒷골목이나 공장, 빈민가, 빈한한 사람들의 생활이 그림의 소재이자 주제였다. 대체적으로 격렬한 표현파적 기법 혹은 사실파적이면서도 약간 변형된 양식이 창작방식으로 채택되었다.[148] 이처럼 서울에서 출범한 현발과 광주 지역의 광자협은 각자 활동 지역은 달랐지만, '시대모순을 직시하는 작가', '삶의 현실을 발언하는 작품'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에선 일맥상통했다. 굳이 차이라면, 서울에 비해 광주가 기득권 미술 행태를 더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현실참여의지가 더 뚜렷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발과 광자협의 차이는 1980년대 전반기 민중미술운동의 양대 흐름을 형성하였다.

147) 1979년 6월 4일 윤한봉은 현대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에 취임했다.
((사)윤한봉기념사업회http://www.habsoo.org)
148) 최열, 앞 책, 168쪽.

제5장. 5·18광주민중항쟁과 민족민중미술운동(1980~2002)

1. 미술소집단의 결성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에는 굵직한 사건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4 · 3항쟁과 4 · 19혁명, 전태일의 분신과 반독재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및 5 · 18광주민중항쟁(이하 5 · 18항쟁)과 6월민주항쟁이 특히 그러할 것이다.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화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 독재정권하에서 민중(시민)들에 의한 정치운동이나 사상운동은 숱한 탄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억압된 민중의 에너지는 정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적 영역으로 우회했다. 그 결과 문화예술운동은 국가폭력을 엄호하는 공식기억에 맞서 대항기억[149]을 형성하는 역동적이며 중층적인 정치 · 사회운동의 성격으로 확장되었다.

1983년에 출판된 오월판화시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으리』[150]에서 시인 김진경(53년생, 당시 우신고등학교 국어교사)은, "푸른 하늘도 봄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삶은 죽음보다 기나긴 어둠" 이라고 5 · 18항쟁 이후 암울한 시대상을 노래했다. 광주 출신 박주관(54년생, 당시 상명여자중학교 국어교사)은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나라,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 로, 5 · 18항쟁의 현장에 있었던 김준태는, "하느님도 새떼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라며, 당시 광주의 절망감을 토로했다. 광주의 화가 강연균은 〈하늘과 땅 사이 I〉 (1981)에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무참히 살육당한 광주시민의 공포와 절망을 무채색으로 그렸다. 광자협의 리더 홍성담은 〈자전거여행~그림자밟기〉 (1981), 〈아버지의 땅〉 (1981)에서 5 · 18항쟁의 충격과 좌절감을 다루었다.

---

149) 푸코에 따르면, 대항기억(counter-memory)이란 국가나 지배집단에 의한 공적기억(official-memory)이나 공식역사와 다른 기억을 의미한다. (Foucault,Michel,Language, Counter-Memory, Pratice:Selected Essays and Interviews, Donald Bouchard(ed)(New York:Cornell University Press,1977) 권귀숙, 「4 · 3의 대항기억과 영상」,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97쪽, 각주 1에서 재인용

150) 판화시집에 동참한 미술인들은 시민미술학교를 주도한 홍성담과 광주의 목판화운동을 이끈 동지들이었다.

5 · 18항쟁은 이렇듯 예술가나 시민 모두에게 심대한 정신적 내상을 입혔다. 그 누구도 가슴을 열고 '광주'를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증오하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1980년 5월 27일 새벽을 떠올리면서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한 산자의 죄책감은 함께 죽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말할 수 없어서였다. 매 순간 수치심은 살아남은 이들을 할퀴었다.[151] 그것은 5 · 18항쟁이 남긴 트라우마였다.[152] 그러하여 작가와 시민이 '광주'를 증언하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더욱 절실한 시절이기도 하였다.[153]

그러나 5 · 18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 정권의 폭압은 상상을 불허했다. 1985년까지 사람들은 망월동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도 없었다.[154] 유족들의 추모의식은 금지되었고, 망월묘역에 참배하려면 감시의 눈을 피해 밤늦게 산을 넘어야 했다. 5 · 18항쟁 당시 집안에서 총격을 입은 어머니는 폭도 및 간첩으로 오인될까봐 총상 흔적이 확연한 얼굴과 몸을 감추느라 한여름에도 수건을 써야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155] 정권의 억압과 감시, 광주의 분노와 좌절, 국민의 침묵과 소외가 광주의 하늘과 대지를 지배했다. 5 · 18항쟁의 진실은 왜곡되고 고립되었다. 광주 시민은 '폭도, 빨갱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진 삶을 견뎌야 했다.[156]

물론 미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군부 정권의 탄압은 날로 거세졌다. 정권은 여하한 형태의 비판적인 미술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목록을 작가에게 강요했다. 누군가 현실을 발언하면 즉각 탄압이 가해졌다. '광주의 진실'은 감금되었고, '5 · 18항쟁'은 불온한 단어가 되었다.[157] 1980년 10월 17일,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은 당국의 압력으로 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에서 동산방으로 전시 장소를 옮겨야 했다. 같은 해 10월 광주 금남로 아카데미 미술관에서 〈2000년 작가회 창립전〉이 개최되자,[158] 당국은 홍성담, 최익균 등 전시 작품

151) 김미선, 「르네 마그리트에 있어서 트라우마 이미지의 이항 대립적 표현」, 홍익대 석사논문, 2006, 46쪽.

152) 5 · 18항쟁을 트라우마적 관점에서 파악한 논문은 다수 있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을 뜻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그 자체가 정신적 외상이 되어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변주나, 「15년 후 심신충격」,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2000, 115쪽). 프로이트에 의하면, 트라우마는 기억되지도 않으면서 또 잊히지도 않는 모순된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들뢰즈는 트라우마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나타나 나를 후려친 상처이며 또 그에 적합한 표상을 갖추지 않은 일종의 암호문자라고 했다(김미선, 앞 논문, 45~46쪽). 라캉은 실재와 만나는 주체는 안과 밖, 내부와 외부에 혼란을 느끼는데, 이것을 트라우마적인 것으로 보았다(김미선, 앞 논문, 81쪽).

153) 광주항쟁이후 시민들이 기댈 곳이 없었다. 항쟁의 현장이던 금남로 옆 가톨릭센터에서 (시민미술학교)강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전시회 때에는 줄을 서서 관람할 정도였다. 그 열기에 우리(작가)도 놀랐다(홍성민, 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154) 린다 루이스Linda S. Lewis, 「5·18피해자집단의 재희생현상」,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2000, 200~202쪽.

155) 변주나, 「15년 후 심신충격」,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2000, 127쪽.

156) 린다 루이스 Linda S. Lewis, 「5 · 18피해자집단의 재희생현상」,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2000, 202쪽.

157)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가슴에 고여 있는 서러운 사랑의 빛깔로 반짝거리고 나는 눈물대신 금지된 노래를 부르고 싶어진다" (이영진, 〈과꽃〉 (1), 『5월시 동인작품집 2:그 산 그 하늘이 그립거든』, 한국, 1982, 111쪽)

일부를 철거하였다. 1982년 1월, 문공부에서는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김정헌, 신경호, 임옥상, 홍성담, 김경인, 강광을 불온작가로 지목하여 작품을 탈취하고 경고장 및 각서를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 이경성과 오광수가 문공부의 명단작성에 참여했다. 그밖에도 정권의 미술 탄압은 숱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전국 각처에서 미술운동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의 소수 의식 있는 작가의 개인적 차원을 극복하고, 목적의식적인 민족민중미술운동을 지향하였다. 1982년 10월 서울에서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통상 '임술년'으로 약칭)가 창립되어 창립전(서울 덕수미술관, 10.29~11.3)이 개최되었다. 송창, 이종구, 이명복, 황재형, 박승순 전준엽, 천광호 등이 회원으로 '임술년'은 창립취지문에서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현실의 수용과 가치관의 성찰, 그리고 새로운 전통의 모색이 필연'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시대의 노출된 현실이거나 감춰진 진실'을 직시하는 시각을 갖겠다는 작가의식을 명토박이 하였다. 1983년 7월에 '미술동인 두렁'이 창립되었다. 장진영, 오경화, 이기연, 김상민, 김준호 등 창립 회원 대부분이 대학시절 문화운동 및 동일방직, 반도상사, 해태, 원풍모방 등의 노동조합과 연계활동을 한 작가들이었다. 두렁은 '병든 미술에서 산 미술로'라는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삶에 기여하는 미술' 활동을 지향하였다. 같은 해 10월, '미술공동체'가 결성되어, 문영태, 옥봉환, 김봉준, 최민화, 송만규, 홍성담 장진영, 최열 등이 참여하였다. 그밖에도 '땅', '시대정신'. '목판모임 나무', '실천', '표상' 등의 미술소집단이 1983년에 결성되었다. 1984년에는 '지금 우리는', '서울미술공동체', '지금 우리는', '시월의 소리' 등이 창립되었다.

이러한 미술 소집단의 결성은 곧 활발한 동인전의 개최로 이어졌다. 〈제1회 젊은 의식전〉(서울 덕수미술관,1982.3.11.~17.)을 위시하여, 1984년까지 약 150회의 동인전이 개최되었다. 특히 동인전은 주제전이라는 점에서 기존 작가 중심의 전시양태와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미술 소집단은 동인전을 통해서 현실주의 미술론과 민족민중미술운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그밖에도 굵직굵직한 주제전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1981년에 〈현실과 발언 순회전〉(광주 아카데미 미술관, 9.9~15 ; 대구 태백미술관, 9.22~27)을 필두로, 1982년엔, 〈81년 문제 작가 작품전〉(서울 미술관, 1.16~2.12 : 김경인, 김정헌, 심정수, 이청운, 임옥상 외 11인), 〈화가, 조각가 19인 판화전〉(서울 미술관, 12.11~31 : 오윤, 민정기, 홍성담, 안규철 외)이 열렸다. 1983년도에는 〈시대정신전〉(서울 제3미술관, 4.27~5.3: 강요배, 이철수, 최민화, 박재동 외), 〈83인간전〉(서울 아랍미술관, 11.10~16 : 권순철, 박정애, 홍순모 외), 1984년엔, 〈삶의 의미전〉(광주학생회관 3.13~18 ; 이리 동아백화점 : 김상선, 송만규, 홍성민, 박광수 외), 〈거대한 뿌리전〉(서울 한강미술관, 6.30~7.30 : 정복수, 장경호,

158) 2000년 작가회는 신경호, 조진호, 진경우, 최익균, 홍성담, 황재형(후에 박석규, 홍순모 가입)이 참여했다. (조인호, 『남도미술의 숨결』, 다지리, 2001, 208쪽) 한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미술운동』 제6호, 1990.11, 99쪽에서는 〈2000년전〉을 동년 10월로 명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더 이른 시기에 발간된 후자를 근거로 삼았다.

신학철, 김진열 외), 〈해방 40년 역사전〉(광주 아카데미 미술관 8.24~30; 전남대 교정 9.14~16 ; 대구 현대미술관 9.17~23 ; 부산 가톨릭 센타, 11.1~6 ; 마산 이조화랑, 11.15~21 ; 서울 연세대 11.26~28 ; 홍성담, 조진호, 송만규 박광수, ,홍성민, 오윤, 신학철, 강요배, 박석규, 두렁, 토말 등), 1985년엔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서울 아랍미술관, 7.23~22 ; 김경주, 이준석, 장경철, 정희승, 김진수 등)이 열렸다. 특히 〈20대의 힘전)은 당국이 전시장을 봉쇄하고 작품을 압수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가했고, 김준호, 장진영, 손기환, 박불똥, 박진화 등을 즉심에 회부하기도 하였다.

80년대 전반기 미술소집단에 의한 미술운동은 '민중의 삶이 곧 현실' 이라는 작가의식을 확산시켰다. '새로운 미술운동', '민중미술운동의 새로운 전개' '미술의 현실주의 선언' 등으로 1980년대 미술 소집단을 평가하는 이유이다.

2. 광자협 · 시각매체연구회

광자협은 1980년 5월을 창립전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5 · 18항쟁이 일어나자 광자협은 화실을 벗어나 항쟁의 거리로 나섰다. 항상 주머니에 매직을 준비하고 가방 속에는 스프레이를 꼭 소지하면서 이른바 해방구가 설정되면 눈에 보이는 벽마다 온통 벽서작업을 하였다. 플래카드와 스프레이, 더 이상 쓸 물감도, 광목도 없이 모든 재료가 바닥이 나면, 광주 시내를 이 잡듯 뒤집어서 재료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았다.[159] 그러나 당시 광자협은 미국이 신군부에게 압력을 가하여 광주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리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광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모함 '코랄씨' 호를 부산항에 정박하고 신군부 세력들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하여 광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방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여! 우리들이 앞으로 일주일만 더 버틴다면 미국은 광주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160]라고, 시민을 독려하기도 했다.

5 · 18항쟁 이후, 미국에 대한 오판을 깨달은 광자협은, "광주항쟁기간 중 5월 25일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 '코랄씨' 호가 부산항에 정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시민 홍보 대자보를 작성하였다. 나는(홍성담) 그때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제작했던 장본인으로서 그 부끄러움에 치를 떨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이 치욕스러움이 벗겨질 수 있다면, 그 대자보 글씨를 썼던 나의 오른 손목을 싹뚝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161]이라고 토로할 만큼, 미국에 대한 배신감과 정세 판단에 대한 수치심에 시달렸다. 참혹한 피해를 남기고 5 · 18항쟁이 진압되자, 광주는 패배감에 진저리쳤다.

159) 홍성담 · 윤정모 엮음, 『5월에서 통일로』, 청년사, 1990, 122쪽.
160) 홍성담 · 윤정모, 앞 책, 125쪽.
161) 홍성담 · 윤정모, 앞 책, 126쪽.

1980년 7월 20일, 광자협은 남평 드들 강변에서 5월 영령을 위한 진혼굿 형식의 〈야외작품전〉을 열었다. 그리고 광자협 제1창립 선언문 〈미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200여 통을 등사로 인쇄하여 미술계 인사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듬해 12월 13에는 광주 송정리 뒤편 돌산에서 5 · 18항쟁의 영령을 위한 씻김굿 형식의 〈제2회 야회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약 1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였다.[162] 이날, 〈광자협 제2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의 작성에 이영채, 김용채, 강대규, 박광구, 심용식, 최익균, 함병권, 홍성담, 박철수, 김성수, 곽봉연으로 모두 11명이 참여하였다. 제2선언문은, '민중적 문화역량을 일깨우고 그것을 재 표현해야만 한다' 고 주장하며, '민중예술의 기본개념으로 제의와 놀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 신명은 현대 미술이 잃어버린 예술 본래의 것이며, 집단적 신명은 잠재된 우리시대의 문화역량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일과 놀이를 통한 집단적 신명' 을 민중예술론으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들의 작품에는 표현파적인 격렬함과 폭발적인 감정이 분출되고 있었다.

한편, 광자협의 공동 학습은 지속되었다. 학습체계는 1. 예술(미술)론 일반, 2. 한국미술, 3. 사회경제, 4. 제3세계로 체계화되었다. 예술론에선, 싱클레어의 『힘의 예술』 외에 『내 그림에 대하여』(베크만), 『한 그림의 전기』(벤샨), 『복제시대의 예술작품』(벤야민), 『예술가와 양심』(사르트르), 『데미우르고스 시대의 예술』(제들 마이어), 『20세기 예술과 사회배경』(김윤수), 『예술과 소외』(김윤수)를 다루었다. 한국미술에선 『추사미술의 외세주의』(원동석), 『한국추상미술의 반성』(김윤수), 『민족주의 예술의 이념』(원동석), 『미술의 민중적 정서회복』(원동석), 『미술의 사회적 기능』(원동석), 『선전의 잔재와 극복』(박용숙) 『식민지 시대 미학비판』(박용숙), 『한국현대회화사』(김윤수), 『계간미술』, 『미술과 생활』 등을 공부했다. 사회경제에서는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박현채 외), 『한국농업문제의 인식』(이우재 외)을 읽었고, 제3세계론에선 『제3세계의 이해』(박현채 외)를 주 교재로 삼았다. 광자협은 학습 성과를 『한국근대사회미술론』으로 출판하였다.

1980년 11월 홍성담 작품전이 전일미술관에서 열렸고, 당국은 홍성담을 불온작가로 지목하였다. 한편, 1982년 3월 18일, 고신대생 문부식과 김은숙이 부산 미문화원을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는 이들의 주장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6 · 25전쟁 이후 최초의 반미투쟁이자, 5 · 18항쟁의 학살배경으로 미국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광자협의 홍성담이 보안사로 연행되고, 일부 작품이 탈취되었다. 또한 『한국근대사회미술론』 배포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모교수가 당국에 제보하는 작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회원 일부가 탈퇴하면서, 광자협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광자협은, 홍성담, 최열, 박광수, 홍성민, 김상선, 5명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해 7월 제4차 총회를 열어 판화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

162) 이태호,「광주민중항쟁과 미술운동」, 앞 책, 87쪽.

1982년 광자협은 홍성담의 판화를 엮은『판화달력 열두 마당』(한마당)을 출간했다.[163] 홍성담은「장길산」(1983~1984),「동소산 머슴새」(1984),「5월」(1982~1986) 등 연작판화를 통해서 패배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투적 신명을 형상화하였다.「장길산」과 연작판화는 황석영의 소설『장길산』의 삽화로 제작된 90여점의 목판화였다.「동소산 머슴새」는 보성출신의 평민 의병장 안규홍(1879~1909)을 다룬 작품이다. 장길산과 안규홍이란 반봉건 · 반외세 투쟁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오월광주를 환유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후기의 풍속화, 불화, 무속화, 민화 등에서 전통화법 및 도상을 차용한 목판화의 표현 형식을 발전시켰다. 광자협은 판화의 대중성에 주목했다. 판화를 매개로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164] 1983년 3월, 광자협은 '판화운동을 위한 임시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임시협의회에 판화사업과 판화를 매개로 하는 민중교육운동을 준비하였다. 사전준비단계로 먼저, 민족전통미술에 관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둘째, 파울로 프레이리의『민중교육론』을 교재로 민중교육에 관한 소양을 배양했다. 5월에는〈시민미술학교〉라는 명칭을 확정하였다.

광자협은 시민미술학교 개설의 의의에 대하여, "이제는 시인만이 시를 쓰고, 화가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바람직한 예술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 공유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판화는 그 장르의 성격이 반독점적이면서 어린아이들의 표현처럼 순수함을 얻을 수 있는 반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깎고, 파서, 찍어서 자신의 기쁨과 아픔의 체험을 남에게 전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의 즐거움과 창작의 충족감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이 순수한 체험은 오늘과 같은 일그러지고 찢겨진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의 시대에 꼭 필요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대중이 스스로의 메시지를 획득한다는 의미이며, 바야흐로 정직하고 튼튼한 민중예술이 그 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165] 라고 밝혔다. 시인만이 시를 쓰고 화가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주지하듯 판화는 유화나 수묵화보다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 재료이다. 흑백의 간결한 색감과 다량복제가 가능하다는 대중성도 갖추었다.[166] 군사독재와 억압에 맞선 민중의 거센 감성을 표현하는데 붓보다 판화의 날선 칼 맛이 안성맞춤이기도 하였다.[167] 당시 민중미술운동진영에서 판화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 상황이었다. 그러하여 1980년대에 판화의 유행은 가히 선풍적이었다. 대학신문, 팸플릿, 교지, 선전깃발, 달력, 옷, 기념품, 목판글씨체 등 판화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판화는 80년대 문화 아이콘과 같았다.[168] 여기에는 민중미술에 헌신한 젊은 작가들—오윤, 이상국, 김봉준, 홍선웅, 이철수, 홍성담, 김경주 등—의 목판화 작업의 역할이 컸다.[169]

---

163) 최열, 앞 책, 194쪽.
164) 이태호, 앞 책, 90쪽.
165)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시민미술학교의 의의」,『시민판화집:나누어진 빵』, 1986.
166) 이태호, 앞 책, 90쪽.
167) 1980년대 판화작업이 민족형식과 민중투쟁의 도구로서 각광받은 한 이유이다.
168) 이태호, 앞 책, 90~91쪽.

한편, 광자협은 교육장소를 놓고 망설였다고 한다. 광주 YMCA냐 광주가톨릭센터냐 결정이 쉽지 않았던 때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광자협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확인된 종교단체의 역할을 상기하였다. 정권의 탄압을 막는데, YMCA보다 종교기관인 광주가톨릭센터가 유력하다는 판단이었다. 게다가 광주가톨릭센터의 위치가 오월항쟁의 현장인 금남로에 있다는 점에서 금상첨화의 장소가 아닐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월 16일 민주화대성회 때 대학 풍물패를 이끈바 있는 김양래 간사가 큰 기여를 했다.[170]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도 시민미술학교 개설과 운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평은 1976년 5월에 설립되었다. 198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정평은 남동성당(수습대책위)에서 오월항쟁구속자석방,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특별시국미사를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오월항쟁 사형선고자 및 구속자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또한 오월항쟁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다.[171] 1982년부터 1990년까지 5·18관련해직교수들과 재야인사를 초청하여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이후 강좌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172] 1983년의 경우, 정평은 5월에 '어린이미술학교', '시민민속교실'을 개설하였다. 정평은 광자협의 '시민미술학교'를 수용할 태세가 마련되어 있었다. 광자협의 제안을 받은 정평은 '시민미술학교' 업무를 가톨릭센타 사회교육부로 이관하도록 조치하였다.

1983년 8월 8일, 마침내 오월항쟁의 현장인 금남로 옆 광주가톨릭센터에서 광자협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173] 시민미술학교가 개설되었다. 광자협은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비판적 미술운동의 한계와 극복」, 「민중미술의 방법적 모색」등의 시민미술학교 교재를 제작·배포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래 제기된 '미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

광자협은 시민미술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에 미술동아리를 조직하는데 착수하였다. 광자협의 조직 형태는 대학을 졸업한 선배그룹이 재학생인 후배그룹을 지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대학 내에 새로운 미술운동의 근거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1981년 광자협의 후배그룹인 홍성민, 박광수[174]의 주도로 전남대학교에 민화반이 만들어졌다. 1983년에 전남대학교 미술패 '토말'이 결성되었다. 이듬해 조선대에 민화반이 조직되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민화반을 지원하면서, 광자협은 조직을 전환했다. 광자협을 해체하고 소극장 '일과 놀이'에 미술 분과[175]로 참가하였다(1983년). 민중미술운동의 외연확대 및 미술의 대중화에 진력하기 위해서였다.[176] 1983년 10월, 전북지역 미술동인 땅(송만

169) 이태호, 앞 책, 90쪽.

170) 김양래는 1980년 5월 16일 민주화대성회 때 전남대학교 농악패를 이끌고 대학 풍물패의 선두에 서서 시위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1983년 당시 그는 인성회의 간사로 재직 중이었다. 인성회는 1975년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출발한 조직(총재 지학순 주교)으로 긴급구호, 자선활동, 복지사업, 개발활동, 기타 사회운동과 관련된 의식계발 등의 대 사회활동을 전담한 기구였다.

171) 『광주의거자료집』 발간(1985.5), 민족미술협의회의 〈반고문전〉 강연회 개최, 〈5·18사진전〉(1987.5), 5·18 당시 사진자료집, 비디오자료집 〈오월 그날이 오면〉 제작(1987.5) 등.

172) 『민중을 위한 제언』(1984.10), 『해방신학의 이해』(1984.11), 『다산의 생애와 사상』(1986.12)

173) 이영철, 앞 논문, 85쪽.

174) 두 명 모두 당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재학 중이었다.

175) 일과 놀이는 광주민중문화연구회(1984년 12월 결성)의 전신이다(최열, 앞 책, 197쪽)

규), 서울지역 두렁(김봉준, 장진영), 광자협(홍성담, 최열), 옥봉환, 문영태, 최민화, 홍선웅 등 9명의 미술운동가들은 '미술공동체' 모임을 갖고 광자협의 시민미술학교의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하여 서울, 성남, 인천, 전북, 부산, 대구 등에서 판화교실이 속속 개설되었다.

1983년 11월 19일, 광자협은 제5차 총회에서 〈미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제3선언〉을 발표하면서, 광자협 조직은 '일과 놀이'의 시각매체부로 전환하고, 광자협의 명칭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177] 이후 광자협은 일과 놀이의 시각매체부로서, 교육용 슬라이드극 제작, 걸개그림 제작, 벽보 및 전단제작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다. 같은 해 가을에는 시민미술학교의 판화작품을 달력으로 엮은 『삶과 함께』를 출판하였다. 이듬해에는 광주와 전북지역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전〉을 기획하여 송만규, 홍성민, 박광수 등 6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광주와 이리에서 순회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걸개그림 〈민중의 싸움〉(2.4×14m, 김상선, 홍성민, 박광수 공동 제작)이 출품되었다. 9월에는 소극장 꼬두메 개관기념 〈젊은 작가 10인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전국 사업으론 원동석 교수와 함께 〈해방40년 역사전〉을 기획하여, 전국 순회전을 진행하였다.

1985년을 전후로 소집단으로 활동하던 작가들이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하였다. 1984년에 민중문화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이듬해엔 민족미술협의회가 창립되었다.[178]광주에서는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창립되었다. 1984년 4월, 광자협은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에 가담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전주 소극장 녹두골에서 학생미술패와 연합으로 〈전국 미술패 연합수련회〉를 열고, 미술운동론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일과 놀이에서 연행과 미술 외에 문학이 결합한 '광주민중문화연구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후, 12월에 '광주민중문화연구소'(이하 광문연)가 창립되자 광자협은 미술 분과로 전환하였다. 당시 광자협 회원은 홍성담, 백은일, 홍성민, 박광수, 김상선, 강대규, 최열 등이었다. 그리고 민문연 미술 분과에 이준석, 김경주가 새로 참여하였다.

1984년 겨울부터 전국 단위 미술운동 조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광자협 외에 서울미술공동체, 두렁, 현실과 발언, 임술년, 시대정신을 비롯한 각 지역 단체가 참여하면서, 이듬 해 4월에 '미술운동협의체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서울 버드나무 식당)가 결성되었다. 김윤수, 원동석, 성완경, 김정헌, 깅용태, 유홍준, 문영태, 김봉준, 최민화, 홍성담, 송만규, 최열이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마침내 11월 22일에 민족미술협의회(약칭 민미협)가 창립되었다. 대표는 손장섭, 고문에 김윤수 박용숙, 원동석이 선임되었고, 운영위원에 강대철, 강행원, 김정원, 문영태, 박석규, 성완경, 신학철, 여운, 유홍준, 주재환, 황효창, 사무국장에 김용태, 총무에 홍선웅이 선임되었다. 광자협의 최열은 기획간사를 맡았다. 같은 해 7월에 원동석의 저서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이 풀빛출판사에서, 10월에 『민중미술』(공동체)이 출간되면서, 민중미술운동론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권의 탄압은

176) 1984년 12월 '일과 놀이'는 광주민중문화연구회로 개편되었다.
177) 이때 소책자로 제작된 문건으로는「새로운 미술을 위하여」,「비판적 미술운동의 한계와 극복」,「민중미술의 방법적 모색」등이 있다(최열, 앞 책, 197쪽)
178)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미술운동』제3호, 통일염원 45년 5월, 18쪽.

여전했다. 이해 5월 경찰은 홍성담의 판화 〈대동세상〉 2,000점과 김경주와 이준석이 제작한 〈광주항쟁백인신장도〉를 탈취하였다. 7월에 경찰은 서울 아랍미술관에서 개최한 〈한국미술 20대의 힘전〉에 대해 전시장 봉쇄, 작품압수, 작가 연행을 자행했다. 김준호, 장지영, 김우선, 손기환, 장명규, 박불똥, 박영률, 박진화가 연행되었다.

1986년, 광자협은 '전문매체소조'를 표방하며, '광주시각매체연구회'(이하 시매연)로 전환하였다.[179] 회원은 홍성담, 백은일, 정선권, 홍성민, 박광수, 이상호, 전정호, 전상보, 최열이었다. 시매연은 선전활동을 주요한 임무로 규정했다.[180] 창립취지문에서, '민중주체의 운동으로 질적 변환과 확산을 거듭하면서 문화매체에 대한 전투적인식과 더불어 미술패의 강도 높은 기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며, 과감한 몸싸움을 통하여 문화주의를 극복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의 두렁도 '신명'으로 재편하고, 생활미술용품의 개발 및 보급을 전문으로 매체로 전환하였다. 전문매체소조의 개념은, 창작과 선전, 교육활동의 집단주의적 원칙, 전체변혁운동전선에서 부문계열운동조직으로서 시각매체소조의 위상과 성격을 견지한 조직형태를 의미하였다.

이렇듯 소집단에서 연대조직 형태로 재편된 미술운동조직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과 결합하면서 집단창작과 현장작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따라서 현장성이 강하며 민중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판화와 벽화, 걸개그림 등이 선호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작품을 1980년대 초반의 비판적 리얼리즘과 비교하여 민중적 리얼리즘이라 부른다.[181] 시매연의 창립과 활동도 이러한 미술계의 동향과 그 궤를 같이 하였다. 즉, 시매연은 창립취지문에서, '민중주체의 운동으로 질적 변환과 확산을 거듭하면서 문화매체에 대한 전투적인식과 더불어 미술패의 강도 높은 기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며, 과감한 몸싸움을 통하여 문화주의를 극복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시매연은 '전투적 신명론'에 입각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1986년 시매연은 〈작살판〉(2.5×4m)을 제작하여 '광주의 격렬성'으로 찬사와 비난을 함께 받았다. 같은 해에 시매연은 벽화 〈어머님전 살을 빌어〉(2.6×14m), 〈아버님전 뼈를 깎아〉(2.5×3m)를 제작하였다. 1987년에는 4·13호헌철폐미술인 202인 시국선언에 참여하였고, 특히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3×6m, 이상호, 전정호 공동제작)을 출품하면서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통일전 전시중 제주도에서 탈취 당했고, 제작자인 전정호와 이상호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반고문전에 〈아들아 이 땅 어머니는 결코 죽지 않는다〉(2.5×3.5m)를 출품하였다. 1987년 시매연은 무크지 『미술운동』을 출간하였다. 또한 민족민중미술전국연합건설준비위원회 지역집단으로 참여하면

179) 자료에 따라 조직 명칭이 '시각매체연구회'(광주시각매체연구회 편, 『민족해방운동과 미술』, 1990) 혹은, 시각매체연구소(『미술운동』 제6호)로 혼재되어 있다.
180)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미술운동』 제3호, 통일염원 45년 5월, 18~19쪽.
181) 「민중미술 -15년을 다시 본다」, 『월간미술』(1994년 2월호), 75쪽.

서 벽보 선전전을 전개하였다. 1988년, 시매연은 민중지원연대활동으로 장성, 무안, 함평 농민회의 문선대에 참가하였다. 10월에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약칭 민미련 건준위)가 결성되고 12월에 서울 YWCA 강당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결성대회가 열렸다. 공동의장에 고은, 김윤수, 조성국이 선임되었고, 사무국장은 신경림이었다. 시매연은 전주겨레미술연구소, 서울 가는 패와 함께 민예총 결성에 참여하였다. 1989년, 시매연은 민족해방운동사(약칭 민해운사) 걸개그림 〈광주민중항쟁도〉(2.6×7m)를 제작하였다. 4월부터 민미련은 민해운사 전국 순회전을 개최했고, 경찰은 남북미술교류를 제안했다는 혐의로 김정헌 대표를 연행했다. 6월해 한양대에서 전시 중이던 민해운사 걸개그림이 경찰에 의해 훼손되었고, 8월에 안기부는 민미련 사무실에서 홍성담, 이태구, 신동옥, 백은일, 차일환, 정하수, 전승일을 구속하였다. 또한 신학철의 작품 〈모내기〉를 압수하고 작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다. 이듬해 1월, 서울지방법원은 홍성담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3월에 엠네스티는 홍성담을 '고난 받는 세계의 예술가'로 선정하였다.

1991년 시매연은 광주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이하 광주민미련)으로 전환하였고, 이듬해 11월에 광주민미련을 해산하고 4개 소조로 재편하였다. 4개 소조는, 대동그림연구소(이상호), 일과그림연구소(김성중), 현장미술연구소(전정호), 광주민족미술창작회(홍성민)였다. 1993년 전국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이 전주 기독교회관에서 해산되었다. 한편, 소조 재편 이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993년에 제작한 걸개그림으로, 〈혼례도〉(4×2m, 2월), 아시아자동차 노동조합 무대걸개그림 (7×4m, 4월), 광주민중항쟁도(15×8m, 5월), 민족해방운동사 오월광주민중항쟁도 와 민중의 싸움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노문연 기금마련 판화전(3월, 전대후문), 비아농민회 지원 사업(7월, 프랑, 만장 80여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오월판화전작 전시지원(7월, 오스트리아), 고 이경동 열사 분신정국에 따른 영정, 대형그림만장, 프랑 등 선전물 제작(9월), 미술연구 창간호 발행(9월, 광주편집위원 김성중), 동학 100주년 미술전 특위 참여(김성중, 김희상) 등이 진행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한 〈민중미술 15년전〉에 참여했고, 4월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미술전–황토현에서 금남로까지〉(광주시립민속박물관)을 개최하였다. 〈동학농민 100주년 걸개그림전 –녹두밭에 앉지 마라〉(전주 시청 앞 광장, 광주 망월동 묘역, 4~5월), 〈놀이패 신명 무대 걸개그림〉(2×5m, 2종, 8월)을 제작하였다.

1994년 9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지부(약칭 광주민예총)가 창립되자 전 소조원이 미술 분과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듬해 2월 민미협을 '전국민족미술인연합'(약칭 미술연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초대집행부로 의장 김윤수, 상임이사 여운, 사무처장 이종률이 선임되었다. 10월에 김윤수가 기획한 〈해방 50년 역사미술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3. 광주시민미술학교(1983 ~ 1992)

가. 시민미술학교 개설

시민미술학교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개설되었다. 매년 여름·겨울방학기간에 하루 3시간씩 1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 장소는 광주가톨릭센터 1층 강당이었다. 광자협의 선배그룹인 홍성담, 최열, 백은일 등이 전체운영을 조율했고, 실무 강사로서 후배그룹인 홍성민, 박광수 등이 결합했다. 수강생 모집은 순조로웠다. 모집 정원 60명에 평균 40여 명이 수강했다. 수강료는 재료비 정도의 실비 수준이었다. 수강자격은 미술전공자를 제외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었다. 제1기 수강생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생, 현직교사, 회사원, 주부의 순이다. 총 62명이 수료했는데, 15세 미만(2명), 15~19세(5명), 20~24세(34명), 25~29세(12명), 30세 이상(7명), 20대가 가장 많은 46명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19명, 여자 41명이었다.[182]

제1기 수강생의 설문에 따르면, 전체 60명 가운데 42명이 강좌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판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대단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종강 후, 이틀에서 길면 일주일까지 수강생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장 밖까지 줄을 서서 관람할 만큼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183] 이후 시민미술학교는 문영태 · 홍선웅 · 최민화 · 옥봉환 · 백은일 · 홍성담 · 송만규 · 최열 등의 활동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184] 이후 서울명동성당의 청년미술학교, 연세대학교의 시민판화교실을 비롯하여 노동학교나 노동투쟁의 현장까지 판화는 주요한 선전매체가 되었다.

시민미술학교 연혁(1983~1986)

연 번	기 간	수강생(명)	강좌내용	전시기간	장 소
제1기	1983. 8. 8~12	62	판화	8.13~14	가톨릭센타
제2기	1983.12.16~23	27	판화	1984.3.3~11	꼬두메전시실
제3기	1984. 7. 9~16	34	판화	7.18~22	꼬두메전시실
제4기	1985. 1.16~21	26	창작탈만들기	—	꼬두메전시실
제5기	1985. 7.22~30	44	판화	8.16~20	가톨릭미술관
제6기	1986. 1.15~23	44	판화	1.24~27	가톨릭미술관
	계	237			

광자협은 시민미술학교에서 '민중과 연대적 공감대'를[185] 확인하고 '민중주체의 새로운 미술운

182)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25쪽.
183)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184) 홍성담 · 윤정모 엮음, 앞 책 214쪽. 이태호, 앞 책, 273-274쪽.
185) 최열, 앞 책, 198쪽.

동' 을 실현하고자 했다.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자신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 '한 시대를 표현하고 진단하는 튼튼한 놀이프로그램' 으로 시민미술학교를 운영하고자 했다.[186]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표현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건강해진다. 예술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수용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기능이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의 표현이다. 예술 창작의 가능성이 작가와 대중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한 시대의 총체적 삶을 표현한 것이 예술이 될 때 정직하고 튼튼한 민중미술[187]이 형성된다" 는 신념을 견지하였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중의 순수한 체험' [188]이었다.

초기 시민미술학교의 교육내용은 교양강좌와 단순한 판화실기 위주였다. 그러다가 차츰 교양강좌 부분이 축소되고 현장답사와 좌담회, 토론, 촌극 형태의 민중극의 체험과정이 강화되었다.[189]

제1기 시민미술학교 일정표(1983.8.8~8.14)

시 간 / 월 일	10:00~11:00	11:00~13:00
8/8(월)	예술에 나타난 민중의 모습	판화실기
8/9(화)	삶으로서의 예술	
8/10(수)	민화란 무엇인가?	
8/11(목)	새로운 미술을 위하여	
8/12(금)	판화실기 및 토론회	
8/13(토)~8/14(일)	전시회(오전 9:00~오후 6:00)	

186) 「시민미술학교보고서」,1983, 121쪽.
187)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미술이라는 명칭은 민중미술의 별칭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며 일반적 설득력을 위한 개념이다(원동석,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흔겨레, 1986, 230쪽.
188)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23쪽.
189) 『나누어진 빵』, 1983, 46쪽,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연혁은 아쉽게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제6기 시민미술학교 일정표(1986.1.15~1.27)

시 간 / 월 일	내 용
1/15(수)오전10시~1시	오리엔테이션 / 조 편성
1/16(목)오전10시~1시	현장답사
1/17(금)오전10시~1시	답사보고 및 좌담
1/18(토)오전10시~1시	얼굴그리기와 종이탈 만들기/민중극놀이
1/19(일)오후2시~5시	판화제작
1/20(월)오전10시~1시	
1/21(화)오전10시~1시	
1/22(수)오전10시~1시	
1/23(목)오전10시~1시	전시회준비 및 포스터 제작
1/24(금)~1/27(월)	전시회

제1기 시민미술학교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에 나타난 민중', '삶으로서의 예술', '민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다.[190] 강사로 원동석(목포대 교수), 황석영(소설가), 문병란·김준태(시인), 김봉준(화가), 홍선웅(판화가), 최열(화가), 가톨릭 신부 등이 나섰다. 반면에 제6기 시민미술학교에서는 강좌보다 현장 답사 및 토론이 대폭 강화되었다. 현장답사는 소외지역 – 불구폐질환 수용소, 음성나환자촌, 양로원, 탄광, 시장터, 농촌현장,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사 후에는 서로 의견을 교류하며 작품구상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의도가 있었다. (1)예술창작을 통한 실천적 인식능력의 함양[191] (2)시민의 정치적 각성[192] (3)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의식교육[193] 등이다.

시민미술학교는 작품구상부터 토론, 완성 및 전시에 이르기까지 수강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지도강사들은 보조적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주지되었다.[194] 이처럼 1980년대 지식인들은 스스로

190) 수강생에게 제시한 판화의 소재목록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인다. 판화그림이 될 만한 소재 1) 구전 민담, 속담, 민요 2) 시·소설 3) 실제 체험 4)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생활풍경 5) 시사물 6) 소망사항(「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25쪽)

191) 『나누어진 빵』, 1986, 32쪽.

192) 최열, 앞 책, 194쪽.

193)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 책, 211쪽.

194) 『나누어진 빵』, 1986, 32쪽. 이것이 시민미술학교가 민중미술운동의 모범으로 평가된 이유였다. 민중미술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이태호, 『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1991 ;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1 ; 민족미술협의회 편,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도서출판 혼겨레, 1988 ; 손장섭·김정헌 엮음,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혼겨레, 1986 ; 현실과 발언2 편집위원회, 『민중미술을 향하여』, 과학과 사상, 1990 ;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 ; 최민·성완경 편, 『시각과 언어 1』, 열화당, 1982 ; 시대정신기획위원회 편, 『시대정신』 1, 일과 놀이, 1982 ; 민중미술편집위원회 편, 『민중미술』, 공동체, 1985 ; 유홍준, 『80년대 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열화당, 1987 ; 만화와 시대 동인 편, 『만화와 시대』, 공동체, 1987 ; 시각매체연구소 편, 『미술운동』 1, 공동체, 1988 ; 배종민, 「5월 미술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지식인' 임을 부인하려고 했다.[195] 오히려 그들은 농민·노동자의 일원이기를 원했다. 많은 지식인들이 학력을 감추고 이른바 '현장' 에 위장 취업하여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에 헌신하였다. 사정은 시민미술학교를 비롯한 민족민중미술운동에 복무한 작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민중주도의 교육방침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80년대 비판적 지식인 운동과 동일한 지평에 서 있었다. 대중보다 높은 곳에 군림하는 예술가를 거부하고자 했으며, 그 대신에 민중의 일터와 삶터에서 더불어 함께하기를 희망했다. 작가와 시민, 작품과 현실이 별개의 무엇이 아니길 추구했다. 현실 속에 작품이 있었고, 작품 속에 현실이 보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교육활동에 처음부터 능동적이지는 않았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판화를 교육매체로 수강생에게 제시했지만, 예술이란 낯설고 어렵다는 인상을 선뜻 불식하진 못했다. 수강생들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조각도를 사용하는 법, 막상 완성된 작품이 애초 의도와 전혀 달라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196] 강사들은 그들의 서툰 기량은 전혀 흠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작가들의 상투성이 문제라고 수강생들을 독려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수강생들은 조별 소그룹 단위로 토론과 좌담에 의해서 자기가 그려야 할 판화소재를 발견하는 교육과정을 거쳤다.[197]

이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초청강사가 발제를 한다. 강사로는 원동석, 황석영, 김준태, 김봉준, 홍선웅, 가톨릭 신부 등이 나섰다. 민중미술이론가, 소설가, 시인, 화가, 종교인 들이다. 강좌의 단골 주제는 민중의 삶과 노동에 관한 이야기였다. 강연이 끝나면 수강생들은 강사의 발제를 話頭삼아 상호토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발제에 '서사' 가 생기기 시작한다. 강사는 이 토론과정을 유심히 살핀 후, 유사한 서사를 갖는 수강생끼리 분임조를 편성하여, 작품제작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러한 시민미술학교의 교육방식—발제, 상호토론, 분임조 창작—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역동적 시각에서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고, 작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단히 사회적 관계와의 접합을 이루며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198] 수강생들은 상호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활기를 띠었다.[199]

예컨대 〈복부인 얼굴그리기〉 과정의 토론은 이러했다.[200] 먼저, 6명씩 그룹을 편성해서 상호소개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얼굴을 선정하여 그 얼굴의 성격이나

---

5 · 18연구소, 2005

195)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했다(고병권, 「한국사회에서 지식인의 죽음을 예감하다」, 『문학들』 8, 2007, 34~36쪽.

196) 이 점은 본문에서 언급한 탈놀이 공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간 농촌 총각을 만들면서 고심하며 이마는 튀어나오고, 눈 주위는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는 좀 돌출시키고, 입은 처지게, 눈과 눈 사이에 잔주름을 넣어 실의에 잠긴, 그러나 순박한 모습을 내고 싶었다. 그런데 노총각이 너무 과장되었는지 할머니처럼 보여 무척 속이 상한다." (「공방보고서」, 142쪽)

197) 『나누어진 빵』, 32쪽.

198) 『나누어진 빵』, 32쪽.

199)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들은 여럿이 모여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도 공동으로 토론도 하고 모자라는 점은 같이 보완해서 그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판화작업은 공동 작업이 되어야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는 작업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36~137쪽)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린 얼굴을 보고 지적하고 수정한 탓인지 '정말 그렇구나' 할 만큼 잘 표현된 것 같다." (「공방보고서」, 141쪽)

200)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23~124쪽.

신분 같은 것을 토의하여 그 얼굴이 갖는 특징을 극대화한다. 셋째, 각 그룹별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생각이 다른 점을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 복부인의 얼굴이 추출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복부인에 대한 파면적인 인상이 상호토론과정을 거쳐 서사를 형성하고 당대 복부인의 전형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리, 술집아가씨, 사장님, 지게꾼, 어머니, 농부 등의 소재도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다루어졌다. 토론교육의 성과는 강사도 놀랄 만큼 성공적이었다.[201]

〈탈 만들기 공방〉에도 토론 교육이 적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84년 1월 8일부터 6일 동안 광주에서 진행된 대중미술교육이다. 참가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으로, 각 3조로 묶어 활동했다. 광주라는 공간, 시기, 참여자, 교육일정 및 방법에서 시민미술학교와 다를 바 없다. 무슨 탈을 만들 것인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교회에 다니는 한 참가자는, 다른 조에서 위선과 탐욕의 상징으로 목사의 얼굴을 구상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은 상호토론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고통이고 충격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202]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무엇이 기억할 만한 것' 이며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는지' 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무엇이 기억할만한 것' 인지 서로 공유하는 까닭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03] 특히 집단기억의 형성에서, "미술, 조각 등 이미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며 진실처럼 보임으로 전수에 효과적이며, 스토리와 결부될 때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미지는 집단에서 의미가 있어야하므로 단순명료할 때 사회적으로 전수되는 경향이



땜질하는 아저씨/ 김희중



광부 / 송미영



지게 위에서/ 박은아

201) "우리도 놀랄 만큼 리얼한 이야기가 툭툭 나오고, 이미지도 명료했어요." (홍성민 (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202)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한 일 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실, 농민의 고민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웃에 애정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지요(「공방보고서」, p. 153)."

203) 알박스의 견해이다(권귀숙, 앞 책, 35쪽)

있다" 고 한다.[204] 그런 맥락에서, 시민미술학교의 얼굴그리기–복부인의 초상, 탐욕스런 목사의 탈 등–는 개인적 상상의 산물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에게 내면화된 이미지이고,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고 전수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시대의 초상이었다.

한편, 시민미술학교에서는 수강생에게 창작활동에서 '정직성' 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정직성' 의 개념은 '대중의 순수한 체험',[205] '삶의 진솔한 표현',[206] '생활현장의 사실성' [207] 등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즉, 작품의 완성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고 단순하게 자기 목소리를 냄' 으로써[208] '날카로운 리얼리티와 강렬한 주제의식' [209]을 드러내라는 수강생에 대한 주최 측의 격려였다. 이러한 시민미술학교의 태도는 '새로운 미술',[210] '산 그림',[211] '삶의 미술' [212]로 표현되던 민중미술운동론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막상 수강생들은 '정직성' 을 요구받고 무척 힘들어했다. 수강생들은 '정직성' 을 요구받고 '자신이 무참히 깨진 느낌' 을 받았으며, 판화제작과정이 '훨씬 절실하게 자신의 껍질을 벗는 것 같아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토로했다.

주최 측에서 의도한 '정직성' 이란, '작품의 완성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표현하고,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 작품 주제를 찾는 것이 좋겠다' 는 정도였을 것인데도, 시민은 '완성도나 주제의 문제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자아성찰의 과정으로 '정직성' 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이 자기합리화에 불과했다 '라는 뼈아픈 고백을 하였다. 시민에겐 판화작업이 고백이자 재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어떤 시민은 수강 소감문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은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서로 침묵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다. 오월항쟁 이후 광주 시민은 '여러 사정' 으로 침묵했다. 그래서 '유언비어' 가 난무한 세상이 되었다. '유언비어' 는 그냥 시민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이었다. 그러므로 시민의 침묵은 강요된 침묵이었는데, 판화작업을 통해 그 침묵을 깨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말하고 싶었던가를 새삼 깨달아갔다. 그래서 어떤 시민은 판화 수업이, '고통스러우면서 동시에 즐거운 일'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그들의 침묵은 '판화창작' 이라는 '문화적 재현' 방식으로 활로를 열어갔다.[213]

1980년대 전반, 신군부 정권은 오월항쟁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거부했다.[214] 오월항쟁에 관하

---

204) 신문화사가 Peter Burke의 견해이다. (권귀숙, 앞 책, 114쪽)
205)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23쪽.
206)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 책, 211~212쪽.
207) 유홍준, 「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의 이념과 형식」, 『한국현대미술의 반성』, 흔겨레, 1988, 214~215쪽.
208) 정지창, 앞 논문, 165쪽.
209) 원동석, 「민중미술의 논리와 전망」, 『시대상황과 미술의 논리』, 흔겨레, 1986, 230~231쪽.
210) 홍희담 · 윤정모 엮음, 앞 책, 210쪽.
211) 홍희담 · 윤정모 엮음, 앞 책, 216쪽.
212) 유홍준, 앞 논문, 204~205쪽.
213) 문화적 재현물은 한편으로는 비극적으로 좌절된 항쟁에 대한 애도와 추모,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된 진실의 폭로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나간채, 「서장 : 문화운동 연구를 위하여」,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19쪽



아 무등산이여/ 작자미상



소문의 시작/ 김정아



시대 '80을 겪는 남자/ 정진

여 일체의 침묵이 강요되었다. 강제된 침묵의 장벽은 높고도 삼엄했다. 피해자들은 권력에 위협을 느껴 증언행위를 망설이기도 하였다. 억압과 동시에 회유도 있었다. 1983년 정부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이장비용을 제시하며 망월묘역의 이장을 획책하였다.[215] 오월항쟁에 대한 '기억의 거소'로서 망월묘역이 자리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정권의 행위는, 오월항쟁이 기억되는 한, 자신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초조와 두려움에서 연유한 것이다.[216] 그러나 자의이든 타의이든 억압된 기억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217] 특히 국가에 의한 대량학살과 같은 공동체의 비극은 끊임없이 재 경험된다. 따라서 정치적 억압에 맞선 기억투쟁은 단지 과거의 사실에 국한되거나 현재의 시간에 머물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억압이 내적통제로 전환될 때 미래의 상상력이 말살되고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미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여기에 대한 저항은 미래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을 오월항쟁에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1기 시민미술학교 전시회는 호응이 대단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전시장 밖까지 줄을 서며 관람할 정도였다.[218] 시민들은 '수강생의 작품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챘으며', '아! 그림도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며 자신을 환기하기도 하였다. 광주시민은 오월항쟁을 동학농민전쟁, 4·19혁명의 역사적 지평에서 형상화한 작품을 보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서는 민중의 오월항쟁을 떠올렸다. 이러한 시민의 반응은 작품의 완성도가 아닌 주제에 대한 공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람행위는 가치중립적인 경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잊

214) 나간채, 「오월항쟁의 기억과 증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15쪽.
215) 린다 루이스, 앞 논문, 201쪽.
216) 민중미술운동에 대한 정권의 폭압적 탄압— '현실과 발언 창립전'(1980), '1985년, 20대의 힘전'(1985)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217) 권귀숙, 앞 책, 20쪽. 특히 대량학살처럼 국가가 침묵을 강요한 사건일 경우 국가가 표방한 공식 역사 이외에는 말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으므로 기억한다는 자체가 공포가 된다. 이 경우 자발적인 망각현상이 병행되면서 기억의 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고통스러운 과거는 사적인 기억으로 채워진다고 한다(권귀숙, 앞 책, 21쪽.).
218)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었거나 지우고 싶던 오월의 기억을 되새기고 동참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1980년대 전반에 오월항쟁에 대한 정권의 공식기억은 '폭도들이 일으킨 불온한 광주사태' 였다. 억압과 회유, 고립과 왜곡이 횡행했다. 희생자 가족에게는 '산다는 것이 죽는 것만도 못한' [219] 시절이었다. 따라서 오월항쟁에 대한 공식기억의 강요는 곧 광주를 재 희생하는 일이었으며, 그 고통은 처음 희생되었을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광주시민에게 안겨주었다.[220]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가슴에 가득히 맺혔지만 억압 때문에 말할 수 없던 이야기였으며, '그 날 새벽' 에 살아남은 자의 좌절감과 부채의식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항쟁의 현장 금남로 가톨릭센터 전시실에서 판화작품을 보면서 공감하고 감탄하면서, 오월항쟁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상기했던 것이다.



껍데기는 가라/ 송미영

시민은 혼자일 때, 그는 '익명의 개인' [221]에 불과하다. 혼자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시민이 나약할 때, 오월항쟁에 대한 공식기억은 횡행한다. 오월항쟁의 트라우마가 시민을 할퀴는 시절이었다. 항쟁의 기억은 시민의 심층의식으로 가라앉고 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다가올 미래가 광주와 멀어지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과 진정성을 품고 있었다. 그들에게 미래는 광주와 동일시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월항쟁의 심층기억을 공유하고 환기하며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익명의 개인' 에서 다시 시민으로 자신을 소환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수강생들은 시민판화교실을 통해 자신에게도 새삼 표현욕구가 강하고 그림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 다른 수강생은 공동실기 작업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모자라는 점은 같이 보완할 때 판화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222] 이것은 '민중의 잠재적인 상상력과 표현력을 풀어낸 획기적 사건' ,[223] '민중미술의 지향성을 미술실천활동을 통해 입증해보인 것' [224] 등으로 시민미술학교를 평가한 기왕의 연구 성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위의 자료를 통해 시민미술학교의 조별교육방식의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탈 놀이공방〉에 참여하면서, 특히 공동학습이 친밀감과 연대감, 집단적 신명을 북돋았고 여기에 고무되어 끝까지 교

219) 김중원, 「5·18부상자의 정신질환 진료실태」, 『치유되지 않은 5월』, 다해, 2000, 192~193쪽.
220) 변주나, 앞 논문,138쪽(오월항쟁 이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트라우마)에 관해서는 변주나의 같은 논문 참고)
221) '순수한 체험은 오늘날 같은 일그러지고 찢겨진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 의 시대에 꼭 필요한 체험이다(「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23쪽)
222)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36~137쪽.
223) 정지창, 앞 논문, 65쪽.
224) 이영철, 앞 논문, 85쪽.

육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 시민은 회고했다. 또 다른 수강생은 공동 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225] 모두 시민미술학교 수강생들이 "공동실기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 의외로 굉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평가[226]와 부합한다.

결국 시민미술학교는 '침묵하는 익명의 개인'에서 '말하는 시민'으로 전환되는 장이었다고 생각된다. "목말랐던 시민과 흔들리던 작가들이 만나서 끊임없이 교감을 나누던"[227] 역사적 공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곳에서 판화를 새기는 일은, 단지 침묵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고백함으로써 서로를 치유하고, 이웃과의 일체감과 집단적 신명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작가들은 시민의 손을 통해 발언할 수 있게 되었고,[228] 시민들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었다.[229] 시민미술학교는 '기존미술에서 볼 수 없는 날카로운 리얼리티와 강렬한 주제의식',[230] "자본주의의 상업적 논리가 만들어낸 '방법'과 '형식'에 흠뻑 취해 타성화 되어버린 전문작가의 작품보다 훨씬 신선하고 진솔한 표현"[231]으로 오월항쟁의 기억을 생생한 이미지로 구체화하였다.[232]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들은 민중의 현실에 마주서고자 했다. 농민, 노동자, 도시서민, 걸인, 광인, 불구자, 노인 등 민중의 삶을 새겨나갔다. 그것은 시대의 어두운 이면과 접속하는 행위였다. 공동체의 빈한하고 고립된 삶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은 서로를 수용할 수 있었다. 완성된 판화작품은 일반시민들에게 전시되었다. 금남로의 전시장을 찾은 광주시민들은, 판화에 새겨진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 저변에 스민 오월항쟁의 상흔을 되새겼다. 그럼으로 시민미술학교는 오월항쟁이후 말하지 못한 진실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오월항쟁의 좌절감을 치유하고 부채의식을 갚는 자기화해의 장이었다. 오월항쟁에 대한 정권의 왜곡되고 부당한 공식기억이 횡행하던 80년대 전반에서 그것은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문화적 재현을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광주가 부활하는 순간, 오월항쟁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일수가 없었다. 광주시민미술학교는 오월항쟁의 대항기억이 형성되는 문화적 자양분이었다.

시민미술학교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3년 10월에 결성된 미술공동체(1983~1984)는

---

225) 「공방보고서」, 153쪽.

226) 『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31쪽. 여기에는 작가들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강생의 작품제작에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쳤지만, 토론과정에는 대등하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227)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9.11. 인터뷰.)

228) 이번 미술학교에서 그린 농부들의 얼굴이라든가 공장근로자들의 얼굴들이 기존 화가들의 리얼리티를 훨씬 뛰어 넘고 있습니다. … 우리 스스로가 이렇듯 생활주변의 것들을 밀도 있게 표현해서 나누어 가지면 대부분 꿈속에 젖어 있는 화가들에게도 경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시민미술학교보고서」, 1983, 132~138쪽.).

229) 그런 의미에서 시민미술학교 최고의 수혜자는 시민이라기보다 작가일 수도 있다.

230) 원동석, 앞 논문, 230~231쪽.

231) 홍희담·윤정모 엮음, 앞 책, 211~212쪽.

232) 기억은 과거사의 자동적인 재생물이 아니라, 마치 방아쇠와도 같은 구실을 하는 외적 자극에 의해 되살려지는 것이다(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573쪽.)

시민미술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였다.[233] 미술공동체에는 광자협과 두렁, 땅 동인 및 홍성담, 김봉준, 장진영, 송만규, 문영태, 홍선웅, 최민화, 최열, 옥봉환 등 9명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하였다.[234] 여기에서 판화운동의 확대가 결의되었다. 1983년 목포, 전주, 이리를 거쳐, 이듬해에는 서울명동성당 청년미술학교, 연세대학교시민판화교실, 성남YMCA시민판화학교, 애오개민속미술학교[235] 등 종교계, 대학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노동투쟁의 현장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형태의 미술학교가 개설되었다. 또한 시민미술학교 수강생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유사한 판화교실을 개설하고 스스로 강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늘어갔다. 이것은 시민미술학교라는 문화적 공동체험을 통해 오월항쟁에 대한 대항기억이 전국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였다. 과거는 사실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거나 되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토대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나. 시민미술학교에 투영된 5·18항쟁의 기억

1986년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는 그동안 제작된 시민미술학교 수강생의 판화작품 500여 점 중에서 중복 작품을 제외한 220점을 선별해서 『시민판화집』을 펴냈다. 판화 외에도 논고와 시민미술학교보고서가 첨부된, 시민미술학교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 성격의 출판이었다. 먼저 논고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 사목교서' (이하 사목교서,1985)와 함께 문병란(당시 시인)·원동석(당시 미술평론가)의 민중미술관련 논문을 게재하였다. 시민미술학교보고서는 홍성담이 집필했는데 경과보고와 함께 수강생의 창작후기를 부기하였다. 다음으로 시민판화는 주제에 따라 총5부로 구성했는데, 편집과정에서 각 부의 표지부분에 노동현장을 비롯한 인권 및 사회사목을 발췌하여 삽입하였다.

사목교서에서 다룬 주제는 '우리 사회의 인간화' 였다. 사목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인간에 앞설 수 없다' 라고 천명하고,[236] '사회의 인간화' 에 필수적인 13가지의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였다.[237]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연유되고 위임된 것이기에 기계적이거나 폭군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서 전 국민의 공동선에로 향해주는 권력이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교회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농어민들이 사회와 국가의 경제기획

---

233) 최열, 앞 책, 95쪽.

234) 최열, 앞 책, 208쪽. (이하 미술공동체에 대한 설명은 최열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235) '두렁' 의 '애오개민속미술학교' 는 '개방적인 공동작업과 민중과의 협동적 관계' 를 대안으로 제기하고 판화, 민화, 불화의 전통민족미술에서 서구미술을 극복하고 민중적 사실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두렁, 앞 논문 ; 최열, 앞 책, 202쪽에서 재인용).

236) 첫째,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목적도 인간이다. 둘째, 소외된 사람들의 정당한 주장과 활동이 묵살 또는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형평과 사회정의의 원칙에 합당하게 정책의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237) (1) 개발활동과 소외 (2) 인간과 노동 (3) 노동의 보수와 농산물 가격 (4) 자기 발전의 권리 (5) 노동조건 (6) 인간화의 요구 (7)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8) 임금과 실업문제 (9) 산업재해와 공해 (10)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11) 농업일반 (12) 법과 그 운용 (13) 생존권의 보장.

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깊은 이해를 가져야한다" 라고 당부했다.[238]

문병란과 원동석의 논문주제는 민족민중미술운동론이었다. 문병란은 봉건잔재와 식민지문화 청산의 역사적 맥락에서 민중미술의 당위 및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의 논지에 의하면, 민중미술의 등장은 시대적 요청이며, 미술은 민중에 의해 민중을 표현하여 민중과 함께 하는 삶의 예술이어야 마땅했다. 원동석 역시 "민중은 생동하는 실체이며, 민중문화운동의 확산은 필연적이고, 민중미술은 삶의 총체적 표현으로서의 미술이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민중그림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 시민미술학교에 대해서, "주체적 표현력의 배양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출발이며 반복적 진행과정을 통하여 民畵와 접속함으로써 미학적 논거를 확보할 것" 을 제안했다.

사목교서는 1985년 7월 5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작성되었다. 원동석의 논고도 시민미술학교 강좌내용을 토대로 발표된 원고를 재수록 한 것이다. 즉, 사목교서 및 원동석의 논고는『시민판화집』을 위해 작성된 글은 아니었다. 그렇다면『시민판화집』에 판화작품만을 싣지 않고 농민과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와 교회의 관심을 촉구한 사목교서 및 민중과 함께 하는 삶의 예술을 주장한 민족민중미술운동론을 함께 수록한 것은, 주최인 시민미술학교와 정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해서『시민판화집』의 편집자는 이 책이 단지 작품도록이 아닌 당대의 사회현실을 투영한 시대적 표상으로서 읽혀지기를 의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사회현실의 투영으로서『시민판화집』을 상정할 수 있게 했을까? 우선 사목교사나 민중미술논문에서 그 이유를 찾기란 곤란할 것 같다. 만약 그랬다면 기획 논고를 더 많이 수록했을 터인데, 정작『시민판화집』에서 논고의 비중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시민미술학교에 관한 별도의 서술을 유보한 보고서의 형식을 취한 이유도 특정한 견해가 시민판화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시민판화집』에 수록된 작품은 220점으로, 83년부터 생산된 500여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내용이 중복된 작품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선별과정에서 작품의 완성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럼으로 이 책을 일반적인 기획전시의 경우에 비견해서 편집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작품을 선별 · 편집한 기획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1983년부터 86년까지 생산된 작품들 속에 공통적으로 사회현실이 투영되어 있었고, 책으로 펴내는 과정에서 작품을 유사한 주제끼리 엮은 정도로 이해하는 쪽이 옳을 것이다.

시민판화집에 수록된 판화작품은 총 5부로 구성되었다 (표 1). 이것을 주제별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농민의 삶, 빈곤, 이농: 20점 (2) 노동자의 노동, 빈곤, 소외, 저항: 19점 (3) 도시서민의 일상과 소외, 삶터: 36점 (4) 사회비판: 42점 (5))민중적 · 비판적 民譚과 설화, 판소리, 추억: 41점 (6)

238) 사목교서는 특히 '노동자와 농어민 등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 을 강조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종속관계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험 없이 조합 활동에 참여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고 요구했다.

종교: 23점 (7) 오월항쟁: 23점 (8) 민주 · 통일 · 여성 · 미국: 13점 (9) 매스미디어 : 3점이다.

시민판화집『나누어진 빵』수록 작품 일람

부	제목	작품(점)	주제
1	노동하는 얼굴, 아름다워라	34	노동자, 농부, 일용노동자, 지게꾼, 미장공, 배관공, 버스 안내양, 땜장이, 광부, 노점상, 장애인' 의 고된 노동과 피로, 빈곤, 소외, 자살. 체념, 저항, 관제언론
2	삶, 더불어 함께 사는 것	62	소시민, 가족, 부부, 노인,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반, 악덕의사, 구두수선공, 맹인악사, 걸인, 어린이, 정신병자, 달동네, 아파트, 갱생원, 말바우 시장, 만취(오월항쟁기억), 세월, 동료애, 무관심, 입시, 소외, 무더위, 행복, 고향, 말바우 시장, 약속, 고민, 진실, 매스미디어
3	에루야 에루 얼싸	39	조각난 미소, 민담, 설화, 풍속화, 추억, 판소리
4	말씀이 내 몸 안으로	19	성신강림, 고난의 예수, 기도, 성탄, 소록도, 정의, 영혼, 구원, 축복, 증인, 자유, 희망, 갱생원, 소문
5	역사의 부름 속에서	66	오월항쟁, 망월묘역, 유가족, 아픔, 귀향, 죽음,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시위, 휴전선, 독방, 외침, 언론통제, 송기숙 교수, 운명, 절규, 미국인, 통일운동, 억압, 민주, 4 · 19혁명, 고백, 소외, 달동네, 여성, 탈춤,
계		220	

이와 같이『시민판화집』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노동, 일상, 소외, 빈곤에 대한 민중적 공감과 사회적 비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월항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쟁을 직접 다룬 작품은 23점에 그치고 있다. 그 비율이 전체 220점에서 10%쯤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작품들이 오월항쟁과 결코 무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다만 80년대 전반의 정치 · 사회적 억압 때문에 오월항쟁의 기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이 오월항쟁을 직접적으로 다룬 예술작품이 억압이 다소 느슨해지는 1985년 이후에 비로소 등장했던 이유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민판화집의 작품 속에는 오월항쟁을 겪은 80년대 전반기 광주시민의 정서가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왜소했으며, 모두가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 시민들은 농민의 고단한 삶, 도시서민의 일상, 민담, 종교 등의 주제를 판화로 새기면서 오월항쟁의 기억을 소환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1) 농민의 체념과 분노

1980년대에 농민의 삶을 극명하게 표현한 작가로는 임옥상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의 「보리밭 1 · 2」는 수확을 앞둔 보리밭에 농민의 모습을 강렬하게 대비시킴으로써, 분노하고 좌절하는 농민의 모습을 생생하게 형상화했다 시민판화집에서도 농민의 초상은 우울하다. 끝없는 노동, 대를 잇는 빈곤의 삶이다. 농민의 노동은 끝이 없어 보인다. 논은 척박하고, 잡초는 불처럼 일어선다. 삽 한 자루 하나 쥐고 온 몸으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 고개는 꺾이고, 어깨는 처지고, 다리는 휘청거린다. 가혹한 노동으로 점철된 삶, 바로 농민의 일생이다.[239]

시민은 낫을 든 농부를 등장시켜, "농부는 과연 천하지대본인가?" 라며 묻고 있다. 마치 사찰의 仁王처럼 농민은 투쟁의 띠를 머리에 두르고 오른손엔 낫을, 왼손은 힘껏 주먹을 쥔 채, 우리가 과연 세상의 주인이냐고 묻고 있다. 조각칼의 빠르고 힘찬 새김은 농민의 분노를 한껏 고조시킨다. 이처럼 시민에게 농민의 일생은 수탈과 투쟁의 갈래 속에 끊임없이 동요하는 삶이었다.[240] 그는 창작후기에서, "끊임없이 수탈과 착취에 고통 받은 농민들, 천한 농민의 아픔으로 이 작은 한반도를 흔들어 참된 삶을 살라보자. 파고, 깎고, 자르고, 찍고, 묻히는 작업들. 이 모든 작업들과 만남이 이 어둠을 밝히리라" 라고 말했다. 농민의 모습을 판화에 표현한 이유가 명확하다. 즉, 농민의 고통과 울분, 지난한 삶을 기억하고자 농민의 모습을 판화로 거칠게 새긴 것이다.

농민에게 고된 노동보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가혹한 노동과 빈곤이 자식 대까지 이어진다는 현실이다. 농번기에 학교 대신에 농사일을 돕는 일은 농촌에선 흔한 풍경이었다. 농촌 아이들의 학교성적이 도시 아이보다 좋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족 모두가 덤벼들어도 감당키 어려운 농사일은, 자녀들의 학습결손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어찌 농촌 아이의 게으름 탓이겠는가? 더욱이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도시의 공장으로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시 공장으로 떠나는 누이의 모습은 1970년대의 우리 농촌의 자화상과 같다.[241] 동구 밖까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배웅을 나오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데,[242] 손을 흔드는 가족을 뒤로 한 채 도시로 떠나는 누이의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그 누이는 도시의 공단에서

---

239) "그랬단마시. 나는 우리 일을 얼마나 한 줄 안가? 젊은께 그라제만 놈의 일 끝내고 저녁 묵고 집에 온께 밤도 깊었제. 그란디 달이 높이 있데.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어. 그란께 등잔에다 불 쓰고 밖에서 일할라면 호야등에다 불 썼어. 기름 값도 무지하니 비싸고, 그란께 달밤에 일을 많이 했어. 달밤에." (윤기현, 「내 땅을 딛고 서서」, 『일과 놀이』 1, (도서출판 일과 놀이, 1983), 23쪽. 인용된 글은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평생을 농사일만 해온 분의 이야기를 채록한 것이다)

240) 이태호, 「1980년대 민중미술에 나타난 농촌의 현실, 농민의 모습」, 『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1991, 62쪽).

241) "내가 태어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시 돌고개이며 나는 1남 5녀 중 막내다. 가난 때문에 학교진학도 포기한 채 가시밭 속에 몸을 담아온 지 벌써 7년째이다." (정미란, 「사랑이 메마른 사회」, 앞 책, 74쪽, 금속노동자)

242) '아비(父)' 부재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한다. 즉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문학 등에서 비극적 정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정명중, 「 '5월' 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 소설의 경우」,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274 ~278쪽).

공순이라 불리는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서, 공장의 불빛아래 시들어가거나, 혹은 버스 안내양이 되어, '오라이!' 를 힘겹게 외치던 것이, 1970 · 80년대 농촌의 현실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시의 공장으로 떠난 '누이' 는 '아비 부재' 와 함께 우리 근대화의 외면된 이면이다.[243] 일반적으로 '누이의 수난' 은 오월항쟁을 다룬 소설에서도 재현되거니와, 민중들의 고통을 한층 극대화하는 맥락을 지녔다.

그러나 세상은 농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언론은 농민의 고난에 눈감고, 오히려 왜곡된 농촌 상을 퍼트렸다. 농민은 소를 지키기 위해 쇠스랑과 도끼를 쳐들며 저항하기도 했다. 시민 작가는 농민의 저항에서 '폐부 속의 찌꺼기를 뿜어내는 강인한 생명력' 을 느꼈다.[244] "끊임없이 수탈과 착취에 고통 받은 농민의 형상을 판화에 새기면서 농촌의 현실에 공감했고, 자신의 판화제작이 어둠을 밝히는 작업" 이기를 소망했다.[245] 한 시민은 농민의 분노를 판화에 새기면서 오월항쟁을 떠올렸다.[246] 낫을 든 농민의 모습에서 후백제의 유민으로부터 동학과 4 · 19혁명, 오월항쟁을 연상한 시민도 있었다.[247] 판화작업을 통해, 농민의 고난을 저항의 역사적 지평위에 올려놓고, 오월항쟁의 기억을 접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농민의 분노와 저항은 체념과 상통했다. 하릴없이 소 값은 폭락하고, 어린 아들은 수업시간에 밭에서 고추를 따고, 딸은 도시로 떠나고, 뒤엎은 배추밭에 기약 없는



시공을 초월한 노동/정선화



농부는 과연 천하지대본인가/윤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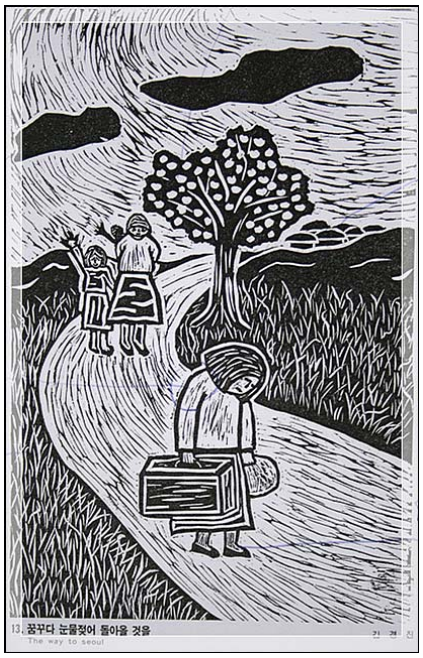
243) 정명중, 앞의 논문, 278~281쪽; 권귀숙, 앞의 책, 222쪽.

244) "삶! 강인한 생명력을 느낀다. 긴 한숨에 폐부 속의 찌꺼기를 뿜어낸다(『시민판화집』 창작후기)."

245) "끊임없이 수탈과 착취에 고통 받은 농민들, 천만 농민의 아픔으로 이 작은 한반도를 흔들어 참된 삶을 살라보자. 파고, 깎고, 자르고, 찍고, 묻히는 작업들 이 모든 작업들과 만남이 이 어둠을 밝히리라(「농부는 과연 천하지대본인가」 창작후기)."

246)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넣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몸부림치는가. 갖가지 허상이 우리를 혼돈 시키고 실상은 이제 그림자 속에 묻혔구나.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했거늘, 이 땅에 향그러운 흙냄새만 남으라 했거늘 … 무등의 갈맷빛 이 더욱 짙어가는 이 때 우리는 빛고을의 한 가운데 모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운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 시대의 아픔을 새겨냈다 (『시민판화집』 창작후기, 46쪽)."

247) "동학년의 의분에 떨었던 우리의 조상이래도 좋고 후백제의 유민으로 굽혀지지 않는 허리를 가졌던 선조나 아니면 노비의 손에 들린 무딘 낫이래도 좋다. 그것도 아니라면 1960년에 진달래처럼 피어오른 의기에 피맺힌 힘일 것이고 80년 봄날 쓰러지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운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잊혀진 얼굴을 다시 재현하기엔 솜씨가 모자랐다. 우리들의 얼굴을 그리기엔 자신이 너무 나약했다(정형수, 「마지막 선언」, 『시민판화집』 창작후기, 249쪽)."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김경진



체념/송미영

무엇인가를 또 심어야 한다. 분노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일어서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농민의 분노와 좌절을 칼로 새기면서, 시민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과 다를 바 없음을 느끼고 그 아픔에 공감했다. 흙냄새에서 갈매 빛 무등산을 떠 올렸고, 농민의 손에 들린 낫에서 80년 봄날 쓰러지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운 광주의 모습을 연상했다. 오월항쟁을 겪은 시민에게 농민의 고난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의 작품에 농민의 지난한 삶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이다.

2) 노동자의 전쟁 같은 노동

시민판화집에는 다양한 양상의 노동자가 등장한다. 지금은 보기 힘든 지게꾼, 땜장이, 버스안내양에서 미장공, 배관공, 광부, 날품팔이, 여공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직업과 사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에게 노동은 결코 자아실현의 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루하루 온 식구의 생계가 달린 격렬한 전쟁터였으며, 그러하기에 온 몸이 무너져도 견뎌야 하는 형벌과 같았다.



지게위에서/ 박은아



땜질하는 아저씨/김희중



광부/송미영



근로자/임정림



공장친구/ 김경진



피곤/채승원



배관공/신현숙



벽돌 찍는 아저씨/이남옥

백열전등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밤새워 재봉틀을 밟는 어린 여공. 학교진학을 포기하고, 금속공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때론 손가락을 때려 피가 멍울지기도 하고, 손등마저 시퍼렇게 쇠 제품을 신고 끌기도 하고, 화장실 옆에서 쇠 제품의 광을 내는 일도 하면서 온 몸이 검둥이가 되도록 일을 해도 사회는 노동자의 삶에 무심했다.[248]. 회사 부장과 반장의 온갖 모욕적인 처사도 입술을 깨물며 견디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 열시까지 일에 시달려도 그러나 월급은 5만원에서 언제나 제자리였다. 마침내 견디지 못한 한 여성노동자가 약을 먹고 자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그녀를 부둥켜안고

248) 정미란, 「사랑이 메마른 사회」, 『일과 놀이』 1, 75쪽

오열하지만, 세상은 노동자에게 '조금만 더 참고 일해 봐' 라고 회유하고 또 협박하는 전쟁 같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목에 걸린 쇠사슬과 같았으며, 노동자는 일자리에서 추방되지 않으려면 오늘도 허리를 굽실거려야만 했다.[249]

이것이 시민들이 판화에 새긴 노동자의 모습이다. 전쟁 같은 노동현장과 지독한 가난에 시민들의 시선이 맞닿아있다. 단지 작품의 소재로서가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250] '자동차에 묻는 티끌보다도 못한'[251] 노동자의 삶을 작품에 새기면서, '터질 듯 아픔' 을 느꼈고 그것이 곧 '우리네 삶의 모퉁이' 라고 받아들였다.[252] 두 주먹을 불끈 쥔 노동자를 새기면서, "바람 앞에 촛불이더라도 다 타기 전에는 결코 꺼지지 않겠다" 고 다짐하기도 했다.[253] 판화를 통해 시민들은 노동자의 삶에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어깨를 걸고, '우리의 삶을 찾아' '전진'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광주 시민들이 노동자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월항쟁이후 광주의 정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시민미술학교는 민중미술교육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판화강좌에 앞서 수강생에게 노동현장 및 소외지역을 답사하고 상호 토론하는 교육일정을 편성한 이유이다. 이러한 교육방침이 수강생들이 작품의 소재로 노동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둘째, 오월항쟁을 직접 형상화하기엔 1980년대 전반의 정국이 너무도 삼엄했다. 제주 4·3항쟁의 경우에도 소설이라는 문화적 재현의 형태를 빌어 사건을 이야기하기까지 3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최초의 작품이 현기영의 소설『순이 삼촌』인데,[254] 그것조차도 사건의 진실로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형태로 4·3항쟁의 비극성을 드러냈던 것이다. 오월항쟁 직후 광주는 더욱 그러했다. 당시 광주의 한 시인이 '눈물 대신 금지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라고 고백했듯이,[255] 신군부의 집권초기인 1980년대 전반에 작가들은 '말할 수 있는 것' 과 '없는 것' 의 목록을 강요당했다. 모두들 '광주항쟁을 괄호치고 비통한 신음만 내뿜으며', '암시



노동수기/박병국

249) "호랑님과 토끼님. 고용인과 피고용인, 지배자와 피지배자, Rich men과 Poor men 등. 이들은 서로 적대모순관계이다. 담배대를 들어 바치는 토끼의 여윈 모습이 애처롭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소시켜야 할까(김용민, 「옛날 옛적에」,『시민판화집』창작후기, 148쪽)."

250)『시민판화집』창작후기.

251)「지게 위에서」,『시민판화집』창작후기.

252)「절규」,『시민판화집』창작후기.

253)「지게 위에서」,『시민판화집』창작후기.

254) 김영범,「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52쪽.

255)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가슴에 고여 있는 서러운 사랑의 빛깔로 반짝거리고 나는 눈물대신 금지된 노래를 부르고 싶어진다" (이영진,「과꽃(1)」,『5월시 동인작품집 2:그 산 그 하늘이 그립거든』, 한국, 1982, 111쪽.

적 수법을 통해 항쟁의 비극성만을 반복' 하던, '내적 망명상태' 였다.[256] 그러므로 시민판화집에 등장한 노동자의 모습을 이 시대 민중의 전형이자, 동시에 오월항쟁에 대한 알레고리로 이해하여도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셋째, '오월항쟁의 주체세력이 과연 누구였는가?' 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른바 홍희담의 소설 『깃발』(1988)과 관련된 항쟁의 주도세력논쟁이다. 홍희담은 도청에서 최후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식인' 이 아닌 '혁명적 민중' 임을 강조했다. 오월항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 을 제기한 것이다.[257] 물론 시민미술학교의 시민들이 깃발논쟁처럼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자를 형상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작가들이 에둘러 '장길산' (황석영), '바람에 지는 꽃잎' (『오월시판화집』), '전라도 뻐꾸기만 피를 토한다' (문병란,『전라도 뻐꾸기』) 식으로 오월항쟁을 암시적으로 표현할 때, 시민들이 노동자의 삶을 과장 없이 진솔하게 형상화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258] 넷째, 1981년은 교황 레오 13세가 「노동헌장」을 반포한 지 9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1983)을 단행본으로 발행하고, 노동사목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는 '노동문제는 사회문제의 관건' 이라는 관점 하에, '노동과 인간' , '노동과 자본의 투쟁' , '노동자의 권리' , '노동자의 영성'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시민미술학교를 후원하던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도 『민중을 위한 제언』(1984)을 발행하고, 시민강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실천에 적극적인 자세를 경주했다. 시민미술학교에 대한 지원 및 시민판화집의 발행, 판화강좌에서 천주교 신부의 사회사목에 대한 발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일이다. 광주시민미술학교에서 수강생들이 노동자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말하고 싶다/김경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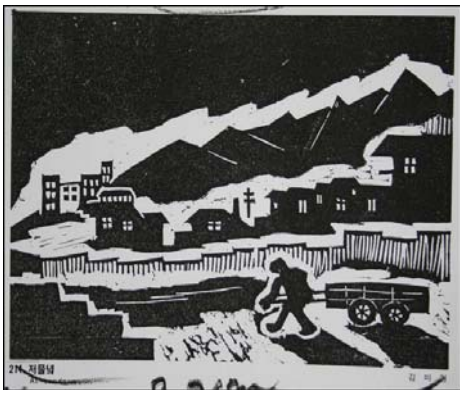
3) 소시민의 소외와 상흔(傷痕)

256) 정명중, 「5월 항쟁의 문학적 재현」, 앞 책, 449~4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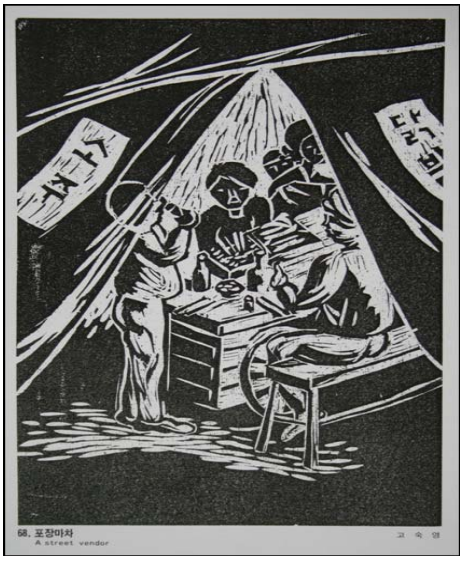
257) 정명중, 앞의 논문, 462~464쪽. 오월항쟁 사망자의 약 70%가 공장노동자, 서비스계통 종사자, 노점상, 농부 등의 노동자 계급이거나 실직자들이었고, 부상자와 체포 구금된 피해자들도 사망자와 같은 계층적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학생들은 1/3에도 못 미쳤다. 더욱이 1980년대를 통하여 직접 피해자들은 대개 가난을 면치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곤란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린다 루이스, 앞의 논문, 206쪽).

258) "우리도 깜짝 깜짝 놀라는 명료한 형상들이 (시민들 작품에서) 튀어 나왔어요. 이후(80년대 후반) 우리가 걸개그림을 그릴 때 당시 시민들의 작품에서 본 형상을 활용하곤 했지요(홍성민, 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2007. 9. 11 인터뷰)."

도시 서민의 일상과 삶터가 본격적으로 미술작품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무렵의 일이다. 당시 미술대학을 졸업한 30대초·중반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그림쟁이'가 아닌 시대의식을 갖춘 '지식인'이길 바랬다. 기성미술은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사람 사이의 소통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259] 미술과 현실의 삶을 일치시키겠다는 작가정신, 삶의 다양한 국면을 작품에 반영하겠다는 현실참여의지가 젊은 작가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그것은 작가로서 시대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고, 유신체제의 억압과 소외에 대한 예술적 저항이기도 했다. 그러하여 농촌과 도시변두리, 노동자와 서민의 일상이 오윤, 신학철, 홍성담, 노원희, 임옥상 등에 의해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기기 시작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수강생들이 도시 서민의 일상과 삶터를 작품주제로 택한 저변에 흐른 미술 운동적 맥락이 이러했다.



저물녘/김미경



포장마차/고숙영

시민판화집에 수록된 도시 소시민의 모습은 다양하다. 달동네, 재래시장, 아파트, 지하상가, 학교, 갱생원, 교회, 가족, 부부, 노인, 수험생, 사주쟁이, 지게꾼, 날품팔이, 노점상, 단속반, 맹인악사, 구두수선공, 엿장수, 포장마차, 계단에 앉아 혼자 인형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 맨발로 헤매는 광인의 모습 등이 실려 있다. 하나같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풍경이며 차라리 못난 군상들이다. 전체적인 도시와 서민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우며, 쓸쓸하고 우울하다. 어느 시인은 5월시에서, "낮은 지붕 밑의 사랑과 自由와 흩어지는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미물의 하찮은 사랑마저도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가를 알겠노라"고 노래했다.[260] 또 다른 시민의 판화 작품 창작후기에는 "소주 한 잔에 이 슬픔을 털어 버릴 수만은 없다.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많은 상처들로 멍들어 있는가? 우리 그 아픔을 가슴에서 꺼내자, 꺼내어

259) 원동석, 『민족미술의 논리와 전망』, 풀빛, 1985, 22~24쪽, 183쪽.
260) 김진경, 「밥과 사랑과 自由와」, 『5월시 동인집 제1집: 이 땅에 태어나서』, 대호출판국, 1981, 16쪽.

말하자! 말하자!" 라고 토로했다. 오월항쟁이 평범한 일상의 행복마저 앗아간 것에 대한 분노이자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도심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앞만 보고 걷는다. 빠른 걸음으로 종종거린다. 어느 날 시민작가는 걸음을 늦추어보았다. 사람들이 빠르게 그를 스쳐간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가는 형상이 되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걸음을 늦추니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이 생각보다 훨씬 많음을 깨달았다. 어떤 시민은 단속반의 발길에 쫓기는 노점 상인을 보았다. 소금장수 할머니, 장애인 행상 아줌마, 지게꾼,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를 새긴 시민도 있었다.

시인 박주관은 1982년에『5월시 동인작품집』2집에 실린「남광주」라는 시에서,

"남광주의 아침은 아욱 냄새가 난다 / 시장바닥에 앉은 아이 업은 아낙의 풍경은 / 멀리서 바라보면 용서를 빌고 싶지만 /가까이서 눈뜨고 보라 그것은 눈물이다.[261]" 라고 썼다. 불과 2년 전에 오월항쟁이 있었건만, 오히려 시인은 도청 분수대가 아닌 광주시 남광주 시장의 풍경을 노래하고자 한다. 이른 아침부터 아이를 업고 장사를 하는 아낙을 보면서 시인은 부끄러움과 눈물을 애써 감춰본다. 그렇게 1980년대 전반은 우리 서민의 일상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던 시절이었다. 광주출신 박주관 시인의 부끄러운 눈물은 오월항쟁의 맥락을 제쳐놓고선 결코 이해하기 어렵다. 1980년대의 오월항쟁 문학에서 '죄의식' 혹은 '부채의식' 은 핵심적인 모티브였기 때문이다.[262]『시민판화집』의 단속반에 기는 노점상, 장터의 할머니, 거리의 날품팔이 등을 새긴 판화작품에서도 이와 동일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시민판화집』에는 외롭고 힘없는 노인이 자주 등장한다. 노부부, 땜질장이 · 구두수선공 · 지계꾼으로 평생을 보낸 할아버지, 행상할머니, 아파트에 갇혀 살다시피 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쓸쓸한 삶이다.



말바우시장에서/박태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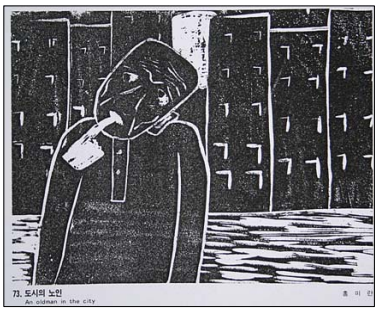
우리 근 · 현대사에서 아파트는 단지 주거 공간의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아파트는 농촌과 차별된 도시의 우월의식이자, 신분상승의 척도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시민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들에게 아파트란 결코 우월하거나 따뜻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지 않았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한숨을 쉬고,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모두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현실이다. 갈 곳이 없는 소외된 군상이다.

---

261) 박주관,「남광주」,『5월시동인작품집』2, 한국, 1982
262) 정명중, 앞 논문, 268쪽.



도시의 노인들/김희경



도시의 노인/홍미란



아파트의 일요일/이은숙

혼자서 폐지가 가득 찬 손수레를 힘겹게 끌거나, 한복을 차려입고 다소곳하게 영정사진을 찍는 할머니의 굵은 손마디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끌어야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한 시민의 짙은 회한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민작가는 작품 창작후기에서 "왜 이리 얼굴이 일그러만 지는지, 세월은 내게 웃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라고 적었다. 그가 새긴 판화 속 할머니의 초상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노인세대만큼 파란만장한 삶도 없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전쟁, 군부독재와 민주화투쟁, 압축성장과 농촌의 해체라는 격랑 속에서 노인들은 자기인생은 물론이고, 가족의 죽음과 고통을 목도했다. 모진 삶이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웃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의 이미지는 폭력의 야만성을 극대화한다.[263] 결백하고 약한 존재들로서 세상사의 이해관계에서 빗겨난 존재를 은유한다. 이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외부에서 강제된 결과이다. 따라서 그 정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폭력의 부당성은 폭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으로 이들에 대한 문화적 재현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게 된다. 예컨대 오월항쟁 이후 아들의 낫을 가는 늙은 아비의 모습이나, 아비가 없이 찍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가족사진은 그 자체로 국가폭력의 실상을 지시한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 작품에서 어떤 웅변보다 진한 공감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

4) 오월항쟁의 트라우마(Trauma)

시민미술학교에서 장애인, 걸인, 맹인, 狂人, 범죄자도 작품의 주된 주제였다. 여기에는 시민미술학교의 교육 의도가 작용했다. 강사들은 수강생과 함께, 불구폐질환 수용소, 음성나환자촌, 정신병원, 양로원, 탄광, 시장터, 갱생원 등을 찾아가 직접 그들의 생활을 목격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체험하는 현장답사를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한 것이다.[264] 현장답사의 경험은 곧 시민들의 작품에 반영되

263) 권귀숙, 앞 책, 219~226쪽.
264) 「시민미술학교보고서」, 33쪽.



도시와 걸인/원순남



어느 의상실 앞/나미라



갱생원가는길/강명

었다.[265] 그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육교계단 위에서 동냥하는 걸인의 한 걸인의 초라한 행색은 배경의 높은 빌딩과 자동차로 더욱 극명해진다. 화려한 의상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맹인악사부부와 등에 업힌 아이, 사회부적응자, 일탈자, 비행청소년 등을 집단 수용하는 갱생원, 흰 눈은 내리는데 맨발의 미친 여자가 웃고 있다. 시민 작가는 창작 후기에서, "나는 장애자이다. 어느 순간에 말장애자이고 심지어는 정신장애자다. 이런 날 누가 구원해줄 것인가. 내가 장애자이므로 그들은 날 외면한다. 그러므로 나는 재미없다. 도무지 자기얘기만 할 줄 알지 내 얘기를 비집어 널 여유를 주지 않는다. 나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미칠 지경이다. 나는 이 슬픔을 혼자 지탱할 용기와 思考도 없고 또한 스스로 위안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하여 나는 살고 싶었다. 깨어있는 의식이고 싶었다. 간절하고 절실하고 싶었다. 공동체로서 나를 거부하지 말아주오." 라고 썼다.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고백한다.

정치적 공포가 엄연한 정국에서 예술은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언어로 시대를 기억하고 고발한다. 말 장애자이자 때론 정신장애자라는 작가의 언급은, 그가 비판적 알레고리의 의도로 장애인의 개념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민판화집에 등장하는 불구, 걸인, 맹인, 광인, 범죄자는 소통이 결핍된 시대의 표상이자,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작가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다. 사람이 쓸쓸하고 외로워 미칠 지경에 이르는 이유는, 자기얘기만 하고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른 목소리와 소통이 단절될 때, 사람은 고립되고 스스로 감당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듣는 사람이 빠진다면 말은 불구가 된다.[266] 사람 사이의 대화가 가능해야 비로소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265) 그렇다고 시민의 작품을 작가의 지도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다. 특히 시민미술학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당시 시민미술학교에서 지도강사들은 보조적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끊임없이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미술을 지향했던 당시 민중미술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상호영향관계를 배제해서도 곤란하지만, 마치 '강사가 지도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따랐다' 식의 해석도 잘못인 것이다.

266) 옥타비오 파스, 김홍근 · 김은중 역, 『활과 리라』, 솔, 2005, 58쪽.

된다. 소통의 재개에 의해 비로소 사회적 의식은 깨어나는 것이다. 시민작가는 활로(活路)를 공동체에서 찾았다. 공동체란 서로를 거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립하고 작동하는 것이다.

시민미술학교에서 그들은 걸인과 맹인, 갱생원생과 정신병자를 판화로 새기면서 스스로의 굴욕과 상처를 상기했다. 우리 모두가 결핍된 존재라는 자각이 싹텄다. 정신병자를 돌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 라고 자문했다. 사람이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했다. "감감한 미로가 사실은 탄탄한 대로일수도 있다" 라고 자답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들은 문화적 재현을 통해 정신병자와 공동운명체 같은 정을 느꼈다. 소외를 대상화하지 않고, 자신 속에 수용하고자 했다. 불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결핍을 온전히 수용하고자 했다. 경제적 · 육체적 · 정신적 결함이 있는, 무엇인가 결핍된 존재 곁으로 다가서는 행위였다.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이며 용기였다. 개인적 양심의 발로를 넘어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사회적 고백이자 스스로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미술학교의 창작행위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대화였다. 판화를 통해 사회의 가장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의 상처를 수용함으로써, '그날 새벽을 외면한' 자신과도 화해하는 역사적 공간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박마르타

예술가는 말하고 싶은 작품이 사회와 불화(不和)할 때 갈등한다. 그것이 공포와 억압 때문이라면, 작가는 침묵하거나 저항하거나 에둘러야한다. 그러나 어느 편이건, 작가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 상처는 작품에 투영된다. 트라우마는 갑작스레 등장해서 후려친 상처이다.[267] 특히 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과 같은 경험은 공식적으로 기억되지도 않으면서 결코 심층기억에서 잊히지도 않는 트라우마이다.[268] 억압과 공포 속에서 기억은 파편화되고, 진실과 현실은 괴리되고, 결국 자아까지 분열되기도 한다.[269] 제주 4 · 3항쟁과 오월항쟁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4 · 3항쟁 희생자의 治病 굿을 하는 심방(무당)은, "어떤 집에 어떤 굿을 가드라도(가더라도) 4 · 3내력이 나오지. 집안에 관, 경찰관이 있는 집은 가족들이 산에서 당한 집이 많고, 저쪽(산)에서 활약하다 죽은 사람들은 이쪽에서 죽여분(죽여 버린) 디가(곳이) 많고, 꼭 좌익 쪽이 아니고도 집안 원한관계로도 죽고, 심지어는 산에서 활약한 사돈끼리 원한으로 죽은데도 있어 놓으니,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 · · 잘못해서 동티나면 큰일이니까 사태에 대한 말은 (19)80년 전까지 해보질 못했어" 라고 고백했다.[270] 제주에서는 어떤 집을

267) 들레즈의 표현이다. 김미선, 앞 논문, 46쪽.
268) 김미선, 앞 논문, 44쪽.
269) 권귀숙, 앞 책, 36쪽.
270) 『이제사 말햄수다: 4 · 3증언 자료집 I 』, 한울, 1989, 21쪽 ; 강창일 · 현혜경, 「4 · 3기억의 굿을 통한 재현: 정치적 사건과 문화적 장치」,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2006, 115~116쪽에서 재인용.

가서 굿을 하더라도, 항쟁과 관계없는 곳이 없고 누가 가해자고 희생자인지조차 가리기 어렵다는 증언이다. 1981년 이전까지 심방은 제주 4 · 3항쟁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할 수도 없었다. 김진경은 『5월시 동인지』 제1집에 실린 「보리밭」에서, "미친 魂이여, 미친 魂이여 / 하늘이 보리밭 사이로 무너져 내려 / 꿈틀거리고 있었다" 라며, 5월의 보리밭을 알레고리로 삼아 오월항쟁의 충격과 절망, 분노를 노래했다. 시인에게 오월항쟁은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은 비극,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1980년대 '5월 문학' 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한다. 그날 새벽의 도청에 있지 않았다는 부채의식[271], 진압군으로 학살에 참여했다는 죄책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망 등이 그들의 삶을 비틀고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5월 문학' 에 정신분열적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장애는 오월항쟁이 남긴 강박관념이자 상흔이었다. 그리고 정신병자를 아내로 맞이하거나[272],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을 회상하고,[273] 스스로를 유폐하든지[274] 항쟁의 기억은 끊임없이 현현해서 변주되었다.



말하고 싶어요/윤을진



잃어버린 시선/이정숙



시대 '80을 겪는 남자/정진

오월항쟁의 가해자들은 광주를 고립시켰다. 진실은 왜곡되고 시민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굴복했다. '그날 새벽' 을 직시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불치(不治)의 트라우마였다. 광주를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는 한, 자유로울 자 그 누구도 없었다. 시민미술학교에서 시민들은 '진상규명' 의 형태로 오월항쟁의 역사에 다가섰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는 투쟁욕구와 '산자는 말해야한다' 는 부채의식의 발로였다.

1985년부터 시민미술학교에 오월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판화가 등장했다.[275] 시민사회의 치열한

271) 정명중, 앞 논문, 268~274쪽.
272) 정명중, 앞 논문, 302쪽; 한승원, 「어둠꽃」, 『부활의 도시: 광주민중항쟁 10주년기념작품집』, 인동, 1990.
273)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꽃잎처럼: 5월광주대표소설집』, 풀빛, 1995 ; 임철우, 『백년여관』, 한겨레신문사, 2004.
274) 이순원, 「얼굴」, 같은 책.
275) 홍성민(당시 시민미술학교 강사, 인터뷰 2007.9.11.)

기억투쟁의 성과에 힘입은 바였다.[276] 비참하게 끝난 항쟁의 기억은 좌절과 고통, 끝없는 부채의식을 시민에게 남겼다. 그날의 항쟁은 끝났지만, 광주는, "하느님도 새떼도 모두 떠나가 버리고"[277] "살아 있는 것들은 스스로 죽어야 하고,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278] 시민판화에 투영된 19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잔인한 도시'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권에 굴복하거나, 그들로부터 억압당했다. '광주'를 기억하는 것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더욱 견딜 수 없는 일은 하나 둘, '그 기억들'이 잊힌다는 사실이었다. 시민들은 판화를 통해 오월항쟁을 상기하고자 했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했다. 왜곡되고 억압된 진실을 폭로했다.[279] 진압군에 살해된 여학생의 영정을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망월묘역에 찾아가 오열하는 친구, 마치 캐터 콜비츠의 판화를 연상시키는 장례행렬은 모두 오월항쟁에 대한 광주시민의 비극적 정서의 극복과정이었다.

그러나 85년의 광주가 패배와 좌절, 죄의식의 정서에만 함몰된 것은 아니었다. 5월 문학상(1986)을 수상한 이봉환은 「어머니의 밭」이란 시에서, "이제야 어머니 이제야, 소나무 등걸이 돼버린 당신의 열 두 마디 그립디 그리운 아픔 그 긴 행로 속에서 우리의 작은 혁명은 싹을 틔워옵니다. 당신의 죽음 같은 삶이 주는 싸움의 시작, 그것은 결코 배반이 아닙니다."라며, 좌절의 과거로서 오월항쟁을 극복하고 있다.[280] 오히려 그에게 광주의 아픈 상처는 혁명의 씨앗이 움트는 모태이자 자양분으로 인식되었다. 한 시민은 판화작업을 통해 공동체의 호흡을 느끼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각칼로 형상을 새기면서 자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아픔과 기쁨을 느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걸어갈 것을 오월항쟁 이후 죽음 같은 삶을 살아야했던 광주시민에게, 새로운 싸움과 혁명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감지된다.

결코 5월의 고통이 잊힐 수 없겠지만,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민은 비관적 정서에서 헤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바야흐로 오월항쟁은 哀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진군가가 되었다. 광주시민의 희생은 모든 이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예수'의 모습으로 재해석되었다. 오월항쟁을 기억하는 것은 정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 숭고한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오월항쟁에 대한 새로운 기억의 형성을 의미했다. 시민판화집에 수록된 작품 한 점 한 점은 모두 오

276)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에도 불구하고 오월항쟁의 진실은 퍼져나갔다. 특히 518항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NHK 비디오'와 '독일비디오'가 커다란 반향을 가져왔다. 'NHK 비디오'는 1980년 5월 26일 일본 NHK가 방송한 〈특집: 계엄령 하의 한국(NHK特輯 :戒嚴令下の韓國)〉(48분) 오월항쟁다큐멘터리 비디오의 편집본이다(정근식,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518다큐멘터리의 전개과정」,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258쪽). 그리고 1985년 고려대학교 석탑축제 때 광주비디오가 공개 상영된 것을 계기로, 대학 및 종교집회와 축제를 통해 광주의 대항기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갔다. 1986년 5월 17일부터 10일 동안에 서울 명동성당 내 가톨릭문화회관에서 광주비디오가 공개되었다. 그 당시 전국 100여 성당에서 518항쟁 비디오와 사진전이 열렸다(정근식, 같은 논문, 260쪽). 광주항쟁 5주기인 1985년 5월 17일에는 전국 80개 대학에서 38,000명이 추모시위에 참여했다. 518항쟁의 기억투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나간채 · 정근식 · 강창일 외 공저, 같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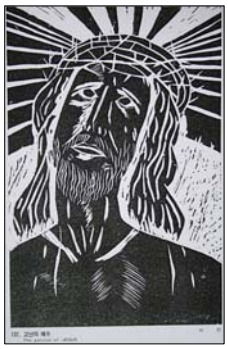
277)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1980).

278) 박주관, 「비가」, 『5月詩 同人誌』 1, 1981.

279) 나간채 · 정근식 · 강창일 외 공저, 앞의 책, 19쪽.

280) 이봉환, 「질경이 18-어머니의 밭」, 『너의 이름에 붉은 줄을 그으며』, 1988, 53쪽.

월항쟁의 폐허 속에서 상처입고 피 흘렸던 역사에 대한 기억투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난의 예수/미란



잔인한 도시/강용운



누가 이 아픔을/이은숙



정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자/표정두



잊힘이 많은 머리를 비웃으며//신선일

4.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1988~2002)

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립

1987년 6월항쟁을 전기로 미술운동조직의 전국적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이듬해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및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광주에서도 3월부터 월 2회씩 6개월간 시매연과 광주전남목판화연구회를 주축으로 연대를 위한 준비모임이 시작되었다. 결성준비모임은 조진호, 홍성담, 김경주, 김진수, 문학렬, 백은일, 박문종, 박철우, 최상호, 김승평, 박광수, 홍성민을 준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준비위원장은 조진호가 맡았다. 그러하여 1988년 10월 29일 광주 YWCA 6층 소강당에서 광미공의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공동대표에 조진호와 홍성담이 추대되고, 창립회원은 34명이었다.[281]

창립 당시 광미공의 현실인식과 각오는 창립선언문에 잘 드러나 있다.

· · · 이 지역 광주전남은 우리 시대 모든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현대사의 표상으로 이 지역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미술인들에게는 각별한 애정의 대상임과 동시에 어떤 의미로는 이곳이 바로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는 무한한 영광과 그에 상응하는 아픔을 동시에 내포한 고난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지역 광주전남의 예술적 잠재력을 고양시키며 우리들 삶의 결핍된 영역을 충일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민족 미술의 새롭고 바람직한 지평을 열기 위하여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를 기운차게 출범하고자 합니다...[282]

광미공의 현식인식에 의하면, 광주전남은 우리시대의 모순이 집약된 현대사의 표상이었다. 영광과 아픔을 동시에 내포한 고난의 땅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 광주항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주전남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자각 하에, 광미공은 광주전남의 예술적 잠재력을 고양시키는 것이 곧 우리민족미술의 새롭고 바람직한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창립대회에서 「한반도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의 역할」(문병란), 「민족형식론」(이태호)의 주제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향후 조직의 활동방향을 선명히 보여주었다.

창립 당시 광미공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283] 총회는 년2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총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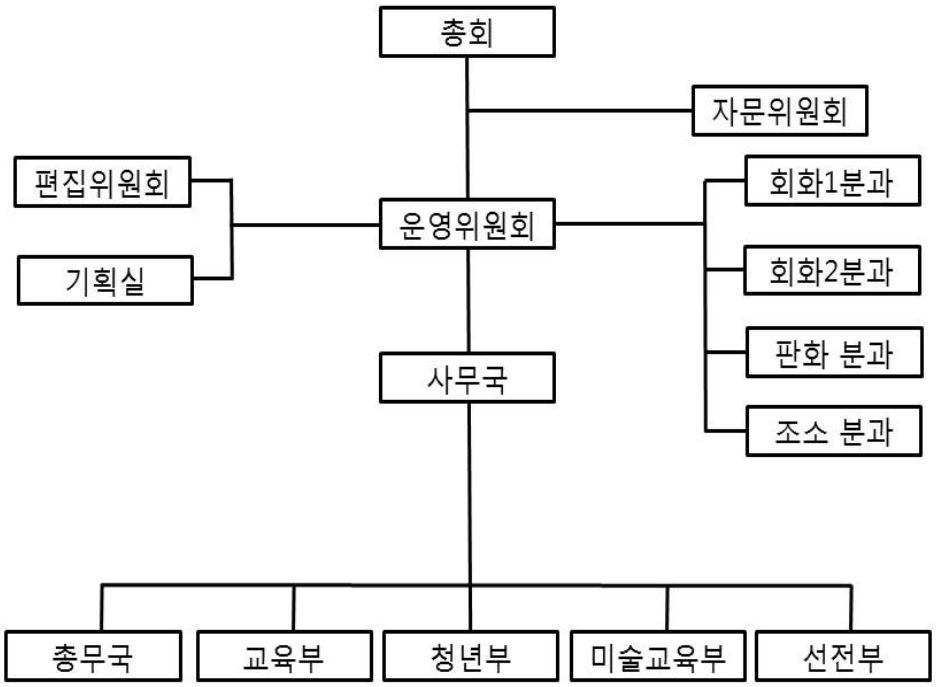
---

281) 창립일시와 창립회원에 대해서는 광미공 소식지에서는 1988.10. 27, 34명으로 명기한 반면에, 광미공이 창립10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그림』에서는 1988. 10. 29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창립대회 포스터에는 29일로 명기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따른다. 또한 창립회원의 수에서도 이세길은 앞책에 실린 「1988-1998, 십년 세월의 뒤안길」이라는 글에서 36명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창립회원명단은 미상인 상태이다.

282)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립선언문」(1988.10.29)

283) 광미공소식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간호,(1990), 3쪽.

할 수 있었다.[284] 회장은 1명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각분과장, 사무국장 및 집행부장,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반 미술운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임무와 역할을 맡았다. 사무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사무국장과 집행부장을 선임하고 총무부, 선전부, 교육부, 청년부, 미술교육부의 부서를 설치하였다. 한편 광미공의 조직에서 분과위원회는 회화 1,2분과(수묵, 서양화), 조소분과, 판화분과로 구성되었는데[285], 분과장 선출 및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였다. 광미공은 이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 , 작품전, 연대활동을 전개한 점이 큰 특징이었다.[286] 그밖에 특별기구로서 편집위원회, 기획실, 자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었다.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였다.



284) 같은 책, 「정관」, 29-32쪽.
285) 이후 판화분과는 창작단으로 바뀌게 된다.
286) 분과위원회체제는 1996년에 미학, 창작, 조형 연구소체제로 변경되었다.



제2회 5월전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전 포스터

초기 광미공 활동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교육활동이었다. 교육활동은 회원강좌 · 수련회 · 세미나 · 문화유적답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회원강좌의 주제를 살펴보면, 「리얼리즘과 민족형식」(이태호, 1988.12.3), 「중국의 현대미술」(이태호, 1988.12.10), 「북한의 미술」(홍성담, 1989.2.28), 「노동현실과 미술운동」(이숙희, 1990.10.9),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촌현실」(박석면, 1990.10.9) 등으로, 창립초기 민족예술형식의 탐색에서 점차 노동과 농촌현실로, 민족에서 민중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에 힘입어 광미공은 회원의 다양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문화유산답사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실시되었다.[287] 특히 1990년과 1991년에는 거의 매월 답사를 다닐 정도였다.[288] 그것은 이 땅에 얽혀있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문화유적을 통해 지난 시대의 삶의 모습을 재조명하려는데 취지가 있었다.[289] 답사안내는 이태호(전남대 교수, 광미공 자문위원)가 맡았으며, 지리산 답사에서는 김형수 시인이 지리산과 빨치산에 관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광미공의 회원들은 답사를 통하여 우리 땅의 역사와 아름다움에 눈을 떴으며, 답사현장에서 스케치한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1990년 광미공의 기관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이하 회지)가 창간되었다. 창간사에서 밝힌 창간목적은 다음과 같다. (1)조직 활동과 지역미술운동의 발전, (2)현실주의 미술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활동, 교육활동의 확대, (3)미술의 대중수요 창출과 미술인들의 조직화에 필요한 정보제공 (4)기층 농민, 노동자의 현장미술활동과 회원들의 전문적인 미술활동의 지원 · 홍보, (5)자주 · 민주 · 통일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마당이 그것이다. 창간호에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참미술」(이태호), 「해방공간의 광주 · 전남지역 미술운동」(윤상기), 「캐터 콜비츠의 생애와 작품」 등의 묵직한

287) 1990년에 실시된 답사코스는 다음과 같다. 운주사 · 불회사 · 벽나리민불(제1회), 녹우당 · 다산초당 · 백련사(제2회), 월출산무위사 · 월남사지(제3회), 국립전주박물관 · 온다라미술관 · 선운사 · 갑오농민전적지 · 부안 정읍고창(제4회), 쌍봉사 · 보림사(제5회), 지리산 · 쌍계사 · 운조루 · 화엄사(제6회)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제2호, 1991, 4-6쪽.
288) 정희승,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그림' 꿈꾸기」, 『광주민예총』 12권 (2003), 258쪽
289) 같은 책, 4쪽.

글들을 게재함으로써 창간의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회지의 발간은 1993년 제4호를 끝으로 마감된다.[290] 그리고 1996년 7월 『황톳길』이 광미공의 새 소식지로 다시 창간되었지만 지속되지 못했다.

나. 겨울미술학교

1993년부터 광미공은 '아름다운 세상·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겨울미술학교를 개설하였다. 지난겨울의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서 광주지역의 좌절감은 상당한 정도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정국 속에서 광미공의 작가들은 예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절박한 고민을 던지고 있었다.[291] 그리고 시민 속에 그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겨울미술학교의 개설로 이어졌던 것이다. 겨울미술학교는 '시민 · 학생 · 작가가 함께 하는 겨울미술학교'라는 부제에서 짐작되듯, 전문작가뿐만 아니라 대중도 미술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강좌였다. 다시 말해서 겨울미술학교를 전기로 창립초기 회원을 대상으로 한 거대담론 중심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대중교양강좌로 전환한 것이다.

제1회 겨울미술학교는 흥사단 광주지부 대강당에서 열렸다.(1993.1.11-1.20) 강연균 작가를 교장으로, 강요배, 원동석, 이종구, 곽재우, 김형수, 이태호, 이영철, 김경주 등이 강사로 나섰다. 강좌와 종합토론, 답사의 일정으로 진행된 겨울학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 수강인원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수강생의 계층도 미술학도, 젊은 작가는 물론이고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292] 이후 1998년까지 총6회에 걸쳐 진행된 겨울미술학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93]

290) 1998년에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창립10주년을 기념해서 광주전남민족미술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그림』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291) 정희승, 같은 책, 58쪽.
292)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황톳길』 창간호(1996. 7), 5쪽.
293) 제1회 겨울미술학교에 관한 자료는 노력했으나 아직 구하지 못하였다.

겨울미술학교 강연 및 일정표(1994-1998)

회	강사	주제	장소
제2회 1994.1.17-26	신경림	희망의 민족예술	광주 YMCA 백제실
	황지우	현대미술에서 현대성의 빛과 그림자	
	유홍준	문화유산을 보는 눈(불상과 장승을 중심으로)	
	황재형	쥘 흙은 있어도 뉠 땅은 없는 이의 얼굴	
	위 증	해방 후의 광주화단과 양수아의 예술	
	강관욱	영혼을 쪼으는 구원의 노래	
	정지창	90년대 문화지형의 변화와 문화운동	
	손장섭	내가 걸어온 삶의 길 회화의 길	
	원동석	통일을 향해 달리는 미술	
	이태호	옛 화가들은 어떻게 우리의 땅을 그렸나	
	답사	삶과 희망의 땅 동학전적지를 찾아서	
	종합토론	강의 내용 및 동학혁명에 관하여	
제3회 1995.1.13-20	강성원	미술에 있어서의 대중성의 미학과 미술문화	금곡문화관 (일신문고12층)
	김인순	김인순의 작품세계(여성과 미술)	
	윤한봉	문화의 사회 · 정치적 역할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와 단원 김홍도	
	최하림	남미 멕시코 벽화 · 판화를 통해 본 작품형식	
	박철우	삶이 어우러지는 미술교육	
	이장호	한국영화의 과거와 미래	
	심광현	대중문화의 확산과 미술운동의 새로운 과제	
제4회 1996.1.29 - 2.6	문순태	내가 생각하는 사실주의 미술과 문학	금곡문화관
	이강재	화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세상 이야기	
	조상현	남도소리 그 멋과 흥	
	박찬국	도시환경과 벽화	
	심정수	구도자에서 생명의 바다로(심정수의 작품세계)	
	이기웅	책과 미술의 만남, 30년	
	신학철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신학철의 작품세계)	
	이태호	옛화가는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	
	토론	지방자치 시대 지역문화의 전망	
제5회 1997.1.20-27	임옥상	장대한 스케일, 현실고발적인 메세지	광주 YMCA백제실
	이주헌	서구미술문화의 이해	
	고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	
	조태일	나의 고향과 나의 시	
	김정헌	모더니즘의 거부(대비형식의 키치적 구사)	
	황지우	90년대 문화의 지형도	
	고영을	한국 불화의 이해	
	이태호	조선시대의 회화	

회	강사	주제	장소
제6회 1998.2.9-15	윤장현	지역공동체와 문화공동체	원불교 광주교당 대법당
	박불똥	욕망의 정치학으로 본 한국의 사회행태	
	이호신	생명과 삶에 대한 '뜻' 그림	
	박철우 이세길	광미공 10년간의 발자취	
	이철수	목판화의 일상	
	이태호	조선시대 초상화로 본 大한국인	

제6회까지 강좌주제를 살펴보면, 미술을 중심으로 영화, 남도소리, 지방자치시대 지역문화 등 여타의 예술분야까지 다양하게 섭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강사진에서도 화가(황재형, 손장섭,김인순,박철우,신학철,임옥산,고영을,박불똥,이철수), 조각(강관욱), 문인(신경림, 황지우, 문순태, 고은, 조태일), 학계(유홍준,이태호,원동석), 평론가(이주헌,이세길), 문화기획자(박찬국), 재야운동가(윤한봉) 등 제반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였다. 한편, 겨울미술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히 작가로부터 직접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 호기심이 지대하였다.[294] 강사들도 시민과의 상호소통에 큰 만족을 느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지역문화전망」을 주제로 강사와 수강생이 종합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변변한 대중을 위한 문화강좌가 없던 90년 초반, 겨울미술학교가 수행한 역할은 이처럼 대단히 선진적이고 뜻 깊은 것이었다.

다. 오월전

창립이후 광미공은 다양한 전시 활동을 펼쳤다. 〈5월〉전을 비롯하여 〈일하는 사람들〉전, 〈광주전남목판화연구회〉전, 〈수묵미술인회〉전, 〈삶의 현장〉전, 〈그 싹은 열매되어〉전, 〈현장스케치〉전, 〈남녘의 산하〉전, 〈전국청년미술제〉, 〈광주통일미술제〉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삶의 현장〉 〈남녘의 산하〉 등 민중의 삶에 대한 관심은 당시 대두하던 노동미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충북민족미술협회의 〈일속에서〉전, 그림마당 민의 〈우리시대 표정〉등 민중의 삶을 주제로 한 기획전과 단체전이 활발해졌던 것이다.[295]

광미공의 가을 정기전 〈일하는 사람들〉전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총 3회가 개최되었다.[296] 이 정기전은 초대의 글에서 '수확의 계절임에도 수고로운 노동의 값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자' 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기획 의도가 민중의 노동과 고단한 삶에 있음을

294) 황재형(쥘 흙은 있어도 뉠 땅은 없는 이의 얼굴), 강관욱(영혼을 쪼으는 구원의 노래), 손장섭(내가 걸어온 삶의 길 회화의 길), 김인순(김인순의 작품세계), 심정수(구도자에서 생명의 바다로,심정수의 작품세계), 신학철(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임옥상(장대한 스케일, 현실고발적인 메시지), 김정헌(모더니즘의 거부), 고영을(한국 불화의 이해), 이철수(목판화의 일상), 박불똥(욕망의 정치학으로 본 한국의 사회형태)

295) 이태호, 「민중 삶의 올바른 인식과 표현문제-일하는 사람들전」,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제2호(1991) 7쪽.

296) 제1회(1990.10.9,광주 가든미술관), 제2회(1991.10.19-11.8, 전주 온다라미술관), 제3회(1993.1.17-22, 광주남도예술회관)

분명히 하였다. 이발소그림을 배경으로 삽자루를 움켜쥐고 고개를 떨 군 농민의 뒷모습을 그린 이혜숙의 〈아버지의 땅〉, 김경주의 〈수몰촌 물안개〉, 공구가방을 메고 버스 손잡이에 매달린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그린 정순남의 〈새벽출근〉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전은 다양한 민중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그밖에도 광미공은 미술단체와 연합전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아 영산강〉전(목포미술동인 대반동, 1992),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황토현에서 금남로〉전(1994), 〈민중미술 15년〉전(1994), 〈광주대구민족미술교류전-빛고을에서 달구벌까지〉전(1995), 〈제8회 4·3미술제, 한라와 무등 – 역사의 맥〉전(2001) 등이 있었다. 그밖에도 〈5·18묘역 기념헌수 기념마련을 위한 소품전〉(1996) 등의 전시가 그것이다.



이혜숙, 〈아버지의 땅〉(캔버스에 유채,10호,1991)

광미공 정기 작품전

연번	전시명	주관	성격	전시년도	비고
1	〈5월〉전	광미공	정기전	1989-2005현재	16회
2	〈일하는 사람들〉전	광미공	가을정기전	1990,1991,1993	3회
3	〈광주전남목판화연구회〉 전	판화분과	분과정기전	1990	1회
4	〈수묵미술인회〉전	회화1분과	분과정기전	1990,1992,1993	3회
5	〈삶의 현장〉전	회화2분과	분과정기전	1992,1993	2회
6	〈그 싹은 열매되어〉전	5월조각패	분과정기전	1992,1993	2회
7	전국청년미술제	광미공	정기전	1991,1992	2회
8	〈현장스케치〉전	광미공	야외스케치	1993,1994,1996	3회
9	〈남녘의 산화〉전	광미공	가을정기전	1994,	1회
10	광주통일미술제	광미공	안티비엔날레	1995,1997	2회

광미공의 활동 중에서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걸개그림과 판화제작이다. 광주에서 걸개그림

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 광주문화큰잔치에서 〈민중의 싸움〉이란 작품부터이다. 이후 각종 시위현장과 공연무대에서 걸개그림은 필수적인 미술장르가 되었다. 광미공은 1990년 전태일 열사 20주년 걸개그림 〈노동해방도〉를 시작으로 〈5월전사〉(1991, 망월묘역전시), 〈윤한봉선생 귀국촉구를 위한 걸개그림〉(1992), 〈조선은 하나다〉(1993)를 제작하였다. 특히 〈5월전사〉는 〈5월에 본 미국〉전(1991년)에 망월묘역에 걸리어 수많은 참배객의 주목을 끌었는데, "박승희를 중심구도에 부각시키면서 청년들의 투쟁상을 그린 것으로 정확한 선묘와 색채의 조화가 빈틈없는 역량을 보이게 하는 걸작이다"라는 호평을 받았다.[297]

광미공은 판화제작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5 · 18 연작판화〉(20점,1992)가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91년 하반기부터 기획에 들어가서 완성한 것으로, 광주항쟁의 전 과정을 명료하게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민화이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후 이 연작판화는 1998년 〈다시 보는 5월판화〉전, 〈광미공 창립10주년기념〉전에도 다시 출품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시위현장의 벽보 및 포스터의 제작도 광미공의 주요한 활동분야였다. 특히 1991년에 분신한 전남대학생 박승희의 처절한 분신장면을 그린 포스터는 재야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광미공의 소식지에 실린 '5월 정국과 광미공의 선전 작업'에 실린 긴박했던 선전 작업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29일 박승희양 분신. 대응논의를 위한 운영위 소집, 운영위원 전원 빛고을 신문사 및 전대병원 탐방, 밤 12시 전대학보사에서 분신상황사진 입수 2시에 벽보원안제작. 4월30일 오후 3시 광미공 회원 벽보 가두부착 및 학내 재야운동단체 배포. 5월1일 박승희양 분신사건에 관한 2차 벽보부착(3개조 편성 시내외곽지역 1개조, 시내 중심가 2개조로 집중부착 총 500매) 오후 9시 학생회관 집결 시위상황 인지 후 문화선전대 공동구성에 관한 논의(광미공, 광미련), (중략), 5월4일 오전 노정권 퇴진을 위한 문화예술인결의대회에 필요한 대형플래카드 2개 어깨띠 30개 제작, 가두행진, 오후 7시 한미쇼핑-한일은행-금남로로 이동 규탄시위 중 즉석에서 노태우 화형식 제의 지니고 있던 플래카드와 피켓 긴급히 구해온 종이와 매직, 석유로 노태우 허수아비를 만들어 화형, 8시 운영위 모임 평가회 후 스프레이, 전단 벽보 선전 등 시각매체 적극 활용방안 모색 후 해산[298]

그러나 광미공의 정기전 중에서 핵심은 〈5월〉전이었다. 1989년 이래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열린 5월전은 2002년 광미공의 해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첫 5월전은 광미공 창립전으로 남봉미술관(전일빌딩 3층, 1989.5.3 - 5.9)에서 열렸다. 출품 작가는 총 30명으로, 신경호, 이사범, 최상호, 김재일, 홍성담, 김승평, 박철우, 양향남, 문학렬, 김진수, 남철, 박문종, 곽재경, 안한수, 정선권, 홍성민, 전정호, 이상호, 김해성, 김상선, 조영준,장경철,이준석, 조진호,남궁성, 문용호, 한희원, 백은

297) 원동석, 「우리시대의 걸개그림」, 월간 『예감』 (1991.7월호) ; 정희승, 앞 글, 57쪽에서 재인용.
298) 광미공소식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제2호(1991),18-19쪽.

일, 정용규, 박주하, 나상옥, 김경주였다. 부대행사로 열림 굿과 VTR상영 및 이태호(전남대교수)의 '현 단계 미술운동의 성과와 과제' 라는 제하의 강연(5.5, 가톨릭센터 7층)이 마련되었다.[299] 창립전의 작품경향은 〈청산의 꽃잎처럼〉(이준석), 〈광주 아리랑〉(한희원) 〈5월 어느 날, 통곡〉(나상옥)처럼 5월영령의 진혼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이사범은 〈낫을 가는 아버지〉에서 무등산과 망월묘역, 상여장면, 자식의 관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배경으로 아들의 죽음 앞에 낫을 가는 아버지와 찢긴 성조기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나상옥의 조소작품 〈싸우자 광주여〉 〈땅울림〉도 마찬가지였다.

광미공 5월전(1989-2005)

횟수	전시년도	전시주제	장소	비고
1	1989	창립전	남봉미술관	
2	1990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	남봉미술관	
3	1991	5월에 본 미국	망월묘역	
4	1992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	인재미술관 금남로	목포미술패대반동과 공동주최
5	1993	희망을 위하여	금남로	
6	1994	희망의 무등을 넘어	금남로	
7	1995	5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35인 가해자 얼굴	금남로	시민공동창작
8	1996	우리 하늘 우리 땅	금남로	
9	1997	만인의 얼굴	금남로	작품도난사건
10	1998	아름다운 사람들	금남로	
11	1999	IMF	금남로	
12	2000	생명, 나눔, 공존	가톨릭갤러리 인재 · 궁동미술관	
13	2001	광주, 한라 무등 – 역사의 맥	남도예술회관 제주문예회관	4 · 3교류전
14	2002	상처	남봉미술관	
15	2003	나는 너다	인재미술관	
16	2004	희망의 근거	5 · 18기념문화관	
17	2005	아홉 개의 창	5 · 18기념문화관	

1990년, 광주항쟁 10주년에 열린 제2회 5월전의 슬로건은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전(5.3-19, 남봉미술관)이었다. 부대행사로 원동석과 이태호의 주제 강연이 있었다. 당시 포스터에 실

299) 「창립전 포스터」

린 전시취지문은 아래와 같다.

보수대야합으로 표방되는 파행적 정치구도 속에서 80년 5월항쟁 10주기를 맞는 광주 · 전남미술인공동체 회원들은 90년대라는 산술적 계간의 이면으로 자칫 매몰될 수도 있는 광주항쟁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그 역사적 진실을 냉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묻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인식하고 지난 10년간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 사실들을 축으로 주제를 선정, 그 예술적 형상화를 통하여 현 단계 우리 현실의 좌표를 광주의 시민들과 검증하기를 희망한다.[300]

위 취지문에서 드러나듯, 광주항쟁이후 10년간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작품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광주항쟁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것이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전의 기획의도였다. 전시준비는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회원연수(1.6-7)에서 5월전의 주제를 결정하고, 이후 작품의 소주제(30항) 및 작품크기(200호)를 설정하고 월 2회 이상 주제전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를 추진하였다.(1.10) 주제에 따른 회원 상호간의 의견조정(2.13) 및 슬라이드 상영(2.13, 역사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태호 전남대교수), 밑그림 공동토론(3.11, 조선대학교), 밑그림이 미비된 회원 재조정(3.22)등의 조직적인 노력을 거쳐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전이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시에는 애초 설정된 30개항의 소주제 중에서 총 25개의 주제가 제작 · 출품되었다. 그 주제를 살펴보면, 〈12 · 12사태〉(조진호), 〈서울의 봄〉(이혜숙), 〈5 · 18전야〉(이준석),〈18일 공수부대 투입〉(장경철),〈19일 계엄군의 만행〉(이사범),〈21일 도청 앞〉(문학렬),〈대동세상1〉(김경주), 〈대동세상2〉(하성흡),〈27일 무력진압〉(김재일),〈삼청교육〉(남철),〈미문화원 점거〉(박문종),〈민정당 창당〉(곽재경), 〈이산가족〉(정용규),〈5 · 3인천사건〉(문용호),〈6월항쟁〉(한희원),〈노동자대투쟁〉(서현호),〈86 · 88올림픽〉(진경우),〈조선대 민주화투쟁〉(김도기),〈여의도 농민대회〉(박철우),〈이철규 사건〉(서미라), 〈전교조〉(김진수),〈통일운동〉(조민호),〈문익환 임수경 방북〉(김승평),〈전노협 건설〉(이석원),〈보수대야합과 1990년대의 전망〉(최상호). 작품의 규격은 200호로 통일되었으며, 사건의 흐름에 따라 작품이 배열되었다.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전은 창립전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첫째, 창립전이 개별 작가에 의한 5월의 형상화였다면, 1990년 5월전은 주제선정부터 전시까지 조직적인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쳤다. 둘째, 광주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서 5월광주에 대한 의미를 고양시켰다. 광주항쟁이 신군부의 집권야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1987년 6월항쟁과 통일운동까지 광주항쟁의 역사적 지평을 확대하였다. 특히 잔혹한 진압일변도의 항쟁묘사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민군이 공동체를 이룬 대동세상을 강조함으로써 광주항쟁의 정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셋째, 창

300) 「제2회 5월전 포스터」

작방법에서 기존의 관념적이고 서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서사적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5월광주항쟁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1991년 제3회 5월전은 〈5월에 본 미국〉(5.17-23)전이었다. 전시장소를 실내가 아닌 망월묘역으로 설정하고, 전시초점을 미국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망월묘역이후 1999년까지 5월전은 금남로 거리전으로 개최하게 된다. 한편, 1991년은 분신정국으로 불릴 만큼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301] 5월 4일 광주·전남문화예술인 211명은 〈현 시국에 대한 광주 전남 문화예술인들의 견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폭력통치의 즉시 중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탄압책동 중지, 노태우 정권 즉각 퇴진' 을 주장했다. 문학에서 고규태를 위시한 83명, 연행에서 35명, 음악에서 12명이 서명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술 분야에서는 총 81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302]

이러한 정세 때문인지 〈5월에 본 미국〉에서 미국은 불타고 찢기는 성조기로 표현되었고, 해방이후 민중의 삶을 압박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대형 걸개그림 〈5월전사〉(8×4m,캔버스 천에 아크릴릭)와 광미공 5월조각패의 〈5월부조연작〉이었다. 이준석·이인재·정희승·하성흡이 공동으로 제작한 〈5월전사〉는 중앙에 깃발을 든 여성전사를 배치하고 좌우에 총을 든 남자 2인, 하단에 차에 탄 시민군과 플레카드를 들고 전진하는 인물을 그린 작품이다. 각 인물의 표정이 밝고 낙관적이며, 색채도 산뜻하다. 그러한 작품이 망월묘역 한복판에 걸렸다는 점은 기존의 패배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였음을 의미하였다.

---

301) 4월 26일 전경에 의해 명지대학생 강경대가 구타사망하면서 촉발된 시위는 박승희(전남대학생, 4.29), 김영균(안동대학생, 5.1), 천세용(경원대학생, 5.3), 김기설(전민련 사회부장, 5.8), 윤용하(노동자,5.10), 김철수(보성고등학생, 5.18)가 연이어 분신하였고, 김귀정(성균관대학생, 5.25), 한국원(서울대 대학원생, 9.17) 등이 과징진압으로 사망하였다.

302) 문학 : 고규태 고재종 곽재구 김경옥 김경윤 김기홍 김석중 김선웅 김수남 김수복 김유택 김윤창 김은태 김일식 김준태 김해화 김형수 김호균 김홍곤 김하늬 김희수 나종영 나해철 문병란 문순태 박몽구 박선욱 박원식 박정애 박호재 박혜강 선성기 설재록 성명진 성찬성 손용석 송광룔 송기숙 심향미 심홍섭 양기창 오봉옥 윤기현 윤동훤 윤상화 윤석진 윤정현 이근배 이명한 이봉환 이승철 이종주 이영진 이철송 이학영 이형권 임동확 임영천 임진희 임철우 임혜자 장주섭 장효문 정봉남 정명섭 정양주 정해천 조성국 조성현 조태일 최기중 최두석 최은희 최하림 한상원 한상준 한유진 홍경옥 홍은숙 홍인표 홍처연 홍희담 황지우

미술 : 강남이 강연균 공대근 곽재경 김경주 김계창 김도기 김대성 김명조 김미경 김미선 김상일 김석훈 김선자 김성중 김승평 김원옥 김재일 김진수 김해성 김혜선 김희련 김희상 나상옥 나현실 남철 문용호 문태홍 민해일 문학렬 박광수 박문종 박미경 박미용 박철우 박태규 백은일 서미라 서현호 신경호 안한수 오세호 유근배 유채화 윤상기 이기원 이남석 이사범 이상호 이석원 이영식 이인재 이준석 이태신 이태호 이혜숙 이희철 장경철 장천일 전범수 전병근 전상보 전정호 정미랑 정명휴 정선식 정병우 정순남 정오삼 정용규 정희승 조경자 조병철 조진호 최광순 최귀조 최상호 하성흡 하영생 한희원 허달용 홍성담 홍성민

연행 : 강진희 김도일 김빌립 김선출 김윤기 김은희 김정희 김창준 김태우 김태중 김태훈 두지현 박강의 박효선 박영정 서현희 송은정 송점순 신동호 신정근 양수근 윤만식 윤봉란 이동성 이경진 이용석 이태영 임견이 임해정 정기정 정진모 조인배 주상기 추말숙 한종근

음악 : 김광복 김병훈 김성희 김세진 김원중 김은아 박종주 박종화 박희찬 이세정 정세현 주해찬.



광미공창작단,<5월전사>(1991)

5월조각패의 공동창작인 〈5월부조연작〉은 광주항쟁의 전말을 〈음모〉,〈12 · 12사태〉,〈공수만행1〉,〈공수만행2〉,〈대동세상1〉,〈대동세상2〉,〈무력진압〉,〈5월에서 통일로〉,〈타오르는 5월〉의 아홉 장면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음모〉에서 망월묘역과 희생자의 관을 배경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신군부가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인건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총을 나누어받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광주학살의 배후세력이 미국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부조연작은 입체작품에서 오는 생생한 표현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1995년 광주통일미술제에 다시 출품되었다.

1992년 제4회 5월전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는 목포미술패 대반동과 공동주최로 인재미술관(5.10-5.15) 및 금남로(5.16-5.18)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5월항쟁의 중심지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금남로 야외전은 시민들이 쉽게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전시주제와 장소에서 짐작되듯,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전은 선 · 악의 극단적 대립구도에서 광주민중항쟁을 재단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그러나 실상 변화의 조짐은 1990년부터 있었다. 즉, 광미공은 1990년 가을정기전의 주제를 〈일하는 사람들〉로 결정하면서 민중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1992년 1월에는 〈삶의 현장〉전(1.25-1.30, 인재미술관)을 통해 구체화했던 것이다.[303] 노인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모내기와 추수를 하고〈누가 할꼬 이일을〉(이혜숙),

303) 광주 · 전남미술인공동체는 현실주의 미술을 추구하는 지역미술운동단체입니다. 임신년의 정월에도 우리 민중의 생존권은 여전히 짓밟힌 채 보수 · 독재 권력의 정권다툼 소리만이 요란합니다. 오늘도 수매 못한 쌀가마를 쌓아놓고 한숨짓는 농민, 하루아침에 굴 양식을 망쳐버린 어민, 그리고 삶의 애환들이 가득 찬 도시 서민들에게 저희들

〈농자천하지대본〉(이태신),〈끝도 갓도 없는 삶〉(이사범), 저곡가에 항의하며 나락을 불사르는 〈농민일기〉(안한수)에서 농촌현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것이다.
제5회 5월전 〈희망을 위하여〉(1993) 및 제6회 5월전〈희망의 무등을 넘어〉(1994)에서도 민중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볼 수 있다.

'삶의 조건' 은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삶의 중심' 은 언제고 변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지난 80년대 미술운동의 진원지였던 이곳 금남로 거리에서 사람살이의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다시 되묻는 것이다. (중략) 길이 아닌 길, 방법이 아닌 방법, 대중이 없이 이뤄지는 미술은 결국 한 시대의 호사취미를 만족시키는 치장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304]

위 팜플렛에 의하면, 민중이 '삶의 중심' 이며, 민중과 유리된 미술은 호사취미에 다름 아니라고 5월전의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기획 의도는 출품작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추수 끝난 들녘을 태우는 〈들불〉(김경주), 〈볏단 쌓기〉(김진수), 〈미나리 밭의 오후〉(최진우), 지게를 지고 황소와 함께 〈귀가〉(허달용)하는 농부의 피로에 지친 얼굴, 수몰로 고향을 잃은 노인〈망향초〉(조진호), 〈새참 후〉(안한수), 노인만 남은 시골 〈이 땅을 누가 지키노〉(김상일), 바람찬 바닷가에 홀로 선 늙은 어부를 그린 〈해풍〉(이혜숙) 등을 통해서 피폐한 농·어촌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감원위기에 선 중소기업 노동자들〉(임홍수)과 〈마른바람〉(장경철), 〈낮술〉(조정태), 〈실업〉(김명조), 〈노동〉(문기언), 〈야간열차〉(나현실)에서는 〈한계상황〉(김태희)에 이른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였다. 그밖에도 재개발 〈붉은 깃발이 보이는 발산부락〉(이준석)과 달동네를 오르는 〈언덕에서〉(정희승), 〈달동네의 초저녁〉(최상호), 〈발산동네〉(변재현)에서는 도시빈민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다. 한편 〈금남로〉(천찬욱)와 〈우리 함께 하던 그곳〉(김원옥)에서는 퇴색해가는 광주항쟁의 기억을 더듬고 있다. 이처럼 제5·6회 5월전에서 유독 '희망' 을 강조하고, 작가 개인의 서정적인 정서로 민중의 낮은 삶을 형상화한 이유로 199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이 지역이 지지하던 정치인이 패배한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투쟁에서 민중의 삶으로 전환하려는 저변의 흐름이 〈5월전〉의 방향을 전환시킨 보다 큰 요인이었다.

1995년 일곱 번째 5월전 〈5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35인 가해자 얼굴〉전이 금남로에서 열렸다. 이 전시는 거리에 전시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가해자 35인의 얼굴을 그려가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해당인물을 최대한 닮게 그리거나 또는 풍자와 유머를 가미하는 형식전환을 시도하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작가들도 본격회화작품을 벗어나 훨씬 '경량화' , '이슈화' 시킨 전시구성은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거리전을 훨씬 탄력적이고 풍요롭게 하였다.[305] 제 5 · 6회 전시에서

의 이 미천한 작업들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언제나 민중의 삶과 함께 하는 광미공이 되겠습니다. (「전시팜플렛」)
304) 〈희망을 위하여〉팜플렛 서문
305) 정희승, 앞 글, 56쪽.

민중의 삶에 천착하던 5월전이 다시 5월가해자를 정면으로 겨누게 된 것은 당시 정국에서 비롯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문'을 통해 광주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 심판을 맡기자'는 논리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1995년 8월 15일자로 광주학살 및 내란음모에 대한 헌법상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다. 정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싸고 소용돌이쳤다. 정권에서는 급조된 광주비엔날레의 강행을 통해 광주의 분노를 무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미공에서는 5월전의 주제를 〈5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35인 가해자 얼굴〉전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해에 안티비엔날레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1996년 제8회 5월전〈우리하늘 우리 땅〉전(5.14-19)도 금남로 거리전으로 열렸다. 이에 앞서 1995년 '5·18 특별법'을 제정되면서, 12월 3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반란수괴죄'로 전격 구속되었다. 또한 안티비엔날레로 진행했던 〈95 광주통일미술제〉가 대성황을 거두었다. 그래서인지 이듬해 〈우리하늘 우리 땅〉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는 5월 영령의 해원을 기원하는 작품이 많았다. 이준석은 〈화엄광주1〉에서 무등산 위 구름 속에 광주항쟁의 모습을 담았으며, 정희승은 〈무등의 습작〉에서 무등산의 새해맞이 불놀이를 그렸다. 손주현은 〈북소리〉에서 무등산과 도청분수대를 북소리와 해원을 기원하는 춤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루묵-역사의 심판〉(천찬욱), 〈계엄군의 잔악함〉(김태삼), 〈꽃잎처럼 금남로에〉(하성흡), 〈아직도 총구는 살아있다〉(김정환)의 작품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 통일로〉(김영만)이나 〈망향제〉(안한수), 〈아이야 통일 자장가를 들려주마〉(박하용)에서는 5월광주에서 통일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하늘 우리 땅〉전은 5·18특별법에 대한 감회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정국을 여과 없이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체적인 정서는 〈귀로〉(김태완), 〈남도의 봄〉(조진호)에서 드러나듯 〈다시 시작하는 5월〉(최진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1997년 제9회 5월전의 주제는 〈만인의 얼굴-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5.14-5.19)전이었다. 광주항쟁 때 무참하게 목숨을 잃은 영령의 얼굴초상을 비롯하여, 정치인, 노인, 어린아이 등 다양한 계층과 표정의 얼굴만을 확대해서 그린 독특한 형식의 전시회였다. 그러나 금남로 야외전시로 열린 〈만인의 얼굴〉전은 5월 19일 새벽에 총 700여점의 작품이 도난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1998년은 광미공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광미공에서는 열 번째 5월전〈아름다운 사람들〉전(5.16-19, 금남로)과 함께 창립 10주년 기념 〈다시 보는 5월판화전 - 다시 이 거리에 서면〉(5.13-19, 가톨릭갤러리)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또한 광주전남민족미술 1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부제가 붙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그림』을 펴냈다. 제 10회 5월전 및 판화전의 주제가 〈아름다운 사람들〉과 〈다시 이 거리에 서면〉처럼 다소 낭만적이고 회고적이었던 것은 창립10주년이라는 이유 외에도 김대중 정권이 수립된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1997년 5·18묘지조성과 국가기념일 제정에 이은 정권교체는 광주시민의 감회를 새롭게 했던 것이다.[306] 1999년 〈IMF〉전을 끝으로 〈5

월〉전은 거리전 형식을 마감하였다. 우선 IMF의 여파가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삭감으로 직결되었고, 작품의 구매력이 격감하면서 작가의 작업여건 또한 급속히 악화되었다. 광미공 또한 이러한 추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리전을 더 이상 지탱하기에 버거웠던 것이다.

2000년부터 5월전은 다시 실내공간에서 돌아왔다. 제13회 5월전 〈한라와 무등—역사의 맥〉(2001.5.15-19, 남도예술회관 1층전시실)전은 광미공과 제주도의 탐라미술인협의회(이하 탐미협)의 교류전이었다. 이해 탐미협의 초대로 '오월미술'을 제주도에 선보인데 대한 화답으로 제주의 '사월의 미술'을 광주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307] 이에 따라 기왕의 5월전에 출품된 구작 및 신작, 제주의 〈4 · 3과 미국-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1999년)에 출품된 구작들이 결합하는 전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전시는 광주 5 · 18과 제주 4 · 3을 역사의 맥이라는 관점에서 통찰하는 계기를 관객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작보다는 구작 위주의 전시는 생동감을 주기에 미흡했으며, 이것은 광미공의 활동력이 그만큼 저하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광미공이 주최하는 5월전은 〈생명 · 나눔 · 공존〉전(2001.5, 카톨릭갤러리,궁동갤러리,인재갤러리)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듬해 광미공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5월전은 광주민예총 미술 분과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는데, 기왕의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전에서 5명 내외의 작가가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는 방식으로 전시방향의 전환이 있었다.

라.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의 해체

1988년 창립부터 2002년 해체에 이르는 13년 동안 광미공은 오월미술운동의 견인차였다. 〈폭도들에 의한 불온한 사태〉라는 정권의 공식기억에 맞서 치열한 현실참여미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이 광주의 진실을 인지하는데 적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1970 · 80년에 조성된 민족미술운동의 성과를 운동조직 및 예술조직을 결합한 미술인공동체의 조직형태로 수렴한 사실은 대단한 도전이었다.

1990년대 광주전남지역의 미대학생에게 광미공과 민미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면서도 당연한 졸업 후 진로이었다. 이후 민미련이 해체된 1995년경에는 광미공의 회원이 100여명이 넘을 만큼 역동적인 미술조직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정기전과 연합전, 통일미술제, 걸개그림 및 벽화제작, 겨울미술학교 및 각종 문화선전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렇듯 청년작가들이 쉼 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충원된 청년작가에 힘입어 5월전도 실내를 벗어나 거리에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 비중이 컸던 만큼 광미공의 해체는 전체미술운동진영과 지역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욱

306) 광주시와 5 · 18재단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 5 · 18〉을 제작하였고, KBS에서는 〈개혁실천 특별기획 : 5 · 18 광주민중항쟁〉을 1998년 5월 18일에 방송하였다.

307)〈한라와 무등 - 역사의 맥〉전『전시 팜플렛』

이 광미공의 활동에 가장 열성적인 회원들이 해체결정과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놀랍다.[308] 그렇다면 광미공의 해체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광미공의 경우, 운동이 아닌 행동의 시대에 어울리는 체질변화가 시급했다. 과거의 혁혁한 성취를 내재화하는 작업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결국은 급격히 약화된 자체동력에만 의지해 '좁아진 통로' 속에서 스스로 갇히게 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피로감'을 물리칠 자생의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309]

그러하여 단적으로 광미공 해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극도의 '피로감'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310] 그밖에 1990년대 동구권의 해체, 공동작업과 개인창작 사이의 갈등, 조직적 전망의 부재, 조직내부의 갈등[311]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진단들은 광미공 해체원인을 이해하는 단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체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하기에 아직 시기상조인 듯한 생각도 든다.

광미공의 창립은 1987년 6월항쟁을 전기로 본격화된 미술운동조직의 전국적 연대라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미공 창립의 기본토대는 시각매체연구소와 광주전남목판화연구를 주축으로 한 청년작가들이었다. 따라서 7개월여의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양한 관점들을 통일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과 지분을 지니고, 광미공의 공동회장으로 선임된 홍성담이 이후 광미공의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났다고 여겨진다. 즉, 광미공이 미술인의 공동체적인 운동조직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 채 출범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광미공의 소식지에 의하면, 광미공의 핵심과제는 지역미술운동의 모범창출, 제도권미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미술인의 조직화와 작품의 대중수요창출, 민중운동에 대한 지원에 맞추어져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각 분과활동의 활성화를 제기하고 창작단을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여 광미공은 1995년과 1997년에 광주비엔날레에 맞서 광주통일미술제를 두 차례나 개최하는 등 조직의 역량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5월전을 비롯한 정기전이 연례행사처럼 그 성격이 변화하고, 주문에 따른 걸개그림 등의 제작이 늘어나면서 미술운동의 측면에서 광미공의 성격은 조금씩 약화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이 과정에서 선배회원들은 중견작가로 정체성을 추구해간 반면에, 새롭게 충원된 후배회원들의 경우 그 공백을 감당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갈 여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

308) 정희승, 앞 글, 61쪽.
309) 이세길, 「광미공을 위한 헌사」, 『시민의 소리』(2002.1.29일자).
310) 정희승, 앞 글, 61쪽.
311) 조직내부의 문제란 구체적으로 5·18 조형탑의 건립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이다.

5월거리전과 광주통일미술제 등을 통해 한층 고양된 광미공의 대외적 역할과 위상과 맞물려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민미련의 해체를 정점으로 신입회원들의 충원이 정체되고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그 하중은 더욱 커져갔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진 5·18묘역의 조형탑을 둘러싼 회원 간의 갈등과 반목은 광미공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더욱이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조직이 입은 충격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할 때 터진 IMF 사태는 광미공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즉, 중견작가마저 작품의 판매구조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미처 자신의 작업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광미공의 청년작가들에게 조직적 전망은 어두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당수의 회원이 빠져나가면서 한때 100여명이 넘던 회원수는 해체 당시 50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광미공의 해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아쉽게도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광미공이 민감하지 못한 까닭에 해체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견해에 선뜻 손을 들기가 주저된다. 물론 광미공의 해체에 시대적 상황변화가 일정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해체의 원인은 아닌 듯싶다. 우선 1990년대에 광미공이 민중미술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사회의 모순은 여전히 미결의 숙제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것이 옛 광미공의 작가들 중 적지 않는 수가 민예총 등에서 미술운동에 여전히 가담하고 있으며, 5월전이 지속되는 현실적 토대일 것이다.

광미공은 공동기획 · 공동창작이라는 활동원칙을 줄곧 견지했었다. 이것은 '미술인공동체'라는 광미공의 조직적 전망과도 부합하였다. 그러나 작품창작활동의 속성이 예술가의 개인작업을 그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광미공의 공동창작원칙은 항상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총회와 전시의 기획회의 때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작가로서의 개인적 전망을 유보하고, 일정기간동안 사회와 조직의 당위에 헌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활동한다면 작가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표현도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광미공의 해체는 개인의 창작욕구와 전망이 조직 내에서 수렴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광미공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즉, 작가로서의 개인적 전망을 유보한 채 헌신적으로 미술운동에 복무했지만, 예술적 전망 및 물질적 토대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 미술운동조직의 한계였다. 그 속에서 광미공 역시 능동적으로 변화할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결국 해체에 이르렀던 것이다.

5. 목포지역 미술운동

가. 목포 경제의 쇠락

1897년 개항 이후, 목포는 서남해안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목포를 중심으로 물산이 집적된 데 힘입은 것이다. 1935년엔 전국 6대도시로 급성장했다. 신의주로 이어진 1번국도, 부산까지 연결된 2번국도, 호남선의 기점이 모두 목포였다. 이러한 경제력에 힘입어 목포는 무안통에서 선창으로 연결되는 오거리를 중심으로 근대적 문화시설이 들어섰고,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였다. 해방 직전까지 목포는 사회 · 경제 · 문화의 중심 도시였으며, 노동운동, 농민운동, 사회주의 및 청년단체까지 활력 넘친 도시였다. 이러한 도시 역동성은 해방 직후에도 유지되었다. 전국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목포는 북적거렸다. 1만 여명의 일본인이 귀국했음에도, 1947년 목포의 인구는 125,000여 명을 웃돌았다. 외지에서 유입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목포에는 토착 문화에 대한 보수성보다 개방성이 더 강한 문화적 풍토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목포의 활력은 점차 시들해갔다. 산업경제에 밀려 농·어촌의 경제력이 자생력을 잃어갔다. 도시의 소자본은 중앙의 대자본에 예속화하였고, 만주와 일본을 잇는 개항장으로서 목포의 지위가 상실되면서 목포 경제가 쇠락해갔다. 인구증가율은 정체되고, 오히려 외지유출이 가속화되었다 경제적 침체는 문화예술활동의 토대를 잠식해갔다. 물론, 남농 허건을 중심으로 남종화의 맥이 여전했다. 서양화단에서도 1958년 강홍윤, 구대일, 정승주, 박석규, 양계탁, 김소남 이춘만, 김경희 등 목포출신 미술가들이 '십대전'을 결성하여 국전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전위적 활동도 이어졌다. 특히 문학적 역량은 눈부셨다. 1950년에 조희관, 차재석, 김일로, 이동주, 백두성, 차범석, 천승세, 박정온, 윤삼하, 권일송, 정규남, 최일수, 김유정의 활동은 선구적이었다. 1960년에도 최하림, 김하림, 김지하, 최인훈, 천승준, 김현, 박진환, 원동석 등은 소설과 시, 희곡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 그런데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한 도시 경제의 그늘은 문화예술분야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나. 미술패 대반동

1981년 5월 20일 목포 YMCA 극회 '민회'(민족문화예술연구회, 1981~83)가 창립되었다. 민회 결성은 광주지역의 극단 '광대'에 의해 추동되었다. 광대는 1979년에 전남대학교의 탈춤, 연극, 국악동아리 출신들이 사회문화운동을 펼치고자 광주 YMCA 안에 조직한 극단이었다. 1980년 3월, 광대는 첫 마당극인 '돼지풀이'를 상연했는데, 바로 5·18항쟁이 터졌다. 광대 회원들은 5·18항쟁에서 문화 선전대 역할을 수행했고, 그 여파로 항쟁 이후 조직이 거의 와해될 지경에 이르렀다. 1981년 광대 회원 김빌립은 목포 문태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의 마파람(천영

식, 정현배 등), 목포전문대의 전통극문화연구회((윤건, 김진식, 김광천, 염규삼, 한병윤) 회원에게 탈춤을 가르쳤는데, 이것을 계기로 사회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 극단 '민예' (초대 대표 김빌립, 당시 문태고등학교 교사)를 창립하였다.[312] 같은 해 9월, 민예는 첫 마당극 〈나락놀이〉를 정명여고 강당에서 공연하였다

1982년 12월 13일, 민예는 〈탈춤 강습회〉(12.13~18, 극단 신명 윤정빈 강사)를 개설했다. 수강생 30명이 참가하며 호응을 받았다. 이듬해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민예는 시민미술학교를 개설하였다. '민주예술론, 판화실기, 판화전시회' 의 교육과정으로, 원동석[313], 홍성담, 황석영이 강사로 참여했다. 아직 미술패 조직이 없던 목포였기에, 민예가 개설한 시민미술학교는 목포 지역 미술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1984년 2월에도 탈 공방교실(2.4~9)과 판화교실(2.25)이 개설되었고, 3월 22일부터 성과물을 모아 〈판화, 탈 전시회〉(3.22~23)를 개최하였다. 1985년 1월, 탈춤강습회, 탈 공방, 판화교실을 개설했고, 봉산 탈춤 강습회도 열었다. 그렇지만 1984년부터 민예 활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문화운동의 중심이 학내에 쏠리면서, 민예 활동에 전념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러하여 1985년 3월 26일에 '목포 청년 Y놀이패 갯돌' 이 창립되었다. 이후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갯돌은 YMCA에서 자립해 '놀이패 갯돌' 로, 이듬해엔 '문화패 갯돌' 로, 1989년 12월엔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 과 통합하였다.

한편, 1985년 11월에 목포 YMCA청년부 놀이패 갯돌 미술 분과 창립전인 〈설땅전〉(목포 가톨릭회관, 11.28 ~ 12.2)이 개최되었다. 창립회원으로 박현일, 최연택, 이수영, 김경학, 이방수, 차은희, 김상규, 박득규, 이성일이 참여하였다. 목포 지역 미술운동의 첫발을 갯돌의 미술 분과로서 출발한 것이다. 이듬해 갯돌 미술 분과 화보가 발행되었다. 1986년 5월 갯돌 미술 분과는 홍성담, 이상호, 전정호 3인 판화초대전을 땅 끝 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이듬해 2월, 탈 제작공방을 YMCA강당에 운영하였다. 1988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갯돌 미술 분과는 '제1회 목포시민을 위한 판화교실' 을 YWCA 2층 대강당에 개설하였다. 12월에도 시민미술학교를 개설하여 판화와 미술감상과정을 운영하였다. 1989년 7월 문화패 갯돌은 '목포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문화학교' (7.17 ~ 8. 19, 무안동 갯돌소강당, YMCA)를 개설하여 '탈춤, 풍물, 미술, 문학, 노래, 연극 워크숍' 을 진행하였다.

1990년 1월, 무안동 갯돌 사무실에 시민문화학교와 미술교실(1.13 ~ 25)을 개설하였다. 같은 해 3월 24일,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약칭 목문연) 창립대회가 목포 가톨릭회관에서 열렸다. 이때 목문연

---

312) 갯돌 30년 문화운동 3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갯돌 30 문화운동』, 젊은 느티나무, 2011,151~198쪽. 이하 갯돌과 관련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따로 각주를 달지 않는다.

313) 원동석(본면 원갑희)는 1938년 목포에서 출생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미학을 전공하였다. 1970·80년대를 대표하는 미술평론가로서 민족민중미술의 논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민중미술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80년에는 서울에서 현실과 발언의 창립을 추동하였고, 1985년 민족미술협의회 창립 고문 및 공동대표(1990년), 민족예술인총연합 창립에 참여하고 1992년에는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밖에도 민족미술인협회 대표(1999년), 목포민족미술연구소장(2006년)을 역임하였다. 2005년까지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목포지역의 미술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소설가 황석영은 5·18항쟁 이후 목포에 머물면서 목포의 연극조직인 극단 민예 활동에 관여하며 작품 일부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의 미술 분과로 '미술패 대반동' (이하 대반동)이 결성되었다. 대반동의 창립으로 목포 미술운동은 아마추어 미술운동에서 전문미술운동조직으로 재도약하였다. 대반동은, 갯돌, 어울림 등 목포지역 문화운동단체와 함께 공동 워크숍, 시민문화학교, 전시회, 콘서트 및 무대셋트, 집회용 걸개그림, 미술창작단의 현장지원활동 등 전문미술패로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 대반동은 목포시민회관에서 공연된 마당극 〈어머니의 땅〉(5.19 ~ 20) 걸개그림을 제작하였다. 5월 26일에는 5·18광주민중항쟁 10주년 기념 '다시 오월에' 걸개그림을 제작하여 목포역 광장에 걸었다. 6월엔 마당극 〈달성동 문씨네〉(6.29 ~ 30, 목포시민회관) 걸개그림을 제작했다. 9월에도 노래극 〈이 작은 물방울 모이고 모여〉(목포 MBC) 무대그림을 그렸다. 1991년 2월에 극패 갯돌 지신밟기 만장을 제작하였다. 특히 91년은 분신정국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었다. 대반동 역시 열사 추모 걸개그림을 비롯하여 플래카드 60여개, 장례만장 40여개, 깃발 200여개를 제작하면서 민중미술 미술패로서 제 몫을 감당했다. 5월에 〈분단 시작과 끝점 거리전〉을 목포역 광장과 구도심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그해 6월 전국청년미술제가 '밝은 내일의 깃발들' 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83명의 작가가 사실주의에 입각한 민중 지향적 작품 84점을 출품하였다. 전시는 광주, 서울, 목포, 부산, 마산을 경유하는 순회전 형태였다. 목포전은 8. 22일부터 27일까지 예총화랑, 갯돌마당, MBC 화랑에서 개최되었는데, 대반동의 노력이 컸다. 7월에는 김준권, 유연복, 홍선웅 3인 판화초대전을 갯돌마당 소극장에서 개최하였다. 같은 달, 목포택시노조 임금투쟁 파업 걸개그림을 제작하여 연대 사업을 펼쳤다. 8월에 여름미술학교를 갯돌마당에 개설했다. 통일전(조선대 미술관), 민족미술인대회(장성 전남대 수련장) 등에 참여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암태도소작쟁의전 준비를 위해 암태도를 기행하였다. 11월 민족예술 10년 미술패 대반동 그림마당 전시회를 갯돌마당 소극장에서 열었다. 그밖에도 대반동은 코스모스 노동자 기능학습 현장 지원 사업, 택시노조 깃발 제작, 기독교청년회 걸개그림 작업, 목청 걸개제작, YMCA 판그림, 녹색연구회 판그림 등 현장지원 연대 사업을 펼쳤다. 김경학, 최연택, 이우진, 박선재, 권준홍, 소민우, 허종현, 최종법, 임지훈, 김현정, 박소빈 등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 미술패 '유달산' 과 '돛대' 가 결합하기도 하였다.

1992년 2월에 1992년 시민미술학교 〈일과 놀이전〉(2. 22 ~ 28, 갯돌마당)을 개최하였다. 목문연의 문화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고 그린 그림을 대반동이 전시회 형태로 마련한 것이다. 배은효, 유미영, 황옥진, 유지영, 김진, 원을지, 최광미, 김월승, 김미경이 작가로 참여하였다. 같은 해 4월, 목포 MBC 전시실에서 〈목포의 눈물〉 전시회(4.14 ~ 17)를 개최하였다. 같은 달 29일엔 정태춘 박은옥 초청 콘서트(KBS스포츠홀) 무대그림을 그렸다. 5월에 광미공과 연대하여 오월전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5.10~16 광주 인재미술관, 5.16~18 금남로, 5.20~ 26 갯돌마당전시실)를 공동 주최하였다. 대반동은 〈아! 영산강전〉이란 이름으로 회화 12점, 조소 2점을 출품했는데, 박선재, 이우진, 이성재, 권준홍, 김현정, 안덕훈, 서종연, 최연택, 김경학, 김호원, 배삼수, 임정임, 박성우가 참여하였다. 5월에 5·18항쟁 12주기 걸개그림을 제작하였다. 6월 21일 광미공과 함께 무안의 양파생산지

에서 합동사생회를 하였다. 당시 대반동의 지도위원은 원동석이었다.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여름시민미술학교를 갯돌마당 소극장에 개설하였다. 기초소묘, 미술감상, 판화, 수채화, 수묵화가 교육내용이었다.

1993년 미술패 대반동에서 미술창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월에 5·18항쟁 12주기 기념 걸개그림 〈오랑캐 아리랑〉을 제작하여 목포역 광장에 걸었다. 8월 2일부터 14일까지 여름시민미술학교를 목문연 미술창작단 이름으로 개돌마당 소극장에 개설하였다.

1993년 여름시민미술학교 일정표

일자	내용	강사
8월 2일	오리엔테이션	
3일	미술감상	박성우
4일	소묘 및 조형실습	서종연
5~6일	염색에 대해서	권준홍
7일	야외스케치	
9~10일	판화실습	
11일	작가와의 만남	지역청년작가를 중심으로
12~13일	실크스크린 실습	
14일	뒷풀이	

1994년 3월, 한국민예총 전라남도 지회(지회장 원동석)가 창립되었다. 창립기금마련을 위한 전시가 목포, 순천, 여수에서 열렸는데, 대반동 회원 40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각 문화패가 민예총의 분과로 들어갔는데, 대반동 회원들도 민예총 미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해 10월 환경과 생명전 – 물 한방울 흙 한줌〉(10. 29 ~ 30, 목포 MBC, 목포역 광장, 신안비치호텔)에 박성우, 김경학, 이성재, 이우진, 박선재, 권준홍, 서종연, 최종법 등이 민예총 미술위원회 회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제6장. 대학미술운동(1980~1998)

1. 민족민중미술운동과 대학미술패

1980년대 미술 소집단은 전통판화, 민화, 탱화, 무신도, 풍속화, 장승 등 전통 미술을 걸개그림, 벽화, 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조하였다.[314] 아울러 시민미술학교 등 대중미술교육 및 사회변혁 운동의 과정에서 대학 · 노동조합 · 사회단체 등과 활발한 연대 사업을 펼침으로써 대학의 민화반 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315] 두렁의 '애오개민속미술학교' 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두렁은 전시장과 작가중심의 기존 미술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그러하여 '개방적인 공동작업과 민중과의 협동적 관계' 를 대안으로 제기하고[316] 대중적인 창작과 유통방식을 모색하였다. 두렁의 창작관점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혁신' 이었다.[317] 특히 민화 및 불화의 양식과 대중성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회화에서 서구미술을 극복하고 민중적 사실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판화의 인기도 가히 선풍적이었다.[318] 대학 신문과 교지, 팸플릿, 학교달력 등 어디에서도 판화 삽화가 빠지지 않았다. 대량복제가 가능한 대중성, 민중의 감성에 맞는 간결한 형태와 흑백의 효과,[319] 회화보다 간편한 제작방법과 미완결성의 허용[320] 등 판화는 미술이 대중과 소통하는데 매우 적합한 매체였기 때문이다. 대중의 판화에 대한 뜨거운 호응은 미술 소집단이 미술운동의 차원에서 판화보급운동을 전개한데 따른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광주시민미술학교, 명동성당 청년미술학교, 성남

---

314) 김준기, 앞 논문, 44쪽.
315) 최석태, 앞 논문, 74쪽,이영철,「80년대 민족 · 민중미술의 전개와 현실주의」,『가나아트』11 · 12월호, 1989, 85쪽. 최열, 앞 책, 199쪽.
316) 두렁, 「산그림을 위하여」,『산그림』,두렁, 1983, 최열, 앞 책, 202쪽에서 재인용.
317) 김준기, 앞 논문, 27쪽.
318) 이태호, 같은 논문, 90쪽.
319) 이태호, 「1980년대 미술운동의 성장과 목판화」, 앞 책, 90쪽.
320) 홍성담, 「시민미술학교 보고서」, 앞 책, 302-303쪽.

YMCA 시민판화학교 등 판화강습회는 대중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판화교습에 대한 열기는 곧 대학가에서 판화반 유행으로 이어졌다.[321]

1983년을 전후해서 대학에 민화반, 판화반 등 미술운동 동아리(이하 미술패)가 조직되기 시작했다.[322] 조선대와 전남대의 미대에 민화반을 비롯하여,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 원광대학교의 미대에 민중미술반, 민화반, 민속미술반, 판화반 등이 결성되었다.[323] 이들은 미술대학의 비민주적 풍토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또한 제3세계의 민중미술과 사회주의 미술이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차츰 인식해갔다. 그러나 아직 독자적인 미술운동조직을 형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탈춤반이나 놀이패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324] 1984년부터는 미대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이 조직한 미술패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역시 민화반, 판화반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 대학미술패 현황

지역	대학미술패	연합체
서울 경기지역	서울대(에루화), 홍익대(댕기패), 이대(예사당), 추계예대(날화) 덕성여대(거레그림터),서울여대(화인터),동국대(뚝심),경희대(쪽빛) 한성대(유채꽃), 성신여대미술패, 동덕여대미술패, 경기대(경기그림패), 중앙대(한솔)	청년미술공동체,87 서울미술학생미술패연합 서울미술대학학생회연합,87
충청지역	서원대(들풀), 충북대(걸개),충남대(어깨동무),목원대(얼)] 한남대(그림마당),배재대(전통민예연구회),공주사대(터잽이)	
호남지역	조선대(미술패건설준비위원회 84, 시각매체연구회 85~86, 땅끝 86~88,개땅쇠 88~94, 조선미술터 91~94) 전남대(민화반80~84, 토말 82~84, 판화반 85~86, 불나비 86~87,마당 88~94, 신바람 88~93, 참교육민족미술연구 회 90~94.전남대학교학내미술운동연합91~94,우리미술연 구회판93~97) 호남대(민족민중미술패 매 87~98, 미술사랑 매 98~2005)	광주전남미술패연합 88~94 전북지역청년미술공동체,88

321) 홍성담, 「민족미술운동의 실천적 과제」, 『오월에서 통일로』, 풀빛, 1990, 281쪽.
322) 이태호, 앞 책, 25쪽.
323) 이하 미술 동아리에 관한 설명은(최열, 앞 책, 213-215쪽)을 참고하였다.
324) 70년대에 탈춤반에서 활동한 미술대학생들이 모여 결성한 두렁의 경우가 그러하다. 최석태, 앞 논문, 74쪽.

1980년대 대학미술패 현황

지역	대학미술패	연합체
호남지역	광주교대(솟터 88~94) 광주대(불꽃) 동신대(신새벽) 서강전문대(한울타리 88~?) 목포대(유달산, 민족민중미술패 돛대, 90~92) 목포과학대(미술동아리 民, 90~?) 순천대(신명) 전북대(푸른나무,85,길라잡이,바랑) 전주대(쥐불,86) 군산대(두레,88) 우석대(그림사랑,87) 전주교대(도랑이), 원광대(땅,83. 너와 나)	광주전남미술패연합 88~94 전북지역청년미술공동체,88
영남지역	부산여대(우리그림패,87),부산산업대(실천미술,87), 부산공업대(그림마당 씨알,87),부산대(산그림,87), 경성대(소나무, 흙가슴), 경북대(한울), 동아대(열린그림마당,87), 계명대(한울,87),영남대(가래,87),경북대(결,87), 효성여대미술동아리(87)	부산지역대학미술패협의회
강원지역	강원대(한화사랑)	
제주지역	제주대(칼그림패, 거욱대)	ᄇᆞ람코지

이와 같이 1980년대 대학 미술패가 소집단 미술운동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특히 일반대학생이 결성한 미술패의 경우가 더 그러하였다. 이들에게는 예술가로서의 고민보다는 학생변혁운동에 미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큰 관심거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생운동과 결합해서 창작·선전활동을 몰두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미대생들은 전업 작가의 전망과 개인의 작품세계 구축에 매몰되어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전반기 학생미술운동에서 미술대학생의 역할은 학내 미술패에 비해 뒤질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항쟁은 학생미술운동발전의 분수령이었다. 이 해 7월 20일, 서울에서는 8개 대학미술패가 연대하여 청년미술공동체(이하 청미공)를 창립하였다.[325] 청미공의 조직체계는 전체총회, 대표, 부대표, 대표자 회의(각 대학 미술패 대표로 구성), 편집부, 풍물패로 구성되었다. 창립선언문에서 청미공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미술현실을 변혁' 하고, '사회적 정치적 현실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였다.[326] 같은 해 10월에는 〈청년미술의 소리전〉을 순회전으로 개최하고, 기관지 『청맥』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987년 대선투쟁, 통일염원전 및 올림픽 미술전 저지투쟁, 미술대학 민주화투쟁, 조국통일촉진투쟁, 북한미술바로알기운동, 청년미대 여름한마당 등 왕성한 정치선전활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거국내각쟁취대회에 쓴 〈사천만의 대동단결〉(1987)을 비롯하여[327] 〈6월항쟁도〉〈통일염원도〉〈한미관계도〉〈민족문화도〉등의 걸개그림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328] 또한, 1988년 7월에 서울지역 11개 대학이 참여한 '청년미대여름한마당준비위원회' 를 모태로 조직된 서울경인지역미술대학학생회연합건설준비위원회는 같은 해 8월부터 '통일염원전' 을 개최하면서 '북한미술 바로 알기운동' 과 '미대혁신운동' 을 전개하였다.

1988년 전북에서도 학생미술패가 사회미술단체인 겨레미술연구소와 연대하여 전북청년미술공동체(이하 전미공)를 창립하였다.[329] 전미공은 '집단적 실천 작업', '정치적 의식각성과 집단주제토론을 통한 예술론 교양', '매시기 선전선동시각매체 작업' 등의 사업방침을 밝히고, 대학벽화운동을 연대 사업으로 추진하였다.[330] 같은 해 광주·전남지역에는 '전남광주지역 대학미술패연합' (이하 남미연)이 결성되었다. 조선대학교 미술패 개땅쇠를 위시하여 전남대(마당, 신바람), 호남대(매), 광주교대(솟터)등이 참여하였다. 남미연은 기존 미술패의 활동이 대학 내에 고립되었음을 비판하고, 지역적 연대 및 현장단위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하여 〈군부독재 끝장내자〉(광주교대,1999), 조선대학교 이돈명 총장 취임식에 사용된 걸개그림과 각종 시각매체제작 등 각종 연대 사업을 전개하였고, 매 시기 시각매체연구소 등과 연대 사업을 펼쳐나갔다. 제주지역에서는 1989년 제주대학교 판화

325) 창립당시 서울여대(열린공간), 중앙대(한솔), 추계예대(날화), 서울대(에루화), 홍익대(댕기패),덕성여대(겨레그림터), 이대(예사당), 경기대 그림패가 참여하였다. (최열, 앞 책, 285쪽)
326) 청년미술인공동체, 「창립선언문」,1987
327) 이태호, 「80년대 현장미술의 발전과 걸개그림」,『가나아트』11·12월호, 1989, 95쪽.
328) 최열, 앞 책, 286쪽.
329) 전주대(쥐불), 우석대(그림사랑),군산대(두레),전북대(푸른나무) 등이 참여하였다.
330) 전북대학교 벽화 '척왜양이' 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반 칼그림패와 거욱대가 민중미술패인 ᄇᆞ람코지와 결합하여 제주 4·3항쟁을 기리는 '4월 미술제'를 개최하였다.[331] 이처럼 87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과 호남지역에서는 대학미술패연합조직의 결성과 연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걸개그림과 벽화, 포스터, 각종 선전매체의 제작에서 대학미술패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북한미술바로알기 등 통일운동에서도 대학미술패의 역할은 선구적이었다.

한편, 1988년 10월, 전남광주지역미술패연합건준위, 부산과 대구의 학생미술패준비모임, 서울청년미술공동체 등의 학생미술운동조직은 겨레미술연구소, 시각매체연구소, 미술운동집단 가는 패, 대구민중문화운동연합 미술 분과, 부산미술운동연구소, 전북청년미술공동체와 더불어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이하 민미련건준위) 구성에 합의하였다.[332] 이들은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 및 반핵평화'를 조직의 일반과제로, '민족자주미술의 건설'을 기본과제로 결정하였다. 특히 민미련건준위는 대학미술운동역량을 고유의 성격과 지위 임무를 갖는 변혁미술운동의 주력군으로 평가하고,[333] '학생미술운동의 전국적인 연대틀 건설'에 관한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89년 2월 전국대학미술패 대표자 회의에서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전승일,민해조,김동욱, 이하 학미련)가 결성되었다. 이후 학미련은 사안에 따라 민미련과 연대 사업을 펼쳐나갔는데, 특히 민미련 건준위 6개 지역의 미술단체와 학민련 산하 30여개 대학미술패가 연대하여 제작한 〈민족해방운동사〉(1989)이 그러하였다.[334]

2. 전남대학교 미술패 : 민화반, 판화반, 불나비, 마당, 신바람,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우리미술연구회 판

가. 민화반(1981~1984)[335]

1980년 초, '서울의 봄'정국이 조성되었다. 전국의 대학가에서 민주총학생회 건설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박관현(법대 행정학과 3년)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때 홍성민(사범대학 미술교육과 1년)이 선거홍보물 제작참여를 계기로 민주총학생회에 참여하였다. 그는 같은 과 동기인 박광수와 함께 탈춤반에 가입했는데, 탈춤반은 전남대의 대표적인 반정부이념서클 중 하나였다.

---

331) 박경훈,「미술이 만난 역사-제주 4·3미술운동의 역사와 현재」,『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역사비평사, 2004, 182쪽.
332) 최열, 앞 책, 306쪽.
333) 최열, 앞 책, 309쪽.
334) 이태호, 앞 논문, 98쪽.
335) 현재 확인된 민화반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광수, 홍성민, 양회림, 박금란, 전상보 ,한정화.

그 해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사범대학 축제인 '사향축제'가 열렸다.[336] 축제 마지막 날, 사범대생들이 대강당 앞에 집결하여 교문돌파를 시도했다.[337] 체육교육과 학생 200여명을 별동대 8개조로 나누어 미리 정문과 후문 밖에 배치한 후, 여학생을 앞세워 정문에서 전경과 대치하였다. 이때 전경 후미의 별동대가 시위를 벌이자 전경들의 대치선이 와해되었고, 정문이 돌파되었다. 시위대는 유동 3거리를 거쳐 도청분수대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곧이어 5월 15일에 사범대학교 남학생 1진이 31사단에 병영입소를 하였다.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국어교육과, 국사교육과 등 200명 내외였다. 그러나 17일부터 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헬리콥터, 장갑차, 트럭 등이 부대를 들락거렸다. 21일 자정 경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강당(충무관)에 집결하라는 지시가 입소생에게 내렸다. 당시 사령관 정웅 소장이 직접 "광주시가 매우 심각하다. 전남대 중심으로 촉발되었다. 무정부 상태이다. 무사히 집에 돌아가라"라는 요지의 당부를 했고, 학생들은 곧장 군용트럭에 실려 전남대 후문에 하차되었다. 홍성민 등 입소학생들은 거리에 나붙은 대자보를 통해 계엄확대사실과 휴교령을 알게 되었다.

1980년 대학입학과 동시에 민주총학생회 건설투쟁 참여, 도청진출, 5·18의 체험은 홍성민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5·18항쟁의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책무를 느꼈고, 자신의 전공인 미술을 통한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러하여 1981년 5월에 전남대에 '민화반'(1981-1984)을 결성하였다. 5·18항쟁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대학미술패였다. 대외보안문제에 대처하고, 우리문화의 전통을 근간으로 한 민족민중미술운동을 전개하고자 '민화반'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민화반은 '군부독재타도와 5·18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선전 시각물 제작' 을 목표로 삼고, 지하 서클로 운영되었다. 창립회원인 홍성민, 박광수, 양회림(1년)은 모두 미술교육과 학생이었다.

홍성민과 박광수는 1981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이하 광자협, 1980-1983)에 가입하였다. 광자협은, 1980년 7월에 창립된, 지방 최초의 민중미술운동단체였다.[338] 그러나 1982년 봄부터 광자협을 주도하던 홍성담이 당국에 의해 불온작가로 지목되어 내사를 받고, 작품들이 탈취당한 사건이 이어졌다. 또한 조선대학교 학생이 『한국근대사회미술론』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책을 탈취하고

336) 이하 민화반에 대한 내용까지 홍성민의 구술(2009. 8. 4)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337) 당시 축제 마지막 날 교문돌파시도는 보통 있는 일이었다.

338) 광자협은 사회의 변혁을 위해 '격렬한 형상방법'을 채택하고, 5•18항쟁에 직접 가담했으며, 항쟁 직후인 7월에 야외에서 5•18 씻김굿을 감행할 정도로 의식수준과 단결력이 남달랐다. 회원들은 창작활동과 함께 학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당시 광자협의 학습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예술(미술)론 일반 ; 하우저,『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싱클레어,『힘의 예술』, 베크만, 『내 그림에 대하여』, 벤샨, 『한 그림의 전기』, 벤야민,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르트르, 『예술가와 양심』, 제들 마이어,『데미우그로스 시대의 예술』, 김윤수,『20세기 예술과 사회배경』, 김윤수,『예술과 소외』 2. 한국미술 : 원동석, 「추상미술의 외세주의」, 김윤수, 「한국추상미술의 반성」, 원동석, 「민족주의 예술의 이념」, 원동석.「미술의 민중적 정서회복」, 「미술의 사회적 기능」, 원동석,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선전의 잔재와 극복」,『미술과 생활』, 박용숙,『식민지 시대 미학비판』, 김윤수,『한국현대회화사』, 『계간미술』, 『미술과 생활』, 3. 사회경제 : 이영희,『전환시대의 논리』, 박현채 외,『한국노동문제의 구조』, 이우재 외,『한국농업문제의 인식』 4. 제3세계 : 박현채 외,『제3세계의 이해』(시각매체연구소,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 조직사-상」, 「미술운동』,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1990.11, 100쪽)

보안사에 제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339] 광자협은 모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내부 논의 끝에 홍성민과 박광수는 광자협 활동을 잠정 중단하였다. 대신 학내미술패에 역량을 주력하기로 하였다.

1982년부터 민화반은 제법 활기를 띠게 되었다. 민족민중미술학습, 게릴라 선전물 제작, 대자보 작성, 피켓, 플랫카드, 만화 등 시위에 필요한 각종 선전홍보물을 제작 등이 주된 활동이었다. 1983년에 홍성민, 박광수 등이 광자협이 주관한 '시민미술학교'의 강사로 참여하는 등 광자협과 협력관계도 지속되었다. 이듬해 민화반은 학내 정식동아리로 등록하였다. 양회림(4년)을 중심으로 박금란(미교과 2년), 전상보, 한정화(미교과 1년) 등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85년에 판화반으로 개칭되면서 민화반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나. 미술패 '土末'(1981~1984)[340]

홍성민, 박광수, 양회림은 민화반과 별도로 학내 미술운동을 확산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미술패 '土末'이 창립되었다. 땅 끝의 한자어, 반도의 육지 끝인 해남 땅 끝의 고유지명을 미술패 명칭으로 차용하였다. 토말은 구체적인 강령을 내세우고 학습체제를 갖춤으로써 민화반보다 발전된 미술운동조직의 면모를 갖추었다.[341] 학습은 이론과 답사를 병행했다. 학습은 홍성민의 주도로, 민족민중미술의 연원에 대한 탐구(민화, 불화, 무속화, 고분벽화, 석불, 민불), 예술론(루카치, 아도르노, 레닌, 모택동, 노신 등), 인문학(『해방 전후사의 인식』), 제3세계미술론 등을 공부하였다. 광자협의 학습체계와 유사하였다. 이후 조선대학교의 김상선이 학습에 참여하고, 목포대 및 원광대와 전시를 함께 기획하면서, 토말은 지역미술운동조직으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82년 7월 토말과 문학패 '젊은 벗들'은 〈오월 '그림시전'〉(광주투자신탁지하전시장)을 공동개최하였다. 전남대의 박광수와 홍성민, 조선대의 변재호, 정광훈 등 토말 회원 5인의 그림 및 '젊은 벗들'의 시 30여점이 출품되었다. 〈오월시전〉의 기획 의도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와 미술의 만남을 통해서 5·18에 대한 우리 시대의 문화역량을 표출하려는' 것이었다. 토말과 젊은 벗들은 미술과 시의 만남을 '잠재적 신명'으로 여겼다. 미술과 문학을 장르의 문제가 아닌, 민중의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의 지평으로 파악하였다.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에서 '공동체론'과 함께 제기된 '신명론'을 수용한 것이다.[342] 시민들은 뜨거운 관심으로 전시회에 호응하였다.

---

339) 시각매체연구소, 같은 책, 101쪽.

340) 현재 확인된 토말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광수 홍성민, 양회림(이상 전남대), 김상선, 변재호, 정광훈(이상 조선대), 정종신(목포대), 송만규(원광대)

341) 〈 '토말미술패의 강령적 선언' 〉1.우리가 지금 규명해 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 삶이 담겨진 문화의 본질인 것이다. 생생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담긴 본질을 어떻게 추출하여 표현해 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2.우리는 먼저 고통과 슬픔의 이메지를 품고서, 거기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올 행위들을 끌어 모으기로 한다. 이를테면 화폭 앞에서 고독하게 한 시대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 온 자신에 대한 창조적 반성이자 그에 대한 또 다른 예술적 계기를 가지려는 것이다. 3.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무책임하고 자위적인 것이 아니라, 감히 역사에 던지는 물음이 되기를 바라고 싶은 것이다.

1983년 12월 홍성민과 박광수가 2개월에 걸쳐 〈민중의 싸움—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천에 수성안료, 2.4×14m)를 완성하였다. 1984년 〈광주문화큰잔치〉의 휑한 무대를 장식하고 행사분위기를 고양하려는 목적에서 제작했는데, 최초의 집회행사용 민중미술 걸개그림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343] 이 작품은 1980년대 정국을, 미국 · 일본의 외세, 외세의 앞잡이 군부독재정권 대 민중의 싸움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화면 좌측에는 민중을 상징하는 당산나무, 5·18항쟁, 동학농민전쟁장면을 배치하고 화면 우측에 미국의 천민자본문화를 대비시켰다. 화면 중앙에는 운주사의 와불 및 금강역사상을 등장시켜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홍성민, 박광수, 〈민중의 싸움_이 풍진세상을 만났으니〉

〈민중의 싸움〉은 민화반 및 미술패 토말 활동에서 축적된 미술운동의 역량을 걸개그림으로 집약시킨 소중한 성과이다.[344] 이후 〈해방 40년 역사전〉(1984)에 출품되어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지로 순회 전시되었고,[345] 광주지역의 각종 집회 및 행사의 무대그림으로 사용되었다. 1985년 〈광주문화큰잔치〉때 경찰이 난입하면서 압수 · 망실되었지만, 〈민중미술 15년 전〉(국립현대미술관, 1994)에 축소 · 복원(8×1.6m)되어 전시되었다.

1984년 3 · 4월에 "초토화된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갖는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삶의 의미전〉(3.13-18, 광주 학생회관 전시실 /3.23-26, 익산 동아백화점 전시실)이 열렸다. (그림 2) 홍성민·박광수(전남대, 토말 회원), 송만규(원광대, '땅' 회원), 변재호(조선대, 토말 회원), 김상선(조선대), 정종신(목포대) 등 각 대학 미술패의 졸업예정자들이 사회미술인으로 첫 출발의 의미를 부여하며 준비한 기획전이었다. 부대행사로 원동석(모더니즘 미술의 반성),최민화(젊은 세대의 역할과 기능), 홍선웅(미술가의 역사의식), 최열(젊의 세대의 새로운 세계상)의 초대세미나가 병행되었다.[346]

---

342) 최열,「한국현대 미학의 제 문제-80년대 민중예술론을 중심으로」,『미술운동』제6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1990. 11. 78-80쪽. 신명론은 '공동체적 신명론'과 '전투적 신명론'으로 구분된다.

343) 이태호,『우리시대 우리미술』, 풀빛, 1991, 33쪽.

344) 작품의 구상과정에서 최열의 이론적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홍성민 구술)

345) 〈해방40년 역사전〉(광주 아카데미미술관 외, 8.24-30 / 전남대 교정, 9.14-16 / 대구 현대미술관, 9.17-23 / 부산 가톨릭센타, 11.1-6 / 마산 이조화랑, 11.15-21 / 서울 연세대 도서관 앞, 11.26-28 외 여러 곳을 순회 전시함 : 민정기, 손상기, 신학철, 오윤, 이철량, 전준엽, 진경우, 황재형, 홍성담, 조진호, 홍선웅, 이태호, 천광호, 최정현, 황효창, 문영태, 이근표, 김용태, 최민화, 안창홍, 김진술, 송만규, 박광수, 강행원, 손장섭, 이종구, 신산옥, 이철수, 이홍원, 강요배, 박건, 노원희, 여운, 박석규, 박재동, 홍성민, 두렁, 토말)

이 무렵 전국적으로 민중의 삶을 주제로 한 민중미술소집단의 기획전이 활발했다.[347] 작품에 민중의 삶을 투영하려는 시대의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던 시기였다. 〈삶의 의미전〉에서 막 사회를 내딛는 미술패도 마찬가지였다.[348] 특히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원광대의 미술패 회원들이 함께 민중의 현실을 응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삶의 의미전〉은 향후 대학미술운동의 지향점을 예감케 하였다.

다. 판화반(1985~1986)[349]

1985년에 일반 학생도 참여가 가능한 미술패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학교미술운동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서클에 대한 필요성도 컸다. 당시 판화에 대한 높은 대중성을 수용함으로써 미술패의 외연을 확대하자는데 뜻이 모아졌다. 민화반을 판화반으로 개칭하였다. 미술전공자가 아닌 일반학생까지 망라한 미술서클로서 면모를 일신하였다.[350] 전상보(회장, 미술교육과 84학번), 정란희(미술교육과 83학번), 이승규, 정현주, 한정화(이상 미술교육과 84학번), 최석채(미술학과 84학번) 등 미술전공자 외에도, 농대 농생물학과(성명 미상, 83학번), 인문대 국문과(성명미상, 84학번) 등 비전공자들도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민화반에서 판화반으로 개칭은 민중미술운동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판화의 유행은 선풍적이었다.[351] 일단 판화는 초보자가 배우기에 유화나 수묵화보다 손쉬웠다. 흑백의 간결한 색감과 다량복제가 가능해서 대중성도 높았다.[352]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야했던 민중의 감성을 표현하는 판화의 날선 칼 맛이 통쾌했다.[353] 그러하여 대학신문, 팸플릿, 교지, 선전깃발, 달력, 옷, 기념품,

---

346) 「삶의 의미전」 팸플릿, 1984.

347) 두렁 〈판화달력〉발간(실천문학사) / 〈토해내기전〉(서울 관훈미술관, 2.22-28 : 박불똥, 박영율, 안종호 외)〈삶의 미술전〉(서울 관훈미술관, 제3미술관, 아랍문화회관, 6.5-12)/〈제5회 현실과 발언전-6.25〉(서울 제3미술관, 6.26-7.1) / 〈거대한 뿌리전〉(서울 한강미술관, 6.30-7.30 : 정복수, 장경호, 신학철, 김진열 외) / 〈시대정신전〉(부산 맥화랑, 7.21-31 / 마산 이조화랑, 8.4-11 / 대구 수화랑, 8.15-22 : 김민숙, 김영수, 김정헌, 문영태, 민정기, 박건, 박불똥. 서상환, 신학철, 안창홍, 오윤, 임옥상, 전준엽, 최민식, 최민화, 황재형 외)/ 〈제2회 강패전-부산, 그 주변〉(부산 유화랑, 10.25-31 : 박정희, 하대수, 홍순명 외 6인) / 〈제3회 임술년전〉(서울 백상기념관, 11.1-7) /〈푸른 깃발 창립전〉(서울 한강미술관, 11.10-30 : 김부자, 김진수, 김진하, 김환영, 박불똥, 이남수, 정복수, 홍황기 외 9인)

348) '나의 작품이 나의 생과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는 믿음'(김상선), '대상과 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실천함으로써 진실을 토해내야 할 것'(박광수), '이 시대의 땀을 온 몸에 적셔가면서 현시대의 흔적을 화폭에 채워 보고픈 생각'(변재호), '삶의 현장에서 쏟아지는 의미들을 건강하게 그려냈으면 좋겠다'(송만규), '나 하나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보다는 이 민족의 삶의 즐거움이 더 값지고 중요하리'(정종신), '이 시대에 미술이 미술이기를 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산해내며, 함께 사는 존재라는 데서 출발한다면'(홍성민) 등의 팸플릿에 실린 작업일지는 80년대 전반 청년미술인의 고뇌와 지향을 짐작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삶의 의미전 기획위원회, 「삶의 의미전」 팸플릿, 1984, 1쪽.

349) 현재 확인된 판화반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상보, 정란희, 이승규, 정현주, 한정호, 최석채, 기세홍, 김병하, 이차영, 이귀님.

350) 이하 판화반에 대한 서술은 전상보의 구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51) 배종민,「광주시민미술학교의 개설과 5·18항쟁의 대항기억 형성」,『호남문화연구』제41호, 2007,109쪽.

352) 이태호, 앞의 책, 90~91쪽.

353) 1980년대 판화작업이 민족형식과 민중투쟁의 도구로서 각광받은 한 이유이다.

목판글씨체 등 판화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수많은 대학에서 판화반이 결성되었다. 조선대학교처럼 대동제 기간에 판화전을 개최한 대학도 적지 않았다. 사회 각처에서 판화강좌와 전시회가 유행하였다.[354] 광주에서도 홍성담, 김경주, 이준석, 정희승 등 미술패 출신 작가들이 민중목판화운동에 매진했다. 판화는 마치 80년대 문화 아이콘과 같았다. 대학미술패가 판화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 상황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판화반을 꺼렸다. 한동안 지도교수를 맡겠다는 교수가 없어 정식동아리로 등록하지 못할 정도였다.[355]

판화반의 주요 활동은 창작과 전시, 학습, 선전홍보물 제작 등이었다. 교내집회 및 가두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집회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했다. 학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방과 후에 동아리방에서 공부했다. 주말에는 회원의 자취방을 쓰기도 했고, 방학 때는 1~2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강독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선전홍보물은 총학생회의 투쟁일정에 맞춰서 제작하였다. 집회용 깃발, 플래카드, 대자보 등이 주류였으며, 판화기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전시도 활발했는데, 특히 판〈망월동 비석 탁본전시〉(전남대 5·18광장)는 호응이 대단했다. 회원들이 망월동 민주묘역의 묘비를 일일이 탁본해서 전시한 것인데, 흑과 백의 선명한 탁본은 집회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학내에 난입한 경찰들에 의해 탁본이 탈취 · 망실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판화반의 위상은 학내동아리 중 탈출반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생문예운동의 구심으로 성장해갔다.

판화반의 높은 강도의 집회참여와 학습량, 지속적인 기관의 감시와 탄압은 회원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예컨대 4·19기념행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간부들과 판화반 회원들이 숙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형사들에게 강제 연행된 일도 있었다.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깃발제작을 끝내고 막 철수했는데 신나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형사들 10여명이 작업실을 급습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탄압에 따른 부담감이 힘겨워서 판화반을 탈퇴하는 회원도 많았다.

라. 미술패 '불나비'(1986~1988)[356]

1986년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사회구성체 논쟁이 격화되었다.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와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가 대립하였고, 전자는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로 후자는 PD(민중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3월에 서울대학교에서 반전반핵평화옹호투쟁위원회(반전반핵투위)가 결성되고 "반전반핵 양키고 홈" "친미독재 타도하고 미 제국주의 몰아내자"라는

354) 〈시민미술학교 수강생과 시대정신 구성원들의 작품을 모은 민중시대의 판화전〉(서울 한마당화랑, 1985. 3.1-14 / 광주 아카데미미술관, 3.20-26 / 마산 이조화랑, 4.25-30)

355) 당시 학생처장이던 이돈주 교수가 전상보 회장과 면담과정에서 '너무 세게 활동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면 지도교수를 섭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356) 현재 확인된 불나비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상보, 정란희, 이승규, 정현주, 한정호, 최석채, 기세홍, 김병하, 이차영, 이귀님, 최영길, 방승조, 유병윤, 정찬숙, 김현희, 정윤기.

구호가 대학가를 휩쓸었다. 4월 28일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연좌시위 중이던 서울대 이재호, 김세진 학생이 경찰의 진압에 항거하여 분신 사망하였다. 인천에서는 신민당의 개헌추진위 현판식을 계기로 5·3시위가 전개되었다.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자민투 계열의 학생들이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을 열자 전두환 정권은 1,290명의 학생을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애학투사건은 과도한 선도투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대중과 함께 하는 투쟁이 지지를 받으면서 자민투 계열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1986년 전반기에 미술패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민화반, 토말, 판화반이 모두 해체되는 일시 공백상태가 발생하였다. 10월, 총학생회의 협력과 전상보(미술교육과 3년, 판화반 초대회장) 최석채(미술학과 84학번, 88학년도 총학생회 문화부장) 등의 노력으로 '미술패 불나비'(이하 불나비)가 창건되었다.[357] 창립회원으로 최영길(초대회장, 미술학과 86학번), 나현실(미술학과 86), 이차영(2대회장), 구선하, 정순남(이상 미술교육과 86학번) 등이 가입하였다. 동아리방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358], 이듬해에 기세홍, 김병하, 이귀님(이상 미술교육과 87학번)등 향후 대학미술패의 핵심주역들이 들어오면서 불나비의 활동은 본격화되었다.

불나비는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미술선전대, 대중과 함께 하는 미술'을 표방하였다. 총학생회의 투쟁노선과 미술패 활동의 궤를 같이 했다. 이것은 미술패의 주체적 역량과 학내의 여건을 고려했다기보다, 전국적인 대학 문예운동의 공통된 추세가 그랬다. 따라서 '미술선전대'와 '대중과 함께 하는 미술'의 병행에 대한 고민이 불나비의 창립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활동의 중심은 전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정세였다.

1987년 4·13호헌조치 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12월 대통령 선거 등 민주화투쟁이 고양되면서 미술선전물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정치투쟁의 매시기마다 불나비는 미술선전대로서 선전물 제작에 역량을 총 매진해야 했다. 각종 깃발, 만장, 플랫카드, 판화 등의 미술선전물, 대동제의 걸개그림을 비롯한 무대설치, 시각매체 선전물의 제작도 대부분 불나비가 감당하였다. 그밖에도 각종 전시회, 교지『용봉』의 만평 및 만화까지 진행해야 했다. 대중미술운동을 병행할 여력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1, 2학년 위주로 구성된 불나비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먼저 탄탄한 역량을 지녔던 대학 문화패와 연대활동이 주요했다고 생각된다. 불나비는 '문학패용봉문학', '사진영상패 아리랑', '민족문화 탈패', '노래패 햇소리'와 함께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연대활동을 펼쳤다. 문화패의 일원으로서 문화운동에 대한 학습과 정기적인 문화패 모임을 통해 불나비는 문예운동의 관점과 역량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 당시 미술운동이 활성화된 영향도 컸을 것이다. 1986년부터 민족미술협의회의 활동

---

357) 1986년 10월 "예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소수 특정인들만의 소유가 되어왔던 기존의 제도권 미술활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올바른 문화매체로서 미술의 자리매김을 위해 꺽다리와 뚱순이 셋, 합이 넷이 모여 대가리 싸매고 고민 끝에 불나비를 창건했다.『남미연』창간호, 1989.3, 14쪽.

358) 1987년에 제2학생회관 4층 404호에 동아리방을 마련하였다.

이 본격화되었다.[359] 미술교육을 위한 교사모임도 만들어졌다. '광주시각매체연구소'는 대학미술패와 깊은 연계를 맺으며 사업을 수행하였다.[360] 이러한 분위기가 불나비를 고무하고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예컨대 불나비의 1987년 5월제 걸개그림은 홍성민의 〈반고문 1,2〉를 재현한 것이다. 동아리 대동제 무대에서는 김경주의 판화작품을, 용봉대동제 걸개그림도 홍성담의 〈대동 세상〉을 확대한 것이었다. 특히 광주시각매체연구소, 조선대 미술패 '땅 끝', 호남대 미술패 '매'와 대형 걸개그림 〈해방제〉의 제작에 참여한 것은, 걸개그림 제작 경험이 일천한 불나비의 기량을 급속히 성장시켰으며, 불나비의 활동 영역을 대학 밖까지 확장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



불나비〈용봉만평〉(1987)

이처럼 불나비는 민주화투쟁의 미술선전대로서 학내·외를 불문하고 헌신했다. 엄청난 작업하중을 감내했다. 일반학우들과 함께 걸개그림을 제작한다든지, 각종 전시회를 교내에 개최하는 등 대중과 함께하는 미술패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은 야만적이었다. 1987년 9월 조선대 미술패 회원 이상호, 전정호의 걸개그림 〈백두의 산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가 경찰에 의해 작품이 탈취하고,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10월에는 만화정신 관련으로 손기환 작가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통일의 기쁨〉, 〈통일과 일하는 사람들〉, 〈상생도〉 등의 벽화를 파괴하고, 전시작품을 철거하고 작가를 구속하는 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 12월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마. 그림패 '마당' (1988~1994)[361]

1988년, 그동안 노력한 미술운동단체연대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서울의 조소패 흙, 엉겅퀴(1월), 전주겨레미술소(4월), 부산미술운동연구소(7월),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건준위, 광주전남미술

359) 민족민술협의회는 1985.11.22에 창립된 민족민중운동진영의 전국연합조직이었다.
360)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미술운동』제6호, 1990.11, 105쪽.
361) 현재 확인된 마당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영길, 나현실, 이차영, 구선하, 정순남, 이귀님, 최석채, 최명길, 방승조, 유병윤, 정찬숙, 김현희, 김병하, 기세홍, 정윤기, 손향옥, 오영아, 정은주, 오영균, 설인호, 김규표, 고정진, 박미정, 김경아.

인공동체(10월), 광주전남지역미술운동연합(준), 학생미술운동전국연합(준), 전북청년미술공동체,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등이 잇따라서 결성되었다. 대학미술패 출신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미술운동진영의 전체역량이 강화된데 따른 성과였다. 이들 단체들은 민중지원연대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362]

1987년 8월 전대협이 출범하면서 학생운동의 방향도 변화하였다. 선도적 투쟁에서 학생회중심의 대중운동이 전개되었다. '대중'과 '학생회'가 학생운동의 화두로 등장하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란 구호가 유행했다. 불나비도 '미술선전대에서 대중미술운동으로'를 내세우며 '그림패 마당'(이하 마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363] 미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포함하는 미술운동, 창작물의 향유자에서 창작물의 생산자로 미술비전공학생의 수용. 미술전공학생모집의 어려움 해소가 구체적인 조직개편의 이유였다.

미술은 이제 이 땅 7천만 민족의 행복을 안아올 가슴 벅찬 통일의 몸부림으로 굽이쳐야 하고, 황토 흙 붉은 빛 내 조국 한반도의 자주와 민주를 향한 쉼 없는 함성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 시대 시각매체로서 가장 큰 대중을 확보하고 있는 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본주의 병폐로 지나치게 상업성을 띄고 있는 벗기기 시합 식의 썩어버린 만화의 제 성향들에 맞서 역사의 주인인 민중의 삶을 형상화하고자 만화분과를 신설하고 그림패 마당으로 개명하게 되었다.[364]

마당은 만화분과를 신설하여 '판화 및 그림분과', '만화분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365] 제2학생회관 4층에 동아리방을 마련하였다. 기존 불나비 출신 외에도 최명길(공대88), 방승조, 유병윤(공대), 정찬숙(인문대88), 김현희(사회대 88) 등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당수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다.[366] 마당의 활동방식은 총학생회의 일정에 따라 시각매체선전물을 제작했던, 불나비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대동제의 걸개그림 및 선전물, 4·26 총선 선전물, 교지의 삽화그림과 만화 제작, 전시회 등의 일상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마당과 총학생회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당은 대중적 미술운동을 표방하고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대중문예동아리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마당은 학교 내 학생미술운동을 넘어 광주전남지역 및 전국적인 미술조직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약칭 남미연)과 학생미술운동전국연합(준)의 결

362) 가는 패(구로지역 파업단위사업장, 대한광학, 중원전자, 한독금속노조, 산업선교회), 안양 우리그림(그린힐, 안양전자, 노동문화제), 제주 바람코지(새한병원노조, 송악산 군사기지 철폐투쟁), 엉겅퀴(성수교회, 지하철노조, 서노협, 병원노련 노동자미술학교). 광주시각매체연구소(장성, 무안, 함평 농민회) 등이 그러한 경우였다.

363) 그림패 마당부분은 김병하(미술교육과 87학번, 제2회 마당회장, 남미연 대표, 전국학미연공동대표 역임)의 구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64) 남미연 편집부, 『남미연』창간호,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건준위,1989.3, 14쪽.

365) 이후 만화분과는 1989년에 '만화패 창'으로 독립하였다.

366) 마당회장(1대 김병하, 2대 김병하, 3대 기세홍, 4대 정찬숙 최명길, 5대 정윤기) 86학번의 일부가 학생회로 이동하고 군에 입대하면서, 88학년 2학기부터 기세홍이 회장을 역임하는 등 87학번이 마당을 주도하였다.

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마당은 그림의 내용과 형식, 규모, 조직적인 활동방식에서도 빼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하여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운동 및 사회미술운동에서 마당의 위상은 크게 고양되었다. 예컨대 1988년 총



〈오월에서 통일로〉(엠보천에 유성도료, 중앙도서관, 11*37m, 마당, 1988.5)

학생회 진군제에 선보인 걸개그림 〈남남북녀〉(광목천 유성도료, 중앙도서관 벽면에 설치. 김병하 시안, 마당 공동작업), 오월제에 사용된 초대형 걸개그림 〈오월에서 통일로〉(엠보천에 유성도료, 중앙도서관 벽면설치, 11*37m, 구선하, 김병하 공동주필, 마당공동제작, 1988)가 그러하였다.

〈오월에서 통일로〉는 5 · 18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로 가자는 당시의 학생운동의 핵심 이슈를 명료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림 하단부에 광주항쟁장면을 압축해 넣고 상단에 성조기를 힘차게 잡아 찢는 남녀의 모습을 배치하였다. 화면 상단에 핵심 주제를 커다랗게 그리고 화면 하단에 부수적 주제를 배치한 압축적인 구도 및 목판화의 굵고 간결한 선 맛의 차용은 이후 걸개그림의 한 전형이 되었다. 〈오월에서 통일로〉는 80년대 전남대 미술패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정체였다. 작품의 압도적인 크기, 주제의 선정성, 작품의 완성도에서 '민중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당연히 미술운동과 사회적으로 커다란 감동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마당은 〈오월에서 통일로〉의 제작방식에 주필제를 도입하였다. 구선하, 김병하가 공동 주필을 맡았다. 주필제의 도입은 초대형 걸개그림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유행한 창작방법론을 수용한 측면이 더 강했다. 주필제는 집단창작, 조직창작론이 강조되면서 제기된

창작방법이었다.[367] 1970·80년대 미술운동은 미술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개인의 전유물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대중과 유리된 작가의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동창작론, 집단창작론, 조직창작론이 차례로 제기되었다.[368] 민중미술운동의 창작론은 대학미술패에도 전적으로 수용되었다. 벽화, 깃발, 플래카드, 걸개그림 등 선전홍보물 제작은 개인창작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했다.

1989년 5월 10일, 조선대학교 이철규 학생이 수배 중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시신의 참혹함은 사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였다. 마당은 전대신문 5월호에 〈너희를 심판하리라〉(종이에 펜, 김병하)를 발표하였다.[369] 이 펜화는 교내추모영정(아크릴)으로 확대되었고, 이철규열사 장례식 때 남미연에 의해 대형걸개그림(30×25m, 엠보천에 유성도료)로 제작되었다. 8월에는 이철규 학생 추



〈바닥그림_성조기, 전남대 정문, 마당, 1991〉



〈너희를 심판하리라〉(종이에 펜, 김병하,1989)

모 연작판화기획전 〈이철규를 묻기 전에... 가자! 통일의 한 길로!〉를 교내에 개최하였다. 10여 미터 길이의 광목천에 시와 판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는 성황을 거뒀다. 이듬해부터 연작판화기획전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한 해의 주요사건이나 투쟁을 선정하고 판화와 글로 형상화하는 방식이었다. 1991년에는 전교조건설과 조국통일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기획부터 스토리 전개, 각 장면의 형상을 함께 토의하고 공유하면서 개인별로 1-2점씩 창작하여 결합하는 집단창작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여름농촌봉사활동도 마당의 중요한 연례행사였다. 1989년에는 전남 영광군에 벽화를 그렸고, 1990년부터는 남미연의 벽화제작팀의 일원으로 농촌벽화활동을 지속하였다. 1991년 여름 전남대 정문과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는 바닥그림(성조기)을 그렸다.

---

367) 이후 공동창작론은 집단창작론, 조직창작론으로 세분화되었고, 상호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조직창작론과 주필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권산, 「조직창작에 대하여」『미술운동』제6호,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1990.11, 33-38쪽.

368) 공동창작방식을 실천적으로 도입한 사례로는 1983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에서 진행한 '시민미술학교'가 대표적이다. 시민미술학교에서는 공동토론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를 공유하고 도움을 나누며 작품을 창작하였다. 배종민,「광주시민미술학교의 개설과 5·18항쟁의 대항기억형성」,『호남문화연구』제41호,2007.12, 114-115쪽.

369) 1989년 마당 신입회원 : 손향옥(미술과 89), 오영아(가정대 89), 정은주(인문대 89), 오영균, 설인호, 정윤기(공대 89) (89년 2학기부터 정찬숙, 최명길 4대대표)

바. 예술대학 미술패 '신바람' (1988~1994)[370]

1987년 2학기에 '미술학과 조소실기 작업공간 확충'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학교측은 대답 대신 대자보를 제거했다. 학생들은 크게 격앙했다. 급기야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학생까지 투쟁에 합세했고, 사태는 '교내작업공간확보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미술학과 임종영, 최영길을 중심으로 투쟁위원회가 구성하고 옥상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미술학과 학생 과반수 이상이 농성에 합류했다. 미술관 103호실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교수·학생 공청회가 열렸지만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내 작업공간 확보투쟁을 계기로 단결의 힘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87년 11월 24일자 전대신문에 '졸업미전과 그림패 마당 전시회를 보고'란 부제 하에 '창조를 향한 두개의 몸부림'이란 독자투고가 게재되었다. 문학패 비나리의 회원 이형권(국문과 4학년)이 투고자였다. 그는 미술학과 졸업작품전에 대하여, '상품화된 관제미술의 재현, 파편적인 형상과 무의미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1987년 4월 미술대학 야외에서 열린 미로붕 입체전도 가관이었다고 조소하면서, 예술대학 교수의 자질까지 거론하였다.[371] 반면에 그는 '마당의 전시는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오월에서 통일로〉는 민중미술의 관념적 과격성과 도식을 극복한 힘찬 전진'이었다고 격찬하며, '미술학과 학우들의 뛰어난 기량과 마당의 예술실천에 대한 진보성을 상호보완적으로 통일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듬해 2월 23일자 전대신문에 '미술은 상품도 이데올로기의 수단도 아니다'라는 주홍(미술학과 3학년)의 반박 글이 실렸다. "예술이 민족적이라는 미명하에 획일화, 몰개성화에 빠진다면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요지로 졸업미전과 미로붕 입체전을 변호했다. 이 지상논쟁은 학생들 사이에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전대신문은 심인택(88학년 화학과 졸업)의 '예술가와 전형의 창조'의 투고를 끝으로 논쟁을 마감하였다. 심인택은 "미술은 암호체계가 아닌 기호이고, 예술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손가락으로 붓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며 그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가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형택의 논리를 지지한 것이다.

지상논쟁은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작업공간 확보투쟁'을 주도한 임종영(미술학과 86학번, 예술대학 학생회 부회장)은 미술 전공자의 미술패를 조직해서 미술운동의 질적인 고양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그 결과 예술대학 미술패 결성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체학습과 토론을 거쳐 1988년 겨울, 예술대학에 미술패가 조직되었다. '예술대에 새로운 미술 붐을 일으킨다는 뜻과 신이 저절로 나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미술패 명칭을 '신바람'으로 붙였다.[372] 신바람은 회장, 총무, 홍보, 선전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임종영이 초대회장을 맡았다.[373] 마당 출신의 최영길과 김연화 등

---

370) 현재 확인된 신바람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종영, 김희련, 문기언, 황선향, 박웅규, 정영욱, 김연화, 최영길, 김화순, 이관수, 강태희, 김헌주, 김영욱, 최병진, 최인수, 김옥란, 김훈, 최재덕, 남혜영, 심우상, 최인수, 문봉준.

371) 美路朋의 지도교수는 장석원이었고, 윤남웅, 강운, 김희련 등 다수의 미술학과 학생들이 회원이었다.

372) 『남미연』창간호, 1989.3, 13쪽.



신바람, 〈진도 덕병리 마을창고 벽화, 1989〉

이 신바람에 합류하면서 조직 역량도 증대되었다.[374] 1989년엔 서양화 전공자 21명중 11명이 신바람에 가입할 정도로 대중의 호응이 뜨거웠다.

신바람은 기성 미술이 '예술은 순수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우리의 근본적인 현실 문제를 외면해왔다'라고 생각했다. 그러하여 '①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의 추구 ② 민족적 감성에 맞는 우리 그림의 추구 ③제도적 모순의 철저한 비판' 을 미술패의 지향성으로 설정하였다.[375] 매주 정기적으로 미학(김희련), 노동자의 철학(최영길) 등을 학습했고, 운주사, 동학 현장 등 답사도 병행하였다.

1988년 겨울, 신바람은 마당과 함께 〈민족해방운동사〉걸개그림 제작에 동참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전남대 총학생회·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남총련), 단과대학 진군제에 신바람이 제작한 첫 걸개 그림을 선보였다. 이후 전남대 총학생회실 벽화 제작[376] 및 오월미술전 참여가 잇따라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때에는 농활벽화팀을 꾸려서 진도성당[377], 진도 덕병리 마을창고[378], 진도 의신면 농가주택 등지에서[379] 농촌 벽화를 제작하였다. 1989년부터는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건준위(이하 남미연)의 연대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였고, 전국대학미술운동건설준비위원회(이하 전국학미연)의 연대 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갓 출범한 미술패로서 벅찬 일이었지만 신바람은 잘 감당하였다. 회원의 의식 수준이 높았고, 미술전공자로서 전문기량을 겸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373) 신바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희련(86,서양화), 임종영(86,조소), 최영길(86,조소), 문기언(88,조소), 김헌주(88,조소), 김연화(88,조소), 박웅규(88, 서양화, 89년회장), 정영욱(88,서양화), 황선향(88,한국화), 김화순(89, 서양화, 91년 회장), 최인수(89, 조소, 92년 회장), 김오중(89, 한국화, 90회장), 이지영(90,서양화), 최재덕(90,조소, 93년 회장), 노정아(91, 한국화), 남혜영(91, 조소), 심우삼(91,조소, 96년 회장), 고웅석(92,조소), 이금주(92,서양화), 박병창(93,서양화)

374) 1988년 전대협은 학생회 중심의 대중운동 전개를 표방하였다. 각 단과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과에 학회를 건설하려는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동아리의 많은 활동가들이 단대 학생회나 학회로 복귀하였다.

375) 예술대학내의 소모임의 성격이 강했다. 예술대학 학생회가 다른 단대에 비해 정치사상적 역량이 약했고, 자주적 학생회건설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낮았다. 또한 대학미술패 중에는 전문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병하 구술)

376) 공동제작자 : 강태희, 김헌주, 문기언, 김영욱, 이관수, 최병진, 김희련, 박웅규

377) 김희련, 문기언, 김훈, 김연화 공동제작.

378) 주홍, 김희련, 최병진 공동제작

379) 박웅규, 김희련, 최인수, 김화순, 최병진, 문기언, 김헌주, 김옥란, 김훈 공동제작

사. 미술교육과 소모임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1990~1994)[380]

1990년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이차영, 하성읍, 최진우의 주도로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라는 소모임(약칭 참민련)이 결성되었다. 참미련은 예비미술교사의 소모임이라는 점에서 특별했다. 참미련의 결성은 '참교육'이란 명칭으로 미루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운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학생 운동의 방향이 총학생회에서 각 학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종합 동아리 회원들이 단대 학생회나 학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점도 작용했다. 참민련 창립을 주도한 이차영(미술교육과 86)도 마당 출신이었다. 참민련 결성 이전부터 미술교육과 1학년 학생들은 〈민족해방운동사〉에 참여하는 등, 소모임 결성의 분위기도 무르익은 상태였다.

참민련은 본격적인 미술패가 아닌, 미술교육과의 소모임의 형태로 뒤늦게 미술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주제 및 내용, 예술성은 선발 미술패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또한 전대학미연에 참여하는 등 연대활동도 활발했다. 1990년 5 · 18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전남대학교 교내에서도 〈5월 미술전〉이 열렸는데,[381] 참민련은 조소작품 〈5월에서 승리로〉(합성수지, 467×274m, 김선영 · 강혜경 · 김혜영 · 김수영 합작, 제1학생회관 앞 전시) 및 초대형 걸개그림인 〈5월로 다시 살아와〉 (엠보천에 유성도료, 10×50m, 중앙도서관)를 통해 탁월한 형상미를 보여주었다.[382] 특히, 〈5월로 다시 살아와〉 는 5 · 18항쟁, 현대 골리앗투쟁 장면,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 투쟁, 3당 합당에 대한 비판, 백두산의 형상을 통한 통일 담론 등의 주제를 대하 소설처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판화 형식을 차용한 걸개그림과 다른 감동을 주었다.[383]

그러나 참민련은 곧 모임의 유지자체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1990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국공립사범대학생들의 교사 의무 발령제를 위헌판결하면서 '임용고시반대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사범대학 학생회가 이 투쟁에 매진하면서, 참민련의 활동력도 큰 타격을 입고 1994년에 해체되었다.

---

380) 현재 확인된 참교육민족미술연구회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차영, 하성읍, 최진우.

381) 1990년 5 · 18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에서 '5월 문화제'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민미련건준위와 전국학미연이 제작한 〈민족해방운동사〉가 광주 금남로와 전남대학교에 순회 전시되었다. 남봉미술관에서 열린 '오월미술전'은 광주시각매체연구소, 전주 겨레미술연구소, 대구의 '10월', 영남대의 '가래', 부산미술운동연구회, 서울의 '가는 패', 대전의 '색울림', 마산의 '봉화', 남미연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홍성민, 박광수, 전정호 등 200여명의 민중미술작가가 합류한 대규모의 전시였다. 또한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의 '10일간의 항쟁, 10년간의 역사전'(5.3-9,남봉미술관)도 주목을 끌었다. 이태호,『우리시대 우리미술』,풀빛,1991, 134쪽

382) 이태호, 같은 책, 121-130쪽.

383) 이태호, 앞 책, 129-130쪽.

아. 우리미술연구회 '판' (1993~1995)[384]



〈5월에서 승리로〉(합성수지, 467×274m,
김선영 · 강혜경 · 김혜영 · 김수영, 1990, 전남대)

1992년부터 신바람의 활동은 난관에 봉착했다. 업무가 폭주했지만 회원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졸업 회원과 신입회원의 감소가 서로 맞물린 결과였다. 자체 학습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었다. 1991년 대선 패배 이후, 전체학생운동과 민중미술이 쇠퇴의 경향을 띄고, 조직 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늘어갔다. 신바람은 미술과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체된 활동력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재덕(92년도 회장)이 중심이 되고 문기언, 최병진, 최헌주, 최인수, 노정아, 이금주, 박병창 등 회원들이 미술학과에서 진보적 사고를 가졌던 김오중, 남혜영, 이지영 등과 논의를 통해 1993년 3월 20일 신바람을 '우리미술연구회 판' (약칭 판)으로 재편하는데 합의하였다. 판은 개편의 목적으로,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건강한 미학이론을 수용하며 올바른 예술적 반영을 통한 미술창작활동을 전개 · 보급함' 을 내세웠다. 그러나 판은 기존 예술대학 학생회 산하 민중미술패 신바람에서 미술학과 학생회 산하 연구회로 미술패의 성격 및 조직이 축소, 개편된 형태였다.

판은 초대회장에 이금주(미술학과,92학번, 신바람회원)를 선출하였다.[385] 신바람 동아리방(예술대학 1호관 5층)에서 미술학과 1층 복도를 막아 만든 연구회실로 옮겼다. 1993년 9월 22일 〈우리미술연구회 '판' 창립전-이 땅을 딛고서〉가 26일까지 남도예술회관 2층 2실에서 개최되었다. 박병창, 김오중, 최병진, 노정아, 고웅석, 이금주, 박웅규, 정진영, 남혜영, 김헌주, 이지영, 강용, 최재덕 등이 참여하였다.

창립 초기 판의 활동은 기존 신바람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자 노력하였다. 정기적인 작품 품평회를

384) 현재 확인된 우리미술연구회 판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태희, 김명대, 김연화, 김오중, 김화순, 김헌주, 김희련, 남혜영, 노정아, 류명순, 문기언, 박병창, 박웅규, 박윤미, 손선영, 심우삼, 양미란, 이금주, 이윤경, 이지영, 임종영, 정진영, 정찬부, 최영길, 최인수, 최재덕, 강용.

385) 우리미술연구회 판에 대한 기술은 초대회장 이금주의 구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열어 회원들의 개인창작활동을 격려하였다. 〈민중미술15년 전〉을 비롯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미술학과 학생회와 함께 전시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매주 주말에는 역사 및 미학 등의 학습이 이루어졌고, 운주사, 쌍봉사, 보림사, 소쇄원 등을 답사하였다. '4·3항쟁세미나' (1993)를 개최하고, '오월미술전' 에 참여하였다. 여름방학에는 지리산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이금주〈오월〉(캔버스에 오일, 1993〉

판의 미술선전활동도 여전했다. 학생회 행사에 따른 걸개그림, 바닥그림, 설치미술, 농촌벽화제작[386] 등 미술선전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자 업무가 폭주하였다. 1993년 남총련 및 한총련 출범식 무대기획 및 제작까지 담당해야했다. 당시 조선대 미술패는 활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황이었다, 남미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미술운동의 상황은 신바람에서 판으로 개편한 의도와 달리 전개되었다. 그 대안으로 판은 1994년부터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광미공)의 활동에 참여하고, 안티비엔날레의 일환으로 광미공에서 주관한 〈광주통일미술제〉(1995)에 참가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자. 전남대학교 미술패의 해산

전국 대학가에 학생미술운동이 태동한 것은 1983년을 전후해서였다.[387] 미술패의 형태는 대부분 민화반, 판화반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1981년에 전남대학교에 민화반 및 미술패 '토말' 이 결성된 것은 선구적이었다. 전남대 미술패가 사회미술 운동조직과 밀접히 연계하면서 학생미술운동을 전개한 점도 특별하였다. 1990년대까지 판화반, 불나비, 마당, 신바람, 만화패 창, 참민련, 우리미술연구회 판으로 이여진 전남대 미술패의 발전 과정 및 헌신도 남다른바가 있었다. 그밖에도 전남대 미술패는 남미연, 전국 학미연의 연대활동을 추동하며 학생미술운동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대학미술운동은 전체학생운동과 추이를 함께했다. 학생운동의 역사에서 전남대학교의 위상과 역량은 선도적이고 견고했다. 전남대학교는 학생미술운동을 펼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386) 농활벽화미술패로 참여하여 보성·벌교·조성(1993), 장성군 삼계·삼서면일대(1994)에 벽화를 제작하였다. 벽화의 주제는 쌀수입개방반대, 미국반대 등 시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을전래이야기를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387) 배종민,「1980년대 대학미술운동과 조선대학교미술패」,『민중미술운동사』,조선대학교,2006, 40쪽.

이는 자연스럽게 전남대 미술패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둘째, 전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창작 역량 및 조직력을 갖춘 광주 지역의 미술운동조직–광자협, 시매연, 민미련, 광미공 등–의 지원 및 교류도 전남대 미술패의 성장과 활동에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대학 미술패 회원들은 졸업 후 사회미술패에 참여했으며, 학내와 학외를 연계하며 민족민중미술운동의 활동가로 성장하였다. 셋째, 남미연, 학미연 등 지역미술패 연합조직이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현장실천력을 담보했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연대 활동 과정에서 각 대학의 미술패들의 의식수준과 창작 역량도 동반 상승하였다. 넷째, 대학 미술패가 위치한 광주가 5·18항쟁의 현장이었고, 미술패 회원 중에도 실제 항쟁을 체험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대학 미술패 발전에 양질의 토양 역할 을 했을 것이다. 요컨대 전남대 미술패는 유리한 여건에 걸맞게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민족민중미술운동의 화두는 '민족과 '민중' 이었다. 전남대 미술패를 비롯한 전남지역 미술패의 왕성한 활동의 배경으로 이태호, 신경호 교수(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홍성민은 두 교수가 '비판적 리얼리즘의 민중 미학과 전통 미술에 대한 강의을 통해 학생미술운동과 미술패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단언하였다. 신경호 교수는 '현실과 발언' 의 동인 출신으로, '비판적 리얼리즘' 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이태호 교수도 전통미술의 우수성과 민중의 삶에 토대를 둔 사실주의 창작론을 역설하였다.[388] 서양미술에 편향된 채 각종 공모전을 통한 작가적 성공만을 당연시알던 미술학생들에게 두 교수의 창작론은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전남대 미술패의 주역의 다수가 미술교육과 출신이라는 점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389]

1992년을 지나면서 학생운동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 여파는 학생문예운동에게도 그대로 미쳤다. 포스트 맑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문예활동가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1993년에는 민미협이 해소되고, 전체학생운동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들은 민중미술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학 미술패 회원들도 민중미술이 쇠퇴하면서 향후 작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총학생회 문예동아리의 역량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각 미술패는 재생산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동아리' 가 되어갔다. 마당 역시 신입회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회원들이 미술패와 학생회를 오가면서 소모되고 전문 인력의 충원도 힘들어졌다. 시나브로 비전공 회원들은 대안 없는 진보적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술패를 떠나갔다. 남미연과 학미연 차원에서 '사회진출모임' 을 꾸려서 졸업하는 미술패 회원의 진로를 모색했지만 지속되진 못했다. 1994년 무렵 남미연은 동력을 상실했고, 전남대 학미연과 참민련이 해체되었다. 그림패 마당도 실질적으로 해체 상태나 다름없었다. 〈만화패 창〉의 활동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신바람은 우리미술연구회 판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활로를 모색했지만 성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

388) 이태호, 앞 책, 172–184쪽.

389) 토말의 박광수, 홍성민, 양희림, 민화반의 박금란, 한정화, 판화반 창립회원인 전상보, 정란희, 이승규, 정현주가 미술교육과 학생이었다. 최석채, 이차영, 구선하, 정순남, 이귀님 등 불나비의 창립주역도, 마당의 회장을 지낸 김병하, 기세홍 등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3. 조선대학교 미술패 : 토말, 시각매체연구회, 땅끝, 개땅쇠, 조선미술터

조선대학교에 미술과가 신설된 것은 1946년의 일이다. 지방대학에서 미술과의 설치는 조선대학교가 처음이었다. 당시 미술과는 문예학부 소속이었다. 1949년 미술과 교수로 오지호가 부임하였다. 오지호는 예술이 결코 시대상황과 무관할 수 없음을 자각한 화가였다. 이는 그가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적 지조를 지키고, 해방공간에서 민족예술론과 일재잔재청산을 주장한 사실로 그러하다. 따라서 오지호의 교수부임은 조선대학교 미술운동사의 前史로서 기억할만한 일이다.

1980년대 대학미술운동사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미술패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특히 조선대학교 미술패의 활동 및 성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광자협의 핵심 활동가 홍성담, 최열 등이 조선대학교 출신이었다. 이상호, 전정호, 고영인, 표종현 등은 '조선대학교 시각매체연구회'를 결성하여 지역 민중미술운동을 주도하였다. 정권의 감시, 학교의 탄압은 때론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지만, 민중미술의 저변 확대에 대한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1987년 전정호, 이상호는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제작했다가 국가보안법(국가원수 모독죄)으로 구속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가. 토말, 시각매체연구회(1982~1986)

조선대학교 미술패의 역사는 1982년 '토말'로부터 시작된다.[390] 1984년 하반기에 미술패 건설준비위원회[391]가 꾸려지고, 이듬해 민족민중미술패 '시각매체연구회'가 결성되었다.[392] 주요 회원은 회화과 2학년 이상호, 전정호, 고영인 등이었다. 시각매체연구회는 서클연합회에 가입함으로써 합법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총학생회의 부활이라는 정세변화에 힘입은 바였다. 전국 각 대학에서도 각종 동아리의 결성이 유행하였다. 시각매체연구회는 총학생회 출범식에 맞추어 걸개그림 〈혁명광주〉(3×5M)를 제작하였다. 이 그림은 출범식 팸플릿 표지화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민족민주민중투쟁위원회'(삼민투) 선포식 때 선전매체를 제작했다. 김동수 열사 추모제 및 군부독재 타도 모의 장례식 선전매체를 제작했다. 5·18진상규명투쟁위원회 결성식용 깃발,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민주광장에 걸었다. 전두환 처단을 위한 호남지역대학생연합회 결성식에 선전매체를 제작했다. 백민서점에서 사회과학서적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걸개그림을 제작하였다. 대동제 깃발, 만장, 걸개그림 제작도 시매연의 몫이었다.

---

390) 이태호·김호중,「5월의 기억과 미술」,『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역사비평사, 1994, 417쪽.
391) 현재 확인된 미술패건설준비위원회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정호, 이상호, 고영인, 표종현, 정국권.
392) 이하 내용은 전민, 「조선대학교 미술운동의 어제와 오늘」,『조대미술』6, 민족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1992, 108-111쪽을 재정리한 것이다. 현재 확인된 시각매체연구회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호, 전정호, 김도기, 기혜숙, 이진우, 표종현, 고영인, 정국권, 윤병옥, 류병춘, 박미경, 박미용, 고진숙, 이찬우

한편, 시각매체연구회는 재학생을 상대로 판화교실을 개최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자아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 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생각은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진행한 '시민미술학교' (1983.8.8-1986.1.15)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시각매체연구회의 판화교실은 재학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동제때 판화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시각매체연구회는 '땅끝전' 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전시는 무산되고 말았다. 학교의 압력으로 화랑 측에서 전시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나. 땅 끝(1986~1988)[393]

1986년 시각매체연구회는 '땅 끝' 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당시 학생운동은 사학민주화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땅 끝도 활동방향을 창작중심에서 선전 작업으로 전환하였다. 작품의 양상도 판화에서 걸개그림, 만장, 프랑, 깃발 등 현장중심에 적합한 매체로 변화하였다. 의치약대 졸업정원제 저지투쟁 선전 작업, 학원민주화투쟁추진위원회 결성 선전 작업을 진행했다. 반제반파쇼민족민중투쟁위원회 결성식 대 선전물을 제작하여 민주로에 걸었다. 걸개그림 〈삼민헌법쟁취〉를 제작하였다. 대동제때 판화전을 개최하고, 걸개 및 깃발, 만장, 각종 시각매체를 제작하였다.

1987년 6월항쟁의 여파로 사학투쟁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땅끝은 학내투쟁에서 시각매체연구소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 정치·사회적 선전미술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땅 끝은 6월항쟁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한열 열사 사망 시각선전매체 작업, 〈최루탄을 추방하자〉벽보, 박철웅 퇴진을 위한 백악학우 궐기대회 시각선전작업, 조선대학교 민주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강화 및 학원민주화투쟁 선포식 깃발, 만장, 프랑 등 시각매체작업, 박철웅 퇴진 및 도민대학 환원을 위한 범도민실천대회 선전물 제작했고, 화형식에 쓸 허수아비를 집회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제작하는 등 치열한 현장미술실천활동을 펼쳤다. 미술패 땅 끝 판화전을 삼양백화점 아카데미 미술관에서 준비하던 중 당국의 탄압으로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무안장터전을 열어 판화와 걸개그림을 전시하였다.

1987년 8월 '민중해방과 민족통일 큰그림잔치' (그림마당 민)에 땅 끝 회원 이상호, 전종호(회화과 4년)가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3×6M)라는 걸개그림을 출품하였다. 진달래가 만발한 백두산을 배경으로 성조기를 찌는 노동자와 농민을 배치하고, 이한열 열사 장례식, 핵무기, 노동자 대투쟁 모습,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하는 안기부, 레이건의 품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두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작품은 지방 순회중 제주도에서 불법 탈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북한의 폭력혁명노선을 찬양하고 민중봉기에 의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묘사했다는 것이 정부의 기소사유였다. 땅끝은 해산되고, 조선미술연구회가 새롭게 결성되었다.

---

393) 현재 확인된 땅 끝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호, 전정호, 김도기, 김혜숙, 이진우, 표종현, 고영인, 정국권, 윤병옥, 류병춘, 박미경, 박미용, 고진숙, 이찬우, 박영수, 이송원, 임신영, 한용철, 황선영.

다. 개땅쇠(1988~1991)[394]

1988년 구속회원이 복학하면서, 땅 끝은 조선미술연구회와 통합하여 조선대학교 '개땅쇠'를 새로 발족하였다.[395](학생회관 5층 동아리방) 개땅쇠는 갯땅에 사는 서민들이란 뜻이다. 어려운 현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이르는 단어다. 미술패 개땅쇠는 전라도인의 저항의지와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따라서 미술패 개땅쇠라는 명칭은 민족민중미술의 기치와 지역성을 아우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광주학살5공비리 민중탄압 미제 노태우 처단 및 팀스피리트 훈련반대를 위한 투쟁위 발대식 시각선전매체작업, 4월 정신계승노정권 퇴진 결의 대회 때 장승을 제작하여 민주로에 세웠다. 5월 이철규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학내외 각종 집회에서 시각선전물을 제작하였다. 학원탄압 폭압통치 분쇄를 위한 조선학우 선전포고대회 시각선전물 제작, 임수경 구출, 전교조 사수 및 학원탄압 분쇄를 위한 남대협 광주지구 진군대회 시각선전작업, 공안통치 분쇄 및 광주학살 5공주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위원회 출범식 시각선전매체 제작, 청년조선투쟁주간 선포식, 시각선전매체 제작, 노태우정권 퇴진 남대협 송년큰잔치 선전매체 제작, 민족대학건설 43주년 기념식 시각선전매체 제작, 이철규 이내창 영혼의형제 결연식 시각선전작업, 전남농민대회 시각선전작업, 국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위 발대식 시각선전매체 제작, 90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청년조선투쟁 선포식 시각선전매체 제작 등이 진행되었다.

개땅쇠는 남미연과 함께 이돈명 총장 취임식장의 걸개그림을 공동 제작하였다. 남미연은, '이돈명 조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 걸개그림, 깃발그림 등 선전 · 선동적 미술매체를 총동원하는 연대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개땅쇠는 6·10남북한 학생체육회담의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홍보작업, 8·15남북한 청년학도 국토순례 대행진의 깃발, 플래카드, 달력, 우리 옷, 판화손수건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문화학교, 판화교실, 전시회, 농촌봉사활동을 기획함으로써 미술패의 활동영역을 확장하였다. 1989년『민주조선』사건으로 수배 중에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열사의 걸개그림 〈너희를 심판하리라〉를 제작하였다.

---

394) 현재 확인된 개땅쇠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호, 전정호, 이진우, 표종현, 윤병옥, 류병춘, 박미경, 박미용, 고진숙, 이찬우, 박영수, 이송원, 임신영, 한용철, 황선영, 서동환, 임경호, 김수현, 안상희, 전원영, 김미송, 김종렬, 마경보, 김영아, 조수희, 김혜수, 김현님, 박광애, 김금순, 문승미, 박정태, 이정선, 임채현, 김현용, 김혜령, 곽은희.

395)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건준위,『남미연』창간호, 1989년 3월 12일, 13쪽.

라. 조선미술터(1991)[396]

1991년 미술패는 '개땅쇠'와 '조선미술터'로 분리되었다. 미술대학의 미술패(조선미술터)와 동아리 연합소속의 미술패(개땅쇠)로 나뉜 것이다. 전자는 전문미술인, 후자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회원의 성격에 맞추어 미술패 운영을 개선하려는 의도였다. 이 해에 함평군 손불면에 농활벽화 〈생산의 보람〉(25X20M)을 비롯하여 후문벽화, 장승제작, 고 이철규 추모걸개그림(4X8M) 등이 제작되었다.

1991년에, 동아리 연합회 '조선해방제-민족조선 학원자주화 꽃을 피우자'에 시각선전매체 제작, 민주총장 선전 작업 〈5원칙 사수〉걸개그림 제작, 고 이철규 열사 2주기 추모걸개그림 제작, 지역감정 타파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영호남 청년학생 결의 대회 시각선전물, 개교 45주년 조선벌 대동큰잔치 시각선전매체 제작, 민족민중미술운동 탄압 구속 작가 석방을 위한 기금마련 판화전이 진행되었다.

1992년, 제5대 자주적 총학생회 출범식 시각매체 선전 작업으로 판그림을 제작하였다. 부정선거 규탄 및 반민자당 박살 투쟁선포식 시각선전작업, 민자당 규탄 투쟁대회 시각선전물 제작, 제2기 남총련 출범식 판그림 및 만장을 제작했다. 학내 5월전을 미대주변에서 개최하였다. 고 이철규 열사 추모비를 남미연, 민미련과 공동으로 제작했다. 통일장승을 만들어 세웠다. 학생회와 공동으로 〈꺾을 수 없는 학원 자주의 깃발이여〉 벽화를 후문 외벽에 그렸다. 대동제의 무대벽화를 제작했다. 농촌봉사활동으로 벽화를 그렸다.

1993년, 1·8항쟁정신계승 2만 학우 결의대회 시각선전작업, 제6대 자주적 총학생회 출범식 '해오름 한마당' 판그림 제작 제3기 남총련출범식 시각선전매체 제작,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과 정신계승대회 시각선전작업, 광주학살 한반도 긴장고조 주범 미국반대를 위한 한총련 결의대회 시각선전작업, 민족자주 교육개혁이 횃불 고 이경동 열사 정신계승 10만학도 결의대회 시각선전매체 제작, 남총련 통일대축전 무대그림 제작, 개교 47주년 민족조선 대동제 무대 벽화 및 만장 걸개그림 제작이 진행되었다. 개땅쇠, 조선미술터, 미대학생회가 합동으로 미대 앞 민주로에서 5월전을 개최하였다. 여름농활 벽화제작을 진도 지산면에서 진행하였다

1994년, 쌀 수입개방저지 남총련 탄압분쇄를 위한 투쟁선포식 선전 작업, 제7대 총학생회 출범식 시각선전매체, 신공안탄압분쇄결의대회 시각선전매체 작업, 조선대학교 구속학생 석방과 양심수 수배자 후원의 밤 선전매체작업, 개교 48주년 기념 민족조선 대동제 걸개그림, 프랑, 만장 제작이 이루어졌다. 제2기 한총련 출범식 선전물을 남미연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5월전을 전국대학 연합전으로 미대 주변에서 개최하였다.

1994년 조선대학교 민족민중미술패를 발전적으로 해소하였다.

---

396) 현재 확인된 조선미술터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남진, 임경호, 김수현, 안상희, 전원영, 김미송, 김종렬, 조수희, 김우성, 한훈, 조명현, 오치근, 신원식, 임헬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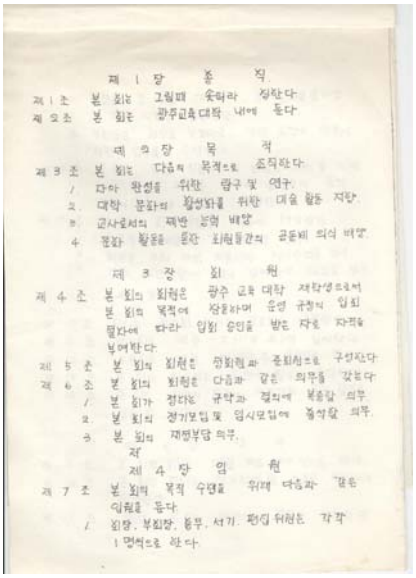
4. 광주교육대학교 미술패 : 솟터(1988~1994)

1988년 5월, 광주교육대학교에 미술패 솟터(창립 당시 명칭은 그림패 솟터, 이하 솟터)가 창립되었다.[397] 진영조(87학번, 2학년)가 성공회 주관 시민판화교실에 참여한 것이 솟터 결성의 씨앗이 되었다. 마침 총학생회도(총학생회장 이재남, 86학번, 남대협 사무국장) 학내운동에서 문화선전활동의 중요성을 요구하면서, 진영조는 정성식, 강남이(이상 87학번), 조혜숙(88학번)과 함께 그림패 솟터를 출범시킨다.

솟터는 회칙의 전문(자료 1)에서, '역사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옳게 비판할 줄 알고, 우리의 전통미술을 이해하고, 민중들의 생생한 삶의 체험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초등교사로서 자주 민주 통일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고 창립 의의를 밝혔다.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편집위원을 각각 1명씩 두고, 정기회(매주 화, 목), 토론회(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임시회의 회의체계를 마련하였다. 경비는 매월 2,000원의 회비 및 보조금으로 감당하였다. (자료 2)[398] 한편, 남미연 창간호에서 솟터는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정리한 후, '사대주의 관제 미술을 과감히 청산하고 진정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라고 향후 활동방향을 개진하였다.[399]



제1기 문화학교 표지



그림패 솟터 회칙

397) 현재까지 확인된 솟터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영조, 정성식, 강남이, 조혜숙, 최성, 이행민, 보모용, 박미혜, 조명흠

398) 그림패 솟터 「회칙」

399) 「남미연」 창간호, 1989. 3. 12, 14쪽.

이들은 부설초등학교 교실의 허름한 공간을 고쳐서 동아리방을 마련하였다. 학내운동이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어떠한 방해도 없었다. 이후 1989년에 신입생이던 이행민, 조모용, 박미혜, 조명흠(이상 89학번)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학내운동으로 제적된 최성(84학번)까지 복학하면서 솟터의 진용이 갖추어지게 된다.

솟터 역시 다른 미술패와 마찬가지로 학습과 강연, 답사를 중시하였다. (자료 3) 학습 주제는 전통미술, 제3세계 미술, 민족민중미술론 등 여타 미술패와 유사했는데, 홍성담의 항소이유서가 수록된 『오월에서 통일로』(청년사, 1990)를 학습토론 자료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초청 강연도 민족미술론, 노동과 농민을 주제로 하였다. 답사도 공사장, 공장, 시장, 빈민가, 영광원자력발전소와 안면도의 주민투쟁현장, 광문협 소집단 방문 등 뚜렷한 현장 지향성을 견지하였다. 그밖에 남미연 주최 세미나 등 외부 강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솟터는 총학생회 문화부가 주최한 〈참교육의 함성 문화학교〉를 주관하였다. (자료 4) 제1기 문화학교의 교육 자료집을 보면, 김봉준의 「삶과 함께하는 미술」 원고와 판화의 개념, 의의, 제작방식, 수강생 작품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400]

솟터의 활동 대부분은 독자적인 미술패가 아닌 총학생회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광주교대에서 전국교육대학교협의회(교대협) 출범식이 열렸을 때 "교대인이여! 진군하라 통일교육 그날지!" (진영조, 정성식, 강남이, 조혜숙 제작)라는 걸개그림이 솟터의 본격적인 첫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9년 3월, 총학생회 출범을 위한 걸개제작(최성, 이행민, 조모용, 조명흠, 박미혜, 안경아 등 참여), 같은 해 5월 동아리 동벽에 대형벽화 제작(최성, 조모영, 이행민, 조명흠, 박미혜, 조혜숙, 진영조, 정성식, 강남이 참여) 등 학내운동에 쓸 각종 프랑과 깃발, 벽보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1988년 8월 진영조는 '그림마당 민'에서 열린 통일전에 참여하면서, 조선대학교 미술패 의 주역 전정호를 처음 만나게 된다. 이 인연을 계기로, 그해 9월 조선대학교 이돈명 총장 취임식에 사용할 걸개그림 및 각종 시각매체 제작에 진영조, 정성식, 강남이가 결합하게 되었다고 한다. 솟터 외에도 조선대학교 민주총장 취임식에는 광주지역 대학미술패가 모두 결합하여 일주일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걸개그림, 깃발그림 등 온갖 취임식 미술선전물을 함께 제작했고, 이 경험이 광주전남대학미술패연합(이하 남미연) 건설의 계기가 되었다.

취임식 이후에도 미술패들은 광주시각매체연구소와 함께 벽보선전전[401]을 함께 전개하면서, 미술패의 연대조직 건설을 가시화해갔다. 마침내 그해 11월, 조선대학교에서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402](이하 남미연)이 결성되었다. 전남대학교 미술패 마당과 신바람, 조선대학교 개땅쇠, 호남대학교 매, 광주교육대학 솟터가 참여했고, 이후 목포대학교 돛대, 동신전문대학 '신새벽', 서강전문대학 '

400) 광주교육대학 총학생회 문화부, 「참교육의 함성 제1기 문화학교」,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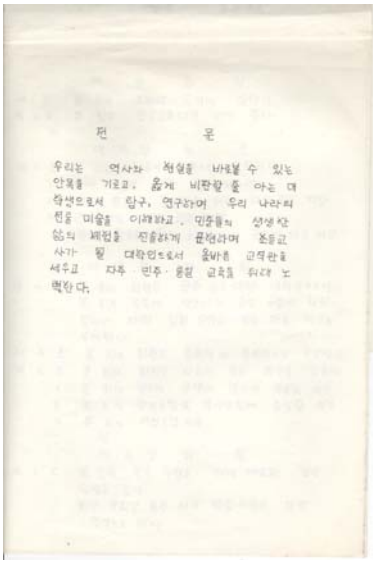
401) 제1차벽보선전전 : "반미, 반핵, 반독재-평화"전(1988.10.24), 제2차벽보선전전 "전,이 구속처단 반노-반미"전(1988.11.19-) 이하 벽보선전전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남미연』창간호, 1989.3, 15쪽

402) 『남미연』창간호, 1989.3, 3쪽.



신입회원 교육 일정

숫터 신입회원 교육일정



그림패 숫터 회칙

한울타리', 송원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이 남미연에 합류하였다. 결성의 구호는, '붓과 칼을 곧추세워 민족해방 앞당기자!'였다.

1988년 12월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이하 민미련)에 진영조, 정성식, 강남이가 참여하였다. 그해 12월 민미련은 지역 간 연대창작사업으로 〈민족해방운동사〉를 결정하였다.[403] 우리 근•현대사를 반제민족해방운동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대하걸개그림으로 형상화하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404] 각 지역 5개 미술운동단체와 전국학미연 산하 30여 개 대학미술패가 조직적으로 〈민족해방운동사〉제작에 참여하였다.[405] 남미연은 1988년 겨울에 창작단을 꾸려 〈민족해방운동사_6월 항쟁도〉의 제작에 돌입하였다.[406] 전남대의 마당, 신바람, 조선대의 땅 끝, 호남대의 매가 창작단에 합류했고, 슈터에선 진 영조, 정선식, 강남이가 참여하였다.[407] 이들은 공동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요인물을 중앙에 배치하고 굵은 먹 선으로 처리하는 시안을 마련하고, 2개월에

403) 이태호,「80년대 걸개그림과 〈민족해방운동사〉」,『전국학미연』창간호, 전국학미연편집부, 1989.10.16, 7쪽 ;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4, 320-324쪽.

404) 각 주제별 작품크기는 7×2.6m이며 전체 크기는 77m에 달한다. 11개 작품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제국의 침략과 갑오농민전쟁 ②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 ③항일무장투쟁 ④해방과 대구 시월 ⑤4•3과 여순, 6•25 ⑥반공정권과 4월 혁명 ⑦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⑧광주민중항쟁 ⑨민족자주화운동 ⑩민중생존권투쟁과 6월 항쟁 ⑪조국통일.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4, 324쪽.

405)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부산미술운동연구소,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전주겨레미술연구소, 대구민중문화운동연합 미술 분과, 서울 미술집단 가는 패, 마산 미술집단 봉화, 서울 청년미술공동체,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전북청년미술공동체, 대구지역 미술학생모임, 부산 미술대 학생연합준비모임.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미술소조 광주시각매체연구회편, 『민족해방운동과 미술』, 1990, 7쪽.

406) 광주시각매체연구소는 〈오월항쟁도〉를 제작하였다.

407) 〈민족해방운동사〉는 1989년 4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고, 전대협출범식(한양대학교)을 거쳐 전국 순회전(광주는 5월 금남로카톨릭회관 앞)을 가졌다. 그러나 7월 한양대 전대협 진군제때 경찰난입으로 파손, 소실되고, 홍성담, 백은일이 구속되고, 홍성민, 박광수가 안기부의 수배 및 사찰을 받았다.

걸쳐 조선대학교 본관 5층에서 걸개그림 제작에 매진했다.

1989년 1월, 남미연 창간호 제작에 〈북한 미술 슬라이드를 보고 나서〉를 게재하고, 판화를 제작했다.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린 민족해방운동사 개막식에 진영조, 정성식, 강남이, 조혜숙, 조명흠, 이행민, 박미혜가 참여하였다. 같은 해 5월,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창립 '오월전' 에 진영조가 〈학살〉을 출품하였다.



〈민족해방운동사_6월 항쟁, 2.6×7m, 남미연, 광주금남로〉

1990년에 접어들면서 남미연의 활동력은 고양되었다. 우선 참여대학이 늘면서 인력이 보강되었다. 전대협 문예문과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대협의 문예조직과 결합력도 강화되었다. 지역지원사업도 활발해졌다. 이에 고무된 대학미술패들은 학내 밖까지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대학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했으며, 취약한 대학미술패에 대한 지원사업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1월에 솟터는 전교조 벽화작업을 진행하였다. 조모용, 조명흠, 이행민, 최성, 박미혜가 참여한 이 사업은 학내조직과 교육현장을 연결하는 최초의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굵직한 연대사업만 언급하면, 조명흠, 이행민이 남미연 오월미술가투쟁선전대에 참여하여 벽보작업을 수행하였고(1990.5), 전남대에서 열린 전대협출범식 걸개그림과 각종 프랑, 깃발제작에 진영조, 최성, 조모용, 이행민, 박미혜가 결합하였다. 또한, 광주민중항쟁 10주년 판화전(5월 전시회)에 조명흠, 조모용, 최성, 정성식, 강남이, 진영조가 참여하였다.

한편, 1991년 4월 26일, 강경대(명지대 1년)가 진압경찰(백골단)의 폭력으로 피살된 것을 발화점으로 분신정국이 전개되었다. 4월 29일, 박승희(전남대학교, 20세)가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

우 정권 퇴진 결의 대회'중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분신, 5월 19일 운명하였다.(자료 5) 5월 1일 김영균(안동대학교), 5월 3일 천세용(경원대학교, 20세), 5월 8일, 김기설(전국민족민주연합 본부 사회부장, 26세), 5월 10일 전남대학교에서 윤용하의



〈고 박승희 장례식 노제 걸개그림 및 만장, 광주역광장, 1990.5〉

분신(노동자,22세), 5월 18일 김철수(보성고등학교 3년) • 이정순(노동자, 39세), 5월 22일 정상순(노동자, 김철수 학교 선배)의 분신이 계속되었다. 5월 25일에는 김귀정(성균관대 4년)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압사하였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사회미술운동조직 및 남미연 산하 학내미술패들은 전남대학교 병원에 집결하였다. 민미련 회원과 남미연이 주축이 된 미술선전단을 구성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분신정국 한 달 동안 대학미술패들은 영정, 만장, 플랫카드, 걸개그림, 벽보선전물 작업에 그야말로 헌신하였다. 광주교육대학에서는 1993년 9월 8일 학내 음악관 뒤편에서 이경동 학생(윤리교육과, 89학번)이 "교육재정 확보, 임용고시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고(자료 6), 같은 해 11월 10일엔 한상용(사회교육과 90학번)이 유서와 교육 정상화의 뜻을 담은 유서와 종이학, 성경책을 남기고 분신하였다.(자료 7)

솟터는 광주교육대학의 학내미술패였다. 따라서 일반 대학과 달리 미대 출신의 미술전공자가 아닌 초등교육전공자가 회원이라는 점이 한계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타 대학미술패에 비해 창립이 5-6년 이상 늦었다. 그 계기도 시민판화교실에 참여하면서 미술에 대한 호기심이 촉발되면서 비롯했으며, 대부분의 미술운동 활동도 총학생회나 남총련의 문화선전대의 역할에 부응한 것이다. 즉,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그 출발도 늦었다는 점이 솟터가 지닌 미술패로서 기본적 한계였다고 하겠

다. 실제로 남미연 연대활동에서도 타 대학미술패가 창작과정을 주도한 측면이 보인다. 다만,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미술패가 복무한 점은 여타 대학 미술패와 대동소이하다. 아울러 솟터가 예비교사로서 지닌 안목과 관점은 오히려 미술전공자에게 부족한 부분이었기에, 창작과정에서 솟터 회원의



이경동 열사 유인물



한상용 열사 유인물

적극적 참여는 절대 과소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솟터가 전개한 미술운동은 헌신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비전공자이기에 더 치열하게 생각했고, 더 열심히 그렸고, 더 열심히 공부했으며, 더 열심히 참여했다.

지금도 솟터는 학내 미술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을 종점으로 미술운동조직의 성격을 설정해야 한다.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주축의 미술패와 유사하게, 솟터 회원 역시 졸업 후 교사로서 새로운 진로를 걸어야 했고, 대부분 교사로서 전교조 등 교육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은 교사활동을 하면서도 작가로서의 자기 전망을 쉬 놓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미술연구소라는 교사창작소조(진영조, 이영인, 최성, 강남이, 조명흠)를 결성하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자료 8, 9) 현장 교사로서 미술수업운영에 대한 성찰, 전업적 작가로서의 책무 등에 관한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환경과 생명, 핵발전소 문제 등 현장 중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단 창작 방식 등을 통해 깨어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기억해야 할 솟터의 성과다.



창 작 보 고 서

책 — 그날아침

교사 창작소조.
(정영조, 이 황인, 최 성, 김남 미, 조현숙)

1. 창작보고는 시작하며
2. 창작보고
3. 결작보고는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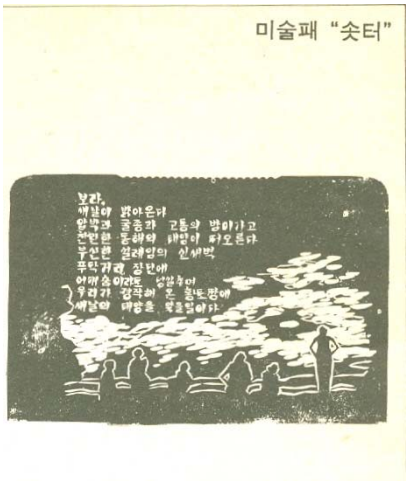
1994. 9. 3

창작보고서



창 작 일 정

창작보고서



남미연 창간호 판화



진영조 〈학살〉

5. 호남대학교 미술패 : 매(1987~1998)

1987년 3월 6일, 호남대학교 무역학과(83년 입학, 86년 자퇴) 출신 표정두가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분신하였다. '미국과 군부독재가 저지른 광주항쟁의 만행을 폭로' 하고자 몸을 사른 것이다. 표정두는 1980년 5·18항쟁 당시 대동고 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하여 정학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의로운 학생이었다. 호남대학교에 입학했으나 가정형편으로 자퇴한 후, 야학교사로 활동하였다. 1987년 2월, 하남공단에 있는 신흥금속에 입사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분신한 것이다. 당시 그가 외친 구호는,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박종철을 살려내라', '광주사태 책임지라' 였다. 그리고 3월 8일, 표정두는 운명하였다.

호남대학교 학생들에게 표정두의 분신 죽음은 큰 충격이었다. 학내에 '사학족벌퇴진 및 직선총학생회쟁취위원회' (이하 사직투)가 결성되었다. 이것이 호남대 학생운동사의 시초이다. 학생운동을 위한 미술선전활동이 필요했다. 호남대 미술학과 학생 일부가 양동 발산교 근처 백은일 작업실에서 미술패 조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백은일(호남대 84학번)은 광자협 회원 출신으로 1989년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운동가였다. 이러하여 백은일, 김성중(84학번), 양경모(85학번), 박보경, 윤지현, 김영남, 서영남(이상 87학번)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민중미술패 매' (이하 매)가 창립되었다.[408]

같은 해 3월 총학생회장 선거에 미술패 회원 김성중이 당선되면서, 총학생회의 각종선전활동의 중심에는 매가 있었다. 6월부터 9월까지 매는 학원자주화투쟁에 소요된 각종 집회깃발, 현수막, 벽보 제작을 전담하였다. 전교조 판화달력도 제작하였다. 8월에 백은일과 박보경은 광주 YWCA 강당에서 걸개그림 〈해방의 횃불 아래〉를 제작하여 광주민중문화연구회 문화대동장치에 걸었다. 그러나 서울그림마당 민에서 전시 중에 〈해방의 횃불 아래〉는 당국에 의해 탈취되었다. 9월에 표정두 열사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표정두 열사 추모비〈를 제작했다.

1988년 호남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비운동권 학생이 당선되면서, 학내운동이 총학생회 중심에서 동아리연합회로 전환되었다. 4월부터 60여 일 동안 인권복지투쟁위원회가 학장실을 점거 농성하자, 미술학과 학생위원회가 투쟁에 합류하였다. 매의 신입 회원으로 이재칠, 김선수(이상 88학번)이 가입하고, 84학번인 김석훈과 박태규가 전역 후 미술패에 합류하였다. 매는 동아리연합회를 구심점으로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하면서 집회 깃발, 현수막 외 각종 시각매체선전물을 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남미연이 민해운사 걸개그림 〈6월 항쟁도〉를 공동 창작하자 매에선 박태규, 김석훈이 참여하였다.

---

408) 현재 확인된 민족민중미술패 매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희승, 백은일, 김성중, 박태규, 김석훈, 김희상, 양경모, 박보경, 윤지현, 서영남, 김준수, 이재칠, 김선수, 박하용, 김현수, 이유정, 이상곤, 김평구, 김민화, 박민아, 박제경, 이지선, 서만경, 김선나, 박효연, 이승권, 김융, 이관연, 신금희, 유상이, 이성렬, 고명의, 박태상, 김은선, 김선우, 한선화, 오현경, 김이화, 권영주, 곽민준, 박양신, 허은진, 정양례, 고재범, 임성철, 백기호, 박요섭, 정중칠, 한충열, 오형우, 김태정, 김영언, 박세남, 한태엽, 안진철, 박철홍, 박현아, 김동현, 신동민, 김덕환, 김선택, 이수연, 진래영, 김석호, 김일륭, 김지연, 김해철, 이정호.

1989년 정희승(83학번), 김희상(84학번)이 전역하여 매에 합류하였다. 박하용, 조현수(이상 미술학과 89학번), 이유정, 이상곤(이상 수학과 89학번), 김평구(법학과 89학번)가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김석훈이 매 2대회장을 맡았다. 총학생회장에 김현표(사학과 86학번)가 당선되고, 총학생회문화부장에 미술패 박보경이 선임되면서, 다시 총학생회의 문예활동이 활발해졌다. '북한미술 바로알기' (홍성담), '조선후기 미술사' (이태호 교수) 등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한편, 표정두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걸개그림 〈미제를 처단하자〉(시안 : 정희승)를 집단창작방식으로 제작하였다. 경비는 총학생회에서 지원했다. 남미연에 합류하여 남대협 출범식 걸개그림 및 학원자주화투쟁과 관련한 시각매체를 제작했다. 정희승, 박태규 김석훈은 평양축전행사 학미연 창작단에 참여하여 한양대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평양축전 걸개그림을 본관에 부착했다.(정희승 작품 4점) 시매연과 함께 〈5월에서 통일로〉를 제작하여 광주실내체육관에 걸었다. 이철규열사 장례행사용 걸개그림을 남미연과 함께 공동제작하고 미술선전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 제3대 회장에 박하용이 선임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홍성담 석방투쟁에 참여하였다. 박보경은 총학생회 연대 사업부, 박태규는 총학생회 문화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사학족벌퇴진 학원자주화투쟁 시각매체제작도 활발했다. 깃발, 현수막, 걸개그림, 벽그림, 바닥그림, 판화 등 각종 시각매체가 제작되었다. 남대협 출범식 걸개그림을 남미연과 공동으로 창작하였다. 대동제 기간에 자주민주통일투쟁공동창작집체극(매, 탈패, 노래패 휘모리, 문학패 이삭, 영상사진반, 풍물패연합)에 공동참여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연행사를 진행하였다. 각 단대 소식지 표지삽화를 위한 판화 작업을 진행했다.

1991년 매의 신입회장으로 이유정이 선임되었다. 총학생회 부회장에 미술패 김선수가 선출되었다. 학원자주화투쟁은 계속되었고, 매는 각종 시각선전매체제작에 전념했다. 한편, 이 무렵 학내미술운동의 선배그룹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졸업 이후 진로 때문이었다. 전업 작가의 길과 민족민중미술운동 활동가의 삶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남미연에 사회진출모임을 결성하였다. 매의 선배들 – 정희승, 박태규 등 –은 이 모임에 참여했고, 걸개그림 〈파업전야〉를 공동 창작하였다. 광주민미련 활동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학내운동을 지도했다. 주지하듯, 1991년은 강경대, 박승희, 김철수 등 잇단 분신으로 정국이 요동쳤다. 광주지역 미술운동조직은 미술선전대를 구성하고, 영정과 만장, 깃발, 현수막, 벽보 등 분신정국에서 필요한 수많은 시각선전매체를 제작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3년 매의 회장에 이관연이 선임되었다. 호남대학교 서봉캠퍼스 이전을 기념한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1998년까지 매는 정기전을 개최했으나,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이것은 단지 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에 실패한 민민운동진영 전반의 분위기였다. 1998년 매는 기존의 민족민중미술패 매에서 '미술사랑 매' 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5년에 미술사랑 매도 해체되었다.

6. 서강전문대학 미술패 : 한울타리(1988 ~ ?)

서강전문대학 미술패로 '한울타리' 가 확인된다. 회원은 정명희만 파악되었다. 1988년 남미연의 회의 및 시각선전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미상이다.

7. 목포대학교 미술패 : 유달산, 돛대(1986 ~ 1992)

1983년까지 목포대학교에 아직 미술 운동 조직이 없었다. 다만, 1981년에 천용식을 중심으로 창립된 민속문화연구회 탈패 '마파람' 이 활동 중이었다. 1982년 마파람은 극단 민예와 함께 목포대에서 〈호질〉, 〈나락놀이〉을 함께 공연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해가고 있었다. 마파람과 민예의 활동에 힘입어 목포대도 미술 운동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1983년에 미술대학 83학번을 중심으로 미술대 정기전인 〈행동제〉를 개최하면서, 학내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1985년11월에 갯돌 미술 분과가 창립되자, 미술대학생들은 학내와 미술 분과를 오가며 작업을 하였다. 이때 광자협의 이상호 등과 교류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현재 목포대학교 미술패는 '유달산' 과 '민족민중미술패 돛대' (이하 돛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달산은 이름을 제외한 활동내용은 미상이다. 1986년 무렵 미술학과 송봉학의 주도로 돛대가 창립되었다.[409] 미술패 고유 사업보단 총학생회의 선전기구로 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대학미술패에서 공통된 사항이다. 또한 5 · 18주간을 위시한 각종 연대 사업에 미술패 대반동과 함께 공동 작업을 펼쳤다. 1990년부터 돛대는 미술학과 학생을 회원으로 받지 않기로 회칙을 개정하였다. 즉,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회원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유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 이후, 평균 1기수에 10명 내외의 신입생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때론 20명을 상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중에 5~6명 정도가 계속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회원은 의류학과와 조경학과 학생이 많았다. 해당 과의 전공과정에 미술과목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미술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자보다 여자 회원이 4배가량 많았는데, 남자 회원이 더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고 한다.

돛대의 주된 작업은 총학생회의 선전 작업 – 각종 행사용 프랑, 걸개그림, 바닥그림 – 이었다. 정기전은 1년에 1회 개최하였다. 특히 1991년도 대동제에 북한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강연회를 열어서 호응을 받았다. 대동제 기간엔 수익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돛대에서 상시 활동이 가능한 인력은 10여명 내외였는데, 이들은 김경학 등 대반동 선배로부터 작품제작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 또한 국문과 선배에게 철학이론 등 학습을 받았다고 한다. 1989년부터는 남미연에 결합하여 연대 사업을 전개

409) 이하 내용은 박영복(목포대 경영학과 졸, 90학번, 91년도 돛대 회장)의 인터뷰(2014. 2. 6.)를 근거로 작성했다.

하였다. 1992년부터 돛대는 활동의 중심을 대외연대사업에서 학내 전시 위주로 전환하였다.

8. 목포과학대학 미술패 : 民(1990~1991)

목포과학대학(옛 목포전문대) 미술패로 '民'이 확인된다. 목포전문대는, 놀이패 '한마당'(1981)과 노래패 'ㅎ·ㄴ'(1988)의 활동이 활발했다. '민'은 주로 총학생회 선전부 역할을 하였다. 민은 목포대 미술패 돛대의 그림지도와 이론적 조언을 받았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

9. 연대활동의 강화(1989~1992)

가. 미술선전방식의 변화

1990년에 접어들면서 미술선전매체의 경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판화매체에 대한 대중의 호응 및 수요가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판화의 굵은 선 맛에 거부감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미술패 신입 회원의 판화에 대한 요구도 줄어들었다. 반면에 실크스크린이 미술선전매체의 총아로 떠올랐다. 실크스크린은 판화보다 제작이 손쉽고 대량복제도 훨씬 빨랐다. 원판보관이 힘들고 부식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판화보다 실크스크린은 보관도 간편했다. 차츰 미술선전물은 실크스크린으로 대체되어 갔다.[410] 보통 4절지 크기에 2-3가지 잉크를 사용한 실크스크린 벽보선전물이 유행하였고, 집회나 가두시위 때 각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선전물을 나누어 주거나 직접 부착하였다. 전남대 총학생회 진군제부터 걸개그림의 내용 및 형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411]



〈고김철수학생 장례식에 사용된 손깃발, 1991〉

1991년부터 5·18운동이 투쟁집약적 사업 위주에서 대중적 축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집회 무대에 '불타는 탱고'식의 율동이 유행하면서, 각 단대 학생회까지 율동패가 조직되었

410) 판화는 개인작가의 작업형식으로 그 존재양태가 바뀌어서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411) 1990년대 초반에 전남대 미술패가 제작한 대표적인 걸개그림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 진군제 걸개그림(김병하 주필, 마당, 중앙도서관에 부착), 제4기 전대협 출범식무대 걸개그림 (김병하 주필, 남미연, 1990), 전농주최농민대회의 걸개그림(김병하 주필, 마당, 1990), 〈5월로 다시 살아와〉(엠보천에 유성도료, 10×50m, 참미련, 1990, 중앙도서관 전면에 부착)

다. 자연스럽게 미술패에게도 무대미술 연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했다. 또한, 걸개그림의 내용도 투쟁을 선전하고 결의를 집약하는 성격에서 무대를 장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걸개그림의 크기가 대부분 작아졌다. 압도적 크기보다 소형걸개그림이 선호되었다. 미술패 입장에서도 대형걸개그림은 제작 인력 및 창작 공간의 확보, 그리고 보관의 어려움이 만연했고, 총학생회 측에서도 예산 부담의 문제가 있었는데, 소형 걸개그림의 제작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그림만장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림만장이란, 유채색의 천을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서 간략한 그림과 선명하고 확고한 투쟁구호를 쓰는 형식의 선전물인데, 집회 현장이나 대동제 무대의 양쪽에 그림만장들을 한꺼번에 걸어서 대회 분위기를 돋우는 구실을 하였다. 행사 무대에도 걸개그림 대신 흰 천을 걸기도 하였다. 율동패의 급격한 성장과 집단군무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무대 뒷면은 오히려 간결하고 선명 형식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밖에 만화의 대중성과 만화패의 성장에 힘입어 격렬한 형상이 아닌 친근한 형식의 만화선전물이 유행하였다.

1992년부터 학내미술패의 사업 대부분이 전남대학교 학내미술연합(약칭 전대학미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변화된 분위기에 따른 미술형식에 대한 미술패의 고민은 심각했다. 기획단을 구성하여 무대연출, 학내의 문예 공간 조성, 옷 스카프 등 기념품 도안, 투쟁체 등 플랫카드 글씨 고안, 미술 대중사업 개발(걸개그림・바닥그림 함께 그리기, 만장 함께 제작하기), 전남대 주변 상가의 간판정리 사업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남대 학미연을 중심으로 '거리미술투쟁'이 활성화되었다. '게릴라전',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 거리미술투쟁은 가두시위 때 바닥에 투쟁구호를 쓰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후 페인트가 스프레이로 교체되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시민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직접 구호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민들도 많았다. 마당, 만화패 창이 중심이 되어 시



〈그림만장_박승희 장례식〉(전남대,1990)



〈거리미술투쟁_김철수 장례식,1990,금남로〉

작한 거리미술투쟁에 신바람, 참민련, 남미연 산하 동아리들도 합류하면서 자못 열기가 높았다. 작업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미리 미술패별로 도안을 짜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한 후에 거리미술투쟁에 나섰다. 거리미술투쟁에는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고 시민의 호응이 가장 높은 풍자적인 만화그림이 주로 그려졌다.

나. 전남대학교학내미술운동연합

1988년 7월, 각 지역별 미술운동조직이 연대 사업을 모색하였다.[412] 그리고 시각매체연구소가 제안한 광주오월항쟁계승 미술사업(이하 오월미술전)에 합의하였다.[413] 1989년 12월, 5·18항쟁 10주년을 겨냥한 〈오월미술전〉의 논의과정에서, '민족민주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이하 민미련 건준위) 조직이 구성되고, 여기에 남미연건준위를 비롯한 학생 미술패가 참여하였다.[414] 이듬해 1월, 민미련 조직개편안이 사회부문과 학생부문의 분리를 원칙으로 통과되었다.[415] 학생미술운동의 고유성, 임무,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416]



<고 박승희 장례식 노제 걸개그림 및 만장, 광주역광장, 1990.5>

412) 학생미술운동조직 및 서울미술운동집단 가는 패, 청년미술공동체, 겨레미술연구소, 광주시각매체연구소가 참여하였다. 최열, 앞 책, 302쪽.
413) 최열, 앞 책, 302쪽.
414) 참여단체로는 부산미술운동연구소, 미술운동집단 가는 패, 남미연건준위, 전북청년미술공동체, 서울청년미술공동체, 부산과 대구의 학생미술패준비모임 등이었다. 최열, 앞 책, 306쪽.
415) 최열, 앞 책, 311쪽.
416)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건설준비위원회・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준비위원회,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 1990, 1 5쪽.

1989년 2월 18일, 전국 30여개 대학 미술패가 참여한 '전국대학미술패 대표자회의'에서 '전국대학미술운동건설 준비위원회'(이하 전국 학미연)의 구성이 확정되었다.[417] 전국 학미연 건설과정에서 미술패 마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1기 공동대표로 기세홍(전남대 그림패 마당, 87학번)이 전승일(서울대 86학번)과 함께 선출되었고, 남미연 대표 김병하가 제2기 전국 학미연 대표를 겸임한 것이다. 전국 학미연은 '①미술대학 학생회를 강화하여 조직화와 의식화 사업을 추동하는 것 ②학생운동의 임무와 역할에 적극 복무하는 미술선전활동을 통한 문예대중화사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실천방안으로 결정하였다.[418] 전국 학미연의 건설은 전국적 형태의 문예통일전선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학생미술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전국 학미연 건설의 여파는 곧 대학 미술패에게도 전파되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미술패를 비롯한 학내 문예운동조직에 대한 총학생회의 인식이 고양되었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문예역량을 강화하고, 각 과별 문예소모임건설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마당에서도 기존의 교육부를 '문예부'로 확대하여 각 동아리의 문예이론교육, 정책생산,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1991년). 단대 학생회의 문예활동을 지원하고, 학내 취미미술동아리인 〈그리세〉와의 연대 사업을 제안하였다. 공과대학의 벽화제작도 지원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중앙 문예동아리의 역량과 성과를 학생 대중에게 전파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다. 그러한 성과의 하나가 1990년 미술교육과 학생회 소모임 '참교육 민족미술연구회'(이하 참민련, 1990년)의 창립이었다.[419] 교내에 마당, 신바람, 만화패 창, 참민련 등의 미술패가 활성화되고, 학생회의 문예역량이 강화되면서, 각 단체 간 역할 분담의 한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상호조율을 위한 학내미술운동연석회의가 마련되었고, 그 유용성이 〈광주민중항쟁도〉제작과정에서 확인되었다.

1990년 5·18항쟁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벽화를 제작하자는 논의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총학생회에서 제작 경비를 지원하고, 마당, 신바람, 참민련을 중심으로 '벽 그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해 〈오월미술전〉에 연이은 학내 미술패의 연대 사업이었다. 사범대학 제1호관 벽면이 벽화 장소로 결정되고, 1개월에 걸친 시안 구상을 위한 학습이 진행되었다. 시안은 하성흡(미술교육과 87학번)이 완성하였다. 벽화제작기간은 6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였으며, 6월 11일에 벽화제막식이 열렸다. 광주항쟁의 발화점인 전남대학교에 〈광주민중항쟁도〉(벽면에 유성도료, 16×10m)가 그려지기까지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투쟁의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광주민중항쟁도〉에는 1980년대 미술운동의 성과가 오롯이 담겨있다. 화면중심에 총을 든 왼손을 힘차게 뻗은 청년, 화면하단에서 군용 지프를 탄 시민군의 모습 등은 오월미술운동을 통해 전형화 된

417) 같은 책, 5-6쪽.

418) 또한 평양축전참가투쟁으로 촉발된 조국통일촉진미술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청년미술학생겨울한마당」, 1990.1, 6쪽.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미술패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총학생회와의 관계설정, 정치조직과의 결합수준, 학생미술운동과 미술학생운동의 위상설정, 자주적 문예이론을 둘러싼 논쟁 등 여러 방면에서 의견차가 노정되었다.

419) 마당출신 이차영(미술교육과 86학번)이 역할이 컸다.

시민군의 형상이다. 만세 부르듯 총을 번쩍 치켜든 시민군의 형상도 홍성담의 〈대동 세상〉에서 착안된 것이다. 또한 화면 왼쪽 하단의 가마솥에 밥을 짓는 모습역시 광주항쟁의 공동체적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예술적 모티브이다. 화면 상단의 백두산 천지와 서로 팔짱을 낀 4명의 청년학도의 모습은 조국해방통일운동을 형상화하는데 즐겨 사용된 예술언어이다. 표현기법에서도 굵고 간결한 검은 윤곽선 등은 1980년대 목판화운동의 성과를 수용한 것이다.



그림 68 <광주민중항쟁도>(유성도료, 16×10m, 마당 • 신바람 • 참민연 공동제작,1990)

1991년 말, 학내미술패연합전시인 〈열린 그림전〉[420]의 준비를 계기로 전남대 학미연이 건설되었다. 마당, 만화패 창, 신바람, 참민연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남대 학미연의 결성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각 문예조직의 상황이 다양했고, 장르별 특성이 달랐으며, 총학생회 문화국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전남대 학미연은 정기적인 각 동아리 회장단 모임을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조율했다. 매시기 문예투쟁의 과제를 제시하고 교육부 모임을 통해 문예이론 학습과 창작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1989년 3월 18일 전남대에서 제1회 전국국립예술대학연합회(이하 전예련) 결성식이 열렸다.[421] 전예련에는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가 참여하였다.[422] 운영위원회 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각 대학 국악, 미술, 음악, 무용분과)으로 구성하고 사무국과 선전국을 두었다. 제1회 의장으로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장인 김성권이 선출되었다. 분과위원은 각 대학 학회

420) 학내미술운동동아리에서는 연합하여 교내전시회를 열었는데, 1990년부터 〈열린 그림전〉으로 전시명을 붙였다. 보통 5·18추모기간이나 연말에 열었으며, 장소는 학생회관 등의 실내 혹은 중앙도서관 5·18광장이었다. 판화, 소형걸개그림, 수묵화, 만평, 만화 등 개인작품과 공동작품을 출품하였다.

421) 전남대학교예술대학 학생회, 「메아리」창간호, 1990. 6.21, 3면

422) 전예련의 결성은 청년학생문예운동론의 浮上과 맥을 같이한 결정이었다. 1980년대 학생문예운동은 예술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학생에 의해 촉발되었고, 뒤늦게 예술전공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합류한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전남대 신바람의 경우도 그러했다. 마당과 신바람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지만, 신바람에 들어온 마당출신 회원과 미묘한 갈등이 있기도 하였다.

학생회장이 맡았고 분과위원장으로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회장이 선출되었다. 그밖에도 전남대학교에는 '해방문화패'가 있었다. 그림패 마당, 만화패 창, 글패 용봉문학, 노래패 횃소리, 영상패 아리랑, 탈패 민속문화연구회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미술계열학생회연합건준위'(남미학연)의 존재도 확인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전남대학교 사대 미술교육과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대 미술학과 학생회,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학생회, 광주대학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목포대학 미술학과 학생회가 참여 단체였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미상이다.[423]

다. 광주 · 전남지역대학미술패 연합

1988년 11월 조선대에서 '붓과 칼을 곧추세워 민족해방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광주 · 전남지역대학 미술패 연합(약칭 남미연)이 결성되었다.[424] 전남대학교 미술패 마당과 신바람, 조선대학교 개땅쇠, 호남대학교 매, 광주교육대학 솟터가 참여했고, 이후 목포대학교 돛대, 동신전문대학 '신새벽', 서강전문대학 '한울타리', 송원전문대학, 간호전문대학이 남미연에 합류하였다. 1988년 9월 조선대학교 민주총장 취임식에 광주지역 대학미술패가 모두 결합하여 걸개그림, 깃발그림 등 온갖 취임식 미술선전물을 제작한 경험이 남미연 건설의 계기가 되었다. 각 대학 미술패들은 일주일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공동 창작했던 경험을 통해서 미술패 연합의 효과와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이다. 같은 해 10월과 11월에는 광주시각매체연구소와 함께 벽보선전전[425]을 함께 전개하면서, 대학 미술패들은 연대조직 건설을 가시화해갔다. 그리고 남미연의 결성과정에서 전남대학교 마당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426]



걸개그림<이돈명총장취임식>(높이 11m, 남미연, 1988.9, 조선대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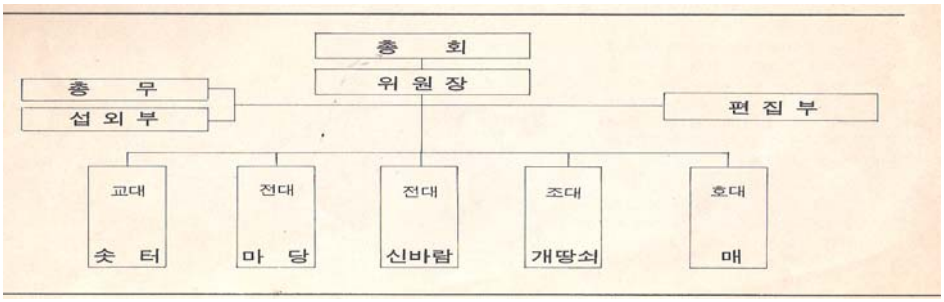
남미연은 전국적 연대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같은 해 12월 17일 대전에서 결성된 전국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약칭 민미련)과 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미술운동에 대한 현장지원을 다짐했다. 남미연 건설의 효과는 〈민족해방운동사〉제작과정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1988년 12월 민미

423) 전국학생미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원회,『학미연』창간호, 1989.10.16, 뒤표지 광고.
424) 『남미연』창간호, 1989.3, 3쪽.
425) 제1차벽보선전전 : "반미, 반핵, 반독재-평화"전(1988.10.24), 제2차벽보선전전 "전·이 구속처단 반노-반미"전(1988.11.19-) 이하 벽보선전전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남미연』창간호, 1989.3, 15쪽
426) 그림 12. 〈남미연 조직체계〉(같은 책, 3쪽)

련은 지역 간 연대창작사업으로 〈민족해방운동사〉를 결정하였다.[427] 우리 근·현대사를 반제민족해방운동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대하걸개그림으로 형상화하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428] 각 지역 5개 미술운동단체와 전국전국학미연 산하 30여개 대학미술패가 조직적으로 〈민족해방운동사〉제작에 참여하였다.[429] 남미연은 1988년 겨울에 창작단을 꾸려 〈민족해방운동사_6월 항쟁도〉의 제작에 돌입하였다.[430] 전남대의 마당, 신바람 외에 조선대의 땅 끝, 광주교대의 솟터, 호남대의 매가 창작단에는 합류하였다.[431] 이들은 공동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요 인물을 중앙에 배치하고 굵은 먹 선으로 처리하는 시안을 마련하고, 2개월에 걸쳐 조선대학교 본관 5층에서 걸개그림 제작에 매진했다.

이처럼 조선대학교 이돈명 총장취임식 선전물 공동작업, 벽보선전전, 〈민족해방운동사〉 제작 등 잇따른 연대활동은 이 지역 대학미술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작품의 주제설정부터 시안작성,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토론하고 협의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각 대학 미술패의 관계가 깊어졌다. 서로의 경험과 인식이 공유되고, 창작 역량은 축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 대학 미술패에 비하여 활동 경력과 창작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전남대 미술패의 역할이 컸던 것은 당연했다.

남미연의 활동에서 학습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일된 미학관을 공유하려는 집단학습, 초청세미나, 현장답사가 기획되고 실천되었다. 1989년 8월 남미연 여름학습은 '우리 시대의 미학과 리얼리즘을 정립하기 위하여' 란 주제로 6박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432] 당시 일정을 보면, 예술일반론, 미학



427) 이태호,「80년대 걸개그림과 〈민족해방운동사〉」,『전국학미연』창간호, 전국학미연편집부, 1989.10.16, 7쪽 ;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4, 320-324쪽.

428) 각 주제별 작품크기는 7×2.6m이며 전체 크기는 77m에 달한다. 11개 작품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제국의 침략과 갑오농민전쟁 ②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 ③항일무장투쟁 ④해방과 대구 시월 ⑤4•3과 여순, 6•25 ⑥반공정권과 4월 혁명 ⑦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⑧광주민중항쟁 ⑨민족자주화운동 ⑩민중생존권투쟁과 6월 항쟁 ⑪조국통일. 최열, 『한국현대미술운동사』, 돌베개, 1994, 324쪽.

429)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부산미술운동연구소, 광주시각매체연구회, 전주겨레미술연구소, 대구민중문화운동연합 미술 분과, 서울 미술집단 가는 패, 마산 미술집단 봉화, 서울 청년미술공동체, 광주전남지역대학미술패연합, 전북청년미술공동체, 대구지역 미술학생모임, 부산 미술대 학생연합준비모임.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미술소조 광주시각매체연구회편, 『민족해방운동과 미술』, 1990, 7쪽.

430) 광주시각매체연구소는 〈오월항쟁도〉를 제작하였다.

431) 〈민족해방운동사〉는 1989년 4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첫 선을 보이고, 전대협출범식(한양대학교)을 거쳐 전국 순회전(광주는 5월 금남로 가톨릭회관 앞)을 가졌다. 그러나 7월 한양대 전대협 진군제때 경찰난입으로 파손, 소실되고, 홍성담, 백은일이 구속되고, 홍성민, 박광수가 안기부의 수배 및 사찰을 받았다.

432) 이하 서술은 다음을 참고했다. 남미연 편,『우리 시대의 미학과 리얼리즘을 정립하기 위하여』, 남미연 여름학습, 1989. 8



<민족해방운동사_6월 항쟁, 2.6×7m, 남미연, 광주금남로>

강의, 리얼리즘과 민족형식, 한국현대미술사(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중국미술사 슬라이드), 갑오농민전쟁 전적지 답사, 현 학생미술운동의 위상과 역할, 남미연 총회, 상반기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초청강사로 이태호 교수(당시 전남대 교수), 최열(민중미술 평론가), 윤상기가 참여하였다.[433]

1989년부터 남미연의 연대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리면서 각 지역미술패를 지원하고 결합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전남대의 경우에도 마당이 남미연과 함께 〈구속미술인 석방을 위한 전시〉(1989, 전남대 제1학생회관 2층 휴게실)를 개최하였다. 여름농촌봉사활동 시기에는 각 대학 미술패의 벽화 팀으로 구성된 남미연연대벽화제작추진위를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농활벽화사업을 추진하였다.[434] 남대협 출범식 걸개그림, 이철규열사 장례식 때 사용한 수많은 미술선전물 제작도 남미연에서 주도하였다. 또한 평양축전행사 전국학미연 창작단에(한양대학교) 참여하여 각종 선전물제작에 동참하고, 광주시각매체연구소와 함께 홍성담, 백은일 등의 석방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른 미술운동단체와 연대사업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남미연의 활동력은 고양되었다. 우선 참여대학이 늘면서 인력이 보강되었다.

---

433)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실한 생활로부터 예술적 형상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예술개념, 근대에 있어 예술개념의 변천, 파인 아트(미술), 예술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점들, 예술개념에 대한 논점들, 왜 민중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인가, 계급사회의 성립과 그 문화, 지배계급의 문화와 피지배계급의 문화, 문화혁명에 대하여, 한국현대민족미술사 강연, 80년대 민족민중미술운동과 오월미술-그 현황과 전망.

434) 마당(영광군,1989·90·91), 신바람(진도군,1989/보성군,1991), 조선대(나주,1990/함평군,1991/진도군,1993), 우리미술연구회 판(보성군, 장성군,1993)

전대협 문예문과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대협의 문예조직과 결합력도 강화되었다. 지역지원사업도 활발해졌다. 이에 고무된 대학미술패들은 학내 밖까지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각 대학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했으며, 취약한 대학미술패에 대한 지원사업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미연의 활동력은 이른바 분신정국에서 극대화되었다.

1991년 4월 26일, 강경대(명지대 1년)가 진압경찰(백골단)의 폭력으로 피살되었다. 4월 29일, 박승희(전남대학교, 20세)가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 대회'중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분신, 5월 19일 운명하였다.(그림 14) 5월 1일 김영균(안동대학교), 5월 3일 천세용(경원대학교, 20세), 5월 8일, 김기설(전국민족민주연합 본부 사회부장, 26세), 5월 10일 전남대학교에서 윤용하의 분신(노동자,22세), 5월 18일 김철수(보성고등학교 3년) • 이정순(노동자, 39세), 5월 22일 정상순(노동자, 김철수 학교 선배)의 분신이 계속되었다. 5월 25일에는 김귀정(성균관대 4년)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압사하였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사회미술운동조직 및 남미연 산하 학내미술패들은 전남대학교 병원에 집결하였다. 민미련 회원과 남미연이 주축이 된 미술선전단을 구성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분신정국 한 달 동안 대학미술패들은 영정, 만장, 플랫카드, 걸개그림, 벽보선전물 작업에 그야말로 헌신하였다.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마당극운동

김 도 일

민주장정 100년

목 차

1. 서론 ····· 323

2. 마당극의 생성과 전개 ····· 324
1) 마당극의 생성 배경 ····· 324
2) 마당극 운동의 전개과정 ····· 326
3) 마당극 · 마당굿 · 민족극 ····· 327

3. 광주 · 전남 마당극의 태동과 5월 문화투쟁 ····· 330
1) 전라도 마당극의 효시 〈함평고구마〉 ····· 330
2) 극회「광대」와 80년 5월 문화투쟁 ····· 331

4. 마당극과 문화운동 ····· 335
1) 전라도 마당극의 전형 놀이패「신명」 ····· 335
2) 전라도 해양문화 극단「갯돌」 ····· 345
3) 광주 5월 연극 전문극단「토박이」 ····· 353

5. 마당극 운동의 의의와 과제 ····· 361

6. 결론 ····· 363

1. 서론

한국 연극사에서 신파극, 사실주의극, 표현주의극, 부조리극, 서사극 등의 연극양식들은 일본을 통하거나 서구와 미국으로부터 직접 이식되거나 도입되었다. 연극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번역·번안 작품들에 대한 주체적 재해석보다는 외국의 연극적 성과에 대한 습득이 주된 과정이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연극분야의 자생적 문화이행에 대한 실패와 식민지적 경험과 서구문물에 대한 일방적 수용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근·현대예술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흐름이었다.

마당극은 1960년대 중반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서구문화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 유신시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일제강점 하에 거의 단절되었던 한국연극에 대한 전통의 맥을 이으며 〈진오귀 굿〉(1973년 김지하 작, 연출)[1]에서부터 본격적인 마당극이 시작 되었다. 서구근대연극에 기반 한 신극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과 민족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통 민속연희의 부흥운동이 〈진오귀 굿〉을 계기로 결합되었고, 이 지점에서 마당극이 탄생[2]한 것이다. 마당극은 굿과 탈춤, 판소리, 꼭두각시놀이, 대동놀이 등 민속연희의 계승과 고유문화의 전통성 회복을 정신적 원류로 삼았으며, 마당극에 내재하고 있는 민중주의 의식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에서 마당극은 주로 사회의 부조리와 정치적 모순,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로써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생성된 광주·전남지역의 마당극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의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광주의 놀이패 「신명」과 극단 「토박이」, 그리고 목포의 극단 「갯돌」이다. 이들 단체 중 놀이패 「신명」과 극단 「갯돌」은 80년대 초기에 창립하여 대학가, 농촌, 노동현장, 지역대중의 현장에서 공연활동을 통해 성장한 마당극 전문단체이다. 현재도 창작공연과 축제기획 그리고 예술교육 등을 주요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극단 「토박이」는 무대극을 중심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소재로 삼아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연극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연극단체이다. 연구의 시간적 거리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이 치열했던 시기의 마당극으로 시대정신과 함께 사회변화를 추구한 시기를

---

1) 마당극 〈진오귀〉는1973년 서울 제일중앙교회에서 임진택 연출, 박우섭, 한승호, 홍성원등이 출연하여 〈청산별곡〉이란 이름으로 공연되었고, 그 이후엔 도깨비 장면만을 뽑아 주로 농촌 현장이나 농민집회현장에서 공연되었다

2) 이영미, 『마당극양식의 원리와 특징』,시공사, 2001, 46쪽.

중심으로 한다.

본고에서 논하는 단체 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문화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의 생성과 소멸의 역사가 있었다. 80년대 초기의 기독교문화선교단「갈릴리」, 80년대 중반의 현장문예조직이었던 노동자문화패「일꾼마당」과 농민문화패「황토바람」, 그리고 전남 여수의「벅수골」, 순천의「두엄자리」등이다. 이들 단체는 문화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활동은 현장문예조직이거나 지역단위에서 풍물과 탈춤강습을 중심으로 한 조직사업과 전통문화의 보급 사업을 펼쳤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마당극을 중심으로 한 전문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차기에는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풍물까지 포함하여 문화운동의 성과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 마당극의 생성과 전개

1) 마당극의 생성 배경

한국 민주주의운동사에서 민족 주체성과 자유민주주의가 정립되는 시기를 1960년대의 '한일회담반대투쟁' 의 전후로 본다면, 새마을운동과 함께 근대화 정책이 본격화된 1970년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중의식이 각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마당극의 생성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촉발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획득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관주도의 전통문화보존운동과 함께 문화재보호법제정·공포(1962) 이후 〈양주별산대 놀이〉를 시작으로 많은 민속극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관주도로 박제화되는 전통문화와는 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전통문화부활운동은 대학가의 탈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문화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국 대학에는 탈춤반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탈춤운동은 대학문화의 한 특징을 이루었다. 이러한 흐름에 창작탈춤이 더하고, 여기에 비판적 리얼리즘이 결합된 〈향토의식 초혼굿〉(1963)[3] 공

3) 〈향토의식 초혼굿〉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과정 속에서 63년 11월 서울대 '향토개척단' 에서 연행된 작품이다. 대본이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첫째마당은 〈원귀 마당쇠〉라는 제목 하에 당시 농촌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과 사대주의 장례식, 난장판 민속놀이 등 세거리로 구성된 공연으로 서울대 문리대 시청각실에서 공연되었다. 둘째 마당은 장소를 옮겨 4.19탑 앞에서의 장례식 공연이다. 〈향토의식 초혼굿〉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탈춤을 춤추는 것조차 신기하게 느끼던 시기에 무대 세트나 음악, 조명 없는 공연을 통하여 일반적인 무대극 개념을 벗어났다는 점. 둘째, 탈춤을 원용함으로써 70년대 창작탈춤의 기원적 의미가 되었다는 점. 셋째는

연은 마당극의 맹아라 할 수 있다.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한 대학가의 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한 군사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혁신적 인사들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근로조건에 항의하여 분신자살한 서울 평화시장의 전태일의 분신사건(1970.11.13)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희생되어 온 기층 노동자 대중의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노조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대화의 전개는 '통제' 또는 '관료제의 강화' 를 가져왔고, 다양한 계층의 형성은 물론 계층 간의 격차 및 불평등 관계를 초래하였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정부적 성격으로 진행되자 군사정권은 유신헌법을 제정 · 공포한다. 유신체제가 지배한 70년대의 사회상황은 5 · 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주세력에 대한 군사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요약되며, 유신헌법[4] 선포(1972.10)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군사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문화운동을 이끌게 되는 문화패의 형성도 학생권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민중개념의 등장과 함께 때를 같이한다. 이 당시는 군사쿠데타(5 · 16)의 영향으로 관료적 권위주의 현상이 문화 및 언론계에도 나타났으며, TV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이들 매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 정책 및 신문 · 잡지에 대한 사전 검열 등이 강화되었던 시기였다. 민중부문의 정치적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사회조직을 해체하거나 무력하게 만들고 민의를 대변할 제도나 활동기구 등을 크게 위축 시키는 것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일반적 문화정책의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유신 이후에는 선거와 같은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왜곡되면서 여론의 형성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국민의 의사전달 통로는 차단되었다. 기구나 매체 혹은 정상적인 검열을 거친 문화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5] 긴급조치 이후 학내집회는 불허되었기 때문에 시위는 문화공연 형태로 이루어졌다. 최소한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시대에 대중들에게 사회사건의 진실을 알릴 여론통로가 필요하였다. 초기 마당극에서 실제사건을 대중들에게 사건 알리기를 위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대로 알릴 수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유언비어의 시대적 수렁에서 마당극이 알릴 것은 알리고 그릇 알려진 것을 제대로 바로잡음으로써 민중의 진실을 전하는 언론의 한 통로"[6]로서의 역할이었다. 당시 마당극은 시위를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표현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이다. 즉 마당극은 사회의 특수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 감추어진 모습들을 들추어내어 사회의 이상과 혹은 사회와 동등하게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연극으로 출발하였다. 1970년대의 마당극

4.19탑 앞에서 진행된 〈향토의식 초혼굿〉 의 '사대 매판 굴종지추(屈從之樞)' 라는 장례식 공연은 추후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라는 역설적 명제의 전범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조동일이 극본을 쓰고 허술이 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토의식 초혼굿〉 은 '마당극' 과 '마당굿' 의 맹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 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치체제가 대폭 정비되고 통제 기제가 강화되어 집권세력은 막강한 사회 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5) 이옥경, 「70년대 대중문화 성격」, 『한국사회변동연구 1』, 민중사, 1984, 253-261쪽.

6) 채희완, 「마당극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 민중극』, 창작과 비평사, 1985, 4쪽.

의 생성과 전개는 전통미학적 원리와 역동성이 유신체제하의 억압적인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과 정치현실에 대항하기 위한 연극적 수용이었다.

2) 마당극 운동의 전개과정

마당극은 1970년대 생성 이래 문화운동이자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연극운동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마당극운동의 전개를 살펴보면 1970년대는 마당극의 생성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광주항쟁 이후 암중모색을 통하여 새로운 실마리를 찾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1984년 유화국면과 함께 각 부문의 공개 활동이 강화되었고, 마당극의 문화적 역량과 활동이 대학과 사회의 각 현장에까지 전달되면서 기층의 기반을 확보한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6월 항쟁) 이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창립, 「민족미술협의회」 창립,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의 재 창립 등 전국단위의 예술운동 조직들이 결성되면서 이전까지의 실천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확산 · 발전하기에 이른다. 사회 각층의 부문운동과 지역 간의 상호연대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당극은 이 시대의 연극적 경향을 지시하는 일반성을 확보하는 시기도 맞이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1988)를 결성[7]하였다. 당시 한국사회 최대의 관심사는 '민주화' 였기 때문에 마당극은 사회 변혁을 위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닐 수밖에 없었고 마당극의 성장은 사회의 반영 그 자체였다. 그러나 1990년대의 독일 베를린 장벽의 해체, 소련과 동국권의 몰락과 같은 탈이념의 국제적 환경과 문민정부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급격한 변화와 정세는 마당극 운동의 동력을 떨어트렸고 활동이 정체되기에 이른다.

1990년대 중반이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축제는 마당극의 정체된 국면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지역축제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란 측면도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근간으로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연대성 강화라는 축제의 원형(原形)적 의미를 통해 지역민의 주체적 의식의 강화라는 측면도 중요시되었다. 마당극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연극이었지만 작품의 주요 소재들은 지역의 역사와 사건, 인물들을 중심으로 극화하였기 때문에 축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방향에 부합되었고, 마당극의 양식적 특성인 개방성은 축제의 야외 공간과 용이하게 결합되었다. 국내의 다양한 축제에 마당극은 중요 프로그램이 되었고, 지자체의 사전 주문제작과 공식초청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되고 제작 · 유통 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

---

7) 전국 16개 시, 28개 연행패: 놀이패 「골굿때」, 놀이패 「들림」, 극단 「삭주벌」, 극단 「한광대」, 놀이패 「열림터」, 놀이패 「얼카덩이」, 극단 「자갈치」, 놀이패 「일터」, 놀이패 「말뚝이」, 놀이패 「탈」, 극단 「처용」, 놀이패 「베꾸마당」, 놀이패 「울림터」, 놀이패 「큰들」, 극단 「토박이」, 놀이패 「신명」, 놀이패 「어울림」, 놀이패 「갯돌」, 놀이패 「백두」, 놀이패 「한라산」, 극단 「새뚝이」, 극단 「아리랑」, 극단 「연우무대」, 극단 「연희광대패」, 극단 「한강」, 놀이패 「한두레」, 극단 「현장」, 「민족극연구회」 등.

마당극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축제와 함께 다시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당극 자체가 기동성과 현장성 그리고 축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 1980년대를 관통하면서 축적된 창작력과 기획력 그리고 침체를 벗어나려 했던 자구노력 속에 쌓인 전문성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경계가 없어진 사회적 환경에 기인하여 마당극이 지닌 정치성과 사회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당극은 정치적 선동과 계몽의 성격에서 벗어나 대중예술운동으로의 가능성과 예술성에 대한 자기 점검, 열린 연극으로서 새로운 가치 개념의 모색 등 다양한 실험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제의성과 축제성을 강화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마당극 · 마당굿 · 민족극

보편적인 마당극 개념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진보적 연극 운동의 성향을 지닌,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감수성에 뿌리를 두고 민족이 처한 현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담아내는 연극으로서 민족연극[8]" 으로 정의한다. 마당극은 이념적 가치와 양식적 가치가 내재된 개념으로 전통연희의 형식과 정신을 계승하여 현 시대의 정치 ·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보다 참여적 의지와 활동을 통한 운동적 성격의 연극을 뜻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마당극이란 용어를 실제 공연에 처음 사용한 것은 1976년 서울대 총연극회의 〈허생전〉 [9]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마당극의 연행형태는 1960년대의 〈향토 초혼굿〉 이며, 본격적으로 마당극 형식을 최초로 갖춘 작품은 김지하의 〈진오귀굿〉 (1973)[10]이다. 마당극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는 임진택에 의해 시도되었다.

기본적으로 폐쇄된 연극, 즉 연희자와 관객이 분리 되어있고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며 관객은 어디까지나 손님인 채로 놓여 진 연극을 일단 무대극의 범주에 넣고, 반대로 개방된 연극, 즉 연희자와 관객이 한 덩어리이고 연희 마당과 관중석이 서로 통하여 관중이 주인 되는 연극을 마당극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11]

---

8) 정지창, 「마당극의 성과와 과제」, 『창작과 비평』 57호, 창작과 비평사, 1985,108쪽
9) 채희완, 「70년대의 문화운동-민속극을 중심으로」,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5, 186-187쪽
10) 마당극의 효시로 보는 김지하의 〈진오귀굿〉 은 원주지역의 농민운동에서 협업운동을 시작하면서 선전을 목적으로 한 농촌 계몽극이다. 판소리와 탈춤, 사실주의극 등 다양한 연희 형식을 종합하고 있으며 기존 희곡과 달리 마당극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당극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영미는 이를 기존연극의 서양연극 중심성과 순수주의에 대한 반성이라는 한 축과 민족적 역사 의식과 민중 지향성을 구심으로 하고 있었던 탈춤부흥운동의 현재적 지향이, 당대 민중현실을 향한 구체적인 연극 실천 의지와 만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진오귀굿〉 이 마당극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 작품과 더불어 마당극이 사실주의는 물론이요 서사극까지도 참고하고 있는 양식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11) 임진택, 앞의 논문, 1980 봄, 104쪽.

마당극이란 한마디로 마당이나 실내의 넓은 공간에서 공연되는 연극 형태를 말한다. 즉, '마당'과 '극'의 합성어로 마당에서 하는 연극이 마당극이다. 마당은 열린 공간을 의미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마당극이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공연 행위가 놓이는 맥락에 따라 무대가 마당이 되고 마당이 무대가 될 수도 있듯이, 야외와 실내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용어로 이해 할 수 있다.

마당극의 근간은 '놀이정신' 과 '마당정신' 이며, 이러한 두 정신을 바탕으로 상황적 진실성, 집단적 신명성, 현장적 운동성, 민중적 전형성 등 네 가지 성격[12]으로 규정하고 있다. 놀이정신이 민중적 미의식의 내재적 존립 근거로서 '신명' 이라는 정신적 의미라면, 마당은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상황개념으로 삶의 토대를 의미한다. 마당은 삶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생성의 토대이자 공동집회의 장소가 되며, 단순한 유흥적인 놀이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삶을 억압하는 모든 외부조건에 대한 저항의 공간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마당판에서 놀이정신과 함께 삶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결을 거쳐 다시금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대립자와의 화해 및 친교까지도 가능케 하는 개방적 포용성을 마당정신이라고 한다. 마당극은 이러한 놀이정신과 마당정신을 결합한 바탕 위에서 펼쳐지며, 앞에서 언급한 상황적 진실성, 집단적 신명성, 현장적 운동성, 민중적 전형성 등 네 가지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마당극이 지닌 열린 공간의 상징성과 사회운동의 진보성을 확장시킨 것은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13]부터이다. 무속의 종교적 제의, 즉 민중들이 지니고 있는 공동의 아픔과 한을 확인 · 집약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형태로서 사회적 차원으로 결합한 마당굿은 마당극의 이념을 확대하는 개념이었다. 마당굿은 마당극 양식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굿이 지니고 있는 전통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를 운동성으로 전환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한 개념이다. 마당극의 집회성격을 부각시키고 마당극이 연극양식으로 협소화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민중의 체험과 삶의 맥락에 대한 연결이었다. 마당극의 전통적 형식을 강화하고 운동양식으로서 확립하려는 마당굿은 이념 지향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

12) 상황적 진실성: 마당극은 인간 및 사회의 위선 · 허위들을 통렬하게 벗겨버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삶을 직시케 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공동적인 것이므로 사회적 진실성이며, 관념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것이므로 현재적 진실성이다. 이러한 사회적 진실성과 현재적 진실성이 결합될 때 이를 상황적 진실성이라 한다.
집단적 신명성: 신명은 모든 대립적인 요소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응어리진 한과 고통을 풀어헤침으로써 이를 해소시키는 놀이의 원동력이다. 사람마다 내재된 신명을 밖으로 도출시킬 때 상황적 진실성은 비로소 생동하는 것이며 도출된 신명을 다시 집단에 두루 공유화시킬 때 그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현실 인식의 상황적 진실성은 현실 극복의 집단적 신명성으로 확산된다.
현장적 운동성: 마당극의 한판의 집회로서 그때그때 정황에 따른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 변화무쌍한 임기응변으로 현장적인 열기를 더해간다. 혹은, 그것이 즉발적인 대처가 아니더라도 마당극의 현장적 분위기는 계속 생활 속에 축적되어 잠재했다가 언젠가는 운동성을 갖게 된다. 이를 '현장적 운동성' 이라 한다.
민중적 전형성: 개인의 문제가 공동의 문제로, 개인의 신명이 집단적 신명으로 공유화되어가는 과정의 반복은 이제 사건의 본질만 남겨 놓고 굴러가면서 전형성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에피소드는 떨어져 나가고 공통분모만 남아 마당극은 민중의 생활 체험을 예술적 체험에 의해 공동시선으로 공유화시키는 전형적 통로로 작용한다. 이것이 민중적 전형성이다.

13) 임진택 · 채희완,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한국문학의 현단계 Ⅰ』, 1981.

즉, 마당극이 전통의 현대화와 재창조라면 마당굿은 역설적으로 근대화를 전통으로 되돌려 전통문화 속에 축적되어온 민중의 공동체적 에너지를 시대를 변화시키자는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마당극, 마당굿에 이어 등장하는 '민족극' 개념은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결성(1988)과 함께 '민족극한마당' 이라는 전국적인 공연 축제를 개최하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극은 분단이라는 민족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에 기여하는 예술이념에 기초하여, 이를 민중적 입장에서 형상화해 내는 연극예술로서, 마당극양식을 근간하여 다른 연극양식까지 포용하기위한 가치개념[14]이다. 이는 기존 마당극이란 개념을 연극 양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진보적 연극운동 이념이 담긴 작품을 총칭하여 민족극이라는 가치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통극이라는 형식 자체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마당극을 민족극 개념으로 바꾸어서 연극을 포함한 진보적 내용이 담긴 모든 공연형식을 포용하려는 시도였다.

마당극이 마당굿, 민족극으로 개념이 변화하면서 예술적 구체성을 잃고 기존의 예술 개념에 비해 너무나 광범위한 가치개념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15]도 있지만, 마당극 내부는 '민족극 한마당' 개최와 더불어 마당극과 진보적 연극 그리고 다양한 양식의 공연물까지도 수용하였다. 당시는 진보예술운동이 민중에서 민족으로 이행되던 시기였으며, 민족문학, 민족미술처럼 민족극으로 하자는 마당극 내부의 주장이 힘을 얻었던 시기였다. 마당극 · 마당굿 · 민족극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마당극으로부터 진화된 개념이며, 마당극은 사회적 의식이 내포된 연극양식 개념으로, 마당굿은 1980년대에 문화운동의 운동적 논리로, 민족극은 예술이념에 준한 가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마당극과 마당굿 그리고 민족극의 공통점은 사회참여라는 예술운동 성격과 민족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결합시킨 연극을 뜻하며, 오늘 날은 일반적으로 마당극을 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16]

---

14) 이미원은 세계적으로 민족극으로 통용된 경우를 보면 ,전래하는 고유의 민속극이나, 20세기 초반 아일랜드에서 예이츠나 싱그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예부흥운동 또는 영국이 자랑하는 세익스피어 연극을 비롯하여, 민중극, 혹은 진보적 엘리트가 주동이 되어 민중을 위한 사회투쟁(계급투쟁 포함)의 선발대로서의 선전극이나 교훈극 등등을 꼽고있다. 이 모두가 그 나름대로 '민족극' 이라고 명명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사회에 일고 있는 '민족극' 은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원, 『한국 근대극연구』 ,현대미학사,1994, 423쪽.

15) 김방옥, 「마당극 연구」 , 『한국연극학』 제7집, 한국연극학회, 1995, 238쪽.

17) 마당극 마당굿 민족극의 개념은 김도일, 「1980년대 이후 마당극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11, 16-20쪽 참조.

3. 광주 · 전남 마당극의 태동과 5월 문화투쟁

1) 전라도 마당극의 효시 〈함평고구마〉

광주 · 전남지역의 마당극과의 첫 인연은 해남 YMCA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남농어민회의 가을농민잔치(1977년 12월)에 초청된 서울의 놀이패 「한두레」 의 봉산탈춤의 먹중춤과 〈진오귀굿〉의 '도깨비장면' 공연이다. 행사에 참석했던 진보적 의식을 가진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놀이패 「한두레」 의 채희완, 김봉준, 유인택, 임명구 등의 지도로 광주 YMCA에서 탈춤강습[17]과 이론을 쌓게 된다. 강습이 끝난 후 'Y가면극회' 라는 명칭의 단체를 만들었고, 탈춤강습을 받은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은 '민속문화연구회(탈춤반)' 라는 동아리를 창립[18]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조선대학교에 탈춤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대학의 탈춤반 시작은 전라도 마당극운동의 태동을 의미하였다. 전남대의 '민속문화연구회' 와 조선대의 '탈춤반' 은 당장의 공연활동은 없었지만, 탈춤 〈고성오광대〉 공동전수를 통하여 기량을 키웠고 '들불야학' 강학 등 학생 운동권과 연대활동을 유지하였다. '민속문화연구회' 는 전남대 연극반과 학내교류활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광주 · 전남지역 최초마당극 〈함평고구마〉 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함평고구마〉[19]는 광주 · 전남지역의 첫 마당극 작품으로 가톨릭 농민회의 요청에 따라 당시 전남대 탈패인 민속문화연구회와 전남대 연극반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의 계림동 천주교회에서 열린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감사제' 에서 공연(1978.11. 27- 28)되었다. 〈함평고구마〉는 '함평고구마 부정수매사건' 이라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1976년산 고구마에 관해 농협도지부와 함평군 농협이 전량을 수매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산 농가가 땀 흘려 수확한 고구마가 썩혀버리거나 헐값으로 홍수 출하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데서 발단[20] 되었다. 이에 전남 함평군 농민들이 농협과 정부당국을 상대로 1976년 11월부터 1978년 5월까지 '고구마피해보상투쟁' 를 전개한다. 투쟁결과 고구마 수매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309

17) 김선출, 김윤기, 김정희, 윤만식, 조길예, 윤성석, 박철수, 오보영, 한영현 등이 수강생으로 참여
18) 전남대 탈춤반은 신입생을 모집하여 봉산탈춤 연습을 하던 중 1978년 6월 29일, 전남대 교수 11인 민주교육지표 선언지지 학생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김선출 회장, 김윤기 부회장이 주동자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혐의로 수배되자 학교 당국은 '민속문화연구회' 를 해체하였으나, 이후 다시 재건된다.
19) 대본:박효선, 출연: 박효선, 김태종, 이현주, 김영중, 전영호, 최인선, 김연중 등
20) 이우재, 『한국 농민운동사 연구』 ,한울, 1991.

만원을 보상받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수매자금 총 80억 원의 유용사실이 밝혀졌으며, 부패에 관련된 농협관련자 및 공무원 660여 명이 해임 및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공연은 고구마 탈을 쓴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진행의 핵심적인 뼈대만을 전달하고 그 핵심적 틀 안에서 농부들이 즉흥적인 재담이나 즉각적인 감정적 동조와 정서적 반응으로 상호 대거리하면서 사건진행의 핵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사건에 접근해서 다시 진행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서서히 사건의 자초지종과 본질을 밝혀나가는 '이야기하기' 방식[21]이다. 또한 함평고구마사건에 대한 단순한 전달만이 아니라 함평농민과 관객사이를 반복적으로 넘나들면서 집단적인 정서적 공감을 이루고 관객을 투쟁 농민으로 변화시켰다. 가장 민중적인 비유법과 농촌현장의 생생한 일상적 언어사용으로 집단적 동질성을 유발하였고, 현실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집단적 신명을 도출하게 하여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되는 힘을 보여주었다.

〈함평고구마〉가 광주 · 전남 마당극의 효시라는 점에서 갖는 의의는 농촌의 현장성을 강하게 담보함으로써 마당극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이후 극회 「광대」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광주 · 전남 마당극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22]가 있다. 또한 전라도 마당극의 주요 특징인 '집단적 신명성' 은 현실인식이 집단행동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획득된다는 것을 보여준 전범이 되었다. 마당극 운동사에서 〈함평고구마〉는 한국연극의 흐름을 이었고 마당극의 원리를 구축한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새로운 연극의 형식을 전통극을 기반으로 하여 창출해 내었다는 점을 한국 연극사에서도 높게 평가[23]하고 있다.

2)극회「광대」와 80년 5월 문화투쟁

(1)극회「광대」창단과 〈돼지풀이〉와 〈호랑이 놀이〉

극회「광대」는 광주 전남지역의 최초 마당극운동 단체이자 사회운동을 표방한 문화운동단체이다. 민주화의 봄이 다가왔던 1980년 1월에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 와 '전남대극회' 가 중심이 되었고, 여기에 조선대 탈춤반과 전남대 국악반의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여 극회「광대」를 결성[24]하였다. 창립작품으로 올린 〈돼지풀이〉는 〈함평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농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가 진행한 농업축산 정책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 돼지값 폭락을 극화하고 있다. 1980년 3월 광주 YWCA 무진관에서 공연하였으며, 기독교 농민회와 가톨릭 농민회의 요청으로 농촌 현장공연[25]을 다녔다.

---

21) 김영찬,「마당극 〈고구마〉의 작품론 노트」,『민족극과 예술운동』,민족극연구회, 1992년 봄호, 48쪽.
22) 박영정, 「광주 · 전남지역의 마당굿 운동에 대하여」,『전라도마당굿 대본집』,(광주)들불, 1989.
23) 김재석,「함평고구마 연구」,『한국연극학』 34호, 28쪽
24) 윤만식, 박효선, 김태종, 김선출, 김윤기, 김정희, 최인선, 김영중, 김영희. 이현주, 김빌립, 임희숙 등
25) 무안해제(배종렬), 강진 도암(김규식), 가톨릭피정센터(가톨릭농민회 행사)

〈돼지풀이〉는 잘못된 농정으로 돼지 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의 전말을 보여준다. 이른바 돼지값 파동이라는 사태를 피해농민을 대상으로 생활현장에서 직접 공동조사 연구하였고 극적 구성을 통하여 농민의 한과 그 극복의지를 생동감 있게 마당극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향토색 짙은 재담과 토종돼지와 수입돼지의 등장, 명령하달의 엇물림, 만만해 보이는 중간상인 설정 등으로 민중적 표현의 전형성을 창출한 점이 주목된 공연이다. 〈함평고구마〉처럼 농민의 집단적 승리가 극중에서 보장되는 것과는 다르게 농민의 피해가 비애로 끝나는 뒤풀이는 마당판에서 숙연함과 흥청거림이 어떻게 어울려 집단적인 신명을 일으키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쌀 수매가 문제를 비롯하여 농산물, 해산물, 특용작물에 이르기까지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파동을 두고 볼 때 이 마당극은 지금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한 하나의 전형적인 사회문제의 표현통로[26]라 할 수 있다.

마당극 〈돼지풀이〉에 이어 518 · 광주민주화운동 다음 해에 공연된 〈호랑이놀이〉(1981.5)[27]는 극회 「광대」의 제2회 공연이자 광주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했던 공연이었다. 웃음을 통한 날카로운 사회풍자가 돋보이는 박지원의 소설 〈호질〉을 기본 틀로 하여 해방 이후부터 1980년 5월 항쟁까지의 현대정치사를 은유기법을 사용하여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다루었다. 호랑이탈을 쓰고 나온 미제국주의자와 거기에 아부하는 국내의 권력자,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민중의 투쟁을 우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마지막 장면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호랑이에게 총에 맞는 포수는 민중의 상징이며 광주항쟁의 죽음을 의미하였다. 광주민중항쟁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마당극을 통해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호랑이놀이〉의 양식적 기법과 내용은 〈진오귀굿〉의 도깨비마당 이후 본격적인 창작탈춤으로서 한 획을 그으면서 그 후 대학가의 창작탈춤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28]을 하였다. 〈호랑이놀이〉는 놀이패 「신명」이 재구성하여 〈호랑이놀이 2〉(1987)로 각색 공연되었다.

(2) 80년 5월 문화항쟁

광주의 1980년 5월 문화투쟁은 극회 「광대」, 「들불야학」, YWCA를 중심으로 활동한 「송백회」 여성들의 활동[29]을 꼽는다. 시민군 홍보부장이었던 박효선[30]에 따르면 극회 「광대」는 당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광주 항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투사회보의 제작과 배포, 도청 앞 분수대 집회 주도, 그리고 마지막 날의 투쟁으로 활동상을 구분하고 있다.

1980년 5월 민주화성회와 횃불행진 등에 참여한 극회 「광대」 일원들은 공사 중인 소극장이 있던

---

26) 채희완 · 임진택 편, 〈한국의 민중극〉, 창작과비평사, 1985.
27) 대본:황석영, 김정희. 연출:김정희
28) 임진택, 「80년대 연희예술운동의 전개-마당극 · 마당굿 · 민족극을 중심으로」, 『민중연희의 창조』, 창작과 비평사, 1990, 140쪽.
29) 박효선, 「광주를 통해본 지역문화운동」, 『오월광대』, 극단 '토박이', 2003, 32쪽
30) 전대 신문 1989.3.23.

장동 로타리와 무등고시학원 앞에서 목격한 공수부대원의 잔혹한 진압행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를 다지고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 자취방에서 유인물 제작을 제작 · · 배포[31]하였다.

윤상원 등이 주도하였던 들불야학의 〈투사회보〉는 당국과 언론의 기만보도에 분노하며 광주항쟁의 진상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광주시민투쟁협의회' 의 이름으로 5월 19일 첫 호부터 항쟁 전 기간에 걸쳐 발행되었다. 첫 호의 내용은 주로 5월18일의 학살내용과 시민들에게 행동강령을 숙지시키는 것이었다. 제4호(5월 21일)를 발행 할 당시엔 인쇄조 · 물자 조달조 · 배포조 등의 3개조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명칭도 〈민주시민회보〉에서 〈투사회보〉로 변경하였다. 극회「광대」와「들불야학」이 주도한 유인물 작업은 언론이 침묵하고 있던 시기에 광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요구의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언론매체였던 것이다. 당시 유인물은 전남대, 조선대에서도 제작 배포하였다.

극회「광대」단원들의 도청 앞 분수대 집회 주도는 5월 22일 계엄군 퇴각과 함께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접수하고 오후 5시경 분수대 위에서 임시수습위원회의 시민궐기대회부터이다. 시민들은 유혈방지와 질서유지에는 찬동하나 '무조건 무기회수 · 반납하자' 는 주장에는 반대하였고 단원들은 '계엄철폐!' 와 '굴욕적 협상반대!' 를 외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수습위원회가 주최하는 투항적 시민집회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시민궐기대회는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의 확산과 대중의 건전한 요구가 수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보고대회는 시민의 힘과 민중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는 5월 23일 3시경에 묵념, 애국가제창, 경과보고, 각 부문운동의 성명서 낭독과 연설, 차기대회 공고, 민주주의 만세 삼창과 광주시민 만세 삼창으로 진행되었다. 5월 24일 개최된 2차 궐기대회에서는 전두환 화형식이 정점을 이룬다. 항쟁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열기가 식어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행사가 되었다. 대회 후, 시민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해서 조직의 재정비를 단행하게 되는데 기획조, 궐기대회조, 가두방송조, 대자보조, 인쇄조 등으로 역할 분담하였다.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2시)는 희생자가족, 종교인, 대학생들의 연설이 이어졌으며, 시민군 대표의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32]라는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26일은 계엄군이 약속을 깨고 새벽에 농성동 방면으로 진입하자 긴급 제4차 궐기대회를 오전 9시경에 개최하여 계엄군의 협정위반과 시민이간 책동을 성토하였으며 '전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 '국군과 군인들에게 보내는 글' 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제5차 궐기대회는 당일 오후 3시에 열렸으며 계엄군의 진압계획 소식을 접하게 되자 문화패는 이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시민 5천여 명은 화정동에 설치된 바리게이트까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도청 앞 궐기대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교사 주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

31) 전남대 정문앞 이돈규의 자취방에서 김태종, 김선출, 김윤기, 전용호 등
32) 김태종 작성, 이관택(시민군)) 낭독/ 민주화여 : 이윤정(송백회) 작성, 이현주, 임영희, 최인선 낭독

이 주장들은 곧바로 현장에서 공식적인 투쟁방침으로 결정되었고 도청 내 수습대책위원회(후의 항쟁지도부)에 전달돼 항쟁의 최고 의사기구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적 대중자치, 곧 "만민공동회"[33]역할을 하였다.

5월 항쟁의 마지막 날 밤, YMCA에서는 200여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격훈련과 시가전술 교육, 그리고 상황실장의 정신교육과 함께 결사대가 편성되었고, 문화패 역시 총을 지급받고 YMCA에 배치되었다. 계엄군의 공격으로 5월 27일 새벽 유인물 필경을 담당해온 박용준이 죽고 윤상원도 도청 안에서 싸우다 사망[34] 하였다.

광주항쟁 기간 중 홍보부장으로 참여한 박효선(극회「광대」단원)은 극회「광대」가 보여준 '5월 문화항쟁' 에서의 교훈을 첫째, 문화일꾼은 대중의 투쟁성을 보다 올바른 전략과 전술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 둘째, 문화일꾼은 단순 전문인만이 아닌 운동전반을 꿰뚫는 총체적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문화일꾼들은 투철한 사상적 기반을 확보하고 든든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35]라고 주장하였다. 문화패가 문화투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과 사상성과 조직력을 사전에 갖춰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극회「광대」가 보여준 5월 항쟁 기간 중 투사회보의 제작과 배포, 집회 주도, 그리고 마지막 날의 투쟁은 비상 국면에서 문화패는 어떠한 활동을 전개해야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이었으며, 이후 80년대 변혁운동에 있어서 문화운동 전반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

---

33) 김선출,『5월의 문화예술』, (광주)샘물, 2001, 42-43쪽.
34) 극회「광대」단원들의 홍보 활동으로 김윤기는 도청에서 검거 투옥, 김선출 전용호는 수배, 최인선 김영희 등은 알려지지않아 미수배됨
35) 박효선,「광주를 통해본 지역문화운동」,『전대신문』,1989.3.23.

4. 마당극과 문화운동

1) 전라도 마당극의 전형 놀이패「신명」

(1) 창단과 활동

극단「신명」에서 놀이패「신명」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문화운동권에서는 극회「광대」의 뒤를 이을 사회·문화운동단체의 필요성은 시대의 요구였다. 당시 문화운동을 표방한 기독교청년회 산하 문화선교단「갈릴리」의 활동이 있었으나 종교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 내부의 과제였다. 이러한 내·외적상황에서「광대」의 일부 단원과「갈릴리」, 여기에 대학 탈패들이 결합하여「신명」창단을 준비하였다. 마침, 국립극장장 허규의 〈돼지풀이〉 초청(1982)[36] 공연은 창단에 탄력을 주었고, 이어서 공연한 마당극 〈안담살이 이야기〉 공연은 광주·전남 마당극운동의 재출범을 알렸다. 「신명」은 전통 문화의 올바른 발굴·조사 및 그 현대적 수용, 향토문화의 독자적 전승과 보급, 근대적 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한 정기 공연, 근대화 운동을 위한 현장공연, 회원의 능력계발을 위한 기능수련, 이상적 문화예술연구의 확장[37]을 목적으로 삼았다. 마당극은 전통문화의 현대화이자 사회운동의 일환이며 시민문화운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마당극 자체가 바로 사회운동이자 문화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극단「신명」창단으로 극회「광대」의 맥은 이었지만 활동가 대부분이 학생신분이었기에 학내복귀와 군 입대가 이어지면서 바로 활동 공백기가 생겼다. 다만 〈그 입술에 파인 그늘〉 (1985)[38] 공연이 있었지만 무대극 공연이었고, 마당극은 전남대학교「민속문화연구회」의 학내공연[39]만이 명맥을 유지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제 5공화국은 언론통폐합 및 운동권을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지만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반외세, 개헌 등

36) 당시 〈돼지풀이〉의 돈철 애비역을 맡은 필자의 기억으로는 제목이 '마당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였으며 〈서울말뚝이〉도 함께 공연하였다. 우천으로 인해 공연장소는 국립극장 대극장 무대였지만 원형무대로 공연되었고 관객들도 무대에 올라와 관람하였다. (오늘날 해오름극장)

37) 〈안담살이 이야기〉(1982), 극단「신명」, 창립공연 팜플렛 中.

38) 대표 윤만식과 박선정이 기획

39) 5월극 〈마당쇠 놀이〉(1981), 전두환의 방일반대를 다룬 〈난무하는 사꾸라〉(1984)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났다. 1984년에 이른바 유화국면을 형성 하면서 광범위하게 대중의 역량이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상업적이고 획일적인 대중문화와 관제문화에 맞서 건강한 민족문화와 민속 문화를 뿌리 내리자는 문화운동론과 함께 문화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는 「민중문화운동협의회」(1984)가 창립되었고, 광주지역은 장르별로 분산된 활동을 해 왔던 문학, 미술, 마당극, 노래운동 단체와 현장의 문화 운동단체들이 「민중문화운동연구회」(1984.12)를 결성하였다. 「민중문화운동연구회」 창립[40]은 광주문화운동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극단 「신명」은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민중문화운동연구회」는 지역문예역량의 총화를 위해 〈제1회 광주문화큰잔치〉(1985.4)[41]를 개최하는데 미술패의 걸개그림, 문학패의 시낭송, 노래패의 노래공연과 극단 「신명」의 마당극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극단 「신명」이 참가한 마당극 〈신가리 성주풀이〉는 도시개발에 따른 신거주지 이주문제를 다룬 사회고발극이었다.

극단 「신명」은 〈제1회 광주문화큰잔치〉에서의 〈신가리 성주풀이〉공연을 계기로 내부 운영체제를 비상근에서 상근체제로 전환하면서, 명칭도 극단 「신명」에서 놀이패 「신명」으로 개칭한다. 그 동안의 명분상의 마당극 유지 차원을 벗어나 후원회원 모집과 〈시민민속교실〉을 개설하여 풍물과 탈춤강습을 통한 대중사업과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차기 마당극을 준비하면서 활동체계를 정비하였다. 당시는 정치적 유화국면과 더불어 학생 운동권과 대학 문화패의 사회운동 진출이 활발하였던 시기였고, 극단 「신명」에 대학탈패 출신[42]들이 대거 영입되면서 마당극 운동을 재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의 탈패 역량이 사회문화패인 「신명」으로 재생산 되면서 마당극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화패 출신 사회운동 선배들의 대학 탈패에 대한 지속적 유대관계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극단에서 놀이패로 개칭하고 송기숙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정기공연 〈당제〉(1985)는 〈안담살이 이야기〉 이후의 마당극 공백을 깨고 정상적인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제〉(1985)이후 상근체제를 구축하였지만 활동가들의 취업으로 인한 탈퇴는 이어졌고, 다시 대학 탈패 출신들을 영입해야하는 악순환구조가 이어졌다. 연령이 찬 활동가들의 경제적 보장과

---

40) 대표실행위원 : 문병란, 원동석, 박석무, 황석영, 서경원, 조비오, 김준태, 배종렬, 지선 분과대표위원 : 문학(임철우, 나종영), 미술(홍성담, 김경주), 연행(윤만식, 박효선), 출판(최열, 고규태), 사진 · 영화(김선출), 사무국(전용호, 박영정), 운영위원 지명(김태종, 김윤기), 사무국장 전용호, 간사 박영정.
이후, 「민중문화연구회」는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로 확대 개편(1988.2.14)되며, 「민중문화연구회」가 개인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연합이라면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장르전문소집단 조직으로 놀이패 「신명」(김도일), 극단 「토박이」(박효선), 「광주청년문학회」(김호균), 노래패 「친구」(문성인), 미술패 「시각매체연구회」(백은일), 사진패 「사실」(김미경)과 민중현장소집단 – 노동문화패 「일꾼마당」(양지철), 농민문화패 「황토바람」(정기정) 등의 운영위원회 중심의 협의회로 구성.
'민중문화운동연구회'는 광주문화운동의 조직적 모태가 되어,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1988)에 이어 '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지부'(1995)를 설립하여 오늘에(2015)이른다.

41) '광주민중문화큰잔치'는 제3회(1987.10.17)까지 개최됨

42)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 출신인 정진모, 이태영, 문병화 상근과 김도일, 이용석, 신정근, 김창준, 조길천 김은희, 주상기, 김학진 등.

지속적 활동을 위해서는 전업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마당극 〈광대〉(1987)공연이 계기점이 되는데, 마침 이 시기는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던 시기였으며 〈광대〉 와 다음의 〈호랑이 놀이2〉(1987)공연은 전국 각종 집회와 대학 및 시민사회단체의 초청 공연이 쇄도하면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다. 마당극 〈광대〉는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문화운동가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하는가를 다루고 있지만 단원들의 자기 선언적 성격을 지닌 공동창작[43]이었다. 광주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활동영역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고, 전라도 마당극의 굿성과 집단적 신명의 정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민족극한마당〉(1988)에 참가한 〈일어서는 사람들〉(1988)은 〈함평고구마〉(1978)공연 이래로 광주·전라도 마당극의 축적된 문화·예술적 역량이 결집된 작품이었다. 극단「토박이」의 〈금희의 오월〉과 함께 광주 5월을 전면적으로 다루었으며 광주항쟁관련 대표작으로 평가 되었다. 〈일어서는 사람들〉은 극의 전 과정이 역동적인 춤과 노래의 상징화로 원초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1년 동안 총 60여 회의 순회공연과 약 3만여 명의 관객이 관람하면서 전국적으로「신명」의 위상을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신명」의 마당극을 '전라도 마당굿' 이라고 지칭할 정도였으며,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집단적 신명성[44]을 꼽았다. 타 지역의 마당극과 다르게 지역성 짙은 서사와 더불어 풍물과 춤이 어우러진 집단 춤에서 발산되는 신명과 관객과의 호흡이 높은 평가 받은 것이다.

「신명」은 연습실과 사무실을 갖춘 문화 공간[45]을 만드는데, 공간은 공연 연습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과 창작능력을 위한 〈시민문화교실〉[46] 로도 활용하였다. 오늘 날처럼 백화점이나 예술단체에서 기획· 주관하는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교육 등이 없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시민문화교실은 예술의 대중화를 확장하려는 선진적인 문화기획이었다. 또한 〈제3회 전국 민족극 한마당〉(1990)의 광주 유치는 전국의 우수한 마당극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마당극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마당극 운동을 진단하고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현장공연활동

마당극의 공연양상은 정기공연과 현장공연으로 나뉜다. 정기공연은 정기적인 창작을 통하여 공연하고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의 초청에 따라 전국 순회공연을 다녔고, 현장공연은 농촌현장, 시위현장, 민주열사장례 현장, 5·18 행사현장 등 주로 집회나 사회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춤판이나 마당극

43) 김도일, 조길천, 김창준, 김은희 등
44) 박영정, 앞의 논문, 1989, 26쪽.
45) 광주시 동구 광주고등학교 옆, 5층 건물 지하.
46) 목판화교실, 시 창작교실, 판소리교실, 풍물교실, 연극교실 등

또는 풍물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정기공연 작품은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초청되어 마당극 공연자체가 행사나 집회로 기능하거나 대중 공연인 경우가 많았지만 현장공연은 집회나 행사의 부분적 성격이 강하며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현장공연 중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1989)[47]는 지역농민회와의 부문 간 연대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써 전라도 각지의 수세투쟁 현장[48] 에서 펼쳐졌던 공연이다. 연출가 김우옥은 화순에서의 현장공연을 보고나서 수세를 왜 내지 말아야 하는가를 농민들에게 현장극으로 보여주는 작업은 마당극 본래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하는 작업이며, 마당극이 정치극의 기능을 달성한 모범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농민의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농민대회라는 의식행위를 거쳐 마당극이라는 신명나는 놀이를 지나 시위라는 정치적 운동에 이르는 전체과정이 바로 마당굿의 이상적인 본보기라는 거였다. 춘양면에서의 공연처럼 생활의식놀이가 뒤범벅되어 삶의 개선을 부르짖으며 시위에 이르는 그 과정이 바로 Victor Turner나 Richard Schechnes 등이 주장하는 일상생활 속의 연극, 그리고 연극 속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49]로 알려졌다. 한편 채희완은 이 시기에 농민문제를 다룬 〈황토바람〉(1989) 〈밥이 지일이여〉(1990) 〈조씨네 마을 사람들〉(1992) 등은 「신명」 이 그 동안 체득한 전래의 농촌 심상속의 '신명' 이 오늘의 농촌문제를 풀어 가는데 구체적인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50]고 하였다.

농촌의 현장공연 외에도 민주화의 투쟁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들의 광주 망월묘역 안장을 위한 장례행렬이나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홍기일 열사(1985)나 박승희 열사(전남대,1991)등 많은 민족민주열사들의 '열사 민주국민장' 과 '노제' 에서 진혼굿[51]을 통해 열사들의 뜻을 기리며 열사들의 죽음을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로 되새기게 하는 춤판은 「신명」 의 몫이었다.

새로운 도전과 실천활동

1990년대 들어 문민정부 집권 이후 대중의 정치성과 집단성이 희석되면서 80년대의 전성기와는 달리 마당극의 활동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마당극의 확장력이 정체되는 위기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운동의 방향이 흔들리자 농민문화패 「황토바람」 과 통합[52]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연소재의 새로운 모색과 문화 공간 개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시도한다.[53] 하나는 마당극의

47) 공동창작, 김도일 연출.
48)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는 '전남농민회' 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화순, 진도, 해남 등 전 남 각지에서 공연되었다.
49) 김우옥, 「마당극의 본질과 현장성」, 『실험과 도전으로서의 연극』, 월인, 2000, 203쪽.
50) 채희완, 「전라도 개땅 쇠의 신명으로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는」 『놀이패신명 창립 20주년 기념 정기공연작 품 모음』, (사)광주민족예술인 총연합 연행위원회, 2003, 9~10쪽.
51) 1980년대는 김은희, 1990년대부터는 박강의가 진혼굿을 추었다.
52) 정기정(대표), 윤봉란, 조인배
53) 1990년대 주요활동가: 김창준, 박강의, 김태훈, 한종근, 추말숙, 송점순, 이경진, 임견이, 오숙현, 윤봉란, 조인

대상이 대학생, 진보적 지식인, 현장대중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바꾸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복합문화공간의 설립이다.

영국의 극단 「붉은 사다리」 의 경우 정치연극을 표방하다 정부의 지원이 삭감되자 진보적 정치이념을 포기하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연극으로 이념을 바꿨지만, 「신명」 은 정치적 상황의 변동 때문에 어린이 · 청소년극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마당극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 구조로 활동하였던 점도 있지만 마당극의 대사회적 정치성이 약화된 단면이었다. 「신명」 의 입장에서는 대상과 작품 소재의 변화가 마당극의 정체와 침체를 극복하는 분명한 대안은 아니었지만,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예술은 관객들과 무엇으로 교감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명아트센터' [54] 복합문화공간 개관은 정기공연은 물론이고 초청기획공연, 작은 영화제기획, 공연장 · 갤러리 대관 같은 기획 사업을 통하여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취약한 지역 경제와 빈약한 내부의 물적 토대,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경험이 오늘날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신명아트센터' 의 오랜 경영은 어려웠다.

마당극의 정체와 침체의 과정에서 아동 · 청소년극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통일 염원극 〈꽃등 들어 님 오시면〉(2001)부터 라고 볼 수 있다. 〈꽃등 들어 님 오시면〉은 1980년대의 양식적 특성과 사회성에 대한 주제의식이 되살아났고, 전라도의 제의적 요소를 재탐색하면서 양식적 측면에서 전통의 변화하는 속성적 요소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 이후 공연부터 청소년극 중심에서 벗어나 전통극, 역사극, 사회극, 환경극, 통일 염원극, 다문화 가정극 등 소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역사성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같은 새로운 담론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전통연희, 놀이, 굿 등의 재해석을 통한 예술적 형상을 통해 전문예술단체의 위상을 갖추면서 마당극 공연활동[55]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공연으로는 〈일어서는 사람들〉이 일본 극단 「하구루마좌」 의 초청(1999)으로 일본 6개 도시 순회공연(2007)을 통하여 교포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5 · 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이를 극복하는 광주의 모습을 알렸다.[56] 또한 부산 「민족미학연구소」 와 함께 한 중국 동북3성 전통 연희 순회공연(2009,2010)은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중동포(조선족)와의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5 · 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알리고 해외 동포와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마당극의 국

배, 김태우, 이재명, 지정남, 이계영, 이성순...등

54) 신명아트센터는 228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하여 전시장, 회의실을 갖춘 규모임(광주역 옆).

55) 2000년대 주요활동가: 박강의, 김호준, 오숙현, 지정남, 김정훈, 유성대, 김현경, 정찬일, 김나령, 소윤정, 정이형, 김은숙, 백민, 김혜선, 김수진, 나양채, 조성훈, 곽혜경, 유윤기...등.

56) 실제 마당극의 첫 해외 공연은 「신명」 의 김도일이 창단한 극단 「광주」 의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일어서는 사람들〉은 놀이패 「신명」 이 1988년에 올린 마당극이다. 극단 「광주」 는 전문예술공연을 표방하면서 〈천불천탑〉(1992)으로 창단공연을 하였고,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열린 타이니 엘리스 페스티벌(1993)에 〈일어서는 사람들〉로 초청받아 공연하였다. 당시 초청받은 한국 작품은 〈일어서는 사람들〉외에 이윤택의 〈오구-죽음의 형식〉과 김시라의 〈품바〉였다.

제화뿐만 아니라 외국 거주 국민들의 민족 동질성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놀이패「신명」의 주요활동 기반인 광주는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서울을 제외 한 타지역보다 마당극 운동이 일찍이 발생하였고 '전라도 마당극' 이란 전형성을 확보하였다. 놀이패「신명」의 역사는 마당극을 통해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단과 사회현실을 대중과 공유하였고, 대중문화 사업을 통해 민주공동체에 대한 삶의 형식과 경험을 소통하는 역할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하여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경험이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했던 것이다. 마당극은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교감을 사회문제로 까지 확장하여 바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연극운동으로서 의의[57]가 있다.

(2) 작품의 주제의식

농민극

농민문제를 소재로 다룬 작품을 살펴보면 마당극 〈소풀이〉(1985)는 극회「광대」의 〈함평고구마〉와 〈돼지풀이〉에 이은 농민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소값 파동'(1985)이 발생하였을 때, 농촌현장에 "소값피해 보상하라",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 철회하라"를 외치며 전남 각지의 농민집회장에서 공연하였다. 당시 정권은 농촌에 융자금까지 지원해가며 소 사육을 권장하였으나 미국산 소와 소고기 대량 수입을 발표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소값이 폭락하였고, 이른바 '소몰이 싸움'으로 불리는 '소값 하락 피해보상투쟁'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던 때였다.

〈황토바람〉(1989)은 부제가 〈못내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이다. 1988년 후반기에 전남 농촌지역에서 전개 되었던 수세폐지대회라는 생존권 투쟁현장에서의 현장공연과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농촌에서 이러저러한 생존권 투쟁이 있었다는 르뽀식 고발성 작품이 아니라, 국가의 부당한 농업정책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고통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투박하고 꿋꿋한 인정, 그리고 건강한 농민들의 정서를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밥이 지일이여〉(부제: 아나! 조상님도 수입해라!,1990) 는 밥은 쌀이고, 쌀은 농민의 생존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의 반농민성과 UR의 본질을 고발하면서 투쟁의 동력이면서 삶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농촌공동체사회를 그렸다. 농촌사회는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 수출주도형 산업 편재 속에서 방치를 넘어서서 산업화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놀이패「신명」, 극단「토박이」, 노래패「친구」등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 소속의 연행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집체극이며 지역문화운동의 예술역량을 결집하여 문화투쟁의 일환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7) 김도일, 앞의 논문, 2011,72쪽.

앞서 설명한 소값 파동을 다룬 〈소풀이〉나 이후의 수세거부투쟁을 위한 〈못내 못내 부당수세 절대 못내〉나 UR을 반대한 〈밥이 지일이여〉은 전남 각지의 5일장이나 우시장 등지에서 개최된 농민집회 현장에서 공연하였다.

농민극은 대학가나 도시 공간에서도 공연되었는데 당시 대부분 도시의 물적 토대가 인근의 농촌을 경제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민들에게 농촌현실과 파행적 농업정책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전달과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통해 농촌현실의 진실을 알리는 여론통로가 되었다.

역사극

역사극은 과거의 시간에 있었던 사회적 사건이나 인물에 얽힌 서사를 연극방식으로 형상화한 역사서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잠재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창작된 연극이 역사극 범주에 속한다. 창단 작품이었던 〈안담살이 이야기〉(1982)[58]는 구한말 당시 외세침탈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보성과 해남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머슴출신 의병장 안규홍의 이야기로서 항일의식과 민초들의 의(義)에 대한 실천의 역사를 다루었다. 〈그 입술에 파인그늘〉(1984)은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참여시인 신동엽의 시극으로 우리 민족에게 강요되었던 동서 강대국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민족동질성에 입각하여 극복할 것을 주제로 삼은 무대극이다. 마당극 〈당제〉(1985)는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마당극으로 송기숙의 중편소설 '당제' 를 각색하였다. 수몰 지구에 사는 늙은 노부부가 6 · 25전쟁에 나간 아들이 살아있으면 북녘 땅에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모른 고통과 분단에 대한 비원을 그리고 있다. 또한 당제를 지내는 그 제례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돋보이는 마당극이다. 〈호랑이 놀이 2〉(1987)는 신제국주의의 침탈과 이의 대리인격인 군부정권,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민중의 투쟁을 그린 〈호랑이 놀이〉(1981)를 재 각색하였다. 한국현대사의 신제국주의의 침탈의 이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와 통일염원을 소재로 다룬 마당극이 내포하고 있는 의식은 1980년 5월의 역사적 사건과 비극적 현실은 강대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남북분단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필요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제5공화국 군사독재정권 (1981~1988)시절에는 공연법과 공윤 심의로 합법적 탄압과 통제는 말 할 것도 없고, 안기부, 보안사, 경찰의 공공연한 사찰과 협박을 통한 간섭은 일상적이었으며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여 문화탄압을 자행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수의 역사극은 현실상황을 비유하는 수사법이었다. 역사극을 반외세와 민족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전화(轉化)된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본래 표현되어야 할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

58) 원래 〈의병굿〉이란 제목으로 대본심의를 냈으나 '의병' 이란 단어 때문에 대본심사가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대본 앞장을 찢고 다시 〈안담살이 이야기〉라 고치고 '담살이' 란 말은 머슴의 옛말로 머슴의 성공담을 그리고 있다고 하여 대본심의를 통과하였다.

창단공연이었던 〈안담살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민족의 자주성. 즉 독립의 주권을 찾기 위해 일제에 영웅적 항거를 통해 반외세투쟁의 전통을 수립한 한말의 의병운동과 안규홍의병장은 광주 5·18의 민주화투쟁과 시민군의 은유였던 것이다.

5월 마당극과 사회극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의 모순구조가 응집되어 폭발한 역사적 사건으로 1980년 5월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광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문제였다. 결국, 광주 5월 역사의 진실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은 살아남은 자들의 업보요 문화패의 당연한 책무였다. 광주의 5월 문제에 관하여 〈호랑이 놀이〉는 우화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5월을 전폭적 소재로 한 작품은 노래굿 〈넋풀이〉(1983)이다. 1979년 겨울, 들불야학과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연탄가스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박기순(당시전남대 국사교육학과 3년)과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윤상원(당시 대변인)과의 영혼결혼식을 노래굿 형식을 빌러 제작한 녹음테이프다. 백기완의 시에 김종율 작곡의 "님을 위한 행진곡" 을 실었으며 테이프는 전국의 대학가에 배포되었고 '님을 위한 행진곡'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오월굿 〈일어서는 사람들〉(1988)은 광주의 5월 당시 사건의 아픔과 슬픔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굳세게 살아가자는 미래를 제시하는 마당극이다. 극의 전 과정은 꼽추와 곰배팔이 부부의 인연과 아들의 출산을 춤으로 보여주며, 성장한 아들이 5·18에 참여하여 죽음을 당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꼽추와 곰배팔이 부부와 유족들의 모습을 끈춤과 북춤 그리고 노래로 상징화하고 있다. 광주의 아픔을 체험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당극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대사회적 역할과 1980년 5월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의식과 군부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이 맞물려 있다.

사회문제극이라 할 수 있는 〈광대〉(1987)는 80년대에 본격화된 향락문화와 산업화 현상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술을 현실에 대한 하나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불법비디오, 외설비디오, 유흥산업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밀려든 마약문제와 과소비 등과 같은 심각한 문화현상에 대항하여 건강한 민족문화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변혁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는 문화운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배경은 일제라는 외세와의 대립 속에서 암담한 현실문화는 어떠한 형태로 그 모순을 드러내며, 진실한 문화란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모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즉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운동이자 군사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마당극 공연이 놓이는 맥락은 다분히 집회· 행사· 축제연극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마당극은 독립된 공연으로서 관객에게 보여지기 보다는 특정행사나 집회, 축제의 한 부분으로 놓이는 경우가 많다. 마당극 공연 앞뒤에 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당극 공연이 행사 자체가 되기도 한다.[59] 〈광대〉와 〈호랑이 놀이2〉는 주로 대학교의 집회현장에 초청받았으며, 공연은 행사 전후

에 배치되었고 집회가 끝나면 대부분 가두투쟁으로 연결되었다.

교육극 〈학교야! 학교야!〉(1990)는 교원노조 설립의 어려움 속에서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고, 정부가 교원노조를 합법화하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교협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던 시기에 만들었다. 참교육 운동을 위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실천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각기 지닌 개성과 소질을 개발해서 올바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마당극을 통한 교육운동이었다. 무엇이 이 땅의 참교육을 가로 막는지, 민족 · 민주 · 인간화 교육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등 참교육의 열망을 담고 있다.

노동극과 청소년극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폭발적인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1980년 이후 거의 사라졌던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노동운동이 대중운동으로 양상을 띠게 된다. 당시 마당극은 기층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극과 노동극이 질적 · 양적으로 팽창 하던 시기였다. 「신명」 또한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마당극을 공연하게 되는데 〈어머니 당신의 아들〉(1990)은 노동자 문제를 다룬 첫 작품으로 노동운동에서 오월정신의 계승에 대한 실천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1980년 5월에 총을 들고 싸웠던 노동자 주인공 광한과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어머니인 벌교댁에게 노동자와 농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노동자 · 농민의 연대가 바로 5월 광주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노동자, 그리고 전선〉(1991)은 풍물이 지니고 있는 춤과 음악성에 서사를 넣어 노동자들의 건강한 모습과 정서를 그리고 있으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연대를 강조하였다. 풍물이 지니고 있는 춤과 음악성에 서사를 결합한 공연으로 풍물의 실험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희망자를 접수합니다〉(1992)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와 사측이 노조를 파괴하기위해 취미활동을 무모하게 지원한다든가, 노동의 강도를 강화하거나 인간적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자진사퇴 등을 종용하는 자본 세력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그렸다. 〈말숙이와 봉란이〉(1993)는 시골처녀들의 도시 상경기이다. 노동현장의 삶과 도시생활을 사실적으로 다루면서 사내 노동자간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을 통하여 함께 돕는 동지애를 묘사하였다. 당시 농민극이나 사회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신명」 이 여러 편의 노동극으로 일관하자, 왜 「신명」 은 노동극만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당시 노동운동의 시대상황을 대변하였던 것이고 노동극은 90년대 초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극은 1987년 이후 급격히 성장한 노동운동과 자본계급과의 갈등 과 노동자들의 건강한 모습과 정서를 그리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연대를 강조하였다. 한편 〈조씨네 마을사람들〉(1992)의 경우와 같이 80년대 활동에서 보여주었던 농민극의 연장선상에서 생명산업의 토대인 농지가 아무런 대책없이 값싼 공장 부지나 재벌들의 위락시설로 전락하는 농촌현실을 그리기도 하였다.

---

59) 이영미, 『마당극양식의 원리와 특성』, 시공사, 2001, 74-75.

1990년대 중반 이후 일정기간동안 주로 청소년극이 다수를 차지한다. 〈풀잎이야기〉 (1994), 〈쪽빛노트〉(1995),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극 〈숲속나라 꼬마삼총사〉(1996), 농촌지역실업계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민들레 합창〉(1997), 〈유리장미〉(1998),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를 다룬 〈천의삼왕따기〉(1999) 등이 있다.

역사문제를 다룬 작품으로는 동학농민혁명100주년을 기념하여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농민과 동학군, 그리고 동학접주들과의 궐기를 다룬 〈시호시호이내시호〉(1994)가 있으며, 그 외에 사회극으로 부부를 위한 마당극 〈못쉰 수탉과 홰치는 암탉〉(1994),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도공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늘이 오늘이소서〉(1999), 목포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호남선을 타고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철도의 역사를 담은 〈호남선〉(1999), 호남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비 내리는 호남선〉(2000) 등이 있으며 〈당제2〉(1995), 〈 '97 일어서는 사람들〉(1997)을 재 각색하여 공연하기도 하였다. 〈꽃등 들어 님오시면〉(2001)은 한국전쟁의 비극에서 비롯된 죽음에 대하여 진도 씻김굿과 다시래기로 치루는 해원진혼굿으로 과거 놀이패「신명」이 지녔던 '굿성' 을 되찾는 계기가 된 마당극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진도 민속놀이 도깨비굿의 설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현실정치를 풍자한 〈나리노리〉(2002) 등 전라도의 굿과 전통놀이를 통하여 해원과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소재 발굴에 노력하였다.

놀이패 「신명」의 작품은 공동창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구연극이 희곡 또는 대본의 충실한 재현행위라면 마당극은 참여자들의 시대정신과 다루고자하는 주제의 공동된 인식, 그리고 삶의 경험들이 집단적 논의와 창조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현실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주요 모순과 갈등을 전형적 구조로 잡아내고, 극적 형상을 통해 공동체적 관심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마당극은 특정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창작과정에서 획득된 배우들의 일체감이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과 만난 확장된 공동체를 만드는 능동적 행위이며, 관객에 대한 집단적 신명만이 아니라 총체적 전망을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현실사회에서 미래전망에 대한 꿈을 공유하였다. 특히, 진도 씻김굿, 마을굿, 전통 민속놀이와 같은 전통굿의 형식을 차용하거나 변용하여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반영하였고, 공동체의 염원을 해원과 풀이로써 연극적 극화의 전개가 특징이라 하겠다.

2) 전라도 해양문화 극단「갯돌」

(1) 창단과 활동

YMCA 극회「민예」의 창립

1980년 5월 항쟁 이후 목포는 유신에 항거했던 지역원로들의 비공식적 모임은 있었으나 부문운동 단체가 형성되어있지 않았다. 제5공화국의 탄압국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문화운동단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전라도 목포 지역의 마당극 단체인 극단「갯돌」의 모태가 되는 극회「민예」(민족문화예술연구회,1981)의 창립은 극회「광대」의 일원이었던 윤만식의 탈춤강습과「광대」회원이었던 김빌립의 목포 교사발령, 그리고 목포 YMCA의 간사였던 김천영목사(당시 간사)의 도움이 동력이 되었다. 광주 5.18직후의 암울한 국면에서 극회「민예」는 목포 사회운동의 시작이며, 지역문화운동의 토대였다. 극회「민예」는 광주의 극회「광대」에 이은 전라도 지역의 두 번째 마당극 단체이다. YMCA 소속으로 한 것은 광주의 극회「광대」처럼 기독교 평신도 운동인 YMCA와 같은 종교단체 소속의 청년동호모임 형식을 빌어서라도 군사정권으로부터 사회적인 보호막이 필요했었다. 당시 목포에는 탈춤부흥운동과 함께 목포대「마파람」과 목포전문대의「전통극문화연구회」가 학내 문화운동을 하고 있었다.

창립공연으로 제주도의 놀이패「수눌음」의 삼별초 난을 다룬 〈항파두리 놀이〉를 준비하였으나, 소설가 황석영의 제안으로 〈나락놀이〉[60]로 바꿔서 정명여고 강당에서 창립공연을 하였다. 〈나락놀이〉는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투쟁의 정신을 보여주었던 암태도 소작쟁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 암태도 소작쟁이를 선택한 것은 5월 항쟁의 비극을 격은 연후의 아픔과 실의를 역사 속 민중승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어서 올린 두 번째 작품 〈어부놀이〉(1983)는 신안의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어부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악덕 선주에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어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묘사와 재현으로 리얼리즘을 담보하기 위해서 치밀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공동창작으로 만든 마당극이다. 광주의 5 · 18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제5공화국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가 어려웠던 시절에 〈나락놀이〉와 〈어부놀이〉는 군부정권에 대한 저항이자 민족자주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현실의 비유이자 은유였다. 목포가 일제의 야욕과 수탈의 상징적 항구도시였다는 역사성과 지역의 특유한 해양문화와 풍속을 작품 속에 담보함으로써 목포 마당극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부놀이〉 이후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던 극회「민예」는 구성원들의 취업과 병역문제와 학내활동 복귀가 이어졌고, 극단「일과 놀이」의 〈여우와 포도〉와 같은 초청공연(1983.11)으

60) 4마당 중 1마당은 소설가 황석영이 쓰고 나머지 마당은 공동 창작으로 하였다.

로 명맥은 유지하였으나 침체 국면에 빠진다. 게다가 당시 총무를 맡았던 정현배가 군대에 입대하였는데 의문사(1984.10.23)를 당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사실상 단체가 유지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목포지역 대학가에서는 목포대 마파람 의 〈호랑이 놀이〉(1982)와 목포 실업전문대학의 〈의병굿-안담살이 이야기〉(1983) 마당극이 학내에서 공연되었다.

목포청년 Y놀이패「갯돌」에서 극패「갯돌」

목포지역의 노동 · 청년 · 사회 운동 등이 조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 마당극운동의 재건은 필수과제였다. 목포대「마파람」출신을 중심으로 목포청년 Y놀이패「갯돌」(1985)[61]로 재창단하여 탈공방 및 탈춤과 민속춤강습을 시작하였다. 당시 함평에서는 소값이 폭락하자 자신이 키우던 소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농촌현실을 그린 마당극〈음메야〉(1985)로 재기의 발판을 삼았다. 이후에는 오월행사의 일환으로 〈녹두밥〉(1986)[62], 〈아!광주여 5월이여〉(1986)를 공연하였다. 그러나 '제1회 목포민족문학의 밤' 에서 마당극 〈건지세 건지세 우리의 혼〉 공연 이후, 목포 YMCA가 시민운동 단체로서의 위상과 방향을 재설정하면서 민중문화운동을 표방했던 청년 Y놀이패「갯돌」과 어려운 관계에 처하게 된다. 이에 YMCA소속에서 탈퇴하여 문화패로서의 자립적 구조를 갖추면서 문화패「갯돌」로 개칭하였다.

「갯돌」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진행하였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예술을 통한 대중의 조직화사업이었다. 풍물교실, 탈춤교실, 민요교실 그리고 전통혼례 등을 통해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대중문화의 한계를 민족예술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예술적 창조력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문화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1987년 문화패「갯돌」[63]은 대중문화운동으로 조직의 위상을 전환하면서 직장인, 노동자,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대중 소모임을 결성하고 공연을 통하여 대중들의 문화민주의식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노래사랑회, 탈춤사랑회, 풍물사랑회 연극사랑회 등은 문화 소모임 활성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문화운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이 지식인 중심에서 벗어나 기층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고 일반 대중들도 예술을 배우고 향유하는 양적 성장을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

대중문예운동 노선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강습과 연대사업 그리고 노래 · 풍물선전 활동으로 투쟁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문화패로서 마당극 창작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만 있었다. 이에 단원 일부는 전문문화예술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문화연구화「어울림」을 창립

61) 초대 회장 김정희, 2대 회장 윤보혁.
62) YMCA 2층에 공연 소품 등을 보관하였는데, 목포경찰서 정보과에 의해 풍물과 깃발 등 모두를 압수당하고 맨손으로 공연하는 초유의 사건을 치뤘다.
63) 이 시기의 주요활동가들은 최창선, 송기정, 손재오, 김명종, 이방수, 양혁철, 문관수, 김 현, 김경학, 최연담, 김연철 등이 활동했다.

(1988년 4월)[64]하여 분화한다. 우리문화연구화 「어울림」 은 극단 「토박이」 의 〈금희의 5월〉, 청주 「우리춤연구회」 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부산 극단 「자갈치」 의 〈민주 꽃신바람〉 등의 전국의 마당극 초청공연과 마당극 〈에헤라 술배야〉의 창작공연 그리고 탈춤과 풍물강습을 하였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2년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학내운동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운동으로 진출이 활발했던 시기였으며 목포지역 대학 탈패 출신[65]들의 우리문화연구화 「어울림」 으로 대거 합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재정의 어려움과 단원들의 개별적인 진로 문제, 대표자[66]의 교사발령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식적 해산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갯돌」 과 통합한다. 「어울림」 이나 「갯돌」 이 지향하는 문화운동의 가치와 목적은 같았고 결국은 하나였던 것이다. 통합이후 극패 「갯돌」 은 미술패 「대반동」 , 노래패 「어울림」 과 함께 지역의 문예역량을 결집하는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 을 결성한다. 이 시기부터 극패 「갯돌」 은 소극장 운동(갯돌마당 소극장)과 콘서트, 현장공연, 그리고 마당극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1980년대 목포의 마당극 운동의 태동과 성장은 「민예」 창단으로부터 시작하여 「갯돌」 과 「어울림」 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시 통합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마당극 공연과 대중사업이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극패 「갯돌」 에서 극단 「갯돌」

1990년에 창립한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 (이하 목문연)[67]은 시대적 상황과 조직운동의 변화에 따라 「전남민족예술인총연합」 (1993)으로, 「전남민족예술인총연합」 에서 「목포민족예술인총연합」 (이하 목포민예총)(1994)으로 이어지면서 「목문연」 은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각 장르들은 목포민예총의 각 위원회로 소속되면서 독립활동을 하였다. 극패 「갯돌」 은 「목포민예총」 의 연희위원회로 소속되었고 마당극의 전업적 활동과 전문적 활동을 위해 극패 「갯돌」 에서 극단 「갯돌」 로 명칭을 변경(1994)하였다. 극단 「갯돌」 [68]은 대표, 기획국, 사무국, 예능국 등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하였고 전문예술단체로서의 위상과 전업활동으로 오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 초기 문민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투쟁의 성과에 힘입어 시민운동은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마당극은 전국적으로 정체국면으로 들어가던 시기였다. 극단 「갯돌」 도 광주의 「신명」 과 비슷하게 마당극 운동의 대상과 주제와 같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갯돌」 은 영산강을 소재로 〈영산강 암행어사〉와 〈뻐끔이는 내친구〉(1995)와 같은 지역의 환경문제로 외연을 확대

64) 김정희(대표),강대화, 심연희, 김윤정, 한영진 등
65) 최응재, 김명종, 박춘희... 등
66) 김정희
67) 초대 운영위원장 최창선, 2대 운영위원장 이방수, 3대 운영위원장 최응재, 4대 운영위원장 문관수
68) 1995년-1996년 대표 손재오, 1996년-2010년 대표 이방수, 2011년-2014년 현재 대표 문관수

하면서 〈삼학도 살리기 장승굿〉(1997)으로 환경굿을 치루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 이후 개발에 의해 공단이 유입되고 피폐화 된 삼학도에 수호신 역할의 장승을 심고 삼학도를 살리자는 의식이었다. 당시 전국적 흐름중의 하나가 민주화운동이 환경운동과 결합되면서 생태주의로 확대되는 경향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와 역사 혹은 정치와 같은 소재의 사회참여성격이 강한 마당극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시기에 「갯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방향을 모색한다. 하나는 소극장을 거점으로 한 활동과, 다른 하나는 광주 놀이패 「신명」과의 마당극회복운동이다. 시청 앞 소극장(1991~1992)에서부터 소방서 앞 소극장(1993~1997), 유달예술촌 소극장(1998~2005), 모심문화예술센터(2006~2013)로 옮겨지는 소극장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극적 실험과 강좌, 전시, 공연, 세미나 등 일반시민과의 접면을 넓히면서 지역의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라도 마당극의 새로운 전기를 찾기 위해 놀이패 「신명」과 「갯돌」이 〈일어서는 사람들〉을 재각색하여 공동 공연함으로써 전라도 마당극의 전전형과 전통성을 확인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후 「갯돌」의 차기작 〈목포의 눈물〉은 지역의 역사와 문제에 대한 재발견으로 지역성의 담보와 함께 「갯돌」이 지니는 전라도 마당극의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성숙된 기획역량은 제10회 전국민족극한마당(1998)을 목포에서 개최하였고 '세계마당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었다. 「갯돌」의 창작역량은 2003년도부터 밥에 관한 생명사상을 다룬 마당극 〈남도천지밥〉을 시작으로 갯벌 생태를 담은 마당극 〈뻘소리〉, 신안흑산도 민권운동가를 소재로 한 마당극 〈낭청 김이수〉 등 전남서남지역의 환경과 역사적 소재를 다루면서 배가되기 시작하였고 오늘의 왕성한 창작역량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다. 또한 해외 공연으로 캐나다 6개 도시(벤쿠버, 켈로우나, 윈드송, 밴프, 치헤일리스 등) 초청순회공연, 베트남호치민시초청공연, 일본 벳부시, 구라시케시에서 사물놀이 초청공연, 중국동북3성 순회공연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전라도의 문화예술을 빛내었다.

30여년에 걸쳐진 극단 「갯돌」의 연혁은 Y극회 '민예'(민족문화예술연구회, 1981~83)로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청년Y 놀이패 「갯돌」(1985~86, 연행, 미술, 문학분과 운영), 문화패 「갯돌」(1988~89, 연행, 문학, 음악, 미술분과, 고교 갯돌 운영), 우리문화연구회 「어울림」(88~89),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 문화기획 「갯돌마당」(1990~94, 극패 「갯돌」, 노래패 「어울림」, 미술패 「대반동」)으로 시대상황에 따른 조직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오늘 날의 극단 「갯돌」(95~현재)로 정착하였다.

목포는 전남연극과 한국 근대연극의 발상지이다. 김우진, 이화삼, 함세덕, 박경창, 박동화, 차범석, 차재석, 김길호와 같은 연극인 들이 목포를 기반으로 연극을 시작하였고, 특히 김우진은 1920년대 우리나라 근대극을 개척한 선구자이다. 기존 윤리, 도덕과 가치관에 대한 저항의식, 새로운 삶에 대한 추구, 사실주의와 표현주의를 차용하여 본격적인 근대극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극예술협회」 구성과

「동우회순연극단」을 조직하여 연극운동의 실천이라는 이상을 실현하였다. 극단「갯돌」은 목포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환경과 전통적인 맥을 살리며 한국적 연극의 실험과 문화민주주의를 향하여 마당극의 예술적 가치와 양식적 발전을 찾아가고 있다.

(2) 작품의 주제의식

농민극과 해양극

극단「갯돌」의 1980년대 작품의 핵심을 살펴보면 지역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 지역성은 사전적 의미로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뜻하지만, 자연환경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 유기체의 성격으로 지역마다 특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종합적인 개성이다. 즉, 극단「갯돌」은 목포라는 해양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극단「민예」의 창단 작품이었던 〈나락놀이〉(공동창작, 1981)는 일제식민지하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벌인 소작농민항쟁(1923)을 소재로 삼았다. 지주가 일본경찰과 밀착하여 소작농을 수탈하자 소작농들은 소작회를 결성하여 1년여의 투쟁을 통해 소작료 인하와 구속된 마을 간부들을 석방시킨 사건이다. 지주와 소작농과의 관계를 벗어나 일제와 맞서 싸운 항일의지를 보여준 작품으로 민족문제로까지 발전시켰다. 〈나락놀이〉는 1980년대 초기 지역문제를 담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족주체성 확립에 기여할 문화패가 없던 목포지역 남도에 마당극의 모태가 된 공연이다. 두 번째 공연 〈어부놀이〉(공동창작, 1983)는 신안군의 어는 섬마을을 배경으로 선주와 어민간의 갈등과 생활상 그리고 애환을 극화한 마당극이다. 태풍으로 인한 침몰사고에 대하여 선주의 횡포와 권력의 밀착으로 인한 어민들의 처절한 아픔이 주제다. 목포가 해양도시라는 지역성에 맞게 어촌의 사회적 문제와 공동체 문화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1980년대 초기 작품은 대부분이 목포 개항을 전후하여 일제로부터 수탈당하는 거점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과 목포지역 해안도서의 근대역사에 내제되어 있는 저항정신을 지금의 시대정신에 접목시키는 소재와 표현의 원리로 표출되고 있다. 광주 5·18항쟁 이후 군사정권의 억압과 탄압국면속에서 역사 속에서 민중이 보여준 끈질긴 저항의 의미 찾기였다. 이러한 극적 전통은 바다의 한 많은 넋들을 위로하고 비참한 죽음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세 건지세 우리의 혼〉(공동창작, 1986)과 〈에헤라 술배야〉(공동창작, 1989, 부제〈어부놀이〉)로 이어진다. 또한 동학의 인내천,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을 당시 80년대의 상황과 접목시키고 있는 역사극 〈녹두밥〉(공동창작, 1986)도 이에 속한다.

마당극 〈대동놀이〉(공동창작,1985)는 민족시 낭송, 판소리 〈소리내력〉봉산탈춤 '먹중과장' 등 3부

로 구성된 행사였다. 민족과 민중문화에 대한 주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문화한마당 성격을 지니고 있다. 농민극 〈음매야〉(공동창작, 1985)는 실제 실화인 함평 소사건(함평 농민이 소값 폭락으로 소를 죽인 사건)을 소재로 복지농촌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축산장려금까지 융자지원하면서도 외국농축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 개방하는 농정의 모순과 이에 피해 받는 농민의 좌절을 그린 마당극이다. 전라도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농촌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노동극과 교육극

목포에서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급 노조의 활성화와 노동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에 노동문제를 소재로 다룬 극을 창작한다. 노래극 〈살아온 이야기〉(공동창작, 1989)는 광주5월 항쟁 당시 진압군으로 참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공수부대 출신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노사갈등 과정에서 구사대로서 주인공은 가치관의 혼돈을 느끼면서 노동현실의 모순을 알게 되고 노동쟁의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투쟁에 합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당극 〈어머니의 땅〉(공동창작, 1990)은 노동운동을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노동현장에서 아들이 왜 노동운동을 해야만 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강하다는 명제를 보여주는 공연이다.

1980년대 후반 교육운동과정에서 해직교사가 발생하고 교원노조의 합법화 투쟁에 대한 열기가 높았던 시기에 교육문제를 다루는데 노래극 〈선생님 힘내세요〉 (공동창작, 1989)와 마당극 〈새날이 올 때까지〉(공동창작, 1989)이다. 노래극 〈선생님 힘내세요〉는 시극, 노래극, 편지글 낭송, 해직교사가 제자에게 보내는 글, 부당한 처사를 고하는 교사의 의지를 설명하는 글로 이어지는 집체극 형식으로 당시 해직교사가 무대 위에 오르자 슬픔과 안타까움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새날이 올 때까지〉(공동창작, 1989)는 참교육문제를 주제로 하였다. 〈선생님 힘내세요〉 와 〈새날이 올 때까지〉는 1989년 5월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의 기치를 걸고 탄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의 해직교사 문제가 소재다.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비참한 내용을 담았다. 노래극 〈이 작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노래패 어울림, 1990)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의 갈등을 다루었다. 비민주적 교육현실 속에서 현실모순의 원인을 분단에는 찾는 노래극이다. 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 기념작품 노래극 〈다시 오월에〉(공동창작, 1990)는 5월 항쟁에 참여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민주화를 위한 대중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며 1980년 5월의 회상을 노래, 상황극, 춤, 영상, 나레이션으로 구성된 집체극이다.

1980년대 목포지역의 마당극은 민중적 사관에 입각하여 목포 인근 도서의 역사와 주요 사회적 사건을 소재로 삼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생활문화에 가장 가까운 노래장르를 주요 실천기반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집체극 형식의 노래극 공연이 활성

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래사랑회, 탈춤사랑회, 풍물사랑회, 연극사랑회와 같은 문화 소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전문적 기량을 갖춘 극패, 노래패, 미술패가 모여 조직한 「목포민족문화운동연합」의 조직된 역량에 기인한다. 노래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와 요구가 맞물려 대중조직화 사업에 효율적이었고, 더 나아가 공연으로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마당극과 관련한 창작력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 작가시스템의 도입과 기성연극의 재상연으로 생산력을 높이게 된다.

다양한 사회극

1990년대는 통일극, 아동극, 청소년극, 환경극, 사회극 등 다양성을 띠면서 양적 팽창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제작된 무대극 〈달성동 문씨네〉(공동창작, 1991)는 도시 노점상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실제 「갯돌」 배우의 아버지를 모델로 삼았다. 1988년 올림픽 이후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미명아래 자행되었던 노점상 철거문제와 달동네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고 있는 사회극이다. 당시 「목포노점상연합회」가 발족하였고 「갯돌」이 투쟁현장에 풍물을 들고 적극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동극 〈우리들의 둥지를 찾아서〉(정경이작, 1991)는 공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렸다. 노동현장에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 할 수 없는 현실, 간부들의 인권유린, 노조탄압을 다루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고 있다. 목포의 코스모스전자 위장폐업 조치에 반발해 노조가 폐업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자 「갯돌」은 그들을 지원하면서 노동자들과 가까워졌고, 이 과정에서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마당극으로 만들어 YWCA강당에서 공연하였다.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도 여러 편이다. 〈불감증〉(주인석작, 1990)은 무대극으로 군대 내무반을 주 무대로 사병의 일상을 통해 민족이 당면한 분단모순에 대한 비판과 통일조국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연극〈점아 점아 콩점아〉(김명곤작, 1993)는 '80년 5월 광주에서 죽어간 총각과 6·25 한국전쟁 당시 죽은 북한 처녀의 영혼혼례를 통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망자 혼례굿으로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극이다. 〈불감증〉과 〈점아 점아 콩점아〉는 서울의 극단 「아리랑」이 공연한 기성작품이다. 노래극〈내일엔 내일의 태양이〉(노래패 「어울림」, 1993) 는 장기수들의 아픔을 다루고 있다. 장기수들의 옥중생활과 고초의 실상을 슬라이드와 노래로 엮었고, 조국 통일은 1평의 감옥에서 30여년을 보낸 그들의 몫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문제임을 나타냈다.

마당극 〈암행어사〉(공동작, 1992)는 영산강을 소재로 한 환경극이다. 암행어사라는 전통적 소재를 활용하고 물고기를 의인화하였고 용궁의 암행어사가 지상으로 급파되어 오염의 원인을 밝혀낸다는 이야기다. 아동마당극 〈뻐끔이는 내친구〉(김은미작, 1995)는 신비의 물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의 모험담으로 바다의 오염과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을 다루었다.

청소년극과 지자체 지원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면 〈흐린 하늘을 나는 새〉(김은미작, 1996)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관한 교육 현실극이다. 〈천재나라 천재아이들〉(김은미작, 1997)은 대학입시로 생긴 '입시장애증후군' 이란 이상한 병에 걸린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한 단면을 풍자하고 있다. 〈내 사랑 따개비〉(김은미작, 1999)는 청소년들의 꿈과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고민을 함께 나눈다. 이외에도 연극 〈아리랑〉(김명곤작, 1996)은 일제시대 때의 영화예술의 선구자 나운규의 아리랑을 소재로 '아리랑' 은 소리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광대의 삶속에서 보여주었다.

가족극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작품도 있다. 마당극 〈 '98, 목포의 눈물〉(정우재작, 1998)은 역사극 성격도 강하지만, 192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대홍수를 소재로 다룬 목포출신의 박화성의 소설 〈하수도 공사〉를 토대로 1920년대 일제하의 대규모 하수도 공사장에서 근대화의 희망 속에 안는 절망에 대한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악극 〈아빠의 청춘〉(김명곤작,1999)는 우르과이라운드로 집안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가출한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마당극〈천불천탑〉(공동창작, 2000)은 화순운주사축제작품으로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의 "이 골짜기 안에 천불천탑(千佛千塔)을 하룻밤 사이에 세우면 수도가 이곳으로 옮겨온다는 것이었다. 도읍지가 바뀌는 세상, 그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곳이었다. 노비들은 새벽에 깨어 일어나 보성만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다." [69]라는 운주사 천불천탑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세상, 민중 세상에 대한 염원을 그렸다.

1990년대의 공연물은 다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공동창작으로 〈달성동 문씨네〉, 〈암행어사〉, 〈천불천탑〉이 있으며, 기성작품이었던 〈불감증〉, 〈점아 점아 콩점아〉, 〈아리랑〉, 〈아빠의 청춘〉 등의 상연, 그리고 지역작가들의 창작에 의한 제작으로 분류된다.

2000년대 부터는 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문화지원이 강화되었고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지역을 홍보하려는 지자체의 문화관광상품차원의 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화관광부 무대공연작품선정작 마당극〈뻘소리〉(1996), 〈암태도〉(2001), 〈섬사람들〉(고은정 구성, 2004),해남군 무대지원작 〈풍랑〉(주정태작, 2005) , 신안군 무대지원 선정작 〈수달장군〉(고은정작, 2006) 외에 목포, 진도, 완도 등지의 지자체 지원 작품들은 마당극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지역정체성을 담보하려는 맞춤형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갯돌」 공연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은 정치적 종속과 문화적 종속을 끊고 목포와 인근 해양도서의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포착하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이었으며,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하며 지역의 동질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작

69) 황석영, 『장길산』 10권, 창작과 비평사,1995, 438쪽

업이었다고 정의 할 수 있다.

3) 광주 5월 연극 전문극단「토박이」

(1) 창단과 활동

동호인극단「토박이」

광주지역에서 무대극을 중심으로 한 연극운동의 시작은 '소극장·문화기획「일과 놀이」' 소속의 극단「일과 놀이」(1983년 8월 창단)부터이다. 당시 광주 연극계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립극단을 창단(1982.11)하였고 창립공연으로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를 공연(1983.4)과 제2회 전국연극제를 광주에서 개최(1984.6)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극단「일과 놀이」는 공연 형식에서 마당극과 무대극을 가리지 않고 하려 했으나, 극단「신명」의 마당극 활동이 있었고, 무대극을 통해서도 문화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에 사실주의 연극을 통해 문화운동을 펼치게 된다. 창단과 함께 의욕적으로 〈단독강화〉(1983.8)[70]의 광주와 부산공연, 그리고 〈여우와 포도〉(1983.10)를 공연하였다. 그러나 소극장·문화기획「일과 놀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탄압으로 극단 등록이 취소되어 활동이 중지되고 만다. 그러나 극회「광대」와 극단「일과놀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박효선의 노력으로 전남대 연극반 출신[71]을 중심으로 극단「토박이」를 창단(1984.11.22) 하였다. 이로써 광주지역에서는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운동은 마당극을 중심으로 하는 놀이패「신명」과 사실주의 연극을 중심으로 한 극단「토박이」가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게 된다.

극단「토박이」의 창단은 전남대 연극반 출신의 동호인모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창단공연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극작가 A.밀러 작 〈세일즈맨의 죽음〉(1984.3, 김세근 연출)을 남도예술회관에서 공연하였고, 이후에 황석영의 소설을 각색한 〈이웃사람〉(1984) , 제3세계연극 〈하이파에 돌아와서〉(1985), A.밀러 작 〈시련〉(1986)등 사회극 중심의 번역극과 기성작품을 상연하였다. 인간이 속한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문제와의 관계를 포착하고 묘사하는 국내외 진보적 희곡들이었다.

동호인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극단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는 시기는 1987년이다. 당시 극단 내부는 번역극 중심의 활동파와 창작극 중심의 활동파로 양립된 상태였으나,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한 창작극 〈어머니〉(1987.5)와 박효선의 〈잠행〉(1987.7)[72]을 공연하면서 창작극 중심의 활동파가

70) 연출:김태종, 기획:김선출, 전용호
71) 박효선을 중심으로 김세근 교수를 비롯하여, 전남대 연극반 출신인 박정권, 이희규, 이규담, 은승, 김경희, 최재근, 임홍, 정옥희, 노경수... 등
72) YWCA 소강당 공연. 박효선 작 / 최영화 연출. 공연을 못하게 될까봐 「광주교육연구회」라는 명칭으로 공연됨. 실제로는 박효선 연출

힘을 얻었다. 1987년 7,8월의 대투쟁을 보내면서 창작을 통해 전문 연극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며 새롭게 재출범하게 된다. 이때부터 전남대 연극반 출신들만의 동호인 모임이 아니라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단이 허용되었다. A.밀러 작〈시련〉(1986)공연 이후 1년 반의 공백을 깨고 전문극단으로서 재출범하면서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속에 있는 아픔과 기쁨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룩하는데 연극운동의 좌표를 잡는다.

전문극단으로의 재출범

전문극단으로 재출범의 결의를 다진 극단「토박이」[73]는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다룬 〈산국〉(황석영 작, 박효선 연출, 1987.11) 과 이어서 〈금희의 오월〉(1988)을 공연한다. 창작극 〈금희의 오월〉은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5월 27일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산화한 전남대 이정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금희의 오월〉은「신명」의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과 함께 광주 5월의 진실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으로

'제1회 민족극한마당' (1988)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 전국의 사회단체와 대학 등의 초청이 쇄도하였다. 〈금희의 오월〉의 뛰어난 예술성과 주제성은 한국연극지 '신극사 80년 우수작' 에 선정(1992)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극장의 필요성을 느낀 극단「토박이」는 박효선과 노경수의 개인출자와 단원들의 재정사업과 직접 공사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전용극장 "민들레 소극장" (1989)을 건립한다. 민들레소극장은 시민대중을 만나는 공간, 창작 작품 공연의 공간, 민중문화의 발전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되었다.

> 역사의 주인이요 사회변혁의 주체인 민중의 생생한 삶, 그들의 고통과 환희, 명암과 굴곡과 능선을 민중적 리얼리즘의 관점으로, 민중적 내용을 민중적 형식으로 표현해 낸다. 손수 피땀으로 대본을 써서 무대 위에서 형상화하여 우리가 숨 쉬는 조국하늘 아래 어디서든지 민중과 만나낸다. 그것은 민중 지향성 차원을 벗어나 민중과 함께 있는 것이며 민중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적 각성자의 작업이다.[74]

토박이 소식지에 실린 위의 박효선 글은 그의 연극에 대한 신념이자 극단「토박이」의 정체성으로 연극운동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금희의 오월〉(1988년), 〈부미방〉(1989년), 〈딸들아 일어나라〉(1989년), 〈아빠의 노래〉(1991년), 〈김삿갓 광주 방랑기〉(1992년), 〈모란꽃〉(1993년), 〈났네 났네 난리가 났네〉(1994년, 동학100주년 기념굿 , 정읍에서 공연), 〈아버지에게도 눈물

---

73) 박효선, 노경수, 김경희, 김민영, 김정규, 송태웅, 서현희, 1기 연구단원:송은정, 노병갑 등.
74) 박효선,「새날을 맞으며」,『토박이 소식지』 제 1호, 1988.12.

이 있다〉 (1994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1995,홍희담 원작, 박효선 각색, 연출), 〈광주mbc오월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 (1996년), 〈태봉굿〉 (1996년), 가족뮤지컬 〈가물치 왕자〉 (1996년), 광주MBC 오월다큐드라마 〈밀항탈출〉 (1997년), 〈청실홍실〉 (1997년), 오월 비디오 영화 〈레드 브릭, RED BRICK〉 (1998년) 등 의 창작과 공연활동이 이어졌다. 위 대부분의 모든 작품은 박효선 작, 연출이다. 이에 극단「토박이」의 80년대에서 90년대로 이어지는 활동은 박효선의 연극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에 박효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광대 박효선

박효선은 7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화운동가이며 연극운동가이다. 그의 연극과의 인연은 전남대학교 국문과 재학 중 연극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남대 연극반 시절,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잡혀가는 학과 친구들을 바라보며 대학 강당에서 외국연극이나 흉내 내는 모습에 심한 자괴감을 가졌고, 일종의 도피처럼 군대에 입대하였다. 군 제대 후 복학하여 연극반에서 의식화 교육과 함께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온 작가 황석영 등과 함께 지역문화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전라도 마당극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함평농민들의 고구마 피해 보상 싸움의 성공사례를 극화한 〈함평 고구마〉 (1978년)의 극작과 전라도 최초의 마당극패 활동을 한 극회「광대」의 〈돼지풀이〉의 공동 연출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윤상원과 박관현을 중심으로 박용준, 김영철, 신영일 등과 광천동 '들불야학' (1978~1981) 문학강학(교사)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연극 작업을 하였다.

극회「광대」의 일원으로 황석영작 〈한씨연대기〉 의 공연연습과「동리 소극장」 건립을 준비하던 중에 5월 광주항쟁이 발생한다. 그는「광대」 단원들과 함께 항쟁에 참가하여 항쟁지도부 홍보부장[75] 을 맡아 투사회보제작, 문화선전활동, 도청 앞 궐기대회 등의 활동을 주도 하였다. 광주가 진압당한 이후 그는 20개월간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서울의 한 극단에서 연극수업을 할 정도로 연극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이후 광주에 내려와 소극장 · 문화기획「일과놀이」와 극단「사랑방」(1982)에서 극작 · 연출을 하다가 극단「토박이」(1983)를 창단하고 15년 동안 지속적인 창작과 연출활동을 하였으나, 광주 5월 비디오 영화를 제작(1998)하던 중 간암으로 숨졌다. 박효선의 작품은 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이 모든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 그가 남긴 작품의 대부분이 광주의 5월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당시 자신이 광주항쟁 도청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난 어쩌면 살인자다. 그 마지막 날 밤 자정부근, YMCA에서 잠들어 있던 백 여명의 청년들을 도청으로 데려다 주고 난 다시 와이로 돌아와 총을 들고 이층의 한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책상

75) 당시 위원장 김종배, 대변인 윤상원, 기획부장 김영철 등이 중심이 되어 투사회보 제작.

밑에 엎드려 있었다.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 왔다. 한 여인의 처절한 가두방송 목소리가 온 광주 시가지를 울리고 있었다. "광주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청 앞으로 나와 광주를 지킵시다 · · ·" 난 그렇게 한 두 시간을 지키고 서있었다. 문득 도망쳐야 한다고 난 생각했다. 난 YMCA건물 밖으로 나섰다. 도청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도청 앞 광장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이 고즈넉했다.[76]

극단 「토박이」를 통한 박효선의 연극 활동은 1980년 5월 27일 마지막 날 밤에 대한 기억처럼 그가 아직 살아 있음에 대한 죄의식에서 묵묵히 무대에서 5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5월 항쟁에 참여하였다가 살아남은 자가 지닌 숙명적인 책무이자 삶의 투쟁이었는지도 모른다[77]. 광주 5월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남도 민중의 역사의식과 저항정신을 모범적으로 그려 냈으며 예술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분야에도 박효선은 광주 MBC와의 공동제작으로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드라마 〈시민군 윤상원〉(1996)의 극작과 윤상원 역할을 맡았다. 이어서 두 번째 다큐드라마 〈밀항탈출〉(97.4)도 광주 MBC와 공동제작하게 되는데 〈밀항탈출〉은 5 · 18 주동자로 지목되어 1993년까지 광주 5 · 18 최후의 수배자로 쫓겼던 윤한봉의 행보를 조명하였다. 〈시민군 윤상원〉과 〈밀항탈출〉은 충실하게 재현된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로서의 극적 요소를 적절히 배합한 다큐멘터리였다. 증언과 기록으로서의 연극, 저항과 실천으로서의 연극, 그가 지켜온 작품의 세계는 분명 광주 민중 항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고 또 항쟁의 연극적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78] 극단 토박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박효선의 연극은 철저히 사실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험성 짙은 민족적 리얼리즘극으로 요약된다.

5월극 전문극단 「토박이」

연극 〈모란꽃〉(1993)은 전남대 심리학과 오수성 교수의지도와 공동 협력으로 만든 작품으로 극단 「토박이」가 5월극 전문극단[79]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만든 작품이었다. 〈금희의 오월〉이 희망을 보여준 작품이라면, 〈모란꽃〉은 항쟁 이후 살아남은 자들의 계속되는 슬픔을 그렸다. 「민들레 소극장」에서 1993년 10월 개막해서 1994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속 공연한 대표작 중의 한편이다. 〈금

---

76) 박효선, 「삶에 대한 단상 」, 『오월광대』, 극단 토박이 , 2003, 97쪽.

77) 1983년 남편은 5월 항쟁 전문극단 토박이를 창단했다. 5 · 18당시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연극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노이로제 증상에서 벗어났다. 자기와 싸웠던 사람들이 하난 둘 죽어가자 5 · 18을 작품화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알리고자했다. 남편이 5 · 18광주민중항재의 실상을 연극으로 올린 몇 편 가운데 〈금희의 오월〉, 〈모란꽃〉,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가 대표작이다.(5 · 18기념재단 자료 중 박효선 부인의 증언)

78) 박영정, 「증연과 실천으로서의 연극」,앞의 책, 2003, 109쪽.

79) '90년대 주요 활동단원: 박효선, 서현희, 신동호, 임해정, 송은정, 나창진, 강진희, 김영환, 송호, 이지연, 김경순, 박종민, 양수근 등.

희의 오월〉과 〈모란꽃〉은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친 작품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모란꽃〉은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의 추천을 받아 제4회 민족예술상(1994.2)과 '제4회 윤상원상' 을 수상하였다. 영국 예술위원회(ACE)의 피터 위원장이 한때 언급했던 '예술은 지역사회의 심장부에 위치한 변화의 동력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토박이」의 '5월 연극' 활동은 예술이 인간의 삶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며, 때론 치유 효과를 가져다주는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란꽃〉은 1994년 5월에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윤한봉의 주선과 재미한국청년연합 초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7대도시를 순회공연 하였다. 〈모란꽃〉에 이어 〈금희의 오월〉도 5·18 특별법이 제정되던 1996년도에 북미주 7대도시를 순회공연 하였고, 북미주 4개 도시에서는 민족극에 관한 워크샵도 개최하였다. 〈금희의 오월〉과 〈모란꽃〉의 해외공연은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과 함께 광주 '5월 항쟁' 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광주만의 5월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지구촌에 광주 5월의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남도 민중의 역사의식과 저항정신에 대한 예술적 표현이었다. 또한 재외동포들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조국과 핏줄의 소중함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예술의 수준과 역량을 국제무대에 보여주었다.

1995년도에 「민들레소극장」은 전남대 앞의 시대를 마감하고 광주 중심가에 있는 예술의 거리로 옮긴다. 극단 「토박이」는 전남대 앞 「민들레 소극장」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의 거리로 소극장을 옮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창작 공연은 물론, 시민 연극교실, 어린이 연극학교, 청소년 연극학교 등을 열어 연극교육을 활발히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농민회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 연극교실', '농민연극교실' 등을 열어 노동자 농민의 건강한 연극문화 창조에도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80년대에 이어 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마당극이 새로운 대상과 공간에 대한 실험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극단 「토박이」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5월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진실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역사화되고 광주지역만의 문제로 밀려나던 시기였다. 그러나 연극이 마당극과 다르게 쉽게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던 점과 무엇보다도 박효선의 열정과 창작력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극단 「토박이」는 극작과 연출, 그리고 극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박효선의 작고 이후 분단의 아픔을 그린 〈새는 앉는 곳마다 깃이 떨어진다〉(98.12)의 공연과 다음 해의 재공연,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공연으로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1999.5)를 재공연하였고, 이강백 작의 조장된 위기의식 속에서 대중들이 지혜를 빼앗긴 채 독재적인 권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패러디한 〈파수꾼〉(1999.6) 공연, 가부장적 폭력이 인간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 한 가정을 통해 살펴본 〈차코〉(27번째 정기공연으로 1999.12)공연, 〈가물치 왕자〉(28번째 정기 공연으로, 2000.4)공연, 2000년 5월 광주민중항쟁20주년기념공연 〈금희의 오월〉 전국순회공연, 광주민중항쟁21주년기념 〈청실홍

실〉(2001)재공연, 〈아름다운 율법〉(2001), 〈세상을 뒤집어 보는 연극 세편〉(2001), 〈장미여관 208호〉(2006), 〈마중〉(2011)의 공연 등 지속적인 활동[80]을 하고 있다.

극단「토박이」의 활동에는 박효선이란 한 인간의 자아와 개인적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핵심요소인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박효선의 희곡작업과 연극은 80년 5월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과 경험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남도 민중의 저항정신을 중심에 놓고 광주 5·18의 투쟁사와 그 정신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연극은 관객과의 예술적 체험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현장성과 동시성을 갖고 있는 예술이다. 연극을 통해 관객들은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하나의 집단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시대에 경험한 사건에 대한 동일한 의미의 기억과 회상은 집단적으로 잠재적 힘을 갖게 한다. 박효선과 극단「토박이」의 연극운동은 광주의 5월의 진실과 정신을 알리는데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브레이트나 아우구스트 보알의 경우처럼 연극이라는 표현 예술을 통하여 현실을 환기·재현하는 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의 모순을 인식시키고 연극적 사실을 통해 현실을 바꾸자는 연극운동이었던 것이다.

(2) 작품의 주제의식

번역희곡과 기성작품

극단「토박이」작품은 창단 초기의 동호모임 성격시절에 번역극이나 기성작품을 공연했던 시기와 전문극단으로서의 위상을 바꾸게 된 뒤의 창작극으로 구분된다.

창단 후 첫 작품은 현대 희곡의 거장인 아서 밀러의 미국의 대표적 희곡 중 하나인〈세일즈맨의 죽음〉(1947년 퓰리처 상 수상작, 1984년 공연)이다. 노동력을 착취한 뒤 이용 가치가 없어져버리면 버리는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으며,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허망한 꿈을 쫓는 소시민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그의 다른 작품 〈시련〉(1986년 공연)은 17세기말 미국 메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실제 있었던 마녀사냥을 모티프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매카시즘의 광풍을 그려낸 작품이다. 세일럼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사회 안에서 횡행하는 집단적 공포 분위기의 무자비한 횡포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이 파괴되는 과정과 함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개인의 갈등을 담아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공연되고 사랑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희곡 중 하나이다.

〈이웃사람〉(1984년 공연)은 민초들의 건강한 생명력을 포착하고 민중적 전망을 추구하고자 했던 작가로 알려진 황석영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서울변두리에 살며 막노동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80) 2000년대 주요 활동 단원: 신동호, 임해정, 송은정, 나창진, 강진희, 박정운, 김수현, 양우연 등.

한 사나이의 처참한 생활을 회상을 통해 전개시키는 내용으로 197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에 초점이 맞춰서 경제적인 혼란과 국제적인 정치의 긴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산국〉(1987년 공연)은 황석영의 희곡으로 구한말 일본군은 의병토벌이라는 명분아래 방화, 살인, 강간을 자행하고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는 시기에 이름 없는 민중들이 보여주었던 순결한 생명력과 저항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외세와 봉건적 체제에 대항하는 능동적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팔레스타인의 비극과 제3세계국가와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하이파에 돌아와서〉(1985년 공연)도 공연하였다. 극단 「토박이」 의 초기 작품은 80년대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비유와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민중들의 저항적 의지를 보여주는 희곡의 상연이었다.

광주 5월 연극

전문극단의 표방(1987) 이후 대부분의 공연은 광주 5월을 소재로 삼고 있다. 80년 5월에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였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의 충돌과 광주의 진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는 아픔과 기억을 작품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기에는 다른 진보적 연극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딸들아 일어나라〉(1990.1)와 〈아빠의노래〉(1991)와 같은 노동극과 〈김삿갓 광주 방랑기〉(1992.5)와 같은 광주 5월과 현재의 상황을 대비시켜 5월정신의 계승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노래하라 그대〉(1993.4)와 같은 교육극도 공연하였다.

먼저, 〈잠행〉은 1985년에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도서출판 광주)에 기고했던 희곡으로 1992년에 〈그들은 잠수함을 탔다〉란 제목으로 공연된 작품이다. 5 · 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수배생활을 하던 두 운동가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두 인물은 끊임없이 지난 항쟁의 대의와 명분에 대한 환기와 아울러 현실의 상황이 여전히 질곡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며 출구[81]를 찾는다.

〈금희의 오월〉 (1988)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전격적으로 다룬 사실주의극이다.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한 전남대 재학생 이정연[82]의 여동생 금희의 눈을 통해 본 광주의 실상과 인간 공동체의 가치를 의미화하고 있다. 광주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 고여 있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잊지 못하는 금희가 지닌 기억의 시선을 통하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적 패배감 속에서도 앞으로의 승리를 예견하는 희망을 심어준다. 5월 18일부터 31일까지의 사건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기록극은 보통 사회개혁의 의도를

81) 실제 80년 5월 이후 윤한봉과 함께한 작가의 도피시절을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윤한봉은 학생운동세력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고 있었고, 박효선은 마지막 날 도청을 빠져나와 서울로 도피하여 윤한봉과 함께 숨어지낸 두 사람의 이력이 있다. 〈잠행〉 은 그 때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작품에 나오는 남1은 윤한봉이며, 남2는 작가 자신을 모델로 삼고 있다. 박효선 스스로의 실제 잠행은 5 · 18 직후에 있었지만 살아남은 자로서의 자의식과 상처 때문에 1980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잠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82) 이정연 묘지번호 2-50 1960년생이며 당시 전남대학교 상업교육과 2학년생으로 1980년 5월 27일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총상(좌흉부 관통, 우측두부 두정골 맹관, 좌하퇴부 맹관): 5 · 18 기념재단,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5 · 18기념재단. 2005, 419쪽.

지향한다' 는 독일 극작가 키프하르트의 말처럼 이 작품은 기록 자체나 제시 자체로 머물지 않고 관객 모두로 하여금 헝클어진 역사에 대해 단순한 방관자로 머무르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개혁 의지의 주체가 대인동 시장바닥의 행상이요 노동자임이 확인 될 때 광주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파악한 창작의 통찰력이 부각되고 있다.[83] 시장사람들의 공동체 모습에서 광주항쟁을 가능케 한 기본적인 힘의 원천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연극이다.

〈부미방〉 (1989)은 1982년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과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거행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전개과정을 사실적으로 다룬 연극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국가의 폭력 근성을 경험하면서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이며, 냉전체제 아래 형성된 동맹관계인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의구심을 갖던 시기였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군대가 동원되어 광주민주항쟁을 진압했을 리 없다는 유추 때문이다. 그간 한국사회가 갖고 있었던 미국에 대한 믿음이나 가치였던 맹방으로서의 이미지와 우호적 관계의 신화를 깨트리며 미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기하였다.

〈모란꽃〉 (1994)은 1980년 5월이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들의 일상을 뿌리째 흔들고, 진실과 인간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광주 5월 항쟁에 참여한 여성을 중심으로, 이후 격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 인간의 충격적 경험과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광주문제의 실체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심리극이다. 극은 주인공의 '실패와 좌절, 절망' 을 '성공 · 희망 · 승리' , '삶' , '민주주의와 해방' 으로의 이행을 1980년 5월 당시의 열흘간의 기억으로부터 찾아간다. 주인공을 통해 광주항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아픈 현실임을 인식시키며, 그 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은 여성들의 고통과 항쟁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실홍실〉 (1997)은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일원으로 도청 항쟁지도부 기획실장을 맡았던 김영철[84] 아내 김순자(극중 김순덕)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오월 광주는 무엇인가?' 를 묻는다. 김영철의 아내 김순덕을 통해 단지 한 가족의 고통, 한 여자의 수난에 찬 삶을 보여주기 위한 극은 아니다. 이 땅의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했던 김영철의 야학활동과 신협운동, '80년 광주 5월 속에서의 도청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활동, 그리고 수감 중의 자살 기도와 고문으로 인한 정신이상, 출감 후의 오랜 투병생활, 그리고 그와 삶을 함께한 가족사에서 역사의 발전 속에 공존하고 있는 잊지 말아야 할 가치와 기억을 재생한다. 남들이 역사에서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그래서 평온한 삶을 되찾은 후에도 학살과 폭력의 시대가 남기고 간 상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상처를 제 것으로 껴안고 살아야 했던 김영철과 그의 기족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무관심과 망각을 일깨웠다. 5월 연

83) 김길수, 「종합예술적 처방의 위력」, 『금호문화』 1988년 6월호, 176-177쪽.

84) '80년 5월 당시 기획실장을 지낸 김영철은 광주YMCA 신협 이사이면서 공장지대인 광주 광천동에서 '들불야학' 을 설립, 운영한 활동가였다. 항쟁 때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로 19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 등 불우한 생활을 하다 1998년 8월 16일 숨졌다

극은 작가 박효선의 경험을 비탕으로 〈잠행〉은 작가의 자기극복 텍스트로 삼았고, 〈금희의 오월〉은 5월 항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부미방〉은 광주 5월 항쟁에 미국의 개입의혹을 공론화시켰으며, 〈모란꽃〉과 〈청실홍실〉은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보여주었다. [85]

광주 5월을 소재로 한 놀이패 「신명」과 극단「갯돌」의 마당극이 광주 5·18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폭로, 사건의 재현, 민중 연대, 죽은 원혼들에 대한 씻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극단「토박이」의 연극은 사실주의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1980년 5월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고 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광주의 진실과 지금도 진행되는 아픔을 극화하고 있다. 광주의 5월이 유족이나 부상자 또는 죽은 영령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며 5월 광주의 의미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실상을 전달하고 기억하게 한다. 또한 광주 5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극으로 형상화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행복 추구권을 위하여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였던 인물과 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었던 사상 등의 표현이 주조를 이룬다.

5. 마당극 운동의 의의와 과제

마당극은 극적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근대극이 지니고 있는 극적 환상의 파괴와 함께 한국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면서, 정치·경제·사회가 지닌 현실모순을 극복하기위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통칭한 연극이다. 연극운동으로서 마당극에 대한 평가는 실천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만이 논의가 가능하다. 놀이패「신명」과 극단「갯돌」, 극단「토박이」는 현실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 평화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역은 물론 전극적인 영역에서 마당극과 연극을 매개로 활동을 펼쳤다. 이들 단체의 활동을 살펴 본 바에서 문화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찾을 볼 수 있다.

먼저, 놀이패「신명」과 극단「갯돌」,극단「토박이」의 마당극과 연극이 한국의 사회현실과 지역현실을 가장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여 당대적이고 전라도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된 창단 동기는 순수 미학적이고 유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예술 활동이 아니라, 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술은 어

85) 작품의 주제의식은 김도일,「박효선 희곡에 나타난 주제의식연구」,한민족어문학회 63집, 2013. 주요 참조.

떤 고상하고 어떤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술은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사회와 무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당극과 연극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전라도의 전통 민속연희의 계승과 현대적 형상화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신명」과 「갯돌」은 지역의 전통굿에서 연극성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형상화를 하고 있다. 이는 춤과 노래 그리고 놀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지만 실제는 내면 의식을 표현하는 형식일 뿐, 공동체 집단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하는 대동굿 성격이다. 전라도 민중의 삶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고 집단적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매체였던 전통적인 마을굿인 두레굿과 민속놀이의 원형과 변용이 마당극의 원리이다. 굿의 본래적 의미와 민속놀이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민중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주요한 기재로 굿의 원리와 민속놀이를 차용 또는 변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식인과 시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층민중인 노동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향유를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당극은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하는 강한 사회 비판성과 민중지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성 연극계의 바깥에서 활동영역을 구축하며 성장하였다. 마당극은 집회적, 행사적, 축제적인 연극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연은 무대공간이 아닌 기층 대중들이 생활공간이었던 거리, 장터, 우시장, 공장, 학교운동장, 마을 공터 등지의 공간에서 특정행사나, 집회, 축제의 일환으로 마당극이 연행됨으로써 누구나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당극이 관객과 배우간의 상호 소통을 통하여 사건 또는 상황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재현해 내는 종합예술로서 대중의 사회화와 의식화를 도우며 민주화운동에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마당극의 상당수는 민족주의적 성격과 민중성을 강하게 가졌었고,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의 모순과 그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단순히 현실의 형상화에만 멈추지 않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 민족국가로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마당극은 곧 정치적 연극이라는 통념[86]을 만들었듯이, 마당극은 연극이란 예술적 행위의 좁은 의미가 아니며, 민족·민중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성격을 분명히 하였고,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탄압에 저항운동의 문화적 상징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한 부문의 역할을 하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광주와 목포의 놀이패 「신명」과 극단 「갯돌」은 특별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광주의 '5·18전야제 행사'와 목포의 '세계마당페스티벌'이다. 1988년에 '광주사태'로 폄하되고 왜곡되었던 5·18민중항쟁이 국가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받게 되고, 처음으로 시행된 제8주년 5월 전야제 행사[87]가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열렸었다. 이후 도청 앞 광장에서 매년 열렸는데, 도청 앞 광

86) 김방옥, 「마당극 연구」, 『한국연극학』 제7호,1995, 234쪽

87) '5월 민중항쟁 계승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 민주세력 공동투쟁위원회(약칭5공투위)' 주최, 광주만중문화운동협의회 주관으로 판소리, 민중노래, 진혼굿으로 진행되었으며 놀이패 「신명」의 연출 김도일, 안무 김은희가 맡았다. 당시 광문협을 중심으로 5월 문화 투쟁은 문학패의 詩 벽보 붙이기, 미술패의 플래카드 제작 및 도로바닥 벽화그리기와

장은 '민주광장' 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전야제 및 추모제 등 다양한 5월 행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목포의 '세계마당페스티벌' 은 갯돌 창단 20주년(2001)을 기념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는 「갯돌」 의 발전이 시민들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문화를 다시 되돌려주기" 위한 축제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권 제공' 과 '문화운동' 을 목적으로 기획되어 매년 8월에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 '5 · 18전야제' 행사와 목포의 '세계마당페스티벌' 은 각각 놀이패 「신명」 과 극단 「갯돌」 이 주도적이거나 기획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운동방식으로 축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축제란 한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구성원을 결집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재로서 문화적인 요소가 전면에 부각되었고 그 기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축제[88]이다.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상호 연대의식의 형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축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마당극 운동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어 사회 통합의 장이자 통합된 담론의 발신지로서 역할을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마당극 운동을 주도하였던 「신명」 과 「갯돌」 , 더 나아가 현재 지역 예술단체의 과제라 할 것이다.

6. 결론

마당극은 4 · 19혁명과 5 · 16군사정변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수교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의식과 민족의식을 갖게 된 대학연극반과 대학 탈춤반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전통 민속예술을 계승하며 성장하였다. 마당극은 전통 연희인 탈춤과 우리 민족의 굿과 놀이적 예술전통을 서구의 사실주의 · 서사극 · 표현주의 등 여러 극양식과의 창조적 과정을 통한 현대화의 결과물이다. 즉 마당극은 한국 고유의 연극양식이다. 물론 마당극이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당대의 현실 비판기능과 새로운 예술로 성장하였지만, 마당극의 사회성은 예술성과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광주 · 전남 마당극운동은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으로서 정치적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 함께 성장 · 발전하였다. 특히 정치적 환경은 마당극의 성장과 변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1980년대 민주화운동기에는 현장위주의 공연에서 지역문화운동 과 부문운동으로 성장하였고, 1990년대 민주화이후는 대중운동의 침체와 함께 마당극도 일정기간의 침체가 있지만, 투쟁현장에서 일

스프레이로 구호적기, 연행패의 거리 마당극과 보이지 않는 연극 등을 하였다.

88) 류정아, 『축제인류학』 , (주)살림출판사, 2003, 29-30쪽.

상 생활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활동영역의 확대와 공연양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놀이패「신명」, 극단「갯돌」, 극단「토박이」는 단체가 위치하는 공간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재에서부터 전체적인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담론의 생산과 동시대의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전라도 지역에서 마당극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현실모순의 비사회적인 삶을 공동의 삶에 통합시키는 집단적인 실체의 표현양식으로 대중의 생활체험을 예술적 체험에 의해 공동의 시선으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당극은 현존하는 사회 현상을 단지 수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반영하지만 그 이상의 창조적 세계를 추구하였고, 사회에 대해 친근한 작용과 아울러 적대적 작용도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광주·전라도 마당극은 보여 주었다. 한국적 모순과 지역모순에 대한 접근과 해법을 위한 마당극의 소재와 주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 – 민주주의, 사회정의, 형평성, 공정성, 생명, 환경, 인권 등– 에 대한 열린 공간으로 현실의 비판기능과 계층별 집단 공동체성의 강조를 통하여 새로운 민중예술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당극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억압된 정치적·문화적 체험에 대한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억압적 분위기에 맞서고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문화적 양식이었고, 지역 대중의 공동체적 삶을 확보하고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실현하려는 운동이었고, 중앙에 대한 변방의 하위문화라는 지역문화의 종속적 개념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주체적 문화운동이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도일 · 김은희, 놀이패 신명 엮음,『전라도 마당굿 대본집』, 들불, 1989.

김성희,『연극의 사회학, 희곡의 해석학』, 무예 마당, 1995.

———,『연극의 세계-연극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1996.

김열규,『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김재석,『한국연극사와 민족극』, 태학사, 1998.

갯돌 30년 문화운동 3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갯돌 30 문화운동』,젊은 느티나무, 2011.

류정아,『축제 인류학』,(살림 출판사), 2003.

민족굿회 편,『민족과 굿』, 학민사, 1987.

박효선을 기리는 사람들, 『박효선 추모문집 오월광대』, 극단토박이, 2003.

백현미,『한국연극사와 전통담론』, 연극과 인간, 2009.

서연호, 『동시대적 삶과 연극』, 열음사, 1988.

이경엽,『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이미원,『한국 근대극 연구』,현대미학사, 1994.

이상일,『굿, 그 황홀한 연극』, 강천, 1991.

이영미,『 마당극. 리얼리즘. 민족극』, 현대미학사, 1997.

———, 『마당극양식의 원리와 특성』, 시공사, 2002.

임진택,『민중연희의 창조』,창작과비평사,1990.

정이담,『문화운동론 . 1』, 공동체 ,1985.

정이담 · 박영정 편,『문예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한마당, 1991.

정지창 편, 『민중문화론』, 영남대 출판부, 1993.

조동일,『탈춤의 역사와 원리』, 홍성사, 1979.

채희완 편,『탈춤의 사상』, 현암사, 1984.

한옥근,『광주 · 전남연극사』, 금호문화, 1994.
허 규,『민족극과 전통예술』, 문학세계사, 1991.

〈학위 논문〉

김도일,「1980년대 이후 마당극 연구:놀이패 「신명」, 마당극패 「우금치」, 극단 「함께 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2011.
황루시,「무당굿 놀이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6.

〈학술 논문〉

강영희, 「리얼리즘 정신의 제고를 위하여」『공동체문화』 3집, 공동체, 1986.
김도일,「마당굿〈황토바람〉에 나타난 정치성 연구」,『드라마 연구』33집, 한국드라마 학회, 2011.
———,「박효선 희곡의 주제의식연구」,『한민족어문학회』63집, 한민족 어문학, 2013.
김방옥 「마당극 연구」,『한국연극학』7호, 한국연극학회, 1995.
김성진,「삶과 노동의 놀이」,『문학과 예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학사, 1983.
김월덕,「민족연극학과 한국 연극」,『한국언어문학』41호, 한국언어문학회, 1998.
———,「마당극의 공연학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한국극예술연구』 11호, 2000.
김재석,「마당극 정신의 특질」,『한국극예술연구』제 16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함평고구마〉 연구」『한국연극학』34호, 한국연극학회, 2008.
문호연,「연행예술운동의 전개」,『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박영정,「광주 · 전남지역의 마당굿 운동에 대하여 」,『전라도 마당굿 대본집』,들불, 1989.
박인배,「민중문화운동의 평가와 전망」,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93년 여름호
백현미,「1990년대 한국연극사의 전통담론 연구」,『한국극예술연구』25호, 2007.
서연호,「정치연극의 위상과 전망」『예술과 비평』, 서울신문사, 1988년 가을호.
성병희,「민속놀이의 기능과 의미」,『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안종철, 나간채 엮음,「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오수성, 나간채 엮음, 「5 · 18과 연극적 형상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이동일, 「마당극의 歷史와 理論에 관한 硏究」, 『論文集』 34호,1999.
이영미, 「민족극운동의 현단계」, 『창작과 비평』 16권 제2호, 창작과비평사, 1988.

———, 「민족극 개념의 정립」, 『민족극과 예술운동』, 1994년 봄호, 민족극연구회.
———, 「한국 연극의 반성과 마당극운동론의 등장」, 『민족극과 예술운동』, 민족극연구회, 1992년 겨울호.
이은경, 「마당극의 대중성 연구」, 『한국연극연구』 제 6집, 한국연극사학회, 2003.
임진택, 「새로운 연극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80년 여름호.
채희완, 「공동체의식의 문화와 탈춤구조」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0년 가을호.
———, 「70년대의 문화운동-민속극을 중심으로」,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5.
한옥근, 「한국연극에 나타난 정치극의 특성에 대하여」, 『드라마 論叢』 3집,1990.

〈기타〉

각 공연물 팜프렛

민주정부 100년